신어의 조사 연구

(현대시의 신어 연구)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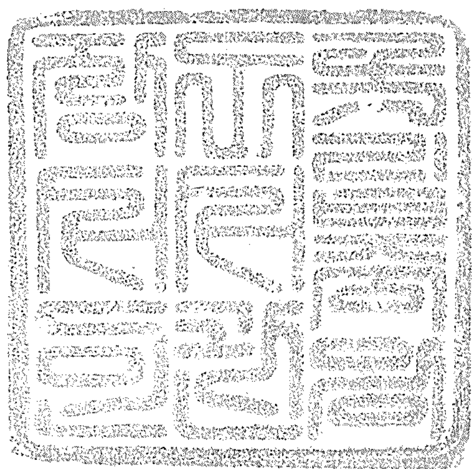
국 립 국 어 연 구 원

신어의 조사 연구

(현대시의 신어 연구)

1996

국립국어연구원



1524221

머 리 말

오늘날처럼 문화가 복잡해지고 다양화하는 풍토 속에서는 필연적으로 수 많은 신어가 생겨난다. 이렇게 생겨난 신어는 우리의 일상 생활에까지 파고들어 그 지위가 굳어지는 것도 있고, 잠시 쓰이다가 소멸되는 것도 있다. 이러한 신어의 생성소멸은 사회와 문화의 변화를 그때그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그 동안 이에 대한 조사를 계속 사업으로 펼쳐왔다. '94년과 '95년에는 그 해의 신문과 잡지에 사용된 일반 어휘들 가운데 사전의 표제어로 오르지 않은 항목들을 조사하여 연구 보고서로 발간하였다.

그러나 신어 조사를 제대로 하자면 대상 문헌의 범위와 선정의 기준 등을 먼저 객관적으로 체계화하여야 하고, 사전에 오르지 않은 단어들이라도 생성 시점, 사용 시점이 조사 시점과 일치하는 경우라야 순수한 신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20년 전에 만들어진 말이라면 그것은 신어라기보다는 사전에 실리지 않은 어휘, 곧 미등재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성 시점이 분명한 어휘들 가운데 조사 시점과 일치하는 항목들만을 신어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이들은 문헌에 정착되기 전에 구어로 사용되는 수도 있으므로 문헌적인 조사만으로는 이를 밝히기가 어렵다. 더구나 신어들이 미처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채 쓰이고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는 미등재어로 분류되지만, 이들이 생명력을 얻지 못할 때에는 곧 잊혀지는 수도 많다. 이처럼 신어와 미등재 어휘의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올해의 신어 조사는 그 개념을 확대하여 미등재 어휘까지를 대상으로 삼는 방법을 택하였다. 곧 현대에 들어와 생성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사전에 오르지 않은 어휘는 현대라는 시점에서 신어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 문헌의 시점을 그 해로 제한하지 않고 현대적인 문헌으로 확대해 본 것이다.

이러한 기준 위에서 올해의 신어 조사는 우선 1908년 이후부터 1994년까지의 현대시 10,886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사실, 문학은 우리의 현실적 삶을 토양으로 한 허구의 세계이므로 우리 말은 문학 작품 속에서 걸러지고 변화하다가 안정을 찾기에 이른다. 여기에는 구어와 문어가 고루 녹아 있다. 특히 시는 압축과 상징으로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이어서 일상적인 언어일지라도 시에서는 색다르게 쓰일 뿐 아니라, 새로운 조어형으로 나타나는 수도 많기 때문에

GP 714.7-국341ㅅ

이들은 신어 체계의 한 부분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현대시를 먼저 조사 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사 결과 사전에 오르지 않은 말 1166항목이 모아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사 방법을 바꾸다 보니 뜻풀이까지 내새우지는 못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거기까지 힘이 미치지 못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다만, 우리 연구원은 문학의 각 장르에 나타난 신어들을 앞으로도 매년 조사하여 보고함으로써 후일의 연구에 대비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1996년 12월 26일

국립국어연구원

원 장 송 민

차　　례

머리말 ……………………………………………………………… III
차　례 ……………………………………………………………… V
현대시의 신어 연구 ……………………………………………… VI
  1. 연구 목적 ……………………………………………………… VI
  2. 조사 및 제시 방법 …………………………………………… X
  3. 조사 결과의 분석 ……………………………………………… XI
  4. 맺음말 …………………………………………………………… XVII
신어 목록 …………………………………………………………… 1
  ㄱ ……………………………………………………………………… 1
  ㄴ ……………………………………………………………………… 30
  ㄷ ……………………………………………………………………… 43
  ㄹ ……………………………………………………………………… 59
  ㅁ ……………………………………………………………………… 60
  ㅂ ……………………………………………………………………… 83
  ㅅ ……………………………………………………………………… 103
  ㅇ ……………………………………………………………………… 138
  ㅈ ……………………………………………………………………… 187
  ㅊ ……………………………………………………………………… 213
  ㅋ ……………………………………………………………………… 229
  ㅌ ……………………………………………………………………… 229
  ㅍ ……………………………………………………………………… 237
  ㅎ ……………………………………………………………………… 244
조사 대상 시 목록 ………………………………………………… 269

현대시의 신어 연구

1. 연구 목적

1.1. 논의의 배경

新語는 일반적으로 新造語를 지칭한다. 사회의 변화와 문화의 다양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는 현대에 우리는 새로운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을 만들며, 이미 만들어진 말이라 하더라도 언중의 표현 욕구에 의해 기존의 형태를 조금 바꾸기도 한다. 이러한 신조어들은 雅語 이외에도 俗語, 卑語, 隱語 등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조어에 대하여는 단어의 生成 時點과 使用 時點이 調査 時點과 일치하는 단어들로서 사전에 오르지 않은 것들로 엄격히 제한하여 그 개념을 파악하려고 한다. 단어의 생성 시점이 조사 시점보다 몇십 년을 앞서는 것들이거나 사전에 올라 뜻풀이된 단어일 경우 신조어가 아니라고 본다. 그렇다면 사전에 올라 있지 않은 '계파성', '고급화', '낚시인', '노땅', '대활약', '동거녀', '동정표', '마마보이', '무허가업소', '비주류', '비회원국', '특권적', '패션계', '폭력성', '피크타임', '한계성', '협력체' '회담장' 등의 단어[1]를 최근의 문헌에서 발견하였을 때 이를 신어로 판단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는가? 이들을 신어로 판단하는 데에는 사람마다 이견이 있다. 기존의 신어에 대한 논의 아래에서는 이들이 비록 사전에 오르지 않았더라도 그 생성 시점이 조사 시점보다 훨씬 앞서므로 사전의 미등재어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이 단어들은 신어로 볼 수 없는 것일까? 비록 생성 시점을 명확히 짚을 수는 없으나 이들은 현대적인 의미를 띠고 있고,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에 없는 것으로 미루어 해방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가까이는 10년 내외에서 멀리는 4~50년 전으로 그 생성 시점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신조어로 판단하려는 단어들 가운데 그 생성 시점과 사용 시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이다. 게다가 이들 가운데는 문헌에 나타나기 전에 口語로 사용되다가, 한때 문헌에 그 모습을 보였으나 언중들에 의해 생명력

---

1. 국어연구원에서 1994년에 발간된 '신어의 조사 연구'에서는 이들을 신어로 판단하고 있다.

을 부여 받지 못하여 미처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채 곧 잊혀지기도 한다. 따라서 생성 시점과 조사 시점이 일치하는 단어가 신조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문헌적인 조사만으로는 미등재어와 신조어를 구분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2. 신어의 개념

생성 시점과 사용 시점, 조사 시점이 명확하게 일치하는 어느 한 시점에서 발견되는 신조어는 유행어가 주류를 이루며, 口語的인 俗語나 卑語, 隱語와 같은 특수어로 분류할 수 있는 단어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전부가 그렇지 않지만 일정 기간을 거쳐 언중들로부터 생명력을 얻은 후에 문헌에 정착하게 된다. 생명력을 얻지 못할 경우는 잠시 쓰이다가 잊혀지게 되는 유행어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신어 조사를 속어, 비어, 은어에 국한하지 않는 한 생성 시점 대신 생성 시대로 개념을 확대하여 적용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성 시점이 분명한 단어들 가운데 조사 시점과 일치하는 것들만을 신조어로 파악하려는 태도에서 한 발 비껴서서 신조어에 대한 다른 해석을 시도하려고 한다. 신어에 대해서 생성과 조사의 시점 대신 '時代'라는 기준으로 이들을 정리할 때, 비로소 앞의 논의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미등재어와 신조어를 포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즉, 현대의 문헌에서 사용된 미등재어를, 현대라는 시대 구분 위에서 생성된 신조어로 파악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 아래에서는 평안도 방언에서 기차의 의미로 쓰이는 '불술기'를 신어로 판단할 수 있다. 기차가 처음 우리 나라에 소개된 때가 현대이므로 '불술기'는 이 시대에 처음 생성된 단어임이 분명하고, 동시대의 문헌에 사용되었으나 사전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에서 잠시 언급한 '계파성', '고급화', '낚시인', '노땅', '대활약', '동거녀', '동정표', '마마보이', '무허가업소', '비주류', '비희원국', '특권적', '패션계', '폭력성', '피크타임', '한계성', '협력체' '회담장' 등의 단어들는 현대의 문헌에서 쓰이고 있다. 그리고 남북한의 사전을 통틀어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들은 해방 이후에 생성된 단어들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들 모두를 현대에 생성된 신어로 판단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고 본다.

1.3. 신어 조사의 효용과 과제

신어 조사는 국어 어휘론 연구의 기초이며, 신조어의 형태소 결합 양상은 조

어법 연구에 있어 주요 관심 대상이다. 또한, 언어 변화의 방향을 가늠하여야 하는 국어 정책 분야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신어에 대한 조사가 제 궤도에 올라 이러한 수준까지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조사 대상 문헌의 범위와 선정의 기준 등을 먼저 객관적으로 체계화하여야 한다. 생성 시점과 조사 시점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수집된 단어들은 개별화되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신어 조사를 통해 언어 변화의 방향을 가늠하고, 그 자료를 국어 정책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사된 단어들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데에만 역점을 두어서는 안된다. 여러 개의 시점별로 현대를 분할하여 조사한 후, 단어 항목들을 분류하여 수평적으로 이들을 비교·검토해야 할 것이다. 일정한 기준으로 조사 대상 문헌을 선정한 후 분야에 따라 체계화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둘째, 문헌에 쓰인 적이 있거나 현재 쓰이고 있는 어휘들 가운데 사전에 미등재된 어휘들이 조사되어야 하며 이들에 대한 용례를 제대로 검토한 사전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편찬된 사전에 대해 끊임없이 제기되는 지적은 용례를 찾아내어 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데에 미흡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신어 조사를 늘 원점에서 맴돌게 하는 근본 이유가 된다고 생각한다. 사전에 등재할 어휘들을 추려 낼 수 있는 형태론적 기준은 신어를 조사하는 데에도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다. 사전에 등재되지 못한 어휘들이 어떤 유형으로 결합되어 단어나 구의 형태와 의미를 형성하는 지에 대한 객관적 기술은 국어 어휘론 연구에 있어 중요한 기초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지역 방언의 조사와 정리가 보완되어야 한다. 생성 시점을 현대라는 시대로 확대하여 신어를 조사하였을 때 고유어들 가운데 상당수가 지역 방언들로 추정되었다. 특히 해방 이전의 문헌에서는 방언으로 추정되는 단어들이 다수 발견된다. 이들 가운데는 어느 한 지역에서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단어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구체적인 사물을 지칭하거나 추상적인 개념을 드러내기 위해 그 지역에서만 쓰이므로 해당되는 표준어를 찾을 수 없는 것들이다. 이는 조사 대상 문헌의 분야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수한 문제이긴 하지만 공식적인 언어인 표준어의 중요성만큼이나 일상의 언어 생활에서 방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컸음을 의미한다.

이들은 새로운 의미를 얻어 신어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다른 문헌에서 더 이상 그 용례를 발견할 수 없어서 잊혀진 것으로 판단되는 것들도 있다. 또한 분

단 이후 북한의 방언에 대한 조사 정리 작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바가 없으므로 해방 이전의 문헌에 나타나는 방언들 중에는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에도 실리지 않아서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상당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국어 사전에서는 이러한 지역 방언에 대해 표준어만큼 비중을 두어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신어의 개념을 생성 시점에서 시대로 확대하여 보았을 때에 앞에서 언급한 문제들이 과제로 대두된다. 그러나 문헌에서 단어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조사하여 검토하는 방법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시대적 특성이 등질적이고 동시대적인 대량의 문헌을 통해 조사한 신어들에서는 그 시대성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에 걸치는 조사 대상에서는 '금남로'나 '망월동'이 단순히 행정 지명을 나타내는 쓰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징적 의미를 띠고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시점에서 조사된 '민생치안', '불시검문', '사과탄' 등의 단어는 그 시기의 가장 주된 사회적 분위기의 한 면을 보여주는 신어들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등질적이고 동시대적인 문헌을 통해 조사한 신어들을 시점별로 비교할 때 가능하였는데 좀더 다양한 문헌들을 체계적으로 조사해보면 보다 많은 사실들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번 신어 조사는 그 결과를 국어 어휘론 연구와 국어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근본 취지에서 앞의 논점들을 바탕으로 출발하고자 한다. 그 첫단계로 우리 현대시 대표작가 316명의 시10,886편을 대상으로 신어를 조사하였다.

문학의 세계는 우리의 현실 세계 위에 작가의 상상력이 곁들여진 허구의 세계다. 그러나 이 세계는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므로 작가의 내면을 반영하기 위해 사용된 수많은 단어들이 실험적으로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이 생명을 얻기도 한다. 특히 시는 상징적인 언어로 작가의 내면 세계를 전달하는 장르이므로, 우리는 시를 통해 현실 언어에서 일탈된 다양한 쓰임을 지닌 언어들과 접하게 되며, 이들을 통해 새로운 조어형이나 의미의 변형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이 다양한 문학 장르 가운데 현대시를 먼저 조사 대상 분야로 선정한 한 이유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에서는 조사된 항목에 대한 뜻풀이를 하지 못하였다. 이는 앞으로 조사될 각 장르의 신어들과 이미 조사된 신어들을 함께 묶어 연구할 때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2. 조사 및 제시 방법

2.1. 조사 방법

이 보고서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기획하여 편찬한 전자 시집『한국의 현대시』에 실린 10,886편의 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한국의 현대시』는 1908년부터 1994년까지 한국의 현대시사에서 주요 작품을 대규모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CD-ROM 타이틀로 시판되고 있다.

먼저 전자 시집을 대상으로 한 수작업을 통해 신어로 판단되는 시어 3천여개를 모았고, 이들을 6개 사전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일괄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1300여개를 다시 수집, 정리하였다. 이후 시어 하나하나에 대하여 한자 및 철자에 대한 오류와 의미의 변별을 다시 수작업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신어로 판단한 1166개를 선정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 이들 하나하나를 조어 유형, 시대별로 검토하여 분류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빈도도 아울러 조사하였다. 이 분류 작업과 빈도 조사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처리 작업은 Visual Foxpro 5.0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2.2. 제시 방법

신어는 표제어, 인용문, 출전의 순서로 제시하였다.

표제어는 원어를 알 수 있는 것은 원어를 밝혔으며, 용언은 기본형으로 제시하였다.

인용문 안의 표제어는 고딕으로 표시하였다.

인용문은 표제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도록 시의 연을 단위로 제시하였으며, 행의 구분을 위해 '/'을 사용하였다.

인용문은 대체로 원문을 살리되 이해하기에 난해한 구절은 현대어로 표기하였다.

전자 시집의 운영 체제인 윈도우의 문자 코드가 완성형인 까닭에 여기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글꼴은 음소별(音素別)로 파자(破字)의 형태를 취하였고 고어는 원래의 발음에 가까운 현대어로 표기하였다(예: 싀다 → 스ㅣ다, 프리슴 → 프리즘).

띄어쓰기는 시인이 시의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특별히 무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의 표기 원칙을 따랐다.

출전은 < > 안에 시인, 시의 제목, 시집 또는 시가 실린 잡지명, 발표연도의 순으로 제시하였다.

한 시인이 동일한 제목의 시를 여러 작품 창작하였을 경우 제목 뒤에 '-1-,-2-' 등의 구분 표시를 두었다.

장편의 서사시나 연시는 부득이 일부분을 수록하였다.

3. 조사 결과의 분석

3.1. 항목의 분류와 빈도 조사

이번 조사에서 총 1,166 항목의 신어를 찾을 수 있었다. 조사 항목을 다시 한자어, 고유어(방언 포함), 외래어, 단어의 조어법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다음의 표에서 고유어 개수는 방언을 포함한 것이고 방언의 개수는 ( )안에 표시하였다. 빈도 표시는 %로 하였으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한자어	고유어 (방언)	외래어
단일어	299개 (25.6%)	54개 (37개) 4.6% 3.2%	38개 (3.3%)
파생어	341개 (29.2%)	68개 (36개) 5.8% 3.1%	11개 (0.9%)
합성어	112개 (9.6%)	128개 (72개) 11% 6.2%	9개 (0.8%)
구	104개 (8.9%)	2개 (0개) 0.2%	0
합 계 1166 개	856개 73.4%	252개 (145개) 21.6% 12.4%	58개 5.0%

3.1.1. 한자어의 조어적 특성

한자어에는 순수한 한자끼리의 결합한 단어들이 대부분이지만, '한자어 + 고유어' 또는 '고유어 +한자어'의 조어 유형을 보이고 있는 것들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유형들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분류된다. '한자어 + 고유어'의 유형

에는 '한자 어근 + 하다'와 '한자 어근 + 되다'의 파생형이 있고, '유채꽃, 청람빛, 초당집, 황촉불 등'과 같은 '한자어 + 고유어' 복합형이 있다. 접미사 '-하다'의 파생형은 총 126개인데 그 중 한자 어근 파생형은 99개이며 27개는 고유어에 '-하다'가 파생된 형태이다. '-되다'의 파생형은 43개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몽당귀신, 불기침, 뻥뻥차, 사과탄, 삿방, 저륲등'과 같은 '고유어 + 한자어'의 조어형을 보이는 것도 볼 수 있었다. 조어 유형과 빈도를 표로 정리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한자어 + 고유어 유형 (163개)/ 14.1%	고유어 + 한자어
한자 어근 + '-하다' (99개)/ 8.5%	6개/0.5%
한자 어근 + '-되다' (43개)/ 3.7%	
한자 어근 + 고유어 (21개)/ 1.8%	

3.1.2. 고유어의 조어적 특성

고유어로는 방언을 포함하여 총 252개가 조사되었다. 이 중 145개를 지역 방언으로 판단하였는데 대부분은 백석과 이용악의 30~40년대 시에서 발견한 것들이다. 지역 방언에 대한 좀더 정밀한 조사를 진행한다면 방언에 대한 개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지역 방언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은 임의로 고유어로 보았다. 특히 파생형은 68개 가운데는 '-하다'의 파생형이 27개 들어 있다. 이들 파생어에 작용한 접사로는 접두사로 '광-, 한-, 생-' 등이 있었고 접미사로는 '-이,-히,-꾼, -내, -님, -질, -잽이, -배기, -쟁이' 등이 있었다.

3.1.3. 외래어의 조어적 특성

대부분의 외래어는 현행 외래어표기법과 다르게 표기되었기 때문에 조사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는 외래어가 고유어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로 쓰이는 것들도 있었다. 이들은 '고유어(한자어) + 외래어'로 결합하는 형태는 없고 '외래어 + 고유어(한자어)'로 결합한 것들이었다. '딸라이자, 로이도돋보기, 링겔병, 우랄산, 자스민차' 등의 복합어와 '리프레인하다, 시니칼하다'와 같은 '-하다' 파생형, '캠브리아기, 프레스코화' 등의 파생어를 찾을 수 있었다.

3.2. 시대별 항목 분류 및 빈도

3.2.1. 1900년 - 1919년

	한자어	고유어 (방언)	외래어
단일어	5개 (20%)	0개 (0개) 0% 0%	0개 (0%)
파생어	9개 (36%)	0개 (0개) 0% 0%	0개 (0%)
합성어	5개 (20%)	0개 (0개) 0% 0%	0개 (0%)
구	6개 (24%)	0개 (0개) 0% 0%	0개 (0%)
합 계 25/1166	25개 (100%) 2.14%	0개 (0개) 0% 0%	0개 0%

- ※고유어 개수는 방언을 포함한 것이고 방언의 개수는 ( )안에 표시함.
- 빈도 표시는 %로 하였으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3.2.2. 1920년 - 1929년

	한자어	고유어 (방언) (6개) (2개)	외래어
단일어	38개 (50%)	1개 (1개) 16.7% 50%	3개 (75%)
파생어	28개 (36.8%)	1개 (0개) 16.7% 0%	1개 (25%)
합성어	10개 (13.2%)	4개 (1개) 66.7% 50%	0개 (0%)
구	10개 (13.2%)	0개 (0개) 0% 0%	0개 (0%)
합 계 86/1166 (7.4%)	76개 (100) 88.4%	6개(100) (2개) 7.0% 2.3%	4개 (100) 4.7%

- ※고유어 개수는 방언을 포함한 것이고 방언의 개수는 ( )안에 표시함.
- 빈도 표시는 %로 하였으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3.2.3. 1930년 - 1939년

	한자어	고유어 (방언)	외래어
단일어	65개 (40.4%)	25개 (21개) 23.1% 26.6%	6개 (54.5%)
파생어	64개 (39.8%)	28개 (21개) 25.9% 26.6%	2개 (18.2%)
합성어	19개 (11.8%)	54개 (37개) 50% 46.8%	3개 (27.3%)
구	13개 (8.1%)	1개 (0개) 0.92% 0%	0개 (0%)
합 계 280/1166 (24.0%)	161개 (100%) 57..5%	108개 (79개) 38.6% 28.2%	11개(100%) 3.9%

- ※고유어 개수는 방언을 포함한 것이고 방언의 개수는 ( )안에 표시함.
- 빈도 표시는 %로 하였으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3.2.4. 1940년 - 1949년

	한자어	고유어 (방언)	외래어
단일어	36개 (36%)	15개 (9개) 21.7% 20.5%	4개 (80%)
파생어	34개 (34%)	21개 (10개) 30.4% 22.7%	1개 (20%)
합성어	11개 (11%)	33개 (25개) 47.8% 56.8%	0개 (0%)
구	19개 (19%)	0개 (0개) 0% 0%	0개 (0%)
합 계 174/1166 14.9%	100개 (100%) 57.5%	69개 (44개) 39.7% 25.3%	5개 (100%) 2.9%

- ※고유어 개수는 방언을 포함한 것이고 방언의 개수는 ( )안에 표시함.
- 빈도 표시는 %로 하였으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3.2.5. 1950년 - 1959년

	한자어	고유어 (방언)	외래어
단일어	37개 (36.6%)	2개 (0개) 18% 0%	10개 (100%)
파생어	48개 (47.5%)	5개 (0개) 45.5% 0%	0개 (0%)
합성어	6개 (5.9%)	4개 (1개) 36.4% 100%	0개 (0%)
구	10개 (9.9%)	0개 (0개) 0% 0%	0개 (0%)
합 계 122/1166 10.5%	101개 (100%) 82.8%	11개 (1개) 9.0% 0.8%	10개 (100%) 8.2%

- ※고유어 개수는 방언을 포함한 것이고 방언의 개수는 ( )안에 표시함.
- 빈도 표시는 %로 하였으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3.2.6. 1960년 - 1969년

	한자어	고유어 (방언)	외래어
단일어	38개 (36.5%)	1개 (0개) 12.5% 0%	2개 (100%)
파생어	40개 (38.5%)	3개 (0개) 37.5% 0%	0개 (0%)
합성어	12개 (11.5%)	4개 (0개) 50% 0%	0개 (0%)
구	14개 (13.5%)	0개 (0개) 0% 0%	0개 (0%)
합 계 114/1166 9.8%	104개 (100%) 91.2%	8개 (0개) 7.0% 0%	2개 (100%) 1.8%

- ※고유어 개수는 방언을 포함한 것이고 방언의 개수는 ( )안에 표시함.
- 빈도 표시는 %로 하였으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3.2.7. 1970년 - 1979년

	한자어	고유어 (방언)	외래어
단일어	36개 (39.1%)	0개 (0개) 0% 0%	5개 (62.5%)
파생어	36개 (39.1%)	2개 (0개) 22.2% 0%	3개 (37.5%)
합성어	7개 (7.6%)	7개 (2개) 77.8% 0%	0개 (0%)
구	13개 (14.1%)	0개 (0개) 0% 0%	0개 (0%)
합 계 109/1166 9.3%	92개 (100%) 84.4%	9개 (2개) 8.3% 1.8%	8개 (100%) 7.3%

- ※고유어 개수는 방언을 포함한 것이고 방언의 개수는 ( )안에 표시함.
- 빈도 표시는 %로 하였으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3.2.8. 1980년 - 1989년

	한자어	고유어 (방언)	외래어
단일어	41개 (23.8%)	3개 (0개) 8.3% 0%	10개 (71.4%)
파생어	81개 (47.1%)	11개 (0개) 30.5% 0%	2개 (14.3%)
합성어	33개 (19.2%)	22개 (0개) 61.1% 0%	2개 (14.3%)
구	17개 (9.9%)	0개 (0개) 0% 0%	0개 (0%)
합 계 222/1166	172개 (100%) 77.5%	36개 (0개) 16.2% 0%	14개 (100%) 6.3%

- ※고유어 개수는 방언을 포함한 것이고 방언의 개수는 ( )안에 표시함.
- 빈도 표시는 %로 하였으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3.2.9. 1990년 - 1994년

	한자어	고유어 (방언)	외래어
단일어	19개 (35.2%)	2개 (1개) 22.2% 50%	1개 (20%)
파생어	16개 (29.2%)	1개 (0개) 11.1% 0%	1개 (20%)
합성어	15개 (27.8%)	6개 (1개) 66.7% 50%	3개 (60%)
구	4개 (7.4%)	0개 (0개) 0% 0%	0개 (0%)
합 계 68/1166 5.9%	54개 (100%) 78.2%	9개 (2개) 13.0% 2.9%	5개 (100%) 7.2%

- ※고유어 개수는 방언을 포함한 것이고 방언의 개수는 ( )안에 표시함.
- 빈도 표시는 %로 하였으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4. 맺음말

4.1. 신어는 단어의 生成 時點과 使用 時點이 調査 時點과 일치하는 단어들 가운데 사전에 오르지 않은 것들로 그 개념을 제한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연구에서는 현대의 문헌에서 사용된 미등재어를, 현대라는 시대 구분 위에서 생성된 신조어로 파악하였다.

4.2. 한국의 현대시에서 새로운 말을 시에 사용할 때 한자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고유어의 그것에 비해 압도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우리가 막연히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시에서는 방언을 많이 사용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30~40년대의 백석이나 이용악의 시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나 현재 시점에 가까이 오면서 이러한 경향이 현저히 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3. 한자어의 신어적 사용에 있어서도 순수한 한자끼리의 결합한 단어들이 대부분이지만 다양한 조어 유형을 보였다. '한자어 + 고유어' 또는 '고유어 +한자어'의 조어 유형을 보이고 있는 것들도 다수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 유형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었다. '한자어 + 고유어'의 유형에는 '한자 어근 + 하다'와 '한자 어근 + 되다'의 파생형이 있는데 이들이 신어를 형성하는 데에 대

단히 강력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접미사 '-하다'의 파생형은 총 126개인데 그 중 한자 어근 파생형은 99개이며 27개는 고유어에 '-하다'가 파생된 형태이다. 그리고 '한자어 + 고유어'와 '고유어 + 한자어'의 복합형을 보이는 것도 드물게 조사할 수 있었다.

4.4. 고유어로는 방언을 포함하여 총 252개가 조사되었는데 이 가운데 145개를 지역 방언으로 판단하였다. 대부분은 백석과 이용악의 30~40년대 시에서 발견한 것들이다. 지역 방언에 대한 좀더 정밀한 확인 작업을 진행한다면 지역 방언의 개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50년대 이후부터는 시에 나타나는 신어에서 고유어나 방언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다가 80년대에 고유어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이 시대에 시단에 등장하는 한글 세대와 우리 것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는 시대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4.5. 대부분의 외래어는 현행 외래어표기법과 다르게 표기되었으므로 검색된 것이지만 이들 가운데는 외래어가 고유어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가는 것들도 있었다. 이들은 '고유어(한자어) + 외래어'로 결합하는 형태는 없고 '외래어 + 고유어(한자어)'로 결합한 것들이었다. '딸라이자, 로이도돋보기, 링겔병, 우랄산, 자스민차' 등의 복합어와 '리프레인하다, 시니칼하다'와 같은 '-하다' 파생형, '캠브리아기, 프레스코화' 등의 파생어를 찾을 수 있었다. 외래어의 빈도와 관련해서 살펴볼 때 50년대가 가장 빈도가 높았는데, 이는 이 시점의 사회적 상황과 관련해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신어 목록

신어목록

*a 가구가락(可口可樂)

뱉에 역겨운 / 가구가락(可口可樂) 물냄새 / 구국 구국 울어대는 / 멧비둘기 소리. <민영, 용인(龍仁) 지나는 길에, 용인(龍仁) 지나는 길에, 창작과비평사, 1977>

*a 가느숙히

시큼한 배척한 퀴퀴한 이 내음새 속에 / 나는 가느숙히 여진(女眞)의 살내음새를 맡는다 <백석, 함주시초(咸州詩抄), 조광, 1937. 10>

*a 가비야이

우리는 버림받은 자식인가요, 어머니 / 오늘도 뙤약볕 내리쬐는 / 논바닥에 한 웅큼 물 고인 곳을 / 그나마 물이라고 오르내리며 / 그게 마지막 헤엄인 줄은 몰랐지요 / 한많은 당신의 알보재기를 어머니 / 왜 갈라진 논바닥에 뿌리셨어요 / 있는 듯 마는 듯 조금 물 고인 곳이 / 처음엔 우리들의 고향인 줄 알았읍니다 / 하기사 우리들 고향이란 별것 있나요 / 하늘 아래 모든 늪이 내 집이지요 / 끊임없이 세상은 균열되고 / 우리의 작은 늪이 말라붙네요 / 날마다 황토물 속을 오르내리며 / 부글대는 거품만 삼켰답니다 / 아, 숨이 가빠져요, 어머니 / 물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 / 헐떡이는 아가미를 축이고 싶어요 / 어찌해서 우리에겐 발이 없나요 / 아무리 소리쳐도 눈하나 꿈쩍 않는 / 저 무뚝뚝한 논두렁과 / 바위들의 냉담이 나는 미워요 / 우리는 끝내 논바닥에서 죽어갔지만 / 누구 하나 우리를 거두지 않았어요 / 망종 무렵 농부가 물꼬를 틔우고 나서 / 맑은 여울은 가만히 다가왔읍니다 / 여울이 깊은 잠을 흔들어 깨울 때 / 우리들 버림받아 굳어진 몸은 / 푸른 물 위에 가비야이 떠서 / 아주 먼 곳으로 흘러갔읍니다 <이동순, 올챙이, 개밥풀, 창작사, 1980>

*a 가비엽다

온 것을 아주 잊었어라, 깊은 밤 예서 함께 / 몸이 생각에 가비엽고, 맘이 더 높이 떠오를 때. / 문득, 멀지 않은 갈숲 새로 / 별빛이 솟구어라. <김소월, 저녁때, 진달래꽃, 매문사, 1924>

*a 가즈랑집

가즈랑집은 고개 밑의 / 산(山) 너머 마을서 도야지를 잃는 밤 짐승을 쫓는 깽제미 소리가 무서웁게 들려오는 집 / 닭 새 짐승을 못 놓는 / 맷도야지와 이웃 사춘을 지나는 집 <백석, 가즈랑집, 사슴, (자가본), 1936>

*a 가지취

그래도 그 쉬영꽃 진달래 빨가니 핀 꽃바위 너머 / 산(山)잔등에는 가지취 빼꾹채 게루기 고사리 산(山)나물

판 / 산(山)나물 냄새 물씬물씬 나는데 / 나는 복장노루를 따라 뛰었다 <백석, 산(山)&9&, 새한민보, 1947. 11>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백석, 여승, 사슴, (자가본), 1936>

토끼도 살이 오른다는 때 아르대즘퍼리에서 제비꼬리 마타리 쇠조지 가지취 고비 고사리 두릅순 회순 산(山)나물을 하는 가즈랑집 할머니를 따르며 / 나는 벌써 달디단 물구지우림 둥굴레우림을 생각하고 / 아직 멀은 도토리묵 도토리범벅까지도 그리워한다 <백석, 가즈랑집, 사슴, (자가본), 1936>

*a 간탐(奸貪)

간탐(奸貪)의 무리와 어깨를 비비면서도 / 무교동(武橋洞) 같은 데서 / 해질 무렵이면, <김종길, 신처사가(新處士歌), 하회에서, 민음사, 1977>

*a 갈부던

갈부던 같은 약수터의 산(山)거리 / 여인숙이 다래나무 지팡이와 같이 많다 <백석, 산지(山地), 조광, 1935. 11>

*a 갈원(渴願)

그래서 강은 뭇 인간의 / 갈원(渴願)과 오열(嗚咽)을 안으로 안고 / 흐른다. <구상, 강(江)&5&, 구상연작시집, 시문학사, 1985>

*a 감저순

옥같은 서리쌀밥에 절이지를 감아한 사발만 먹고프다던 '돌쇠'엄마는 해산한 뒤 여드렐 꼬빡 감저순만 먹다가 그예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신석정, 이야기&2&, 촛불, 인문사, 1939>

*a 갓사둔

재당도 초시도 문장(門長)늙은이도 더부살이 아이도 새사위도 갓사둔도 나그네도 주인도 할아버지도 손자도 붓장사도 땜쟁이도 큰 개도 강아지도 모두 모닥불을 쪼인다 <백석, 모닥불, 사슴, (자가본), 1936>

*a 갓신창

새끼 오리도 헌신짝도 소똥도 갓신창도 개니빠디도 너울쪽도 짚검불도 가랑잎도 머리카락도 헝겊조각도 막대꼬치도 기왓장도 닭의 지ㅊ도 개터럭도 타는 모닥불 <백석, 모닥불, 사슴, (자가본), 1936>

일가들이 모두 범같이 무서워하는 이 노큰마니는 구덕살이같이 욱실욱실하는 손자 증손자를 방구석에 들매나무 회초리를 단으로 쪄다 두고 때리고 싸리갱이에 갓진창【갓신창】을 매어 놓고 때리는데 <백석, 넘언집 범 같은 노큰마니, 문장, 1939.

4>

*a 갓주지

갓주지 이야기와 / 무서운 전설 가운데서 가난 속에서 / 나의 동무는 늘 마음 졸이며 자랐다 / 당나귀 몰고 간 애비 돌아오지 않는 밤 / 노랑고양이 울어 울어 / 종시 잠 이루지 못하는 밤이면 / 어미 분주히 일하는 방앗간 한구석에서 / 나의 동무는 / 도토리의 꿈을 키웠다 <이용악, 낡은 집, 낡은 집, 삼문사, 1938>

*a 강설기(降雪期)

쓰러져 허리아픈 적막한 국토(國土)를 깨우고 / 비운(悲運)의 구름도 걷혀서 강설기(降雪期)가 끝날 때까지 / 친구여, 너무 쉽게 타협하지 말고 / 불타는 자(者)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다오. <장석주, 올훼여 꿈꾸는 영혼이여, 햇빛사냥, 청하, 1986>

*a 개굴가

무연한 벌 위에 들어다 놓은 듯한 이 집 / 또는 밤새에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아지 못할 이 비. / 친개지(親開地)에도 봄은 와서 가냘픈 빗줄은 / 뚝가의 어슴푸레한 개버들 어린 엄도 축이고, / 난벌에 파릇한 뉘집 파밭에도 뿌린다. / 뒷 가시나무 밭에 깃들인 까치떼 좋아 지껄이고 / 개굴가에서 오리와 닭이 마주 앉아 깃을 다듬는다. / 무연한 이 벌 심어서 자라는 꽃도 없고 메꽃도 없고 / 이 비에 장차 이름 모를 들꽃이나 필는지? / 장쾌한 바닷물결, 또는 구릉의 미묘한 기복도 없이 / 다만 되는 대로 되고 있는 대로 있는 무연한 벌! / 그러나 나는 내버리지 않는다. 이 땅이 지금 쓸쓸하다고, / 나는 생각한다. 다시금, 시원한 빗발이 얼굴에 칠 때, / 예서뿐 있을 앞날의 많은 변전의 후에 / 이 땅이 우리의 손에서 아름다워질 것을! 아름다워질 것을! <김소월, 상쾌한 아침, 삼천리, 1934. 11>

*a 개니빠디

새끼 오리도 헌신짝도 소똥도 갓신창도 개니빠디도 너울쪽도 짚검불도 가랑잎도 머리카락도 헝겊조각도 막대꼬치도 기왓장도 닭의 지ㅊ도 개터럭도 타는 모닥불 <백석, 모닥불, 사슴, (자가본), 1936>

*a 개벽(開闢)되다

주(主)여! / 여기 이 땅에 / 새로운 무공해(無公害)의 정충(精蟲)을 내리소서. / 믿음과 / 소망과 / 사랑으로 / 웃을 줄 아는 종자(種子)를 심어주소서. / 신천신지(新天新地)로 개벽(開闢)된 용화세계(龍華世界)에 / 분수(噴水)처럼 줄기차고 신선(新鮮)한 / 새로운 꽃과 / 새로운 아기들이 / 웃으며 생(生)을 누리게 하옵소서. <림영창, 고독(孤獨)한 자(者)의 기도(祈禱), 1986년 12월 18일, 문무사, 1985>

*a 개장취념

마을에서는 세 벌 김을 다 매고 들에서 / 개장취념을 서너 번 하고 나면 / 백중 좋은 날이 슬그머니 오는데 / 백중날에는 새악시들이 / 생모시치마 천진푀치마의 물팩치기 껑추렁한 치마에 / 쇠주푀적삼 항라적삼의 자지고름이 기드렁한 적삼에 / 한끝나게 상나들이옷을 있는 대로 다 내 입고 / 머리는 다리를 서너 켜레씩 들어서 / 시뻘건 꼬둘채댕기를 삐뚜룩하니 해 꽂고 / 네날백이 따배기신을 맨발에 바꿔 신고 / 고개를 몇이라도 넘어서 약물터로 가는데 / 무썩무썩 더운 날에도 벌 길에는 / 건들건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 허리에 찬 남갑사 주머니에는 오랜만에 돈푼이 들어 즈벅이고 / 광지보에서 나온 은장도에 바늘집에 원앙에 바둑에 / 번들번들하는 노리개는 스르럭스르럭 소리가 나고 / 고개를 몇이라도 넘어서 약물터로 오면 / 약물터엔 사람들이 백재일 치듯 하였는데 / 붕가집에서 온 사람들도 만나 반가워하고 / 깨죽이며 문주며 섶가락 앞에 송구떡을 사서 권하거니 먹거니 하고 / 그러다는 백중 물을 내는 소내기를 함뿍 맞고 / 호주를하니 젖어서 달아나는데 / 이번에는 꿈에도 못 잊는 붕가집에 가는 것이다 / 붕가집을 가면서도 칠월(七月) 그믐 초가을을 할 때까지 / 평안하니 집살이를 할 것을 생각하고 / 애끼는 옷을 다 적시어도 비는 시원만 하다고 생각한다 <백석, 칠월(七月) 백중, 문장, 1948. 10>

*a 걜족하다

이 작고 가벼웁고 갤족한 희고 까만 씨가 / 조용하니 또 도고하니 손에서 입으로 입에서 손으로 오르내리는 때 / 벌에 우는 새소리도 듣고 싶고 거문고도 한 곡조 뜯고 싶고 한 오천(五千) 말 남기고 함곡관(函谷關)도 넘어가고 싶고 / 기쁨이 마음에 뜨는 때는 희고 까만 씨를 앞니로 까서 잔나비가 되고 / 근심이 마음에 앉는 때는 희고 까만 씨를 혀끝에 물어 까막까치가 되고 / 어진 사람이 많은 나라에서는 / 오두미(五斗米)를 버리고 버드나무 아래로 돌아온 사람도 / 그 옆차개에 수박씨 닦은 것은 호박씨 닦은 것은 있었을 것이다 /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베개하고 누웠던 사람도 / 그 머리맡에 수박씨 닦은 것은 호박씨 닦은 것은 있었을 것이다 <백석, 수박씨, 호박씨, 인문평론, 1940. 6>

*a 갯내

갯내도 없는 항구 / 3부두엔 / 검은 고동이 월남 쪽으로 사라진다. <김용태, 전쟁과 항구와 소녀, 원형을 찾아서, 현대문학사, 1975>

*a 갸우숙

갸우숙 바위 틈에 불로초(不老草) 돋아나고 / 채운(彩雲) 비껴 날고 시내

물도 흐르는데 / 아직도 사슴 한 마리 숲을 뛰어드노다 <김상옥, 백자부(白磁賦), 초적(草笛), 수향서헌, 1947>

*a 거동수상자

털북숭이 두 볼에 진흙먼지 묻혀가며 / 고산(高山) 천호(天壺)* 산비탈을 헤집어 돌아다녀 / 이젠 워낙 낯이 팔려 거동수상자나 / 호리꾼 신고까진 하지 않는 초여름에 / 유달리 짙푸른 소나무 뿌리 흙을 / 삼단(三段) 쇠창으로 쑤셔 보던 K신부(神父) <조창환, 라자로 마을의 새벽 33, 라자로 마을의 새벽, 문학세계사, 1984>

*a 건반밥

개 하나 얼씬하지 않는 마을은 / 해밝은 마당귀에 맷방석 하나 / 빨갛고 노랗고 / 눈이 시울은 곱기도 한 건반밥 / 아 진달래 개나리 한참 피었구나 <백석, 고성가도(固城街道), 조선일보, 1936. 3. 7>

*a 걸아(傑兒)

그러나 젊은이여, 세기(世紀)의 지침(指針)을 바로 볼 걸아(傑兒)여, / 화장장(火葬場)에 솟는 노-란 연기(煙氣)를 무서워 할 것이 없다. / 오늘 우리의 고통은 보다 더 빛나고, 줄기찬 기상(氣象)을 뵈일 시련(試鍊)인 것이다. / 자, 어서 젊은 우리의 손으로 일구삼삼(一九三三)년의 차륜(車輪)을 힘껏 돌리자. / 괴로운 역경(逆境)을 짓밟고 넘고 넘게 운전(運轉)하자. / 억찬 자취를 뒤에 남기도록, 뒤에 남기도록. <황순원, 일구삼삼년(一九三三年)의 차륜(車輪), 방가(放歌), 동경학생예술좌 문예부, 1934>

*a 경성드뭇

귓가에 머리털은 경성드뭇 희었는데 / 이 마음 붉은 마음 님 때문에 타는구나 / 사랑이 병이라더니 살동말동 <김기진, 북경시첩(北京詩帖), 출전 미상, 1945. 5>

*a 결징(潔澄)

잠시 고요한 회상(回想)의 뜰에 / 잠은 눈시울 노을처럼 더워옴은 / 그날에 남긴 흙의 아픔때문 / 그 숱한 열매를 익게 한 / 대지(大地)와 마른 나무들의 / 모진 인고(忍苦)를 생각함에서요 / 또한 한 알의 포도 파르라니 설어 / 성숙(成熟)을 기다리던 가지마다 / 눈물과 기원 그리고 불같은 / 갈망(渴望)의 골짜기를 넘어왔거니 / 어둠에 삭힌 목숨의 다한(多恨)한 호소 / 빛의 영롱한 결징(潔澄) <홍윤숙, 포도주(葡萄酒) 익어, 풍차, 신흥출판사, 1964>

*a 고감(苦感)

아아 그러나 이상하다, 고요한 울음소리가 / 저 멀리서 오는 듯이 마음속 깊은 데서 / 병에 넘치는 물같이

벼랑에 떨어지는 꿈같이 / 형언할 수 없는 고감(苦感)과 쾌감(快感)을 가지고 온다. / 나의 다문 입술은 때때로 떨리며 / 두 어깨는 어린아이와 같이 격노하였다. / 이 같은 불안 속에 나는 소리를 들었노라. / '전에 슬픔의 바다에 잠기기 않은 자 / 또한 기쁨의 구름다리를 못 오르리라. / 이미 있은 자, 시방 있는 자, 장차 있을 자, / 너의 눈물을 네 환상 우에 쏟으라 / 거기서 너의 쓴 사랑을 찾으리로다' <주요한, 외로움, 아름다운 새벽, 조선문단사, 1924>

*a 고관(古館)

북악산 기슭 이 후원인 엄엄한 고관(古館)은 / 그이의 심상(尋常)치 않은 유서(由緖)를 말하였다 / 화려한 5월의 상록수의 그늘 / 청자색 바윗 돌사이 황군색 후원 길에 / 정밀한 꽃밭으로 나를 인도하는 그는 / 올맺은 보조로 미치는 세상도 바로 하리라 <김명순, 석공(石工)의 노래, 삼천리, 1938. 8>

*a 고모담(姑姆潭)

이 폭포(瀑布) 은하(銀河)라니 아마도 옳은 말이 / 바위에 올라 앉아 고모담(姑姆潭) 굽어보니 / 명월(明月)도 은하(銀河)를 못 잊어 함께 내려 왔더라 <이은상, 박연(朴淵), 노산시조집(鷺山時調集), 한성도서주식회사, 1932>

*a 고문인(拷問人)

머리가 누렇게 까진 땅주인은 어디로 갔나 / 여름저녁을 어울리지 않는 지팽이를 들고 / 이방인(異邦人)처럼 산책하던 땅주인은 / 一나도 필경 그처럼 보이지 않는 고문인(拷問人) / 시대(時代)의 숙명(宿命)이여 / 숙명(宿命)의 초현실(超現實)이여 / 나의 생활(生活)의 정수(定數)는 어디에 있나 <김수영, 장시(長詩) 2, 김수영 전집, 민음사, 1981>

*a 고사(枯死)되다

철 맞은 갈꽃이 조용히 나부끼고 있었다. / 큰 나무 잔 가지가 고사(枯死)되는 곁으로 / 내리던 눈 / 생각지 말아야 했다. / 척추를 타고 오르는 일상의 기록 / 붉은 살더미 속에 / 언뜻 보이던 흰 뼈 / 선명한 그들의 무언을 읽으며 / 떨지 말아야 했다. / 웃고 돌아 왔다. <황근식, 겨울기행 75, 수숫대의 꿈,심상사, 1981>

*a 고생초(高生草)

지상으로는 결코 내려가 쉬지 않는 / 구리발톱의 새와 친화(親化)하는 펜촉을 노래하고, / 젖은 날개를 험한 절벽 끝에서 말리며 휴식을 거부하는 / 강한 영혼들을 노래하라. / 지상으로는 결코 내려가 피지 않는 고생초(高生草)들의 밀생지(密生地), 미래의 가인(歌人)들의 거주지, / 영혼의 평온한 휴식처. / 이곳에서 내려다보면 / 저 아래 깎아지른 벼랑 밑, / 은어들이 산란하는 상류는 한갓 발 밑의 세계. / 녹음을 끌어당기

는 천길 계곡과 / 천상(天上)에서 봉우리와 봉우리를 두쪽으로 가르며 / 떨어지는 장대한 폭포 역시 발밑의 세계. / 하지만 바다는 늘 광대무변한 품을 향해 출발하고 있고 / 능금 껍질의 푸른 띠를 두른 해안으로 난파자와 / 방랑자를 품에 끌어들여 눈부신 휴식의 잠을 준다. / 오, 난파자들이 수평선 너머 잃어버리고 온 바다 / 놓쳐버린 바다를 / 수백 마일 밖으로부터 다시 몰고 오는 자들, 수천 마리의, 수억 마리의, 사자 떼의 흰 머리갈기를 타고 몰려오는 파도를 / 다스리며 친화(親化)해 온 근육들. 오, 보라! / 일찍이 율리시즈도 껴안고 꺾으려 했던 바다! / 일찍이 율리시즈도 산 채로 사로잡지 못했던 바다! / 오, 그대들, 시인들! / 수만년 전 율리시즈가 난파한 기슭 / 거기 쌓여 있는 고요한 모래. / 수만 년 동안을 바다가 게워 놓은 모래. / 거기 묻혀 있는 신(神)들의 글씨 또한 고요하지 아니한가. / 인간의 영혼만 남고 신(神)들은 침묵하지 않는가. <조정권, 산정묘지(山頂墓地) 8, 산정묘지, 민음사, 1991>

*a 고자기(古磁器)

고자기(古磁器) 항아리 / 눈물처럼 구부러진 어깨에 / 두 팔이 없다. <장서언, 고화병(古花甁), 장서언시집, 신구문화사, 1959>

*a 고절(孤絶)

내가 최후에 닿을 곳은 / 외로운 설산이어야 하리. / 얼음과 백색의 눈보라 / 험한 구름 끝을 떠돌아야 하리. / 가장 외로운 곳 / 말을 버린 곳 / 그곳에서 모두를 하늘에 되돌려주고 / 한 송이 꽃으로 / 가볍게 몸을 벌리고 / 우주를 호흡하리. / 산이 받으려 하지 않아도 / 목숨을 요구하지 않아도 / 기꺼이 거기 몸을 묻으리. / 영혼은 바람으로 떠돌며 / 고절(孤絶)을 노래하리. / 그곳에는 죽은 나무가 / 살아 있는 나무보다 더 당당히 / 태양을 향하여 / 무(無)의 뼈대를 창날같이 빛낸다. / 침묵의 바위가 무거운 입으로 / 신비를 말한다. / 가장 추운 곳, 외로운 곳 / 말을 버린 곳에서 / 무일푼 거지로 / 최후를 마치리. <이성선, 절정의 노래 1, 절정의 노래, 창작과비평사, 1991>

때로는 꽃이고 싶은 이 마음에 / 때로는 화안한 등불이고 싶은 이 생활에 / 아무 한 사람 없는 끝없는 고절(孤絶)이…… / 눈물의 다툼도 지친 부끄러운 가난만이…… / 오오래 아려오는 동통(疼痛)과 메마른 마음은 / 어이 할거나, / 사랑이여. / 생활이요. <정공채, 일상(日常)의 기도(祈禱), 사람소리, 1989>

생활(生活)은 고절(孤絶)이며 / 비애(悲哀)이었다 / 그처럼 나는 조용히 미쳐간다 / 조용히 조용히…… <김수영, 생활(生活), 달나라의 장난, 춘

조사, 1959>

*a 고절(孤絶)되다

오늘 나는 모든 욕망과 / 사물에 작별하였습니다. / 그래서 더욱 친한 죽음과 가까워집니다. / 과거는 무수한 내일에 / 잠이 들었습니다. / 불행한 신(神) / 어디서나 나와 함께 사는 / 불행한 신(神) / 당신은 나와 단둘이서 / 얼굴을 비벼대고 비밀을 터놓고 / 오해나 / 인간의 체험이나 / 고절(孤絶)된 의식에 /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 또다시 우리는 결속되었습니다. / 황제의 신하처럼 우리는b33W2±와<A할a>다x7½b금 저 광장의 전주(電柱)처럼 우리는 존재(存在)됩니다. / 쉴 새 없이 내 귀에 울려오는 것은 / 불행한 신(神) 당신이 부르시는 / 폭풍입니다. / 그러나 허망한 천지 사이를 / 내가 있고 엄연히 주검이 가로놓이고 / 불행한 당신이 있으므로 / 나는 최후의 안정을 즐깁니다. <박인환, 불행한 신, 박인환 시선집, 산호장, 1955>

*a 고풍(古風)하다

우리들의 전당(殿堂)은 / 고풍(古風)한 풍습(風習)이 어린 사랑의 전당(殿堂) <윤동주, 사랑의 전당(殿堂),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정음사, 1948>

*a 고확함정

길을 가다가 서서 문득 의구(疑懼)의 부로가 되어 전율(戰慄)하는 것은 나의 육신(肉身)을 포박(捕縛)한 질곡(桎梏)임을 깨달은 연고(緣故)로. / 작약(雀躍)하는 생명(生命)을 유인(誘引)하여 결국은 사망(死亡)의 고확함정에 몰아넣는 길! <김관식, 귀로(歸路), 김관식시선, 자유세계사, 1957>

*a 곡간(曲間)

골은 깊고 길은 심심(深深)하고 험하다. / 가파로운 곡간(曲間)을 / 몇 곡(曲)이고 넘어 지쳐 누운 웃머리에 / 어허라, 산도야 / 여기부터 산도의 숨은 골 길이었구랴 / 어쩌면 / 천도(天桃)라도 보는 듯 꿈의 시가 매달려 눈부시구나! / 전언(傳言)하고자 / 차디찬 생수에 눈을 씻는다. / 산도의 길이 있더라 —. <정공채, 산도(山桃)의 길, 땅에 글을 쓰다, 신원문화사, 1990>

*a 곡사(曲詞)

내 어릴 적과 꼭 같이 장독엔 달이 고인 밤이다. / 내 늙은 그 날에도 꼭 같이 울어질 곡사(曲詞)로. <설창수, 적막(寂寞)&2&, 개폐교, 백양당, 1950>

*a 골갯논

한 십리(十里) 더 가면 절간이 있을 듯한 마을이다 낮 기울은 볕이 장글장글하니 따사하다 흙은 젖이 커서 살갈이 깨서 아지랑이 낀 속이 안타

까운가 보다 뒤울 안에 복사꽃 핀 집엔 아무도 없나 보다 비인 집에 꿩이 날아와 다니나 보다 울 밖 늙은 들매나무에 튀튀새 한불 앉았다 흰 구름 따라가며 딱정벌레 잡다가 연둣빛 잎새가 좋아 올라왔나 보다 발머리에도 복사꽃 피었다 새악시도 피었다 새악시 복사꽃이다 복사꽃 새악시다 어디서 송아지 매—하고 운다 골갯논두렁에서 미나리 밟고 서서 운다 복사나무 아래 가 흙장난하며 놀지 왜 우노 자개밭둑에 엄지 어디 안 가고 누웠다 아랫동리선가 말 웃는 소리 무서운가 아랫동리 망아지 네 소리 무서울라 담모도리 바윗잔등에 다람쥐 해바라기하다 조은다 토끼잠 한잠 자고 나서 세수한다 흰 구름 건넛산으로 가는 길에 복사꽃 바라노라 섰다 다람쥐 건넛산 보고 부르는 푸념이 간지럽다 <백석, 황일(黃日), 조광, 1936. 3>

*a 곱새녕

나는 이 마을에 태어나기가 잘못이다 / 마을은 맨천 구신이 돼서 / 나는 무서워 오력을 펼 수 없다 / 저 방안에는 성주님 / 나는 성주님이 무서워 토방으로 나오면 토방에는 디운 구신 / 나는 무서워 부엌으로 들어가면 부엌에는 부뚜막에 조앙님 / 나는 뛰쳐 나와 얼른 고방으로 숨어 버리면 고방에는 또 시렁에 제석님 / 나는 이번에는 굴통 모퉁이로 달아가는데 굴통에는 굴대장군 / 얼혼이 나서 뒤울안으로 가면 뒤울안에는 곱새녕 아래 털능구신 / 나는 이제는 할 수 없이 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 대문간에는 근력 세인 수문장 / 나는 겨우 대문을 빼쳐나 바깥으로 나와서 / 밭 마당귀 연자간 앞을 지나가는데 연자간에는 또 연자당구신 / 나는 고만 기겁을 하여 큰 행길로 나서서 / 마음 놓고 화리서리 걸어가다 보니 / 아아 말마라 내 발뒤축에는 오나 가나 묻어다니는 달걀구신 / 마을은 온데간데 구신이 돼서 나는 아무데도 갈 수 없다 <백석, 마을은 맨천 구신이 돼서, 신세대, 1948. 5>

*a 곱새담

섣달에 냅일날이 들어서 냅일날 밤에 눈이 오면 이 밤엔 쌔하얀 할미귀신의 눈귀신도 냅일눈을 받노라 못 난다는 말을 든든히 여기며 엄매와 나는 앙궁 위에 떡돌 위에 곱새담 위에 함지에 버치며 대냥푼을 놓고 치성이나 드리듯이 정한 마음으로 냅일눈 약눈을 받는다 / 이 눈세기물을 냅일물이라고 제주병에 진상항아리에 채워 두고는 해를 묵혀 가며 고뿔이 와도 배앓이를 해도 갑피기를 앓아도 먹을 물이다 <백석, 고야(古夜), 사슴, (자가본), 1936>

*a 공규(空閨)하다

폭풍이 머문 정거장 거기가 출발점 / 정력과 새로운 의욕 아래 / 열차는 움직인다. / 격동의 시간— / 꽃의 질서를 버리고 / 공규(空閨)한 너의

운명처럼 / 열차는 떠난다. / 검은 기억은 전원에 흘러가고 / 속력은 서슴없이 죽음의 경사를 지난다 <박인환, 열차, 박인환 시선집, 산호장, 1955>

*a 공산나월(空山蘿月)

숨으리, 잠긴 뜰 안에 숨으리란다. / 숨어서 보살(菩薩)이 아니 스ㅣ이련만 / 공산나월(空山蘿月)은 알았으리라. / 필 데도 필 데도 없이 나는 우노니라. / 혼자서 우노니라. / 아아, 적막한 누리 속에 내 홀로 / 여는 맘을 어찌하리라. <신석초, 서사(序詞), 바라춤, 통문관, 1959>

*a 공생공사(共生共死)하다

"짐승 같은 놈!" (이것은 아내가 한 말) / "바퀴벌레도 즘생이야, 여보." (이것은 내가 한 말) / 그러나 바퀴벌레는 근엄한 검정색 예복, 아니 정복을 입었다. / 무슨 일을 감행하는 집단들처럼 / 틈틈에 잠복해 있다가 / 때가 되면 기어나와, "맞어", / 기어온다. / "짜식들, 기어나오긴 왜 기어나와?" / 기어나와, / 넘어서는 안 될 선(線)을 넘어서 / 그리고 한번 무너진 그 길을 따라 / 자꾸 자꾸 기어 나온다. / 식생활(食生活)에서 성생활(性生活)에 이르기까지 / 나의 사생활(私生活) 전역에 투입되어, / "여보, 바퀴벌레 때문에 못 살겠어요. / 우리 이살 가든가 이민을 가든가 해야지." / 비닐 장판을 열면 겨우내 새끼들을 수두룩수두룩 까 놓고 / 이것들은 생명체일까, 병원균일까? / 개체일까, 집단일까? / 도무지. "이놈들에게도 영혼이 있을까?" / 수채 구멍 속에서, 구정물 찌꺼기통에서 / 벽으로, 찬장 그릇 속으로, 안방으로, 책장 사이로, 이불 밑으로. / 어쩌면 우리가 잠든 새 콧구멍 속으로, 머리칼 속으로, 꿈꾸는 송과선(松果腺)에까지 / 공룡 크기만큼 확대되어 엄습해 오는 / 이 야간 침입자들. / 어느새 우리와 공생공사(共生共死)하자는 듯, / 어느새 묵인된 이 범법자들. / 오줌 누러 불을 켜면, 화다닥, 동작 그만! / 들킨 바퀴벌레는 젖은 세멘트 벽에 붙어서, / 그놈은 그놈대로 비상을 걸고, 부지런히 더듬이를 돌려대며 / 나의 접근을 관찰, 경계태세에 들어간다. / 그놈은 지금 그놈의 사선(死線)에 엎드려 있다. / 그 사선은 나의 사선이다. "이번이 기회야. / 놓쳐선 안 돼." 여차하면 이놈은 눈 깜짝할 사이에 / 틈 속으로 매복해 버린다. / "죽여요.. 죽여 !" : 아내도 마루 끝에서 소리친다. / 짠— 긴장 : "이놈, 우리 현세(現世)의 사생활을 분탕칠하는 / 이 더러운 놈, 네 놈의 그 더러운 , 그 지상에서의 몸을 / 죽여 주마. 깨끗한 몸으로 교환하여 다시 태어나거라." / 중얼거리는 내 마음 속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어하는 / 이놈을 갖다가, 슬리퍼로, 그냥, <황지우, 바퀴벌레는 바퀴가 없다, 겨울—나무로부터 봄 — 나무에로, 민음사, 1985>

*a 공정대원

원색 / 사진의 / 상륙 전 공정대원 / 풀빛 가슴팍에 걸린 자동소총 검은 총구로부터 / 풀빛 어깨 위에 펼쳐진 하얀 하늘까지 / 그 거리는 / 한 뼘도 채 되지 않았다. <전봉건, 속의 바다 10, 사랑을 위한 되풀이, 혜진서관, 1985>

*a 공천풍월(空泉風月)

가사 어러 메어 가사 어러 메어 / 헐은 가슴에 축 늘어진 장삼에 / 공천풍월(空泉風月)을 안고 뉘어 / 괴론 이 밤을 고이 새우고저. / 괴론 이 밤을 고이 새우고저. <신석초, 서사(序詞), 바라춤, 통문관, 1959>

가사 어러메어 가사를 어러메어 / 바라를 치며 춤을 출까나 / 가사 어러메어 가사를 어러메어 / 헐은 가슴에 축 늘어진 장삼에 / 공천풍월(空泉風月)을 안아 누워 / 괴론 이 밤을 고이 새우고저 / 괴론 이 밤을 고이 새우고저 / 지루한 한평생을 짧게 살어여지이다. / 수유에 지는 꿈이 소중하여이다. / 다디 단 잊음이 영역으로 이끌어 가는 육신의 발원이여 / 게으름에 길길이 풀어지는 보석 다래여 / 천길 구름샘에 폭포가 쏟아져 내리노이다. <신석초, 바라춤, 석초시집, 을유문화사, 1946>

*a 관미(寬美)

금강! 너는 너의 관미(寬美)로운 미소로써 나를 보고 있는 듯 나의 가슴엔 말래야 말 수 없는 야릇한 친애와 까닭도 모르는 경건한 감사로 언젠지 어느덧 채워지고 채워져 넘치도다. 어제까지 어둔 사리에 울음을 우노라—때아닌 늙음에 쭈그러진 나의 가슴이 너의 자안(慈顔)과 너의 애무로 다리미질한 듯 자그마한 주름조차 볼 수 없도다. <이상화, 금강송가(金剛頌歌), 여명, 1925. 9>

*a 관언(關焉)하다

어제는 인공기 오늘은 태극기 / 관언(關焉)할 바 없는 기폭이 나부껴 있다 <유치환, 기(旗)의 의미(意味), 보병과 더불어, 문예사, 1951>

*a 관피(管皮)

곤두박질치는 놈 뱅뱅이를 도는 놈 셋째번 줄에서 보기좋게 / 떨어지는 늙은 배우(俳優)로 밤은 점점 삼경(三更)인데 하수도(下水道)의 / 야시(夜市)는 귀화(鬼火)를 번득이며 이제야 성황(盛況)이고 / 무여진 손톱으로 갈갈이 관피(管皮)를 할퀴는 놈 들속에 썩은 / 하지(下肢)를 질질이 끄을면서 하수도(下水道)의 맥박(脈博)을 지키는 놈도 있다. <장호, 속(續) 하수도(下水道)의 생리(生理), 파충류의 합창, 시작사, 1957>

*a 광대넘이

또 이러한 밤 같은 때 시집갈 처녀 막내고무가 고개 너머 큰집으로 치

장감을 가지고 와서 엄매와 둘이 소기름에 쌍심지의 불을 밝히고 밤이 들도록 바느질을 하는 밤 같은 때 나는 아룻목의 삿귀를 들고 쇠든밤을 내어 다람쥐처럼 밝어 먹고 은행여름을 인두불에 구워도 먹고 그러다는 이불 위에서 광대넘이를 뒤이고 또 누워 굴면서 엄매에게 웃목에 두른 병풍의 새빨간 천두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고무더러는 밝는 날 멀리는 못 난다는 메추라기를 잡아 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백석, 고야(古夜), 사슴, (자가본), 1936>

*a 광무(狂舞)

나는 일손을 멈추고 잠시 무엇을 생각하게 된다 / ―살아있는 보람이란 이것뿐이라고― / 하루살이의 광무(狂舞)여 <김수영, 하루살이, 신태양, 1956>

*a 광복동(光復洞)

낯선 사람들과 어깨를 부비며 / 광복동(光復洞)거리를 가다가 걸음을 멈춘다 <이한직, 여백(餘白)에, 문예, 1953>

*a 광살구

뒤울 안 살구나무 아래서 광살구를 찾다가 / 살구벼락을 맞고 울다가 웃는 나를 보고 / 밑구멍에 털이 몇 자나 났나 보자고 한 것은 가즈랑집 할머니다 <백석, 가즈랑집, 사슴, (자가본), 1936>

*a 광영(光影)

끔찍한 행렬(行列)이로다 / 군대(軍隊)도아니요 여상(旅商)도아니요 코끼리도아니오 / 꿈같이솟구은피라밋너머로 / 기다란형상(形象)이움직이도다 / 아아어스름달아래 / 그는쓸쓸한광영(光影)의물결이런다 / 물결은물결을쫓으며끝없이움직이도다 / 이전경(全景)에흐르는정조(情調) / 야릇한정조(情調)에잠기게하여라 / 환상(幻想)의범선(帆船)을 띄우게하여라 / 사상(沙上)의바람은끊이지않고 / 멀리로서해조(海潮)의울음소리들리어라 <이장희, 사상(沙上), 신민, 1925. 9>

*a 광지보

마을에서는 세 벌 김을 다 매고 들에서 / 개장취념을 서너 번 하고 나면 / 백중 좋은 날이 슬그머니 오는데 / 백중날에는 새악시들이 / 생모시치마 천진푀치마의 물팩치기 껑추렁한 치마에 / 쇠주푀적삼 항라적삼의 자지고름이 기드렁한 적삼에 / 한끝나게 상나들이옷을 있는 대로 다 내 입고 / 머리는 다리를 서너 켜레씩 들어서 / 시뻘건 꼬둘채댕기를 삐뚜룩하니 해 꽂고 / 네날백이 따배기신을 맨발에 바꿔 신고 / 고개를 몇이라도 넘어서 약물터로 가는데 / 무썩무썩 더운 날에도 벌 길에는 / 건들건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 허리에 찬 남갑사 주머니에는 오랜만에 돈푼이 들어 즈벅이

고 / 광지보에서 나온 은장도에 바늘집에 원앙에 바둑에 / 번들번들하는 노리개는 스르럭스르럭 소리가 나고 / 고개를 몇이라도 넘어서 약물터로 오면 / 약물터엔 사람들이 백재일 치듯 하였는데 / 붕가집에서 온 사람들도 만나 반가워하고 / 깨죽이며 문주며 섶가락 앞에 송구떡을 사서 권하거니 먹거니 하고 / 그러다는 백중 물을 내는 소내기를 함뿍 맞고 / 호주를하니 젖어서 달아나는데 / 이번에는 꿈에도 못 잊는 붕가집에 가는 것이다 / 붕가집을 가면서도 칠월(七月) 그믐 초가을을 할 때까지 / 평안하니 집살이를 할 것을 생각하고 / 애끼는 옷을 다 적시어도 비는 시원만 하다고 생각한다 <백석, 칠월(七月) 백중, 문장, 1948. 10>

*a 괴묵(怪默)

저 구름의 연연(連連)한 부피는 / 온 하늘을 암흑대륙(暗黑大陸)으로 싸았으니 / 괴묵(怪默)은 그냥, 비만 내리니 천만다행(千萬多幸)이다. / 지금 장마철이니 <천상병, 비&17&, 주막에서, 민음사, 1979>

*a 괴색(壞色)하다

더구나, / 새 옷을 6년 동안은 가지지 않고 / 만들지도 말며 / 새 옷을 만약 만든다 하여도 / 낡은 헝겊 한 뼘을 덧대어서 / 괴색(壞色)하여 입으라는 계율(戒律)은 / 아프고, 아프고, 아프군요. <정동주, 첫날. 성전(聖殿)에서, 순례자, 민음사, 1984>

*a 괴수(怪樹)

반듯반듯한 돌을, 조직적(組織的)으로 질서정연(秩序整然)하게 쌓아서 세운, 낡아빠진 집이, 조그만 언덕 위에 외따로이 떨어져 서 있게 되었다. 지금의 이 집의 형상(形象)의 처참(悽慘)함이여! 낡아빠진 지붕보다도 오히려 이 집의 흐너져 가는 벽, 그것보다도 오히려 그 벽을 받치고 있는 인조석(人造石)의 좀먹어 들어 썩어지는 위태(危殆)함이여!— 과연(果然)이다 정신(精神)들여 이 집을 주의(注意)하여 보는 사람은, 이와 같은 이 집 자신(自身)이 공개(公開)하고 있는 운명(運命)을 깨달을 것이다. 그러나 이 집을 보건대, 아무도 수백 년(數百年) 동안 이 곳에서 있었던 것 같고, 처음에는 이 집의 규모(規模)가 큰 것과 짜임새 있는 점(点)으로 이 언덕 위에 있어서 한 개의 위관(偉觀)을 보이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리하여 이 집의 위관(偉觀)을 금상첨화(錦上添花)하기 위(爲)하여 둘러싸고 있는 화초(花草)와 관목(灌木)과 괴수(怪樹)는, 수백 년(數百年) 동안 이 집의 추종자(追從者)가 되어서 저희들의 상전인 이 집을 위하고 받들었던 것이다. / 그러나 이 집이 점점 낡아가고 주춧돌이 좀먹기 시작함을 따라서 무성(茂盛)하던 초목(草木)도 거의 시들어 일종(一種)의 폐원(廢苑)으로 퇴락(頹落)하였던 것이다. 이 집이 건설(建設)되

던 당시(當時)에 이 초목(草木)들은 이 집을 구가(謳歌)하고, 더구나 초목(草木)은 새들을 부르고 바람을 부르고 꽃을 열어서 더 한층(層) 구가(謳歌)하였던 것이다. 그때에는 시(詩)가 있었다. ―이 집을 둘러싸고 서의 시(詩)가. 그러나 이 집이 이와 같이 되기 시작한 때부터는 그 시(詩)가 죽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초목(草木)은 일제(一齊)히 침묵(沈默)하기 시작하였다. 화초(花草)와 관목(灌木)들은 면면상고(面面相顧)하며 장차(將次) 어찌됨을 의논(議論)하였다. 그때에 돌연(突然)히 겨울의 폭왕(暴王)이 바람을 몰아 가지고 이 곳을 엄습(掩襲)하고 말았다. 초목(草木)은 이 폭왕(暴王) 아래에 옹송거리고서 저희들의 생명(生命)을 보전(保全)하기 위(爲)하여 관(冠)을 벗어버리고, 손, 발을 끊어 내던지고, 숨을 죽였다 그리하여 겨울에 서서 눈물을 흘렸다.―초목(草木)이 눈물을 흘려?…… <김기진, 신록(新綠)&3&, 개벽, 1924. 6>

*a 교류융합(交流融合)

네 꿈이 내 꿈인가 내 꿈 네 꿈가 / 내 꿈이 항아린가 네 꿈 내 꿈가 / 내 꿈이 스며들어 네 꿈 빼앗고 / 네 꿈이 밀려들어 내 꿈 뺏으니 / 꿈과 꿈 교류융합(交流融合) 분간(分間)없고녀 <오상순, 항아리&5&, 공초오상순시선(空超吳相淳詩選), 자유문화사, 1963>

*a 교향(交響)하다

아득히 바람소리 교향(交響)하는 시공(時空) 이편 / 하마 지엄한 기침소리 나실 듯 들려 서 / 외롭느니 슬프느니 그립느니 하는 따위 / 목숨의 하잖은 몸부림 같은 것은 / 아예 아랑곳없는 이것은 무엇인가. <유치환, 송림에 와서, 청마시집, 문성사, 1954>

위대(偉大)한 민족(民族)의 의지(意志)여 / 삼월(三月)달 샛바람 속에 / 그대 힘찬 승리(勝利)의 노래를 / 교향(交響)하여라 <김규동, 3·1절(三·一節)에 부치는 노래, 나비와 광장, 산호장, 1955>

천 / 천 / 히 / 굵은 줄기가 / 별안간에 교향(交響)하여 / 산마루에다 / 구름을 / 얹 / 듯 <김광림, 음역(音域)에서, 오전의 투망, 광명인쇄공사, 1965>

*a 구각(矩角)

누구 하나 상대도 없이 / 아침의 머리를 / 마알갛게 깨뜨리고 있는 / 구각(矩角)의 쓸쓸한 둘레. <정공채, 오전의 당구, 땅에 글을 쓰다, 신원문화사, 1990>

*a 구구층층(區區層層)

바쁜 양 몸은 아직 먼 곳에 있건마는 / 마음은 언제 벌써 금강(金剛) 중에 들었구나 / 만이천(萬二千) 구구층층(區區層層)이 낯익은 듯하여라

<이은상, 금강(金剛)을 바라보며, 노산시조집(鷺山時調集), 한성도서주식회사, 1932>

*a 구덕살이

일가들이 모두 범같이 무서워하는 이 노큰마니는 구덕살이같이 욱실욱실하는 손자 증손자를 방구석에 들매나무 회초리를 단으로 쩌다 두고 때리고 싸리갱이에 갓진창을 메어놓고 때리는데 <백석, 넘언집 범 같은 노큰마니, 문장, 1939. 4>

*a 구두사(九頭蛇)

동트는 숲 속에서 보랏빛 / 우라노스*의 고요 속에서 / 페닉스*는 불타는 보석의 나래를 펴고 / 날아오른다. 하늘로 / 솟아오른다. 한 잎의 불꽃으로. / 찬란하게 벗은 몸뚱어리가 / 황금가지로 늘어지고 / 눈부신 백합꽃 수낭이로 뻗어 / 꽃으로 되어 화살로 되어 / 봉화로 되어 / 타오른다. / 삼십삼천*의 울려퍼지는 종소리 / 삼십삼천 욕계 구만리로 / 웅웅거리는 종소리 / 성처녀의 신비로운 두 팔이 / 붉은 명정을 휘날리고 / 욕망의 갈기를 발기발기 찢으며 / 바람 속 꽃잎으로 부서져 / 여울에 져서 무수한 꽃잎이 흘러가듯 / 머나먼 물굽이로 흘러 / 하늘 밖에 나래 치고 / 샛바람 속에 나래가 무리지고 / 꽃무등 서고 도약한다. / 한 떨기 어여쁜 장미꽃 송아리로 / 받쳐 이어 / 솟아오른다. 솟아오른다. / 불구슬로 / 불꽃으로 / 오, 불멸하는 것, 눈부신 살 / 광명의 구두사(九頭蛇)여. / 번쩍이는 성(性)의 오, 번개, / 프로메테우스의 누나여. / 너의 번개로 내 내부의 우주는 술렁이고 / 너의 놀라운 날음으로 / 내 나비의 혼은 되살아난다. / 창조의 희망이 네 부리에서 시끄럽게 짖어대고 / 생각하는 이파리는 모두 날개를 펴 / 꽃 핀 하늘로 올라가는구나. / 너는 빛나는 선회를 하며 / 황금빛 네 손가락이 꿈꾸는 기슭에까지 / 나의 숨결을 이끌어간다. / 작열하라. 타라. 불타올라라. / 헤스티어*의 긴 머리채 / 휘황한 비단실 타래가 / 뭉게뭉게 뭉게구름으로 뒤틀어 내리다가 / 다시 아슬한 꽃봉오리로 솟아오른다. / 하늘은 타 버리는 혼 속에서 / 전신을 다해 창백한 빛깔을 의치는구나. / 나는 너의 금강석의 회오리바람 속에서 / 미래의 연기를 마시려 한다. / 불타라. 타라. 타라. <신석초, 불춤, 폭풍의 노래, 문예사, 1970>

*a 구라중화(九羅重花)

사실은 벌써 멸(滅)하여 있을 너의 꽃잎 우에 / 이중(二重)의 봉오리를 맺고 날개를 펴고 / 죽음 우에 죽음 우에 죽음을 거듭하리 / 구라중화(九羅重花) <김수영, 구라중화(九羅重花), 달나라의 장난, 춘조사, 1959>

*a 구란(勾欄)

잔내비와같이웃는'여자'의얼굴에는하룻밤사이에참아름답고빤드르르한적

갈색(赤褐色)쵸콜레이트가무수(無數)히열매맺혀버렸기때문에'여자'는마구대고쵸콜레이트를방사(放射)하였다. 쵸콜레이트는흑단(黑檀)의사아벨을질질끌면서조명(照明)사이사이에격검(擊劍)을하기만하여도웃는다. 웃는다. 어느것이나모두웃는다. 웃음이마침내엿과같이녹아걸쭉하게찐덕거려서쵸콜레이트를다삼켜버리고탄력(彈力)강기(剛氣)에찬온갖표적(標的)은모두무용(無用)이되고웃음은산산(散散)이부서지고도웃는다. 웃는다. 파랗게웃는다. 바늘의철교(鐵橋)와같이웃는다. '여자'는나한(羅漢)을밴[孕]것을다들알고'여자'도안다. 나한(羅漢)은비대(肥大)하고'여자'의자궁(子宮)은운모(雲母)와같이부풀고'여자'는돌과같이딱딱한쵸콜레이트가먹고싶었던것이다. '여자'가올라가는층계(層階)는한층한층이더욱새로운초열빙결지옥(焦熱氷結地獄)이었기때문에'여자'는즐거운쵸콜레이트가먹고싶지않다고생각하지아니하는것은곤란(困難)하기는하지만자선가(慈善家)로서의'여자'는한몫보아준심산(心算)으로그러면서도'여자'는못견디리만큼답답함을느꼈는데이다지도신선(新鮮)하지아니한자자선사업(慈善事業)이또있을까요하고'여자'는밤새도록고민고민(苦悶苦悶)하였지만'여자'는전신(全身)이갖는약간개(若干個)의습기(濕氣)를띤천공(穿孔)예(例)컨대눈기타(其他))근처(近處)먼지는떨어버릴수없는것이었다. / '여자'는물론(勿論)모든것을포기(抛棄)하였다. '여자'의성명(姓名)도, '여자'의피부(皮膚)에붙어있는오랜세월(歲月)중에간신히생긴때[垢]의박막(薄膜)도심지어(甚至於)는'여자'의수선(腄腺)까지도, '여자'의머리로는소금으로닦은것이나다름없는것이다. 그리하여온도(溫度)를갖지아니하는엷은바람이참강구연월(康衢煙月)과같이불고있다. '여자'는혼자망원경(望遠鏡)으로SOS를듣는다. 그리곤덱크달린다. '여자'는푸른불꽃탄환(彈丸)이벌거숭이인채달리고있는것을본다. '여자'는오오로라를본다. 덱크의구란(勾欄)은북극성(北極星)의감미(甘味)로움을본다. 거대(巨大)한바닷개[海狗]잔등을무사(無事)히달린다는것이'여자'로서과연(果然)가능(可能)할수있을까, '여자'는발광(發光)하는파도(波濤)를본다. 발광(發光)하는파도(波濤)는'여자'에게백지(白紙)의화판(花瓣)을준다. '여자'의피부(皮膚)는벗기고벗기인피부(皮膚)는선녀(仙女)의옷자락과같이바람에나부끼고있는참서늘한풍경(風景)이라는점(點)을깨닫고사람들은고무와같은두손을들어입을박수(拍手)하게하는것이다. <이상, 광녀(狂女)의고백(告白), 조선과 건축, 1931. 8>

*a 구룡산령(九龍山嶺)

지화자 달이로다 구룡산령(九龍山嶺)에 달이로다 / 물만도 족(足)한 것을 달이조차 오르시네 / 구을다 송림(松林)에 앉으며 같이 놀자 하더라 <이은상, 박연(朴淵), 노산시조집(鷺山時調集), 한성도서주식회사, 1932>

*a 구적(俱寂)하다

진종일 비 오고서 만뢰가 구적(俱寂)한데 / 이 밤이 이슥토록 내 홀로 깨었거늘 / 어찌타 저 두견새는 남의 애를 끊나니 <김기진, 춘기행(春紀行), 출전 미상, 1941. 5. 16>

*a 구추성(九秋聲)

연(蓮)잎에 실린 금풍(金風) / 귀로 외는 구추성(九秋聲)이여 <정완영, 묵로도(墨鷺圖), 묵로도, 1972>

*a 구한말

구한말의 여자가 다 이리 잠들었을진대 / 동포여, 무엇이 그리 바쁘뇨 / 황망한 발길을 잠시 멈추시고 / 만주벌에 떠도는 남자현의 혼백 앞에 / 자유세상 밝히는 분향을 올리시라 / 그때 그대는 보게 되리라 / '대한여자독립원'이라 쓴 <고정희, 남자현의 무명지, 이 시대의 아벨, 문학과지성사, 1983>

*a 구현체(具顯體)

만고(萬古)의 비밀(秘密)과 경이(驚異)와 기적(奇蹟)과 신비(神秘)와 / 도취(陶醉)와 명상(瞑想)과 침묵(沈默)의 구현체(具顯體)인 / 아시아! / 철학미답(哲學未踏)의 비경(秘境) / 돈오미도(頓悟未到)의 성지(聖地) 대(大)아시아! / 독주(毒酒)와 아편(阿片)과 미(美)와 선(禪)과 / 무궁(無窮)한 자존(自尊)과 무한(無限)한 오욕(汚辱) / 축복(祝福)과 저주(咀呪)와 상반(相伴)한 / 기나긴 아시아의 업(業)이여. <오상순, 아시아의 여명(黎明), 공초오상순시선(空超吳相淳詩選), 자유문화사, 1963>

*a 구황식(救荒食)

봄날에 날풀들 돋아 오니 눈물난다 / 쇠뜨기풀 진드기풀 말똥가리풀 여우각시풀들 / 이 나라에 참으로 풀들의 이름은 많다 / 쑥부쟁이 엉겅퀴 달개비 개망초 냉이 족두리꽃 / 물곶이 앉은뱅이 도둑놈각시풀들 / 조선총독부 식물도감을 펼치니 / 구황식(救荒食)의 풀들만도 백오십여 가지다 / 쌀 일천만 섬을 긁어가도 끄떡 없는 민족이라고 / 그것이 고려인의 기질이라고 / 나마무라 이시이가 서문에서 점잖게 게다짝을 끌고 나온다 / 나는 실제로 어렸을 때 보리 등겨에 토면(土麵)국수를 말아 먹고 / 북어처럼 배를 내밀고 죽은 늙은이를 / 마을 앞 당각에 내다버린 것을 본 일이 있었다 / 햄이나 치이즈 버터나 인스턴트 식품이면 / 뭐나 줄줄이 외워대는 어린놈에게 / 어서 방학이나 왔으면 싶다 /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를 위해 센인바리[천인침(千人針)]를 받으러 / 이 마을 저 마을 떠돌았듯이 / 나 또한 이 나라 산천을 떠돌며 / 어린것의 식물 표본을 도와주고 싶다. / 쇠똥가리풀 진드기풀 말똥가리풀 여우각시풀들 / 이 나라에 참으로 풀들의 이름은 많다 / 쑥부쟁이 엉겅퀴 달개비 개망초 냉이 족두리꽃 / 물곶이 앉은뱅이 도둑놈각시풀들. <송수권,

우리 나라 풀이름 외기, 한국대표시인100선집, 지리산 뻐꾹새, 미래사, 1991>

*a 국교(國交)하다

전선이 운다, 잉—잉— 하고 / 국교(國交)하러 가는 전신줄이 몹시도 운다. / 집도 백양도 산곡도 외양간 '당나귀'도 따라서 운다, / 이렇게 춥길래 / 오늘따라 간도 이사꾼도 별로 없지. / 얼음장 깔린 강바닥을 / 바가지 달아 매고 건너는 / 밤마다 밤마다 외로이 건너는 / 함경도 이사꾼도 별로 없지 / 얼음장 갈린 강바닥을 / 바가지 달아 매고 건너는 / 함경도 이사꾼도 별로 안 보이지, / 회령서는 벌써 마지막 차 고동이 텄는데. <김동환, 국경의 밤, 국경의 밤, 한성도서, 1924>

*a 국무경(國務卿)

산빨이 소름친다 / 바다가 몸부림친다 / 휘청거리는 빌딩의 긴 허리 / 비틀거리는 전주의 미끈한 다리 / 여객기는 태풍의 깃을 피하여 / 성층권으로 소스라쳐 올라갔다. / 경련(痙攣)하는 아세아(亞細亞)의 머리 위에 흩어지는 전파의 분수 분수 / 고국으로 몰려가는 충실한 에—텔의 아들들 / 국무경(國務卿) 양키—씨는 수화기를 내던지고 / 창고의 층층계를 굴러 떨어진다 <김기림, 자취, 기상도, (자가본), 1936>

*a 군동(群動)

하늘의 푸른 빛과 같이 깨끗한 죽음은 군동(群動)을 정화(淨化)합니다. / 허무의 빛인 고요한 밤은 대지에 군림하였습니다. / 힘없는 촛불 아래에 사리뜨리고 외로이 누워 있는 오오 님이여. / 눈물의 바다에 꽃배를 띄웠습니다. / 꽃배는 님을 싣고 소리도 없이 가라앉았습니다. / 나는 슬픔의 삼매(三昧)에 '아공(我空)'이 되었습니다. <한용운, 슬픔의 삼매(三昧), 님의 침묵, 회동서관, 1926>

*a 군수야업(軍需夜業)

처녀의 눈동자를 느끼며 돌아가는 군수야업(軍需夜業)의 젊은 동무들 / 푸른 샘을 그리는 고달픈 사막의 행상대도 마음을 축여라 / 화전(火田)에 돌을 줍는 백성들도 옥야천리(沃野千里)를 차지하자 <이육사,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 풍림, 1936. 12>

*a 군종(群鍾)

군종(群鍾)이 울리는 음악의 잔치가 되어 / 고운 갈매의 하늘을 / 포롱 / 포롱 / 포롱 / 날고 있다. <박남수, 종달새, 신의 쓰레기, 모음출판사, 1964>

그 바람을 헤치고 / 그 어둠을 뚫고 / 그 들녘을 가로질러 왔느니 / 한 바퀴 원을 돌아 / 우리는 어느덧 원점에 돌아왔느니 / 오늘은 당신을 위해 군종(群鍾)이 울리고 <정한모, 원점(原點)에 서서 1, 원점(原點)에 서서, 문학사상사, 1989>

수정의 다각면(多角面)에 / 어리고 명멸하는 / 아라베스크 / 어지러운 내 악몽 속에서도 / 영롱한 한 줄기 빛이던 / 당신의 손은 / 새벽의 군종(群鐘)을 흔들어 울리고 / 무겁게 드리워진 암묵(暗默)의 자락을 / 능선 따라 천천히 걷어올린다 / 당신의 목소리는 이제 / 단단한 씨앗을 야무지게 터뜨리듯 / 어둠을 찢어대는 / 참새 소리도 되고 / 일찍부터 기침(起寢)하여 / 마루로 뜰로 오르내리시는 / 칠순 노모의 정정하신 기침 소리로 울리면서 / 가득히 차는 맑은 음향으로 / 내 수면(睡眠)의 창을 / 활짝 열어놓는다. <정한모, 새벽 2, 새벽, 일지사, 1975>

*a 굴신자재(屈伸自在)

내 소리도 가끔은 쓸 만하지만 / 그보다 더 좋은 건 / 피는 꽃이든 죽는 사람이든 / 살아 시퍼런 소리를 듣는 거야 / 무슨 길들은 소리 듣는 거보다는 / 냅다 한 번 뛰어보는 게 나을 걸 / 뛰다가 넘어져보고 / 넘어져서 피가 나보는 게 훨씬 낫지 / 가령 <전망>이란 말, 언뜻 / 앞이 탁 트이는 거 같지만 그보다는 / 나무 위엘 올라가보란 말야, 올라가서 / 세상을 바라보란 말이지 / 내 머뭇거리는 소리보다는 / 어디 냇물에 가서 산 고기 한 마리를 / 무엇보다도 살아 있는 걸 / 확실히 손에 쥐어보란 말야 / 그나마 싱싱한 혼란이 나으니 / 야음을 틈타 참외 서리를 하든지 / 자는 새를 잡아서 손에 쥐어 / 팔닥이는 심장 따뜻한 체온을 / 손바닥에 느껴보란 말이지 / 그게 세계의 깊이이니 / 선생 얼굴보다는 / 애인과 입을 맞추며 / 푸른 하늘 한 번 쳐다보고 / 행동 속에 녹아버리든지 / 그래 굴신자재(屈伸自在)의 공기가 되어 푸르름이 되어 / 교실 창문을 흔들거나 장천(長天)에 / 넓고 푸르게 펼쳐져 있든지, / 하여간 사람의 몰골이되 / 쓸데없는 사람이 되어라 / 장자(莊子)에 막지무용지용(莫知無用之用)이라 / 쓸데없는 것의 쓸데있음 / 적어도 쓸데없는 투신(投身)과도 같은 / 걸음걸이로 걸어가거라 / 너 자신이되 / 내가 모든 사람이니 / 불가피한 사랑의 시작 / 불가피한 슬픔의 시작 / 두루 곤두박질하는 웃음의 시작 / 그리하여 네가 만져본 / 꽃과 피와 나무와 물고기와 참외와 새와 애인과 푸른 하늘이 / 네 살에서 피어나고 피에서 헤엄치며 / 몸은 멍들고 숨결은 날아올라 / 사랑하는 거와 한몸으로 낳은 푸른 하늘로 / 세상 위에 밤낮 펴져 있거라. <정현종, 시창작(詩創作) 교실,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 세계사, 1989>

발돋움하여 볼까 누가 더 큰가 / 나의 발은 자유(自由)나 너는 선뱅이 / 나는 굴신자재(屈伸自在)나 너는 어이 해 <오상순, 항아리&5&, 공초오상순시선(空超吳相淳詩選), 자유문화사, 1963>

*a 궤율

그 나라에는 허공이 없습니다. / 그 나라에는 그림자 없는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 그 나라에는 우주만상의 모든 생명의 쇳대를 가지고, 척도를 초월한 삼엄한 궤율로 진행하는 위대한 시간이 정지되었습니다. / 아아 님이여, 죽음을 방향(芳香)이라고 하는 나의 님이여. 걸음을 돌리서요, 거기를 가지 마서요, 나는 싫어요. <한용운, 가지 마서요, 님의 침묵, 회동서관, 1926>

*a 귀소(歸巢)하다

내가 어둠으로 띄운 새들은 / 하늘에 암장되었는가. 어머니를 향해 / 이십 년의 세월을 기도로 띄운 / 새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 / 내 나이가, 지금 / 헤어질 때의 어머니 나이가 되었지만 / 아직도 그 생사조차 모른다. / 하늘이여, 이 불륜의 세월을 끊고 / 아들은 어머니의 무릎에 / 지아비는 지어미의 품으로 / 돌아가게 하라. 저들이 함께 웃고 / 저들이 함께 울도록, 하늘이여 / 무수한 사람이 띄운 새들이 / 이제는 귀소(歸巢)하도록 빛을 밝히라. <박남수, 오랜 기도(祈禱), 사슴의 관(冠), 문학세계사, 1981>

밤을 대안(對岸)하여 / 날고 있는 후조(候鳥) / 고요가 떠밀리는 야영(夜營)의 기슭에 / 병정(兵丁)의 편애(偏愛)는 잠이 든다 / 그때, 풀꽃들의 일화(逸話) 위에 떨어지는 / 푸른 별의 사변(思辨) / 찢긴 날개로 피흐르며 / 귀소(歸巢)하는 후조(候鳥)의 가슴에 / 향수(鄕愁)는 탄흔(彈痕)처럼 박혀든다 / 아, 오늘도 돌아누운 산하(山河)의 / 외로운 초병(哨兵)이여 / 시방 안개와 어둠의 벌판을 지나 / 늙은 사공(沙工)의 등(燈)불은 / 어디쯤 세계(世界)의 창(窓)을 밝히는가 / 목마른 나무의 음성(音聲)처럼 / 바람에 울고 있는 노래는 / 강물 풀리는 저 대안(對岸)의 기슭에서 / 떠나간 시간(時間)의 꽃으로 피는구나. <이근배, 노래여 노래여, 노래여 노래여, 문학세계사, 1981>

신의 몸김을 / 몸에 녹이면서 / 하루만큼씩 밀려서 버려지는 /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 시인들은 종이 위에 버리면서 / 오늘도 다시 / 하늘로 귀소(歸巢)하는 비둘기. <박남수, 신(神)의 쓰레기, 신의 쓰레기, 모음출판사, 1964>

*a 귀향살이

저녁 길은 밝고 산뜻하다. / 한 줄기 빛의 눈물의 확대. / 풀꽃은 언제나 선명히 빛난다. / 우울하고 아득한 날 / 고궁 뒷담을 끼고 돌면 / 저 신하들의 슬픈 목소리. / 귀향살이 뼈만 남아 돌아가신 / 신하들의 하늘은 늘 푸르다. / 그대의 혼령은 / 저 현란한 비늘구름이고 / 나는야 서러운 그대의 노예로서 / 길을 묻고 다시 가고 / 어둠 속에 얌전히 눈물이나 떨군다. / 달리고 달리면 끊어지는 것들 / 그들의 속셈은 속셈일 뿐이고 / 고궁은 높이 떠올라 / 길은

끝내 머리를 치켜든다. / 선을 확인하는 일. / 깊이 뚫어내는 일. / 밤은 깊숙이 푸른 바람으로 숨쉰다. / 신하들의 언어는 / 어디에 숨어 있을까. / 캐는 곳마다 청동으로 빛나는 / 그대의 밤, 슬픔의 벽면들. / 나는야 밤새워 / 알몸으로 오그라들고 / 날빛 푸른 새벽녘 / 눈물의 확대, 빛으로 터질지니. <마종하, 저녁 빛, 노래하는 바다, 민족문화사, 1983>

*a 규계(規誡)

한데, 이렇듯한 그에게도 슬픈 때가 왔다, 그날이 왔다. / 지나친 욕망(慾望)을 채우던 그는 덫에 치우고 말았나니 / 모든 규계(規誡)는 그에게서 온갖 자유(自由)를 빼앗아 버렸다. / 늘어진 날개죽지는 서리맞은 풀잎같이 생기를 잃었고, / 반쯤 감은 눈자위에서는 이 힘을 찾아 볼 수 없구나. / 아하, 쇠사슬에 억매우듯이 우리 안에 자치움이어, 쇠잔(衰殘)해진 권력자(權力者)의 말로(末路)여. <황순원, 우리 안에 든 독수리, 방가(放歌), 동경학생예술좌 문예부, 1934>

*a 규녀(閨女)

오오, 규녀(閨女)! 감추인 옥석(玉石)! / 후원에 핀 난꽃 한 떨기여! / 네 숨음은 탄하기 어려워라. <신석초, 규녀(閨女), 석초시집, 을유문화사, 1946>

*a 균일상(均一床)

조선총독부가 있을 때 / 청계천변(川邊) 십전(十錢) 균일상(均一床) 밥집 문턱엔 / 거지소녀가 거지장님 어버이를 / 이끌고 와 서 있었다 / 주인 영감이 소리를 질렀으나 / 태연하였다 <김종삼, 장편(掌篇) 2, 시인학교, 신현실사, 1977>

*a 균종(菌種)

먼 역정(歷程)에 지쳐 / 떨어져나간 팔다리에 / 또 팔다리가 돋아나고 / 그 팔다리가 또 떨어져나간 다음 / 거기에 발암(發癌)하는 균종(菌種)들. <림영창, 아마겟돈의 후일담(後日譚), 1986년 12월 18일, 문무사, 1985>

*a 귤중선인(橘中仙人)

나뭇군이 좇어 온 유자(柚子) 속에서 상산사호(商山四皓)가 바둑을 두더라는 귤중선인(橘中仙人)이야 못 만난다 하더래도 솔가루 긁어모아 가리나무 몇 짐이면 훈군한 구들목에 겨울을 난다. <김관식,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 김관식시선, 자유세계사, 1957>

*a 그느슥하다

농마루며 바람벽은 모두들 그느슥히 / 흰밥과 두부와 튀각과 자반을 생각나 하고 <백석, 함주시초(咸州詩抄), 조광, 1937. 10>

*a 극빙점

어둠이 극빙점에 이르는 신새벽 / 펑펑 쏟아져 내리는 / 눈이여, 눈발이여. / 어둠을 지우며, / 검은 바다를 지우며, / 쏟아져야지, 다시 쏟아져야지. / 섬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강창민, 겨울 바다, 물음표를 위하여, 문학과지성사, 1990>

*a 글라디올라스

글라디올라스 꽃잎에 / 앉아 있던 나비가 / 분수가에 와 날고 있다. <황금찬, 분수(噴水)&5&, 분수와 나비, 문원사, 1971>

*a 금남로

금남로는 사랑이었다 / 내가 노래와 평화에 / 눈을 뜬 봄날의 언덕이었다 / 사람들이 세월에 머리를 적시는 거리 / 내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 처음으로 처음으로 알아낸 거리 / 금남로는 연초록 강 언덕이었다 / 달맞이꽃을 흔들며 날으는 물새들 / 금남로의 사람들은 모두 입술이 젖어 있었다 / 금남로의 사람들은 모두 발바닥에 흙이 묻어 있었다 / 금남로의 사람들은 모두 보리피리를 불고 있었다 / 어린애와 나란히 출렁이는 금남로 / 어머니와 나란히 밭으로 가는 금남로 / 아버지와 나란히 쟁기질하는 금남로 / 할머니와 나란히 손자들을 등에 업는 금남로 / 할아버지와 나란히 밤나무를 심는 금남로 / 누이와 나란히 감꽃을 줍는 금남로 / 금남로는 민들레와 나비떼들의 고향이었다 / 그리움의 억세디 억센 끈질김이었다 / 그래, 좋다! 금남로는 멀리 / 청산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래, 좋다! / 금남로는 가까이 마을로 찾아가는 길 / 금남로는 어머니의 젖가슴이었다 / 우리가 한때 고개를 파묻고 울던 / 어머니의 하이얀 가슴이었다. <김준태, 금남로 사랑, 불이냐 꽃이냐, 청사, 1986>

우리들은 희망이었고 우리들은 비명이었지 / 우리들은 전사였고 우리들은 사도였지 / 우리들은 피였고 우리들은 시체였지 / 우리들은 빛고을이었고 빛고을의 망월동이었고 / 우리들은 플라타너스였고 플라타너스 이파리가 피어나는 금남로의 벽돌짝이었지 / 해 저물어 어둠을 찾아들 때, 바리케이트 너머로 하나, 둘 모여드는 / 피투성이 된 붉고붉은 입술들 입술들의 입맞춤 입맞춤의 환희 / 죽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들의 꿈이 살아난 / 우리들은 한마당이었지 합창이었지……광주였지 <최하림, 우리들은 오늘도, 속이 보이는 심연으로, 문학과지성사, 1991>

*a 금롱(金籠)

굴레 벗은 소는 / 물가에 한가(閑暇)로이 풀을 뜯으나 / 금롱(金籠)으로 머리를 호사(豪奢)한 소는 / 채찍을 잡고 막대로 몬다. <김관식, 산중재상(山中宰相), 김관식시선, 자유세계사, 1957>

*a 금만경(金萬頃)

구릉(丘陵) 구릉(丘陵) 구릉(丘陵) 그 사이 사이 마을 / 금만경(金萬頃) 희마밋들 한편엔 임익평야(臨益平野) / 진실로 남국(南國)의 옥토(沃土) 제일곡창(第一穀倉) 아닌가 <이병기, 농촌화첩(農村畵帖) 2, 가람문선, 신구문화사, 1966>

*a 금면(禁眠)

모든 성좌(星座)나 극성(極星)까지도 잠자는 시간을 / 혼자 잠 못 자는 무한(無限) 입초(立哨)의 원형(原刑)과 / 준엄한 금면(禁眠)의 선고 앞에 / 핏발 돋친 통고에 대한 / 사면(赦免)의 소청도 아니다. <설창수, 금성(金星)의 노래, 개폐교, 백양당, 1950>

*a 금부(金府)

보아하니 철학(哲學)도 / 앙상한 뼈다귀 흰 뼈다귀의 진실로만 / 세우고 있는 / 한갓 나목(裸木)이요 / 그 추위로다. / 시(詩)가 이 앙상한 나무등걸에 뿌려지니 / 잎도 꽃도 열매도 새도 바람도 / 구름도 음영(陰影)까지 / 하늘도 빛도 기류(氣流)도 사람마음도 / 사회도 / 세상 온갖 뼈다귀도 권부(權府)도 / 금부(金府)도 정쟁(政爭)도 <정공채, 사람소리 1, 사람소리, 1989>

*a 금상첨화(錦上添花)하다

반듯반듯한 돌을, 조직적(組織的)으로 질서정연(秩序整然)하게 쌓아서 세운, 낡아빠진 집이, 조그만 언덕 위에 외따로이 떨어져 서 있게 되었다. 지금의 이 집의 형상(形象)의 처참(悽慘)함이여! 낡아빠진 지붕보다도 오히려 이 집의 흐너져 가는 벽, 그것보다도 오히려 그 벽을 받치고 있는 인조석(人造石)의 좀먹어 들어 썩어지는 위태(危殆)함이여!— 과연(果然)이다 정신(精神)들여 이 집을 주의(注意)하여 보는 사람은, 이와 같은 이 집 자신(自身)이 공개(公開)하고 있는 운명(運命)을 깨달을 것이다. 그러나 이 집을 보건대, 아무도 수백 년(數百年) 동안 이 곳에서 있었던 것 같고, 처음에는 이 집의 규모(規模)가 큰 것과 짜임새 있는 점(点)으로 이 언덕 위에 있어서 한 개의 위관(偉觀)을 보이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리하여 이 집의 위관(偉觀)을 금상첨화(錦上添花)하기 위(爲)하여 둘러싸고 있는 화초(花草)와 관목(灌木)과 괴수(怪樹)는, 수백 년(數百年) 동안 이 집의 추종자(追從者)가 되어서 저희들의 상전인 이 집을 위하고 받들었던 것이다. / 그러나 이 집이 점점 낡아가고 주춧돌이 좀먹기 시작함을 따라서 무성(茂盛)하던 초목(草木)도 거의 시들어 일종(一種)의 폐원(廢苑)으로 퇴락(頹落)하였던 것이다. 이 집이 건설(建設)되던 당시(當時)에 이 초목(草木)들은 이 집을 구가(謳歌)하고, 더구나 초목(草木)은 새들을 부르고 바람을 부르고 꽃을 열어서 더 한층(層) 구가

(謳歌)하였던 것이다. 그때에는 시(詩)가 있었다. ―이 집을 둘러싸고 서의 시(詩)가. 그러나 이 집이 이와 같이 되기 시작한 때부터는 그 시(詩)가 죽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초목(草木)은 일제(一齊)히 침묵(沈默)하기 시작하였다. 화초(花草)와 관목(灌木)들은 면면상고(面面相顧)하며 장차(將次) 어찌됨을 의논(議論)하였다. 그때에 돌연(突然)히 겨울의 폭왕(暴王)이 바람을 몰아 가지고 이 곳을 엄습(掩襲)하고 말았다. 초목(草木)은 이 폭왕(暴王) 아래에 웅송거리고서 저희들의 생명(生命)을 보전(保全)하기 위(爲)하여 관(冠)을 벗어버리고, 손, 발을 끊어 내던지고, 숨을 죽였다 그리하여 겨울에 서서 눈물을 흘렸다.―초목(草木)이 눈물을 흘려?…… <김기진, 신록(新綠)&3&, 개벽, 1924. 6>

*a 금색계(金色界)

간대도, 간대도, / 서방(西方) 금색계(金色界)라든가 뭣이라든가 / 그런 데로밖엔 쏠릴 길조차 없으니. <서정주, 두 향나무 사이, 신라초, 정음사, 1961>

*a 금석전각(金石殿閣)

인경종이 울어 팔문(八門)이 굳이 닫히어도 / 난신외구(亂臣外寇)더러 성(城)을 넘고 불을 놓다. / 퇴락한 금석전각(金石殿閣) 이젠 차라리 겨레의 향그런 재화(才華)로다. / 찬란한 파고다여, 우리 그대 앞에 진정 고개숙인다. <김영랑, 천리를 올라온다, 조광, 1939. 12>

*a 금수세계(錦繡世界)

신이화(莘荑花) 피었단 말 어제런듯 들었더니 / 어느덧 만산홍록(滿山紅綠) 금수세계(錦繡世界) 되었도다 / 놀랍다 운기(運氣)에는 무왕불복(無往不復). <최남선, 봄맞이, 소년, 1910. 4>

*a 금시소생(今時蘇生)하다

우리의 발꿈치가 돌리는 곳에 / 우리의 가진 기(旗)발 향(向)하는 곳에 / 아프게 앓는 소리 즉시(卽時) 그치고 / 무겁게 병(病)든 모양 금시소생(今時蘇生)해 / 아무나 아무던지 우리를 보면 / 두 손을 벌리고서 크고 빛난 것 / 청(請)하야 달라도록 만들 것이오 / 청(請)하지 아니해도 얼른 주리라. <최남선, 소년 대한(少年 大韓), 소년, 1908. 12>

*a 금심수장(錦心繡腸)

철따라 채마(菜麻)에선 아욱이나 명아주의 푸새가 나고 산(山)에는 삽주싹과 수리치도 있길래 풀뿌리를 캐먹고 연명(延命)을 하더라도 금심수장(錦心繡腸)을 지녀야 하느니라. <김관식, 양생수(養生修), 김관식시선, 자유세계사, 1957>

*a 금전벽우(金殿碧宇)

장(壯)하던 금전벽우(金殿碧宇) 찬 재 되고 남은 터에 / 이루고 또 이루어 오늘을 보이도다 / 흥망(興亡)이 산중(山中)에도 있다 하니 더욱 비감(悲感)하여라 <이은상, 장안사(長安寺), 노산시조집(鷺山時調集), 한성도서주식회사, 1932>

*a 금표비

금표비 곁에 조그만 움집 하나 짓는다면 / 힘든 계절 하나를 여기서 나고싶다. / 먹을 것 한짐 싸지고 들어가 / 눈을 쓸고 / 종아리까지 빠지는 삭정이와 솔잎 걷어 / 밝고 가벼운 불 지피고 / 아침 저녁 주천강(酒泉江)물로 씻어내면 / 정신의 군더더기는 저절로 빠지겠지 / 꿈속에서마저 살이 마른 며칠 후 / 새로 구멍을 뚫어 허리조인 혁대를 매고 강가에 나가 / 불러도 건너오지 않는 사공을 기다릴 것인가? / 혹은 아무 생각 없이 자갈밭을 거닐다 / 저녁이 오면 흔쾌히 움막으로 되돌아 갈 것인가 / 아니면 이건 비밀이다, / 신발과 양말 벗고 몸이 더 가벼워져 / 흐르는 얼음장 피하며 물을 살짝살짝 밟고 / 유유히 걸어 강을 건너볼 것인가? <황동규, 청령포, 악어를 조심하라고?, 문학과지성사, 1986>

*a 금환식일(金環蝕日)

나의 심부를 밀항하다 쐐기쐬서 / 사시(斜視)가 된 유감(遺憾)의 별똥들이 / 윤창(輪唱)하는 태양의 털에 그슬리고 / 등허리에 누전(漏電)되는 암흑교류(暗黑交流)에 자지러져 / 공룡(恐龍)의 비늘 내 나는 삼진시간(三辰時間)의 사타구니에 몰려 / 도리없이 자살하고 부활해서 탄생한 것이 너다. / 천둥과 포도의 대립선율(對立旋律)에 목 졸리고 / 5막(幕)짜리 짠 거품에 거꾸로 저려져서 썩을수록 / 너는 돈사(頓死) 않고 자란다. / 이윽고 백색왜성(白色矮星)만큼 영글어서 어느 금환식일(金環蝕日)에 독립하는 너. / 팽기고 돌 고드름 열린 것이 이끼 낀 종유동(鍾乳洞). / 피리 구멍 나고 바람 들랑거리는 것이 떠는 삼반규관(三半規管). / 굴절(屈折)의 비수(匕首) 차고 오무렸다 늘어날 땐 퍼런 신기루(蜃氣樓). / 허나 언제나 나의 오미(五味)의 유령을 버릇없이 만끽하고 대전(帶電)되어 / 아린 심술부리는 미립(微粒) 응어리. / 하늘님의 정자(精子)와 할머님의 사골(死骨)을 / 한 대롱에 소화하는 정교(精巧)한 준동(蠢動). 용쓰는 / 십이파(十二派)의 팔씨름을 승부 없이 끌고 가는 궁자(弓字) 건(腱). / 네가 약오른 영혼의 전관(電管)을 토닥거릴 땐 위험하다. / 장미와 무구녀(無垢女)가 너무 오래 입맞추고, 수정사변(水晶思辨)이 / 피를 빨기 좋아하고, 도깨비가 순하게 곡(哭)하고, / 심장이 황금비(黃金比)의 금속(金屬) 관(棺)을 그리워한다. / 결국 너의 본업(本業)은 차진 / 연정(戀情)의 맥질이다. 희한한 효험과 / 역효과(逆效果)에 암수 바위 금슬이 빼개지기도 하고 달라붙기도 한다. / 그러나 아아, 방랑하는

고아. 쾌미(快美)의 의적(義賊). / 귀여운 밀핵(密核)이여. / 스스로의 구조에 집혀 불확실성원리(不確實性原理)모양 앙감질하며 / 한 광주리의 심해어(深海魚)를 이미 부화(孵化)해낸 지금의 너의 좌표(座標)는 / 아슬아슬한 접선(接線)의 서슬. / 날이 저문다. 환등(幻燈) 황혼(黃昏)이 풍악을 친다. 쨍매기의 틈 서리로 / 이제 기웃거리는 것은 눈매 콧날이 흡사 너를 닮은 / 동그라미의 심연(深淵). 그 속에 휘휘 맴도는 무시무시한 정점(靜點)이 / 사리고 있다. 너는 그것을 마저 해내기 위해서 / 더욱 무섬타는 기술(技術)을 가는 매친틀이다. <성찬경, 밀핵, 화형둔주곡, 정음사, 1966>

*a 기갈증

어린아기 젖이 안 나 지쳐 잠들고 / 영양실조 기갈증 / 성인들은 부황이 들어 / 누렇게 부어서 비틀댔다. <박두진, 식민지(植民地), 20년대(年代) 춘궁(春窮), 포옹무한(抱擁無限), 범조사, 1981>

*a 기둘리다

뒤돌아 보면 / 희고 마른 벌판이고 / 벌판에 한없이 / 서서 기둘리는 / 흔들리는 풀잎이고 / 풀잎 끝을 지나는 / 세상의 바람이다 / 언젠간 나를 / 안고 쓰러지는 / 그대, 메마른 키쓰다. <조우성, 그대&4&, 소리를 테마로 한 세편의 시, 심상사, 1980>

*a 기드렁하다

마을에서는 세 벌 김을 다 매고 들에서 / 개장취념을 서너 번 하고 나면 / 백중 좋은 날이 슬그머니 오는데 / 백중날에는 새악시들이 / 생모시치마 천진푀치마의 물팩치기 껑추렁한 치마에 / 쇠주푀적삼 항라적삼의 자지고름이 기드렁한 적삼에 / 한끝나게 상나들이옷을 있는 대로 다 내 입고 / 머리는 다리를 서너 켜레씩 들어서 / 시뻘건 꼬둘채댕기를 삐뚜룩하니 해 꽂고 / 네날백이 따배기신을 맨발에 바꿔 신고 / 고개를 몇이라도 넘어서 약물터로 가는데 / 무썩무썩 더운 날에도 벌 길에는 / 건들건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 허리에 찬 남갑사 주머니에는 오랜만에 돈푼이 들어 즈벅이고 / 광지보에서 나온 은장도에 바늘집에 원앙에 바둑에 / 번들번들하는 노리개는 스르럭스르럭 소리가 나고 / 고개를 몇이라도 넘어서 약물터로 오면 / 약물터엔 사람들이 백재일 치듯 하였는데 / 봉가집에서 온 사람들도 만나 반가워하고 / 깨죽이며 문주며 섶가락 앞에 송구떡을 사서 권하거니 먹거니 하고 / 그러다는 백중 물을 내는 소내기를 함뿍 맞고 / 호주를하니 젖어서 달아나는데 / 이번에는 꿈에도 못 잊는 봉가집에 가는 것이다 / 봉가집을 가면서도 칠월(七月) 그믐 초가을을 할 때까지 / 평안하니 집살이를 할 것을 생각하고 / 애끼는 옷을 다 적시어도 비는 시원만 하다고 생각한

다 <백석, 칠월(七月) 백중, 문장, 1948. 10>

*a 기민시(飢民詩)

정다산(丁茶山) 1762년 경기 광주산 / 깡마른 얼굴 날카로운 눈빛을 지님 / 전직 암행어사 목민관 / 기민시 애절양 등의 애민을 빙자한 / 유언비어 날포로 민심을 흉흉케 한 / 자생적 공산주의자 및 천주학 수괴 <곽재구, 귤동리 일박, 사평역에서, 문학과지성사, 1983>

한밤중*에 깨어났다 꿈을 꾸다가, 기침을 하면 늑골까지 얼음이 깔리고 이명(耳鳴)의 귀에 흩어진다 결빙음(結氷音)은 내가 읽는 요즘의 책*에도 있는데 밤의 내륙 땅에서 강진*의 앞바다를 떠올린다 백일홍*은 봄날이라도 어둡고 초(艸)*의 구절은 마른번개처럼 울린다 돌아보면 그의 땅에는 버린 노래*들만 가득한데 청솔가지 유배지(流配地)*의 꿈을 되풀이 꾼다 이월 봄밤, 자전을 펴들고 짚어가는 기민시(飢民詩)*는 먼 곳으로 띄우는 편지*처럼 적막하다 강진의 땅은 누군가 기다리는 것으로도 쓸쓸하고 물소리 울리며 강은 늘 그곳까지 흐른다 내 방의 고요도 내 그리움의 이름들도 차가운 노래*로 남녘말까지 흐른다 지금 내 몸은 새벽 추위에 있고 찬(撰)*의 말들은 이 땅의 역참마다 아침이슬이나 풀씨로 머물러 있음을 본다 먼 바다 이월 해일은 그믐이면 해변 다복솔을 덮칠 것이고 흰 파도 검은 바위*는 뒤엉켜 있으리라 <송재학, 얼음시 3, 서정시학, 깊은 샘, 1994>

*a 기심꾼

논물에서 떠오르는 김도 뜨겁고 / 붉은 산에 쬐이는 햇빛은 더 붉어 / 솔나무 향기가 코를 찌르고 / 석양 맞은 황소의 큰 울음 할 제 / 아아, 너의 홍수와 소낙비와 / 기운찬 바람 뜨거운 바람 돌개바람 / 번갯불 우뢰소리 뭉게뭉게 오르는 구름 / 산과 골짜기 뻗어 나가는 산맥들과 / 또 시냇물과 다리와 나룻배와 / 기심꾼의 구슬땀과 노랫가락 / 그늘진 나무와 샘물과 폭포와 / 바위에 기는 덩굴과 우거진 수풀 <주요한, 조선&2&, 삼인시가집(三人詩歌集), 삼천리사, 1929>

*a 기피증

그래도 세상은 나에게 자꾸자꾸 / 사람 기피증을 만들게 했지 / 내 고의적인 기피증을 눈의 먼지 탓으로 / 돌리려 했지 세상은. <김지향, 눈속의 먼지, 비온 뒤 풀밭, 문학아카데미, 1993>

*a 기험(奇險)하다

삼수 갑산 내 왜 왔노 삼수갑산이 어디뇨 / 오고 나니 기험(奇險)타 아하 물도 많고 산 첩첩이라 아하하 <김소월, 삼수갑산(三水甲山), 신인문학, 1929. 11>

*a 길씀하다

잠자듯 고운 눈썹 위에 / 달빛이 나린다 / 눈이 쌓인다 / 옛날의 슬픈 / 피가 맺힌다 / 어느 강(江)을 건너서 / 다시 그를 만나랴 / 살눈섭 길씀한 / 옛 사람을 <박목월, 귀 밑 사마귀, 청록집, 을유문화사, 1946>

한 자락은 햇빛에 빛났다. 다른 자락은 그늘에 묻힌 채…… 이 길씀한 산(山)자락에 은은한 웃음과 그윽한 눈물을 눈동자에 모으고 아아 당신은 영원한 모성. <박목월, 산(山)·소묘 1, 난·기타(蘭·其他), 신구문화사, 1959>

*a 김살

바다는 겨울에 자란다고 그런다 / 서천군 서면 해안에 김살을 꽂아 놓고 / 아침에는 장터에 나와 놀고 있는 파도야 / 사람들은 너무 지치지 않았는지 / 겨울 해안의 갈꽃 같은 밤바다의 울음을 / 양지 쪽에 내놓고 말리고 있다 / 진실하게 사는 일을 모르고 /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은 / 목로에 나와 메밀묵을 씹으며 탱고를 들을 뿐 / 따개비 껍질이나 모래알을 줍는 게지 / 별장이나 달빛 또는 포장도로를 밀어 두고 / 오늘은 능엄경을 읽는 파도야 / 뻐끔뻐끔 담배를 태우는 내 얼굴도 / 덮어라, 죽은 풀잎 하나를 쓰러뜨리기 위해 / 온몸까지 찢고 있는 파도야 <안수환, 겨울 바다 &3&, 신들의 옷, 문학과지성사, 1982>

*a 깊섶

눈을 가만 감으면 굽이 잦은 풀밭 길이, / 개울물 돌돌돌 깊섶으로 흘러가고, / 백양숲 사립을 가린 초집들도 보이구요. <김상옥, 사향(思鄕)&2&, 묵(墨)을 갈다가, 창작과비평사, 1980>

*a 깽제미

가즈랑집은 고개 밑의 / 산(山) 너머 마을서 도야지를 잃는 밤 짐승을 쫓는 깽제미 소리가 무서웁게 들려오는 집 / 닭 새 짐승을 못 놓는 / 맷도야지와 이웃 사춘을 지나는 집 <백석, 가즈랑집, 사슴, (자가본), 1936>

*a 껑추렁하다

마을에서는 세 벌 김을 다 매고 들에서 / 개장취념을 서너 번 하고 나면 / 백중 좋은 날이 슬그머니 오는데 / 백중날에는 새악시들이 / 생모시치마 천진푀치마의 물팩치기 껑추렁한 치마에 / 쇠주푀적삼 항라적삼의 자지고름이 기드렁한 적삼에 / 한끝나게 상나들이옷을 있는 대로 다 내 입고 / 머리는 다리를 서너 커레씩 들어서 / 시뻘건 꼬둘채댕기를 삐뚜룩하니 해 꽂고 / 네날백이 따배기신을 맨발에 바꿔 신고 / 고개를 몇이라도 넘어서 약물터로 가는데 / 무썩무썩 더운 날에도 벌 길

에는 / 건들건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 허리에 찬 남갑사 주머니에는 오랜만에 돈푼이 들어 즈벅이고 / 광지보에서 나온 은장도에 바늘집에 원앙에 바둑에 / 번들번들하는 노리개는 스르럭스르럭 소리가 나고 / 고개를 몇이라도 넘어서 약물터로 오면 / 약물터엔 사람들이 백재일 치듯 하였는데 / 붕가집에서 온 사람들도 만나 반가워하고 / 깨죽이며 문주며 섶가락 앞에 송구떡을 사서 권하거니 먹거니 하고 / 그러다는 백중 물을 내는 소내기를 함뿍 맞고 / 호주를하니 젖어서 달아나는데 / 이번에는 꿈에도 못 잊는 붕가집에 가는 것이다 / 붕가집을 가면서도 칠월(七月) 그믐 초가을을 할 때까지 / 평안하니 집살이를 할 것을 생각하고 / 애끼는 옷을 다 적시어도 비는 시원만 하다고 생각한다 <백석, 칠월(七月) 백중, 문장, 1948. 10>

*a 꼬둘채댕기

마을에서는 세 벌 김을 다 매고 들에서 / 개장취념을 서너 번 하고 나면 / 백중 좋은 날이 슬그머니 오는데 / 백중날에는 새악시들이 / 생모시치마 천진푀치마의 물팩치기 껑추렁한 치마에 / 쇠주푀적삼 항라적삼의 자지고름이 기드렁한 적삼에 / 한끝나게 상나들이옷을 있는 대로 다 내 입고 / 머리는 다리를 서너 켜레씩 들어서 / 시뻘건 꼬둘채댕기를 삐뚜룩하니 해 꽂고 / 네날백이 따배기신을 맨발에 바꿔 신고 / 고개를 몇이라도 넘어서 약물터로 가는데 / 무썩무썩 더운 날에도 벌 길에는 / 건들건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 허리에 찬 남갑사 주머니에는 오랜만에 돈푼이 들어 즈벅이고 / 광지보에서 나온 은장도에 바늘집에 원앙에 바둑에 / 번들번들하는 노리개는 스르럭스르럭 소리가 나고 / 고개를 몇이라도 넘어서 약물터로 오면 / 약물터엔 사람들이 백재일 치듯 하였는데 / 붕가집에서 온 사람들도 만나 반가워하고 / 깨죽이며 문주며 섶가락 앞에 송구떡을 사서 권하거니 먹거니 하고 / 그러다는 백중 물을 내는 소내기를 함뿍 맞고 / 호주를하니 젖어서 달아나는데 / 이번에는 꿈에도 못 잊는 붕가집에 가는 것이다 / 붕가집을 가면서도 칠월(七月) 그믐 초가을을 할 때까지 / 평안하니 집살이를 할 것을 생각하고 / 애끼는 옷을 다 적시어도 비는 시원만 하다고 생각한다 <백석, 칠월(七月) 백중, 문장, 1948. 10>

*a 꽃대궁

건들장마 해거름 갈잎 버들붕어 꾸러미 들고 원두막 처마밑 잠시 섰는 아이 함초롬 젖어 말아올린 베잠방이 알종아리 총총 걸음 건들 장마 상치 상치 꽃대궁 백발(白髮)의 꽃대궁 아욱 아욱 꽃대궁 백발(白髮)의 꽃대궁 고향 사람들 바자울 세우고 외넝쿨 거두고. <박용래, 건들 장마,

백발의 꽃대궁, 문학예술사, 1980>

*a 꾸냥

손톱을 시펄하니 기르고 기나긴 창꽈쯔를 즐즐 끌고 싶었다 / 만두(饅頭) 꼬깔을 눌러 쓰고 곰방대를 물고 가고 싶었다 / 이왕이면 향(香)내 높은 취향리(梨) 돌배 움퍽움퍽 씹으며 머리채 츠렁츠렁 발굽을 차는 꾸냥과 가즈런히 쌍마차(雙馬車) 몰아 가고 싶었다 <백석, 안동(安東), 조선일보, 1938. 10>

타이완의 열 아홉 살 꾸냥, / 시골에서 다달이 부쳐오는 돈으로 / 학교를 다니는 그녀의 셋방 / 어둑한 방문 앞에 / 그녀의 어깨처럼 / ―마르디 마른 한 쌍의 밀어 <조재훈, 섬안의 새, 물로 또는 불로, 한길사, 1991>

*a 나녀(裸女)

……아 최후로 이 성자(聖者)의 세계에 / 살아 있는 것이 있다면 분명히 / 그것은 속죄의 회화(繪畵) 속의 나녀(裸女)와 / 회상도 고뇌도 이제는 망령에게 팔은 / 철없는 시인 / 나의 눈감지 못한 / 단순한 상태의 시체일 것이다……. <박인환, 살아 있는 것이 있다면, 박인환 시선집, 산호장, 1955>

*a 나락금

자네는 볼 수 있을 것이네 아침에 일어나면 / 일 분 일 초를 가만있지 못하는 이 손을 / 금방까지 싸리비로 안마당을 쓸고 있었는데 어느새 / 그 손은 뒤안에서 장작을 패고 / 소죽솥에 불을 때고 있었는데 또 어느새 / 변소에 가서 합수와 보릿대를 이겨 참거름을 만드네 /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 한시도 일하지 않으면 배겨내지 못하는 이 손 / 이 손은 싸운다네 / 우리들의 밥상에 오르는 그날 그날의 양식을 위하여 / 봄이면 살을 에이는 눈녹이바람과 싸우고 / 씨 뿌려 병충해가 생기면 / 죽음의 농약과 함께 싸운다네 / 가뭄을 만나 어제까지는 물과 싸우는가 하면 / 홍수를 만나 오늘은 무너져 내린 둑과 싸우고 / 다 자란 자식 고개 숙인 황금의 이삭을 부둥켜 안고 / 가을이면 태풍과 싸운다네 / 그러나 나는 보지 못했네 아직 / 이 손의 주름이 부자들의 웃음처럼 펴지는 것을 / 제 노동의 주인이 되어 이 손이 / 제 입으로 쌀밥을 가져가는 것을 / 노동의 기쁨이 되어 이 손이 / 춤이 되고 노래가 되는 것을 / 제 노동의 계산이 되어 이 손가락이 / 나락금을 셈하는 것을 나는 한번도 본 적이 없네 <김남주, 손,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미래사, 1991>

*a 나명들명

옛 동무 노 젓는 배에 얻어 올라 치를 잡고 / 한바다 물을 따라 나명들명 살까이나 / 맞잡고 그물 던지며 노래하자 노래해 <이은상, 가고파,

노산시조집(鷺山時調集), 한성도서주식회사, 1932>

*a 나물매

어스름 저녁 국수당 돌각담의 수무나무 가지에 여귀의 탱을 걸고 나물매 갖추어 놓고 비난수를 하는 젊은 새악시들 / ―잘 먹고 가라 서리서리 물러가라 네 소원 풀었으니 다시 침노 말아라 <백석, 오금덩이라는 곳, 사슴, (자가본), 1936>

*a 나주볕

촌에서 온 아이여 / 촌에서 어젯밤에 승합자동차를 타고 온 아이여 / 이렇게 추운데 웃동에 무슨 두룽이 같은 것을 하나 걸치고 아랫도리는 쪽 발가벗은 아이여 / 뺄다구에는 징기징기 앙광이를 그리고 머리칼이 노란 아이여 / 힘을 쓸려고 벌써부터 두 다리가 푸둥푸둥하니 살이 찐 아이여 / 너는 오늘 아침 무엇에 놀라서 우는구나 / 분명코 무슨 거짓되고 쓸데없는 것에 놀라서 / 그것이 네 맑고 참된 마음에 분해서 우는구나 / 이 집에 있는 다른 많은 아이들이 / 모두들 욕심 사납게 지게굳게 일부러 청을 돋혀서 / 어린 아이들치고는 너무나 큰소리로 너무나 튀겁 많은 소리로 울어 대는데 / 너만은 타고난 그 외마디 소리로 스스로웁게 삼가면서 우는구나 / 네 소리는 조금 썩심하니 쉬인 듯도 하다 / 네 소리에 내 마음은 반끗이 밝아오고 또 호끈히 더워 오고 그리고 즐거워 온다 / 나는 너를 껴안아 올려서 네 머리를 쓰다듬고 힘껏 네 작은 손을 쥐고 흔들고 싶다 / 네 소리에 나는 촌 농삿집의 저녁을 짓는 때 / 나주볕이 가득 드리운 밝은 방안에 혼자 앉아서 / 실감기며 버선짝을 가지고 쓰렁쓰렁 노는 아이를 생각한다 / 또 여름날 낮 기운 때 어른들이 모두 벌에 나가고 텅 비인 집 토방에서 / 햇강아지의 쌀랑대는 성화를 받아 가며 닭의 똥을 주워 먹는 아이를 생각한다 / 촌에서 와서 오늘 아침 무엇이 분해서 우는 아이여 / 너는 분명히 하늘이 사랑하는 시인이나 농사꾼이 될 것이로다 <백석, 촌에서 온 아이, 문장, 1941>

*a 낙륜(落倫)

음협(陰狹)한 씨내기, 사탄의 낙륜(落倫), / 너의 더러운 껍데기는 / 일찍 / 바닷가에 소꿉 노는 어린애들도 주워 가지는 아니하였다. <오장환, 해수(海獸), 성벽(城壁), 풍림사, 1937>

*a 낙목형해(落木形骸)

성근 낙목형해(落木形骸)새이 / 등(燈)불은 냉막(冷寞)의 꿈으로 비처 / 너의 언가슴 속으로 쉬여 나오는 한숨같이 / 지면(地面)을 스쳐가는 바람에 구르는 잎 / 사르르 굴러 또 사르르 / 스러져 가는 세상 외로운 자(者)의 넋이언가 <조명희, 떨어지는 가을, 봄 잔디밭 위에, 춘추각,

1924>

*a 낙역(絡繹)되다

찢어진벽지(壁紙)에죽어가는나비를본다. 그것은유계(幽界)에낙역(絡繹)되는비밀(秘密)한통화구(通話口)다. 어느날거울가운데의수염(鬚髥)에죽어가는나비를본다. 날개축처어진나비는입김에어리는가난한이슬을먹는다. 통화구(通話口)를손바닥으로꼭막으면서내가죽으면앉았다일어서드키나비도날라가리라. 이런말이결(決)코밖으로새어나가지는않게한다. <이상, 시제십호(詩第十號) 나비, 조선중앙일보, 1934. 8. 3>

*a 낙인(烙印)하다

불과의 친교(親交)에서 예의가 허물어져 / 불에 너무 접근한다. / '순간이란 이런 것' 하고 깨우치듯 / 불이 불의 본질을 나의 살에 낙인(烙印)한다. <성찬경, 화상소감(火傷小感), 화형둔주곡, 정음사, 1966>

*a 낙지론(樂志論)

눈에 들어오는 / 병풍의 '낙지론(樂志論)'을 / 읽어도 보고…… <신석정, 대바람소리, 대바람소리, 문원사, 1970>

*a 난분(蘭盆)

눈 온 창가에 난분(蘭盆)을 세워 두면 / 난잎 줄기가 내어주는 몇 갈래의 초록길. / 눈보라 속서 여자보다도 더 따스한 / 봄이 그 길을 타고 내 마음에 온다. <강우식, 춘란 -2-, 꽃을 꺾기 시작하면서, 문학예술사, 1979>

*a 난신외구(亂臣外寇)

인경종이 울어 팔문(八門)이 굳이 닫히어도 / 난신외구(亂臣外寇)더러 성(城)을 넘고 불을 놓다. / 퇴락한 금석전각(金石殿閣) 이젠 차라리 겨레의 향그런 재화(才華)로다. / 찬란한 파고다여, 우리 그대 앞에 진정 고개 숙인다. <김영랑, 천리를 올라온다, 조광, 1939. 12>

*a 난조미(亂調美)

암만해도나는 회화에서도망한예술가이다 / 미래파—공적(功的)이고난조미(亂調美)의추구 / 그것도아니다 결코나의그림은미술이못되니까— / 하마터면 또는 1917년10월에일어난병정(兵丁)의행렬과동궁(冬宮)오후(午後)삼시(三時)와구시(九時)사이를부조(浮彫)하고있을지도모를것이다 / 사랑할만한 '아카데믹'의유위(有爲)한청년의작품이— / 오오 나의그림은분명히나를반역했다 / 그리고 새로운나를 강요하는것이다 / 뺑기—냄새를피우고피냄새를달랜다 / 그리할것이다 나는이후부터는총과마차로그림을그리리라 <임화, 화가의 시(詩), 조선일보, 1927. 5. 8>

*a 날기명석

날기멍석을 저간다는 닭 보는 할미를 차 굴린다는 땅 아래 고래 같은 기와집에는 언제나 니차떡에 청밀에 은금보화가 그득하다는 외발 가진 조마구 뒷산(山) 어느메도 조마구네 나라가 있어서 오줌 누러 깨는 재밤 머리맡의 문살에 대인 유리창으로 조마구 군병의 새까만 대가리 새까만 눈알이 들여다보는 때 나는 이불 속에 자즈러붙어 숨도 쉬지 못한다 <백석, 고야(古夜), 사슴, (자가본), 1936>

*a 남갑사(藍甲紗)

바로 그때였다 그는 / 남갑사(藍甲紗) 한 필을 허공에 펼쳐 / 그냥 온몸에 휘감은 채로 / 숲속을 향하여 /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다. <조지훈, 여운, 여운, 일조각, 1964>

*a 남근석

그 남근석은 반쯤 모래톱에 숨어 있었다. / 한여름 쏟아지는 햇살 들끓어서 / 한증막처럼 뜨거운 돌밭 몰래 빠져나가 / 강물에 들기라도 할 참이던가. / 아뭏든 그날 볼 만한 물건 하나 배낭에 챙겨 장원 따낸 이씨는 / 늦게 돌아와 땀 씻고 잠든 나를 전화로 깨워놓고서 한다는 말이 "글쎄, 대가리 치켜든 구렁이 같은 그 놈을 수돗물 열어놓고 닦고 씻고 또 닦고 씻고 했는데도 여태껏 내 손바닥에서 후끈거리지 뭡니까. 으핫하……" 다시 자랑이었다. / 덜 깬 귓전으로도 그의 목소리가 / 반쯤은 떨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 질로나 생김새로나 빼어난 물건 얻은 / 그의 기쁨은 밤 깊어도 좀체 잠들 줄을 몰랐던 것이다. / 여하튼 그러한 그에게 나는 잠결의 부시시한 목소리로 / 거듭 축하의 말을 보내고서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 그리고 뜨거운 여름 햇살로 달구어져 / 후끈한 열기 가시지 않는 물건 / 밤 깊도록 어루만지며 느긋한 이씨를 / 잠시 눈시울 속에 그리다가 / 다시 잠들었다. / 그런데 다시 잠들었던 내가 소스라치게 놀라서 / 후다닥 깨어 일어나 앉은 것은 오전 두 시쯤이었을까. / 꿈을 꾸었던 것이다. / 6·25 때의 어느 날이었다. /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야전병원의 천막 안은 / 끈끈한 무더위가 질펀하였다. / 이윽고 한 병사가 들것에 실려 왔고 / 들것이 내려놓이자 고였던 피와 빗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 질척거리는 땅바닥을 검붉게 물들이었다. / 우르르 위생병들이 몰려들었다. / 누군가 소릴 질렀다. / "제기랄, 이게 뭐야?! 되놈의 총알이 그걸 홀랑 날려 버렸지 뭐야!!" / 그런데 내가 막 그리로 다가갔을 때였다. / 이미 죽었거니 했던 부상병이 / 피와 빗물로 얼룩진 들것 위에 우뚝 솟아 일어나질 않는가. / 그리고 나는 똑똑히 보았던 것이다. / 그가 오른손에 거머쥐고 있는 한 물건을 / 빼어나게 잘 생긴 그 남근을. / 그러나 내가 소스라치게 놀란 것은 결코 그 때문이 아니었다. / 대가리 치켜든 구렁이 같은 그 놈을 / 단단히

거머쥐고 '으핫하……' 크게 웃어제치는 그가 / 바로 다름아닌 이씨였기 때문이었다. <전봉건, 돌 11, 돌, 현대문학사, 1984>

*a 남길동

골이 다한 산대 밑에 자그마한 돌능와집이 한 채 있어서 / 이 집 남길동 단 안주인은 겨울이면 집을 내고 / 산을 돌아 거리로 내려간다는 말을 하는데 / 해바른 마당에는 꿀벌이 스무나문 통 있었다 <백석, 함주시초(咸州詩抄), 조광, 1937. 10>

*a 남묘(南畝)

아쉬운 아쉬운 주월(晝月)이 어울린 / 긴 포구(浦口)는 밀물로 소리 곱고 / 더 곱게 낙조(落照)로 희한하게 물든다. / 이 언덕에서 천막(天幕)을 헐어 그네, 여름봇짐을 싸 짊어질 때 / 희랍(希臘)의 그 아양을 본뜬 계집들 / 반허리에 휘감은 엷은 옷을 추키며 / 거리에서 숨어들고 / 이날도 / 천기예보(天氣豫報), 흰 깃발은 멀리 나부낀다. / (내 사랑하는 숲과 들로 돌아가보면) / 뉘엿이 해 저물어 / 두 가슴으로 새어드는 바람 / 수만 줄기 높낮은 벌레울음 / 수풀과 덩굴에 사모치고 / 어디 갔던 고양이 집으로 기어들 때 / 할머니는 / 널어 말린 뽕잎담배를 치맛자락으로 거둬들인다. / 소수레는 천천히 / 두 바퀴에 이가는 여름 저녁을 감으며 감으며 / 먼 뒷골에서 예돌아든다. / 젊은이는 꼴단에 비껴앉아 / 소방울에 고요히 / 장단을 놓으며 / 언덕길을 굽이돌 제 / 품앗이 베아리꾼 젊은 주인(主人)을 맞이하는 / 삽사리는 싸리문 밖으로 내달으며 짖나니 / 오 이러할 때 / 남묘(南畝)에 할아버지도 원두막에서 내려온다. <설정식, 여름이 가나보다, 동광, 1932. 10>

*a 납촬(拉撮)하다

기독(基督)은남루(襤褸)한행색(行色)으로설교(說敎)를시작했다. / 아아르·카오보네는감람산(橄欖山)을산(山)채로납촬(拉撮)해갔다. <이상, 이인(二人)……1……, 조선과 건축, 1931. 8>

*a 낭산(狼山)

옛날에 백결선생(百結先生) 낭산(狼山) 아래 막을 매고 / 안해와 마주앉아 굶주리고 살면서도 / 즐거운 거문고 소리 끊일 줄이 없더니라 <이은상, <백결선생전(百結先生傳)>을 읽고, 노산시조집(鷺山時調集), 한성도서주식회사, 1932>

*a 낭안(朗眼)하다

야, 내 마음아, 잠자든 마음아— / 들판을 거닐자, 아직 첫길인 잡초(雜草)우를 거닐다. / 그리다가 아침이 되거든, 낭안(朗眼)한 새 날이 밝거들랑은, / 잡초(雜草)를 한아름 뜯어다 우리 임께 새선물 드리자. <황순원, 잡초(雜草)&3&, 방가(放歌), 동경학

생예술좌 문예부, 1934>

*a 낮배

낮배 어느메 치코에 꿩이라도 걸려서 산(山)너머 국수집에 국수를 받으러 가는 사람이 있어도 개는 짖는다 <백석, 개, 현대조선문학전집, 1938>

*a 내재상(內在想)

금강! 아, 너 같은 극치의 미가 꼭 조선에 있게 되었음이 야릇한 기적이고 자그마한 내 생명이 어찌 내 애훈(愛熏)을 받잡게 되었음이 못 잊을 기적이다. 너를 예배하러 온 이 가운데는 시인도 있었으며 도사도 있었다. 그러나 그 시인들은 네 외포미(外包美)의 반쯤도 부르지 못하였고 그 도사들은 네 내재상(內在想)의 첫길에 헤매다가 말았다. <이상화, 금강송가(金剛頌歌), 여명, 1925. 9>

*a 냅일날

섣달에 냅일날이 들어서 냅일날 밤에 눈이 오면 이 밤엔 쌔하얀 할미귀신의 눈귀신도 냅일눈을 받노라 못 난다는 말을 든든히 여기며 엄매와 나는 앙궁 위에 떡돌 위에 곱새담 위에 함지에 버치며 대냥푼을 놓고 치성이나 드리듯이 정한 마음으로 냅일눈 약눈을 받는다 / 이 눈세기물을 냅일물이라고 제주병에 진상항아리에 채워 두고는 해를 묵혀 가며 고뿔이 와도 배앓이를 해도 갑피기를 앓아도 먹을 물이다 <백석, 고야(古夜), 사슴, (자가본), 1936>

*a 냅일눈

섣달에 냅일날이 들어서 냅일날 밤에 눈이 오면 이 밤엔 쌔하얀 할미귀신의 눈귀신도 냅일눈을 받노라 못 난다는 말을 든든히 여기며 엄매와 나는 앙궁 위에 떡돌 위에 곱새담 위에 함지에 버치며 대냥푼을 놓고 치성이나 드리듯이 정한 마음으로 냅일눈 약눈을 받는다 / 이 눈세기물을 냅일물이라고 제주병에 진상항아리에 채워 두고는 해를 묵혀 가며 고뿔이 와도 배앓이를 해도 갑피기를 앓아도 먹을 물이다 <백석, 고야(古夜), 사슴, (자가본), 1936>

*a 냉막(冷寞)

성근 낙목형해(落木形骸)새이 / 등(燈)불은 냉막(冷寞)의 꿈으로 비쳐 / 너의 언가슴 속으로 쉬여 나오는 한숨같이 / 지면(地面)을 스쳐가는 바람에 구르는 잎 / 사르르 굴러 또 사르르 / 스러져 가는 세상 외로운 자(者)의 넋이언가 <조명희, 떨어지는 가을, 봄 잔디밭 위에, 춘추각, 1924>

*a 냉해지(冷害地)

행랑 뒷골목 휘젓한 상술집엔 / 팔려 온 냉해지(冷害地) 처녀(處女)를 둘러싸고 / 대학생의 지질숙한 눈초리가 / 사상선도(思想善導)의 염탐 밑에 떨고만 있다 <이육사, 실제(失

題)&5&, (미발표), 1935. 12>

*a 냉혈류(冷血類)

숨이 죽은 바닷가의 밤은 / 냉혈류(冷血類)의 탄식으로 찼을 때 / 그 녀석은 아낙네의 험한 손을 놓을 줄 모르고 / 그 말에 마음을 모조리 빼앗기었다 / "나를 서울로 가게 하여주세요 / 당신이 나는 그리워요 / 비린내 나는 사나이 나는 싫어요" <박세영, 바다의 여인, 음악과 시, 1930. 8>

*a 네날백이

마을에서는 세 벌 김을 다 매고 들에서 / 개장취념을 서너 번 하고 나면 / 백중 좋은 날이 슬그머니 오는데 / 백중날에는 새악시들이 / 생모시치마 천진푀치마의 물팩치기 껑추렁한 치마에 / 쇠주푀적삼 항라적삼의 자지고름이 기드렁한 적삼에 / 한끝나게 상나들이옷을 있는 대로 다 내 입고 / 머리는 다리를 서너 켜레씩 들어서 / 시뻘건 꼬둘채댕기를 삐뚜룩하니 해 꽂고 / 네날백이 따배기신을 맨발에 바꿔 신고 / 고개를 몇이라도 넘어서 약물터로 가는데 / 무썩무썩 더운 날에도 벌 길에는 / 건들건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 허리에 찬 남갑사 주머니에는 오랜만에 돈푼이 들어 즈벅이고 / 광지보에서 나온 은장도에 바늘집에 원앙에 바둑에 / 번들번들하는 노리개는 스르럭스르럭 소리가 나고 / 고개를 몇이라도 넘어서 약물터로 오면 / 약물터엔 사람들이 백재일 치듯 하였는데 / 봉가집에서 온 사람들도 만나 반가워하고 / 깨죽이며 문주며 섶가락 앞에 송구떡을 사서 권하거니 먹거니 하고 / 그러다는 백중 물을 내는 소내기를 함뿍 맞고 / 호주를하니 젖어서 달아나는데 / 이번에는 꿈에도 못 잊는 봉가집에 가는 것이다 / 봉가집을 가면서도 칠월(七月) 그믐 초가을을 할 때까지 / 평안하니 집살이를 할 것을 생각하고 / 애끼는 옷을 다 적시어도 비는 시원만 하다고 생각한다 <백석, 칠월(七月) 백중, 문장, 1948. 10>

*a 네안[涅槃]

붉게 피어난 연꽃이여! / 네가 꿈꾸는 네안[涅槃]이 어디런가 / 저리도 밝고 빛난 꽃섬들이 / 욕망하는 입술과도 같이, 모두 / 진주의 포말로 젖어 있지 않은가 <신석초, 연(蓮)꽃, 석초시집, 을유문화사, 1946>

*a 노골상(露骨相)

아아 / 면사포(面紗布) 벗은 우주(宇宙)의 본면목(本面目)이여 / 복면(覆面) 벗은 세계(世界)의 적나체(赤裸體)여 / 가면(假面) 벗은 만유(萬有)의 노골상(露骨相)이여 / 자유해방(自由解放)한 자아(自我)의 진실상(眞實相)이여 / 모두가 그대로 기적(奇蹟) 아니고녀 <오상순, 백일몽(白日夢), 공초오상순시선(空超吳相淳詩選), 자유문화사, 1963>

*a 노나리꾼

아배는 타관 가서 오지 않고 산(山) 비탈 외따른 집에 엄매와 나와 단둘이서 누가 죽이는 듯이 무서운 밤 집 뒤로는 어느 산(山)골짜기에서 소를 잡아먹는 노나리꾼들이 도적놈들 같이 쿵쿵거리며 다닌다 <백석, 고야(古夜), 사슴, (자가본), 1936>

황무지에는 거칠은 풀잎이 함부로 엉클어졌다. / 번지면 손가락도 베인다는 풀, / 그러나 이 땅에도 / 한때는 썩은 과일을 찾는 개미떼같이 / 촌민과 노라리꾼 〖노나리꾼〗 이 북적거렸다. / 끊어진 산허리에, / 금돌이 나고 / 끝없는 노름에 밤 별이 해이고 / 논우멕이 도야지 수없는 도야지 / 인간들은 인간들은 웃었다 함부로 / 웃었다! / 웃었다 / 웃는 것은 우는 것이다 / 사람쳐놓고 원통치 않은 놈이 어—디 있느냐! / 폐광이다 / 황무지 우거진 풀이여! / 문명이 기후조(氣候鳥)와 같이 이곳을 들러 간 다음 / 너는 다시 원시의 면모를 돌이키었고 / 엉클은 풀 우거진 속에 이름조차 감추어 가며 …… / 벌레 먹은 낙엽같이 동구(洞口)에서 멀리하였다. <오장환, 황무지, 헌사, 남만서방, 1939>

*a 노잣돈

어둠의 끝에서 날이 새기 시작하자 이 방 저 방에서 두세두세 뿌시뿌시한 얼굴로 잠을 쫓아내며 사람들이 일어나고 아침밥들을 서둘러 먹고 상여가 꾸며지기 시작했습니다. / 상여는 회관을 나가 정자나무 밑에서 거리제를 끝내고 강길을 따라 어노어노 핑경소리를 울리며 갔습니다. 산천은 푸르러지고, 어머님은 이틀이나 울어서 쉰 목소리로 상여채를 붙잡고 / 어매는 좋겄네 / 어매는 좋겄네 / 다 살고 죽었응게 / 어매는 좋겄네 / 어매 자식 만나로 강게 / 어매 남편 만나로 강게로 / 어매는 좋겄네 / 구슬프게 강물을 출렁이게 하고, 머리가 허연 큰고모는 어매어매 하며 눈물 없는 메마른 울음을 울며 새끼줄에 노잣돈을 걸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오게오게 모여 서서 눈물들을 흘렸습니다. / 살아생전 고인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후회에 울고 잘했으면 정으로 더 서러운 것이 죽음이어서 맑은 햇살 속 사람들의 눈물은 이 산천의 눈물처럼 초라하고 강물처럼 가난했습니다. <김용택, 섬진강 24, 맑은 날, 창작과비평사, 1986>

*a 노큰마니

일가들이 모두 범같이 무서워하는 이 노큰마니는 구덕살이같이 욱실욱실하는 손자 증손자를 방구석에 들매나무 회초리를 단으로 쪄다 두고 때리고 싸리갱이에 갓진창을 매어놓고 때리는데 <백석, 넘언집 범 같은 노큰마니, 문장, 1939. 4>

*a 노틀담

빗발이 듣는 세느강엔 / 둥둥 떠가

는 가마니와 함께 / 황소 머리를 닮은 / 몇 개의 뿔이 오르내리고 있었다 / 나폴레옹의 군마 소리는 / 강심 깊이 잦아들고 / 피에 얼룩진 여러 개의 선언이 / 전봉준의 핏발선 눈처럼 빛나고 있었다 / 노틀담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으나 / 거대한 아프리카 코끼리를 몰고 온 / 앙드레 브르똥의 야유와 공격 때문에 / 세느강 황토 빛깔의 우수를 / 퍼담는 일을 종내 포기해야만 했다 / 얇은 입술에 빗물을 물고 / 보들레르가 / 콧소리로 모음자 발음만 하며 / 급진사상에 대하여 / 모종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떠올랐다 / 서둘러 흐르는 강심에 / 성난 뿔은 잠겨가고 / 강변의 노점 책방은 닫혔는데 / 잉어들은 흙탕물 속에서도 / 빠리의 투명한 지성을 / 미인들의 회색빛 겨드랑 사이로 / 멀리멀리 실어 나르고 있는 것이 보였다 / 세월이 세느강에 흐르고 / 말하지 않는 죽음과 사랑도 / 긴 역사의 다리 아래를 흘렀다 / 흰 돌들과 늘어진 가로수를 스쳐 / 서편 하늘을 비껴가는 / 암울한 만가를 물결에 뒤섞으며. <김규동, 노래&2&, 깨끗한 희망, 창작과비평사, 1985>

*a 노호(怒呼)

오오, 오오, / 암흑의 끝 없는 동혈(洞穴), / 추위에 떠는 나뭇가지의 호읍(號泣), / 뇌명(雷鳴)과 같은 폭풍, 거암(巨巖)을 뒤흔드는 노호(怒呼), <임화, 암흑의 정신, 현해탄, 동광당서점, 1938>

*a 녹포(綠砲)

모든 것은 처음부터 마련하였던 거나 같이 수백 일(數百日) 동안의 포위(包圍)는 한 겹 두 겹씩 벗겨지기 시작하였다. 맨 처음으로 땅 속에서 이름도 모르는 풀들이 머리를 들고서 뾰족이 나왔다 이곳저곳에서 하나씩 둘씩 머리를 내어밀고서 저희들끼리 군호(軍號)하였다—물론(勿論), 음모(陰謀)는 지저(地底)에서부터 하여 가지고 나온 것이다. 그리하여 이 음모(陰謀)를 교사(敎唆)한 자(者)는 자연(自然)이다. —저희는 먼저 이름 없는 풀들(그 중에도 이름 있다 할 만한 놈은 토필(土筆)이었었다)을 깨두어 놓고 할미꽃 오랑캐꽃 개나리 버들강아지들을 불러일으키어 가지고 저력(底力) 있는 시위행렬(示威行列)을 지었다. 그러자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서 이것들을 쓸어내 던졌다, 마치 이것들을 시련(試鍊)이나 하는 것처럼. / 그러나 수십일(數十日)을 지나서 이름 없던 풀들의 운동(運動)의 자최를 이어서 관목(灌木)들은 제이기(第二期)의 운동(運動)을 일으키었다. 저희들의 가지에서 푸른 창(槍)을 내어 놓고 가시덤풀로 무장(武裝)하고, 칡넝쿨 다래넝쿨 포도넝쿨 들로 방비(防備)를 하고서. 그리하여 모든 넝쿨들은 이 집을 둘리싸고서 뻗치기 시작하였다. 초록(草綠)의 데몬스트레이션은 나날이 짙어지고 강렬(强烈)하여지고 튼

튼하여 갔다. 초록(草綠)의 데몬스트레이션?…… /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녹포(綠砲)가 터지기 시작하였다, 아카시아, 감나무, 버드나무, 참나무, 밤나무, 느티나무…… / 이 집을 둘러싸고서 모든 과(科)의 식물(植物)이 저희들의 힘을 다하여 이 집을 둘러엎으려고 한다 이 집보다 키가 더 큰 포플라, 감나무, 참나무, 느티나무들은 저희들의 초록(草綠)으로 이 집을 정복(征服)하고야 말았다. 참말로 이 퇴락(頹落)한 집이 초록(草綠) 속에 싸여서 보이고 있는 자신(自身)의 형상(形象)의 빈약(貧弱)함이여! 초경(草莖)의 색채(色彩)의 장엄(莊嚴)함이여! / 무명유명(無名有名)의 관목(灌木), 교목(喬木)이 원형(原形)을 지어 가지고 급기야(及其也) 이 집을 포위(包圍)하였다. / 개미의 떼들은 이 집 벽에 구녕을 키우기 위하여 들락날락하며 나무와 풀은 전세계(全世界)의 저희들 계급(階級)을 함께 모이고자 하늘 높이 솟아가지고 절규(絶叫)한다. 그리하여 초록(草綠)이 이 집을 덮어버리어서 이 집의 존재(存在)를 없이 할 녹(綠)은 저희의 전력(全力)을 다하여 비와 바람과 전기(電氣)를 부른다. 그 곳에 혁명(革命)이 멀지 않음을 절규(絶叫)하면서. <김기진, 신록(新綠)&3&, 개벽, 1924. 6>

*a 농다리

내 지렁이는 / 커서 구렁이가 되었습니다 / 천년 동안만 밤마다 흙에 물을 주면 그 흙이 지렁이가 되었습니다 / 장마 지면 비와 같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 뒤에 붕어와 농다리의 미끼가 되었습니다 / 내 이과 책에서는 암컷와 수컷이 있어서 새끼를 낳았습니다 / 지렁이의 눈이 보고 싶습니다 / 지렁이의 밥과 집이 부럽습니다 <백석, 나와 지렁이, 조광, 1935. 11>

*a 농담미(濃淡味)

빛깔은 푸른데 그냥 푸른 것이 아니고 / 농담미(濃淡味)가 군데군데 끼인 채, / 긴 잎을 늘어뜨리니 가관(可觀)이다. <천상병, 선경(仙境) 1, 주막에서, 민음사, 1979>

*a 농황(濃黃)

쉬ㅡ트위에 내희박(稀薄)한윤곽(輪廓)이찍혔다 이런두개골(頭蓋骨)에는해부도(解剖圖)가참가(參加)하지않는다 / 내정면(正面)은가을이다 단풍(丹楓)근방에투명(透明)한홍수(洪水)가침전(沈澱)한다 / 수면(睡眠)뒤에는손가락끝이농황(濃黃)의소변(小便)으로 차겁더니 기어방울이저서 떨어졌다 <이상, 파첩(破帖), 자오선, 1937. 11>

*a 뇌고인(惱苦人)

천하(天下) 뇌고인(惱苦人)들아 밤비소리 듣지 마소 / 두어라 이 한 줄밖에 더 써 무엇하리오 <이은상, 밤비 소리&2&, 노산시조집(鷺山時調

集), 한성도서주식회사, 1932>

*a 뇌중추

곧 뇌중추가 항복하리라. / 온 성(城)이 가뭇없이 / 잠의 빙하 속에 가라앉으리라. <최승자, 미망(未忘) 혹은 비망(備忘) 16, 내 무덤, 푸르고, 문학과지성사, 1993>

*a 누긋이

이슥하니 물기에 누긋이 젖은 왕구새자리에서 저녁상을 받은 가슴 앓는 사람은 참치회를 먹지 못하고 눈물겨웠다 <백석, 시기(柿崎)의 바다, 사슴, (자가본), 1936>

*a 누긋하다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 바로 날도 저물어서, /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 나는 어느 목수(木手)네 집 헌 삿을 깐, /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이었다. /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생각하며, / 딜옹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 오면, /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재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 또 문 밖에 나가지두 않구 자리에 누워서, / 머리에 손깍지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쌔김질하는 것이었다. / 내 가슴이 꽉 메어 올 적이며, /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 더러 나줏손에 쌀랑쌀랑 싸락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우섶에 따로 외로이 서서, / 어두워 오는데 하이야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백석,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학풍, 1948. 10>

포근한 봄철날 따디기의 누굿하니【누긋한】 푹석한 밤이다 / 거리에는 사람두 많이 나서 흥성흥성할 것이

다 / 어쩐지 이 사람들과 친하니 싸다니고 싶은 밤이다 <백석, 내가 생각하는 것은, 여성, 1938. 4>

*a 누두형(漏斗形)

동무여! 정신(精神)을 가다듬어 / 크게 땅이 꺼지도록 갱생의 심호흡을 하라 / 그대는 그 숨의 탄력을 얻을 지니 미닫이 뚫은 두 다리에 / 한아름 약골의 소아(小我)를 싣고 북악(北岳)에 오르라! / 그대의 끓는 혈맥(血脈)의 피가 / 벗 디딘 두메에 쏟아져 통(通)할 때가 되면 / 누두형(漏斗形)의 심곡(深谷)에는 용암(鎔巖)이 불꽃을 품은 채 흘러내릴 것이니 / 그 속에 마땅히 그대의 쓰린 가슴의 소아(小我)를 던지라 / 미련(未練)과 모든 기억(記憶)도 함께 불사를지니 그리하면 / 영겁(永劫)으로 타가는 횃불은 / 머지않아 이 나라 소년(小年)들의 두 눈동자에 비치울 것이다. / 그리고 아—그 다음은 말할 수 없다. <설정식, 거리에서 들려주는 노래, 동광, 1948. 12>

*a 누전(漏電)되다

나의 심부를 밀항하다 쐐기쐬서 / 사시(斜視)가 된 유감(遺憾)의 별똥들이 / 윤창(輪唱)하는 태양의 털에 그슬리고 / 등허리에 누전(漏電)되는 암흑교류(暗黑交流)에 자지러져 / 공룡(恐龍)의 비늘 내 나는 삼진시간(三辰時間)의 사타구니에 몰려 / 도리없이 자살하고 부활해서 탄생한 것이 너다. / 천둥과 포도의 대립선율(對立旋律)에 목 졸리고 / 5막(幕)짜리 잔 거품에 거꾸로 저려져서 썩을수록 / 너는 돈사(頓死) 않고 자란다. / 이윽고 백색왜성(白色矮星)만큼 영글어서 어느 금환식일(金環蝕日)에 독립하는 너. / 팽기고 돌 고드름 열린 것이 이끼 낀 종유동(鍾乳洞). / 피리 구멍 나고 바람 들랑거리는 것이 떠는 삼반규관(三半規管). / 굴절(屈折)의 비수(匕首) 차고 오무렸다 늘어날 땐 퍼런 신기루(蜃氣樓). / 허나 언제나 나의 오미(五味)의 유령을 버릇없이 만끽하고 대전(帶電)되어 / 아린 심술부리는 미립(微粒) 응어리. / 하늘님의 정자(精子)와 할머님의 사골(死骨)을 / 한 대롱에 소화하는 정교(精巧)한 준동(蠢動). 용쓰는 / 십이파(十二派)의 팔씨름을 승부 없이 끌고 가는 궁자(弓字) 건(腱). / 네가 약오른 영혼의 전관(電管)을 토닥거릴 땐 위험하다. / 장미와 무구녀(無垢女)가 너무 오래 입맞추고, 수정사변(水晶思辨)이 / 피를 빨기 좋아하고, 도깨비가 순하게 곡(哭)하고, / 심장이 황금비(黃金比)의 금속(金屬) 관(棺)을 그리워한다. / 결국 너의 본업(本業)은 차진 / 연정(戀情)의 맥질이다. 희한한 효험과 / 역효과(逆效果)에 암수 바위 금슬이 빼개지기도 하고 달라붙기도 한다. / 그러나 아아, 방랑하는 고아. 쾌미(快美)의 의적(義賊). / 귀여운 밀핵(密核)이여. / 스스로의 구조에 집혀 불확실성원리(不確實性原理)모양 앙감질하며 / 한 광주리의 심해어(深海魚)를 이미 부화(孵化)해

낸 지금의 너의 좌표(座標)는 / 아슬아슬한 접선(接線)의 서슬. / 날이 저문다. 환등(幻燈) 황혼(黃昏)이 풍악을 친다. 팽매기의 틈 서리로 / 이제 기웃거리는 것은 눈매 곳날이 흡사 너를 닮은 / 동그라미의 심연(深淵). 그 속에 휘휘 맴도는 무시무시한 정점(靜點)이 / 사리고 있다. 너는 그것을 마저 해내기 위해서 / 더욱 무섬타는 기술(技術)을 가는 매친 틀이다. <성찬경, 밀핵, 화형둔주곡, 정음사, 1966>

물 오른 가지 끝, / 두돈 반(半), 아니면 서돈으로 걷는 / 아내들의 위태로운 뒤꿈치에서 / 겨울의 난파(難破)를 본다. / 낙타(駱駝)처럼 느린 사내들의 원정(遠征), / 야망(野望)의 기침으로 빠진 눈에 / 안경(眼鏡)을 끼우고 / 정각(正刻)을 위하여 / 얻은 것 없이 잃어가는 / 햇시계의 둘레. / 물오른 가지 끝에 부딪는 / 종교(宗敎)의 그림자와 / 최초(最初)의 동정(童貞). / 그러나 가라앉은 선미(船尾)에서 / 가까스로 내 무덤은 이동(移動)되고 / 빛살을 타고 일어나는 / 칼춤을 보기 위하여 / 수은(水銀)처럼 이죽거리며 딩구는 / 내 눈빛은 / 끝이 뾰죽한 / 세기(世紀)의 이마에서 / 잠깐잠깐 누전(漏電)되고 있었다. <허소라, 유희(遊戲), 풍장, 태을출판사, 1968>

*a 눈세기물

섣달에 냅일날이 들어서 냅일날 밤에 눈이 오면 이 밤엔 쌔하얀 할미귀신의 눈귀신도 냅일눈을 받노라 못 난다는 말을 든든히 여기며 엄매와 나는 앙궁 위에 떡돌 위에 곱새담 위에 함지에 버치며 대냥푼을 놓고 치성이나 드리듯이 정한 마음으로 냅일눈 약눈을 받는다 / 이 눈세기물을 냅일물이라고 제주병에 진상항아리에 채워 두고는 해를 묵혀 가며 고뿔이 와도 배앓이를 해도 갑피기를 앓아도 먹을 물이다 <백석, 고야(古夜), 사슴, (자가본), 1936>

*a 눈슭

벌개눞녘에서 바리깨를 두드리는 쇳소리가 나면 / 누가 눈을 앓아서 부증이 나서 찰거마리를 부르는 것이다 / 마을에서는 피성한 눈슬ㄱ에 저린 팔다리에 거마리를 붙인다 <백석, 오금덩이라는 곳, 사슴, (자가본), 1936>

*a 눌인(訥人)

저는 말없는 눌인(訥人)이어요 / 눈물 같은 것 / 바닷물의 무게만한 / 침묵(沈默)이어요 / 칠월, 소나기를 / 온몸에 감각(感覺)하는 / 말더듬이어요 <박이도, 눌언(訥言), 폭설, 동화출판사, 1975>

*a 늦살

당신이 깨고 나온 알껍질 속에서 / 지금은 무엇이 부화하고 있읍니까? / 나는 내 나이를 담아 놓고 부화하길 기다리며 / 물 묻은 바람, 날개

돋는 늦살, 아아 겨울 아침의 공복 / 풀덤불 속에 숨겨 둔 당신의 체온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김창완, 작은 새, 인동일기, 창작과비평사, 1978>

여삼아—이. 만금(萬金)의 잠자리에 들어도 보지 못할 누에의 황홀한 잠이 있다 안 하드나이. / 워째 봄이 되니께 눈물 같고 수심가 같은 바딧가락이 청솔잎 잎마다 번지고 있다야. / 여삼아—이. 그저께는 동헌(東軒) 마당터에서 뼈 하나 줍고이, 어제는 순사(巡士) 집터 문간을 몰래 쓸어 울 할배들 저승길 하나 눈여겨 보아둔 것을, / 초연(硝煙)의 가시덤불 쓰다듬던 바람 한 줄기도 산을 내려와 홀연 사무치듯 뉘ㅅ살 반짝이는 우리 거치른 자갈밭에 여삼아—이. 풀잎은 성깃성깃 춤을 춘다야. / 겨우내 밝혀 짝눈이 더 크게 열린 고운 핏줄들 힝야딩야 힝야딩야 상모까지 돈다야. <손종호, 황혼가, 숨은 신, 현대문학사, 1994>

*a 늠위(凜威)

일제(一齊)히 함포사격(艦砲射擊)이 울려온 다음, / 무수(無數)한 전투기(戰鬪機)가 로켓포(砲)를 난사(亂射)한 다음, / 충무공(忠武公)의 / 날래고, 거센 후예(後裔)들은 / 방파제(防波堤)로 기어 오른다. / 흰 물결을 차고, / 터지는 흑연(黑煙)속에 갈매기가 운다. / 열아홉, 갓 스물, 젊은 근골(筋骨)들이 / 범람(氾濫)하는 조수(潮水)처럼 적진(敵陣)으로 몰린다. / 고함(高喊)소리 들려올 때마다 / 피묻은 총검(銃劍)이 일월(日月)에 번득인다. / 이리하야 젊은 해병대(海兵隊)들은 / 상기 죽지 않은 / 삼도수군(三道水軍) 통제사(統制使) 이순신장군(李舜臣將軍)님의 / 늠위(凜威) 밑에 돌격(突擊)한다. <조영암, 해병대찬가(海兵隊讚歌), 시산(屍山)을 넘고 혈해(血海)를 건너, 정음사, 1951>

*a 다부원(多富院)

한 달 농성(籠城) 끝에 나와 보는 다부원(多富院)은 / 얇은 가을 구름이 산마루에 뿌려져 있다 <조지훈, 다부원(多富院)에서, 역사 앞에서, 신구문화사, 1959>

*a 다열종대

그것은 삶의 무늬. / 부러진 쪽지를 너펄거리며 / 백결의 해어진 의관을 쓰고 / 신의 군대처럼 다열종대로 서울에 입성하였지. / 동정의 눈화살을 받으며. <박남수, 비가(悲歌)&2&, 갈매기 소묘(素描), 춘조사, 1958>

*a 단성(團成)하다

따듸따닷따! 두당등당등! / 대천세계(大千世界) 덮고 남는 우리 기(氣)운을 / 한번 한(限)껏 못 뿜어서 무궁한(無窮恨)인데 / 수미산(須彌山)을 바로 뚫는 우리 용맹(勇猛)을 / 아직 조금 못 써보아 독자고(獨自苦)로다 / 이런 기(氣)운 이런 용맹(勇猛) 한

데 모아서 / 이 세상(世上)에 도량하는 부정불의(不正不義)를 / 토멸(討滅)코자 의용대(義勇隊)를 굳게 단성(團成)해 / 대한소년(大韓少年) 당당보무(堂堂步武) 나아가노나. <최남선, 대한소년행(大韓少年行), 소년, 1909. 10>

*a 단체투식(團體偸食)

요즈음은 반찬이 없어서 성 선생님 집에서 단체투식(團體偸食)을 / 하는데요 어제 저녁에는 성·권·정·장 이렇게 넷이서 / 투전판도 벌였답니다 미숙한 정과 성이 너무 많이 잃어서 / 언제 다시 한번 날을 받아 도전을 받아 주어야 될까 봐요 / 오늘은 월례 고사 날인데 1교시 시간이 비어 이렇게 / 몇 자 적어 보는 겁니다 지품의 재미있는 얘기 많이 / 적어 보려 해도 소재의 궁핍·게으른 습성·기타 등등 때문에 / 제대로 잘 되지가 않는군요 대신에 송 선생님이 그곳 / 서울에서의 화려한 사연 많이많이 보내 주세요 우리 노(no) / 처녀 선생님들의 신선한 자극제가 되게 말입니다 <박남철, 지품중학교, 지상의 인간, 문학과지성사, 1984>

*a 달가불시다

고원선(高原線) 종점인 이 작은 정거장엔 / 그렇게도 우쭐대며 달가불시며 뛰어 오던 뻥뻥차(車)가 / 가이없이 쓸쓸하니도 우두머니 서 있다 <백석, 함남(咸南) 도안(道安), 문장, 1939. 10>

*a 담모도리

한 십리(十里) 더 가면 절간이 있을 듯한 마을이다 낮 기울은 볕이 장글장글하니 따사하다 흙은 젓이 커서 살같이 깨서 아지랑이 낀 속이 안타까운가 보다 뒤울 안에 복사꽃 핀 집엔 아무도 없나 보다 비인 집에 꿩이 날아와 다니나 보다 울 밖 늙은 들매나무에 튀튀새 한불 앉았다 흰 구름 따라가며 딱정벌레 잡다가 연둣빛 잎새가 좋아 올라왔나 보다 밭머리에도 복사꽃 피었다 새악시도 피었다 새악시 복사꽃이다 복사꽃 새악시다 어디서 송아지 매—하고 운다 골갯논두렁에서 미나리 밟고 서서 운다 복사나무 아래 가 흙장난하며 놀지 왜 우노 자개밭둑에 엄지 어디 안 가고 누웠다 아랫동리선가 말 웃는 소리 무서운가 아랫동리 망아지 네 소리 무서울라 담모도리 바윗잔등에 다람쥐 해바라기하다 조은다 토끼잠 한잠 자고 나서 세수한다 흰 구름 건넛산으로 가는 길에 복사꽃 바라노라 섰다 다람쥐 건넛산 보고 부르는 푸념이 간지럽다 <백석, 황일(黃日), 조광, 1936. 3>

*a 당갑사

발부리를 잡아 공주산성(公州山城)에 오름. 동물이라고는 나 한 마리. 나머지는 모두 공주산성(公州山城)임. / 당갑사 중치마 붉어서 좋고 / 백화나 단속곳 넓어서 좋아 / 이 염요(艶

謠)를 부르던 금강의 백성(百姓)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음. 나 혼자 그 염요(艶謠)의 단속곳에 일박(一泊)함. <오규원, 한 나라 또는 한 여자(女子)의 길, 왕자가 아닌 한 아이에게, 문학과지성사, 1978>

*a 당견(唐犬)

폐선처럼 기울어진 고물상옥(古物商屋)에서는 늙은 선원이 추억을 매매하였다. 우중중—한 가로수와 목이 굵은 당견(唐犬)이 있는 충충한 해항(海港)의 거리는 지저분한 크레용의 그림처럼, 끝이 무디고. 시꺼먼 바다에는 여러 바다를 거쳐온 화물선이 정박하였다. <오장환, 해항도(海港圖), 성벽(城壁), 풍림사, 1937>

*a 당당보무(堂堂步武)

따듸따닷따! 두당등당둥! / 대천세계(大千世界) 덮고 남는 우리 기(氣)운을 / 한번 한(限)껏 못 뽑어서 무궁한(無窮恨)인데 / 수미산(須彌山)을 바로 뚫는 우리 용맹(勇猛)을 / 아직 조금 못 써보아 독자고(獨自苦)로다 / 이런 기(氣)운 이런 용맹(勇猛) 한데 모아서 / 이 세상(世上)에 도량하는 부정불의(不正不義)를 / 토멸(討滅)코자 의용대(義勇隊)를 굳게 단성(團成)해 / 대한소년(大韓少年) 당당보무(堂堂步武) 나아가노나. <최남선, 대한소년행(大韓少年行), 소년, 1909. 10>

*a 당도(黨道)

시가전(市街戰)이끝난도시(都市) 보도(步道)에'마(痲)'가어지럽다. 당도(黨道)의 명(命)을 받들고 월광(月光)이 이'마(痲)'어지러운위에 먹을즐느니라 / (색(色)이여보호색(保護色)이거라) 나는이런일을흉내내어껄껄껄 <이상, 파첩(破帖), 자오선, 1937. 11>

*a 당아욱빛

너의 배때기로 / 그 사랑이란 이름으로 불리어지던 것들이 배설(排泄)되는 날 / 너의 혈관(血管) 속에 / 그 신(神)이란 이름으로 불리어지던 것들이 익사(溺死)하는 날 / 나는 노래하리라 / 우리들을 달래고 울려줄 수 있는 / 꽃밭같이 초롱초롱한 그러한 밤을 / 당아욱빛같이 찬란(燦爛)한 그러한 아침을 <박재륜, 청계천(淸溪川)&2&, 궤짝 속의 왕자, 해동문화사, 1959>

*a 당위형

당위형 어법을 허물고 / 우리의 체험과 단어를 결합시키는 기술 / —{벽돌}을 예로 들면, <이윤택, 제 3 세계 시민을 위한 독서법 안내, 춤꾼 이야기, 민음사, 1986>

*a 당치마

눈들이 비단 안개에 둘리울 때, / 그때는 홀목숨은 못살 때러라. / 눈 풀리는 가지에 당치마 귀로 / 젊은 계집 목매고 달릴 때러라. <김소월, 비

단 안개, 진달래꽃, 매문사, 1924>

*a 당판(唐版)

얌전하게 타 내리는 황(黃)촛불 앞에 / 케묵은 당판(唐版) 시집을 대(對)해 앉는다. <김달진, 추성(秋聲), 청시(靑柿), 청색지사, 1940>

*a 대곤(大鯤)

고향은 어디라 물어도 말은 않지만 / 처음은 정녕 북해안 매운 바람 속에 자라 / 대곤(大鯤)을 타고 다녔단 것이 일생의 자랑이죠 <이육사, 나의 뮤―즈, 육사시집(陸史詩集), 서울출판사, 1946>

*a 대길신

나무 태극귀신 해원신 / 나무 문학귀신 대길신 / 나무 사월귀신 보신신 / 나무 오월귀신 오살신 / 그나마 늦은 귀신 나무 시월귀신 마하살 / 어라 태극귀신 내려온다 문학귀신 내려온다 바람과 구름 사이 푸른 중생 내려온다 붉은 중생 내려온다 나무 자기반성인지 나무 작위반생인지 은산 가서 은을 뜨고 금산 가서 금을 떠서 일생에 덩더쿵 평생에 까강까강 워낙 바쁜 문학 내려와서 좋은 것이 아니 노지 못하리라 내 사랑 주지 말고 남 사랑 두지 말며 틈틈이 입을 열고 열고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서 어지러운 사바세계 의지할 곳 가이 없어 이 내 중생 골고루 콘돔 나무 글로리 콘도미니엄 속에서 춤추고 까불기를 어화둥둥 내 사랑아 칠년 대한 가문 날에 빗살같이 반긴 문학 영자에 순자에 하루만 못 봐도 못 살 문학 이렇게 오진 사랑 처음 보겠네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 나무 태극귀신 해원신 / 나무 문학귀신 대길신 / 나무 사월귀신 보신신 / 나무 오월귀신 오살신 / 나무 시월귀신 마하살 옴 하나 하나 마나. <박태일, 문학거리 노래, 가을 악견산, 문학과지성사, 1989>

*a 대낭푼

섣달에 냅일날이 들어서 냅일날 밤에 눈이 오면 이 밤엔 쎄하얀 할미귀신의 눈귀신도 냅일눈을 받노라 못 난다는 말을 든든히 여기며 엄매와 나는 앙궁 위에 떡돌 위에 곱새담 위에 함지에 버치며 대냥푼을 놓고 치성이나 드리듯이 정한 마음으로 냅일눈 약눈을 받는다 / 이 눈세기물을 냅일물이라고 제주병에 진상항아리에 채워 두고는 해를 묵혀 가며 고뿔이 와도 배앓이를 해도 갑피기를 앓아도 먹을 물이다 <백석, 고야(古夜), 사슴, (자가본), 1936>

*a 대능자(大能者)

물, 구름, 비는 / 삼위(三位)요 일체(一體)다 / 물이 구름되고, / 구름이 비 된다. / 그러나 그 실체(實體)는 '하나'이다. / 빗방울이 땅에 내려와서, / 풀잎과 흙덩이를 톡톡 때린다. / 이렇게 순환(循環)하고 / 이렇게 때리는 것도, / 산 대능자(大能者)의

조화(造化)로 되는 것이 아닌가. <남궁벽, 생명(生命)의 비의(秘義), 폐허, 1921. 1>

*a 대동국면(大東局面)

태백(太白)아 우리 님아 / 나간다고 슬퍼마라 / 나는 간다 가기는 간다마는 / 나의 가슴에 품긴 이상(理想)의 광명(光明)은 영겁(永劫) 무궁(無窮)까지도 네가 그의 표상(表象)이로다 / 뜬 구름이 태양(太陽)을 가림은 얻는다 그러나 그 광(光)은 가리지 못하느니라 / 펴붓난 물이 불어 일어나는 불을 끄기는 한다 그러나 불 그것이야 털끝만치도 건드리기를 어찌해 / 희리바람이 먼지를 일으키면 너의 면목(面目)을 가리지 못함은 아니라 / 사나운 바람이 아침을 어찌 마치며 바람에 불려 일어난 티끌은 진정(鎭靖)될 때가 있나니 / 그럼으로 한때로다 / 대동국면(大東局面)의 감시자(監視者)로 세계평화(世界平和)의 결정(結晶)으로 모든 옳음의 활동력(活動力)의 원천(源泉)으로 너의 면목(面目)은 우호로 무궁(無窮)에와 같이 아래로 무궁(無窮)에도 오직 빛날 것은 있으나 누가 흠집을 내겠느냐 / 좋은 때에 너를 올려다보니 네가 막대(莫大)한 동정(同情)을 주고 슬픈 때에 너를 치여다보니 네가 지상(至上)의 위로(慰勞)를 주도다 / 너의 앞에 있을 때에는 모든 감정(感情)과 조우(遭遇)가 다 혼연(渾然)히 융화(融和)하야 다만 방촌(方寸)에 희망(希望)의 빛이 반짝거렸을 뿐이었도다 / 그런데 이제 나는 너를 잠시(暫時) 떠나게 되었도다 / '알프'를 오를 때도 있으리라 '럭키'를 넘을 때도 있으리라 '스위스렌드'의 호산(湖山)이 혹(或) / 나의 오랜 동안 우거(寓居)가 될지도 몰으리라 그러나 아침 저녁 기쁜 때 성난 때에 너를 대(對)하지 못할 것이 걱정이로다 / 우리는 다만 좁은 가슴이라도 큰 님을 용납(容納)할 수 있음으로 이 슬픔을 너그럽게 하리로다 / 나는 이제 가는도다—너를 등지고—너의 컴컴한 중(中)에 파묻힘을 보고 / 감히 즐기는 바가 아님과 같이 너를 그 모양대로 버려둠도 차마 하지 못하는 바로라 / 그러나 너와 나로 떠나게 하는 운수(運數)는 나는 항거(抗拒)치 아니하고 그대로 떠나노라 / 떠나게 한 운수(運數)를 떠나서 합(合)하게 할 운수(運數)임을 믿고—떠나게 한 운수(運數)를 떠나서 합(合)하게 할 운수(運數)를 맞이하기 위(爲)하여 / 잘 있거라 나는 간다 / 봄은 오느니라 제왕(帝王)의 권력(權力)과 재화(財貨)의 세력(勢力) 밖에 있는 동군(東君)은 때만 되면 오느니라 / 무궁화(無窮花) 다시 피건 또 다시나 만나자! <최남선, 태백(太白)의 님을 이별(離別)함, 소년, 1910. 4>

*a 대동풍설(大冬風雪)

봄이 한번 돌아 오니 눈에 가득 화기(和氣)로다 / 대동풍설(大冬風雪) 사나울 때 꿈도 꾸지 못한 바이라 /

알괘라 무서운건 '타임'(때)의 힘. <최남선, 봄맞이, 소년, 1910. 4>

*a 대멸머리

한 해에 몇 번 매연지난 먼 조상들의 최방등 제사에는 컴컴한 고방 구석을 나와서 대멀머리에 외얏맹건을 지르터 맨 늙은 제관의 손에 정갈히 몸을 씻고 교의 우에 모신 신주 앞에 환한 촛불 밑에 피나무 소담한 제상 위에 떡 보탕 식혜 산적 나물지짐 반봉 과일들을 공손하니 받들고 먼 후손들의 공경스러운 절과 잔을 굽어보고 또 애끊는 통곡과 축을 귀애하고 그리고 합문 뒤에는 흠향오는 구신들과 호호히 접하는 것 <백석, 목구(木具), 문장, 1940. 2>

*a 대모체돌보기

거리는 장날이다 / 장날 거리에 영감들이 지나간다 / 영감들은 / 말상을 하였다 범상을 하였다 쪽재피상을 하였다 / 개발코를 하였다 안장코를 하였다 질병코를 하였다 / 그 코에 모두 학실을 썼다 / 돌체돋보기다 대모체돋보기다 로이도돋보기다 / 영감들은 유리창 같은 눈을 번득거리며 / 투박한 북관(北關)말을 떠들어 대며 / 쇠리쇠리한 저녁 해 속에 / 사나운 짐승같이들 사라졌다 <백석, 석양, 삼천리문학, 1938. 4>

*a 대벽(臺壁)

별 없는 하늘에 번개가 부딪히고, / 고운 달빛이 잔물결 우로 미끄러지는 사이에 / 쉬지 않고 바뀌는 태양(太陽)의 빛을 맛보며 회색(灰色) 바위에 높이 서 있는 등대(燈臺), / 지금은 유탄(流彈) 맞은 성벽(城壁)같이 양쎈 힘을 잃어 버렸나니 / 무너지는 대벽(臺壁)이어, 깨여진 유리창이어, / 산산히 부서진 등(燈)알이어, 녹슬은 쇠지붕이어. <황순원, 꺼진 등대(燈臺)에 불을 켜자, 방가(放歌), 동경학생예술좌 문예부, 1934>

*a 대웅(大熊)

은하 오리온 먼 대웅(大熊)의 / 조그만 속삭임 하나, / 우리의 귀는 빼놓지 않았다. <임화, 다시 인젠 천공에 성좌가..., 현해탄, 동광당서점, 1938>

*a 대전(帶電)되다

나의 심부를 밀항하다 쐐기쐬서 / 사시(斜視)가 된 유감(遺憾)의 별똥들이 / 윤창(輪唱)하는 태양의 털에 그슬리고 / 등허리에 누전(漏電)되는 암흑교류(暗黑交流)에 자지러져 / 공룡(恐龍)의 비늘 내 나는 삼진시간(三辰時間)의 사타구니에 몰려 / 도리없이 자살하고 부활해서 탄생한 것이 너다. / 천둥과 포도의 대립선율(對立旋律)에 목 졸리고 / 5막(幕)짜리 짠 거품에 거꾸로 저려져서 썩을수록 / 너는 돈사(頓死) 않고 자란다. / 이윽고 백색왜성(白色矮星)만큼 영글어서 어느 금환식일(金環蝕日)에 독립하는 너. / 팽기고 돌 고

드름 열린 것이 이끼 낀 종유동(鍾乳洞). / 피리 구멍 나고 바람 들랑거리는 것이 떠는 삼반규관(三半規管). / 굴절(屈折)의 비수(匕首) 차고 오무렸다 늘어날 땐 퍼런 신기루(蜃氣樓). / 허나 언제나 나의 오미(五味)의 유령을 버릇없이 만끽하고 대전(帶電)되어 / 아린 심술부리는 미립(微粒) 응어리. / 하늘님의 정자(精子)와 할머님의 사골(死骨)을 / 한 대롱에 소화하는 정교(精巧)한 준동(蠢動). 용쓰는 / 십이파(十二派)의 팔씨름을 승부 없이 끌고 가는 궁자(弓字) 건(腱). / 네가 약오른 영혼의 전관(電管)을 토닥거릴 땐 위험하다. / 장미와 무구녀(無垢女)가 너무 오래 입맞추고, 수정사변(水晶思辨)이 / 피를 빨기 좋아하고, 도깨비가 순하게 곡(哭)하고, / 심장이 황금비(黃金比)의 금속(金屬) 관(棺)을 그리워한다. / 결국 너의 본업(本業)은 차진 / 연정(戀情)의 맥질이다. 희한한 효험과 / 역효과(逆效果)에 암수 바위 금슬이 삐개지기도 하고 달라붙기도 한다. / 그러나 아아, 방랑하는 고아. 쾌미(快美)의 의적(義賊). / 귀여운 밀핵(密核)이여. / 스스로의 구조에 집혀 불확실성원리(不確實性原理)모양 앙감질하며 / 한 광주리의 심해어(深海魚)를 이미 부화(孵化)해낸 지금의 너의 좌표(座標)는 / 아슬아슬한 접선(接線)의 서슬. / 날이 저문다. 환등(幻燈) 황혼(黃昏)이 풍악을 친다. 팽매기의 틈 서리로 / 이제 기웃거리는 것은 눈매 콧날이 흡사 너를 닮은 / 동그라미의 심연(深淵). 그 속에 휘휘 맴도는 무시무시한 정점(靜點)이 / 사리고 있다. 너는 그것을 마저 해내기 위해서 / 더욱 무섭다는 기술(技術)을 가는 매친 틀이다. <성찬경, 밀핵, 화형둔주곡, 정음사, 1966>

*a 대출계

돈을 몇 푼 찾아 가지고 / 은행을 나섰을 때 거리의 / 찬바람이 머리카락을 흐트려 놓았다 / 대출계 응접 코너에 앉아 있던 / 그 당당한 채무자의 모습 / 그의 땅을 밟지 않고는 / 신촌 일대를 지나갈 수 없었다 / 인조대리석이 반들반들하게 깔린 / 보도에는 껌자국이 지저분했고 / 길 밑으로는 전철이 달려갔다 / 그 아래로 지하수가 흐르고 /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 시뻘건 바위의 불길이 타고 있었다 / 지진이 없는 나라에 태어난 것만 해도 / 다행한 일이지 / 50억 인구가 살고 있는 / 이 땅덩어리의 한 귀퉁이 / 1,000만 시민이 들끓고 있는 / 서울의 한 조각 / 금고 속에 넣을 수 없는 / 이 땅을 그 부동산업자가 / 소유하고 있었다 마음대로 그가 / 양도하고 저당하고 매매하는 / 그 땅 위에서 나는 온종일 / 바둥거리며 일해서 / 푼돈을 벌고 / 좀팽이처럼 / 그것을 아껴가며 살고 있었다 <김광규, 좀팽이처럼, 좀팽이처럼, 문학과지성사, 1988>

*a 땡추가록

아,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 이

희수무레하고 부드럽고 순수하고 슴슴한 것은 무엇인가 / 겨울밤 쩡하니 익은 동치미 국을 좋아하고 얼얼한 댕추가루를 좋아하고 싱싱한 산꿩의 고기를 좋아하고 / 그리고 담배 내음새 탄수 내음새 또 수육을 삶는 육수국 내음새 자욱한 더북한 삿방 쩔쩔 끓는 아르궅을 좋아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백석, 국수, 문장, 1941. 4>

*a 덕석말음

판돌이는 판돌이 / 덕석말음에 터진 볼기짝을 흔들며 / 춤추는 판돌이 <박종해, 탱자, 이 강산 녹음 방초, 민음사, 1992>

*a 덕파(德波)

우걱 우걱 찌는 듯한 남(南)녁 하늘 보아라, / 채색(彩色)노을 장막(帳幕) 이뤄 둘려쳐 논 속으로 / 온갖 세력(勢力) 작성(作成)하신 태양(太陽)이 드시네, / 산악(山岳)은 남은 빛에 공손(恭遜)하게 목욕(沐浴)코 / 하해(河海)는 걷는 힘에 질서(秩序)있게 밀리네, /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삼천세계(三千世界) 중생(衆生)이 / 차별(差別) 없이 베풀어진 은광(恩光) 입으며 / 한량(限量) 없이 헤쳐 놓은 덕파(德波) 젖었네 / 즐거움과 편안함의 저녁 때의 광경(光景)이 / 어느 것이 태양텍화(太陽澤化) 점피(霑被)함이 아니냐, / 이러하게 만계(萬界)가 다 복(福)을 받는 태양(太陽)은 / 황해수(黃海水)를 사이하여 끝내 우리 쏘시네, / 그렇다 우리 나라는 / 서방(西方)도 바다이니라. <최남선, 삼면환해국(三面環海國), 소년, 1909. 9>

*a 데드마스크

누구일까? / 벽에 걸린 데드·마스크! /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다. / 분명히 눈에 익은 얼굴이다. <김윤성, 데드·마스크, 바다가 보이는 산길, 1959>

*a 데파트

시민들은 가족을 위하여 / 바삐바삐 데파―트로 달린다 / (그 영광스러운 유전을 지키기 위하여……) / 애정의 뇌옥(牢獄) 속에서 나는 언제까지도 얌전한 포로냐? / 아내들아 이 달지도 못한 애정의 찌꺼기를 / 누가 목숨을 내놓고 아끼라고 배워 주더냐? / 우리는 조만간 이 기름진 보약을 구토해 버리자. <김기림, 제야(除夜), 시와 소설, 1936. 3>

*a 도레모로

현악기(絃樂器) / 혹은 목관악기(木管樂器)의 고음 / 그 가늘한 '도레모로'로 / 내 가슴에 금을 그으면서 / 사라져 간 / 몇개의 이별(離別)들 <정한모, 별리(別離)&5&, 여백을 위한 서정, 신구문화사, 1959>

*a 도투모기

다시 만나면 알아 못 볼 / 사람들끼리 / 비웃이 타는 데서 / 타래곱과 도루모기와 / 피 터진 닭의 볏 찌르르 타는 / 아스라한 연기 속에서 / 목이랑 껴안고 / 웃음으로 웃음으로 헤어져야 / 마음 편쿠나 / 슬픈 사람들끼리 <이용악, 슬픈 사람들끼리, 오랑캐꽃, 아문각, 1947>

*a 도림사

신라 때 복두장이는 / 하루 아침 임금의 귀가 당나귀 귀로 변해 버린 것을 보고 / 우리 임금의 귀는 당나귀 귀 / 우리 임금의 귀는 당나귀 귀 / 도림사 대숲가에 가서 외치다 / 아무도 듣는 이 없어 복장이 터져 죽었다지만 <송수권, 아도(啞陶), 한국대표시인100선집, 지리산 뻐꾹새, 미래사, 1991>

*a 도립(倒立)되다

허망한 시간 / 또는 줄기찬 행운의 순간(瞬間) / 우리는 도립(倒立)된 석고처럼 / 불길을 바라볼 수 있었다. / 낙엽처럼 싸움과 청년은 흩어지고 / 오늘과 그 미래는 확립된 사념이 없다. <박인환, 의혹의 기(旗), 박인환 시선집, 산호장, 1955>

*a 도사(盜士)

그 김삿갓이 숙직하는 밤을 골라 / 도사(道士) 아닌 도사(盜士)가 / 무엄케도 교단에 금자탑(金字塔)을 쌓았다. <김시종, 숙직(宿直), 얼굴 없는 여인, 시문학사, 1990>

*a 도솔천궁(兜率天宮)

백봉황(白鳳凰) 깃을 부쳐 도솔천궁(兜率天宮) 향하실 제 / 아득한 구름 한점 옛 강산이 저기로다 / 빗방울 오동에 드니 눈물 아니 지신가 <정인보, 자모사(慈母思), 담원시조, 을유문화사, 1948>

*a 도업(盜業)

인분을 살피니, / 메뉴가 다양했다. / 도업(道業) 아닌 도업(盜業)이 성업(盛業)인 모양이다. <김시종, 숙직(宿直), 얼굴 없는 여인, 시문학사, 1990>

*a 도한(徒漢)

무위(無爲)의 도한(徒漢)들이 / 사람과 기계(機械) 위에 타고 가는 / 문명(文明)의 거리 한 복판에서 / 네 발굽에 겨우 짚신 한 짝씩 얻어 신은 / 나의 남루(襤褸)와 나의 항산(恒産)이여. <설창수, 역우(役牛), 개폐교, 백양당, 1950>

*a 도홍선(桃紅扇)

도홍선(桃紅扇) 활짝 피어 / 붉은 입술 가리고 / 웃고 돌아지는 / 보석 같은 그 눈매 <신석초, 무녀(巫女)의 춤, 석초시집, 을유문화사, 1946>

*a 독두옹(禿頭翁)

유치장(留置場)에서 즈로오스의 끈마저 빼앗긴 양가(良家)집 규수(閨秀)는 한 자루 가위를 경관(警官)에게 요구(要求)했다 / —저는 무기(武器)를 생산(生産)하는 거예요 / 이욱고 자라나는 규수(閨秀)의 단발(斷髮)한 모발(毛髮) / 신(神)은 사람에게 자살(自殺)을 암시(暗示)하고 있다…… 고 독두옹(禿頭翁)이여 생각지 않습니까? / 나의 눈은 둘 있는데 별은 하나밖에 없다 폐허(廢墟)에 선 눈물 —눈물마저 하오(下午)의 것인가 불행(不幸)한 나무들과 함께 나는 우두커니 서 있다 <이상, 작품(作品) 제3번, 조선중앙일보, 1934. 7. 25>

*a 독야청(獨也靑)

독야청(獨也靑) / 저 송죽(松竹)을 / 군자(君子)의 절개(節槪)라네 / 발갛게 / 타는 단풍(丹楓) / 어느 원부(怨婦) 피눈물고 / 새노란 / 은행(銀杏)잎이야 / 시인(詩人)의 넋이로세 <이희승, 은행(銀杏)&2&, 박꽃, 백양당, 1947>

*a 독열(毒熱)

그래서 진정 너는 있느냐. / 나는 분명히 만져지는 여기 있고나. / 있는 너의 이름이냐— 관(觀), / 꽃 거리한 복판에 누워 있고 / 불타는 사막을 건넌달지라도 / 바로 거기엔 네가 있으면서 / 독열(毒熱)에 삶긴 침상 위에서도 / 구름 속의 달빛인 양 반색할 줄 알면서 / 그 날 너 창엔 뜨거운 이슬마저 고였으면서 / 너 입술은 모란꽃잎처럼 떨면서 / 억센 포옹을 전기처럼 느낄 줄 알면서 / 산줄기가 울고 한 바다가 쏟아진대도 /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을 수 있으면서 / 그렇듯 너도 거기 있는 너이면서 / 무엇이 두려움에 굳게 닫은 창이냐. <설창수, 관음(觀音)의 창(窓), 개폐교, 백양당, 1950>

*a 독올(禿兀)하다

한 줄기 푸른 칡도 기어오르지 못하는 / 천년의 절망에 지꽃이 늙어 / 이 우울 무사(無事)한 지표(地表)에 절박한 / 아아 저 독올(禿兀)한 불모의 면상을 보라 <유치환, 단애(斷崖), 청마시초, 문성사, 1939>

*a 돈생(豚生)

일찍 먹지 않곤 하루도 가져본 적 없는 오래인 돈생(豚生)의 습성(習性)이 / 지금도 식욕(食慾)없는 내 식지(食指)를 육채(肉菜)의 삼림(森林)속에 배회(徘徊)케하나 / 미움은 다—만 고고(孤高)한 산정(山頂) 영원히 못배킬 내 십자가(十字架)를 우러러 떨고 있나니 <이찬, 나도 웃고 싶단다 웃고 싶단다, 망양(茫洋), 박문서관, 1940>

*a 돈오미도(頓悟未到)

만고(萬古)의 비밀(秘密)과 경이(驚異)와 기적(奇蹟)과 신비(神秘)와 / 도취(陶醉)와 명상(瞑想)과 침묵(沈默)의 구현체(具顯體)인 / 아시아! /

철학미답(哲學未踏)의 비경(秘境) / 돈오미도(頓悟未到)의 성지(聖地) 대(大)아시아! / 독주(毒酒)와 아편(阿片)과 미(美)와 선(禪)과 / 무궁(無窮)한 자존(自尊)과 무한(無限)한 오욕(汚辱) / 축복(祝福)과 저주(咀呪)와 상반(相伴)한 / 기나긴 아시아의 업(業)이여. <오상순, 아시아의 여명(黎明), 공초오상순시선(空超吳相淳詩選), 자유문화사, 1963>

*a 돌능와집

'자시동북팔십천희천(自是東北八〇천희川)'의 펫말이 선 곳 / 돌능와집에 소달구지에 싸리신에 옛날이 사는 장거리에 / 어느 근방 산천에서 덜거기 껙껙 건방지게 운다 <백석, 월림(月林)장, 조선일보, 1939. 11. 11>

골이 다한 산대 밑에 자그마한 돌능와집이 한 채 있어서 / 이 집 남길동 단 안주인은 겨울이면 집을 내고 / 산을 돌아 거리로 내려간다는 말을 하는데 / 해바른 마당에는 꿀벌이 스무나문 통 있었다 <백석, 함주시초(咸州詩抄), 조광, 1937. 10>

*a 돌체돋보기

거리는 장날이다 / 장날 거리에 영감들이 지나간다 / 영감들은 / 말상을 하였다 범상을 하였다 쪽재피상을 하였다 / 개발코를 하였다 안장코를 하였다 질병코를 하였다 / 그 코에 모두 학실을 썼다 / 돌체돋보기다 대모체돋보기다 로이도돋보기다 / 영감들은 유리창 같은 눈을 번득거리며 / 투박한 북관(北關)말을 떠들어 대며 / 쇠리쇠리한 저녁 해속에 / 사나운 짐승같이들 사라졌다 <백석, 석양, 삼천리문학, 1938. 4>

*a 동말랭이

오리치를 놓으러 아배는 논으로 내려간 지 오래다 / 오리는 동비탈에 그림자를 떨어뜨리며 날아가고 나는 동말랭이에서 강아지처럼 아배를 부르며 울다가 / 시악이 나서는 등 뒤 개울물에 아배의 신짝과 버선목과 대님오리를 모두 던져 버린다 <백석, 오리 망아지 토끼, 사슴, (자가본), 1936>

*a 동망(憧望)

청년—그는 동망(憧望)—제대로 노니는 향락의 임자 / 첫여름 돋는 해의 혼령일러라. <이상화, 청년, 상화와 고월, 미발표, 1951>

*a 동비탈

오리치를 놓으러 아배는 논으로 내려간 지 오래다 / 오리는 동비탈에 그림자를 떨어뜨리며 날아가고 나는 동말랭이에서 강아지처럼 아배를 부르며 울다가 / 시악이 나서는 등 뒤 개울물에 아배의 신짝과 버선목과 대님오리를 모두 던져 버린다 <백석, 오리 망아지 토끼, 사슴, (자가

본), 1936>

*a 동살지대(凍殺地帶)

눈 눈 흰 눈—아니, 샛파란 눈—— / 꼬리를 살살 치는 어여쁜 백호(白狐)—도화(道化)의 요희(妖姬) / 뼈가 저린 술에 취한 듯이 / 현매(眩昧)에 달려가는 내 혼(魂)의 발걸음 / 산으로 들로 바다로 하늘가으로 / 면 암사(暗死)의 나라로 끝없는 '팔랑개비'의 나라로——. / 아아 쓰리기도 하여라 / 피묻은 단의(單衣)를 휘감은 듯한 나의 혼(魂)은 / 밤놀의 휘장들린 동살지대(凍殺地帶)에 서서 / 달의 해골(骸骨)이 눈땅의 뺨을 갈길 때 / 그는 가슴을 움켜쥐고 / 누구를 찾아 호곡(號哭)하다 / 최후(最后)의 심판정(審判廷)이나 다다른 듯이, <조명희, 눈[雪, 1924>&26& / 봄 잔디밭 위에, 춘추각]

*a 동시체(凍屍體)

이억년전(貳億年前) 우리 조상들은 포유류(哺乳類)에게 / 저희 알을 빼앗겼다 / 이억년전(貳億年前) 게으름뱅이들은 급작스런 기후(氣候)의 변화(變化)에 / 흉칙스런 동시체(凍屍體)를 얼음바닥에 굴렸었다. <장호, 동면(冬眠), 파충류의 합창, 시작사, 1957>

*a 동작선(動作線)

동작선(動作線)은 공중 외줄타기 선(線)아닌 것들 깊이 모를 어둠뿐 곁눈질해서는 안되 한 치 한 치가 계산(計算)된 땅 눈 감고도 선이 보여야 되 보이면 지우고 보이면 지우고 매일 아침 면도하고 다시 표정을 그려 웃는 입은 크게 그리고 눈과 귀는 콧구멍 속에 숨기고 아니 아니 지워버려 지웠다는 사실까지 지워버려. <김정웅, 배우일지(俳優日誌) 둘, 배우일지, 평민사, 1980>

*a 동중정(動中靜)

떠받는 명고(名鼓)인디 잔가락을 온통 잊으오 / 떡 궁! 동중정(動中靜)이요 소란 속에 고요 있어 / 인생이 가을같이 익어가오 <김영랑, 북, 영랑시선, 정음사, 1949>

*a 동천홍(東天紅)

무너진 성(城) 너머로 아침 햇살이 필락말락 동천홍(東天紅)의 한때를 <김관식, 임원생활지(林園生活志), 김관식시선, 자유세계사, 1957>

*a 동학년(東學年)

껍데기는 가라. / 동학년(東學年)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 껍데기는 가라. <신동엽, 껍데기는 가라, 52인시집, 1967>

*a 돌벌기

수박이 열면 수박을 먹으며 팔며 / 감자가 앉으면 감자를 먹으며 팔며 / 까막까치나 두더지 돌벌기가 와서

먹으면 먹는 대로 두어 두고 / 도적이 조금 걷어 가도 걷어 가는 대로 두어 두고 / 아, 노왕(老王), 나는 이렇게 생각하노라 / 나는 노왕(老王)을 보고 웃어 말한다 <백석, 귀농(歸農), 조광, 1941. 4>

*a 된비

소와 말은 도로 산(山)으로 돌아갔다 / 염소만이 아직 된비가 오면 산(山) 개울에 놓인 다리를 건너 인가(人家) 근처로 뛰어 온다 <백석, 산지(山地), 조광, 1935. 11>

*a 두룽이

촌에서 온 아이여 / 촌에서 어젯밤에 승합자동차를 타고 온 아이여 / 이렇게 추운데 웃동에 무슨 두룽이 같은 것을 하나 걸치고 아랫도리는 쪽 발가벗은 아이여 / 뺠다구에는 징기징기 앙광이를 그리고 머리칼이 노란 아이여 / 힘을 쓸려고 벌써부터 두 다리가 푸둥푸둥하니 살이 찐 아이여 / 너는 오늘 아침 무엇에 놀라서 우는구나 / 분명코 무슨 거짓되고 쓸데없는 것에 놀라서 / 그것이 네 맑고 참된 마음에 분해서 우는구나 / 이 집에 있는 다른 많은 아이들이 / 모두들 욕심 사납게 지게굳게 일부러 청을 돋혀서 / 어린 아이들치고는 너무나 큰소리로 너무나 튀겁 많은 소리로 울어 대는데 / 너만은 타고난 그 외마디 소리로 스스로웁게 삼가면서 우는구나 / 네 소리는 조금 썩심하니 쉬인 듯도 하다 / 네 소리에 내 마음은 반끗이 밝아오고 또 호끈히 더워 오고 그리고 즐거워 온다 / 나는 너를 껴안아 올려서 네 머리를 쓰다듬고 힘껏 네 작은 손을 쥐고 흔들고 싶다 / 네 소리에 나는 촌 농삿집의 저녁을 짓는 때 / 나주볕이 가득 드리운 밝은 방안에 혼자 앉아서 / 실감기며 버선짝을 가지고 쓰렁쓰렁 노는 아이를 생각한다 / 또 여름날 낮 기운 때 어른들이 모두 벌에 나가고 텅 비인 집 토방에서 / 햇강아지의 쌀랑대는 성화를 받아 가며 닭의 똥을 주워 먹는 아이를 생각한다 / 촌에서 와서 오늘 아침 무엇이 분해서 우는 아이여 / 너는 분명히 하늘이 사랑하는 시인이나 농사꾼이 될 것이로다 <백석, 촌에서 온 아이, 문장, 1941>

*a 둔천배정(遁天背情)

다만 아지 못할 동족이 있어 / 살베이고 뼈 앗음을 일삼아 / 지속을 자르다 그러나 / 잘라도 잘라도 크는 / 청춘의 육체는 흙이라 / 악에 모반하는 뿌리를 지키기 위하여 / 흙은 숨을 쉬고 자지 않음이라 다만 / 야차(夜叉)와 같은 동족이 있어 / 역사에 밀린 단층의 최후를 / 세 뼘 칼끝으로 지탱하려고 / 매암돌이 몸부림치는 너 비리(非理) / 둔천배정(遁天背情)의 희생은 다만 / 떨어져 죽지 않는 포도라 / 청춘의 넋의 약하고 또 강함이어 / 그대 위하여 산천에 노한 포도 / 백태(白苔)를 뽑고

/ 종야(終夜) 통곡하여 피를 흘리다 <설정식, 송가(頌歌)&3&, 포도, 정음사, 1948>

*a 둥굴레우림

토끼도 살이 오른다는 때 아르대즘퍼리에서 제비꼬리 마타리 쇠조지 가지취 고비 고사리 두릅순 회순 산(山)나물을 하는 가즈랑집 할머니를 따르며 / 나는 벌써 달디단 물구지우림 둥굴레우림을 생각하고 / 아직 멀은 도토리묵 도토리범벅까지도 그리워한다 <백석, 가즈랑집, 사슴, (자가본), 1936>

*a 들믄들믄

여인숙이라도 국수집이다 / 모밀가루 포대가 그득하니 쌓인 웃간은 들믄들믄 더웁기도 하다 / 나는 낡은 국수분틀과 그즈런히 나가 누워서 / 구석에 데굴데굴하는 목침들을 베어보며 / 이 산골에 들어와서 이 목침들에 새까마니 때를 올리고 간 사람들을 생각한다 / 그 사람들의 얼굴과 생업과 마음들을 생각해 본다 <백석, 산중음(山中吟), 조광, 1938. 3>

*a 들죽

칠성(七星)고기라는 고기의 쩜벙쩜벙 뛰노는 소리가 / 쨋쨋하니 들려오는 호수까지는 / 들죽이 한불 새까마니 익어 가는 망연한 벌판을 지나가야 한다 <백석, 함남(咸南) 도안(道安), 문장, 1939. 10>

*a 들지고방

오대(五代)나 내린다는 크나큰 집 다 찌그러진 들지고방 어득시근한 구석에서 쌀독과 말쿠지와 숫돌과 신뚝과 그리고 옛적과 또 열두 데석님과 친하게 살으면서 <백석, 목구(木具), 문장, 1940. 2>

*a 딜옹배기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 바로 날도 저물어서, /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 나는 어느 목수(木手)네 집 헌 삿을 깐, /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이었다. /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생각하며, / 딜옹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 오면, /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재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 또 문 밖에 나가지두 않구 자리에 누워서, / 머리에 손깍지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쌔김질하는 것이었다. / 내 가슴이 꽉 메어 올 적이며, /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 더러 나줏손에 쌀랑쌀랑 싸락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우섶에 따로 외로이 서서, / 어두워 오는데 하이야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백석,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학풍, 1948. 10>

*a 딥세기

황토 마루 수무나무에 얼럭궁덜럭궁 색동헝겊 뜯개조박 뵈짜배기 걸리고 오쟁이 끼애리 달리고 소삼은 엄신 같은 딥세기도 열린 국수당 고개를 몇 번이고 튀튀 침을 뱉고 넘어가면 골 안에 아늑히 묵은 영동이 무겁기도 할 집이 한 채 안기었는데 <백석, 넘언집 범 같은 노큰마니, 문장, 1939. 4>

*a 따디기

오리야 네가 좋은 청명(淸明) 밑께 밤은 / 옆에서 누가 뺨을 쳐도 모르게 어둡다누나 / 오리야 이때는 따디기가 되어 어둡단다 <백석, 오리, 조광, 1936. 2>

포근한 봄철날 따디기의 누굿하니 푹석한 밤이다 / 거리에는 사람두 많이 나서 흥성흥성할 것이다 / 어쩐지 이 사람들과 친하니 싸다니고 싶은 밤이다 <백석, 내가 생각하는 것은, 여성, 1938. 4>

*a 딸라 이자

보다 확실한 꿈 속에선 / 보석을 단 일각수(一角獸)가 / 우리의 금빛 상여를 느릿느릿 끌고 가고 / 4 나누기 3은 / 영원히 1.333333…… / 이라고 / 작은 개미는 더 조그만 개미알을 무궁히 / 낳고 / 나의 고통은 단추처럼 단단한 / 고통의 하얀 알들을 / 우주수(宇宙水)의 밑바닥에 딸라 이자처럼 / 수북히 / 그보다 영겁으로 쌓아놓고 있는데…… <김승희, 무궁동(無窮動), 미완성을 위한 연가, 나남, 1987>

*a 땃불

괴나리봇짐 벗고 땃불 놓고 앉아 / 담배 한 대 피우고 싶은 길이다 <백

석, 창원도(昌原道), 조선일보, 1936. 3. 5>

*a 때글다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 이 흰 바람벽에 / 희미한 십오촉(十五燭)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 / 때글은 다 낡은 무명 샤쯔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 그리고 또 달디 단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 이 흰 바람벽에 /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 찬 물에 손은 담그고 무며 배추를 씻고 있다 /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 어느 먼 앒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즈막한 집에서 / 그의 지아비와 마주앉아 대구국을 끓여 놓고 저녁을 먹는다 /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 그런데 또 이즈막하야 어느 사이엔가 / 이 흰 바람벽엔 /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력하는 듯이 /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 그리고 또 '프랑시쓰 쨈'과 도연명(陶淵明)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 문장, 1941. 4>

*a 뗏노래

보리밭 없고 / 흐르는 뗏노래라곤 / 더욱 못 들을 곳을 향해 / 암팡스럽게 길 떠난 / 너도 물새 나도 물새 / 나의 사람아 너는 울고 싶고나 <이용악, 그래도 남으로만 달린다, 낡은 집, 삼문사, 1938>

*a 뚜럭잽이

미군부대 하우스보이 재악아, / 달러처럼 반짝이는 / 양키들의 구두를 닦다가 훔치다가 / 이제는 뚜럭잽이 별 네 개 달고 / 큰 집에 간 친구야. / 밤마다 달러처럼 난폭하게 빛나는 / 너의 반생을 본다. / 네 마누란 뭘 하는지 너는 모른다. <박석수, 현장, 쑥고개, 문학사상사, 1987>

*a 뜰개조박

황토 마루 수무나무에 얼럭궁덜럭궁

색동헝겊 뜯개조박 뵈짜배기 걸리고 오쟁이 끼애리 달리고 소삼은 엄신 같은 딥세기도 열린 국수당 고개를 몇 번이고 튀튀 침을 뱉고 넘어가면 골 안에 아늑히 묵은 영동이 무겁기도 할 집이 한 채 안기었는데 <백석, 넘언집 범 같은 노큰마니, 문장, 1939. 4>

*a 띠쫗다

아카시아꽃의 향기가 가득하니 꿀벌들이 많이 날아드는 아침 / 구신은 없고 부엉이가 담벽을 띠쫗고 죽었다 <백석, 정문촌(旌門村), 사슴, (자가본), 1936>

*a 레그호온

탱자울에 스치는 새떼 / 기왓골에 마른 풀 / 놋대야의 진눈깨비 / 일찍 횃대에 오른 레그호온 / 이웃집 아이 불러들이는 소리 / 해 지기 전 불 켠 울안. <박용래, 울안, 강아지풀, 민음사, 1975>

*a 로서아

자, 가자 어서, 어서 신부의 방으로 / 내가 조선에 바칠 오직 한낫 선물이 기다리고 있잖느냐 / 이 몸이 로서아로 간 뒤 뒤를 이을 한 개의 빨간 생명이. <김동환, 첫날밤, 삼인시가집, 삼천리사, 1929>

*a 로얄티

내 주(主)인 / 구름에게, / 내 삶의 로얄티도. <조정권, 구름의 편지, 산정묘지, 민음사, 1991>

*a 로이도돋보기

거리는 장날이다 / 장날 거리에 영감들이 지나간다 / 영감들은 / 말상을 하였다 범상을 하였다 쪽재피상을 하였다 / 개발코를 하였다 안장코를 하였다 질병코를 하였다 / 그 코에 모두 학실을 썼다 / 돌체돋보기다 대모체돋보기다 로이도돋보기다 / 영감들은 유리창 같은 눈을 번득거리며 / 투박한 북관(北關)말을 떠들어 대며 / 쇠리쇠리한 저녁 해 속에 / 사나운 짐승같이들 사라졌다 <백석, 석양, 삼천리문학, 1938. 4>

*a 루마치스

밤바다에서 / 나는 / 아무것도 만나지 못한다. / 다만 부러진 칼, / 부러진 번득임, / 부러진 달빛의 / 희디흰 루마치스. / 춤추는 가지의 끝에서, / 나의 살의(殺意)는 / 처절히 / 죽어 버린다. <윤석산2, 밤바다, 바다 속의 램프, 고려원, 1980>

*a 룩샤

그러나 소풍길에 나선 아이들이 / 룩샤을 메고 북악산(北岳山)의 새벽 구름을 / 바라보듯 / 낙동강 공업지구의 가동하는 기계 소리를 / 주민들이 귀담아 듣듯 / 광야를 향하여 서서히 움직이는 기관차에 / 불붙는

석탄을 집어 넣듯, <김현승, 일년의 문을 열며, 마지막 지상에서, 창작과 비평사, 1975>

*a 리프레인하다

'아, 길 잃은 어린 양아, 어디로 가려느냐. / 아, 어미 잃은 새 새끼야, 어디로 가려느냐.' / 비극의 서곡을 리프레인하듯 / 허공을 지나는 숨결이 말하더라. <이상화, 이중의 사망, 백조, 1923. 9>

*a 링겔병

천장 위에 매단 링겔병에서 밤의 붉은 혈액이 조금씩 줄고 있다 <조정권, 튀빙겐 가는 길, 신성한 숲, 문학과지성사, 1994>

*a 마가슬

나는 주먹다시 같은 떡당이에 꿀보다도 달다는 강낭엿을 산다 / 그리고 물이라도 들듯이 샛노랗디 샛노란 산(山)골 마가슬볕에 눈이 시울도록 샛노랗고 샛노란 햇기장쌀을 주무르며 / 기장쌀은 기장차떡이 좋고 기장차랍이 좋고 기장감주가 좋고 그리고 기장쌀로 쑨 호박죽은 맛도 있는 것을 생각하며 나는 기쁘다 <백석, 월림(月林)장, 조선일보, 1939. 11. 11>

*a 마드레느기(紀)

당신의 원야(原野)에 선 / 한 그루 나무의 둘레를 맴돌며 / 어딘지 분명찮은 숲의 기억을 / 일심(一心)으로 뒤적이고 있지만, / 그것은 유사이전의 하늘에서 굽어본 한 폭의 검은 숲, / 아니면 나의 가슴 깊이에 되새겨지는 마드레느기(紀)의 기억, / 아니면…… <박남수, 어딘지 모르는 숲의 기억, 새의 암장(暗葬), 문원사, 1970>

*a 마류구(碼瑠球)

수우피(水牛皮) 봉(棒)을 들고 마류구(碼瑠球) 치올 적에 / 장전(帳殿) 소고(簫鼓)는 천지를 흔들랏다 / 백마(白馬)의 미쳐 나는 양을 보는 듯이 느껴라 <이은상, 구정(球庭), 노산시조집(鷺山時調集), 한성도서주식회사, 1932>

*a 마림(魔林)

흐늑 흐늑 대지(大地)를 쿨쿠는 팔월(八月)의 태양(太陽), / 나무잎 하나 까딱이지 안는 음울(陰鬱)한 위기(圍氣), / 마림(魔林) 같은 빌딩의 하품소리는 흙냄새 가득찬 이곳에도 찾아 오나니 / 농촌(農村)에서, 도회(都會)에서, 어촌(漁村)에서— / 팍팍 떼여 나오는 이 겨레의 아우성, / 진두(陣頭)까지 짓밟힌 비명(悲鳴)은 무슨 일일까, 무슨 일일까. <황순원, 팔월(八月)의 노래, 방가(放歌), 동경학생예술좌 문예부, 1934>

*a 마방(魔房)

잃어버린 꿈나라로 내가 가려고 / 피 흐르는 진 길을 내가 걸으며 / 연기(煙氣) 찬 마방(魔房)에 내가 흘릴 때 / 꿈성을 나는 두드리도다. <박영희, 꿈의 나라로, 회월시초, 조선문화사, 1937>

*a 마산포(馬山浦)

내 그윽한 느낌에 눈감고 듣노니 / 마산포(馬山浦)의 밤은 말없이 깊어만 가는데…… <노천명, 포구의 밤, 산호림, 자가본, 1938>

*a 마애상(磨崖像)

어느 날 산에 올라 그 모습조차 헤아릴 길 없이 문드러진 마애상(磨崖像)을 보았습니다 / 거기 씌어진 글자라고도 하기 어려운 이상한 자획들을 더듬자니 손바닥을 통해 그것들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 거기 덧붙여 그려진 그림이라고도 하기 어려운 기묘한 모습들을 바라보자니 눈길이 문득 그것들의 설레는 발소리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 이 산에 버려져 잊혀진 하늘끝, 그 어디로 사라졌을 장인(匠人)의 마음발이 노을로 붉게 물들 즈음엔 나도 그만 한 조각 노을이 되어 무슨 신표(信標)처럼 그 바위벽에 묻어 있었습니다. <박제천, 어느 마애상(磨崖像) 앞에서, 달은 즈믄 가람에, 문학세계사, 1984>

*a 마우재말

철 없는 누이 고수머릴랑 어루만지며 / 우라지오의 이야길 캐고 싶던 밤이면 / 울어머닌 / 서투른 마우재말도 들려 주셨지 / 졸음졸음 귀 밝히는 누이 잠들 때꺼정 / 등불이 깜박 저절로 눈감을 때꺼정 <이용악,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낡은 집, 삼문사, 1938>

*a 마의초식(麻衣草食)하다

혹자왈(或者曰) '마의초식(麻衣草食)한 이가 무슨 정(情)에 궁(宮)을 세웠겠느냐. 이는 전설(傳說)이요 사실(史實)은 아니라'고 한다. 답왈(答曰) 그는 잘못이다. 궁이 반드시 화려굉대(華麗宏大)를 뜻함이 아닐지니 일간두옥(一間斗屋)도 태자(太子)가 거(居)하시매 사람들이 말하되 궁(宮)이라 하였으리라. <이은상, 태자궁지(太子宮址), 노산시조집(鷺山時調集), 한성도서주식회사, 1932>

*a 마향(魔香)

밤 새도록 흐르는 / 창(窓) 밖에 시내의 물소리는, / 수줍은 내 잠을 꼬여내, 사뿟 업고 / 생각의 깊이 없는 / 고요한 골짜기로 / 끝없이 외로웁게 헤매일지라도―. / 밤 새도록 흐르는 / 쓸쓸한 내 노래 가락만은, / 무거운 생각을 꼬여내, 사뿟 안고 / 오―내 넋의 옛 집, 네 유방(乳房) 속 / 마향(魔香)에 질식(窒息)되는 / 꿈나라 숲 속으로 돌아간다하면―. <박영희, 무제(無題)&17&, 회월시초, 조선문화사, 1937>

*a 막달라

유카리나무 그늘에 / 가도 가도 갈릴리 호숫가 / 유카리나무 그늘에 / 발톱 다 빠지고 / 신발 벗고 / 눈 한 번 곱게 감고 / 거기가 하늘인 듯 / 하늘 한쪽에 / 흐린 날은 무너지는 하늘 한쪽에 / 유카리나무 그늘에 / 마리아, 막달라와 마리아, / 아직 너는 너의 잠을 깨지 않고 있나니, <김춘수, 둘째번 마리아, 비에 젖은 달, 근역서재, 1980>

*a 막써레기

예순이 넘은 아들 없는 가즈랑집 할머니는 중같이 정해서 할머니가 마을을 가면 긴 담뱃대에 독하다는 막써레기를 몇 대라도 붙이라고 하며 <백석, 가즈랑집, 사슴, (자가본), 1936>

*a 막지무용지용(莫知無用之用)

내 소리도 가끔은 쓸 만하지만 / 그보다 더 좋은 건 / 피는 꽃이든 죽는 사람이든 / 살아 시퍼런 소리를 듣는 거야 / 무슨 길들은 소리 듣는 거보다는 / 냅다 한 번 뛰어보는 게 나을 걸 / 뛰다가 넘어져보고 / 넘어져서 피가 나보는 게 훨씬 낫지 / 가령 <전망>이란 말, 언뜻 / 앞이 탁 트이는 거 같지만 그보다는 / 나무 위엘 올라가보란 말야, 올라가서 / 세상을 바라보란 말이지 / 내 머뭇거리는 소리보다는 / 어디 냇물에 가서 산 고기 한 마리를 / 무엇보다도 살아 있는 걸 / 확실히 손에 쥐어보란 말야 / 그나마 싱싱한 혼란이 나오니 / 야음을 틈타 참외 서리를 하든지 / 자는 새를 잡아서 손에 쥐어 / 팔닥이는 심장 따뜻한 체온을 / 손바닥에 느껴보란 말이지 / 그게 세계의 깊이이니 / 선생 얼굴보다는 / 애인과 입을 맞추며 / 푸른 하늘 한 번 쳐다보고 / 행동 속에 녹아버리든지 / 그래 굴신자재(屈伸自在)의 공기가 되어 푸르름이 되어 / 교실 창문을 흔들거나 장천(長天)에 / 넓고 푸르게 펼쳐져 있든지, / 하여간 사람의 몰골이되 / 쓸데없는 사람이 되어라 / 장자(莊子)에 막지무용지용(莫知無用之用)이라 / 쓸데없는 것의 쓸데있음 / 적어도 쓸데없는 투신(投身)과도 같은 / 걸음걸이로 걸어가거라 / 너 자신이되 / 내가 모든 사람이니 / 불가피한 사랑의 시작 / 불가피한 슬픔의 시작 / 두루 곤두박질하는 웃음의 시작 / 그리하여 네가 만져본 / 꽃과 피와 나무와 물고기와 참외와 새와 애인과 푸른 하늘이 / 네 살에서 피어나고 피에서 헤엄치며 / 몸은 멍들고 숨결은 날아올라 / 사랑하는 거와 한몸으로 낳은 푸른 하늘로 / 세상 위에 밤낮 펴져 있거라. <정현종, 시창작(詩創作) 교실,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 세계사, 1989>

*a 만경파원(萬頃波原)

먹장 같은 구름이 휘날고 / 우주(宇

宙)를 저주(咀呪)하는 번개, 우뢰는 천지(天地)를 흔든다. / 이제 사오나운 폭풍우(暴風雨)는 몰려 올 것이며 / 만경파원(萬頃波原)에 늘어선 파도(波濤)는 날 뛸 것이다. / 사공아, 치를 잡은 사공아, / 등대(燈臺) 없는 바다나마 앞으로 나아 가는가. / 그러치 안으면 쫒겨 뱃머리 돌리려는가 / 깊은 밤중, 향방(向方) 잃은 나침판(羅針盤)만 바라보는 사공의 마음이여. <황순원, 황해(荒海)를 건너는 사공아, 방가(放歌), 동경학생예술좌 문예부, 1934>

*a 만경평야(萬頃平野)

만경평야(萬頃平野)에 눈이 덮인다 / 삼한사온(三寒四溫)으로 풀려나듯 / 저만치 보릿고개를 바라보며 / 추풍령(秋風嶺) 고개 넘어 / 오는 눈사람 <박이도, 거인(巨人), 바람의 손끝이 되어, 문학예술사, 1981>

*a 만고한(萬古恨)

묻노라 저 읍비(泣碑)야 네 눈물 얼마완대 / 이토록 흘리고서 상기 아니 마르나니 / 만고한(萬古恨) 맺힌 눈물이니 그칠 날을 몰라라 <이은상, 포은구거(圃隱舊居), 노산시조집(鷺山時調集), 한성도서주식회사, 1932>

*a 만곡가(萬曲歌)

아실 이 누구신고 이 가슴 내 진정(眞情)을 / 천행루(千行淚) 만곡가(萬曲歌)론들 어이 능(能)히 표할손가 / 상월(霜月)이 죽창(竹窓)에 드니 잠 못 이뤄하노라 <이은상, 가윗날에, 노산시조집(鷺山時調集), 한성도서주식회사, 1932>

*a 만곡수(萬斛水)

돌인가 옥(玉)이런가 휜들저리 휜할손가 / 너레기* 펼친 채로 만곡수(萬斛水)가 내리닫아 / 곳곳이 나는 눈발이 높자낮자 하여라 <정인보, 만폭동(萬瀑洞)&2&, 담원시조, 을유문화사, 1948>

*a 만단고(萬端苦)

뒷시내 흐르는 물 여흘여흘 옥(玉)소리를 / 네 소리 들을 제면 만단고(萬端苦) 쓸리나니 / 꿈에도 들리오시라 부대 들리오시라 <이은상, 계월송(溪月頌), 노산시조집(鷺山時調集), 한성도서주식회사, 1932>

*a 만두삽화(滿頭揷花)

모래는 반짝이면서 뜨겁고 / 물새는 날고 / 바다는 무수한 깃발을 흔들고 있어 / 감청(紺靑)과 빛의 깃발을 무수히 흔들고 있어 / 내가 노래할 수야 있지 / 내가 선언할 수야 있지 / 한 그루의 꽃나무는 꽃으로 해서 향기로웁다 / 가야금의 한 줄은 바람으로 해서 소리를 울린다 / 한 사람의 남자(男子)는 여자(女子)로 해서 언어를 가진다 / 내가 선언할 수야 있지 / 내가 노래할 수야 있지 /

그러나 이제 바다가 모래를 들먹이는 여기에 / 네가 있어 알몸인 네가 있어 / 내 백옥유리(白玉琉璃)의 이빨로 네 발바닥을 물다가 / 내 만두삽화(滿頭揷花)를 네 가슴에 묻는다 해도 / 다시 하늘은 우리 머리칼 언저리서 열리지 않고 / 구름은 우리의 손가락을 삼키면서 다섯 가지 색깔로 흐르지 않아 / 해는 다시 우리 등허리도 배도 사타구니도 / 눈부신 황금(黃金)으로 칠하지 않아 <전봉건, 속의 바다 20, 사랑을 위한 되풀이, 혜진서관, 1985>

봉황음(鳳凰吟)으로 / 삼진작(三眞勺)으로 / 북전(北殿)으로 / 보허자(步虛子) / 학연화대(鶴蓮花台) / 영산회상(靈山會相)으로 / 계면(界面) 돌음으로 / 만두삽화(滿頭揷花) / 칠보홍의(七寶紅衣) / 오방(五方)처용(處容) <신석초, 처용(處容) 무가(巫歌), 현대문학, 1969. 4>

*a 만리한(萬里恨)

머문 곳 이러이러 갈 곳은 어드메오 / 석화(石火) 일생(一生)이 어이 이리 괴로운고 / 삼경(三更)에 비가(悲歌)를 불러 만리한(萬里恨)을 붙이노라 <이은상, 가윗날에, 노산시조집(鷺山時調集), 한성도서주식회사, 1932>

*a 만리허공(萬里虛空)

그의 이마에서부터 / 어둔 밤 첫 여명이 떠오르고 / 비 오면 비에 젖는 대로 / 밤이면 또 그의 머리 위에 / 반디처럼 이루날는 어린 별들의 찬란한 보국(譜局)을 이고 / 오오 산이여 / 앓는 듯 대지에 엎드린 채로 / 그 고독한 등을 만리허공(萬里虛空)에 들내어 / 묵연(默然)히 명목(瞑目)하고 자위하는 너 / — 산이여 / 내 또한 너처럼 늙노니 <유치환, 산(山) 1&2&, 청마시초, 문성사, 1939>

*a 만산(萬山)

골 속에 자던 구름 게으른양 나오더니 / 어느덧 구름바다 만산(萬山)거기 나락들락 / 해금강(海金剛) 또 있다함을 내 안 믿어하노라 <정인보, 비로봉(毘盧峯)&2&, 담원시조, 을유문화사, 1948>

*a 만산낙목(滿山落木)

날이 새면 또 가야지 나도 하나 어룽인걸 / 물가고 구름가고 훌훌 벗을 만산낙목(滿山落木) / 부처님 적멸(寂滅)을 지켜 홀로 웃자 하시네. <정완영, 법주사(法住寺), 묵로도, 1972>

*a 만산홍록(滿山紅綠)

신이화(莘荑花) 피었단 말 어제런듯 들었더니 / 어느덧 만산홍록(滿山紅綠) 금수세계(錦繡世界) 되었도다 / 놀랍다 운기(運氣)에는 무왕불복(無往不復). <최남선, 봄맞이, 소년, 1910. 4>

*a 만설(滿雪)

새와 나, / 겨울나무와 나, / 저문 날의 / 만설(滿雪)과 나, / 내가 새를 사랑하면 / 새는 행복할까 / 나무를 사랑하면 / 나무는 행복할까 / 눈은 행복할까 <김남조, 행복(幸福)&9&, 빛과 고요, 서문당, 1982>

*a 만성되다

쿵기덕 쿵더 더러러 / 무심과 무관심의 방법을 알게 하시고 / 쿵—쿵 쿵더 더러러 / 만성된 상처를 / 추상으로만 남게 하소서 <김초혜, 문둥 탈춤 5, 떠돌이 별, 현대문학사, 1984>

*a 만연도항(漫然渡航)

갑판(甲板) 위에 섰자니 시름이 겨워 / 선실(船室)로 내려가니 '만연도항(漫然渡航)'의 백의군(白衣群)이다, / 발가락을 억지로 제어 다비를 꿰고 / 상투 자른 자리에 벙거지를 뒤집어 쓴 꼴 / 먹다가 버린 벤또밥을 엉금엉금 기어다니며 / 강아지처럼 핥아 먹는 어린것들! <심훈, 현해탄(玄海灘)&2&, 그날이 오면, 한성도서주식회사, 1949>

*a 만유애(萬有愛)

밤은 아시아의 감각(感覺)이요 감성(感性)이요 성욕(性慾)이다 / 아시아는 밤에 만유애(萬有愛)를 느끼고 임을 포옹(抱擁)한다 / 밤은 아시아의 식욕(食慾)이다, 아시아의 몸은 밤을 먹고 생성(生成)한다 / 아시아는 밤에 그 영혼(靈魂)의 양식을 구(求)한다, 맹수(猛獸)처럼…… / 밤은 아시아의 방순(芳醇)한 술이다, 아시아는 밤에 취(醉)하여 노래하고 춤춘다. <오상순, 아시아의 마지막 밤 풍경(風景), 공초오상순시선(空超吳相淳詩選), 자유문화사, 1963>

*a 만유일체(萬有一切)

영혼의 눈에 끼었던 / 무명(無明)의 백태가 벗어지며 / 나를 에워싼 만유일체(萬有一切)가 /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구상, 말씀의 실상(實相), 말씀실상(實相),, 1980>

*a 만타(萬朶)하다

마름잎 흐느끼는 여름 초저녁 서늘한 바람에선 풋내가 난다. / 하늘나라의 선녀(僊女)들이 우의(羽衣)를 펼쳐든 채 가지런히 내려와 목욕하는 듯. / 천개(天蓋)와 같이 육중한, 물방울이 수은(水銀)처럼 구을르는 연잎 위에 촉대(燭臺)인 양 빼어난 대공마다 초파일 연등(燃燈)처럼 만타(萬朶)한』 홍련(紅蓮)! <김관식, 홍련(紅蓮)이에게, 김관식시선, 자유세계사, 1957>

*a 만트라[眞言]

아미타불의 48대원을 비롯해 / 약사·미륵·문수·보현의 원이 있듯이 / 지구 중생 림(林)모 / 내게도 원이

있어 / 잠꼬대처럼 / 군소리처럼 / 또 만트라[眞言]로 중얼거린다. <림영창, 나의 48대원(大願), 1986년 12월 18일, 문무사, 1985>

*a 망막무제(茫漠無際)하다

한(限)없이 샘솟는 이 수원(水源)은 실(實)로 창망(滄茫)한 동해(東海)바다로 직통(直通)하였음을 / 아니! 태초(太初) 혼돈(混沌)에서 하늘과 땅이 나뉘고 하늘과 바다가 갈라지던 / 그 태고겁초(太古劫初)의 창조(創造)의 바다 속에 뿌리 박았음을 / 나는 직관(直觀)하고 영감(靈感)했건만 / 물맛은 짜지가 않고 감로(甘露)같이 달았다 / 이 생명수(生命水)와도 같은 거룩한 샘물이 망막무제(茫漠無際)한 / 사막(沙漠)과 대지(大地)를 골고루 적시고 스며들어 / 전체(全體)를 녹화(綠化)하고 소생(蘇生)하여 꽃피고 열매 맺을 / 참 평화(平和)의 명일(明日)을 예감(豫感)코 / 무한(無限)한 환희(歡喜)와 감사(感謝)와 법열(法悅)에 넘치며 잠기며 / 무심(無心)코 용(勇)을 써 몸을 뒤치는 찰나(刹那) / 깨고 보니 꿈일러라. <오상순, 바다물은 달다, 공초오상순시선(空超吳相淳詩選), 자유문화사, 1963>

*a 망멸(亡滅)하다

시방 이때이다 / 슬픔에 죽어가는 형제를 붙들어 일으키고 / 악한 자는 눈물로서 마음 돌이켜 / 이웃과 이웃 / 사람과 사람이 일월(日月)처럼 의지할 때는 이때어니 / 그렇지 아니한들 / 강퍅한 자(者)여 너희도 / 겨울 동산에 홀로 남은 이리처럼 고독히 죽고 / 새벽 하늘에 별빛 쓰러지듯 / 쓰러진 나라 위에 다시 나라가 쓰러지고 / 드디어 인류(人類)는 속절없이 망멸(亡滅)하리니 <유치환, 뉘가 이 기(旗)를 들어 높이..., 청마시집, 문성사, 1954>

이미 정해진 운명 앞에 내가 섰노라 / 겹겹이 싸여 오는 원수 속에서 / 이제 다시 죽음도 새로울 리 없노니 / 망멸(亡滅)할진저 망멸(亡滅)할진저 십자가를 세운 자(者)는 망멸(亡滅)할진저 / 내 부활하는 날 온몸의 못 자욱을 너는 보리라. <조지훈, 십자가(十字架)의 노래, 역사 앞에서, 신구문화사, 1959>

*a 망명지대(亡命地帶)

'구단'은 '갈고다'의 언덕은 아니었다. / 검은 흉조(凶鳥)의 그림자가 '간다'의 긴 서점가(書店街)를 뒤덮으며 / 지나가는 / 한계상황(限界狀況) 속에 / 하얀 벽, / 삼층 집, / 전중파(戰中派)의 꿈이 보인 망명지대(亡命地帶)가 있었다. <김종문, 아데네·프랑세, 한국전후문제시집, 신구문화사, 1963>

*a 망월동

우리들은 희망이었고 우리들은 비명이었지 / 우리들은 전사였고 우리들은 사도였지 / 우리들은 피였고 우

리들은 시체였지 / 우리들은 빛고을이었고 빛고을의 망월동이었고 / 우리들은 플라타너스였고 플라타너스 이파리가 피어나는 금남로의 벽돌짝이었지 / 해 저물어 어둠을 찾아들 때, 바리케이트 너머로 하나, 둘 모여드는 / 피투성이 된 붉고붉은 입술들 입술들의 입맞춤 입맞춤의 환희 / 죽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들의 꿈이 살아난 / 우리들은 한마당이었지 합창이었지……광주였지 <최하림, 우리들은 오늘도, 속이 보이는 심연으로, 문학과지성사, 1991>

*a 망월리(望月里)

마카로니 웨스턴의 등장이 아니다 / 허허 벌판에 서서 / 적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 뛰어가서 두 손으로 안은 / 죽어서도 죽지 않을 얼굴들 / 허약한 우리들은 잡혀 가지 않을려고 / 어둠을 빌어서 / 밤 노래를 부르고 / 한숨 죽여 이야기 하고 모이고 / 흩어져 외치고 / 오랏줄에 묶인 / 그리운 사람들의 사진만 쳐다보며 / 괜한 땀만 흘리고 있다 / 꽹과리를 쳐봐도 징을 쳐봐도 / 보이지 않는 것들만 하늘에 떠다니고 / 추도문이나 읽어 대던 / 사내들은 그때쯤 / 어디에 있었을까 / 망월리(望月里) 하늘 아래 / 달빛은 영원히 비추이는데 <박주관, 만날 수 없는 얼굴, 남광주, 청사, 1985>

*a 매감탕

얼굴에 별자국이 솜솜 난 말수와 같이 눈도 껌벅거리는 하루에 베 한 필을 짠다는 벌 하나 건넛집엔 복숭아 나무가 많은 신리(新里) 고무 고무의 딸 이녀(李女) 작은 이녀(李女) / 열여섯에 사십(四十)이 넘은 홀아비의 후처가 된 포족족하니 성이 잘 나는 살빛이 매감탕 같은 입술과 젖꼭지는 더 까만 예수쟁이 마을 가까이 사는 토산(土山) 고무 고무의 딸 승녀(承女) 아들 승(承)동이 / 육십리(六十里)라고 해서 파랗게 뵈이는 산(山)을 넘어 있다는 해변에서 과부가 된 코끝이 빨간 언제나 흰옷이 정하던 말끝에 설게 눈물을 짤 때가 많은 큰골 고무 고무의 딸 홍녀(洪女) 아들 홍(洪)동이 작은 홍(洪)동이 / 배나무 접을 잘하는 주정을 하면 토방돌을 뽑는 오리치를 잘 놓는 먼섬에 반디젓 담그러 가기를 좋아하는 삼춘 삼춘엄매 사춘누이 사춘동생들 <백석, 여우난골족(族), 사슴, (자가본), 1936>

*a 매도되다

쏟아지는 박래품과 바다 건너로 매도되는 선박의 / 저 넉넉한 밑바닥에 짓눌린 / 어둡고 괴로운 자들의 가슴을 보면서 / 우리들의 분노는 생성된다 / 멈추고 싶은, 더러는 착취의 시대로 돌아가고픈 / 것들에게 쐐기를 박기 위하여 / 우리들은 그림자를 돌보지 않은 채 투신한다 /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며 / 우리들이 황폐한 땅으로 새 길을 밀고 나갈 때 / 바리케이드를 세워 막아

서는 곳에 / 우리들의 주먹은 굳게 쥐어진다 / 가짜 처녀막을 욕망으로 찢어발기고 / 거짓말을 전수하는 학교를 넘어뜨린다 / 우리들이 죽고, 살갗이 노란 우리들의 아가들이 / 또다시 구부정한 허리로 걸어가는 /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린다 / 압착기에 눌려 작대기에 채여 / 무자비한 기계 앞에서 부산하게 뛰어다니다가 / 마침내 일어설 수 없는 몸 위에 뿌리를 내린다 / 보상받을 수 없는 죽음 위에 / 저 밑바닥까지 손상된 마음과 함께 / 삽을 꽂는다 뿌리를 내린다 / 세월의 흘러감으로 덮이지 않는 곳에 / 만발한다 뿌리를 뻗는다 <박몽구, 뿌리 내리기, 거기 너 있었는가, 청사, 1984>

*a 매복되다

용서해주고 싶다. 급강하는 말고 고공 비행 중 천천히 내려오면서 몇 장의 화해편지를 떨구고 싶다. 그리고는 하늘 속 하늘로 잠적했다가 빛나는 희망이 되어 희망 위의 극상품 희망이 되어 네가 바라보는 눈높이로 하강하고 싶다. 그러나 희망은 희망으로 머리 위에 띄워놓고 바라볼 뿐 손 안에 가두어지지 않는 극상품 슬픔이란 것을 알려주고 싶다. 이 기막힌 원리를 네가 깨닫지 못하게 보일 듯 말 듯 원근법으로 귀환하고 싶다. 그러나 귀환하지 않는 초월의 존재로 너의 가슴에 매복된 추억이고 싶다. 그러므로 너의 몸부림을 일으키는 살에 반점으로 돋아날 열꽃의 복병이고 싶다. <김지향, 슬픈 희망 1, 비온 뒤 풀밭, 문학아카데미, 1993>

*a 매혼(媒婚)하다

봄날에 산(山)으로 향(向)하여 들로 향(向)하여 혹(或)은 사람의 집뜰 우와 동산 속으로 향(向)하여 어린 풀싹과 나뭇잎과 꽃들에게 젖을 주는 듯, 또는 그 이마를 만져보며, 그 가늘은 맥박(脈搏)을 짚어 보는 조그만 어머니와 같이 같이, 의사(醫士)와 같이 돌아다니는 미풍(微風)을 누가 귀엽게 안보랴 / 봄날에 어린 풀과 나뭇잎과 꽃들을 찾어 다니면서 그 작란동무가 되여 아침과 석양(夕陽)의햇발 밑에서 그들과 어깨 얼싸안고 씨름하며 춤추며 또는 속삭거려 웃는 듯한 미풍(微風)을 누가귀엽게 안보랴 / 봄날에 꽃향기(香氣)를 몰고 다니면서 아리따운 나비들을 청(請)해다가 사랑을 구(求)하는 이꽃저 꽃에게 매혼(媒婚)해 주는 미풍(微風)을 누가 귀엽게 안보랴 / 봄날의 밤에 태양(太陽)님을 멀리 보내버린 어린 토끼새끼들과 적은 새들을 산(山)가운데의바위 그늘과 나무가지 꽃과 추녀 속에서 그 머리 쓰다듬으며 자장노래 불러 그들을 고요히 재워주는 미풍(微風)을 누가 귀엽게 안보랴 <황석우, 봄날의 미풍(微風), 자연송, 조선문단사, 1929>

*a 맥엽(麥葉)

서부인(徐夫人)의 손은 나이보다 젊

고 / 이마는 아직도 밝은 밀감(蜜柑) 빛이다. / 서부인(徐夫人)이 봄나들이를 가면 / 맥엽(麥葉)에도 하늘이 그득히 고이고 / 서부인(徐夫人)이 가을 나들이를 가면 / 바다가 수심(水深)을 드러내고 / 그 많은 사과알이 / 하늘로 깊숙이 떨어지는 것을 본다. / 서부인(徐夫人)이 나들이를 가지 않으면 / 하늘은 / 낮동안 멍청히 누웠다가 / 한밤에 서부인(徐夫人)의 머리맡에 와서 근심스럽게 / 에메랄드의 눈을 뜬다. / 서부인(徐夫人)이 나들이를 가지 않으면 / 우피장화(牛皮長靴)를 신은 팔자(八字) 수염의 장군(將軍)이 / 사냥개를 몰고 왔다 가고 / 서촌(西村) 마을은 / 시들시들 앓아 눕는다. / 바다는 / 시들어 낙엽(落葉)이 진다. <김춘수, 서촌(西村) 마을의 서부인(徐夫人), 타령조(打令調)·기타(其他), 문화출판사, 1969>

*a 맹폭(猛暴)

운수(運數)는 나로 하여금 나라를 떠나게 하도다 / 버티려 하면 손도 있고 뻗디디려 하면 발도 있으나 우리는 구태여 운수(運數)의 시킴을 항거(抗拒)하려 아니 하노니 그 소용(所用) 없음을 아는 고(故)라 / 오천춘광(五千春光)에 한(限)없이 번화(繁華)하였던 무궁화(無窮花)! 내가 어떻게 사랑하던 것이뇨 / 우리의 활개가 적은 줄을 모름이 아니나 너를 위(爲)하여는 대붕(大鵬)의 날개같이 덮어 주려 하였고 / 나도 사람의 자식(子息)이라 자연(自然)의 맹폭(猛暴)을 제복(制伏)치 못할 줄은 알으나 너를 위(爲)하야는 보기좋게 이 몸을 버려서라도 막을 데까지는 막고자 하지 아님이 아니로라 / 그러나 운수(運數)로다 / 운수(運數)는 기어(期於)코 너를 한번 흔들어 떨어뜨리고야 만다고 하는구나 /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나라를 떠나게 하는 도다—젖 떨어진 아해를 만들게 너의 목숨은 이미 너의 자유(自由)에 벗어났도다 그런데 너의 목숨을 자유(自由)로 하는 자(者)는 너의 목에 칼을 얹었도다 / 살기를 영화(榮華)로이 하였으니 지기도 영화(榮華)로이 하여라! 살았을 때에도 사나이였으니 질 때에도 사나이여라! / 저 천심(天心)에 달린 달을 보니 이즐어질 때에는 조곰도 원통(寃痛)해 하지 아니하고 이즐어지는 대신(代身)에 둥글 때에도 거침 없이 둥글어 지는도다 / 너로 하여금 조락(凋落)하게 한 운수(運數)는 미구(未久)에 번영(繁榮)케할 운수(運數)가 아닌 줄 누가 담보(擔保)한다더냐 / 너의 온갖을 다 뭉치여 모다 '때'의 바퀴에 실려라 서(西)으로 향(向)하였던 것이 곧 동(東)으로 향(向)하게 되리라 / 떨어져라 죽어라 나는 가노라 / 피울때 살을 때에 다시 오리라 다행(多幸)히 미력(微力)이 남아 있노니 동군(東君)의 수레를 밀기에 쓰리라 <최남선, 나라를 떠나는 슬픔, 소년, 1910. 4>

*a 먹기와

열대여섯 살짜리 소년이 작약꽃을 한아름 자전거 뒤에다 실어 끌고 이조(李朝)의 낡은 먹기와집 골목을 지나가면서 연계(軟鷄) 같은 소리로 꽃사라고 외치오. 세계에서 제일 잘 물들여진 옥색(玉色)의 공기 속에 그 소리의 맥(脈)이 담기오. 뒤에서 꽃을 찾는 아주머니가 백지의 창을 열고 꽃장수 꽃장수 일루 와요 불러도 통 못 알아듣고 꽃 사려 꽃 사려 소년은 그냥 열심히 외치고만 가오. 먹기와집들이 다 끝나는 언덕 위에 올라서선 작약꽃 앞자리에 냉큼 올라타서 방울을 울리며 내달아가오. <서정주, 한양호일(漢陽好日), 동천, 민중서관, 1968>

*a 먹오딧빛

외할머니네 집 뒤안에는 장판지 두 장만큼 한 먹오딧빛 툇마루가 깔려 있습니다. 이 툇마루는 외할머니의 손때와 그네 딸들의 손때로 날이 날마다 칠해져 온 것이라 하니 내 어머니의 처녀 때의 손때도 꽤나 많이는 묻어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하도나 많이 문질러서 인제는 이미 때가 아니라, 한 개의 거울로 번질번질 닦이어져 어린 내 얼굴을 들이비칩니다. / 그래, 나는 어머니한테 꾸지람을 되게 들어 따로 어디 갈 곳이 없이 된 날은, 이 외할머니네 때거울 툇마루를 찾아와, 외할머니가 장독대 옆 뽕나무에서 따다 주는 오디 열매를 약으로 먹어 숨을 바로합니다. 외할머니의 얼굴과 내 얼굴이 나란히 비치어 있는 이 툇마루에까지는 어머니도 그네 꾸지람을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정주, 외할머니의 뒤안 툇마루, 질마재신화, 일지사, 1975>

*a 멍석머리

강아지 밥 주고 나니 머리 위 반딧불 떴어라 시비(柴扉) 닫고 멍석머리 모깃불 놓으면 깜박깜박 저만큼 또 반딧불 초롱. <박용래, 유우(流寓) 1, 백발의 꽃대궁, 문학예술사, 1980>

*a 멸형(滅形)하다

하얀 종이 조각처럼 밝은 너의 오전의 공백(空白)에서 내가 그즘 잠시를 놀았더니라 허겁지겁 하얀 층층계를 올라버린 다음 또아리빛 달을 너와 나는 의좋게 나눠 먹었지 옛날에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고대(古代)의 원주(圓柱)가 늘어선 여기 내 주름 잡힌 반생을 낭독하는 청승맞은 소리 밤이 까아만 비로오드의 기침을 또박또박 흘리면서 내 곁에 서 있고 진흙빛 말갈(靺鞨)의 바람이 설레는 하늘엔 전갈이 따악들 붙여 있다 참새 발자국 모양한 글자들이 마구 찍혀 있는 어느 황토 빛 영토의 변두리에서 검은 나비는 맴을 돌고 아으 다롱디리! 안타까비의 포복(匍匐)이 너의 나의 육체에 의상(衣裳)처럼 화려하구나 나는 골고다의 스산한 언덕에서 마지막 피를 흘린다 나의 손바닥에서 하얀 네가 멸형(滅形)하고 나면 물보라 치는 나의 시커

면 종점에서 앙상하게 걸려 있는 세월의 갈비뼈 사이로 레테의 강물이 흐른다 나는 검은 수선꽃을 건져 든다 색스폰처럼 흰 팔을 흔드는 것은 누굴까! 팔목에 까만 시계줄이 감겨 있다 인공위성 이야길 주고 받으면서 으슥한 골목길로 피해 가는 소년들의 뒤를 밟아 가니까 볼이 움폭 파인 아낙네들이 누더기처럼 웃고 섰다 병든 풍금이 언제나 목쉰 소리로 오후의 교정을 괴롭히던 국민학교가 서 있는 마을에 아침마다 파아란 우유차를 끌고 오던 늙은이는 지금은 없다 바알간 석양 비스듬히 십자가 교회당 하얀 꼬리를 흔들면서 지나가는 바람결에 항가리아 소녀 탱크에 깔려 간 소녀들의 프란네르 치맛자락이 명멸한다 소롯한 것이 있다 아쉬운 것이 있다 내 어두운 마음의 갤러리에 불을 밝히러 너는 온다 지도를 펴 놓고 이 논샤란스의 지구의 레이아웃(layout)를 가만히 생각해 보자 내일이면 늦으리 눈이 자꾸 쌓인다. <조향, 검은 전설, 자유문학, 1958. 12>

*a 명부염라(冥府閻羅)

명부염라(冥府閻羅)의 귀를 / 울려라. / 깨진 피리여 / 가도 가도 황토흙 / 길은 멀고, <오세영, 무명연시(無明戀詩) 3, 무명연시(無明戀詩), 전예원, 1986>

*a 명사산(鳴沙山)

그 명사산(鳴沙山) 저쪽에는 십년(十年)에 한 번 비가 오고, 비가 오면 돌밭 여기저기 양파의 하얀 꽃이 핀다. 봄을 모르는 꽃. 삭운(朔雲) 백초련(白草連). 서기(西紀) 기원전(紀元前) 백이십년(百二十年). 호(胡)의 한 부족(部族)이 그 곳에 호(戶) 천 오백 칠십(千五百七十), 구(口) 만 사천백(萬四千百), 승병(勝兵) 이천 구백이십갑(二千九百二十甲)의 작은 나라 하나를 세웠다. 언제 시들지도 모르는 양파의 하얀 꽃과 같은 나라 / 누란(樓蘭). <김춘수, 누란(樓蘭), 비에 젖은 달, 근역서재, 1980>

저기, 저 길 건너 아파트 대단지의 검은 구멍 속의 / 산(山) 1번지(番地)의 한없이 넓은 구멍 속의 / 우리 집 어두운 구석구석의 / 잎진 나뭇가지가 위로 위로 파고 있는 흐린 하늘 속의 / 저 돈황의 석굴 / 저 천불동(千佛洞) / 서울의 명사산(鳴沙山)에는 모래처럼 눈발이 무너져내리고 <오규원, 이토록 밝은 나날, 가끔은 주목받는 생이고 싶다, 문학과지성사, 1987>

*a 명암(明暗)하다

그 명암(明暗)하는 기복(起伏)을 더듬으며 / 어둠 속 퍼져가는 가늘고 고운 선율(旋律) / 선(線)은 마침내 유리창(窓)에 얼어붙는 / 밀어(密語)와 같은 윤곽에서 머물고 <정한모, 영화(永花), 카오스의 사족(蛇足), 범조사, 1958>

편편히 명암(明暗)하던 그 / 기억의 구름 종잇장이라도 와서 걸리렴 /

말을 잃고 / 멀거니 내민 채 공중은 / 벽같이 잡을 데가 없다 <유치환, 기(旗) 없는 깃대, 청령일기, 백자사, 1949>

*a 명토대천(冥土大川)

고요한 마을 같은 내 마음의 한복판에 / 청춘(青春)의 말라 가는 붉게 달은 내 마음에, / 네 미소(微笑)의 함박꽃이 피어나서 하늑일 제 / 은(銀)실같은 그 향기(香氣)는 영원(永遠)한 선율(旋律)을 타고 / 인생(人生)의 향연(饗宴)에서 꿈의 노래를 빚어서 내어 / 푸른 그늘 활짝 덮인 나의 마음의 한복판에 / 비틀거려 어지럽게 방향(方向)없이 휘돌고 있다. / 너의 웃음의 금(金)실의 천(千) 갈래 만(萬) 갈래가 / 거미줄처럼 내 넋을 감고 감아다가는 / 명토대천(冥土大川)에 망각(忘却)의 작은 배에다 싣고 / 비너스들의 사육제(謝肉祭) 끝나기 그 전(前)으로 / 호소(呼訴)를 가자— 사바(娑婆)의 신고번뇌(辛苦煩惱)를, / 호소(呼訴)를 가자— 사랑의 쓰린 눈물을, / 피리 장고(長鼓) 가야금 거문고를 내어 놓고 / 양금(洋琴) 제금(提琴) 소라를 한테다 크게 불면서 / 의복(衣服)마다 눈물의 보석(寶石)으로 수(繡)놓아 입고 / 무지개같은 네 웃음의 오색(五色)의 긴 줄을 / 눈발처럼 펴부어서 춤의 전당(殿堂)을 채울 때 / 쓸쓸하던 내 마음의 터가 허화시(虛華市)가 되었지마는—. / 내 몸이 문득 쇠(衰)함은 네 웃음에 독(毒)이 있음인가! / 눈물로 허화시(虛華市)를 휩쓸어 떠내려 보냄은 / 네 웃음의 가닥가닥이 슬픔의 연기(煙氣)였던가! / 하룻밤의 영화(榮華)스런 네 웃음의 금(金)실로 / 인생(人生)의 고뇌(苦惱)를 덮어, 삶의 미궁(迷宮)을 찾더니 / 황량(荒凉)한 북풍(北風)에 이것도 한 조각 꿈이었던가! <박영희, 미소(微笑)의 허화시(虛華市), 회월시초, 조선문화사, 1937>

*a 모상(母象)

한 사람이 / 창 밖에서 / 창 안에 있는 / 우리들의 내부를 관찰하고 있다. / 눈에는 불을 달고 / 손에는 메스를 든 채. / 축축한 사각의 공간 / 가면을 쓴 원(圓)의 공간. / 공간, / 여기저기서 묻어나는 / 끈적한 인린의 뭉텅이 / 비릿한 비린내의 역겨움 삼키며 / 창 안에 있는 / 우리들의 바다로 떠난다. / 인류의 모상(母象)을 만나기 위하여. <이영춘, 존재(存在)에 관한 프롤로그, 귀 하나만 열어 놓고, 문학세계사, 1987>

*a 모일(暮日)

눈물도 사치한 모일(暮日)이 오고 / 순명(順命)의 아픈 지혜 / 가시로 꽂히는 저녁 <홍윤숙, 꽃들의 생애(生涯), 하지제, 문지사, 1978>

*a 모혼(暮昏)

애들아! / 박명(薄明), 저 가지에 걸치는 서광(曙光)과 / 모혼(暮昏)의 정

적(靜寂)을 생식(生食)하면서 / 운명(運命)을 정서(情緖)로 응감(應感)시킨 / 내사 갖는 이 즐거움이야 / 늬들은 모르지. <구상, 독락(獨樂)의 장(章), 구상문학선, 1975>

*a 물이념

우리는 민족도 하나요 국가도 하나요 문화도 하나이듯 국민 여러분은 개미처럼 뭉치면 살고모래처럼 흩어지면 죽는 이치 깨달아야 하노라. 나의 통치 사상은 굴렁쇠의 물이념, 구름 보고 노래하는 소나무의 초이념, 그래 우리 국민이 나를 따르는 것은 당연하고 당연하였노라. <홍희표, 품바·한 마디, 살풀이, 문학과지성사, 1984>

*a 몽당귀신

옛날 옛적에 / 배신당한 몽당귀신 <박현령, 지신(地神)님, 지신(地神)님, 지신님, 지신님, 문학세계사, 1990>

*a 묏가

그러나 끝내 이들은 손발이 장기처럼 닳도록 여기 살아 / 마지막 누에가 고치 되듯 애석도 모르고 / 살아생전 날세고 다니던 밭머리 / 부조(父祖)의 묏가에 부조(父祖)처럼 한결같이 묻히리니 <유치환, 거제도(巨濟島) 둔덕(屯德)골, 울릉도, 행문사, 1948>

*a 묘반(墓畔)

엉큼하게 뼈만 남은 해골(骸骨) 떼는 / 황폐(荒廢)한 성벽(城壁)밑 묘반(墓畔)에서 울고만 있으며 / 불없는 거리에 햇빛 찾는 무리는 / 칼자리에 윈몸이 피뭉치 되었구나 / 빛 잃은 눈동자(瞳子)여, 힘없는 입이여, / 나팔 못 든 손이여, 못 걷는 발목이여. <황순원, 넋 잃은 그의 앞 가슴을 향하여..., 방가(放歌), 동경학생예술좌 문예부, 1934>

*a 묘언(渺焉)하다

보아도 보아도 망망(茫茫)한 창파(蒼波)에 / 아, 실(實)로 묘언(渺焉)한 이 일률(一栗)! / 내 유산(遺産)이란 오직 만리(萬里) 물결을 / 날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표박(漂泊)하는 혼(魂)의 조각과 / 고독(孤獨)이 치밀어 날카로운 울음소리뿐. <임학수, 갈매기의 노래, 후조(候鳥), 한성도서주식회사, 1939>

*a 무논밭

마당귀에 쏟아지던 참 그러운 햇볕, / 귀울음도 녹아나서 / 참매미 우는 무논밭으로 사라져 갈 때 / 그 누이는 그냥 귓밥을 파며 / 아이 난 몰라, 아이 난 몰라. <박정만, 옆집 그 누이, 서러운 땅, 문학사상사, 1987>

*a 무당기

싸리꽃 빛깔의 무당기 도지면 / 여

자는 토문강처럼 부풀어 / 그가 와 주기를 기다렸다 / 옥수수꽃 흔들리는 벼랑에 앉아 / 아흔 번째 회신 없는 편지를 쓰고 / 막배 타고 오라고 전보를 치고 / 오래 못 살 거다 천기를 누설하고 / 배 한 척 들어오길 기다렸다 / 그런 어느 날 그가 왔다 / 갈대밭 둔덕에서 / 철없는 철새들이 교미를 즐기고 / 언덕 아래서는 / 잔치를 끝낸 들쥐떼들이 / 일렬 횡대로 귀가할 무렵 / 노을을 타고 강을 건너온 그는 / 따뜻한 어깨와 / 강물 소리로 여자를 적셨다 / 그러나 그는 너무 바쁜 탓으로 / 마음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 미안하다며 / 빼놓은 마음 가지러 간 그는 /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 여자는 백여든아홉 통의 편지를 부치고 / 갈대밭 둔덕에는 가끔가끔 / 들것에 실린 상여가 나갔다 / 여자의 희끗희끗한 머리칼 속에서 / 고드름 부딪는 소리가 났다 / 완벽한 겨울이었다 <고정희, 관계, 이 시대의 아벨, 문학과지성사, 1983>

*a 무랑루즈

유리창 바깥엔 돌아가는 지구의(地球儀). / 옛날의 옛날의 나의 <무랑루즈>. / 그 곁엔 찢어진 동화(童畵) 한 장 팔락이고. / 동화(童畵) 가운데서 넌지시 포신(砲身)이 회전한다. / 내 가슴을 시꺼멓게 겨냥해 온다. / 이따금씩 킬킬거리는 웃음소리도 들리고 살갗엔 또야기도 돋아나고. / 레스링처럼 씩씩하던 도시(都市)에는 이제. / 넘어져 가는 기업(企業)들의 지붕 위를. / 까마귀만 맴을 돌고. <조향, 문명(文明)의 황무지(荒蕪地), 영문(嶺文), 1957. 11>

*a 무량광대하다

슬프게도 가멸(可滅)한 목숨을 내게 보내 / 스스로를 엄연히 형자(刑姿)하듯이 / 다만 흙과 바위로 된 산악이여, 너희가 있으므로 / 이 무량광대한 실재— / 시방 저 영취산(靈鷲山) 연봉(連峰) 위에 커다랗게 날개 펴뜨리고 / 걸터 있는 것 <유치환, 창천(蒼天)에 취(醉)하다, 제 9시집, 한국출판사, 1957>

*a 무량광명

어떠한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 꺼지지 않고 / 아무리 못 미칠 캄캄 절벽의 / 무간지옥이더라도 / 화안히 비쳐 줄 영혼의 언어 조직 / 말 하나하나가 / 무한의 깊이와 무게를 지니면서 / 온전한 조화 속에 / 무량광명을 터뜨리는 언어 / 진리의 언어 / 그것이 시(詩)다 / 빛의 사원(寺院)이다 /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안겨주는 <박희진, 빛과 어둠의 사이, 빛과 어둠 사이, 조광출판사, 1976>

*a 무변대(無邊大)하다

어디서 창랑의 물결 새에서 생겨난 것. / 저 창궁(蒼穹)의 깊은 남벽(藍碧)이 방울져 떨어진 것 / 아아 밝은

칠월달 하늘에 / 높이 뜬 맑은 적은 넋이여 / 오안(傲岸)하게도 / 동물성의 땅의 집념을 떠나서 / 모든 애념(愛念)과 인연의 번쇄함을 떠나서 / 사람이 다스리는 세계를 떠나서 / 그는 저만의 삼가하고도 방첨(放瞻)한 넋을 타고 / 저 무변대(無邊大)한 천공(天空)을 날아 / 거기 정사(靜思)의 닻을 고요히 놓고 / 황홀한 그의 꿈을 / 백일(白日)의 세계 위에 높이 날개 편 / 아아 저 소리개 <유치환, 소리개, 청마시초, 문성사, 1939>

*a 무비(無肥)

현초(玄礁)*가 한란(寒蘭)을 보내 왔다 ― / 작년 오(五)월 제주(濟州) 갔을 때 예약대로 / 청수헌(聽水軒) 준공 날을 맞춰 / 늦 가을 궂은 비 내리는 날 오후에 / 멀리 다녀 온 보광월(普光月) 여사 편으로. / 난가(蘭家) 소당거사(小堂居士) 말씀으론 / 뿌리나 세력(勢力)이 안심 안된다고 / 한야(寒夜)에 들고 가서 뿌리 씻고 / 화성역토(火成礫土)에 이겨 싸서 심어 입원(入院)시켰다. / ―작은 여섯 포기 가운데 / 뿌리 없는 한 포기는 버리고. / 나 나름대로 서툴게 심은 그대로였더라면 / 영락없이 전멸의 변을 당했을 것을 / 한 달 남짓 지난 세한(歲寒)의 밤, / 퇴원 진단을 받은 그를 안고 왔다. / 이제 한란을 벗하여 살게 된 난, 청수헌(聽水軒) 주인(主人), / 거름도 햇볕도 귀치 않는 넌, 매서운 청벽(淸癖)의 풀, / 무비(無肥) 역토(礫土)에 주는 물이 그대로 / 말갛게 스며 내린다. / 춘불출(春不出), 하불일(夏不日), 추불건(秋不乾), 동불습(冬不濕)― / 이런 귀족(貴族)이 또 있으랴 싶지만 / 그의 태(態)에서 그런 티는 볼 수 없다. / 오히려 춘란(春蘭)보다 연약하고 / 잎의 어울림새마저 겸손하다. / 겨울 창변(窓邊)에 놓고 / 몇 날마다 조심 백수(白水)로 적셔 주면 / 그의 천성(天性)에 대한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 기원(祈願) 같은 심정에 나도 젖는다. / 어찌 이 풀잎 속 깊이 / 대영주(大瀛州)의 산정(山精)이 스며 있다 믿으며 / 어찌 이 풀잎새와 더불어 / 감감한 남명(南溟)의 창파를 마주한 속에서 / 풍우(風雨)와 운무(雲霧)를 겨루었다 하랴. / 너처럼 인고(忍苦)와 은서(隱棲)의 보람이 / 푸른 속잎에서 돋는 꽃이 되고 / 벽을 뚫어 풍기는 더없이 복욱(馥郁)한 / 훈향(薰香)으로 승화(昇華)될 수 있을진댄 / 내 오늘의 통고(痛苦)와 오욕(汚辱)인들 차라리 / 그윽한 은총(恩寵)삼아 살리라. <설창수, 한란사(寒蘭詞), 개폐교, 백양당, 1950>

*a 무애행(無碍行)

타오르는 불꽃은 아름답다 / 찰나와 소멸이 이루는 / 열절한 축제(祝祭) / 아, 저 혼자만의 완전한 자유. / 늦 가을, 단풍마저 잿불로 사위는 첩첩 산중에서 / 부서지는 크리스탈 같은 / 시린 계류(溪流), / 그 흐르는 물빛

에는 / 무애행(無碍行)의 기척이 엿보인다 / 저 천진스런 발걸음. / 우리는 바다를 건너뛸 수도 / 일점 바람에 실려 사라져 가지도 못한 채 / 질긴 삶의 고리에 얽매여 있기에 / 타오르듯이, 흐르듯이 / 너에게로 다가가는 건 슬픔 뿐이다. / 만나고 별리(別離)하는 다리도 / 오직 슬픔으로 이루어질 뿐이다. <신중신, 슬픔에게, 낮은 목소리 ,문학세계사, 1989>

*a 무왕불복(無往不復)

신이화(莘荑花) 피었단 말 어제런듯 들었더니 / 어느덧 만산홍록(滿山紅綠) 금수세계(錦繡世界) 되었도다 / 놀랍다 운기(運氣)에는 무왕불복(無往不復). <최남선, 봄맞이, 소년, 1910. 4>

*a 무이징게국

저녁술을 놓은 아이들은 외양간섶 밭마당에 달린 배나무 동산에서 쥐잡이를 하고 숨굴막질을 하고 꼬리잡이를 하고 가마 타고 시집가는 놀음 말 타고 장가가는 놀음을 하고 이렇게 밤이 어둡도록 북적하니 논다 / 밤이 깊어가는 집안엔 엄매는 엄매들끼리 아르간에서들 웃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웃간 한 방을 잡고 조아질하고 쌈방이 굴리고 바리깨돌림하고 호박떼기하고 제비손이구손이하고 이렇게 화디의 사기방등에 심지를 몇 번이나 돋구고 홍게닭이 몇 번이나 울어서 졸음이 오면 아릇목 싸움 자리 싸움을 하며 히드득거리다가 잠이 든다 그래서는 문창에 텅납새의 그림자가 치는 아침 시누이 동세들이 욱적하니 흥성거리는 부엌으론 샛문틈으로 장지문틈으로 무이징게국을 끓이는 맛있는 내음새가 올라오도록 잔다 <백석, 여우난골족(族), 사슴, (자가본), 1936>

*a 무인(無人)하다

무인(無人)한 동물원의 오후 전도된 위치에 / 통곡과도 같은 낙조(落照)가 물들고 있었다. <조지훈, 동물원의 오후, 역사 앞에서, 신구문화사, 1959>

백일(白日)은 중천(中天)에 걸리어 나의 무료에 연(連)하고 / 망망한 조수(潮水)는 헛되이 간만을 거듭하여 지표(地表)를 씻는 곳 / 여기는 나의 적요(寂寥)의 공동(空洞) / 투명히 절연체 된 망각의 변애(邊涯)어니 / 의미 없는 애수는 드디어 묘막(渺漠)하여 돌아오지 않고 / 오로지 무념(無念)한 고독은 한 마리 소해(小蟹)에 멸(滅)하나니 / 나는 호올로 이 무인(無人)한 백사(白沙) 위에 / 걸인처럼 인생을 나태하노라 <유치환, 동해안에서, 청마시초, 문성사, 1939>

표표히 고독한 옷자락을 나부끼며 저 무인(無人)한 바닷가를 거닐어 / 거기에 이름 없이 굴러 있는 한 개 고둥껍질을 줍거들랑 / 다시 한 번 인류(人類)의 가장 소박(素朴)한 지

식(知識)으로 돌아가 너는 의문(疑問)하라. / 진주(眞珠) 바탕에 아련히 무지개빛 감도는 이 아름다운 성곽(城郭)은 / 진실로 뉘가 이것을 만들었는가? / 사람의 솜씨런가? / 또한 인위(人爲)와 천연(天然)은 무엇으로 분별하는가? / 요행 너의 적은 식(識)이 / 이는 자연(自然)의 무위(無爲)한 해학(諧謔)의 소치(所致)가 아니라 / 일찍 광대무변(廣大無邊)한 우주(宇宙)에 생(生)을 받은 한 슬픈 복족류(腹足類)의 / 그의 절대(絶對)한 생명(生命)의 영위(營爲)에서 결과(結果)된 바 건축(建築)임을 깨칠진대 / 그러면 이 묘막(杳漠)한 바닷가에 밤을 낮으로 / 첩첩 파도(波濤)를 아득히 굴러 오는 보라빛 바람이 스쳐 울 적마다 / 듣는 이 없는 절묘(絶妙)한 가락을 은은히 젓대 부는 무수한 이 유적(遺蹟)들이 / 한결같이 한가지 방향(方向)으로 꿈꾸듯 또아리 틀어 앉았음은 / 아아 또한 어느 뉘 뜻이 무슨 뜻으로 이렇게 거느렸음이런가. <유치환, 뉘가 이것을 만들었는가, 청마시집, 문성사, 1954>

*a 무인지대(無人地帶)

불탄 / 나뭇가지마다 찌든 전사자의 / 아직도 검은 외마디 소리들을 발려내기 위하여 / 수액은 푸른 상승을 시작하고 / 155마일의 철조망이 에워싼 무인지대에서도 / 하늘은 푸르고 새들은 노래하고 / 꽃들은 한들거렸다. <전봉건, 강물이 흐르는 너의 곁에서, 전쟁과 음악과 희망과, 자유세계사, 1957>

나무와 / 나뭇가지마다 서리인 전사자(戰死者)의 / 아직도 검은 외마디 소리들을 위하여 / 수액(樹液)은 푸른 상승(上昇)을 시작하고 / 무인지대(無人地帶)의 / 155(百五五) 〈마일〉의 철조망(鐵條網) 속에서도 / 새들의 노래와 꽃송이의 중심(中心)이 / 바라는 하늘과 / 푸름은 변함이 없었다 / 하늘과 푸름은 <전봉건, 강(江)물이 흐르는 너의 곁에서, 한국전후문제시집, 신구문화사, 1963>

*a 무잠뱅이

오지그릇장수였던 고조할아버지 / 짚세기 자욱마다 괴어 있는 / 사람 아래 사람들 목이 진 눈물이 / 떨리며 숨어 삭아 어룽진 거, / 참봉댁 머슴이었던 증조할아버지 / 거덜란 삶의 팍팍한 황톳길 / 낮도 밤 같은 한평생 주름살이 / 무잠뱅이 기운 자국으로 드러나는 거, <정동주, 이삭줍기, 논두렁에 서서, 문학세계사, 1987>

*a 무장무장

부로크 담길 돌아서 돌아서 / 내 고향 팽나무 서 있는 곳에 / 새마을 사업 지나간 다음 / 심심하게 서 있는 말뚝만 남았고 / 장다리꽃 핀 밭두렁 가에서 / 처녀를 빼앗긴 순이가 보따리를 싸는데 / 어이할거나 꾀꼬리 암수놈 / 흥이 나서 미친 대

낮 자지러지는데 / 모두 다 끼리끼리 어울리는데 / 헛간에 조선낫 던드름히 걸어놓고 / 서울로 오입 나간 정든 머슴아 / 어이할거나 오월은 무장무장 짙어가는데 / 장광에 기대어도 문설주에 기대어도 / 서울로 가신 님은 영영 소식 없는데 / 떡갈나무 속잎 피는 영마루에서 / 배고픈 뻐꾸기는 자꾸만 울어쌓는데 / 어이할거나 김(金) 과부 속곳 속 / 미친 심화(心火)의 아지랑이 활활 타고 / 심심하게 심심하게 아름다운 대낮 / 장광에 기댈거나 문설주에 기댈거나 / 꾀꼬리는 자꾸만 신이 나는데 / 환장하게 환장하게 눈부신 대낮 / 뻐꾸기는 자꾸만 미쳐가는데 <문병란, 유행가조(流行歌調) 1, 땅의 연가, 창작과비평사, 1981>

*a 무재조(無才操)

겨울이 지나간 발고랑 사이에 남은 / 고독(孤獨)은 신(神)의 무재조(無才操)와 사기(詐欺)라고 / 하여도 좋았다 <김수영, 초봄의 뜰안에, 달나라의 장난, 춘조사, 1959>

*a 무정방(無定方)

나의 생각엔 곤비한 밤의 단꿈 뒤와 같은 추고(追考)—가상의 영감이 떠돌 뿐이었다. 보담 더 야릇한 것은 그 요정이 나오던 그때부터는—사라진 뒤 오래도록 마음이 미온수에 잠긴 어름 조각처럼 부유가 되며 해이(解弛)가 되나 그래도 무정방(無定方)으로 욕념(慾念)에도 없는 무엇을 찾는 듯하였다. <이상화, 몽환병, 조선문단, 1926. 10>

*a 무한공중

일요일 오후, 아들과 함께 종이학을 접는다 / 밖에는 비가 내리고, 비는 무한공중에서 내려와 / 아파트 옥상에서 / 솨솨솨솨 / 세멘트소리로 부서지고 / 교회 철탑에서는 쇳소리로 내리며 / 일요일 오후를 적시는데 / 아들과 함께 종이학을 접는다. <구석본, 종이학, 한국문학 85년 11월호, 1985>

*a 무한천공(無限天空)

날이 저문다. / 먼 곳에서 빈 뜰이 넘어진다. / 무한천공 바람 겹겹이 / 사람은 혼자 펄럭이고 / 조금씩 파도치는 거리의 집들 / 끝까지 남아있는 햇빛 하나가 / 어딜까 어딜까 도시를 끌고 간다. <강은교, 자전(自轉) 1, 허무집, 칠십년대 동인회, 1971>

저 얼어붙은 / 무한천공(無限天空) 위에서 / 곤두박혀 떨어져 내리는 / 쌩쌩한 눈보라 <민영, 동천(凍天)&2&, 엉겅퀴꽃, 창작사, 1987>

*a 무협지

남산옥에서 제일 얌전한 화자(花子), 화자(花子)의 애인은 청바지 청년. 대낮부터 청마루에 앉아 애인의 손금을 보고 있는 청바지. 무슨 상관이랴 그들에게 청바지를 입을 수 있는

자유와 벗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한. 어제는 무협지 대본(貸本)집에 갔다, 그제는 시장(市場). 사어(死語) 더미, 사어(死語)의 책을 내 코 앞에 갖다대며 대본(貸本)집 아저씨는 웃었다. 남산옥 화자(花子)가 청바지 코앞에 코 갖다대듯 그렇게. 행복하게 그렇게, 허무하게 그렇게. <오규원, 불균형, 그 엉뚱한 아름다움, 가끔은 주목받는 생이고 싶다, 문학과 지성사, 1987>

*a 무희언(無戲言)

왕자(王者)는 무희언(無戲言)이라 하였거늘 / 그래서 왕자지언(王者之言)은 명야(命也)라 하였거늘. / 이 밤 제가 꾸리는 봇짐은 / 떠나기 위한 봇짐이 아니예요 / 아무도 몰래 궁성을 빠져나가는 / 이 밤은 정녕 떠나기 위한 밤이 아니예요. <윤석산2, 온달전(溫達傳) -1-, 온달의 꿈, 정음사, 1986>

*a 묵계(默契)되다

금강! 이제 내게는 너를 읊조릴 말씨가 적어졌고 너를 기려 줄 가락이 거칠어져 다만 내 가슴 속에 있는 눈으로 내 마음의 발자욱 소리를 내 귀가 헤아려 듣지 못할 것처럼—나는 고요로운 이 황홀 속에서—할아버지의 무릎 위에 앉은 손자와 같이 예절과 자중을 못 차릴 네 웃음의 황홀 속에서—나의 생명, 너의 생명, 조선의 생명이 서로 묵계(默契)되었음을 보았노라. 노래를 부르며 가벼우나마 이로써 사례를 아뢰노나. 아, 자연의 성전이여! 조선의 영대(靈臺)여! <이상화, 금강송가(金剛頌歌), 여명, 1925. 9>

*a 묵란(墨蘭)

한 폭의 묵란(墨蘭)을 심어 보고 싶네. / 한 천년(千年)쯤 질게 먹을 갈아 / 황모(黃毛) 큰 붓을 창(槍)으로 곧게 세워 / 한산(韓山) 가는 모시 그대 치마폭에 / 한란(寒蘭) 아홉 꽃잎 새기고 고쳐 새겨 / 천년(千年) 묵은 향(香), 청산(靑山) 님의 뜻을 / 오월(五月) 단오(端午) 푸른 그네 바람결에 / 백설(白雪) 꽃잎으로 은하(銀河)토록 밀고 밀어 / 한(恨)많은 풍진세상(風塵世上) 태워 보고 싶네 <임보, 율(律) 1, 목마일기, 동천사, 1987>

*a 묵로(墨鷺)

홀로 꿈 여윈 그림자 / 너 묵로(墨鷺)가 졸립고나. <정완영, 묵로도(墨鷺圖), 묵로도, 1972>

*a 묵묵무답(默默無答)

서러운 우리들은 밤낮없이 / 묵묵무답(默默無答)인 채 아무데나 놓이고 / 밤낮없이 저러는 풍경은 / 일몰(日沒)이 와도 걷히지 않고 / 일출(日出)이 와도 걷히지 않는가. <조태일, 옹기점 풍경(甕器店 風景), 국토, 창작과비평사, 1975>

*a 묵수(默守)하다

시간(時間) 좇아 약속(約束)할 수 없는 오―나의 파종(破鐘)아 / 울적(鬱寂)의 야공(夜空)을 이대로 묵수(默守)할 것가! <오일도, 노변애가(爐邊哀歌), 시원(詩苑), 1935. 2>

*a 문의(紋儀)

거미줄로 짠 회색(灰色) 옷을 입은 젊은 사나이. / 흰 배암 문의(紋儀)로 몸을 꾸민 어여쁜 새악씨. <이장희, 무대(舞臺), 금성, 1924. 5>

*a 물구지우림

토끼도 살이 오른다는 때 아르대즘퍼리에서 제비꼬리 마타리 쇠조지 가지취 고비 고사리 두릅순 회순 산(山)나물을 하는 가즈랑집 할머니를 따르며 / 나는 벌써 달디단 물구지우림 둥굴레우림을 생각하고 / 아직 멀은 도토리묵 도토리범벅까지도 그리워한다 <백석, 가즈랑집, 사슴, (자가본), 1936>

*a 물팩치기

마을에서는 세 벌 김을 다 매고 들에서 / 개장취념을 서너 번 하고 나면 / 백중 좋은 날이 슬그머니 오는데 / 백중날에는 새악시들이 / 생모시치마 천진푀치마의 물팩치기 껑추렁한 치마에 / 쇠주푀적삼 항라적삼의 자지고름이 기드렁한 적삼에 / 한끝나게 상나들이옷을 있는 대로 다 내 입고 / 머리는 다리를 서너 커레씩 들어서 / 시뻘건 꼬둘채댕기를 삐뚜룩하니 해 꽂고 / 네날백이 따배기신을 맨발에 바꿔 신고 / 고개를 몇이라도 넘어서 약물터로 가는데 / 무썩무썩 더운 날에도 벌 길에는 / 건들건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 허리에 찬 남갑사 주머니에는 오랜만에 돈푼이 들어 즈벅이고 / 광지보에서 나온 은장도에 바늘집에 원앙에 바둑에 / 번들번들하는 노리개는 스르럭스르럭 소리가 나고 / 고개를 몇이라도 넘어서 약물터로 오면 / 약물터엔 사람들이 백재일 치듯 하였는데 / 붕가집에서 온 사람들도 만나 반가워하고 / 깨죽이며 문주며 섶가락 앞에 송구떡을 사서 권하거니 먹거니 하고 / 그러다는 백중 물을 내는 소내기를 함뿍 맞고 / 호주를하니 젖어서 달아나는데 / 이번에는 꿈에도 못 잊는 붕가집에 가는 것이다 / 붕가집을 가면서도 칠월(七月) 그믐 초가을을 할 때까지 / 평안하니 집살이를 할 것을 생각하고 / 애끼는 옷을 다 적시어도 비는 시원만 하다고 생각한다 <백석, 칠월(七月) 백중, 문장, 1948. 10>

*a 믜다

찬 달 그림자 밟고 / 발길 가벼이 옛 성터 우헤 / 나와 그림자 짝지어 서면 / 괼 이도 믤 이도 없은 몸하! / 누리는 저승보다도 다시 멀고 / 시름은 꿈처럼 덧없어라 <윤곤강, 찬

달밤에, 피리, 정음사, 1948>

*a 미래주의자

나는 미래주의자. / 아무리 생각해도 인류에게 필요한 혁명은 / 하나뿐이다. 공장 굴뚝에서는 산소가 나오고 / 우울한 사람들에게는 단백질이 무료로 제공되는 / 세상. 혁명의 색깔은 녹색이다. 녹색혁명은 / 감자만한 쌀, 수박만한 포도를 열리게 한다. / 혁명은 모든 신(神)들을 부하로 삼아 찢어진 / 대지를 초록 실로 기우게 한다. 날마다 / 놀고 마시고, 연애만 하는 내일의 고향. / 미래주의자들의 고향은 대체로 푸르다. <이세룡, 나의 고향은 푸르러라, 채플린의 마을, 고려원, 1988>

*a 미목청수하다

고운 연(輦)의 거동이 있음직한 맑고 트인 날 해 기우는 제 / 승의 보람은 이루었느냐 가엾어라 미목청수한 젊은 선비 / 앞 시냇물 모이는 새파란 소에 몸을 던지시니라 <김영랑, 불지암(佛地庵), 영랑시집, 시문학사, 1935>

*a 미소공위(美蘇共委)

아아 이 사람을 보라 / 죄없이 십자가에 오른 나를 보라. / 이는 동방의 아들 평화의 왕 / 눈물과 양심 속에 촛불을 켜고 / 나를 부르라 다시 오리니 / 하늘이여 열리라 이 사람을 보라. / ——미소공위(美蘇共委)에 <조지훈, 십자가(十字架)의 노래, 역사 앞에서, 신구문화사, 1959>

*a 미점(味點)

그러나 시간(時間)이 되면 벨과 식도(食道)는 동시(同時)에 울린다. 전류(電流)가 혓바닥의 미점(味點)들을 밟으며 간다, 쿵 쿵 그 위에 넘어지며 간다, 밟힌 풀잎들은 다시 일어나며 넘어진 푓말들은 다시 곤두서며, 그렇다, 평탄한 길을 달려가는 시선(視線)은 완곡(婉曲)하다, 감정(感情)은 어디서나 한푼쯤 기운다, 코스모스…… <박의상, 전후(戰後) 5, 금주에 온 비, 성문각, 1967>

*a 미취색(微翠色)

도랑물 / 가교사 유리창 / 목이 없는 갈꽃 들풀 / 바람이 유린하고 / 야생초 돌멩이에 다친다. / 미취색(微翠色) 하늘은 미루나무 / 달리는 아이 발을 흔든다. / 사청(乍晴)의 그림자 / 기적소리 / 강물에 잠겨 어른거린다. <도광의, 분교(分校), 갑골길, 호름사, 1982>

*a 민반(民叛)

어질디 어진 허첨지(許僉知)도 민반(民叛)으로 몰려 / 이웃 고을로 쫓기어 가고, <조영암, 북한소묘(北韓素描), 시산(屍山)을 넘고 혈해(血海)를 건너, 정음사, 1951>

*a 민생치안

데모진압엔 백점인 순검, / 민생치안엔 빵떡이로다. <김시종, 보쌈가(歌), 얼굴 없는 여인, 시문학사, 1990>

*a 민통선(民統線)

ㅈ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 / 아침에 서울 떠났다가 저녁때 돌아와 밥 먹으며 / 전방 얘기할 수 있는 곳에 ㅈ산은 있다. / 위문편지 위문품 싣고 학생들과 교사들이 전방 위문 가는 / 일은 어려운 일도 아니다. 자매부대 가서 함께 / 기념사진 찍고 점심 먹고 다시 버스로 / 민통선 『민통선(民統線)』 지나면 땅굴 수색 공사 표지들 바람결에 / 웅웅거리는 북쪽 확성기 소리들 북쪽산 허리의 / 도로들…… 망원경으로 북쪽 건물 북쪽 초소 근무 사병들을 / 보고 우리가 오는 일은 힘드는 일도 물론 아니다…… <장영수, 전방에 대하여, 나비 같은, 아니 아니, 빛 같은, 문학과지성사, 1987>

꼭 10년 만에 옛날 근무하던 임진강(臨津江)을 가 보았다. 연대 앞 위병소에서 내려 버스가남긴 황토 먼지가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10년 간의 외출을 마치고 막 귀대한 육군 병장 황병장이었다. 10년, 10년 간의 외출, 애인을 만나고 그 애인과 한 10년 늘어지게 살다가, 어유지리 마을로 들어가는 다리, 포플라나무, 감리교 웨슬레이씨가 들어와서 지은 돌벽 교회, 산드기씀밧골로 가는 작전도로, 나는 문서 수발을 끝내고 돌아가는 그 전령의 외로운 길을 걸어갔다.능선에 옥수수밭이 쓰러지도록 무성하고, 강 건너 너도밤나무 숲이 있는민통선(民統線)까지. 불귀(不歸), 불귀(不歸)의 강, 임진강. <황지우, 전령의 외로운 길, 나는 너다, 문학과지성사, 1987>

*a 밀꽃

말 없은 불길은 하늘을 태우며, / 향기로운 밀꽃은 땅을 채웠다. / 뜨거운 흙을 벗은 발로 밟으면서 / 드을의 감각 속에 나는 안긴다. / 논물이 햇빛을 비추어 번득이면, / 나려오는 그 빛과 뜨거움은 몸을 곤하게 한다. / 때때로 느리게 부르는 노래도 귀에 즐거우며, / 사람들은 서늘한 그늘을 찾아 무거운 발을 옮긴다. <주요한, 해의 시절, 아름다운 새벽, 조선문단사, 1924>

*a 밀반출되다

사람보다 이름이 / 이름보다 자리가 / 땅위에 집을 세우는 시대 / 자리보다 줄이 / 줄보다 돈줄이 / 하늘에다 별을 다는 시대 / 구름보다 비가 / 비보다 눈이 / 땅 위의 죄를 덮는 시대 / 별보다 달이 / 달보다 어둠이 / 하늘의 별을 덮는 시대 / 시대가 자리를 높이고 / 시대가 이름을 날리고 / 시대가 사람을 죽이는 / 시대에 / 죄가 하늘을 찌르는 빌딩을 세우고 / 벌이 지하창고에서 포장되어 / 야밤에 밀반출되는 시대가 / 나를

울린다. <김여정, 강설기(降雪期) 2, 날으는 잠, 영언문화사, 1986>

*a 밀향(密香)

처음 내 가슴의 꽃밭은 / 열 여덟 살 시골처녀(處女) / 그 환한 무명(無名)의 빛 / 살 비비는 비둘기떼 / 미지(未知)의 아득한 꿈 / 흔들리는 순수의 밀향(密香) / 뿌연 새벽의 불빛 / 즐거운 아침의 연가(戀歌) / 혼자서 피아프게 뒤채이던 늪 / 아침까지 출렁이며 울부짖는 / 꽃의 바람, 드디어의 개문(開門) <홍해리, 화사기(花史記), 화사기, 시문학사, 1975>

*a 바구지꽃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 이 흰 바람벽에 / 희미한 십오촉(十五燭)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 / 때글은 다 낡은 무명 샤쯔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 그리고 또 달디 단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 이 흰 바람벽에 /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 찬 물에 손은 담그고 무며 배추를 씻고 있다 /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즈막한 집에서 / 그의 지아비와 마주앉아 대구국을 끓여 놓고 저녁을 먹는다 /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 그런데 또 이즈막하야 어느 사이엔가 / 이 흰 바람벽엔 /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력하는 듯이 /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 그리고 또 '프랑시쓰 쨈'과 도연명(陶淵明)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 문장, 1941. 4>

*a 바람벽하다

애비는 종이었다.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 / 파뿌리같이 늙은 할머니와 대추꽃이 한 주 서 있을 뿐이었다. / 어매는 달을 두고 풋살구가 꼭 하나만 먹고 싶다 하였으나……흙으로 바람벽한 호롱불 밑에 / 손톱이 까만 에미의 아들. / 갑오년(甲午年)이

라든가 바다에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할아버지의 술 많은 머리털과 / 그 커다란 눈이 나는 닮았다 한다. <서정주, 자화상(自畵像)&9&, 화사집, 남만서고, 1941>

*a 바람코지

누가 또 자기 아낙 손목을 잡고 / 서러운 생가지를 타악 탁 찢어가며 / 산넘어 바람코지로 시집 보내나봐요. <윤석산, 너도밤나무 꽃이 필 때면, 말의 오두막집, 문단, 1992>

*a 바리깨돌림하다

저녁술을 놓은 아이들은 외양간섶 밭마당에 달린 배나무 동산에서 쥐잡이를 하고 숨굴막질을 하고 꼬리잡이를 하고 가마 타고 시집가는 놀음 말 타고 장가가는 놀음을 하고 이렇게 밤이 어둡도록 북적하니 논다 / 밤이 깊어가는 집안엔 엄매는 엄매들끼리 아르간에서들 웃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웃간 한 방을 잡고 조아질하고 쌈방이 굴리고 바리깨돌림하고 호박떼기하고 제비손이구손이하고 이렇게 화디의 사기방등에 심지를 몇 번이나 돋구고 홍게닭이 몇 번이나 울어서 졸음이 오면 아릇목 싸움 자리 싸움을 하며 히드득거리다가 잠이 든다 그래서는 문창에 텅납새의 그림자가 치는 아침 시누이 동세들이 욱적하니 홍성거리는 부엌으론 샛문틈으로 장지문틈으로 무이징게국을 끓이는 맛있는 내음새가 올라오도록 잔다 <백석, 여우난골족(族), 사슴, (자가본), 1936>

*a 바리케이트

언덕도 상점도 폭설에 막히고 / 거리마다 바리케이트 쳐져 / 사람들이 / 어이어이어이 울부짖고 / 갈색 옷을 입은 사내 몇, 들리지 않는 소리로 / 진정하라고 말하고 또 다른 소리로 / 진정하라고 말하고 그 소리들이 모여 / 겨울나무를 넘어뜨린다 <최하림, 겨울 정치(精緻), 작은 마을에서, 문학과지성사, 1982>

*a 박다태생(搏多胎生)

화구를 메고 산을 첩첩 들어간 후 이내 종적이 묘연하다 단풍이 이울고 봉마다 찡그리고 눈이 날고 영(嶺) 위에 매점은 덧문 속문이 닫히고 삼동(三冬)내—열리지 않았다 해를 넘어 봄이 짙도록 눈이 처마와 키가 같았다 대폭(大幅) 캔바스 위에는 목화송이 같은 한 떨기 지난해 흰 구름이 새로 미끄러지고 폭포소리 차츰 불고 푸른 하늘 되돌아서 오건만 구두와 안신이 나란히 놓인 채 연애가 비린내를 풍기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집집 들창마다 석간(夕刊)에 비린내가 끼치었다 박다태생(搏多胎生) 수수한 과부 흰 얼굴이사 희양 고성 사람들끼리에도 익었건만 매점 바깥주인 된 화가는 이름조차 없고 송화가루 노랗고 뻑 뻑국 고비 고사리 고부라지고 호랑나비 쌍을 지어 훨훨 청산을 넘고. <정지용, 호

랑나비&2&, 백록담, 문장사, 1941>

*a 반계(半溪)

가을 들 마르는 풀 바람에 흔드는데 / 반계(半溪) 단풍(丹楓)은 석양에 타는구야 / 천리객(千里客) 이내 상혼(傷魂)을 뉘게 말씀하리오 <이은상, 가윗날에, 노산시조집(鷺山時調集), 한성도서주식회사, 1932>

*a 반구대

여말 포은 선생이 귀양와서 / 한 많은 붓끝을 씻었다는 반구대 강가에 / 학이 한 마리 / 깎아지른 절벽에 앉아 있다 / 긴 목을 등에 묻고 / 오른쪽 무릎을 접어올린 학의 모습은 / 누가 보아도 기다림의 구도다 <강현국, 탁본, 절망의 이삭, 문학세계사, 1992>

*a 반금반옥(半金半玉)

반금반옥(半金半玉)의 고운 달이 / 수정(水晶)빛 맑은 하늘에서 / 소리 없이 웃는구나 / 오늘밤도……. <노자영, 월하(月下)의 몽(夢), 처녀의 화환, 장문서당, 1929>

*a 반디젓

얼굴에 별자국이 솜솜 난 말수와 같이 눈도 껌벅거리는 하루에 베 한 필을 짠다는 벌 하나 건넛집엔 복숭아 나무가 많은 신리(新里) 고무 고무의 딸 이녀(李女) 작은 이녀(李女) / 열여섯에 사십(四十)이 넘은 홀아비의 후처가 된 포족족하니 성이 잘 나는 살빛이 매감탕 같은 입술과 젖꼭지는 더 까만 예수쟁이 마을 가까이 사는 토산(土山) 고무 고무의 딸 승녀(承女) 아들 승(承)동이 / 육십리(六十里)라고 해서 파랗게 뵈이는 산(山)을 넘어 있다는 해변에서 과부가 된 코끝이 빨간 언제나 흰옷이 정하던 말끝에 설게 눈물을 짤 때가 많은 큰골 고무 고무의 딸 홍녀(洪女) 아들 홍(洪)동이 작은 홍(洪)동이 / 배나무 접을 잘하는 주정을 하면 토방돌을 뽑는 오리치를 잘 놓는 먼섬에 반디젓 담그러 가기를 좋아하는 삼춘 삼춘엄매 사춘누이 사춘 동생들 <백석, 여우난골족(族), 사슴, (자가본), 1936>

*a 반수차(頒水車)

하룻날이 반수차(頒水車)를 밀고 머—ㄴ 구비로 사러진 뒤 / 숙숙(肅肅)히 띠끌처럼 젖어드는 어설픔이여 <이찬, 나도 웃고 싶단다 웃고 싶단다, 망양(茫洋), 박문서관, 1940>

*a 반야월(半夜月)

밖에는 푸른 하늘 용(龍)트림 우에 이슬이 나리고 / 둥글다 기울어진 반야월(半夜月) 아래 설움은 꽃이어라 <조지훈, 고조(古調), 조지훈시선, 정음사, 1956>

*a 발원되다

십대에서 발원된 / 강물. / 세상 시름 속에서도 / 유유히 흐르거니 / 물속에 잠긴 / 네 눈빛 / 하늘에도 / 나뭇잎에도 / 아카시아 꽃잎 위에도 / 묻어 있거늘 / 이따금 지나는 구름에 가려 / 보이질 않더니 / 불혹의 나이 사이로 / 강물은 아직도 흐르고 / 해맑은 새소리 / 햇빛에 반짝이는 강물 위에 / 꽃잎 지듯 떨어지고 / 하늘이 떠가고 / 그리고 / 네 눈빛 묻은 / 별이 흐른다. <김소엽, 별 3, 그대는 별로 뜨고, 문학세계사, 1987>

*a 방기되다

엉겅퀴와 개쑥갓 사이에 숨고 싶은 물과 / 엉겅퀴와 개쑥갓 사이에 숨겨지는 / 다 타지 못한 이제는 시대의 / 낡은 사랑 같은 연탄의 불기와 / 버려져 뒹구는 구두 속에 함께 흙에 묻히는 / 하늘의 밑창과 / 썩지 못한 콘돔처럼 방기된 새와 / 방기된 새처럼 날고 있는 물냄새의 <오규원, 길 밖의 물, 사랑의 감옥, 문학과지성사, 1991>

*a 방목(放牧)되다

바다에는 번지가 없다 / 통반이 없다 / 바다에는 프로야구가 없다 / 심심하다 / 출렁거린다 / 바다에는 약속이 없다 / 바다에는 시간이 없다 / 바다는 주민등록증이 없다 / 바다에는 부속품이 없다 / 바다에는 복제품이 없다 / 바다는 바다 / 출렁이고 있다 / 연산홍 꽃잎으로 흩어지는 바다 / 접시꽃으로 갈라지는 바다 / 모래와 살을 섞고 부서지는 바다 / 깻잎의 진초록으로 일어서는 바다 / 오늘밤 / 아내와 살을 섞고 일어서는 바다 / 바다는 자궁 / 바다는 남근 / 바다는 정충이 없다 / 바다는 홀로 탄생하고 있다 / 바다는 다시 탄생하고 있다 / 바다는 방목(放牧)된 / 나의 고향 / 네 발 짐승으로 앉은 바다 / 옛날로 옛날로 돌아가고 있다 / 다시 오이빛으로 탄생하고 있다 / 아욱빛으로 출렁이고 있다. <박해수, 바다&8&, 서 있는 바다, 심상사, 1986>

*a 방부처리되다

도괴된 복도 속에 통조림 깡통이 하나 파묻혀 있다, 돌더미를 헤치고 통조림 깡통을 들여다보면 인스턴트 평화라고 뚜껑에 대문자로 적히어 있다, 통조림 깡통 속에 장조림된 나, 통조림 깡통 속에 장조림된 너, 평화는 불사신과 같이 방부처리되어 있어서 당신이 통조림 깡통을 땄을 때는 화두처럼 목 없는 닭 한 마리 평화롭게 온 세상 그지없이 평화롭게 누워 있었으니 <김승희, 나는 밤마다 거울 속에 물을 준다, 미완성을 위한 연가, 나남, 1987>

*a 방심무한(放心無限)

산은 조용히 비에 젖고 있다. / 밑도 끝도 없이 내리는 가을비 / 가을비 속에 진좌(鎭座)한 무게를 / 그 누구도 가늠하지 못한다. / 표정은 뿌연

시야에 가리우고 / 다만 윤곽만을 드러낸 산 / 천 년 또는 그 이상의 세월이 / 오후 한때 가을비에 젖는다. / 이 심연 같은 적막에 싸여 / 조는 둥 마는 둥 / 아마도 반쯤 눈을 감고 / 방심무한(放心無限) 비에 젖는 산 / 그 옛날의 격노의 기억은 간데없다. / 깎아지른 절벽도 앙상한 바위도 / 오직 한 가닥 / 완만한 곡선에 눌려버린 채 / 어쩌면 눈물 어린 눈으로 보듯 / 가을비 속에 어룽진 윤곽 / 아아 그러나 지울 수 없다. <이형기, 산&5&, 적막강산, 모음출판사, 1963>

*a 방유성(放遊性)

그리고 아시아의 아들들의 자기를 팔아 술과 미(美)와 한숨을 사는 / 호탕(浩蕩)한 방유성(放遊性)도 감당키 어려운 이 밤 때문이라 하리라 / 밤에 취하고 밤을 사랑하고 밤을 즐기고 밤을 탄미(嘆美)하고 밤을 숭배(崇拜)하고 / 밤에 나서 밤에 살고 밤 속에 죽는 것이 아시아의 운명(運命)인가 <오상순, 아시아의 마지막 밤 풍경(風景), 공초오상순시선(空超吳相淳詩選), 자유문화사, 1963>

*a 방창(芳暢)하다

이화(李花), 도화(桃花) 방창(芳暢)한데 / 지저귀는 저 새들과 / 옥류(玉流)에서 노니는 고기떼들의 / 생래(生來)의 즐거움으로 계십니까. <구상, 무소부재(無所不在), 구상문학선, 1975>

*a 방첨(放瞻)하다

어디서 창랑의 물결 새에서 생겨난 것. / 저 창궁(蒼穹)의 깊은 남벽(藍碧)이 방울져 떨어진 것 / 아아 밝은 칠월달 하늘에 / 높이 뜬 맑은 적은 넋이여 / 오안(傲岸)하게도 / 동물성의 땅의 집념을 떠나서 / 모든 애념(愛念)과 인연의 번쇄함을 떠나서 / 사람이 다스리는 세계를 떠나서 / 그는 저만의 삼가하고도 방첨(放瞻)한 넋을 타고 / 저 무변대(無邊大)한 천공(天空)을 날아 / 거기 정사(靜思)의 닻을 고요히 놓고 / 황홀한 그의 꿈을 / 백일(白日)의 세계 위에 높이 날개 편 / 아아 저 소리개 <유치환, 소리개, 청마시초, 문성사, 1939>

*a 방풍지대(防風地帶)

어느날보다도 일찍 미자르 별이 뜨고 나는 일을 마쳤다. / 내 말이 방풍지대(防風地帶) 너머로 달려 가서 / 해산(解散)하는 메밀밭을 버려 놓았기 때문에 / 나는 말을 끌고 사과하러 가야 한다. / 그러나, 한두 번 잘못하는 일은 아름다움일까. / 내가 가는 것은 뜻밖의 슬픔을 만나러 가는 것이다. <고은, 저녁 숲길에서, 신. 언어 최후의 마을, 민음사, 1967>

*a 방한림

잊기 위하여 얼마나 신열 앓았는지 모릅니다 / 끝과 처음을 모르는 물길로 시작된 연(緣)의 티끌을 어쩌지 못하고 / 갖가지 나무와 후조가 깃을 튼 방한림을 맴돕니다 / 완전한 망각은 있을 수 없는지 / 마음은 저문 숲 속에 웅크린 짐승이 되어 / 늦가을 강흐름 저 쪽을 바랜 낮별로 푸설푸설 나립니다 / 몇 가지 풀잎들이 갈대와 한 가지 / 새벽녘 들길로 난 미닫이창(窓) 틈틈이 / 그을린 눈물의 성에로 빛납니다 <김강태, 명기(鳴器), 혼자 흔들리는 그네, 도서출판 모모, 1986>

*a 방향(芳香)하다

이제 다감한 여인(女人)의 살내음 같은 / 이 방향(芳香)한 주훈(酒薰)에 / 흥그러이 잠기는 시간 / 일몰(日沒)이 우리의 머리 위에 / 종일(終日)의 피곤을 씻어 주는 해풍(海風)처럼 / 싱그러우니 <홍윤숙, 포도주(葡萄酒) 익어, 풍차, 신흥출판사, 1964>

몸을 키우고 가지를 뻗어요. 새순이 돋아요. 땅이 방향(芳香)하고 햇빛은 더욱 흥분해요. 새들은 내 팔에 깃을 쳐요. 새 손은 동전만큼씩, 아이의 손바닥만큼씩 커가요. 새로움이 파릇이 물들어요. 조금씩, 더욱더욱 커져서 하늘을 쭈볏, 볼 수 있어요. 손들을 마구 내저어 하르르하르르 하늘을 바라요. 세상은 온통 박하 내음, 지저귀는 새들의 노래 소리와 더욱 다스운 햇빛과 더욱 부드러워지는 바람소리들 뿐, 가장 새로운 색깔로 옷을 입고 하늘만 쳐다보며 기뻐하고 있어요. 만가지 꽃들도 색색깔을 내며 세계는 새로이 열리는 사랑의 축전, 그러나 나는 땅에 붙박혀서, 하늘만 우러러요. 넓은 공간으로 하늘이란 만질 수 없을 뿐이어요. <김규화, 새 동동(動動) 노래, 노래내기, 혜진서관, 1985>

*a 배앓이하다

내가 찾아간 바다는 / 배앓이하듯 뒤척이고 있었다. / 이 바다에 이르는 길이 / 왜 하나라고 믿고 있었을까 / 지구의 표면 어디쯤 / 낡아 부스러지도록 / 붙들고 늘어진 그대 옷자락이 / 뒤틀리는 바다 허리에 감기고 / 오직 길은 하나 / 지나온 땅에 놀던 사금파리 끝에 / 묻어 있던 피 / 해당화 한송이로 따라와 / 바다 가까이 피어 있었다 <신달자, 해당화&2&, 다만 하나의 빛깔로, 문학사상사, 1987>

*a 배율(背律)

붉은 연지 꽃처럼 진하게 칠하며 / 웃어도 보는 / 뉘라서 알까만 배율(背律)의 수심(羞心) <홍윤숙, 풍차(風車), 풍차, 신흥출판사, 1964>

*a 배주(背柱)

높아가는 고압전선(高壓電線)의 울음소리는 안개 어린 밤의 묘지(墓地)의 인광(燐光)처럼 배주(背柱)에 스며들고, / 굶주려 넘어지는 생명(生命)들

과 수없는 임종(臨終)의 눈 나리는 새벽. / 향락(享樂)의 극치(極致)와 극치(極致)의 마찰(摩擦)에서 일어나는 뿌연 암모니아의 빛깔. / 폐문(肺門)이 부은 바다와 하늘과 해쓱해진 산천(山川)과 태양(太陽). 그리고 다가오는 25시(時). / 광선(光線)! '모든 운명(運命)의 전말(顚末)을 똑똑히 보라' / 기관장(機關長)의 비명(悲鳴)과 그에 따르는 기관사(機關士)들의 아우성. <김규동, BOILER 사건(事件)의 진상(眞狀), 나비와 광장, 산호장, 1955>

*a 백경(百驚)

못 믿으리…… / 융동(隆冬) 벗꽃이 달밤보다 밝다니. / 귀가 얼어 오던 길이 한 발은 눈보라요 한 발은 꽃그늘. / 낭기마다 물 먹어 부풀고. 새소리 은(銀)방울을 찼다. 눈 구덕에 밀감(蜜柑)이 익고 동백꽃 내내 참나무 숯불일세. / 마소를 굴레 없이 자랑 자랑 밖으로 몰면 짐승도 수말스러 애먹지 않도다. / 여기 오면 주름이 펴진다. 흰 머리도 검어지고. / 아득한 그리움 귓전에 설레나, 나는 어쩌지 못한다. / 이제 돌아간들 쓸쓸히 갔노라는 옛사람. / 생소한 강산에, 어릿 어릿 내가 백경(百驚)보다 희려니…… / 버릇없이 조백(早白)한 아이놈도 흰 바돌을 사양치 않으렸다. / 어지고, 착한 청춘이 이곳 풍토(風土)래야 할 말이면 비린 것 날로 먹고 내 여기 살래. <이동주, 서귀포(西歸浦)&2&, 전후문제시집, 신구문화사, 1963>

*a 백구둔(白狗屯)

백구둔(白狗屯)의 눈 녹이는 밭 가운데 땅 풀리는 밭 가운데 / 촌부자 노왕(老王)하고 같이 서서 / 밭최뚝에 즘부러진 땅버들의 버들개지 피어나는 데서 / 볕은 장글장글 따사롭고 바람은 솔솔 보드라운데 / 나는 땅임자 노왕(老王)한테 석상디기 밭을 얻는다 <백석, 귀농(歸農), 조광, 1941. 4>

*a 백년처권(百年妻眷)

날 저물고 돋는 달에 / 흰 물은 솰솰…… / 금모래 반짝…… / 청노새 몰고 가는 낭군! / 여기는 강촌 / 강촌에 내 몸은 홀로 사네. / 말하자면, 나도 나도 / 늦은 봄 오늘이 다 진(盡)토록 / 백년처권(百年妻眷)을 울고 가네. / 길세 저문 나는 선비, / 당신은 강촌에 홀로 된 몸. <김소월, 강촌(江村), 진달래꽃, 매문사, 1924>

*a 백령조(百鈴鳥)

노왕(老王)은 집에 말과 나귀며 오리에 닭도 우글거리고 / 고방엔 그득히 감자에 콩곡석도 들여쌓이고 / 노왕(老王)은 채매도 힘이 들고 하루종일 백령조(百鈴鳥) 소리나 들으려고 / 밭을 오늘 나한테 주는 것이고 / 나는 이제 귀치 않은 측량도 문서도 싫증이 나고 / 낮에는 마음놓고 낮잠도 한잠 자고 싶어서 / 아전 노

릇을 그만두고 밭을 노왕(老王)한테 얻는 것이다 <백석, 귀농(歸農), 조광, 1941. 4>

*a 백재일

마을에서는 세 벌 김을 다 매고 들에서 / 개장취념을 서너 번 하고 나면 / 백중 좋은 날이 슬그머니 오는데 / 백중날에는 새악시들이 / 생모시치마 천진푀치마의 물팩치기 껑추렁한 치마에 / 쇠주푀적삼 항라적삼의 자지고름이 기드렁한 적삼에 / 한끝나게 상나들이옷을 있는 대로 다 내 입고 / 머리는 다리를 서너 켜레씩 들어서 / 시뻘건 꼬둘채댕기를 삐뚜룩하니 해 꽂고 / 네날백이 따배기신을 맨발에 바꿔 신고 / 고개를 몇이라도 넘어서 약물터로 가는데 / 무썩무썩 더운 날에도 벌 길에는 / 건들건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 허리에 찬 남갑사 주머니에는 오랜만에 돈푼이 들어 즈벅이고 / 광지보에서 나온 은장도에 바늘집에 원앙에 바둑에 / 번들번들하는 노리개는 스르럭스르럭 소리가 나고 / 고개를 몇이라도 넘어서 약물터로 오면 / 약물터엔 사람들이 백재일 치듯 하였는데 / 붕가집에서 온 사람들도 만나 반가워하고 / 깨죽이며 문주며 섶가락 앞에 송구떡을 사서 권하거니 먹거니 하고 / 그러다는 백중 물을 내는 소내기를 함뿍 맞고 / 호주를하니 젖어서 달아나는데 / 이번에는 꿈에도 못 잊는 붕가집에 가는 것이다 / 붕가집을 가면서도 칠월(七月) 그믐 초가을을 할 때까지 / 평안하니 집살이를 할 것을 생각하고 / 애끼는 옷을 다 적시어도 비는 시원만 하다고 생각한다 <백석, 칠월(七月) 백중, 문장, 1948. 10>

*a 백척단애(百尺斷崖)

아득한 절망(絶望)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 백척단애(百尺斷崖)에 떨어질 때처럼 <권환, 환희(歡喜), 동결, 건설출판사, 1946>

*a 백포페립(白布弊笠)

사철의 바람과 낙조(落照)에 묻어 온 / 갈피없는 소망과 미운 마음들 / 단풍처럼 물들인 죄(罪)많은 꿈도 / 이제금 백포페립(白布弊笠)에 손 모으는 / 수도승(修道僧)의 마음으로 참회합니다 <홍윤숙, 가을의 기도(祈禱)&3&, 풍차, 신흥출판사, 1964>

*a 백화림(白樺林)

상복(喪服) 입은 백화림(白樺林) 사이사이로 / 넌즛, 내어다보이는 / 꽃이파리 못지않게 현란(絢爛)한 산(山)결이여. <이한직, 기려초(羈旅抄), 문장, 1939>

*a 벅작궁

집에는 언제나 센개 같은 게사니가 벅작궁 고아 내고 말 같은 개들이 떠들썩 짖어 대고 그리고 소거름 내

음새 구수한 속에 엇송아지 히물쩍 너들씨는데 <백석, 넘언집 범 같은 노큰마니, 문장, 1939. 4>

*a 벌개늪

벌개늪녘에서 바리깨를 두드리는 쇳소리가 나면 / 누가 눈을 앓아서 부증이 나서 찰거마리를 부르는 것이다 / 마을에서는 피성한 눈술ㄱ에 저린 팔다리에 거마리를 붙인다 <백석, 오금덩이라는 곳, 사슴, (자가본), 1936>

*a 벌목정정(伐木丁丁)

벌목정정(伐木丁丁)이랬거니 아람드리 큰 솔이 베어짐직도 하이 골이 울어 메아리 소리 쩌르렁 돌아옴직도 하이 다람쥐도 좇지 않고 멧새도 울지 않아 깊은 산 고요가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눈과 밤이 종이보담 희고녀! 달도 보름을 기다려 흰 뜻은 한밤 이 골을 걸음이랸다? 웃절 중이 여섯 판에 여섯 번 지고 웃고 올라간 뒤 조찰히 늙은 사나이의 남긴 내음새를 줍는다?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심히 흔들리우노니 오오 견디랸다 차고 올연히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산 속 겨울 한밤 내— <정지용, 장수산(長壽山) 1, 백록담, 문장사, 1941>

*a 범벅궁이

나붓이 나들이 온 선녀련 듯 열두 폭 치맛자락을 사려 꽂았다. 다만 한 자락은 천연스럽게 바람에 맡기고…… 그 자락을 타고 사월달 긴긴 해를 두릅, 휘휘초, 취, 범벅궁이, 달래, 돌미나리, 산나물을 광우리마다 채운다. <박목월, 산(山)·소묘 4, 난·기타(蘭·其他), 신구문화사, 1959>

*a 변애(邊涯)

백일(白日)은 중천(中天)에 걸리어 나의 무료에 연(連)하고 / 망망한 조수(潮水)는 헛되이 간만을 거듭하여 지표(地表)를 씻는 곳 / 여기는 나의 적요(寂寥)의 공동(空洞) / 투명히 절연체 된 망각의 변애(邊涯)어니 / 의미 없는 애수는 드디어 묘막(渺漠)하여 돌아오지 않고 / 오로지 무념(無念)한 고독은 한 마리 소해(小蟹)에 멸(滅)하나니 / 나는 호을로 이 무인(無人)한 백사(白沙) 위에 / 걸인처럼 인생을 나태하노라 <유치환, 동해안에서, 청마시초, 문성사, 1939>

*a 별가(別歌)

남루한 의식의 비탈을 내려가 본다 / 앉아 있는 여인. / 겨울새는 옆에서 무수히 날으고 / 떠나간 남자들의 타다 남은 유혹. / 난로가 흔들리면 부끄러웠던 과오들. / 일렁이는 화기(火器)에서 죽어간 젊은 시간들. / 여인의 빈틈없는 피부에 걸려 있는 / 잔인한 별가(別歌)여, 흐느끼는 외로운 즈로즈여. <조태일, 난로회(煖爐會) 1, 아침 선박, 선명문화사, 1965>

*a 병교(兵橋)

병교(兵橋)에 우는 군호(軍號) / 성(城) 아래 먼 뱃소리…… / 춘광(春光)에 이미 늙어 / 꿈이 또한 속절없이 <임학수, 만월대(滿月台), 팔도풍물시집, 인문사, 1938>

*a 병인(病因)하다

고운 생각 가득한 나물광주리를 옆에 끼고 / 인생(人生)의 첫 이슬에 발을 적시는 봄철의 따님이여, / 꽃을 우라는 고운 바람에, 그대의 보드람은 / 가슴의 사랑의 꽃봉우리는 지금(只今) 떨고 있어라. / 미칠듯한 열락(悅樂)에 몸과 맘을 다 잊고 뛰노는 / 황혼(黃昏)의 때 아닌 졸음을 그리워하는 여름의 맘이여, / 행복(幸福)의 명정(酩酊), 음울(陰鬱)의 생각은 지금(只今) 그대를 둘러싸고 / 끝없는 꿈으로 병인(病因)한 '인생(人生)'을 곱게 하여라. / 빛깔 없게도 고개를 숙이고, 묵상(默想)에 고요한 가을이여, / 냉락(冷落)을 소군거리는 낙엽(落葉)의 비노래가락은 / 들을 거쳐, 넓다란 맘의 세계(世界)에도 빗겨들어, / 곳곳마다 '죽은 맘'의 장사(葬事)에 한갓 분주하여라. / 흰옷을 입고, 고요히 누웠는 겨울의 베니스 여신(女神)이여, / 건독(乾毒)만 남고, 눈물 흔적조차 없는 너의 눈가에는 / 아무리 잃어진 애인(愛人)을 그립게 찾는 빛을 띠었어도 / 쓸데조차 없어라, 한때인 사랑은 올길이 없어라. <김억, 사계(四季)의 노래, 해파리의 노래, 조선도서주식회사, 1923>

*a 보검(寶劒)되다

지나온 나의 세월 / 목이 타던 땡볕보다 / 더욱더한 시금(試金)용광로에 / 구워져 보검(寶劒)되는 / 니네의 의용(義勇), / 장하고 아름답게 / 용솟음치거라 / 사랑하거라 <김남조, 그 젊음에게, 빛과 고요, 서문당, 1982>

*a 보국(譜局)

그의 이마에서부터 / 어둔 밤 첫 여명이 떠오르고 / 비 오면 비에 젖는 대로 / 밤이면 또 그의 머리 위에 / 반디처럼 이루날는 어린 별들의 찬란한 보국(譜局)을 이고 / 오오 산이여 / 앓는 듯 대지에 엎드린 채로 / 그 고독한 등을 만리허공(萬里虛空)에 들내어 / 묵연(默然)히 명목(瞑目)하고 자위하는 너 / — 산이여 / 내 또한 너처럼 늙노니 <유치환, 산(山) 1&2&, 청마시초, 문성사, 1939>

저물도록 학교에서 아이 돌아오지 않아 / 그를 기다려 저녁 한길로 나가보니 / 보오얀 초생달은 거리 끝에 꿈같이 비껴 있고 / 느릅나무 그늘 새로 화안히 불 밝힌 우리 집 영머리엔 / 북두성좌의 그 찬란한 보국(譜局)이 신비론 퐂대처럼 지켜 있나니 / 때로는 하나이 병으로 눕고 / 또는 구차함에 항상 마음 조일지라도 / 도련도련 이뤄지는 너무나 의고(擬古)한 단란을 / 먼 천상(天上)

에선 밤마다 이렇게 지켜 있고 / 인간의 수수한 영위(營爲)에 / 우주의 무궁함이 이렇듯 맑게 인연 되어 있었나니 / 아이야 어서 돌아와 손목 잡고 / 북두성좌가 지켜 있는 우리 집으로 가자 <유치환, 경이는 이렇게 나의 신변에 있었도다, 생명의 서, 행문사, 1947>

*a 보래구름

이미 해는 늙고 달은 파리하고 바람은 미치고 보래구름만 혼자 넋없이 떠도는데 <백석, 북방(北方)에서, 문장, 1940. 7>

*a 보마(步馬)

봉준(琫準)이가 운다, 무식하게 무식하게 / 일자 무식하게, 아 한문만 알았던들 / 부드럽게 우는 법만 알았던들 / 왕 뒤에 큰 왕이 있고 / 큰 왕의 채찍! / 마패없이 거듭 국경을 넘는 / 저 보마(步馬)의 겨울 안개 아래 / 부챗살로 갈라지는 땅들 / 포(砲)들이 얼굴 망가진 아이들처럼 울어 / 찬 눈에 홀로 볼 비빌 것을 알았던들 / 계룡산에 들어 조용히 발에 목매었으련만 / 목매었으련만, 대국낫도 왜낫도 잘 들었으련만, / 눈이 내린다, 우리가 무심히 건너는 돌다리에 / 형제의 아버지가 남몰래 앓는 초가 그늘에 / 귀 기울여 보아라, 눈이 내린다, 무심히, / 갑갑하게 내려앉은 하늘 아래 / 무식하게 무식하게. <황동규, 삼남(三南)에 내리는 눈, 평균율 1, 창우사, 1968>

*a 복장노루

그래도 그 쉬영꽃 진달래 빨가니 핀 꽃바위 너머 / 산(山)잔등에는 가지취 빼꾹채 게루기 고사리 산(山)나물판 / 산(山)나물 냄새 물씬물씬 나는데 / 나는 복장노루를 따라 뛰었다 <백석, 산(山)&9&, 새한민보, 1947. 11>

*a 불기침

흙은 / 굼벵이의 이불. / 들쥐의 운동장. / 돌멩이의 미끄럼틀. / 떨어지는 자(者)에게 주는 불기침. / 일어서는 자(者)에게 주는 받침돌. <민용태, 흙, 플어쓰기, 고려원, 1987>

*a 봄놀[春霞]

오지 말라고 바랬던 봄이 / 또다시 대지(大地)를 찾아 왔으니 / 봄놀[春霞]이 꿈꾸는 / 벌[野]에나 뛰어가 / 할미꽃, 꺾으며 울어나 보자! <노자영, 할미꽃&2&, 처녀의 화환, 장문서당, 1929>

*a 봉놋잠

내가 어렸을 때 / 삼월은 봉원사 뒤뜰 깨어진 종신(鐘身)에 / 한 오백년 묵은 상처나 슬슬 문지르며 / 헐벗고 굶주리고 피맺힌 강산에 / 목소리 죽이고 숨 죽이고 / 버선발로 살얼음판 기어서 / 울아버지 한밤중 싸리 바자울 아슬아슬 넘어오듯 / 그렇게 앞뒤 입막고 숨터지게 왔어

요 / 할아버지 여덟새 무명 동저고리 바람으로 / 만주 북간도 피멍들어 넘나들던 / 객관의 주막 서러운 봉놋잠 깨울까봐 / 깨어서 다시 불붙는 통한의 불기둥 될까봐 / 제국주의 창검 아래 썩뚝썩뚝 잘리는 생초목 될까봐 / 할머니 긴 밤 심지불 돋우며 / 아주까리 기름등잔 바작바작 태우던 / 근심으로 왔어요, 눈물 한숨 단근질로 왔어요 / 그때 삼월은 <홍윤숙, 다시 삼월에 1, 사는 법, 열화당, 1983>

*a 봉두남발

고서점(古書店) 늙은이의 돋보기 너머 / 고려 적 하늘이 파랗게 돋보인다. / 낙엽이 지고 / 잘 익은 감나무 밑을 / 이인로(李仁老)가 가고 있다. / 봉두남발을 하고 / 발 아래 그어 놓은 밑줄 위를 / 아슬아슬 가고 있다. / 시름한 이 길의 끝까지 가서 / 한 시대의 상한 뼈를 활자(活字) 뒤에 감춘다. / 황금연휴에 할 일도 없이 / 밖에 나와 문득 하늘을 보니 / 당당당(唐唐唐) 울려 오는 당추자 소리 / 풀꽃만 속절 없이 피었다 진다. <강현국, 어허, 가을 3, 봄은 가고 또 봄은 가고, 문장, 1982>

*a 봉래풍악(蓬萊楓嶽)

고교(古敎)의 도장(道場)이던 봉래풍악(蓬萊楓嶽) 이 산중(山中)에 / 마의(麻衣)초식(草食)으로 일생(一生)을 마치시니 / 성골(聖骨)의 빛난 보람을 막어 보이시니라 <정인보, 마의태자릉(麻衣太子陵), 담원시조, 을유문화사, 1948>

*a 뵈짜배기

황토 마루 수무나무에 얼럭궁덜럭궁 색동헝겁 뜯개조박 뵈짜배기 걸리고 오쟁이 끼애리 달리고 소삼은 엄신 같은 딥세기도 열린 국수당 고개를 몇 번이고 튀튀 침을 뱉고 넘어가면 골 안에 아늑히 묵은 영동이 무겁기도 할 집이 한 채 안기었는데 <백석, 넘언집 범 같은 노큰마니, 문장, 1939. 4>

*a 부랑기

개구쟁이 짓 같이 하던 친구가 내 직장으로 찾아 왔다. 군대 시절에는 권총을 옆구리에 차고 헌병질을 하던 놈이라 부랑기가 아직 남았다. 놈팽이가 되었다고 날더러 직장을 구해 내라고 한다. 나는 퇴근길에 그를 데리고 술이나 한잔 받아 먹이러 가는 판이다. 길거리에서 그는 걸음을 멈추고서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발가락-새끼발가락-을 내 입으로 자긋이 물어 달라고 한다. 나는 그리 불쾌한 줄도 모르고 앞니로 자긋이 물었는데, 내가 용을 쓰기도 전에 내 이빨이 그의 발가락 둘레 한 가운데까지 들어가 버렸다. 시뻘건 피가 찰찰 흐른다. 병원으로 가는 판이다. 가다가 응급처치의 필요를 느낀다. 마침 그의 몸 어느 부분에선가 까아만 고무줄을 찾아 내어 그 고무줄로 발가락과 발이 붙은 부분을 몇 돌림

돌려 조았다. 피가 멎은 발가락, 1/2 이 달랑달랑한다. 영영 달아나지는 않을 것 같다. 도대체 암만 가도 병원이 나타나질 않는다. 내가 마음 먹고 가는 병원이 아무리 찾아 가도 내 곁에 와 주지 않는다. 빠안히 보이는 병원이 암만 가도 빠안히 보인다. 비가 내린다. 나는 이상 야릇하게 자꾸 흔침해지는 것 같다. 그는 내 곁에서 사라졌다 나타났다 한다. 나는 그를 자꾸 부른다. 통행 금지 시간이다. 야경꾼 패거리가 군데군데서 심문을 한다. 발가락을 본 순경이 어서 가라고 한다. 그런데 그는 군복을 입고 권총을 차고 있다. 제대한 녀석이 말이다. 다시 뒤에서 순경이 그를 부른다. 나는 그를 현역이라고 넘겨치기를 한다. 순경이 내 말에 속아 넘어 가고, 죽을 힘으로 병원을 찾았을땐 그의 발가락이 그의 발가락이 아니고 내발가락이 되어 있다. 흙탕물에 젖은 발가락이 아프다. 쓰린다. 불이 꺼진 병원, 간호원도 의사도 도무지 보이지가 않는다. 병원 현관엔 불그스럼한 세탁물들이 가득 쌓여 있다. 아마 무슨 대수술이 있은 모양이다. 죽자 살자 고함을 쳐서 의사를 불렀더니 꼬부라진 늙은이 하나가, 나와서 여기는 여탕이니 남탕으로 가라고 한다. 들어 올 때는 병원이던데 목욕탕이라니, 참 이상하다 가짜 간판을 걸었을까. <김용태, 꿈 얘기, 원형을 찾아서, 현대문학사, 1975>

*a 부르죠아지

부르죠아지의 ××—, 1918 / 이백만의 프롤레타리아를 웰탄 요새에서 ××한 / 그놈들의 ××행위는 악학(惡虐)한 수단은 / 스팔타키스트의 용감한 투사 / 우리들의 칼, 로사를 빼앗았다. / 세계의 가장 위대한 프롤레타리아의 동무를 / 혁명가의 묘지로 몰아 넣었다. / 그러나 강철 같은 우리의 전열은 / ×인자(人者)— 그들의 포학(暴虐)도 궤멸케 하지를 못하였다 <임화, 담(曇)—1927, 예술운동, 1927. 11>

*a 부오(腐汚)하다

이 밤 한 줄기 패잔병 되어 / 주린 이리인 양 비인 공지(空地)에 호올로 서서 / 어느 먼— 도시의 상현(上弦)에 창망히 서린 / 부오(腐汚)한 달빛에 눈물지운다 <김광균, 공지(空地), 와사등, 남만서고, 1939>

*a 부첩(符牒)

여기있는것들은모두가그방대(尨大)한방(房)을쓸어생긴답답한쓰레기다. 낙뢰(落雷)심한그방대(尨大)한방(房)안에는어디로선가질식(窒息)한비둘기만한까마귀한마리가날아들어왔다. 그러니까강(剛)하던것들이역마(疫馬)잡듯픽픽쓰러지면서방(房)은금시폭발(爆發)할만큼정결(精潔)하다. 반대(反對)로여기있는것들은통요사이의쓰레기다. / 간다. <손자(孫子)>도탑재(搭載)한객차(客車)가방(房)을피(避)하나보다. 속기(速記)를펴놓은상궤위에알뜰한접시가있고접시위에삶은계란(鷄

卵)한개—포—크로터뜨린노란자위겨드랑에서난데없이부화(孵化)하는훈장형(勳章型)조류(鳥類)—푸드덕거리는바람에방안지(方眼紙)가찢어지고빙원(氷原)위에좌표(座標)잃은부첩(符牒)떼가난무(亂舞)한다. 권연(卷煙)에피가묻고그날밤에유곽(遊廓)도탔다. 번식(繁殖)하고거짓천사(天使)들이하늘을가리고온대(溫帶)로건넌다. 그러나여기있는것들은뜨뜻해지면서한꺼번에들떠든다. 방대(尨大)한방(房)은속으로곪아서벽지(壁紙)가가렵다. 쓰레기가막붙는다. <이상, 가외가전(街外街傳), 시와 소설, 1936. 3>

*a 북륙(北陸)

그러나 '요꼬하마'의 새야— / 너는 쓸쓸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람이 불지를 않느냐 / 하나뿐인 너의 종이 우산이 부서지면 어쩌느냐 / 이제는 너의 '게다' 소리도 빗소리 파도 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 가 보아라 가 보아라 / 내야 쫓기어 나가지마는 그 젊은 용감한 녀석들은 / 땀에 젖은 옷을 입고 쇠창살 밑에 앉아 있지를 않을 게며 / 네가 있는 공장엔 어머니 누나가 그리워 우는 북륙(北陸)의 유년공(幼年工)이 있지 않으냐 / 너는 그 녀석들의 옷을 빨아야 하고 / 너는 그 어린것들을 네 가슴에 안아 주어야 하지를 않겠느냐— / '가요'야! '가요'야! 너는 들어가야 한다 / 벌써 '싸이렌'은 세 번이나 울고 / 검정 옷은 내 손을 몇 번이나 잡아다녔다 / 이제는 가야 한다 너도 가야 하고 나도 가야 한다 <임화, 우산 받은 요꼬하마의 부두, 조선지광, 1929. 9>

*a 분념(忿念)

저녁이다. / 여름이 성내었다 여름이 성내었다 하늘을 보아라 험살스런 구름떼가 빈틈없이 덮여 있고 땅을 보아라 분념(忿念)이 꼭두로 오를 때처럼 주먹 같은 눈물이 함박으로 퍼붓는다. / 까닭 몰래 감흥이 되고 답답하게 무더우나 가슴 속에 물기가 돌며 마음이 반가웁다. 오 얼마나 통쾌하고 장황한 경면(景面)인가! <이상화, 청량 세계, 여명, 1925. 6>

*a 분장(粉粧)

눈물보다 어려운 웃음의 저의(底意) / 짐짓 바다만한 슬픔을 / 한 입 엷은 미소(微笑)에 담는 / 고독한 아침의 차운 분장(粉粧)도 / 소심한 여인(女人)의 허세(虛勢)인 것을 / 눈물이라니 그리움이라니 / 지나온 시간(時間)들은 너무도 허전한 / 시절(時節)들이매 <홍윤숙, 가을의 기도(祈禱)&3&, 풍차, 신흥출판사, 1964>

*a 불모하다

십이월의 북만(北滿) 눈도 안 오고 / 오직 만물을 가각(苛刻)하는 흑룡강 말라빠진 바람에 헐벗은 / 이 적은 가성(街城) 네거리에 / 비적(匪賊)의 머리 두 개 높이 내걸려 있나니 / 그 검푸른 얼굴은 말라 소년같이 적

고 / 반쯤 뜬 눈은 / 먼 한천(寒天)에 모호히 저물은 삭북(朔北)의 산하를 바라고 있도다 / 너희 죽어 율(律)의 처단이 어떠함을 알았느뇨 / 이는 사악(四惡)이 아니라 / 질서를 보전하려면 인명(人命)도 계구와 같을 수 있도다 / 혹은 너의 삶은 즉시 / 나의 죽음의 위협을 의미함이었으리니 / 힘으로써 힘을 제(除)함은 또한 / 먼 원시에서 이어 온 피의 법도로다 / 내 이 각박한 거리를 가며 / 다시금 생명의 험렬(險烈)함과 그 결의(決意)를 깨닫노니 / 끝내 다스릴 수 없던 무뢰한 넋이여 명목(瞑目)하라! / 아아 이 불모한 사변(思辯)의 풍경 위에 / 하늘이여 은혜하여 눈이라도 함빡 내리고지고 <유치환, 수(首), 생명의 서, 행문사, 1947>

*a 불살촉

대등령상(大登嶺上)에 올라서 보면 / 연사(延社), 무산(茂山) 트인 끝으로 / 멀리 국경(國境)의 하늘은 나직이 가라앉고 / 때, 이월(二月)이나 / 대기(大氣)는 유리(琉璃)쪽같이 얼어 / 몸에 감긴 추위는 / 바람 실은 지연(紙鳶)의 실을 퉁긴다. / 손가락 건방아쇠는 / 그대로 불살촉 / 검은 짐승 등위에 작열(炸裂)하고 / 큰 나무들 베어 / 불 태운 등걸 넘어 / 외딴 불빛 반가운 북관시정(北關詩情). <박재륜, 대등령상(大登嶺上), 전사통신(田舍通信), 현대문학사, 1972>

*a 불수레

웅골찬 믿음의 불수레 굴러 조마스런 마암을 막아 보렴 / 앞선 사람 뒤떨어진 벗 모두 입다물어 잠잠 <이용악, 등불이 보고 싶다, 낡은 집, 삼문사, 1938>

*a 불술기

네 두만강을 건너왔다는 석달 전이면 / 단풍이 물들어 천리 천리 또 천리 산마다 불탔을 겐데 / 그래두 외로워서 슬퍼서 치마폭으로 얼굴을 가렸더냐 / 두 낮 두 밤을 두리미처럼 울어 울어 / 불술기 구름 속을 달리는 양 유리창이 흐리더냐 <이용악, 전라도 가시내, 오랑캐꽃, 아문각, 1947>

*a 불시검문

경찰의 불시검문에 내미는 / 내 주민등록증을 시라고 / 하면 안되나 / 주민등록번호를 시라고 / 하면 안되나 / 안된다면 안되는 모두를 / 시라고 하면 안되나 <오규원, 버스 정거장에서, 가끔은 주목받는 생이고 싶다, 문학과지성사, 1987>

*a 불지짐

그래 / 꽃꽃이 사범님이 말씀하셨다 / 줄기를 자르고 / 이파리를 솎으라고 말씀하셨다 / 그래, 그래 / 밑동을 가위로 잘라 버리고 / 불지짐을 해두라고 말씀하셨다 / 꽃이 드문

날 / 겨울 마루에서 / 오래 오래 화병에 꽂혀 있기 위해 / 그래, 그래 / 네 말이 맞다 / 피지 않을 꽃망울은 솎아 버리고 / 어찌 오래도록 살아남기 위해 / 밑동에 불지짐을 당하는 게 너 뿐이랴 / 줄기째 잘리는 게 너뿐이랴 / 그래, 그래 꽃꽃이 시간이다 / 꽃이 귀한 / 겨울 안방이다 <김명수, 꽃꽂이 시간, 하급반 교과서, 창작사, 1983>

*a 붕가집

마을에서는 세 벌 김을 다 매고 들에서 / 개장취념을 서너 번 하고 나면 / 백중 좋은 날이 슬그머니 오는데 / 백중날에는 새악시들이 / 생모시치마 천진푀치마의 물팩치기 껑추렁한 치마에 / 쇠주푀적삼 항라적삼의 자지고름이 기드렁한 적삼에 / 한끝나게 상나들이옷을 있는 대로 다 내 입고 / 머리는 다리를 서너 켜레씩 들어서 / 시뻘건 꼬둘채댕기를 삐뚜룩하니 해 꽂고 / 네날백이 따배기신을 맨발에 바꿔 신고 / 고개를 몇이라도 넘어서 약물터로 가는데 / 무썩무썩 더운 날에도 벌 길에는 / 건들건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 허리에 찬 남갑사 주머니에는 오랜만에 돈푼이 들어 즈벅이고 / 광지보에서 나온 은장도에 바늘집에 원앙에 바둑에 / 번들번들하는 노리개는 스르럭스르럭 소리가 나고 / 고개를 몇이라도 넘어서 약물터로 오면 / 약물터엔 사람들이 백재일 치듯 하였는데 / 붕가집에서 온 사람들도 만나 반가워하고 / 깨죽이며 문주며 섶가락 앞에 송구떡을 사서 권하거니 먹거니 하고 / 그러다는 백중 물을 내는 소내기를 함뿍 맞고 / 호주를하니 젖어서 달아나는데 / 이번에는 꿈에도 못 잊는 붕가집에 가는 것이다 / 붕가집을 가면서도 칠월(七月) 그믐 초가을을 할 때까지 / 평안하니 집살이를 할 것을 생각하고 / 애끼는 옷을 다 적시어도 비는 시원만 하다고 생각한다 <백석, 칠월(七月) 백중, 문장, 1948. 10>

*a 붕새춤

기름진 냉이꽃 향기로운 언덕, 여기 푸른 잔디밭에 누워서, 철이야, 너는 닐닐닐 가락 맞춰 풀피리나 불고, 나는, 나는, 두둥싯 두둥실 붕새춤 추며, 막쇠와, 돌이와, 북술이랑 함께, 우리, 우리, 옛날을, 옛날을, 딩굴어 보자. <박두진, 어서 너는 오너라, 청록집, 을유문화사, 1946>

*a 붕어곰

호박잎에 싸 오는 붕어곰은 언제나 맛있었다 <백석, 주막(酒幕)&2&, 사슴, (자가본), 1936>

*a 브나로드

카페 의자에 걸터 앉아서 / 희고 흰 팔을 뽐내어가며 / 브나로드!라고 떠들고 있는 / 60년 전의 노서아 청년이 눈앞에 있다…… <김기진, 백수

의 탄식, 개벽, 1924>

*a 비노(悲怒)하다

내 오늘 병든 짐승처럼 / 치운 십이월(十二月)의 벌판으로 호올로 나온 뜻은 / 스스로 비노(悲怒)하여 갈 곳 없고 / 나의 심사를 뉘게도 말하지 않으려 함이로다 <유치환, 가마귀의 노래, 청마시초, 문성사, 1939>

*a 비마(悲魔)

어느 날 갑자기 비마(悲魔)가 찾아 들어도 / 북어(北魚)는 슬프지 않아 / 한쪽 눈에서만 가짜 눈물이 흐른다 / 진흙 위에 꼬리 끄는 예술이 / 꼬리의 흔적이 길면 얼마나 길까 / 어느 날 하나씩 내게서 멀어져 가고 / 모두에게서 내가 멀어져 가 / 죽음의 문턱을 넘는 날 / 죽음의 문턱에 덧니라도 걸어 놓고 / 북어(北魚)는 짖어야 하리라 밤의 아가리로 끌려 들어가면서 / 누구에게 짖어야 하나 / 아마 자궁을 향해 짖을 말이 있을 것이다 / 누구나 다 욥은 아니지만 / 하늘을 향해 토할 말이 있을 것이다 <최승호, 그로테스크한 죽음 앞에서, 고해문서, 미래사, 1991>

*a 비말차운(飛沫遮雲)

지나가는 호랑나비야 / 똑같은 수백만 눈동자의 / 푸른 해심(海深)을 / 어찌 헤아린다 하느뇨 / 비말차운(飛沫遮雲)의 헛됨이어 / 가슴 가슴마다 타는 / 해바라기 / 붉은 사상의 태양을 / 무엇으로 막으려는가 <설정식, 송가(頌歌)&3&, 포도, 정음사, 1948>

*a 비멀이하다

삼리(三里) 밖 강(江) 쟁변엔 자개들에서 / 비멀이한 옷을 부숭부숭 말려 입고 오는 길인데 / 산(山)모롱고지 하나 도는 동안에 옷은 또 함북 젖었다 <백석, 구장로(球場路), 조선일보, 1939. 9. 13.>

*a 비명(非命)하다

그렇다! 나는 내가 잡은 조종간을 어느 방향으로 돌리지 않으리라 이 공막(空漠)한 길 없는 길 — 온갖 악덕(惡德)과 애노(哀怒)와 또한 순정(純情)의 마음 저림이 함께 있는 저자에 살며 / (어느 패륜(悖倫)의 뒷골목에서 내 보람 없이 비명(非命)하기로 애석잖는 목숨이여!) / 아아 이 헛헛한 허공! 갈수록 아득히 두고 온 인간 삶의 환호가 등불처럼 마음 끄는 이 무한 고독을 헤치고 이대로 나는 나의 길을 가리니 / 어느 날 뜻않이 나의 자리 비었음을 보거들랑 사랑이여 원수여 그날 그렇게 죽자 하던 은수(恩讐)를 넘어—오늘이 너와의 있음은 진정 증거할 수 없는 바람의 몸짓일 뿐, 마침내 저 허무로! / 표표히 왔던 길 다시 돌아감이 있음을 정녕 보아라 <유치환, 돌아오지 않는 비행기(飛行機), 청마시집, 문성사, 1954>

*a 비부(秘符)

나는 만상을 가리운 가부(假符) 너머를 보았다, / 다시 나는, 이 세상의 비부(秘符)를 혼자 보았다, / 그는 이 땅을 만들고 인생을 처음으로 만든 미지의 요정이 저에게 반역할까 하는 어리석은 뜻으로 / '모든 것이 헛것이다' 적어둔 그 비부를, <이상화, 허무교도의 찬송가, 개벽, 1924. 12>

*a 비열(悲悅)

이 비열(悲悅)의 협주 / 나는 그것을 듣기 위해 / 바다로 오는 것이다. <황금찬, 바다의 순종, 산새, 종로서적, 1975>

*a 비의(秘意)

나는 너희가 체현(體現)하고 있는 저 오묘한 / 뜻을 알지만 나는 짐짓 너희를 외면한다 / 왜냐하면 나는 / 안팎이 같은 너희보다 / (너희의 이름은 안팎이 같다는 뜻이거니와) / 안팎이 다른 나를 더 사랑하니까. / 너와 나는 그동안 / 은유(隱喩) 속에서 한몸이었으나 / 실은 나는 비의(秘意)인 너희를 해독하는 / 기쁨에 취해 / 그런 주정뱅이의 자로 세상을 재어온지라 / 나는 아마 취중득도(醉中得道)했는지 / 인제는 전혀 구별이 안 가느니— / 누가 거지고 / 누가 광인인지 <정현종, 거지와 광인(狂人),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문학과지성사, 1984>

*a 비의(秘義)

비어져 나오는 / 풀싹을 들여다보며, / 호올로 조용히 / 생명(生命)의 비의(秘義)를 느끼다. <남궁벽, 생명(生命)의 비의(秘義), 폐허, 1921. 1>

숨막히는 찰나(刹那), 오오 비의(秘義)! <구상, 에로스 소묘(素描), 드레퓌스의 벤취에서, 고려원, 1984>

저절로 반짝이는 그 깊은 비의(秘義)에 들기 전 / 사람들아 / 사람소리를 어떻게 내는가. <정공채, 사람소리 2, 사람소리, 1989>

*a 비취병(翡翠屛)

옥녀(玉女)의 늦은 세수 갈허염즉 하다마는 / 비취병(翡翠屛) 굳이 닫고 누를 끄가 *여 숨으신고 / 앞길야 머다할선정 안 머물고 어이리 <정인보, 만폭동(萬瀑洞)&2&, 담원시조, 을유문화사, 1948>

*a 비포(飛泡)

이욱고 돌아오는 새 / 그 드리운 쭉지는 / 낯익은 바다의 / 비포(飛泡)에 젖고 / 또 보이지 않는 하늘의 / 향기(香氣)를 품기다. / 내 또 부즐 없이 / 그 발목을 더듬어 보다. <김동명, 생각, 파초, 함흥, 1938>

*a 빙폭(氷瀑)

빙폭(氷瀑)은 처연하다. / 소리까지 얼어붙었으니 더욱 그러하다. / 소리가 소리를 죽이는 때에 / 무엇인들 얼어붙지 않으랴. / 뻗친 물줄기의

가지들도 허공에 퍼져 / 움직이지 않는다. / 새들도 몸을 숨기고 / 그 작은 눈알만 반들거린다. / 일요일 오후에 / 신문을 보면, 얼어붙은 폭포만이 / 원색으로 깔려 있고, 죽은 활자(活字)들이 / 뜻없이 움직인다. / 어찌 버티랴. 솟아나는 눈물. / 눈물은 빙폭(氷瀑)인 듯 차갑게 떨어지고 / 도피의 길을 열면서 / 우리는 치욕의 일꾼이 된다. / 저녁 연기 풀려나오는 / 눈물 잠긴 마을에, 전등은 켜지고 / 얼굴은 더욱 창백해진다. / 마을과 도시의 이중(二重) 슬픔. / 어디로 가랴. 밀려나는 눈물. / 도피의 길을 열면서 / 우리는 갈 곳 모르는 죽음이 된다. / 봄에 더욱 얼어드는 빙폭(氷瀑)과 같이. <마종하, 빙폭(氷瀑), 노래하는 바다, 민족문화사, 1983>

귀때기 때리는 모랫바람 / 덤덤히 낡은 깃 올려 막고 섰는 / 담배밭 담배 줄기 옆에 / 모습 드러낸다, 같이 어깨대고 서기도 한다. / 침묵 부수고 더 큰 침묵으로 솟는 / 빙폭(氷瀑)같은 대머리의 / 고요 / 마주 보고 선다. <홍신선, 물&3&, 우리 이웃 사람들, 문학과지성사, 1984>

*a 빠끔이

그렇지만 저 애도 / 삼월이 가고 구월이 가까우면 / 차츰 그 가슴이 뿌듯해 올 거야. / 어금니처럼 빠끔이 터지는 / 그 여린 가슴이…… <김현승, 삼월생(三月生), 견고한 고독, 관동출판사, 1968>

*a 뻐꾹채꽃

절정에 가까울수록 뻐꾹채꽃 키가 점점 소모된다. 한 마루 오르면 허리가 스러지고 다시 한 마루 위에서 모가지가 없고 나중에는 얼굴만 갸옷 내다본다. 화문(花紋)처럼 판 박힌다. 바람이 차기가 함경도 끝과 맞서는 데서 뻐꾹채 키는 아주 없어지고도 팔월 한철엔 흩어진 성신(星辰)처럼 난만하다. 산그림자 어둑어둑하면 그러지 않아도 뻐꾹채 꽃밭에서 별들이 켜든다. 제자리에서 별이 옮긴다. 나는 여기서 기진했다. <정지용, 백록담(白鹿潭), 백록담, 문장사, 1941>

*a 뻐끔히

어둠을 향(向)하여 / 정기 없는 눈처럼 / 뻐끔히 열린 창(窓) <유진오, 창(窓)&7&, 창(窓), 정음사, 1948>

*a 뻴발

안개 등 떠밀고 가다 빈 덕장에 걸리는 바람 / 내리는 진눈깨비에도 마음 질척거려 처마 밑에 서면 / 키 낮은 목조건물(木造建物) 너머 굽치는 여울 / 골을 이뤄 / 능선 끝 간데로 사라지는 물길 보인다 / 뻴발 비스듬히 구겨박혀 배들 두어 척 / 시름대 꺾어지게 저기 누군가 깃발 흔들어도 / 돌아나갈 포구도 보이잖는 / 법성포여, 갇힌 바다의 쓸쓸한 얼굴이여 / 다 사는 모습이 우리네

비슷한 / 퇴락한 거리에 서면 / 낮술에도 취해 몇 마리 황석어* / 누렇게 찌들고 있다 / 나그네 아픈 낙지발로 물어뜯겨도 / 법성포여, 칠산바다는 저 산 너머에 있다 한다 <김명인, 법성포 부근, 머나먼 곳 스와니, 문학과지성사, 1988>

창을 열면 농염한 바다가 범람한다. 우리들의 뻘밭. / 씨알 같은 생각들이 부서져 이미 나는 하나 둘이 아니다. <박덕규, 비 오는 날&3&, 아름다운 사냥, 문학과지성사, 1984>

*a 뻗합

사공(沙工)들은 산(山)처럼 큰 그들의 설움을랑 / 네 뻗합 속에 담아 두려하여 / 해만(海灣)을 열고 바삐 나가더라. <김기림, 바다, 바다와 나비, 신문화연구소, 1946>

*a 뽈다구

촌에서 온 아이여 / 촌에서 어젯밤에 승합자동차를 타고 온 아이여 / 이렇게 추운데 웃동에 무슨 두룽이 같은 것을 하나 걸치고 아랫도리는 쪽 발가벗은 아이여 / 뽈다구에는 징기징기 앙광이를 그리고 머리칼이 노란 아이여 / 힘을 쓸려고 벌써부터 두 다리가 푸둥푸둥하니 살이 찐 아이여 / 너는 오늘 아침 무엇에 놀라서 우는구나 / 분명코 무슨 거짓되고 쓸데없는 것에 놀라서 / 그것이 네 맑고 참된 마음에 분해서 우는구나 / 이 집에 있는 다른 많은 아이들이 / 모두들 욕심 사납게 지게굳게 일부러 청을 돋혀서 / 어린 아이들치고는 너무나 큰소리로 너무나 튀겁 많은 소리로 울어 대는데 / 너만은 타고난 그 외마디 소리로 스스로웁게 삼가면서 우는구나 / 네 소리는 조금 썩심하니 쉬인 듯도 하다 / 네 소리에 내 마음은 반끗이 밝아오고 또 호끈히 더워 오고 그리고 즐거워 온다 / 나는 너를 껴안아 올려서 네 머리를 쓰다듬고 힘껏 네 작은 손을 쥐고 흔들고 싶다 / 네 소리에 나는 촌 농삿집의 저녁을 짓는 때 / 나주볕이 가득 드리운 밝은 방안에 혼자 앉아서 / 실감기며 버선짝을 가지고 쓰렁쓰렁 노는 아이를 생각한다 / 또 여름날 낮 기운 때 어른들이 모두 벌에 나가고 텅 비인 집 토방에서 / 햇강아지의 쌀랑대는 성화를 받아 가며 닭의 똥을 주워 먹는 아이를 생각한다 / 촌에서 와서 오늘 아침 무엇이 분해서 우는 아이여 / 너는 분명히 하늘이 사랑하는 시인이나 농사꾼이 될 것이로다 <백석, 촌에서 온 아이, 문장, 1941>

*a 뻥뻥차

고원선(高原線) 종점인 이 작은 정거장엔 / 그렇게도 우쭐대며 달가불시며 뛰어 오던 뻥뻥차(車)가 / 가이없이 쓸쓸하니도 우두머니 서 있다 <백석, 함남(咸南) 도안(道安), 문장, 1939. 10>

*a 사과탄

우리들의 교과서가 증오를 가르치고 있음을 / 정직하게 보게 하소서. / 증오에 길들지 못하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쫓겨나고 있음을 / 정직하게 보게 하소서. / 학교가 아이들을 늘 폭도로 대하고 있음을 정직하게 보게 하소서. / 우리들이 폭도를 진압하는 가시철조망의 하나임을 / 정직하게 보게 하소서. / 우리들이 가시철조망의 하나이기를 거부할 때 / 그들이 우리들의 밥그릇을 빼앗아감을 / 정직하게 보게 하소서. / 이땅의 한 맺힌 귀신들이여 /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이 / 폭도들을 얽어매는 굵은 가시철조망임을 정직하게 보게 하소서. / 우리들을 질타하소서 / 순한 양으로 길들여져 있는 우리를 질타하소서 / 홀로 외로운 뜻 밝히려다 / 입 다문 돌멩이처럼 시름시름 살아가는 교사들의 / 고달픈 삶이 우리들의 비겁에서 비롯됨을 질타하소서. / 새벽부터 밤까지 사지선다의 물음 속에서 / 썩어 가는 아이들의 고통이 우리들의 비겁에서 비롯됨을 질타하소서 / 점수에 묶여 목매는 어린애의 죽음이 / 우리들의 거짓 때문임을 질타하소서 / 우리들의 묵인 아래 / 155마일의 휴전선이 1마일마다 1,550마일로 새끼쳐서 / 이땅을 칭칭 감고 있음을 질타하소서 / 우리들의 묵인 아래 / 우리들의 어머니 한반도가 핵의 이빨 아래 죽어가고 있음을 질타하소서 / 우리들의 묵인 아래 / 가시철조망이 우리를 칭칭 감고 있음을 깨우치소서 / 이제는 페퍼포그와 사과탄으로 눈 못 뜨시는 / 관악산 신령님 / 그해 5월 멀리 남녘의 땅이 울릴 때 / 안타까와 두 뺨에 피눈물 진달래로 흘렸을 / 관악산 신령님 / 진달래 송이마다 두견새 울음으로 머무는 / 이땅의 한 맺힌 넋들이여 / 그리하여 우리를 일으키소서. / 저 모든 철조망의 질곡 아래로부터 / 우리들을 일으키소서 / 일어나 이땅의 고난을 영광의 가시면류관으로 삼아 / 매일매일 싸울 용기를 주소서 / 이땅에서 이제 민주통일의 싸움을 향해 / 민족의 힘살이 꿈틀거리게 하소서 / 저 백두산 천지의 노란 꽃망울로 / 우리들과 아이들의 눈망울이 빛나게 하소서. / 천년설 아래 꿈꾸는 노란 풀꽃들의 강인한 뿌리로 견디게 하소서. / 진달래 송이마다 두견새 울음으로 머무는 / 이땅의 한 맺힌 넋들이여 / 비겁한 저희들이 올리는 더러운 물건이라 욕하지 마시옵고 / 오랫동안 주린 배를 채우시고 / 노랗게 춤추는 꽃망울 결 출렁이는 천지의 물결 속에 / 두견새 울음으로 잠기소서, 상향. <김진경, 교사들을 위한 비나리, 광화문을 지나며, 풀빛, 1986>

*a 사귓국

가든 길 돌아서서 그 문 앞에 다가서니 / 돌밥에 사긔ㅅ국이 고기도곤 부러워라 / 어드메 누구 살림이 저만하다 할소냐 <이은상, 귀해심(歸孩

心), 노산시조집(鷺山時調集), 한성도서주식회사, 1932>

*a 사기방등

저녁술을 놓은 아이들은 외양간섶 밭마당에 달린 배나무 동산에서 쥐잡이를 하고 숨굴막질을 하고 꼬리잡이를 하고 가마 타고 시집가는 놀음 말 타고 장가가는 놀음을 하고 이렇게 밤이 어둡도록 북적하니 논다 / 밤이 깊어가는 집안엔 엄매는 엄매들끼리 아르간에서들 웃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웃간 한 방을 잡고 조아질하고 쌈방이 굴리고 바리깨돌림하고 호박떼기하고 제비손이구손이하고 이렇게 화디의 사기방등에 심지를 몇 번이나 돋구고 홍게닭이 몇 번이나 울어서 졸음이 오면 아릇목 싸움 자리 싸움을 하며 히드득거리다가 잠이 든다 그래서는 문창에 텅납새의 그림자가 치는 아침 시누이 동세들이 욱적하니 흥성거리는 부엌으론 샛문틈으로 장지문틈으로 무이징게국을 끓이는 맛있는 내음새가 올라오도록 잔다 <백석, 여우난골족(族), 사슴, (자가본), 1936>

*a 사도(砂道)

이 잔디 위와 사도(砂道), / 다시는 못 볼 광명(光明)이 되어 / 덤덤히 섰는 솔나무에 미안(未安)한 나의 병(病), / 내가 모르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인사를 한다. <천상병, 덕수궁(德壽宮)의 오후(午後), 새, 조광출판사, 1971>

*a 사리내합(舍利內盒)

햇살이 탑신(塔身)을 빙빙 두르고 / 탑신(塔身)의 꽃자리엔 거북뚜껑, / 막 반쯤 핀 연(蓮)꽃의 / 눈웃음과도 살짝 헤어져 / 봉오리 일곱 겹을 열고 들어서면 / 네모 지붕 훤히 정자(亭子)가 선다. / 네 개의 기둥 하늘을 받들고 / 그 바닥은 연화문(蓮花文) / 난간(欄干)을 돌려서 기단(器壇)은 넓고 / 그 왼쪽을 밝히며 내 / 꽃과의 눈맞춤도 작별(作別)을 하고 나면 / 그 위의 유리잔(琉璃盞) 속의 / 마침내 짜릿한 사리병(舍利甁)아, / 유리잔(琉璃盞)의 유리옥(琉璃玉) 곁에 진주(眞珠)알 / 그리고, 금제의 보리수(菩提樹) 그늘을 / 이불(泥佛)은 활짝 핀 웃음인데 / 오른 켠으론 실날 같은 길이 있어 / 사리내합(舍利內盒)은 다시 외합(外盒)에 있는 / 어둡고도 아삼한 저승길이 / 저리도 쓸쓸히 열리고 있구나. <박주일, 사리합(舍利盒), 신라유물시초, 흐름사, 1980>

*a 사분자(砂盆子)

제주서 보내여 온 몇몇 포기 들마늘을 / 바둑돌 사분자(砂盆子)에 고이 길러 꽃이 피니 / 선비집 수선화 호사 부족함이 없도다 <최남선, 새봄, 동아일보, 1957. 1. 1>

*a 사상선도(思想善導)

행랑 뒷골목 휘젓한 상술집엔 / 팔려 온 냉해지(冷害地) 처녀(處女)를 둘러싸고 / 대학생의 지질숙한 눈초리가 / 사상선도(思想善導)의 염탐 밑에 떨고만 있다 <이육사, 실제(失題)&5&, (미발표), 1935. 12>

*a 사역(使役)되다

약(弱)한 민족(民族)에 대(對)하여 / 이리 같었든 군국주의(軍國主義) / 주린 만주(滿洲)사람과 / 유랑(流浪)하는 우리 동포(同胞)가 / 개같이 사역(使役)되던 벌판 / 오만한 장군(將軍)이 눈을 부릅뜨고 / 호령(呼令)하던 저 점점(點點)한 포루(砲壘) / 우리의 피와 원한(怨恨)의 성곽(城郭)들이 / 낱낱이 티끌처럼 흩어졌는가 <임화, 발자욱&3&, 찬가, 백양당, 1947>

*a 사역자(使役者)

한 산맥과 힌 광야의 적막을 대결할 수 있는 나의 노호(怒號)와 / 한 절벽과 한 바위의 완고를 각충(角衝)할 수 있는 나의 무기로써 / 여기 한 마리 묵묵한 노예의 신세를 자위(自衛)함은 / 너희들 사역자(使役者)의 도도한 번영이 가져 올 낙조의 때에 입회(立會)하고자 함이오, / 티끌 같은 총명(聰明)을 장(匠)바치 하여 / 원재(原在)를 저버린 고아(孤兒)들의 실종(失踪)을 감시하려 함이니 / 그러므로 하여 한갓 / 절망이나 혹사에 지친 비분(悲憤) 때문이 아닌 눈물 어린 창(窓)알 속의 / 내 한 쌍 불멸(不滅)의 횃불을 보라. <설창수, 역우(役牛), 개폐교, 백양당, 1950>

*a 사정권(射程圈)

능선(陵線)마다 / 나부껴 오는 / 검은 사정권(射程圈) <김규동, 전쟁(戰爭)과 나비, 나비와 광장, 산호장, 1955>

*a 사칙법(四則法)

때로 내가 비겁하게도 진격을 주저했을 때, / 적이여! 너는 뜻하지 않은 공격으로 나에게 전진을 가르치었다. / 만일 네가 없으면 참말로 사칙법(四則法)도 모를 우리에게, / 적이여! 너는 전진과 퇴각의 고등 수학을 가르치었다. <임화, 적(敵), 현해탄, 동광당서점, 1938>

*a 사하라

달밤이다. / 끝없는 은모랫벌이다. / 풀 한 포기 살지 않는 이 사하라에서 / 누구를 우리는 기다릴 거냐. <이원섭, 향미사(響尾蛇)*, 향미사, 문예사, 1953>

*a 사해(死骸)

사해(死骸)의 한지(寒枝) 위에 / 까마귀 운다 / 금수(錦繡)의 옷과 청춘의 육체(肉體)를 다 빼앗기고 / 한위(寒威)에 쭈그리는 검은 얼굴을. <오일도, 눈이여! 어서 나려 다오, 시원(詩苑), 1935. 4>

*a 사흑(死黑)

죽은 듯 고요하던 사흑(死黑)의 거리 위로 / 자유(自由)의 종(鐘) 하늘 울리고 / 해방(解放)의 외침 지축(地軸)를 뒤집고 / 열광(熱狂)과 환호(歡呼)에 홍도(洪濤)같이 넘치는 인해(人海)! <오일도, 해방(解放)의 거리, 출전 미상 / 연도 미상>

*a 삭변(朔邊)

등촉(燈燭)이 휘황하다 / 삼천(三千) 궁녀(宮女) 가는 허리 / 삭변(朔邊)에 떨친 위엄 / 어둠에 뜨는 봉화(烽火) <임학수, 만월대(滿月台), 팔도풍물시집, 인문사, 1938>

*a 산도화(山桃花)

열 두 줄 가얏고 드리고 드려 / 헐벗은 겨울 들판 품어 보고지고. / 빈 몸으로 그믐토록 서서 / 궁우(宮羽) 미친 가락 화살을 날려 / 떼기러기 가슴마다 실은 상사병(相思病), / 산 너머 북녘 마을 그대 창가에 / 산도화(山桃花) 피울음으로 심어 뒀다가 / 얼어붙은 님의 간장 저미고 저며 / 오작교(烏鵲橋) 끊긴 다리 이어 봤으면……. <임보, 율(律) 2, 목마일기, 동천사, 1987>

*a 산말낭

저 산말낭에 그대가 금시 나타날 것만 같습니다 / 녹음 사이 당신의 말굽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 내 가슴이 왜 갑자기 설렙니까 <노천명, 희망&4&, 별을 쳐다보며, 희망사, 1953>

*a 산말령

마른 풀잎이 / 하루 종일 울고 있었다. / 눈이 덮인 산말령으로 / 고압선이 기어오르고 있었다. / 입춘 대길의 문을 열고 / 진달래가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다. / 죽은 나무 등걸에 / 푸른 좁쌀이 돋고 있었다. / 한랭한 가지 끝에서, 멀리를 / 발돋움하는 새의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박남수, 마른 풀잎이, 사슴의 관(冠), 문학세계사, 1981>

*a 산명에

눈이 많이 와서 / 산엣새가 벌로 나려 멕이고 / 눈구덩이에 토끼가 더러 빠지기도 하면 / 마을에는 그 무슨 반가운 것이 오는가 보다 / 한가한 애동들은 어둡도록 꿩사냥을 하고 / 가난한 엄매는 밤중에 김치가 재미로 가고 / 마을을 구수한 즐거움에 사서 은근하니 흥성흥성 들뜨게 하며 / 이것은 오는 것이다 / 이것은 어느 양지귀 혹은 능달쪽 외따른 산옆 은댕이 예데가리밭에서 / 하룻밤 뽀오얀 흰 김 속에 접시귀 소기름불이 뿌우연 부엌에 / 산멍에 같은 분틀을 타고 오는 것이다 / 이것은 아득한 옛날 한가하고 즐겁던 세월로부터 / 실 같은 봄지 속을 타는 듯한 여름볕 속을 지나서 들쿠레한 구시월 갈바람 속을 지나서 / 대

대로 나며 죽으며 죽으며 나며 하는 이 마을 사람들의 의젓한 마음을 지나서 텁텁한 꿈을 지나서 / 지붕에 마당에 우물둔덩에 함박눈이 푹푹 쌓이는 여느 하룻밤 / 아베 앞에 그 어린 아들 앞에 아배 앞에는 왕사발에 아들 앞에는 새끼사발에 그득히 사리워오는 것이다 / 이것은 그 곰의 잔등에 업혀서 길여났다는 먼 옛적 큰 마니가 / 또 그 잠등색이에 서서 재채기를 하면 산 넘엣 마을까지 들렸다는 / 먼 옛적 큰아바지가 오는 것같이 오는 것이다 <백석, 국수, 문장, 1941. 4>

*a 산모랑

건너 산모랑 돌아오는 길을 / 무언가 높은 소리 노래하며 오던 사람 / 나를 만나자 / 말없이 지나간다. <김달진, 산(山)모랑길, 청시(靑柿), 청색지사, 1940>

*a 산반(算盤)

훤조때문에마멸(磨滅)되는몸이다. 모두소년(少年)이라고들그리는데노야(老爺)인기색(氣色)이많다. 혹형(酷刑)에씻기워서산반(算盤)알처럼자격(資格)너머로튀어오르기쉽다. 그러니까육교(陸橋)위에서또하나의편안한대륙(大陸)을내려다보고근근(僅僅)히산다. 동갑네가시시거리며떼를지어답교(踏橋)한다. 그렇지않아도육교(陸橋)는또월광(月光)으로충분(充分)히천칭(天秤)처럼제무게에끄덱인다. 타인(他人)의그림자는위선넓다. 미미(微微)한그림자들이얼떨김에모조리앉아버린다. 앵도(櫻桃)가진다. 종자(種子)도연멸(煙滅)한다. 정탐(偵探)도흐지부지—있어야옳을박수(拍手)가어째서없느냐. 아마아버지를반역(反逆)한가싶다. 묵묵(默默)히—기도(企圖)를봉쇄(封鎖)한체하고말을하면사투리다. 아니—이무언(無言)이훤조의사투리리라. 쏟으려는노릇—날카로운신단(身端)이싱싱한육교(陸橋)그중심(甚)한구석을진단(診斷)하듯어루만지기만한다. 나날이썩으면서 가리키는지향(指向)으로기적(奇蹟)히골목이뚫렸다. 썩는것들이낙차(落差)나며골목으로몰린다. 골목안에는치사(侈奢)스러워보이는문(門)이있다. 문(門)안에는금(金)니가있다. 금(金)니안에는추잡한혀가달린폐환(肺患)이있다. 오—오—. 들어가면나오지못하는타입깊이가장부(臟腑)를닮는다. 그위로짝바뀐구두가비칠거린다. 어느균(菌)이어느아랫배를앓게하는것이다. 질다. / 반추(反芻)한다. 노파(老婆)니까. 맞은편평활(平滑)한유리위에해소(解消)된정체(正體)를도포(塗布)한졸음오는혜택(惠澤)이뜬다. 꿈—꿈—꿈을짓밟는허망(虛妄)한노역(勞役)—이세기(世紀)의곤비(困憊)와살기(殺氣)가바둑판처럼널리깔렸다. 먹어야사는입술이악의(惡意)로꾸긴진창위에서슬며시식사(食事)흉내를낸다. 아들—여러아들—노파(老婆)의결혼(結婚)을걷어차는여러아들들의육중한구두—구두바닥의징이다. <이상, 가외가전(街外街傳), 시와 소설, 1936. 3>

*a 산신부(山神符)

산신부(山神符)인 것 같다. <강희근, 한겨울 풍경(風景), 풍경보, 중앙출판공사, 1975>

*a 산역(山驛)

열차는 평산을 지나쳤다 한다. / 산역(山驛)에서는 낡은 의자에 기댄 남자들 두엇, / 불을 끄고 통과할 어느 역에도 / 어쩌면 정거하지도 않을 기차를 우리들은 기다렸다. / 밤은 깊고 자정 가까이 / 달은 떠올라 헌 거적대기 같은 빛이 / 세상을 덮어 주기도 하였지만 / 오늘 가지 못하면 내일 / 갈 수도 없고 / 마침내 영영 가지 못할 그곳에 가기 위하여 / 저쪽 어느 역에서도 우리들처럼 / 정든 마을에서 빠져나와 어둠 속에 / 서성대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 발밑에서는 버리고 가는 낙엽 또는 떨어져 뒹구는 / 젖은 노자 몇 닢. <김명인, 고산행(高山行), 동두천, 문학과지성사, 1979>

*a 산자(山姿)

너의 크나큰 산자(山姿) 숲 그늘 언저리 / 계류(溪流) 물소리를 튕기는 바윗등에 기대어 / 나는 평일에도 좋은 산병을 앓고 있나니. <정공채, 산병(山病), 사람소리, 1989>

*a 살이

산(山) 너머 바다는 / 보름 살이 때 <서정주, 영산홍(映山紅), 동천, 민중서관, 1968>

*a 삼승버선

눈이 내립니다, 첫눈이 내립니다. / 삼승버선 엎어 신고 사뿟사뿟 내려앉습니다. / 논과 들과 초가집 용마루 위에 / 배꽃처럼 흩어져 송이송이 내려 앉습니다. <심훈, 첫눈&4&, 그날이 오면, 한성도서주식회사, 1949>

*a 삼짓날

삼짓날 햇살은 진달래 꽃불에 술기로 번진다. / 삼짓날 햇살은 강남제비 날개에 바람 태운다. / 삼짓날 햇살은 개울에 발 씻고 청보리 밟는다. / 삼짓날 햇살은 산노루 울음으로 산을 풀어 놓는다. <정동주, 삼짓날, 논두렁에 서서, 문학세계사, 1987>

*a 삼천보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 대웅전 컴컴한 정적 속에다 / 어둠이 낳은 돌멩이를 던져 본다. / 등나무숲이 다스려져 / 삼천보살이 된다 해도 /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 돌멩이 하나도 부끄럽게 던진다 / 젊은 비구니의 수선거리는 말씀 가에다 / 돌멩이 하나 던져 본다. / 물 비린내 자욱히 / 돌멩이에 물살져온다. <강유정, 범어사 운(韻), 푸른 삼각형, 청하, 1983>

*a 삼한국로(三韓國老)

선인교(仙人橋) 나린 물은 예같이 흐르는데 / 중화당(中和堂) 삼한국로(三韓國老) 그들은 어디 간고 / 자하곡(紫霞曲) 남은 장단(長短)만 추풍(秋風) 속에 들었더라 <이은상, 자하동(紫霞洞), 노산시조집(鷺山時調集), 한성도서주식회사, 1932>

*a 삿갓머리

삿갓머리 씌운 배추 움 <박용래, 낙차(落差), 강아지풀, 민음사, 1975>

*a 삿방

아,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 이 히수무레하고 부드럽고 순수하고 슴슴한 것은 무엇인가 / 겨울밤 쩡하니 익은 동치미 국을 좋아하고 얼얼한 댕추가루를 좋아하고 싱싱한 산꿩의 고기를 좋아하고 / 그리고 담배 내음새 탄수 내음새 또 수육을 삶는 육수국 내음새 자욱한 더북한 삿방 쩔쩔 끓는 아르구ㅌ을 좋아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백석, 국수, 문장, 1941. 4>

*a 상나들이옷

마을에서는 세 벌 김을 다 매고 들에서 / 개장취념을 서너 번 하고 나면 / 백중 좋은 날이 슬그머니 오는데 / 백중날에는 새악시들이 / 생모시치마 천진푀치마의 물팩치기 껑추렁한 치마에 / 쇠주푀적삼 항라적삼의 자지고름이 기드렁한 적삼에 / 한끝나게 상나들이옷을 있는 대로 다 내 입고 / 머리는 다리를 서너 켜레씩 들어서 / 시뻘건 꼬둘채댕기를 삐뚜룩하니 해 꽂고 / 네날백이 따배기신을 맨발에 바꿔 신고 / 고개를 몇이라도 넘어서 약물터로 가는데 / 무썩무썩 더운 날에도 벌 길에는 / 건들건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 허리에 찬 남갑사 주머니에는 오랜만에 돈푼이 들어 즈벅이고 / 광지보에서 나온 은장도에 바늘집에 원앙에 바둑에 / 번들번들하는 노리개는 스르럭스르럭 소리가 나고 / 고개를 몇이라도 넘어서 약물터로 오면 / 약물터엔 사람들이 백재일 치듯 하였는데 / 봉가집에서 온 사람들도 만나 반가워하고 / 깨죽이며 문주며 섶가락 앞에 송구떡을 사서 권하거니 먹거니 하고 / 그러다는 백중 물을 내는 소내기를 함뿍 맞고 / 호주룰하니 젖어서 달아나는데 / 이번에는 꿈에도 못 잊는 봉가집에 가는 것이다 / 봉가집을 가면서도 칠월(七月) 그믐 초가을을 할 때까지 / 평안하니 집살이를 할 것을 생각하고 / 애끼는 옷을 다 적시어도 비는 시원만 하다고 생각한다 <백석, 칠월(七月) 백중, 문장, 1948. 10>

*a 상뇌(傷惱)되다

— 청춘에 상뇌(傷惱)되신 동무를 위하여 <이상화, 마음의 꽃, 백조, 1923. 9>

*a 상렬(喪列)

광풍(狂風)이 휘몰아치는 쑥대밭 위에 / 가슴마다 일렁이는 역정(逆情)의 파도 / 형제들이 틔워놓은 외가닥 길에 / 오늘도 자유(自由)의 상렬(喪列)이 꼬리를 물었오. <구상, 진혼곡(鎭魂曲), 까마귀, 홍익사, 1981>

*a 상암(常闇)

끝없는 준순(逡巡)과 미몽(迷夢)과 도회(韜晦)와 / 회의(懷疑)와 고민(苦悶)의 상암(常闇)이여 / 오, 아시아의 운명(運命)의 밤이여 / 이제 우리들은 부르노니 / 새벽을! / 이제 우리들은 외치노니 / 우뢰(雨雷)를! / 이제 우리들은 비노니 / 이 밤을 분쇄(粉碎)할 벽력(霹靂)을! <오상순, 아시아의 여명(黎明), 공초오상순시선(空超吳相淳詩選), 자유문화사, 1963>

*a 상여개(喪輿盖)

아아 수풀의 스치는 바람은 뉘 한숨이며 / 여울에 우는 강(江)은 누구의 추도(追悼)인가 / 낮별과 밤달의 번가는 제촉(祭燭) / 창공(蒼空)의 상여개(喪輿盖)는 영원(永遠)히 떠 있어라. <조명희, 나그네의 길, 봄 잔디밭 위에, 춘추각, 1924>

*a 상운(相韻)하다

위로 / 단속(團束)의 햇빛 / 깔리는 자갈들 상운(相韻)하고 있고 / 그 푸른 육안(肉眼)들 마주칠 때 / 뼈처럼 삭아 버린 / 내 오뇌(懊惱)의 꽃잎 / 또 보겠네. <이수익, 강변(江邊)에서, 우울한 상송, 삼애사, 1969>

*a 상정(喪庭)

하이얀 옥양목 아느―ㄱ한 채일 안 / 띄끌드 수수(愁愁)에 젖은 정결한 상정(喪庭) <이찬, 분향(焚香), 분향(焚香), 한성도서주식회사, 1938>

*a 새순발

장독 뒤 울밑에 / 목단(牧丹)꽃 오무는 저녁답 / 모과목(木果木) 새순밭에 / 산그늘이 내려왔다 / 워어어임아 워어어임* <박목월, 산그늘, 청록집, 을유문화사, 1946>

*a 생솔가지

어머니. / 눈이 많이 내린 이 겨울 / 나는 고향엘 가고 싶습니다 / 그곳에 가서 다시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 여름 날 당신의 적삼에 배이던 땀과 / 등잔불을 끈 어둠 속에서 당신의 / 얼굴을 타고 내리던 그 눈물을 보고 싶습니다 / 나는 술 취한 듯 눈길을 갑니다 / 설해목(雪害木) 쓰러진 자리 / 생솔가지를 꺾던 눈발의 / 당신의 언 발이 짚어가던 발자국이 남은 / 그 땅을 찾아서 갑니다 / 헌 누더기 옷으로도 추위를 못 가리시던 / 어머니 / 연기 속에 눈 못 뜨고 때시던 / 생솔의, 타는 불꽃의, 저녁나절의 / 모습이 자꾸 떠올

려지는 / 눈이 많이 내린 이 겨울 / 나는 자꾸 취해서 비틀거립니다. <이근배, 겨울행(行)&2&, 노래여 노래여, 문학세계사, 1981>

*a 생인손톱

생인손톱 같은 패랭이꽃 하나 / 머리맡에 깨워 놓고 / 밤새워 꿈틀거리는 / 저 / 만삭(滿朔)의 / 울음. <손종호, 박용래(朴龍來) 1, 숨은 신, 현대문학사, 1994>

*a 서걱이다

하늘에 깔아 논 /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 속삭이듯 서걱이는 /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박남수, 새 1, 신의 쓰레기, 모음출판사, 1964>

*a 서역풍(西域風)

산재(散在)하는 도시(都市)의 빌딩마다가 / 침묵(沈默) 속으로 / 침강(沈降)하는 시간(時間)에 / 나는 거리를 거닌다. / 서역풍(西域風)에 나풀거리던 / 골목마다가 / 희부연 하여지며 / 우산(雨傘) 속에서 / 중얼거리는 소리, / '미라보 다리 아래 세느강(江)은 흐르고……' / 또 나는 / 슬픔처럼 / 말없이 / 악수(握手)를 나눈다 / 바스러지는 빗방울 속으로 / 네가 뛰어 나간 뒤 / 싸늘히 / 그리고 또 싸늘히 / 나는 우산(雨傘)아래서 비를 맞는다 / '……그리고 우리의 사랑도 흐른다' / 사랑은 층계(層階)를 밟고 올라 / 빌딩 위에서 형상화(形象化)하고 / 마지막 도시(都市)는 / 등불을 끈다. / '밤이 오고 종(鍾)이 울리며 / 세월은 흐르는데 / 나는 남고—' <강남주, 우산(雨傘), 해저의 숲, 1973>

*a 서해낙일(西海落日)

무수한 시간들이 밀려와서 부서지고 부서진다. / 바다가 우는 것이라고 보면 우는 것이고 / 아득하다고 하면 하늘 끝은 아득하기만 할 뿐이다. / 억새풀아, 억새풀아 /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바다의 무엇이 그리운 것이냐. / 밀물로 와서 주는 말 / 썰물로 가면서 남기는 말 / 모래톱은 씻기우면서 살 부비면서 쌓이고, / 지나가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 다만 한 순간을 보일 뿐인 서해낙일(西海落日) / 타는 숯덩이 같은 해를 바다가 삼킬 때, / 세상의 적막이 다시 끓어오르는 / 외로움의 끝, 끝에서 사는 것이다. <이근배, 서해안(西海岸), 노래여 노래여, 문학세계사, 1981>

*a 석모(夕暮)

가을 석모(夕暮)는 / 남풍(南風)의 물결 우에 쪽배를 띄워 / 젓고 저어와서 / 넓은 하늘 우에 / 흰구름 조각의 포대기 걸치고 / 키자랄 험(險)상궂은 꿈을 꾸고자는 / 어린 별들의 겨드랑이를 간지리면서 / 일어들나

거라 오오 올빼미같이 낮에 자는 어린 귀여운 별들아 밤은 왔다 / 내 배[舟] 우에 밤을 싣고 왔다 / 서(西)쪽 하늘의 나루 (도선장(渡船場))에서 해를 내려놓고 밤을 싣고 왔다 / 너희들의 그리운 아릿다운 달도 함께 불러왔다 / 일어들나거라 어린 별들아 / 달을 하늘 복판에 앉히고 / 너희들은 일어나 그 달의 앞뒤를 뺑둘러 앉어 / 달의 속삭이는 그 자미(滋味)있는 기—ㄴ 가을밤 이야기를 들어라 <황석우, 별들아 일어나거라, 자연송, 조선문단사, 1929>

*a 석박디

닭이 두 홰나 울었는데 / 안방 큰방은 홰즛하니 당등을 하고 / 인간들은 모두 웅성웅성 깨어 있어서들 / 오가리며 석박디를 썰고 / 생강에 파에 청각에 마늘을 다지고 <백석, 추야일경(秋夜一景), 삼천리문학, 1938. 1>

*a 석빙(石氷)

언제 보아도 산정(山頂) 위에는 바람자고 / 오랜 세월 지고(至高)한 발길 머물은 / 구름의 묘비명. / 거기 새겨 있는 가사 없는 노래를 / 내 어찌 전할 수 있으리. / 해마다 봄은 오고 / 봄은 와서 산정(山頂)의 새들에게 고산식물(高山植物)의 풀씨를 전하고, / 골짜기와 계곡 눈과 얼음 속에서 삼동(三冬) 겨울을 홀로 견딘 / 송이 향기를 내려보내 주건만 / 나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가. / 석빙(石氷) 사이 다시 흘러내리는 냇물과 / 폭포들이 전해주던 노래하는 법, / 혀로서 노래하는 법(法)을. / 해마다 산정(山頂)으로 꽃이 찾아와 / 풀꽃들은 바람에 흠뻑 취해 바람과 동행(同行)하고 / 햇빛은 나뭇가지와 잎새마다 생긴 일을 나날이 보도하네. / 하지만 날개들은 더 먼 해안의 기류를 예감하리. / 해안 기슭으로 수천의 물방울이 도착해서 빛을 만재(滿載)하고 있음을. / 오, 그대들 빛의 하역자들이여. / 본시 그대들의 혀는 말보다도 노래를 위해 태어난 것. / 그대들 혀로서 흠뻑 노래부르고 싶지 않은가. / 딱딱하게 굳어 버린 말을 위하여 그대들 혀는 얼마나 혹사했는가. / 권태와 휴식으로 쓸모없는 팔다리에 피를 다시 돌게 하고 / 오관(五官)을 다시 운행시키고 싶지 않은가. / 봄은 나뭇가지의 오관(五官)을 활동하게 하고 / 잎새들은 꽃들의 활동을 노래하는데, / 그대들, 지상의 거주자들이여, 혀로서 말을 쌓아올리고 / 의미만을 찾던 동공의 심연. / 해마다 봄은 오고 / 봄은 와서 눈꺼풀을 닫게 하고 / 그대들의 삶의 나뭇가지마다 진딧물을 번식시키고 있지 않은가. / 무수한 현인들이 삶의 개화(開花)를 위해 살충제를 뿌리고 / 무수한 철인(哲人)들 또한 성장촉진제를 생각해 왔건만, / 오, 까닭도 없이 생겨난 허공에 / 둥그런 심연, 둥그런 무(無)의 열매. / 이미 일찍이 장자(莊子)의 담장 위에 열려 있었던 것. / 오, 그대들 어리석은 현인(賢人)들, / 서재에 불상을

모신 쇼펜하워, 들길을 거닐며 공자를 가르치던 에머슨, 선방(禪房)에 들어 앉은 레비 스트로스, 니체, 랭보. / 저 모든 유럽 탈출자들. / 그들 또한 지상을 탈출하지 못하고 결국 지상에 묻히지 않았는가. / 오, 그대들, 허공의 탈출자. / 동양의 담장 위에서는 무(無)의 성숙한 열매가 보이고 / 고아한 나뭇가지에는 시인이 빠져 죽은 달이 둥그렇게 / 걸려 있지 않은가. / 그들이 부른 노래는 무(無)의 노래, 가사 없는 노래. / 그것은 차라리 도취의 노래가 아니었는가. <조정권, 산정묘지(山頂墓地) 7, 산정묘지, 민음사, 1991>

*a 석상디기

백구둔(白狗屯)의 눈 녹이는 밭 가운데 땅 풀리는 밭 가운데 / 촌부자 노왕(老王)하고 같이 서서 / 밭최뚝에 즘부러진 땅버들의 버들개지 피어나는 데서 / 볕은 장글장글 따사롭고 바람은 솔솔 보드라운데 / 나는 땅임자 노왕(老王)한테 석상디기 밭을 얻는다 <백석, 귀농(歸農), 조광, 1941. 4>

*a 석조(石棗)꽃

모란순(牡丹筍)이 새의 몸짓을 하고 / 시냇물이 새의 울음을 운다. / 모두가 새를 닮아간다. / 큰 별이 하나 / 꽃밭 같은 은하수를 밀고 가다가 / 새가 되어 날았다. / 행방불명이 된 누나와 / 빌딩과 수상(首相), / 그리고 광화문 네거리의 빈 리어카. / 누구는 역전(驛前)의 육십 계단(六十階段)을 오르다가 / 누구는 무교동 사잇길을 건다가 / 공작이 학(鶴)이 비둘기 제비 멧새가 / 되었다는 얘기 / 강물처럼 넘실거리고, / 일 년쯤 늦게사 돌아온 석조(石棗)꽃. / 나무도 사람도 차(車)도 / 날아오르고 싶으면 / 모두 새가 되었다. <문덕수, 새의 나라, 새벽바다, 성문각, 1975>

*a 석협(石峽)

북대천(北大川)은 관북(關北)의 마음 / 이 물의 근원(根源)은 / 또 어느 산(山) 속이냐 / 물결은 석협(石峽)을 흘러 / 그 소리는 자못 거칠고 / 구름도 얼어 / 얼음 쪽을 뿌리는 날에도 / 산(山) 속에 들리는 소리는 있다 / 돌뿌리에 노(怒)한 소리는 있다 <박재륜, 북대천(北大川), 메마른 언어(言語), 한국북클럽, 1969>

*a 석화(石花)밭

섣달 스무 아흐레 어머니는 시루떡을 던져 앞바다의 흩어진 물결들을 달래었습니다. 이튿날내내 청태(靑苔)밭 가득히 찬비가 몰려왔습니다. 저희는 우기(雨期)의 처마 밑을 바라볼 뿐 가난은 저희의 어떤 관례와도 같았습니다. 만조(滿潮)를 이룬 저의 가슴이 무장무장 숨가빠하면서 무명옷이 젖은 저희 일가(一家)의 심한 살냄새를 맡았습니다. 빠른 물살들이 토방문(土房門)을 빠져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저희는 낮은 연안(沿岸)에 남

아 있었습니다. / 모든 근경(近景)에서 이름 없이 섬들이 멀어지고 늦게 떠난 목선(木船)들이 그 사이에 오락가락했습니다. 저는 바다로 가는 대신 뒤안 장독의 작게 부서지는 파도소리를 들었습니다. 빈 항아리마다 저의 아버님이 떠나신 솔섬 새울음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물 건너 어느 계곡이 깊어가는지 차라리 귀를 막으면 남만(南灣)의 멀어져가는 섬들이 세차게 울고울고 하였습니다. / 어머니는 저를 붙들었고 내지(內地)에는 다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럴수록 근시(近視)의 겨울 바다는 눈부신 저의 눈시울에서 여위어갔습니다. 아버님이 끌려가신 날도 나루터 물결이 저렇듯 잠잠했습니다. 물가에 서면 가끔 지친 물새떼가 저의 어지러운 무릎까지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느 외딴 물나라에서 흘러들어온 흰 상여꽃을 보는 듯했습니다. 꽃 속이너무나 환하여 저는 빨리 잠들고 싶었습니다. 언뜻언뜻 어머니가 잠든 태몽(胎夢)중에 아버님이드나드시는 것이 보였고 저는 석화(石花)밭을 넘어가 인광(燐光)의 밤바다에 몰래 그물을 넣었습니다. 아버님을 태운 상여꽃이 끝없이 끝없이 새벽물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 삭망(朔望)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러나 바람 속은 저의 사후(死後)처럼 더 이상 바람 소리가나지 않고 목선(木船)들이 빈 채로 돌아왔습니다. 해초 냄새를 피하여 새들이 저의 무릎에서 뭍으로 날아갔습니다. 물가 사람들은 머리띠의 흰 천을 따라 내지(內地)로 가고 여인들은 환생(還生)을 위해 저 우기(雨期)의 청태(靑苔)밭 넘어 재배삼배(再拜三拜) 흰떡을 던졌습니다. 저는 괴로워하는 바다의 내심(內心)으로 내려가 땅에 붙어 괴로워하는 모든 물풀들을 뜯어올렸습니다. / 내륙(內陸)에 어느 나라가 망하고 그 대신 자욱한 앞바다에 때아닌 배추꽃들이 떠올랐습니다. 먼 훗날 제가 그물을 내린 자궁(子宮)에서 인광(燐光)의 항아리를 건져올 사람은 누구일까요. <황지우, 연혁(沿革),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문학과지성사, 1983>

*a 선고유예되다

끝끝내 용서할 수 없는, 더러운, 더러운, 더러운 땅. / 이 역사는 반성하지 않았다. 참회하지 않는다. 개전(改悛)의 정도 없이 / 선고유예된 세월. 용서받지 못. 어떻게 그 새끼가 또 나오나? / 털갈이하는 개. 그래, 그래, 잘못은 개인에게 있지 않아. / 바뀐 주인에게 찾아가는 개. 아아, 이제는 성 안으로, / 내 발자취를 냄새 맡고 쫓아오는 개. 이제는 들어갈 수 없어. / 잠든 식구들이여. 내가 떠난 후, 나를 찾지 마라. / 곧 심판의 날이 오리라. 내 형제의 눈에 든 티를 회한의 눈물이 / 몰아내리라, 형제들아, 다음에 올 세상을 믿어라, 티엔티 폭탄 / 트럭을 몰고 달려간 회교도 청년, 화염 속의 내세(來世)로 갔다. / 우리는 아주 느린 걸음으로, 그러나 조금씩조금씩 그곳으로 / 가고

있다. 우리들 한평생을 지렛대로 하여 떠올리는 역사, / 우리가 통곡하며 맨주먹으로 치던 이 무표정한 바위 덩어리. / 숙희야, 너는 지금 이 돌 속의 캄캄한 잠을 자고 있구나. / 대뇌, C-Fibre 속의 너의 내세(來世), 도솔천을 산책하는가? / 내 친족의 그윽한 살냄새로 가득한 안방, 우리가 함께 순장(殉葬)된 / 무덤 같다. 그러나 이 무덤 밖에는 오늘, / 양자강(揚子江) 밤바람이 불고 / 유가족의 가슴을 쥐어뜯는 동해(東海), 파고 1.5M의 밤바다로부터 / 전신에 불 켠 발동선(發動船) 한 척이 돌아오고 있다. / 쉬었다 갈 이 세상으로. / 숙희야, 이 세상은 어느 날, 우리가 그랬듯이 / 네가 안고 있는 이 아이들을 소환할 것이다. / 역사는 이 미감아들을 또한 분노와 슬픔, 격정과 사랑으로 / 감염시킬 것이다. / 내놓아라. 내려놓아라 / 나는 두 아이들을 떼어놓고 두 팔을 아내의 가슴에 / 포개어준다. 옻나무 관에 그대를 입관(入棺)하듯. / 그리고 너와 나, 누구든 하나가 먼저 가겠지만 / 어느 날 네가 죽으면, 내 가슴 지하(地下) 수천 M에 너를 묻으리. <황지우, 잠든 식구들을 보며,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민음사, 1985>

*a 선문(扇門)

내가 죽는 내 / 단테의 연옥에선 어느 선문(扇門)이 열리려나. <김현승, 자화상, 김현승 시전집, 관동출판사, 1974>

*a 선병질성(腺病質性)

밤은 더불어 있지 않고 / 촉루만 희번득이 나타낸다 / 밖으로 드러나는 일체의 요설을 떨치고 / 푸르고 딱딱한 이마만 선명히 돋보이게 한다. / 미류나무가 홀로 이슬에 젖고 있을 때 / 생명있는 것들은 눈을 떠 / 오직 이성(理性)의 차디찬 뼈마디가 / 삐걱거리는 / 그 낭랑한 소리를 듣게 된다. / 순금의 광맥이 보이는 때도, / 밤내 톱니를 가는 불도저에 / 깎이는 땅의 / 땅의 소리 없는 통증을 깨닫게 되는 때도, / 하나의 비유 하나의 비약이 솟고 / 하나의 후회가 꺼지는 때도 / 이때이다. / 밤은 / 개개의 사물에 윤곽을 지어 주고 / 한 초병(哨兵)의 그림자를 만든다. / 정신의 선병질성(腺病質性)엔 약속하지 않지만 / 무덤 속 깊은 사색 / 그 꼿꼿한 채 침묵하는 머리카락들과는 / 함께 노래한다 / 밤은 결코 잠들지 않는다. <신중신, 저 밤의 투명성(透明性), 투창, 현암사, 1977>

*a 선산구목(先山丘木)

이태백(李太白)이 망명(亡命)할 달도 없는 밤. / 허물어진 봉분(封墳)은 여우할미 집일다. 꼬랑지 아홉 돋힌 구미호(九尾狐)년 나와서 해골(骸骨) 박 박박 긁어 머리에 쓰고 재주 한번 넘으면 금시 미인(美人)으로 둔갑(遁甲)도 하고 기울어진 망주석(望柱石) 금이 간 상석(床石) 귀떨어진 동자석(童子石)은 돌아앉아 웃더라. /

향로(香爐) 향합(香盒)에 오줌똥을 깔기고 선산구목(先山丘木)도 제기(祭器)접시도 모조리 팔아먹은 망나니새끼. <김관식, 의고풍(擬古風), 김관식시선, 자유세계사, 1957>

*a 선악일체(善惡一切)

대지(大地)시여, / 어머니시여, / 선악일체(善惡一切), / 모든 물종(物種)의. <남궁벽, 대지(大地)의 찬(讚), 폐허, 1921. 1>

*a 선인교(仙人橋)

선인교(仙人橋) 나린 물은 예같이 흐르는데 / 중화당(中和堂) 삼한국로(三韓國老) 그들은 어디 간고 / 자하곡(紫霞曲) 남은 장단(長短)만 추풍(秋風) 속에 들었더라 <이은상, 자하동(紫霞洞), 노산시조집(鷺山時調集), 한성도서주식회사, 1932>

*a 선창(禪窓)

그대 겨울 깊은 밤을 나는 기억하네. / 선잠 깬 베갯모 눈물자국 / 선창(禪窓)에 내리는 바람소리 / 세상 밖을 흘러가면 / 어디선가 홀연 설해목(雪害木) 넘어지는 소리 / 그때 불붙듯 전생(前生)을 타고 일어서는 / 그대 핏빛 다라니를 나는 기억하네. / 두 뺨을 타고 흐르는 / 깊이 모를 강(江) <손종호, 가사(袈裟)를 기우며, 그대의 벽지, 문학사상사, 1983>

*a 선하품하다

파발에 하얀 파뿌리 / 힐긋힐긋 선하품하면 / 먼 산에 안개도 환히 걷히는 아침. <장서언, 어느 날&3&, 장서언시집, 신구문화사, 1959>

*a 설해목(雪害木)

그대 겨울 깊은 밤을 나는 기억하네. / 선잠 깬 베갯모 눈물자국 / 선창(禪窓)에 내리는 바람소리 / 세상 밖을 흘러가면 / 어디선가 홀연 설해목(雪害木) 넘어지는 소리 / 그때 불붙듯 전생(前生)을 타고 일어서는 / 그대 핏빛 다라니를 나는 기억하네. / 두 뺨을 타고 흐르는 / 깊이 모를 강(江) <손종호, 가사(袈裟)를 기우며, 그대의 벽지, 문학사상사, 1983>

어머니. / 눈이 많이 내린 이 겨울 / 나는 고향엘 가고 싶습니다 / 그곳에 가서 다시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 여름 날 당신의 적삼에 배이던 땀과 / 등잔불을 끈 어둠 속에서 당신의 / 얼굴을 타고 내리던 그 눈물을 보고 싶습니다 / 나는 술 취한 듯 눈길을 갑니다 / 설해목(雪害木) 쓰러진 자리 / 생솔가지를 꺾던 눈밭의 / 당신의 언 발이 짚어가던 발자국이 남은 / 그 땅을 찾아서 갑니다 / 헌 누더기 옷으로도 추위를 못 가리시던 / 어머니 / 연기 속에 눈 못 뜨고 때시던 / 생솔의, 타는 불꽃의, 저녁나절의 / 모습이 자꾸 떠올려지는 / 눈이 많이 내린 이 겨울 / 나는 자꾸 취해서 비틀거립니다. <이근배, 겨울행(行)&2&, 노래여 노래여, 문학세계사, 1981>

*a 성관(城關)

이 승지(勝地) 찾아 들며 바삐 오던 저 사람아 / 돌아서 가는 걸음 어이 저리 더딘게오 / 청형(淸馨)이 성관(城關)에 남았기로 넘지 못해 그리노라 <이은상, 박연(朴淵), 노산시조집(鷺山時調集), 한성도서주식회사, 1932>

*a 성궁미

부뚜막이 두 길이다 / 이 부뚜막에 놓인 사닥다리로 자박수염 난 공양주는 성궁미를 지고 오른다 <백석, 함주시초(咸州詩抄), 조광, 1937. 10>

*a 성병(聖餠)

경애(敬愛)하는 제군, 만일 시저가, 결코 제군이 아니라, 시저가, / 성병(聖餠)의 맛을 경계했다면, 파탄은 좀 더 연기되었을지도 모른다. <임화, 주유(侏儒)의 노래, 현해탄, 동광당서점, 1938>

*a 성부대(聖部隊)

여기는 약소민족(弱小民族) 해방(解放)의 성부대(聖部隊)가 몰고온 / 붉은 도야지떼의 도살장(屠殺場). <김동명, 삼팔선(三八線), 3·8선, 문룡사, 1947>

*a 성사(聖赦)

언니와 / 밤을 밝히던 새벽은 / '성사(聖赦)'를 받는 것 같다 / 내 야윈 빰엔 눈물이 비 오듯 했다 <노천명, 동기(同氣), 창변, 매일신보사, 1945>

*a 성신(星晨)

조국으로 가는 길 / 어데 감히 응지(凝脂) 들어설 자리 있으리 / 다만 땀으로 깎은 육체는 청죽(靑竹) / 청죽(靑竹)마저 멀리 물려 놓고 / 다만 무거이 뜨는 눈 / 하늘에 성신(星晨)을 들이삼킨 / 눈으로 마주치는 / 우리들 잠을 버린 눈으로써 / 다만 내일의 조명을 삼는 게라 <설정식, 무(舞)&3&, 제신(諸神)의 분노, 신학사, 1948>

푸른 풀 / 푸른 드을이여 / 몸부림쳐 문질러 / 뜨거운 것을 조직하라 / 남조선에 푸른 것이여 / 네 어찌 다만 미래같이 푸르고만 있으랴 / 그리고 너 이름 가진 온통 모든 꽃들은 / 하늘이 까맣게 색까맣게 / 성신(星晨)을 엮어 놓 듯 / 산 우에서와 산 아래 / 구릉 이쪽에서 구릉 저쪽에 / 한가지 꿀을 조직하라 / 네 어찌 무슨 염치로 유독 / 요란하게 돌아앉아 / 몰라보게 되어가는 산천을 모른다 하랴 <설정식, 붉은 아가웨 열매를, 제신(諸神)의 분노, 신학사, 1948>

*a 성창(聖槍)

태릉 뒷숲 사격 연습장으로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 외국인들이 찾아온다. / 승마로 단련된 몸매와 사파리

차림으로 / 알아들을 수 있는 음탕한 농지거리. / 그들이 신호를 하면 그녀의 역할은 정해져 있다. / 그녀는 총구 앞에서 누더기가 될 하얀 원반들을 가지고 / 조준선 정렬대 앞으로 나아간다. / 그녀는 늘 하던 대로 원반을 하늘을 향해 멀리 날려 보낸다. / 원반은 우아한 곡선을 그리며 공중으로 솟다가 / 하늘 한가운데에서 날개를 펴며 갑자기 백조로 변한다. / 하늘에서 하얀 날개를 너훌거리며 날아가는 백조들. / 그녀는 눈 감으며 성창(聖槍)을 쥔 수호기사가 자기의 날개를 잡고 하늘로 데려가는 꿈을 꾸다 / 사방의 총 소리에 허공을 짚으며 인공 잔디 위로 곤두박질 친다. / 그녀의 노동은 언제나 능욕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 백조와 같이 땅에 떨어진 삶에다 내던지는 화대. <조정권, 파르지팔*, 신성한 숲, 문학과지성사, 1994>

*a 성처녀

시작은 동해 불가사리, 끝은 서산을 휘저어가는 번개. 가열히 타오르는 소리이고 그 밖이고 그 안입니다. 공포와 오만, 전율과 질투, 부끄러움입니다. 저주이고 강물이고 서러움이고 지옥입니다. 성처녀이고 밀핵이고 폭풍입니다. <최명길, 서시(序詩) 2: 밀애, 반만 울리는 피리, 동학사, 1991>

*a 섶누에번디

이방(異邦) 거리는 / 콩기름 쫄이는 내음새 속에 / 섶누에번디 삶는 내음새 속에 / 이방(異邦) 거리는 / 도끼날 벼르는 돌물레 소리 속에 / 되광대 켜는 되양금 소리 속에 <백석, 안동(安東), 조선일보, 1938. 10>

*a 섶벌

섶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년(十年)이 갔다 /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백석, 여승, 사슴, (자가본), 1936>

*a 세괏다

우리들은 모두 욕심이 없어 희어졌다 / 착하디 착해서 세괏은 가시 하나 손아귀 하나 없다 / 너무나 정갈해서 이렇게 파리했다 <백석, 함주시초(咸州詩抄), 조광, 1937. 10>

*a 세레모니

모의포옹(模擬抱擁)의 세레모니이【세레모니】! / Psychose d'influence 의 네거리에서. <조향, 장미와 수녀(修女)의 오브제, 현대문학, 1958. 12>

지하(地下)로 통하는 층층계. / 물이끼 번져 가고. / 아아라한 옛날의 Hierogramme들이에요. / 죽어간 문명(文明)의 영광(榮光) 위에. / 굴러 떨어지는 세피아의 태양(太陽). / 갸륵한 파국(破局)을 위한 Ceremony【세레모니】의. / 싸이크라멘이 살랑

흔들리는데. / 영구차(靈柩車)의 행렬(行列) 뒤에 물구나무선 최후의 인간(人間) 대열(隊列). <조향, 검은 신화(神話), 문학예술, 1956. 12>

*a 세신하다

영등포는 / 갈대가 바람에 사각거리는 포구였다. / 오늘은 / 나직한 이 자리에서 예감이 / 딸기밭같이 점등되고 있다. / 저쪽 병영의 잔잔한 불빛을 / 지나면 / 여자들의 소리가 흐른다. / 영등포의 밤을 밝히며 누구에겐가 속삭이고 있다. / 아마 남자겠지, / 낮엔 무슨 일을 하고 / 어떻게 지냈는지 몰라도 / 밤에는 대개가 그렇고 그럴 테지, / 공장의 바퀴 소리와 / 둔탁한 쇠망치 소리들이 / 어쩌면 검은 달빛 번진 이 지대 지붕 아래, / 변두리의 저 작은 불빛 속에서도 / 지금은 / 발열하고 있다. / 하루의 노동 다음의 거친 술잔과 / 몸뚱아리로 부딪친 쇠잔한 낡은 기운이 / 제 집을 찾았겠지, / 제 집에서 세신하고 있겠지, / 차츰 여자들의 소리는 높았다 죽어가고 / 마지막 미력도 / 밤을 지새며 웅웅거리는 굉음 속에 빨려 / 적나라한 / 나머지의 잠 속에 침몰한다. / 아, 붉은 아름다움의 도시, / 낮일과 밤일에 젖는 검붉은 대기며 / 흐릿한 달빛 번진 / 영등포의 기질 한가운데에서 / 예감은 어떤 사건을 만나고 싶다, / 군데군데 썩어 문드러져도 / 영등포는 포구! / 무수한 점등을 하다가 망하고 싶다. <정공채, 영등포 기질 3, 땅에 글을 쓰다, 신원문화사, 1990>

*a 세잔느

네모진 책상 / 흰 벽 위에 삐뚜러진 세잔느 한 폭. <김기림, 첫사랑, 기상도, (자가본), 1936>

*a 셔만호

쏟아진 하얀 피. 초사흘 달밤을 / 토해 낸 기적(汽笛)이 흩어지고 / 희미한 포대의 불빛이 흩어지고, / 화약 냄새를 맡으면서 나는 / 셔만호의 굴뚝을 향해 총을 / 겨눴다. <오세영, 불 5, 반란하는 빛, 현대시학사, 1970>

*a 소군(昭君)

난초(蘭草), 푸른 꿈을 안은채…… / 아하, 너는 소군(昭君)같이 슬펐으리. / 만세(萬歲)의 옛 인연(因緣)을 절하며 / 맞는 마음을 아느뇨. <김동명, 난초(蘭草), 하늘, 문릉사, 1948>

*a 소롯하다

새 종이 내음과 / 라일락꽃 소롯한 향기에 묻힌 / 늪 <정한모, 꽃의 탄생(誕生), 원점(原點)에 서서, 문학사상사, 1989>

*a 소뿔등잔

접시 귀에 소기름이나 소뿔등잔에 아주까리 기름을 켜는 마을에서는

겨울밤 개 짖는 소리가 반가웁다 <백석, 개, 현대조선문학전집, 1938>

*a 소상동정(瀟湘洞庭)

납향(臘享)도 지낸, / 눈빛 새하얀 섣달 단대목. / 한겹 장지 밖 울부짖는 저 바람 속 / 사나운 눈보라 성가시게 보채쌓고. / 아내도 없이 홀아빗내 풍기는 비인 내 토실(土室). 아랫목 한귀퉁이 분(盆)에 섰는 너에게 / 정성스레 핫옷을 내어 입히다. / 천정에 쥐란 놈이 엿볼 겨를에—. / 악마딘 덩그렇게 가는 가지에 흰나비 몇 마리 건성드뭇 붙어 앉은 얼마 안되는 화판(花瓣)이라 할지라도 / 알만 모를만 가만히 새어나오는 말할 수 없는 느긋한 향기(香氣). / 희한한 일은 희한한 일이다. 하물며 이 세한(歲寒)에…… / 다로(茶爐)에 김이 서리고 항아릿 술이 괴어오르는 밤. / '달 밝고 서리 친 밤에 울고 가는 저 기럭아 소상동정(瀟湘洞庭) 어데 두고……' / 무릎 장단에 한배도 치렁치렁 사설(辭說) 한 가락 서럽게 뽑아, / 오호! 가장 순수한 정신(精神)이여. 정신(精神)이여. / 너의 곁에서 널 본받아 / 가난한 내 영혼(靈魂)은 / 고요한 하늘나라 저승 끝까지. <김관식, 고매(古梅), 김관식시선, 자유세계사, 1957>

*a 소스듬

몇 킬로 휘달리고 나서 거북처럼 흥분한다. / 징징거리는 신경방석 위에 소스듬 이대로 견딜 밖에. <정지용, 유선애상(流線哀傷), 백록담, 문장사, 1941>

*a 소원감(疎遠感)

손을 씻는다 / 대야 가득 햇살이 내리고 / 한 줄기 빛처럼 / 맑아 오는 의식, / 나는 메스를 들고 / 의식의 어두운 곳을 파헤친다. / 곳곳에 불꺼진 램프가 뒹굴고 / 갑자기 캄캄함의 혼란, 검은 박쥐의 날개짓처럼 / 내 미지(未知)의 깊은 살 속 / 둥둥 떠다니는 기호(記號), / 나는 그 획의 / 마지막 끈을 붙잡는다. / 침상에 고요히 누워서는 / 내 뿌리 깊은 병(病)은 치유되지 않고 / 밤만 무심히 깊어간다. / 밤이 깊어진 지도 꽤 오래 돼 / 아픔은 이제 의식과 / 내 육신의 소원감(疎遠感), / 나는 열 손가락에 묻은 햇살을 / 살 속 깊이 비벼 넣는다. / 램프마다 불이 댕기고 / 허옇게 드러나는 뼈와 살, / 뼈 속 숨은 잘못을 밝히듯 / 신경의 올마다 매어달린 / 무신경의 잠, / 핀세트의 한 끝으로 집어내면 / 빈 접시 가득 / 나신(裸身)의 언어들이 모여 와글거린다. / 아, 빈 접시를 핥는 식욕(食慾) / 얼마나 황홀한가. / 그러나 나는 지금 병중(病中)이고 / 밤새 들추는 페이지마다 힉힉 웃는 / 붉은 줄 그은 귀절들, / 내 잘못은 무엇인가. / 한웅큼씩 집어내 / 알코올에 적셔 말끔히 씻어내면 / 돋보기에 비치는 내 육신의 / 살 한 점, / 비린내 가셨을까. / 거기, 넌출처럼 뻗고 뻗은 핏줄에 / 혈

액의 순수액(純粹液)이 솟구칠 때 / 다시 시작하는 작업(作業), / 나는 아직 살아있다. <이인해, 해부교실(解剖敎室) Ⅰ, 사랑법, 민족문화사, 1983>

*a 소의연

오리야 고운 오리야 가만히 안겼거라 / 너를 팔아 술을 먹는 노(盧)장에 영감은 / 홀아비 소의연 침을 놓는 영감인데 / 나는 너를 백통전 하나 주고 사 오누나 <백석, 오리, 조광, 1936. 2>

*a 속리(俗離)

속리(俗離)의 골짜기를 몇번 굽어 석굴(石窟)에서 그치면, / 탐조등의 광선같이 가는 줄이 둬 가닥, / 그래도 골 속은 그대의 얼굴을 알아보겠다. <박세영, 은폭동(隱瀑洞), 산제비, 중앙인서관, 1938>

큰 가람(伽藍) 자리했기에 산도 깊어 속리(俗離)러뇨 / 시월 풍림(十月楓林)에 불을 지른 야반종성(夜半鐘聲) / 바람도 소소히 저서 갈대꽃을 흩노라네. <정완영, 법주사(法住寺), 묵로도, 1972>

*a 속신(俗神)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 / 놓쳐버린 시간 / 그렇게 비가 내린다 / 따뜻한 침묵의 모정(母情)이 / 속신(俗神)으로 스며온다 <박이도, 침묵, 바람의 손끝이 되어, 문학예술사, 1981>

*a 송영(頌榮)

사람아 사람아 게으른 사람 / 귀 숙여 우리말 들어를 보게 / 저즘게 고초(苦楚)를 무릅쓰고서 / 정성(精誠)을 다하야 공(功) 이룬 것이 / 이(利)되나 해(害)되나 생각하건대 / 송영(頌榮)과 칭예(稱譽)의 이(利) 뿐이로다 / 초당(草堂)에 편(便)한 잠 탐(貪)하였더면 / 너 같이 무용건(無用件) 되었겠구려. <최남선, 벌[蜂, 1908. 12>&4& / 소년]

*a 송원(松園)

성의(聖衣)의 자락처럼 / 침묵(沈默)의 무거운 송원(松園)의 밤. <오일도, 송원(松園)의 밤, 삼천리문학, 1938. 4>

*a 송중(送中)

떠남도 허락하고 / 돌아감도 허락한다 / 떠나는 길과 끝나는 길이 / 만나서 / 모든 송중(送中)의 하늘에 / 별을 빛나게 하고 / 흘러가는 모든 것들을 / 한 번의 폭포로 노래하게 한다. <정현종, 집&6&, 고통의 축제, 민음사, 1974>

*a 쇠드랑별

달빛도 거지도 도적개도 모두 즐겁다 / 풍구재도 얼룩소도 쇠드랑별도 모두 즐겁다 <백석, 연자간, 조광, 1936. 3>

*a 쇠든밤

또 이러한 밤 같은 때 시집갈 처녀 막내고무가 고개 너머 큰집으로 치장감을 가지고 와서 엄매와 둘이 소기름에 쌍심지의 불을 밝히고 밤이 들도록 바느질을 하는 밤 같은 때 나는 아룻목의 삿귀를 들고 쇠든밤을 내어 다람쥐처럼 밝어 먹고 은행여름을 인두불에 구워도 먹고 그러다는 이불 위에서 광대넘이를 뒤이고 또 누워 굴면서 엄매에게 웃목에 두른 병풍의 새빨간 천두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고무더러는 밝는 날 멀리는 못 난다는 메추라기를 잡아 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백석, 고야(古夜), 사슴, (자가본), 1936>

*a 쇠주푀적삼

마을에서는 세 벌 김을 다 매고 들에서 / 개장취념을 서너 번 하고 나면 / 백중 좋은 날이 슬그머니 오는데 / 백중날에는 새악시들이 / 생모시치마 천진푀치마의 물팩치기 껑추렁한 치마에 / 쇠주푀적삼 항라적삼의 자지고름이 기드렁한 적삼에 / 한끝나게 상나들이옷을 있는 대로 다 내 입고 / 머리는 다리를 서너 켜레씩 들어서 / 시뻘건 꼬둘채댕기를 삐뚜룩하니 해 꽂고 / 네날백이 따배기신을 맨발에 바꿔 신고 / 고개를 몇이라도 넘어서 약물터로 가는데 / 무썩무썩 더운 날에도 벌 길에는 / 건들건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 허리에 찬 남갑사 주머니에는 오랜만에 돈푼이 들어 즈벅이고 / 광지보에서 나온 은장도에 바늘집에 원앙에 바둑에 / 번들번들하는 노리개는 스르럭스르럭 소리가 나고 / 고개를 몇이라도 넘어서 약물터로 오면 / 약물터엔 사람들이 백재일 치듯 하였는데 / 붕가집에서 온 사람들도 만나 반가워하고 / 깨죽이며 문주며 섶가락 앞에 송구떡을 사서 권하거니 먹거니 하고 / 그러다는 백중 물을 내는 소내기를 함뿍 맞고 / 호주를하니 젖어서 달아나는데 / 이번에는 꿈에도 못 잊는 붕가집에 가는 것이다 / 붕가집을 가면서도 칠월(七月) 그믐 초가을을 할 때까지 / 평안하니 집살이를 할 것을 생각하고 / 애끼는 옷을 다 적시어도 비는 시원만 하다고 생각한다 <백석, 칠월(七月) 백중, 문장, 1948. 10>

*a 쇠척(衰瘠)하다

어슴프레한 / 내 마음의 골짜기로 / 연기(煙氣)같은 암류(暗流)가 / 배암떼처럼, 근지럽게 / 휘감아 좁아드니, / 내 넋의 허리는 / 갈대처럼 쇠척(衰瘠)하여지며, / 영겁(永劫)의 독아(毒牙)에 / 생(生)의 욕망(慾望)을 갉아먹히고 / 신념(信念)의 폐부(肺腑)는 벌집[蜂巢]처럼 회의(懷疑)의 구멍이 뚫어져갈 때, / 하늘은 무너져 내리고 / 땅이 깊이없이 빠지니, / 이 몸은 티끌과 같이 / 방향(方向)없이 떠돌다가 / 사색(思索)의 구렁텅이에 거꾸로 빠지다. / 어슴프레한 /

생(生)의 넓은 벌판에 내가 넘어지니, / 비도 없는, 검은 구름이 모여들어 / 용광로(鎔鑛爐) 속 같은 저기압(低氣壓)에 / 내 맘이 썩으니, 구더기의 합창(合唱)이 벌떼처럼 일어나도다. / 웃음과 즐거움이 / 가랑잎처럼 날아가고 / 봄과 겨울이 없는 이 골짜기에, / 나는 죽은 듯이 앉아서 끄덕일 때 / 질식(窒息)할 듯한 음풍(陰風)의 손이 내 가슴을 만지며 지나간다. / 거화(炬火)를 켜려고 / 불을 켜나, 수없이 꺼지니 / 이는 때때로 생(生)의 암류(暗流)런가, / 우울(憂鬱)은 악마(惡魔)의 한숨인가 하노라. <박영희, 우울(憂鬱)&2&, 회월시초, 조선문화사, 1937>

*a 수국색(水菊色)

□ Ⅷ. 수국색(水菊色) <박목월, 사력질(砂礫質), 무순(無順), 삼중당, 1976>

지금도 너는 하늘 근처 / 잠자는 내 머리맡에 / 수국색(水菊色) 머리를 풀고 있는데 <김영태, 꿈&3&, 북호텔, 민음사, 1979>

*a 수기(愁氣)

수기(愁氣)에 물들지 않은 / 명랑한 석양 / 남부 고려의 한 촌락이 / 유(柔)한 바람에 미소한다 <모윤숙, 밀밭에 선 여자, 옥비녀, 동백사, 1947>

*a 수로부인(水路夫人)

수로부인(水路夫人)의 탄성(嘆聲)을 발한다. <구상, 추풍령(秋風嶺), 유치찬란, 삼성출판사, 1990>

백결(百結)선생이나 수로부인(水路夫人), / 서산대사(西山大師)나 사임당(師任堂)을 모르듯이 <구상, 잡초송(雜草頌), 구상연작시집, 시문학사, 1985>

생일날에만 오는 / 그리운 수로부인(水路夫人) / 바늘구멍 같아라. <이성교, 해안선(海岸線) 1, 겨울바다, 문원사, 1971>

*a 수로천리(水路千里)

오다가다 길에서 / 만난 이라고, / 그저 보고 그대로 / 예고 말 건가. / 산(山)에는 청청(靑靑) / 풀잎사귀 푸르고 / 해수(海水)는 중중(重重), / 흰 거품 밀려든다. / 산(山)새는 리리 / 제 흥(興)을 노래하고 / 바다엔 흰 돛 / 옛길을 찾노란다. / 자다께다 꿈에서 / 만난 이라고 / 그만얫고 그대로 / 갈 줄 아는가. / 십리포구(十里浦口) 산(山) 넘어 / 그대 사는 곳, / 송이송이 살구꽃 / 바람에 논다. / 수로천리(水路千里) 먼 길을 / 왜 온 줄 아나? / 옛날 놀던 그대를 / 못 잊어 왔네. <김억, 오다가다, 안서시초, 박문서관, 1941>

*a 수류화개(水流花開)

공산(空山)에 사람 없고 수류화개(水流花開) 뿐이로다 / 희암(希菴)의 노든 그때 글씨 아니 머무른가 / 허랑

(虛凉)은 예런듯한대 간 일 아득하고녀 / 아심도 많거니와 영롱(玲瓏)함도 짝이 없네 <정인보, 소광암(昭曠巖), 담원시조, 을유문화사, 1948>

*a 수림(藪林)

그러나 재미있는 성품을 가진 구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넘어 오고 있습니다그려— / 저걸 좀 보세요. 칠면조 웅변가 식인조— / 모두 우습게 평화와 자유를 그러나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 납작한 푸른 캡을 쓴 버스가 포플러의 정거장에 머무는 오후가 오면, / 저 구름들은 고산식물과 먼 해협을 건너 식인조의 수림(藪林)을 찾아간다 합니다. / 그러니, 참새들은 암만 바라보아야 누구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 토론회는 어떻게 되었는지 군축회의같이 흩어져 버리는구먼. <김현승, 새벽 교실, 동아일보, 1936. 6>

*a 수병(水甁)

아련히 번져 내려 / 구슬을 이루었네. / 벌레들 살며시 / 풀포기를 헤치듯 / 어머니의 젖빛 / 아롱진 이 수병(水甁)으로 / 이슥고 이르렀네. <구자운, 청자수병(靑磁水甁), 벌거숭이 바다, 창작과비평사, 1976>

*a 수상학(手相學)

아닌 밤중 나는 잠을 잃고 내 야윈 손을 들여다본다. 무엇에다 견주어 보자는 듯이 한참이나 들여다보다가는 십 촉 등(燈) 희미한 벽에 쓰러지듯 붙여 본다. 벽에는 서리가 싸늘하게 앉아 있었던 건지 너무나 그 차가움에 놀라 붙였던 손을 떼어 버린다. / 그 이가 시린 촉감을 잊어버릴려고 힘껏 주먹을 쥐어 본다. 입김을 불어 본다. 열이 오른다. 나는 다시 가만히 벽에다 손을 대어 본다. 멱은 그대로 차가웁다. 손을 뗀다. 한참을 다시 편 손을 들여다본다. 내 손에는 어찌 그렇게도 잔금이 많은지 수상학(手相學)이 그러는데 이 잔금이 액운이라든가. 나는 이 {액운의 금}에서 벽의 체온을 찾으려고 했다. 잊혀지지 않는 그 차가움이 어쩐지 그리워졌기 때문이다. 여니와 무엇도 없이 손에 쥐어진 것은 식은땀과 영양부족과 액운의 금뿐이다. 이제는 어찌할 수 없이 ○의 ○○을 그리워 아니치 못하여 또다시 손을 대어 본다. 벽은 오히려 나의 심장에서부터 차가워 오는 것이다. 딴은 내 심장이 이미 식어져 ○○에 옮겨간 것인지도 모른다. / 나는 흥분한다. 손바닥은 가느다란 고동(鼓動)을 느낀다. 손이 숨을 쉰다. 벽이 숨울 쉰다. 벽이 가느다란 숨을 내뿜으면 나의 폐부(肺腑)는 가느다란 숨을 내뿜고 벽이 또 크게 숨을 들이키면 내가 또 크게 들이킨다. / 아닌 밤중에 산짐승이 다 죽었는데 나는 벽과 마주앉아 뉘하고도 나누어 가질 수 없는 이 싸늘한 체온 아닌 심장을 벽에다 갈라놓고 심야의 적요(寂寥)를 깨물어 본다. <박양균, 벽(壁)&3&, 두고온 지표, 춘추사, 1952>

*a 수수빗자루

안마당이나 봉당을 쓸다가 잠시 기대 선 / 싸리빗자루 하나 수수빗자루 하나 보이질 않는 / 참말로 저 하늘과도 같이 / 활짝 열린 대문 안이다 <김정웅, 천로역정(天路歷程), 혹은: 문(門), 천로역정, 혹은, 문학과지성사, 1988>

*a 수심(羞心)

붉은 연지 꽃처럼 진하게 칠하며 / 웃어도 보는 / 뉘라서 알까만 배율(背律)의 수심(羞心) <홍윤숙, 풍차(風車), 풍차, 신흥출판사, 1964>

*a 수양강화(修養講話)

라디오의 수양강화(修養講話)가 끝이 났는지? / 마—장 구락부 문간은 하품을 치고 / 삘딩 돌담에 꿈을 그리는 거지 새끼만 / 이 도시의 양심을 지키나 보다 <이육사, 실제(失題)&5&, (미발표), 1935. 12>

*a 수적(竪的)

세상에 만족이 있기는 있지마는, 사람의 앞에만 있다. / 거리는 사람의 팔 길이와 같고, 속력은 사람의 걸음과 비례가 된다. / 만족은 잡을래야 잡을 수도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도 없다. / 만족을 얻고 보면 얻은 것은 불만족이요, 만족은 의연히 앞에 있다. / 만족은 우자(愚者)나 성자(聖者)의 주관적 소유가 아니면, 약자의 기대뿐이다. / 만족은 언제든지 인생과 수적(竪的) 평행(平行)이다. / 나는 차라리 발꿈치를 돌려서 만족의 묵은 자취를 밟을까 하노라. <한용운, 만족, 님의 침묵, 회동서관, 1926>

*a 수전벽해

아니란다 아니란다 잊은 것은 아니란다 / 가는 세월 속에서도 잊은 것 아니란다 / 길 가로막혀도 올 것은 오고 / 수전벽해라 해도 남는 것은 남는단다 / (어이 넘차 어허 넘차 어허어이 넘차) <고정희, 서울 사랑 -1-, 이 시대의 아벨, 문학과지성사, 1983>

*a 수중방사(水中房事)

지상의 정사(情事)로선 / 만족할 수 없어, / 수중방사(水中房事)를 위해 / 겁없이 강물에 몸을 던졌다. <김시종, 이설논개(異說論介), 얼굴 없는 여인, 시문학사, 1990>

*a 수차보(修車譜)

천 길 땅 속에 잠자던 쇠붙이의 원음을 / 칠흑같이 어두운 밤 / 늙은 검차원 하나 / 낡아빠진 수차보(修車譜)에 적어 넣는다 <김명수, 검차원(檢車員), 월식, 민음사, 1980>

*a 수탄장(愁嘆場)

이곳은, 바로 탁류(濁流)가 밤공기를

짜개는 이곳은, / 소란한 말굽소리가 대지(大地)를 흔들어 놓을 때마다 / 이적(夷狄)의 창(槍)과 화살을 막어, 물리치든 자연(自然)의 대참호(大塹濠) 엿고, / 아침햇빛 맞은 지붕에 입 맞추고 있는 한쌍의 비둘기에 눈을 줄만한 평화(平和)한 때면 / 가을 달 나린 물 우에 천만 사랑의 노래를 불러 띄워 보내든 곳이다. / 한데, 아 마땅히 숭엄(崇嚴)함에 머리를 숙일만 한데, 이것이 웬 일일까, / 한번 싸움에 진 수탉이 항상 쫓기우듯이 / 오늘에는 다못 서러운 눈물의 수탄장(愁嘆場)이 되고 말았단 말이. <황순원, 압록강(鴨綠江)의 밤이어, 방가(放歌), 동경학생예술좌 문예부, 1934>

*a 수태자(受胎者)

아시아는 밤이 지배한다 그리고 밤을 다스린다 / 밤은 아시아의 마음의 상징(象徵)이요 아시아는 밤의 실현(實現)이다 / 아시아의 밤은 영원(永遠)의 밤이다, 아시아는 밤의 수태자(受胎者)이다 / 밤은 아시아의 산모(産母)요 산파(産婆)이다 / 아시아는 실(實)로 밤이 낳아 준 선물이다 / 밤은 아시아를 지키는 주인(主人)이요 신(神)이다 / 아시아는 어둠의 검이 다스리는 나라요 세계(世界)이다. <오상순, 아시아의 마지막 밤 풍경(風景), 공초오상순시선(空超吳相淳詩選), 자유문화사, 1963>

*a 수표(水標)다리

호젓한 걸음 도깨비팔 무섭지 안소? / 진딴다 거리의 짜쓰 귀가저리네 / 일부러 맞는 함박눈 옷 젖은들 대수요! / 길 넘은 수표(水標)다리 구정물 몇 자 몇 치…… <홍사용, 호젓한 걸음, 삼천리, 1939. 4>

*a 수호졸(守護卒)

대양과 같이 푸른 잎새를, / 그 젊은 수호졸(守護卒) 만산(滿山)의 초화(草花)를, / 돌바위 굳은 땅 속에 파묻은 바람은, / 이제 고아인 벌거벗은 가지 위에 소리치고 있다. / 청춘에 빛나던 저 여름 저녁 하늘의 금빛 별들도 / 유명(幽冥)의 하늘 저쪽에 흩어지고, / 손톱같이 여윈 단 한 개의 초생달, / 그것조차 지금은 '레테'의 물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가? <임화, 암흑의 정신, 현해탄, 동광당서점, 1938>

*a 숙정(肅靜)되다

물은 물이지……그 밖에 더 무슨 할 말 있겠는가……는 생각, 또 생각, 생각하면 무엇하나, 이 역시 이미 소문(所聞)에 나 버린 아주 숙정(肅靜)된 말씀인데…… 그래? 그렇다면 <박남철, 자유(自由)……로운 잡념(雜念), 지상의 인간, 문학과지성사, 1984>

*a 순수액(純粹液)

손을 씻는다 / 대야 가득 햇살이 내리고 / 한 줄기 빛처럼 / 맑아 오는

의식, / 나는 메스를 들고 / 의식의 어두운 곳을 파헤친다. / 곳곳에 불 꺼진 램프가 뒹굴고 / 갑자기 캄캄함의 혼란, 검은 박쥐의 날개짓처럼 / 내 미지(未知)의 깊은 살 속 / 둥둥 떠다니는 기호(記號), / 나는 그 획의 / 마지막 끈을 붙잡는다. / 침상에 고요히 누워서는 / 내 뿌리 깊은 병(病)은 치유되지 않고 / 밤만 무심히 깊어간다. / 밤이 깊어진 지도 꽤 오래 돼 / 아픔은 이제 의식과 / 내 육신의 소원감(疎遠感), / 나는 열 손가락에 묻은 햇살을 / 살 속 깊이 비벼 넣는다. / 램프마다 불이 댕기고 / 허옇게 드러나는 뼈와 살, / 뼈 속 숨은 잘못을 밝히듯 / 신경의 올마다 매어달린 / 무신경의 잠, / 핀세트의 한 끝으로 집어내면 / 빈 접시 가득 / 나신(裸身)의 언어들이 모여 와글거린다. / 아, 빈 접시를 핥는 식욕(食慾) / 얼마나 황홀한가. / 그러나 나는 지금 병중(病中)이고 / 밤새 들추는 페이지마다 히히 웃는 / 붉은 줄 그은 귀절들, / 내 잘못은 무엇인가. / 한웅큼씩 집어내 / 알코올에 적셔 말끔히 씻어내면 / 돋보기에 비치는 내 육신의 / 살 한 점, / 비린내 가셨을까. / 거기, 넌출처럼 뻗고 뻗은 핏줄에 / 혈액의 순수액(純粹液)이 솟구칠 때 / 다시 시작하는 작업(作業), / 나는 아직 살아있다. <이인해, 해부교실(解剖敎室) Ⅰ, 사랑법, 민족문화사, 1983>

*a 순정(純情)하다

텨……ㄹ썩, 텨……ㄹ썩, 텨ㄱ, 쏴……아. / 저 세상(世上) 저 사람 모두 미우나 / 그 중(中)에서 똑 하나 사랑하는 일이 있으니 / 담(膽)크고 순정(純情)한 소년배(少年輩)들이, / 재롱(才弄)처럼, 귀(貴)엽게 나의 품에 와서 안김이로다. / 오나라 소년배(少年輩) 입 맞춰 주마 / 텨……ㄹ썩, 텨……ㄹ썩, 텨ㄱ, 튜르릉, 콱. <최남선, 해(海)에게서 소년(少年)에게, 소년, 1908. 11>

*a 순준(巡逡)

상인(霜刃)으로 심장(心臟)을 헤쳐 / 사특, 오만(傲慢), 미온(微溫), 순준(巡逡) 에어 버리면 / 순진(純眞)과 결백(潔白)에 빛나는 넋이 / 구슬처럼 새 아침에 빛나기도 하려니…… <김상용, 태풍(颱風), 망향, 문장사, 1939>

*a 순지(純紙)

순지(純紙) 같은 사람을 생각한다. / 구수하게 푸짐한 인간성(人間性). / 그런 사람이 쉽사리 / 있을 것 같지 않지만 / 어리숙한 나무를 생각한다. / 나무는 다 어리숙하지만 / 하다못해 넉넉한 신발을 생각한다. / 발이 죄이지 않는 / 편안한 신발도 쉽지 않지만 / 큼직한 그릇을 생각한다. / 아무렇게나 주물러 / 소박하게 구어 낸 / 그런 그릇은 쓸모 없지만 / 순지(純紙)를 생각한다. / 순지(純紙)로 / 안을 바른 / 은근하게 내명(內明)한 / 사람을 생각한다. / 그런 사람

이 쉽지 않지만 / 말 오줌 냄새 찌릿한 / 투박하고 푸짐한 / 한국(韓國)의 순지(純紙). <박목월, 순지(純紙), 경상도의 가랑잎, 민중서관, 1968>

순지(純紙) 같은 사람을 생각한다. / 구수하게 푸짐한 인간성(人間性). / 그런 사람이 쉽사리 / 있을 것 같지 않지만 / 어리숙한 나무를 생각한다. / 나무는 다 어리숙하지만 / 하다못해 넉넉한 신발을 생각한다. / 발이 죄이지 않는 / 편안한 신발도 쉽지 않지만 / 큼직한 그릇을 생각한다. / 아무렇게나 주물러 / 소박하게 구어낸 / 그런 그릇은 쓸모 없지만 / 순지(純紙)를 생각한다. / 순지(純紙)로 / 안을 바른 / 은근하게 내명(內明)한 / 사람을 생각한다. / 그런 사람이 쉽지 않지만 / 말 오줌 냄새 찌릿한 / 투박하고 푸짐한 / 한국(韓國)의 순지(純紙). <박목월, 순지(純紙), 경상도의 가랑잎, 민중서관, 1968>

*a 순환열차

여름엔 우산들이 / 서로 다툰다, 흐린 하늘을 받들고서 / 뜰을 지나서 장미를 달고 / 여름엔 우산들이 / 깨끗한 빗발의 탄력을 뚫는다. / 젖은 바지인 채 사나이들이 / 붉은 술잔으로 가슴을 쓸어내릴 때 / 장미 향기 / 가슴에서 목까지 가득 풍긴다. / 한 여자는 저 거리로 / 가슴을 흔들며 쫄랑거리며 / 깜깜히 뛰어갔지만 / 여름엔 우산들이 / 순환열차의 끝으로 간다. / 뜰을 돌아서 씻겨 온 향기, / 맑게 열린 그대의 눈알 속에서 / 여름엔 우산들이 / 다시 꺼졌다 다시 켜지고 / 발가락 사이에선 / 떨어져 내리는 젖은 모래알. / 벗은 옷에선 / 한없는 비 냄새. / 여름엔 우산들이 / 알몸인 채 그대와 바다로 간다. <마종하, 여름엔 우산들이, 노래하는 바다, 민족문화사, 1983>

*a 쉬르레알리즘

좋은 칼을 만들자면 좋은 강철을 구해야 한다. 좋은 강철이란 오랫동안 음습한 골방에 갇혀 빛을 보지 못한 강철이다. 일생 일대의 명도(名刀)를 만들려는 도공(刀工)은 그래서 강철을 일부러 땅에 묻고 세월을 보낸다. 이 거짓말 같은 참말은 돈키호테의 나라 에스파니아의 총포 제작자들에 의해 실증되고 있다. 거기서는 편자를 가리키는 Herraduras라는 말이 한편으론 성능 좋은 기병총의 총신을 뜻하기도 한다. 편자, 곧 총신인 것이다. 쉬르레알리즘의 은유처럼 당돌한 이 이질적인 양자의 결합에는 그러나 실제적인 이유가 있다. 즉 에스파니아에서는 노새의 낡아빠진 그러기에 버림받아 녹이 슨 편자를 모아 질좋은 소총의 그 총신을 만들기 때문이다. 녹슨 쇠는 병든 쇠, 그 병을 가령 건성(乾性) 괴저(壞疽)라 한다면 녹은 까실까실 마른 채 허물어져가는 세포 조직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이 병든 쇠가 병들지 아니한 정상적인 쇠보다 인성(靭性)이 강

해서 편자 곧 총신이 되는 이 엄연한 현실! 번쩍이는 칼날의 냉혹한은 녹슬고 부스러져 파멸하는 강철의 실은 깊이 감추어진 본성이다. <이형기, 편자, 보물섬의 지도, 서문당, 1985>

*a 쉬영꽃

그래도 그 쉬영꽃 진달래 빨가니 핀 꽃바위 너머 / 산(山)잔등에는 가지취 뻐꾹채 게루기 고사리 산(山)나물판 / 산(山)나물 냄새 물씬물씬 나는데 / 나는 복장노루를 따라 뛰었다 <백석, 산(山)&9&, 새한민보, 1947. 11>

*a 스코올

나의 시간에 스코올과 같은 슬픔이 있다 / 붉은 지붕 밑으로 향수가 광선을 따라가고 / 한없이 아름다운 계절이 / 운하의 물결에 씻겨갔다 <박인환, 거리, 박인환 시선집, 산호장, 1955>

*a 습복(慴服)하다

애초에 인간이 스스로의 이마를 쪼아서 뚫어 발견한 창(窓)같이 석류열매가 또한 스스로의 세계의 개벽(開闢)을 가르는 것을 볼 때마다 / 그리고 밤송아리 터질 때마다 / 나는 그들의 뒤에 누워 있는 너의 권위에 습복(慴服)하였다 <설정식, 또 하나 다른 태양, 종(鐘), 백양사, 1947>

*a 승앙(昇昂)

금강! 너는 완미한 물(物)도 허환(虛幻)한 정(精)도 아닌—물과 정의 혼융체 그것이며, 허수아비의 정(靜)도 미쳐 다니는 동(動)도 아닌—정과 동의 화해기 그것이다. 너의 자신이야 말로 천변만화(千變萬化)의 영혜(靈慧) 가득 찬 계시이어라. 억대조겁(億代兆劫)의 원각(圓覺)덩어리인 시편이어라. 만물상이 너의 혼융에서 난 예지가 아니냐. 만폭동이 너의 지해(知諧)에서 난 선율이 아니냐. 하늘을 어루만질 수 있는 비로(毘盧)—미륵이 네 생명의 승앙(昇昂)을 보이며 바다 밑까지 꿰뚫은 팔담(八潭), 구룡이 네 생명의 심삼(深滲)을 말하도다. <이상화, 금강송가(金剛頌歌), 여명, 1925. 9>

*a 승첩등(勝捷燈)

따듸따닷따! 두당등당둥! / 조기조기 반짝반짝 보이는 것이 / 무엇인지 너희들이 알아보느냐 / 다만 앞만 보고 가서 얼른 취(取)하라 / 용사(勇士)에게 돌아갈 바 승첩등(勝捷燈)이라 / 급(急)하게나 완(緩)하게나 쉬지만 말고 / 처음 정(定)한 우리 목적(目的) 굳게 지켜서 / 끈기있게 용맹(勇猛)있게 가기만 하면 / 빼앗을 자(者) 다시 없다 우리 것일세, <최남선, 대한소년행(大韓少年行), 소년, 1909. 10>

*a 식다

하늘 땅 온갖 것이 다 흩어져 없어지고 / 나마저 싫지라도 청계명월(淸溪明月)은 남기과저 / 만고(萬古)에 흐르고 밝아 그ㅊ지 마시오시라 <이은상, 계월송(溪月頌), 노산시조집(鷺山時調集), 한성도서주식회사, 1932>

*a 싀어지다

이 몸이 싀어진 뒤에 혼(魂)이 정녕 있을진댄 / 혼(魂)이나마 길이 길이 금강(金剛)에 살으리랏다 / 생전(生前)에 더러인 마음 명경(明鏡)같이 하과저 <이은상, 금강(金剛)에 살으리랏다, 노산시조집(鷺山時調集), 한성도서주식회사, 1932>

피기는 더디하고 지기는 쉬운 이 뜰 / 이 몸이 싀어지면 봄바람이 되어 설랑 / 서럽고 가난한 이를 먼저 찾아가리라. <이호우, 낙엽(落葉) 1, 이호우시조집, 영웅출판사, 1955>

*a 시니칼하다

나는 그날밤의 유성(流星)이 / 한(限)없이 미웠다 / 달은 오늘밤도 / 가지가지 눈물을 마련하고 / 시니칼한 웃음을 웃는다 <함윤수, 달(1), 앵무새, 자가본, 1939>

*a 시락죽

시락죽이나 <박용래, 시락죽, 강아지풀, 민음사, 1975>

*a 시러베

옛날에는 홍길동이 세상을 쏘다니며 / 칼날을 밟고 뒷간에선 허리띠 풀며 / 동지섣달 참나무 후리던 바람 쏟았지 / 인간들 기나긴 잡담을 거머쥐고 / 홍역이든 무슨 사랑이든 나눈 것을, / 바다나 산이나 꽃 따위를 보고 와서 / 오늘은 겨우 술을 산다는 전화로군 / 딴전을 피워 보게나, 흔치 않은 탈출을 위해 / 십년 닦은 도, 어디든지 산발한 주름 투성이 / 아랫도리만 살아 씩씩하던 밤이 다 채우던 / 창문까지 열게나 / 어디 시러베자식처럼 마을에서 밀려난 말들을 / 체면을 끌고 와 마당에 부리면, / 어라둥둥 낮술이니 / 홍길동아 길동아 어떤 마당에 와 있느냐 <안수환, 까치, 신들의 옷, 문학과지성사, 1982>

*a 시산(屍山)

피비린내 자욱한 시산(屍山)을 넘어 / 선혈(鮮血)로 아롱진 지축(地軸)을 간다. <조영암, 시산(屍山)을 넘고 혈해(血海)를 건너, 시산(屍山)을 넘고 혈해(血海)를 건너, 정음사, 1951>

*a 시원고지(始源告知)

오늘을 또 하루 / 그러한 시간(時間)이 흐르고 나면 / 오늘을 또 하루 / 그러한 날들이 바뀌고 나면 / 그대 바라는 메마른 혀 끝에 / 또 하나 있을 사랑의 날을 선행(先行)하여 / 시원고지(始源告知)의 황홀(恍惚)히 시고 떫은 / 열매의 애혜(愛惠)를 가

져 오리라. <박재륜, 과원(果園)에서, 메마른 언어, 한국북클럽, 1969>

*a 시의(屍衣)

꿈이 광야(曠野)를 헤매는 이리떼처럼 / 날카로운 동공(瞳孔)과 여윈 심장(心臟)을 안고 / 언어(言語) 잃은 나라에서 눈물 지는 밤 / 기인 시의(屍衣)를 펄럭이는 가마귀 / 음산한 침실(寢室)에서 장송곡(葬送曲)을 부르다 <함윤수, 장송곡(葬送曲), 은화식물지(隱花植物誌), 장학사, 1940>

님이여! 내 그리워하는 당신의 나라로 / 내 몸을 받읍소서 / 살 비린내 요란(搖亂)한 매혹(魅惑)의 봄도 / 시의(屍衣)에 분망(奔忙)하는 상가(喪家)집 같은 가을도 / 님 계신 나라에서야 볼 수 없겠지요 <김동명, 당신이 만약 내게 문을 열어 주시면, 개벽, 1923>

*a 시혈(屍血)

하수도(下水道)는 늙은 음부(淫婦)의 시혈(屍血)의 웅덩이다 강파른 땅위에는 / 상기도 여기 영(令)을 기다리는 공물(貢物)이 누어 있어 썩어 늘어진 / 답사리에 기대어 하수도(下水道)는 좋아라 히히 웃는다. <장호, 속(續) 하수도(下水道)의 생리(生理), 파충류의 합창, 시작사, 1957>

*a 시혼(屍魂)

인골의 피리가락은 / 낮이나 밤이나 삭북(朔北)의 유수(幽愁)와 몽매한 암흑에 / 교권 정치의 우미(愚迷)한 고집의 절대 앞에 / 생과 환희를 모르는 채 / 영영 쓰러진 사랑의 삼라만상의 시혼(屍魂)이 / 사막의 풍우로 버려진 풍장(風葬)의 시혼이 / 사막에 떠돌아 위령 없는 처절한 원차(怨嗟)로 <한하운, 인골적(人骨笛), 한하운 시초, 정음사, 1949>

*a 식목제(植木祭)

어느 날 불현듯 / 물 묻은 저녁 세상에 낮게 엎드려 / 물끄러미 팔을 뻗어 너를 가늠할 때 / 너는 어느 시간의 흙속에 / 아득히 묻혀 있느냐 / 축축한 안개 속에서 어둠은 / 망가진 소리 하나하나 다듬으며 / 이 땅 위로 무수한 이파리를 길어 올린다 / 낯선 사람들, 괭이 소리 삽소리 / 단단히 묻어 두고 떠난 벌판 / 어디쯤일까 내가 연기처럼 더듬더듬 피어 올랐던 / 이제는 침묵의 목책 속에 갇힌 먼 땅 / 다시 돌아갈 수 없으니, 흘러간다 / 어디로 흘러가느냐, 마음 한 자락 어느 곳 걸어두는 법 없이 / 희망을 포기하려면 죽음을 각오해야 하리, 흘러간다 어느 곳이든 기척 없이 / 자리를 바꾸던 늙은 구름의 말을 배우며 / 나는 없어질 듯 없어질 듯 생(生) 속에 섞여 들었네 / 이따금 나만을 향해 다가오는 고통이 즐거웠지만 / 슬픔 또한 정말 경미한 것이었다 / 한때의 헛된 집착으로도 솟는 맑은 눈물을 다스리며 / 아, 어느 개인 날 낯선 동네에 작은 꽃들이 피면 축복하

며 지나가고 / 어느 궂은 날은 죽은 꽃 위에 잠시 머물다 흘러갔으므로 / 나는 일찍이 어느 곳에 나를 묻어두고 / 이다지 어지러운 이파리로만 날고 있는가 / 돌아보면 힘없는 추억들만을 / 이곳저곳 숨죽여 세워두었네 / 흘러간다, 모든 마지막 문들은 벌판을 향해 열리는데 / 아, 가랑잎 한 장 뒤집히는 소리에도 / 세상은 저리 쉽게 떠내려간다 / 보느냐, 마주보이는 시간은 미루나무 무수히 곧게 서 있듯 / 멀수록 무서운 얼굴들이다, 그러나 / 희망도 절망도 같은 줄기가 틔우는 작은 이파리일 뿐, 그리하여 나는 / 살아가리라 어디 있느냐 / 식목제(植木祭)의 캄캄한 밤이여, 바람 속에 견고한 불의 입상(立像)이 되어 / 싱싱한 줄기로 솟아오를 거냐, 어느 날이냐 곧 이어 소스라치며 / 내 유년의 떨리던, 짧은 넋이여 <기형도, 식목제(植木祭), 입 속의 검은 잎, 문학과지성사, 1989>

*a 식무식간(識無識間)

나와 방(房)안의 책상(冊床)과 그의 책(冊)들과 바람벽과 괘종(掛鍾)은 의연(依然)한 듯하면서도 / 방금 그 천래(天來)의 대(大)심포니의 여운(餘韻)에 그윽히 떨고 있어 / 이것이 꿈인가 꿈 아닌 꿈인가 꿈 속의 꿈께인 꿈인가 꿈인가 / 식무식간(識無識間)에서 의심(疑心)은 그윽하고 아득한데 <오상순, 백일몽(白日夢), 공초오상순시선(空超吳相淳詩選), 자유문화사, 1963>

*a 식자층

신바람 난 악마는 / 깊은 밤 조니워카를 마시며 / 키들키들 웃곤 했는데 / 그때마다 짙푸른 산곡에서는 / 웬 소쩍새 홀로 깨어 / 피를 토하듯 울 뿐이었다 / 봄, 여름, 가을, 겨울 / 악마의 사령탑에서는 여전히 / 레이다에 포착된 기둥서방을 겨냥하여 / 박제수술이 면밀히 설계되고 / 악마의 집도를 외면한 식자층은 / 수술실에 포박될 사람들을 위하여 / 화살과 돌을 준비했다 / 오 친구여 / 부분적으로 화간을 허용하지 않고는 / 아무것도 사랑할 수 없는 불륜의 시대에 / 누가 그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 / 누가 그를 정죄할 수 있을까 <고정희, 프라하의 봄 2, 이 시대의 아벨, 문학과지성사, 1983>

*a 신고번뇌(辛苦煩惱)

고요한 마을 같은 내 마음의 한복판에 / 청춘(靑春)의 말라 가는 붉게 달은 내 마음에, / 네 미소(微笑)의 함박꽃이 피어나서 하늑일 제 / 은(銀)실같은 그 향기(香氣)는 영원(永遠)한 선율(旋律)을 타고 / 인생(人生)의 향연(饗宴)에서 꿈의 노래를 빚어서 내어 / 푸른 그늘 활짝 덮인 나의 마음의 한복판에 / 비틀거려 어지럽게 방향(方向)없이 휘돌고 있다. / 너의 웃음의 금(金)실의 천(千)갈래 만(萬) 갈래가 / 거미줄처럼 내 넋을 감고 감아다가는 / 명토대천(冥

土大川)에 망각(忘却)의 작은 배에다 싣고 / 비너스들의 사육제(謝肉祭) 끝나기 그 전(前)으로 / 호소(呼訴)를 가자— 사바(娑婆)의 신고번뇌(辛苦煩惱)를, / 호소(呼訴)를 가자— 사랑의 쓰린 눈물을, / 피리 장고(長鼓) 가야금 거문고를 내어 놓고 / 양금(洋琴) 제금(提琴) 소라를 한테다 크게 불면서 / 의복(衣服)마다 눈물의 보석(寶石)으로 수(繡)놓아 입고 / 무지개같은 네 웃음의 오색(五色)의 긴 줄을 / 눈발처럼 펴부어서 춤의 전당(殿堂)을 채울 때 / 쓸쓸하던 내 마음의 터가 허화시(虛華市)가 되었지마는—. / 내 몸이 문득 쇠(衰)함은 네 웃음에 독(毒)이 있음인가! / 눈물로 허화시(虛華市)를 휩쓸어 떠내려 보냄은 / 네 웃음의 가닥가닥이 슬픔의 연기(煙氣)였던가! / 하룻밤의 영화(榮華)스런 네 웃음의 금(金)실로 / 인생(人生)의 고뇌(苦惱)를 덮어, 삶의 미궁(迷宮)을 찾더니 / 황량(荒凉)한 북풍(北風)에 이것도 한 조각 꿈이었던가! <박영희, 미소(微笑)의 허화시(虛華市), 회월시초, 조선문화사, 1937>

*a 신기료

신기료 할아버지 땡볕 아래 혼자 앉아 계신다 / 어휴, 저 많은 구두를 언제 / 서울 사람들이 신다 버린 구두를 남산보다 높이 쌓아 놓고 / 밑창을 갈고, 새 끈을 끼우고, 금단추를 달고, 무두질 하고 / 아이구, 저 구두는 원래 달렸던 것이 이제 하나도 남아있지 않구나 / 행려병자의 시신이었나 해부하고 나니 국물 밖엔 없네 / 신기료 할아버지 새 구두를 만들어내고 있다 / 거짓말 같다, 새 구두가 남산보다 높이 쌓여간다 <김혜순, 황학동 벼룩시장, 나의 우파니샤드,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4>

*a 신단(身端)

훤조때문에마멸(磨滅)되는몸이다. 모두소년(少年)이라고들그리는데노야(老爺)인기색(氣色)이많다. 혹형(酷刑)에씻기워서산반(算盤)알처럼자격(資格)너머로튀어오르기쉽다. 그러니까육교(陸橋)위에서또하나의편안한대륙(大陸)을내려다보고근근(僅僅)히산다. 동갑네가시시거리며떼를지어답교(踏橋)한다. 그렇지않아도육교(陸橋)는또월광(月光)으로충분(充分)히천칭(天秤)처럼제무게에끄덱인다. 타인(他人)의그림자는위선넓다. 미미(微微)한그림자들이얼떨김에모조리앉아버린다. 앵도(櫻桃)가진다. 종자(種子)도연멸(煙滅)한다. 정탐(偵探)도흐지부지—있어야옳을박수(拍手)가어째서없느냐. 아마아버지를반역(反逆)한가싶다. 묵묵(默默)히—기도(企圖)를봉쇄(封鎖)한체하고말을하면사투리다. 아니—이무언(無言)이훤조의사투리리라. 쏟으려는노릇—날카로운신단(身端)이싱싱한육교(陸橋)그중심(甚)한구석을진단(診斷)하듯어루만지기만한다. 나날이썩으면서 가리키는지향(指向)으로기적(奇蹟)히골목이뚫렸다.

썩는것들이낙차(落差)나며골목으로몰린다. 골목안에는치사(侈奢)스러워보이는문(門)이있다. 문(門)안에는금(金)니가있다. 금(金)니안에는추잡한혀가달린폐환(肺患)이있다. 오—오—. 들어가면나오지못하는타입깊이가장부(臟腑)를닮는다. 그위로짝바뀐구두가비철거린다. 어느균(菌)이어느아랫배를앓게하는것이다. 질다. / 반추(反芻)한다. 노파(老婆)니까. 맞은편평활(平滑)한유리위에해소(解消)된정체(正體)를도포(塗布)한졸음오는혜택(惠澤)이뜬다. 꿈—꿈—꿈을짓밟는허망(虛妄)한노역(勞役)—이세기(世紀)의곤비(困憊)와살기(殺氣)가바둑판처럼널리깔렸다. 먹어야사는입술이악의(惡意)로꾸긴진창위에서슬며시식사(食事)흉내를낸다. 아들—여러아들—노파(老婆)의결혼(結婚)을걷어차는여러아들들의육중한구두—구두바닥의징이다. <이상, 가외가전(街外街傳), 시와 소설, 1936. 3>

*a 신룡(神龍)

밝아 오라 / 너의 높은 연화(蓮花)로부터 / 하늘로 솟아오른 / 너의 크낙한 심연으로부터 / 신룡(神龍)이 살아 굼실거리고 / 오색 영롱한 벽으로 / 천둥 번개를 하며 / 진동하는 하늘의 / 정수리로부터 / 그 높은 심장으로부터 / 일월은 천지 개벽을 하고 / 천도화(天桃花)를 피우고 / 태초에 하나의 무리의 / 조상을 낳았나니. <신석초, 천지(天池), 수유동운(水踰洞韻), 조광출판사, 1974>

*a 신부전증(腎不全症)

전생(前生)의 업(業)이었나, 청천의 벽력같은 / 악성(惡性) 신부전증(腎不全症) / 6개월, 3개월, 남은 날짜 헤아리다 / 독한 약 때문에 관절마저 물러져서 / 마지막 남은 길은 신장이식(腎臟移殖) 한 가지뿐 <조창환, 라자로 마을의 새벽 28, 라자로 마을의 새벽, 문학세계사, 1984>

*a 신생아실(新生兒室)

성(聖) 베드루 병원(病院)이었다. / 입구(入口)에서 오른쪽은 신생아실(新生兒室). <노향림, 신생아실(新生兒室), K읍 기행, 현대문학, 1977>

*a 신수(新粹)

금강! 아, 조선이란 이름과 얼마나 융화된 네 이름이냐. 이 표현의 배경의식은 오직 마음의 눈으로만 읽을 수 있도다. 모—든 것이 어둠에 질식되었다가 웃으며 놀라 깨는 서색(曙色)의 영화와 여일(麗日)의 신수(新粹)를 묘사함에서—게서 비로소 열정과 미의 원천인 청춘—광명과 지혜의 자모(慈母)인 자유—생명과 영원의 고향인 묵동(默動)을 볼 수 있으니 조선이란 지오의(指奧義)가 여기 숨었고 금강이란 너는 이 오의(奧義)의 집중 통각에서 상징화한 존재이어라. <이상화, 금강송가(金剛頌歌), 여명, 1925. 9>

*a 신영길

신영길 말이 울고 가고 / 장돌림 당나귀도 울고 가고 <백석, 연자간, 조광, 1936. 3>

*a 신춘대길(新春大吉)

홀연 도련님 눈썹 위에 내려 앉는 / 청아한 빼꾸기 울음소리. / 봄의 젖줄을 잡아당기는 / 따스한 모정의 촉감을 한 줄기씩 내리어 / 꽃대의 등심(燈心)을 밝히고 섰는 / 어머니의 축복을 누가 알까. / 가가호호 문전마다 / 신춘대길(新春大吉)이라 방(榜)을 붙이고 / 이 산에서 저 산으로 / 옮겨 앉는 메아리. / 시간은 상처난 손을 떨어뜨리며 지나가고 / 겨울 냉기는 땅강아지 발목 앞에서 / 바쁘게 무너지고 있었다. <박정만, 겨울 속의 봄 이야기, 잠자는 돌, 고려원, 1979>

*a 실기장(實技場)

코박은 실기장(實技場) 돌들은 / 저희끼리 얼굴 찡그리며 / 우울하다. <노향림, 가을 구화학교(口話學校), 연습기를 띄우고, 연희, 1980>

*a 실락(失樂)

그때 어린 사슴 한 마리 / 길을 여의고 / 사막(沙漠)으로 뛰어 들었다 / 불의(不意)의 실락(失樂)이여 / 그에게는 / 엎드러지며 빠지며 / 무서운 방황(彷徨)이 비롯되었다. <오상순, 미로(迷路)&3&, 공초오상순시선(空超吳相淳詩選), 자유문화사, 1963>

*a 실로암

시월에는 우리집 뒷담 곁 들깨들이 모두 익어요. 술렁이는 거리에서 우표를 사요. 양떼구름이흘러가고 있었죠. 실로암 샘가 사루비아꽃이 지고 있대요. 나는 모르겠어요. 손톱이 자주 닳는 이유를. <홍영철, 우울증, 작아지는 너에게, 문학과지성사, 1982>

*a 실크햇

나는 가야겠네. / 실크햇을 벗어 들고 아주 찬찬히 / 보리밭을 지나 / 산길로 들어서야겠네 / 장지문을 열고 아들과 나란히 내다보던 / 달이 지는 곳으로 / 호젓이 가야겠네. / 산 속으로 접어들수록 이렇게 나는 / 작아지는 것을. / 어느때 달을 못 만나 보고 / 가뭇 사라진다 해도, / 섭섭히 여기지는 않겠네. / 이제 나는 가야겠네. / 넥타이를 곱게 매고 / 정든 마을을 떠도는 구름이나 / 돌아봐야겠네. / 내가 그리던 개가 좇아오걸랑 / 제비들이 줄지어 따라오걸랑 / 이 길은 너희들과 함께 갈 길이 / 못된다고 / 조용히 일러 주겠네. <이진호, 달이 지는 곳으로, 달이 지는 곳으로, 청하, 1990>

*a 심란(深爛)하다

심란(深爛)한 새벽을 마련하기 위하야 / 무지개빛 꿈을 맞이하기 위하야 <조영암, 비원(悲願)&2&, 시산(屍山)을 넘고 혈해(血海)를 건너, 정음사, 1951>

*a 심산절경(深山絶景)

물 나린 푸른 벽(壁)에 위태히 선 저 노송(老松)아 / 어드메 땅이 없어 구태 거기 심겼느뇨 / 우리도 심산절경(深山絶景)을 찾아왔소 하더라 <이은상, 박연(朴淵), 노산시조집(鷺山時調集), 한성도서주식회사, 1932>

*a 심인광고

오십 통의 이력서를 쓰다가 / 오십 통의 사진을 찍어보다가 / 오천 마일, 오만 마일, / 도시의 계단, 빌딩의 엘리베이터를 / 오르고, 내리고, /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 오색영롱한 내일을 꿈꾸어 보다가 / 아차, 하는 순간에 / 사라져 간 너 / 얼굴도, 이름도 / 기억나지 않는 신문기사 속의 / 삼단 기사 속의 네게 / 심인광고를 낼 수도 없어 / 비정의 편지 한 장 띄운다. / 취직하기 위해서 / 출퇴근하기 위해서 / 오십 장의 명함판 사진을 / 오려붙인 신문기사 속으로 / 사라져 간 네게 / 이 비정의 편지 한 장 띄운다. / 봄이 다하기 전에. <박현령, 비정의 편지 한 장, 지신님, 지신님, 문학세계사, 1990>

*a 심정적(心情的)

뚝한 얼굴이 짧은 발을 어기적거리며 내게로 다가온다. 통성명(通姓名)을 하자는 것일까. 인사를 하기에는 내 얼굴 피부가 너무나 투명하고 외면(外面)하기에는 그의 얼굴이 너무나 심정적(心情的)이다. 입을 쩍 벌리는, 사이즈를 초월한 그의 입에 푸짐하게 어울릴 언어를 생각한다. 그 투박한 언어를—얄밉도록 세련된 나의 언어는 혀끝으로 구을리기 알맞을 뿐이다. <박목월, 동물시초(動物詩抄), 청담(晴曇), 일조각, 1964>

*a 심판정(審判廷)

눈 눈 흰 눈—아니, 샛파란 눈—— / 꼬리를 살살 치는 어여쁜 백호(白狐)—도화(道化)의 요희(妖姬) / 뼈가 저린 술에 취한 듯이 / 현매(眩昧)에 달려가는 내 혼(魂)의 발걸음 / 산으로 들로 바다로 하늘가으로 / 먼 암사(暗死)의 나라로 끝없는 '팔랑개비'의 나라로——. / 아아 쓰리기도 하여라 / 피묻은 단의(單衣)를 휘감은 듯한 나의 혼(魂)은 / 밤놀의 휘장들린 동살지대(凍殺地帶)에 서서 / 달의 해골(骸骨)이 눈땅의 뺨을 갈길 때 / 그는 가슴을 움켜쥐고 / 누구를 찾아 호곡(號哭)하다 / 최후(最后)의 심판정(審判廷)이나 다다른 듯이, <조명희, 눈[雪, 1924>&26& / 봄 잔디밭 위에, 춘추각]

*a 십사기맥(十四氣脈)

허나 저는 / 이렇게는 곧 상상할 수 있나이다. / 십자(十字)는 네거리를

뜻함이요 / 네거리는 온갖 길 위의 사람들이 / 모이고 또, 각기 떠나가는 곳임을 / 또한, 합하며 어떤 하나가 이루어지고 / 이루어진 그것이 다시 / 어떤 일들의 시작이 되는 / 말하자면 퍼지고 모이는 일이 / 운명처럼 겹치는 그런 곳, / 그리하여 십자로(十字路)는 역사(歷史)의 저자를 형성하고 / 때문에 예로부터 무릇 깨달은 이들은 / 다시 저자로 나와 종을 울리고 / 그 울림은 사방으로 / 사방에서 오솔길로 외로운 산간모옥으로 / 각기 흩어졌지만, 그 울림으로만 보건대는 / 종을 울린 이도, 종소리도, 종소리의 퍼짐도, 그 메아리도 / 실상은 따로따로가 아니요 / 사라진 것도, 흩어진 것도, 외로운 것도, 작은 것도, / 또한 큰 것도 아님을 / 저는 쉽사리 이해할 수 있나이다. / 그것은 가령, 위장에 병이 들었을 때 / 저의 손가락과 손바닥에 유주(流注)하는 / 십사기맥상(十四氣脈上)의 수혈 어느 몇 곳에 / 명주실 같은 침 끝을 한동안 꽂아 놓으면 / 증세에 따라선 그 방법이나 효과가 좀 다를지나 / 그 병증이 치유되는 것과 같은 이치 아니겠습니까? <김정웅, 천로역정(天路歷程), 혹은: 십자로..., 천로역정, 혹은, 문학과지성사, 1988>

*a 싸리갱이

일가들이 모두 범같이 무서워하는 이 노큰마니는 구덕살이같이 욱실욱실하는 손자 증손자를 방구석에 들매나무 회초리를 단으로 쩌다 두고 때리고 싸리갱이에 갓진창을 매어 놓고 때리는데 <백석, 넘언집 범 같은 노큰마니, 문장, 1939. 4>

*a 쌉쏘름하다

아직 / 소년이었던 나는 / 담배에 입맛을 붙여 / 숨어 피우던 그 쌉쏘름한 담배 맛을 / 시방도 아예 잊을 길이 없다. <신석정, 오는 팔월(八月)에도, 빙하(氷河), 정음사, 1956>

*a 썩달나무

뚝장군의 전설을 가진 조고마한 늪 / 늪을 지켜 숨줄이 마른 썩달나무에서 / 이제 / 늙은 올빼미 흉몽(凶夢)스런 울음을 꾀이려니 / 마을이 떨다 / 이 밤이 떨다 / 어서 지팽이를 옮겨 놓아라 <이용악, 도망하는 밤, 분수령, 삼문사, 1937>

*a 썩심하다

촌에서 온 아이여 / 촌에서 어젯밤에 승합자동차를 타고 온 아이여 / 이렇게 추운데 웃동에 무슨 두룽이 같은 것을 하나 걸치고 아랫도리는 쪽 발가벗은 아이여 / 뽈다구에는 징기징기 앙광이를 그리고 머리칼이 노란 아이여 / 힘을 쓸려고 벌써부터 두 다리가 푸둥푸둥하니 살이 찐 아이여 / 너는 오늘 아침 무엇에 놀라서 우는구나 / 분명코 무슨 거짓되고 쓸데없는 것에 놀라서 / 그것이 네 맑고 참된 마음에 분해서 우

는구나 / 이 집에 있는 다른 많은 아이들이 / 모두들 욕심 사납게 지게굳게 일부러 청을 돋혀서 / 어린 아이들치고는 너무나 큰소리로 너무나 튀겁 많은 소리로 울어 대는데 / 너만은 타고난 그 외마디 소리로 스스로웁게 삼가면서 우는구나 / 네 소리는 조금 썩심하니 쉬인 듯도 하다 / 네 소리에 내 마음은 반끗이 밝아오고 또 호끈히 더워 오고 그리고 즐거워 온다 / 나는 너를 껴안아 올려서 네 머리를 쓰다듬고 힘껏 네 작은 손을 쥐고 흔들고 싶다 / 네 소리에 나는 촌 농삿집의 저녁을 짓는 때 / 나주볕이 가득 드리운 밝은 방안에 혼자 앉아서 / 실감기며 버선짝을 가지고 쓰렁쓰렁 노는 아이를 생각한다 / 또 여름날 낮 기운 때 어른들이 모두 벌에 나가고 텅 비인 집 토방에서 / 햇강아지의 쌀랑대는 성화를 받아 가며 닭의 똥을 주워 먹는 아이를 생각한다 / 촌에서 와서 오늘 아침 무엇이 분해서 우는 아이여 / 너는 분명히 하늘이 사랑하는 시인이나 농사꾼이 될 것이로다 <백석, 촌에서 온 아이, 문장, 1941>

*a 쓸론

나는 그때 / 자작나무와 이깔나무의 슬퍼하던 것을 기억한다 / 갈대와 장풍의 붙드던 말도 잊지 않았다 / 오로존이 멧돌을 잡아 나를 잔치해 보내던 것도 / 쏠론이 십릿길을 따라 나와 울던 것도 잊지 않았다 <백석, 북방(北方)에서, 문장, 1940. 7>

*a 쑥굴헝

어느 가시덤불 쑥굴헝에 누일지라도 / 우리는 늘 옥돌같이 호젓이 묻혔다고 생각할 일이요 / 청태라도 자욱히 끼일 일인 것이다. <서정주, 무등(無等)*을 보며, 서정주시선, 정음사, 1956>

죽지령(竹旨嶺) 넘어 / 아득한 데로 가면 만나뵐 것인가. / 님 그리워 떠나는 마음의 길 / 어느 쑥굴헝인들 마다하오리. <박희진, 모죽지랑가(慕竹旨郎歌), 산화가, 불일출판사, 1988>

*a 아고라포비아(agoraphobia)

돌연 엄습해 오는 아고라포비아(agoraphobia)! <조향, 붉은 달이 걸려 있는 풍경화(風景畵), 현대문학, 1967. 12>

*a 아래웃방성

이 무서운 밤을 아래웃방성 마을 돌아다니는 사람은 있어 개는 짖는다 <백석, 개, 현대조선문학전집, 1938>

*a 아롱점말

풍란이 풍기는 향기, 꾀꼬리 서로 부르는 소리, 제주 휘파람새 휘파람 부는 소리, 돌에 물이 따로 구르는 소리, 먼 데서 바다가 구길 때 솨—솨—솔소리, 물푸레 동백 떡갈나무 속

에서 나는 길을 잘못 들었다가 다시 칡넌출 기어간 흰 돌바기 고부랑길로 나섰다. 문득 마주친 아롱점말이 피하지 않는다. <정지용, 백록담(白鹿潭), 백록담, 문장사, 1941>

*a 아르간

저녁술을 놓은 아이들은 외양간섶 밭마당에 달린 배나무 동산에서 쥐잡이를 하고 숨굴막질을 하고 꼬리잡이를 하고 가마 타고 시집가는 놀음 말 타고 장가가는 놀음을 하고 이렇게 밤이 어둡도록 북적하니 논다 / 밤이 깊어가는 집안엔 엄매는 엄매들끼리 아르간에서들 웃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웃간 한 방을 잡고 조아질하고 쌈방이 굴리고 바리깨돌림하고 호박떼기하고 제비손이구손이하고 이렇게 화디의 사기방등에 심지를 몇 번이나 돋구고 홍게닭이 몇 번이나 울어서 졸음이 오면 아릇목 싸움 자리 싸움을 하며 히드득거리다가 잠이 든다 그래서는 문창에 텅납새의 그림자가 치는 아침 시누이 동세들이 욱적하니 흥성거리는 부엌으론 샛문틈으로 장지문틈으로 무이징게국을 끓이는 맛있는 내음새가 올라오도록 잔다 <백석, 여우난골족(族), 사슴, (자가본), 1936>

*a 아르굳

아,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 이 히수무레하고 부드럽고 순수하고 슴슴한 것은 무엇인가 / 겨울밤 쩡하니 익은 동치미 국을 좋아하고 얼얼한 댕추가루를 좋아하고 싱싱한 산꿩의 고기를 좋아하고 / 그리고 담배 내음새 탄수 내음새 또 수육을 삶는 육수국 내음새 자욱한 더북한 삿방 쩔쩔 끓는 아르굳을 좋아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백석, 국수, 문장, 1941. 4>

*a 아무우르

아득한 옛날에 나는 떠났다 / 부여(扶餘)를 숙신(肅愼)을 발해(渤海)를 여진(女眞)을 요(遼)를 금(金)을 / 흥안령(興安嶺)을 음산(陰山)을 아무우르를 숭가리를 / 범과 사슴과 너구리를 배반하고 / 송어와 메기와 개구리를 속이고 나는 떠났다 <백석, 북방(北方)에서, 문장, 1940. 7>

*a 아무을만(灣)

노령(露領)을 다니면서까지 / 애써 자래운 아들과 딸에게 / 한마디 남겨 두는 말도 없었고 / 아무을만(灣)의 파선도 / 설룽한 니코리스크의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 목침을 반듯이 벤 채 <이용악,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분수령, 삼문사, 1937>

*a 아비규환(阿鼻叫喚)하다

한 장 검은 표지(表紙)를 열고 들어서면 / 아비규환(阿鼻叫喚)하는 화약(火藥)냄새 소용돌이 / 전쟁(戰爭)은 언제나 거기서 그냥 타고 / 연자색

안개의 베일 속 / 파란 공포(恐怖)의 강(江)물은 발길을 끊어 버리고 / 사랑은 날아가는 파랑새 / 해후(邂逅)는 언제나 엇갈리는 초조(焦燥) / 그리움은 꿈에서도 잡히지 않는다 <정한모, 나비의 여행(旅行), 아가의 방, 문원사, 1970>

*a 아자(亞字)

불 붙는 구레나룻. / 직선은 구우텐베르크다. / 하아얀 월요일. / 혹독한 계절에. / '모든 동맥의 절단면에서 검은 아스팔트의 피를 떨어뜨리는 도시(都市)' / 아자(亞字) 창(窓). / 백 밀러. 까아만. / 눈동자가. 안으로. / 에메랄드의 층계. 내려 가면. / 메스카린의 환각(幻覺)이. / 가시내 냄새도. / 어휘는 낙엽인데. / 붉은 닥세리. 찢어진 밤의 / 주름 사이에 켜지는 육체들. / 크세나키스의 셈본. / 희희청 하늘엔. / 총탄 자국이. 글쎄. / 난만한 회색이다. / 칠십(七十) 년대. 그리고. / 동요(童謠)만 피어 나는데. / 동빙고동은 도둑의 마을 / 동빙고동은 도둑의 마을 / 안개. 그리고. / 검다. <조향, 크세나키스 셈본, 신동아, 1970. 3>

*a 아즈방

낭귀, 낭귀, 낭귀, 낭귀, 한라산 낭귀들아! / 밤마다 내 슬픔 받아 먹고 한 뼘씩 자라던 낭귀들아! / 굴거리낭, 굴피낭, 잎새 검은 낭귀들아! / 녹낭, 누리장낭, 잎새 누른 낭귀들아! / 사스레낭, 서으리낭, 잎새 푸른 낭귀들아! / 데육낭, 대패집낭, 가지 뻗은 낭귀들아! / 동문다리 서문다리 젊은 아즈방 다리 비추던 달아! / 산행으로 부은 다리 내 다리를 드리나니 / 이 다리 먹고 대답해다오 / 인생은 무엇? 윤리는 무엇? / 윤리(倫理)는 무엇? / 도덕(道德)은 무엇? / 우—우—우— 우울하게 우울하게 우—우—우—우— / 우—우—우— 달콤하게 달콤하게 우—우—우—우— / 우—우—우— 무의미하게 무의미하게 우—우—우— / 우—우—우— 끝없이 끝없이 그냥 끝없이 —우—우—우— <윤석산, 백록담의 달, 말의 오두막집, 문단, 1992>

*a 아첨배

구름 덮인 이승바닥 날씨라도 당신이 탄 기수(機首) 앞에서는 구름 갈라져 나가며 햇빛 비치고, 풍랑 심한 밤바다 위라도 당신이 산책할 때면 춘하추동 나뭇가지 사이로 어디선가 새들이 몰려 와 노래 부른다고 어느 아첨배 나를 어여삐 찬양하였노라. <홍희표, 품바·두 마디, 살풀이, 문학과지성사, 1984>

*a 악복(樂服)

당홍 악복(樂服)에 검은 사모(紗帽) 옷깃 바로잡아 / 소리 이루기 전 눈 먼저 스르르 나려감느니 <조지훈, 고조(古調), 조지훈시선, 정음사, 1956>

*a 안간

이 그득히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안간에들 모여서 방안에서는 새옷의 내음새가 나고 / 또 인절미 송구떡 콩가루차떡의 내음새도 나고 끼때의 두부와 콩나물과 볶은 잔디와 고사리와 도야지 비계는 모두 선득선득하니 찬 것들이다 <백석, 여우난골족(族), 사슴, (자가본), 1936>

*a 안두삼척(案頭三尺)

그대로 안두삼척(案頭三尺)엔 / 고요그득하여라 <최남선, 동산(東山)에서, 백팔번뇌, 동광사, 1926>

*a 안재(安在)

어메야! 오륙년이 넘두락 일자소식이 없는 이 불효한 자식의 편지를, 너는 무슨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냐. 나는 틈틈이 생각해 본다. 너의 눈물을… … 오—어메는 무엇이었느냐! 너의 눈물은 몇 차례나 나의 불평과 결심을 죽여 버렸고, 우는 듯, 웃는 듯, 나타나는 너의 환상에 나는 지금까지도 설운 마음을 끊이지는 못하여 왔다. 편지라는 서로이 서러움을 하소하는 풍습이려니, 어메는 행방도 모르는 자식의 안재(安在)를 믿음이 좋다. <오장환, 향수&3&, 성벽(城壁), 풍림사, 1937>

*a 안화(顔華)

그 안화(顔華) 볼 때마다 우리 이상(理想)은 / 빛나기 태양(太陽)으로 다투려 하고 / 그 풍신(風神) 대(對)할 때에 우리 전진심(前進心) / 하늘을 꿰뚫도록 높아지노라. <최남선, 태백산(太白山)과 우리, 소년, 1910. 2>

*a 암멸(暗滅)

색채와 음향이 생활의 화려로운 아롱사(紗)를 짜는— / 예쁜 일본의 서울에서도 나는 암멸(暗滅)을 서럽게 —달게 꿈꾸노라. <이상화, 동경에서, 문예운동, 1926. 1>

*a 암사(暗死)

눈 눈 흰 눈—아니, 샛파란 눈—— / 꼬리를 살살 치는 어여쁜 백호(白狐) —도화(道化)의 요희(妖姬) / 빼가저린 술에 취한 듯이 / 현매(眩昧)에 달려가는 내 혼(魂)의 발걸음 / 산으로 들로 바다로 하늘가으로 / 먼 암사(暗死)의 나라로 끝없는 '팔랑개비'의 나라로——. / 아아 쓰리기도 하여라 / 피묻은 단의(單衣)를 휘감은 듯한 나의 혼(魂)은 / 밤놀의 휘장들린 동살지대(凍殺地帶)에 서서 / 달의 해골(骸骨)이 눈땅의 뺨을 갈길 때 / 그는 가슴을 움켜쥐고 / 누구를 찾아 호곡(號哭)하다 / 최후(最后)의 심판정(審判廷)이나 다다른 듯이, <조명희, 눈[雪, 1924>&26& / 봄 잔디밭 위에, 춘추각]

*a 암영(闇影)

미우면 미울수록 그리워지는 향수(鄕愁) / 복수(復讐)의 일념(一念)이

지옥(地獄)의 북을 두드리며 행진(行進)할 때 / 암영(闇影)속에 쥐여지는 두 주먹엔 원한(怨恨)의 눈물뿐 / 태양(太陽)의 아들도 아니오 / 대웅성좌(大熊星座)의 딸도 아닌 유령(幽靈) / 너희는 낙원(樂園)에서 쫓김을 받은 아담과 이브이던가 <함윤수, 우상(偶像), 은화식물지(隱花植物誌), 장학사, 1940>

*a 암장되다

내가 어둠으로 띄운 새들은 / 하늘에 암장되었는가. 어머니를 향해 / 이십 년의 세월을 기도로 띄운 / 새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 / 내 나이가, 지금 / 헤어질 때의 어머니 나이가 되었지만 / 아직도 그 생사조차 모른다. / 하늘이여, 이 불륜의 세월을 끊고 / 아들은 어머니의 무릎에 / 지아비는 지어미의 품으로 / 돌아가게 하라. 저들이 함께 웃고 / 저들이 함께 울도록, 하늘이여 / 무수한 사람이 띄운 새들이 / 이제는 귀소(歸巢)하도록 빛을 밝히라. <박남수, 오랜 기도(祈禱), 사슴의 관(冠), 문학세계사, 1981>

삶보다 투명한 궤적을 그으며 / 한 마리의 새는 / 저승으로 넘어가고 있다. / 죽음과 생식의 알이 쏟아지는 / 보이는 싸움과 보이지 않는 / 싸움 속에서 암장되고 있다. / 스스로가 노래인 하늘의 주민들은 / 봉봉 날리는 위협으로 / 온몸에 소름을 쓰고 떨고 있다. <박남수, 새의 암장(暗葬) 1, 새의 암장(暗葬), 문원사, 1970>

*a 암청빛

그 어지러운 이내 속에 / 우리는 윙윙대며 / 암청빛 색맹으로 / 홀로 이마를 묻고 있었지. <홍희표, 그림자꽃, 살풀이, 문학과지성사, 1984>

*a 암층(岩層)

아직은 산과 들을 잊지 못한다. 아직은 해안(海岸), 그런 지점을 그리지 않는다. 지금은 어느동구 앞을 굽이쳐 흐르고 있을 너의 모습에 아예 미소는 없어도 좋다. 말없는 대치(對峙)로 있어라 어느 날 너의 앞을 가로막던 그 암층(岩層)처럼 어쩔 수 없는용해(溶解)의 시간까지는. <황명, 각서(覺書)&2&, 날아라 아침의 새들이여, 예전사, 1985>

*a 압강(鴨江)

압강(鴨江)이 어리고 / 천지(天池)가 스치는데 / 언덕 너머 고함소리 / 화랑(花郞)들은 달린다. <조영암, 진격(進擊)의 노래 1, 시산(屍山)을 넘고 혈해(血海)를 건너, 정음사, 1951>

*a 애기면동

섣달 보름달 기우는 새벽 / 용머리 샘물 속에 / 건너편 우슬고개 붉게 물들이며 / 갓 태어나는 애기면동 / 내 얼굴 함께 / 시누대 함께 비칠 때 <김지하, 해남에서, 별밭을 우러

르며, 동광출판사, 1989>

*a 애노(哀怒)

그렇다! 나는 내가 잡은 조종간을 어느 방향으로 돌리지 않으리라 이 공막(空漠)한 길 없는 길 — 온갖 악덕(惡德)과 애노(哀怒)와 또한 순정(純情)의 마음 저림이 함께 있는 저자에 살며 / (어느 패륜(悖倫)의 뒷골목에서 내 보람 없이 비명(非命)하기로 애석잖는 목숨이여!) / 아아 이 헛헛한 허공! 갈수록 아득히 두고 온 인간 삶의 환호가 등불처럼 마음 끄는 이 무한 고독을 헤치고 이대로 나는 나의 길을 가리니 / 어느 날 뜻않이 나의 자리 비었음을 보거들랑 사랑이여 원수여 그날 그렇게 죽자 하던 은수(恩讐)를 넘어—오늘이 너와의 있음은 진정 증거할 수 없는 바람의 몸짓일 뿐, 마침내 저 허무로! / 표표히 왔던 길 다시 돌아감이 있음을 정녕 보아라 <유치환, 돌아오지 않는 비행기(飛行機), 청마시집, 문성사, 1954>

*a 애동

눈이 많이 와서 / 산엣새가 벌로 나려 멕이고 / 눈구덩이에 토끼가 더러 빠지기도 하면 / 마을에는 그 무슨 반가운 것이 오는가 보다 / 한가한 애동들은 어둡도록 꿩사냥을 하고 / 가난한 엄매는 밤중에 김치가 재미로 가고 / 마을을 구수한 즐거움에 사서 은근하니 홍성홍성 들뜨게 하며 / 이것은 오는 것이다 / 이것은 어느 양지귀 혹은 능달쪽 외따른 산옆 은댕이 예데가리밭에서 / 하룻밤 뽀오얀 흰 김 속에 접시귀 소기름불이 뿌우연 부엌에 / 산멍에 같은 분틀을 타고 오는 것이다 / 이것은 아득한 옛날 한가하고 즐겁던 세월로부터 / 실 같은 봄비 속을 타는 듯한 여름볕 속을 지나서 들쿠레한 구시월 갈바람 속을 지나서 / 대대로 나며 죽으며 죽으며 나며 하는 이 마을 사람들의 의젓한 마음을 지나서 텁텁한 꿈을 지나서 / 지붕에 마당에 우물둔덩에 함박눈이 푹푹 쌓이는 여느 하룻밤 / 아배 앞에 그 어린 아들 앞에 아배 앞에는 왕사발에 아들 앞에는 새끼사발에 그득히 사리워오는 것이다 / 이것은 그 곰의 잔등에 업혀서 길여났다는 먼 옛적 큰 마니가 / 또 그 잔등색이에서서 재채기를 하면 산 넘엣 마을까지 들렸다는 / 먼 옛적 큰아바지가 오는 것같이 오는 것이다 <백석, 국수, 문장, 1941. 4>

*a 애장터

1897년생인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에 와서 / 빽적지근하게 이룬 것이 있다면 / 그것은 자식을 열이나 낳았다는 것이다 / 한 배에서가 아니고 두 배에서지만 / 그리고 다 살리진 못하고 그 중에 여섯이나 / 당신 손으로 뒷산 애장터에 묻어야 했지만 / 오늘밤 아파트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일생 농군 학생부군(學生府君)께 술 한잔 올리니 / 어려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천릿길을 달려와 애기두루마기 차림으로 / 이 방 저 방에 TV 앞에 시집간 누이들 틈서리에 듬성듬성 앉아 있는 것 같으이다 / 삼식(三植)이 형님 기식(寄植)이 형님 일학년짜리 명식(明植)이 형 해방동이 명자(明子) 누나 / 나보다 두 살 위 후식(厚植)이 형 이름도 없이 가물거리는 내 아랫동생 / 초헌 아헌 종헌이 끝나고 다 함께 음복하고 검은 재와 함께 새벽 별 스러질 때까지 / 내 핏속에 애기들의 여린 숨결 속에 살아 / 어서 가자고 칭얼대는 어린 동생을 달래가며 / 밤새도록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으이다 <이시영, 형제들을 위하여, 길은 멀다 친구여, 실천문학사, 1988>

내 하루가 고요를 회복하고 싶을 때 / 유등 연지를 찾는다 / 낡은 누각이 그 옆에 누워 아쟁 소리를 낸다 / 물에선 애장터가 멀지 않은 법 / 연지는 내가 버린 것들로 자주 넘친다 / 연지란 이슬과 더불어 사라질 운명이라 믿는 나에게 / 저수지의 둑이 터졌다고 빗소리에 얹혀 / 부음(訃音)이 온다 / 연지의 몽리 면적이래야 / 내가 넓혀온 저녁의 정적과 / 죽은 이들이 뒤돌아 보았던 벌판이 있다 / 연지는 연꽃보다 고요에 가깝다 / 그곳에서 자주 수직의 폭포소리를 듣는 때가 있다 <송재학, 유등연지, 푸른빛과 싸우다, 문학과지성사, 1994>

*a 애절양

정다산(丁茶山) 1762년 경기 광주산 / 깡마른 얼굴 날카로운 눈빛을 지님 / 전직 암행어사 목민관 / 기민시 애절양 등의 애민을 빙자한 / 유언비어 날포로 민심을 흉흉케 한 / 자생적 공산주의자 및 천주학 수괴 <곽재구, 귤동리 일박, 사평역에서, 문학과지성사, 1983>

*a 애혜(愛惠)

오늘을 또 하루 / 그러한 시간(時間)이 흐르고 나면 / 오늘을 또 하루 / 그러한 날들이 바뀌고 나면 / 그대 바라는 메마른 혀 끝에 / 또 하나 있을 사랑의 날을 선행(先行)하여 / 시원고지(始源告知)의 황홀(恍惚)히 시고 떫은 / 열매의 애혜(愛惠)를 가져 오리라. <박재륜, 과원(果園)에서, 메마른 언어, 한국북클럽, 1969>

*a 애훈(愛薰)

금강! 아, 너 같은 극치의 미가 꼭 조선에 있게 되었음이 야릇한 기적이고 자그마한 내 생명이 어찌 내 애훈(愛薰)을 받잡게 되었음이 못 잊을 기적이다. 너를 예배하러 온 이 가운데는 시인도 있었으며 도사도 있었다. 그러나 그 시인들은 네 외포미(外包美)의 반쯤도 부르지 못하였고 그 도사들은 네 내재상(內在想)의 첫길에 헤매다가 말았다. <이상화, 금강송가(金剛頌歌), 여명, 1925. 9>

*a 야립간판(野立看板)

테크노피아 / 야립간판(野立看板)의 녹슨 / 철골 사이에 <오규원, 테크노피아, 사랑의 감옥, 문학과지성사, 1991>

*a 야반종성(夜半鐘聲)

큰 가람(伽藍) 자리했기에 산도 깊어 속리(俗離)러뇨 / 시월 풍림(十月楓林)에 불을 지른 야반종성(夜半鐘聲) / 바람도 소소히 저서 갈대꽃을 흩노라네. <정완영, 법주사(法住寺), 묵로도, 1972>

*a 야앵(夜鶯)

야앵(夜鶯)의 우는 고운 소리가 / 밤놀을 타고 날아 오나니 / 행(幸)여나 우리 님 그 노래타고 / 이 밤에 한 번 아니 오려나! <노자영, 봄밤[春夜, 1929>&4& / 처녀의 화환, 장문서당]

밤은 깊고 촛불 외로운 넓은 신당(神堂) 안에는 / 젊은 여승(女僧)이 흑장삼(黑長杉)을 몸에 두르고, / 엄숙(嚴肅)한 불상(佛像) 앞에, 죽은 듯이 숨소리 죽이며, / 가을바람에 시들어 가는 야화(野花)와 같이 / 머리를 숙이어, 굳은 신념(信念)으로 기도를 올리니, / 밤중, 산곡(山谷)에서 느끼어 우는 야앵(夜鶯)의 넋이런가! / 그의 염불(念佛) 소리는 구슬프게 성전(聖殿)을 울릴 때, / 하늘엔 별들이 소근거리는데 / 그의 젊은 사랑의 노래는, 가슴 속에 썩어 / 한(恨)많은 한숨은 미풍(微風)처럼 불상(佛像) 위으로 사라지니, / 깊어가는 밤, 신당(神堂)으로 흐르는 바람은 / 찬마루 위에 앉은 여승(女僧)의 품속으로 기어들 때 / 그는, 엄숙(嚴肅)한 불상(佛像)도, 그의 애인(愛人)과 같이, / 그는 가슴에 휘잡아 안고, 엎더져 버리니, / 아픔도 모르고, 괴로움을 잊은 애인(愛人)과 같이 / 그는 낙원(樂園)의 화려(華麗)한 꿈 속에 빠져 / 약(弱)한 젊은 가슴은 깊이 없이 취(醉)하였으나 / 찬 몸은 마루 위에, 죽은 듯이 누웠도다. <박영희, 승녀(僧女), 회월시초, 조선문화사, 1937>

*a 야영(夜營)

밤을 대안(對岸)하여 / 날고 있는 후조(候鳥) / 고요가 떠밀리는 야영(夜營)의 기슭에 / 병정(兵丁)의 편애(偏愛)는 잠이 든다 / 그때, 풀꽃들의 일화(逸話) 위에 떨어지는 / 푸른 별의 사변(思辨) / 찢긴 날개로 피 흐르며 / 귀소(歸巢)하는 후조(候鳥)의 가슴에 / 향수(鄕愁)는 탄흔(彈痕)처럼 박혀든다 / 아, 오늘도 돌아 누운 산하(山河)의 / 외로운 초병(哨兵)이여 / 시방 안개와 어둠의 벌판을 지나 / 늙은 사공(沙工)의 등(燈)불은 / 어디쯤 세계(世界)의 창(窓)을 밝히는가 / 목마른 나무의 음성(音聲)처럼 / 바람에 울고 있는 노래는 / 강물 풀리는 저 대안(對岸)의 기슭에서 / 떠나간 시간(時間)의 꽃으로 피는구나. <이근배, 노래여 노래여, 노래여 노래여, 문학세계사, 1981>

*a 야전장비

항구엔 부두가 있고 / 그리고 거기엔 여자들이 득실거리고 / 야전장비를 갖춘 병졸들의 행렬은 / 자꾸 수송선의 긴 사닥다리를 오르고 / 갈매기는 울고 갈매기는 울고 / 가지가지 색깔의 테이프는 날리고 / 수송선과 부두의 여자들 사이에서 날리다가 / 날리다가 끊어져서 여자들의 모가지에 / 감겨들고 여자들의 가지가지 색깔의 / 엉덩이는 뒤틀리는 물결이었다 <전봉건, 속의 바다 14, 사랑을 위한 되풀이, 혜진서관, 1985>

*a 야폭(夜瀑)

절경(絶景)에 절로 취(醉)코 술집에 거저 앉아 / 성길사 나무 그림 온 하늘이 물 같고나 / 어즈버 달 아니신가 야폭(夜瀑) 구경 가리라 <정인보, 박연행(朴淵行), 담원시조, 을유문화사, 1948>

*a 야폭경(夜瀑景)

야폭경(夜瀑景) 더 좋으이 오르는지 나리는지 / 우렁찬 물소리도 우에선지 아래선지 / 다만지 천도용궁(天都龍宮)이 이로 이어졌더라 <이은상, 박연(朴淵), 노산시조집(鷺山時調集), 한성도서주식회사, 1932>

*a 야흥(夜興)

동봉(東峯)에 달이 솟아 마슬길을 비취나다 / 중추(中秋) 야흥(夜興)을 사람마다 겨워할 제 / 어떠타 외로운 한 사람은 눈물 못 금(禁)하나니 <이은상, 가윗날에, 노산시조집(鷺山時調集), 한성도서주식회사, 1932>

*a 약탈(掠奪)되다

모두들 공부하는 속에 와보면 나도 옛날에 공부하던 생각이 난다 / 그리고 그 당시의 시대가 지금보다 훨씬 좋았다고 / 누구나 어른들은 말하고 있으나 / 나는 그 우열(優劣)을 따지고 싶지는 않다 / 그러나 '그때는 그때이고 지금은 지금이라'고 / 구태여 달관(達觀)하고 있는 지금의 내 마음에 / 샘솟아 나오려는 이 설움은 무엇인가 / 모독(冒瀆)당한 과거(過去)일까 / 약탈(掠奪)된 소유권(所有權)일까 / 그대들 어린 학도(學徒)들과 나 사이에 놓여있는 / 연령(年齡)의 넘지 못할 차이일까…… <김수영, 국립도서관(國立圖書館), 달나라의 장난, 춘조사, 1959>

*a 양수막

누구에겐듯 어머니, 어머니, 부르면서 / 부드러운 양수막을 / 손길로 만져보면 / 모든 육체가 잿빛 눈동자로 되어 있다는 / 아아 그건 슬픔이라는 / 어머니, / 슬픔이 나를 임신하고 있으니 <김승희, 슬픔과 놀며, 미완성을 위한 연가, 나남, 1987>

*a 양지귀

눈이 많이 와서 / 산엣새가 벌로 나려 멕이고 / 눈구덩이에 토끼가 더러 빠지기도 하면 / 마을에는 그 무슨 반가운 것이 오는가 보다 / 한가한 애동들은 어둡도록 꿩사냥을 하고 / 가난한 엄매는 밤중에 김치가 재미로 가고 / 마을을 구수한 즐거움에 사서 은근하니 흥성흥성 들뜨게 하며 / 이것은 오는 것이다 / 이것은 어느 양지귀 혹은 능달쪽 외따른 산옆 은댕이 예데가리밭에서 / 하룻밤 뽀오얀 흰 김 속에 접시귀 소기름불이 뿌우연 부엌에 / 산멍에 같은 분틀을 타고 오는 것이다 / 이것은 아득한 옛날 한가하고 즐겁던 세월로부터 / 실 같은 봄지 속을 타는 듯한 여름볕 속을 지나서 들쿠레한 구시월 갈바람 속을 지나서 / 대대로 나며 죽으며 죽으며 나며 하는 이 마을 사람들의 의젓한 마음을 지나서 텁텁한 꿈을 지나서 / 지붕에 마당에 우물둔덩에 함박눈이 푹푹 쌓이는 여느 하룻밤 / 아배 앞에 그 어린 아들 앞에 아배 앞에는 왕사발에 아들 앞에는 새끼사발에 그득히 사리워오는 것이다 / 이것은 그 곰의 잔등에 업혀서 길여났다는 먼 옛적 큰 마니가 / 또 그 잡등색이에서서 재채기를 하면 산 넘엣 마을까지 들렸다는 / 먼 옛적 큰아바지가 오는 것같이 오는 것이다 <백석, 국수, 문장, 1941. 4>

*a 어득시근하다

오대(五代)나 내린다는 크나큰 집 다찌그러진 들지고방 어득시근한 구석에서 쌀독과 말쿠지와 숫돌과 신뚝과 그리고 옛적과 또 열두 데석님과 친하게 살으면서 <백석, 목구(木具), 문장, 1940. 2>

*a 어릿광

뿔을 갖추기 위하여 떠돌았다. / 뻐만으로 지탱하면서 / 그대의 입을 열기 위하여 / 나는 겨우 시냇물인 듯 / 몇 줄 바람인 듯, 거리를 떠돌았다. / 터질 듯한 눈, / 더욱 크게 떨어지는 가을날의 눈물을 / 마을 가득히 떨어뜨리면서 / 그대의 눈을 열기 위하여 / 저 팽팽한 하늘은 열려 있고. / 마을 외양간에는 / 뿔 달린 송아지들의 힘찬 움직임. / 어릿광이 되고, 비극이 되는 / 저 어린 송아지들의 뿔 끝에서 / 금(金)인 시간은 싹튼다. / 우리는 이미 뿔난 냇물 / 뿔난 바람인 듯, 모이고 모여 / 창백한 그대 자유(自由)에 대하여 숙의(熟議)하였다 / 오, 바뀌지 않는 자유(自由), / 굳어진 그대의 혀. / 우리의 노여움은 피 묻은 뿔이 되어 / 저 눈물투성이 바다에 이르러. <마종하, 뿔, 노래하는 바다, 민족문화사, 1983>

*a 어수룩히

토방(土房)마루에 개도 어수룩히 앉아 / 술방울 기웃거리는 주막…… <박남수, 주막(酒幕), 초롱불, 삼문사, 1940>

*a 어슬녘

새들이 날아간다. / 하루 종일 먹이 한 톨이나 찾았는지 / 싸락눈 시름없이 나리는 어슬녘 / 새 두어 마리 / 서로 떨어져서 날아간다. / 헐벗은 산, 후미진 골짜기 / 어느 마른 가지에 둥우리가 매달려 있는지 / 잿빛 나래를 위아래로 치면서 / 헤엄치듯 낮은 허공을 / 뚫으며 날아간다. <조재훈, 해거름, 저문날 빈들의 노래,청사, 1987>

*a 억촉(憶觸)

나의 생각은 넓은 벌판에서 깊은 구렁으로—다시 아침 광명이 춤추는 절정으로—또다시 끝도 없는 검은 바다에서 낯선 산 피안으로—구름과 저녁놀이 흐느끼는 그 피안에서 두려움 없는 주저에 나른하여 눈을 감고 주저앉았다. / 오래지 않아 내 마음의 길바닥 위로 어떤 검은 안개 같은 요정이 소리도 없이 방만한 보조로 무엇을 찾는 듯이 돌아다녔다. 그는 모두 검은 의상을 입었는가—한 억촉(憶觸)이 나기도 하였다. 그때 나의 몸은 갑자기 열병든 이의 숨결을 지었다. 온몸에 있던 맥박이 한꺼번에 몰려 가슴을 부술 듯이 뛰놀았다. <이상화, 몽환병, 조선문단, 1926. 10>

*a 얼럭궁덜럭궁

황토 마루 수무나무에 얼럭궁덜럭궁 색동헝겁 뜯개조박 뵈짜배기 걸리고 오쟁이 끼애리 달리고 소삼은 엄신 같은 딥세기도 열린 국수당 고개를 몇 번이고 튀튀 침을 뱉고 넘어가면 골 안에 아늑히 묵은 영동이 무겁기도 할 집이 한 채 안기었는데 <백석, 넘언집 범 같은 노큰마니, 문장, 1939. 4>

*a 엄사부(嚴師傅)

백곡(百穀)이 풍등(豊登)토록 비를 만들어 / 은(恩)으로 도와줄 땐 그가 부모(父母)요 / 만악(萬惡)을 숙살(肅殺)하게 바람을 내여 / 위(威)로써 깨우칠 땐 엄사부(嚴師傅)로다. <최남선, 태백산(太白山)과 우리, 소년, 1910. 2>

*a 에고이스틱하다

나는 애인(愛人)도 없다 추억(追憶)도 탐미(耽美)도 모른다 / 다만 너의 맑고 흰 빛이 / 아무런 교만(驕慢)도 없이 아유(阿諛)도 없이 / 또 아무런 에고이스틱한 인색(吝嗇)도 없이 / 온—세계를 골고루 골고루 덮어 주는 때문이다 <권환, 달&12&, 자화상, 조선출판사, 1943>

*a 에머랄드

새악시 볼에 떠오는 부끄럼같이 / 시(詩)의 가슴에 살포시 젖는 물결같이 / 보드레한 에머랄드 얇게 흐르는 / 실비단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 <김영랑,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영

랑시집, 시문학사, 1935>

*a 여감(餘感)

속삭임을 입보다 몸으로 나누면서 / 여감(餘感)은 잔잔한 우물 또한 그 위에 떨어지는 은행잎 / 욕망은 갈기머리 귀뿌리에 치솟아 타오르는 불길이고 / 나뭇가지는 바람을 울린다 <정한모, 어둠이 쌓이는 밤의 깊이에서, 카오스의 사족(蛇足), 범조사, 1958>

*a 여기열음

옥야(沃野)가 열려, 가는 길초마다 밋밋이 패어 해묵은 여나무의 수풀 사이에 먹음직스레 흐무러져 익은바여기열음이 억시게도 열렸데. <김관식, 삭풍(朔風)에 기대어 말이 울면, 김관식시선, 자유세계사, 1957>

*a 여름하다

당인리(唐人里) 변두리에 / 터를 마련할까 보아. / 나이는 들고…… / 한 사, 오백 평(돈이 얼만데) / 집이야 움막인들. / 그야 그렇지. 집이 뭐 대순가. / 아쉬운 것은 흙 / 오곡(五穀)이 여름하는 / 보리·수수·감자 / 때로는 몇 그루 꽃나무. / 나이는 들고…… / 아쉬운 것은 자연. / 너그러운 호흡, 가락이 긴 / 삶과 생활. / 흙을 종일, / 흙하고 친하고 / (아아 그 푸근한 미소) / 등어리를 / 햇별에 끄실리고 / 말하자면 / 정신의 건강이 필요한. / 당인리(唐人里) 변두리에 / 터를 마련할까 보아. / (괜한 소리, 자식들은 / 어떡하고, 내가 먹여살리는) / 참, 그렇군. / 한쪽 날개는 죽지째 부러지고 / 가련한 꿈. / 그래도 사, 오백 평 / 땅을 가지고 (돈이 얼만데) / 수수·보리·푸성귀 / (어림없는 꿈을) / 지친 삶, 피로한 인생 / 두발은 희끗한 눈이 덮이는데. / 마음이 허전해서 / 너무나 허술한 차림새로 / (누구나 허술하게 떠나기야 하지만) / 길 떠날 채비를. / 기도 한 구절 올바르게 / 못 드리고 / 아아 땅버들 한 가지만 못하게 / (괜찮아, 괜찮아) / 아냐. 진정으로 까치새끼 한 마리만 못하게 / 어이 떠날까보냐. / 나이는 들고…… / 아쉬운 것은 자연. / 그 품안에 쉴 / 한 사, 오백 평. / (돈이 얼만데) / 바라보는 당인리(唐人里) 근처를 / (자식들은 많고) / 잔잔한 것은 아지랑인가(이 겨울에) / 나이는 들고. <박목월, 당인리(唐人里) 근처, 난·기타(蘭·其他), 신구문화사, 1959>

*a 여안내인(女案內人)

백화점의 옥상 정원의 우리 속의 날개를 드리운 카나리아는 니힐리스트처럼 눈을 감는다. 그는 사람들의 부르짖음과 그리고 그들의 일기에 대한 주식에 대한 서반아(西班牙)의 혁명(革命)에 대한 온갖 지껄임에서 귀를 틀어막고 잠 속으로 피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의 꿈이 대체 어디 가 방황하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아무도 생각해 보려고

한 일이 없다. / 기둥시계의 시침은 바로 12를 출발했는데 농(籠) 안의 호(胡)닭은 돌연 삼림의 습관을 생각해 내고 홰를 치면서 울어 보았다. 노—랗고 가—는 울음이 햇볕이 풀어져 빽빽한 공기의 주위에 길게 그어졌다. 어둠의 밑층에서 바다의 저편에서 땅의 한 끝에서 새벽의 날개의 떨림을 누구보다도 먼저 느끼던 흰 털에 감긴 붉은 심장은 인제는 '때의 전령'의 명언을 잊어버렸다. 사람들은 '무슈 루쏘—'의 유언은 서랍 속에 꾸겨서 넣어 두고 옥상의 분수에 메말라 버린 심장을 축이러 온다. / 건물 회사는 병아리와 같이 민첩하고 튜—립과 같이 신선한 공기를 방어하기 위하여 대도시의 골목 골목에 75센티의 벽돌을 쌓는다. 놀라운 전쟁의 때다. 사람의 선조는 맨첨에 별들과 구름을 거절하였고 다음에 대지를 그러고 최후로 그 자손들은 공기에 향하여 선전(宣戰)한다. / 거리에서는 티끌이 소리친다. '도시계획국장(都市計劃局長) 각하(閣下) 무슨 까닭에 당신은 우리들을 콩크리—트와 포석의 네모진 옥사 속에서 질식시키고 푸른 네온싸인으로 표백하려 합니까? 이렇게 호기적(好奇的)인 세탁(洗濯)의 실험에는 아주 진저리가 났습니다. 당신은 무슨 까닭에 우리들의 비약과 성장과 연애를 질투하십니까?' 그러나 부(府)의 살수차(撒水車)는 때 없이 태양에게 선동되어 아스팔트 위에서 반란하는 티끌의 밀물을 잡재우기 위하여 오늘도 쉬일 새 없이 네거리를 기어다닌다. 사람들은 이윽고 익사한 그들의 혼을 분수지 속에서 건져가지고 분주히 분주히 승강기를 타고 제비와 같이 떨어질 게다. 여안내인(女案內人)은 그의 팡을 낳은 시(詩)를 암탉처럼 수없이 낳겠지. / '여기는 지하실이올시다' / '여기는 지하실이올시다' <김기림, 옥상 정원(屋上庭園), 기상도, (자가본), 1936>

*a 여울가

망각의 여울가에 / 지저귀는 귀여운 입부리 <박목월, 소묘 B, 무순(無順), 삼중당, 1976>

*a 여을목

왜 또 우나요 봄 사람 넘어 울면 시드나니 / 타락 송아지 "엠매 - " 할 제 무에 그리 슬어워 / 실없는 말하면은 얼굴이 붉고 / 진정(眞情)대로 달래면 도라나려라 / 그도 저도 말없으면 가만한 한숨 / 시악시 마음이란 여을목 달빛 / 왼달도 반(半)달인양 대종도 없지 / 네 나이 열 아홉 살……봄꿈은 개꿈 <홍사용, 시악시 마음이란, 삼천리문학, 1938. 1>

*a 역마(疫馬)

여기있는것들은모두가그방대(尨大)한방(房)을쓸어생긴답답한쓰레기다. 낙뢰(落雷)심한그방대(尨大)한방(房)안에는어디로선가질식(窒息)한비둘기만한까마귀한마리가날아들어왔다. 그러

니까강(剛)하던것들이역마(疫馬)잡듯픽픽쓰러지면서방(房)은금시폭발(爆發)할만큼정결(精潔)하다. 반대(反對)로여기있는것들은통요사이의쓰레기다. / 간다. <손자(孫子)>도탑재(搭載)한객차(客車)가방(房)을피(避)하나보다. 속기(速記)를펴놓은상궤위에알뜰한접시가있고접시위에삶은계란(鷄卵)한개―포―크로터뜨린노란자위겨드랑에서난데없이부화(孵化)하는훈장형(勳章型)조류(鳥類)―푸드덕거리는바람에방안지(方眼紙)가찢어지고빙원(氷原)위에좌표(座標)잃은부첩(符牒)떼가난무(亂舞)한다. 권연(卷煙)에피가묻고그날밤에유곽(遊廓)도탔다. 번식(繁殖)하고거짓천사(天使)들이하늘을가리고온대(溫帶)로건넌다. 그러나여기있는것들은뜨뜻해지면서한꺼번에들떠든다. 방대(尨大)한방(房)은속으로곪아서벽지(壁紙)가가렵다. 쓰레기가막붙는다. <이상, 가외가전(街外街傳), 시와 소설, 1936. 3>

*a 역배(力排)하다

나는 네가 한(限)껏 공평(公平)함을 아노라. / 제왕(帝王)의 정원(庭園)에와 같이 한사(寒士)의 파옥(破屋)에도 너의 고은 모양은 한결같고, 지혜(智慧)로운 사람의 눈에와 같이 준우(蠢愚)한 자(者)의 눈에도 기쁜 뜻은 틀리지 아니하고나. / 공평(公平)함을 아는 그 때에 나는 아울러 미쁨도 알며 참스러움도 알며, 더욱 자아(自我)를 발전(發展)하려는 큰 노력(努力)도 아노라. / 무엇이던지 불어날리고 꺾어 넘어뜨리지 아니하면 말지 아니하겠단 동풍(東風)이 날로 밤으로 잇대여 불고, / 어저께 오던 몹슬 비가 오늘에도 오기를 예사(例事)로 하되, / 그러나 너의 생(生)을 보존(保存)하고 씨를 번식(繁殖)하기에는, 일즉 절망(絶望)한 일도 없고 마음을 게을리한 일도 없도다. / 견인(堅忍) 하는도다, 역배(力排)하는도다. 그리하야 자방(子房)에 알이 익기까지는 격전(激戰)을 사양치도 아니하고 분투(奮鬪)를 즐겨 하도다. / "무정(無情)한 사람아, 잔인(殘忍)한 사람아. 나의 꽃을 딸 터이면 따거라. 가지를 꺾을 터이면 그도 마음대로 하여라. 아무리하야도 최후(最後)의 결실(結實)에는 어찌하지 못하리라." / 너의 호어(豪語)를 나는 괴이(怪異)하게 여기지 아니 하리라. / 따가는 열을 알므로, 미리 스물을 준비(準備)하며, 꺾어가는 하나를 알므로 애초에 열을 준비(準備)함을 내가 봄일세라. / 살아야 한다! 늘어야 한다! 어려운 중(中) 고로운 중(中), 이리 하랴면 필요(必要)오 없지 못할 많은 희생(犧牲)을 앗기지 아니하는 너의 용기(勇氣)를 사랑하노라―내 손으로 만든 자식(子息)을 죽임이나 다름없이 하는 간절(懇切)한 앗기는 정(情)도 모름이 아니나― / 공평(公平)도 좋다, 미쁨도 좋다, 참스럼도 좋다. 가장 귀(貴)하고 높은 도덕적(道德的) 생명(生命)을 우리 손에 거치게 하니,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를 찬송(讚頌)하지 아니치 못할지로다. / 하물며 너는 우리의 몸과 마음

이 생활(生活)의 피로(疲勞)와 미혹(迷惑)의 고뇌(苦惱)와 및 자아실현(自我實現)에서 생긴 몸살을 앓을 때에 금강석(金剛石)보다 곱고 라디움보다 귀(貴)한 힘의 교훈(敎訓)을 줌이에리오. / 너는 어여쁘다. 외모(外貌)에와 같이 내심(內心)도 그러하면, 원(願)하건대 너의 공평(公平)으로써 너의 가진 참 힘을 우리 사람에게 골고루 빌려주려무나. / 사람이란 왜 이리 약(弱)하여질 소인(素因)이 있는가? 이를 생각할 때마다 더욱 너희를 부러워하며 기림은 우리의 참 정(情)이로다. <최남선, 화신(花神)을 찬송(贊頌)하노라고, 소년, 1910. 5>

*a 역학풀이

아, 우리의 세상은 / 정말로 평안해 / 밀주 한 잔 할 정도로 / 비디오 볼 정도로 / 아, 우리의 세상은 / 품바 소리에 눈 뜨고 / 자울화에 눈 감고 / 정말로 우리는 평안해 / 귓속말로 삐치고 / 역학풀이로 낯 가리고 / 아, 우리는 평안해 / 굿바이 조지 오웰 / 신세계 교향곡 통기다 / 내일은 낚시질 꿈꾸고 / 산등성이 위의 새매 좇고 / 아아, 우리는 정말로 / 평안해 잠자듯이. <홍희표, 역학(易學)풀이, 살풀이, 문학과지성사, 1984>

*a 연(鉛)빛

박모(薄暮)의 찬 달빛이 흘러 어리어 / 연(鉛)빛 가늘은 바람이 멀리 보인다. <김달진, 새꽃·달빛, 청시(靑柿), 청색지사, 1940>

*a 연교(連翹)꽃

휘장에 가리운 외인묘지(外人墓地). 저 호젓한 구릉(丘陵)에도 초록빛 사이사이, 흰 묘비(墓碑) 사이사이, 연교(連翹)꽃 노오랗게 어우러졌다. 브로크 담장 밖엔 살빛 분홍꽃도 조금씩 조금씩 초친 듯이 번져난다. <김상옥, 화창(和暢)한 날, 묵(墨)을 갈다가, 창작과비평사, 1980>

*a 연금학자(錬金學者)

하늘조차 파랗지 못하고 희부옇게 흐리여, / 검고 붉은 누른 골짜기 주름에 / 한줄기 생기있는 시냇물도 흐르지 않고, / 벌거벗은 가지에 숨어 있던 바람만이 / 가만 오르는 흰 연기를 가만 있지 못하게 나부껴 주느니. / 삼천 광년(三千光年)보다 더 머언 곳으로 그를 잃어버리고 / 연금학자(錬金學者)도 아닌 나는 잿속에서 무슨 금을 찾을거나? <박용철, 나는 그를 불사르노라, 박용철전집, 시문학사, 1939>

*a 연방홍(軟紡紅)

몸 맵시는 가날퍼도 마음은 쇠줄같이 굳어 / 바람이 불 때마다 하늘하늘 몹시 볶이다도 / 아침날 흰 이슬 맺어 그 모양 연방홍(軟紡紅)으로 피다 <노자영, 코스모스&2&, 백공작(白孔雀), 미모사서점, 1938>

*a 연소탕(燕巢湯)

나는 지나(支那)나라 사람들과 같이 목욕을 한다 / 무슨 은(殷)이며 상(商)이며 월(越)이며 하는 나라 사람들의 후손들과 같이 / 한 물통 안에 들어 목욕을 한다 / 서로 나라가 다른 사람인데 / 다들 쪽 발가벗고 같이 물에 몸을 녹이고 있는 것은 / 대대로 조상도 서로 모르고 말도 제가끔 틀리고 먹고 입는 것도 모두 다른데 / 이렇게 발가들 벗고 한 물에 몸을 씻는 것은 / 생각하면 쓸쓸한 일이다 / 이 딴 나라 사람들이 모두 이마들이 번번하니 넓고 눈은 컴컴하니 흐리고 / 그리고 길쭉한 다리에 모두 민숭민숭하니 다리털이 없는 것이 / 이것이 나는 왜 자꾸 슬퍼지는 것일까 / 그런데 저기 나무판장에 반쯤 나가 누워서 / 나주볕을 한없이 바라보며 혼자 무엇을 즐기는 듯한 목이 긴 사람은 / 도연명(陶淵明)은 저러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 또 여기 더운물에 뛰어들며 / 무슨 물새처럼 악악 소리를 지르는 삐삐 파리한 사람은 / 양자(楊子)라는 사람은 아무래도 이와 같았을 것만 같다 / 나는 시방 옛날 진(晋)이라는 나라나 위(衛)라는 나라에 와서 /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만 같다 / 이리하여 어쩐지 내 마음은 갑자기 반가워지나 / 그러나 나는 조금 무서웁고 외로워진다 / 그런데 참으로 그 은(殷)이며 상(商)이며 월(越)이며 위(衛)며 진(晋)이며 하는 나라 사람들의 이 후손들은 / 얼마나 마음이 한가하고 게으른가 / 더운물에 몸을 불키거나 때를 밀거나 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 제 배꼽을 들여다보거나 남의 낮을 쳐다보거나 하는 것인데 / 이러면서 그 무슨 제비의 춤이라는 연소탕(燕巢湯)이 맛도 있는 것과 / 또 어느 바루새악시가 곱기도 한 것 같은 것을 생각하는 것일 것인데 / 나는 이렇게 한가하고 게으르고 그러면서 목숨이라든가 인생이라든가 하는 것을 정말 사랑할 줄 아는 / 그 오래고 깊은 마음들이 참으로 좋고 우러러진다 / 그러나 나라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 글쎄 어린아이들도 아닌데 쪽 발가벗고 있는 것은 / 어쩐지 조금 우스웁기도 하다 <백석, 조당에서, 인문평론, 1941. 4>

*a 연자당구신

나는 이 마을에 태어나기가 잘못이다 / 마을은 맨천 구신이 돼서 / 나는 무서워 오력을 펼 수 없다 / 저 방안에는 성주님 / 나는 성주님이 무서워 토방으로 나오면 토방에는 디운 구신 / 나는 무서워 부엌으로 들어가면 부엌에는 부뚜막에 조앙님 / 나는 뛰쳐 나와 얼른 고방으로 숨어 버리면 고방에는 또 시렁에 제석님 / 나는 이번에는 굴통 모퉁이로 달아가는데 굴통에는 굴대장군 / 얼혼이 나서 뒤울안으로 가면 뒤울안에는 곱새녕 아래 털능구신 / 나는 이제는 할 수 없이 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 대문간에는 근력 세인 수문장 / 나는 겨우 대문을 빼쳐나 바깥으로 나와서 / 밭 마당귀 연자

간 앞을 지나가는데 연자간에는 또 연자당구신 / 나는 고만 기겁을 하여 큰 행길로 나서서 / 마음 놓고 화리서리 걸어가다 보니 / 아아 말마라 내 발뒤축에는 오나 가나 묻어다니는 달걀구신 / 마을은 온데간데 구신이 돼서 나는 아무데도 갈 수 없다 <백석, 마을은 맨천 구신이 돼서, 신세대, 1948. 5>

*a 연창(演唱)

장단을 친다는 말이 모자라오 / 연창(演唱)을 살리는 반주쯤은 지나고 / 북은 오히려 컨덕터―요 <김영랑, 북, 영랑시선, 정음사, 1949>

*a 연척(緣戚)

길을 가다 보니 / 외딴 집 한 채가 비어 있었다. / 무슨 이 집의 연척(緣戚)이라도 되는 양 / 앞뒤를 한 바퀴 휘둘러보다. / 구렁난 지붕에는 / 풀 버섯이 같이 자라고 / 썩은새 추녀 끝엔 박쥐도 와서 달릴 듯하다. / 먼지 낀 툇마루엔 진흙 자국만 인(印) 찍혔는데 / 떨어진 문(門)짝 찢어진 벽지(壁紙) 틈에서 / 퀴퀴한 냄새가 훅 끼치고 / 물이끼 퍼런 바가지 샘에 / 무당(巫堂)개구리 몇 놈이 얼른 숨는다. <김관식, 폐가(廢家)에 부쳐, 김관식시선, 자유세계사, 1957>

*a 연화가(煙花街)

어둠과 네온을 뚫고 적은 강물은 나폴리로 흘러내렸다. / 부두에 묵묵히 앉아 / 청춘은 어떠한 생각에 잠길 것인가, / 항구의 개울은 비린내에 섞이어 피가 흘렀다. / 무거이 고개 숙이면 / 사원의 종소리도 들려오나 / 육중한 바닷물은, 끝없이 출석거리어 / 기―단 지팡이로 아라비아 숫자를 그려보며 마른 빵쪽을 집어던졌다. / 글쎄 이방귀족이라도 좋지 않은가 / 어느 나라 삼등선에서 부는 보이라 소리 / 연화가(煙花街)의 계집이 짐을 내리고 / 공원 가까이 비둘기떼는 구구 운다 / 도미노의 쓰디쓴 웃음을 웃으나 / 마지막 비로―드의 검은 망또를 벗어버리나 / 붉은 벽돌담에 기대어 서서 떠가는 구름 바라보면 그만 아닌가 / 밤이면 흐르는 별이며 적은 강물에 나폴리는 함촉히 젖어 / 충충한 가로수 아래 / 꽃 파는 수레에도 등불을 끈다. / 호젓한 뒷거리에 휘파람 불며 / 네가 배울 것은 네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겠나 / 말없이 담배만 말고 돌층계에 기대어 앉아 / 포도(鋪道) 위의 야윈 조약돌을 차내 버리다. <오장환, 나폴리의 부랑자(浮浪者), 헌사, 남만서방, 1939>

*a 연화당초문(蓮花唐草文)

꽃은 마름꽃 / 아니 연화당초문(蓮花唐草文). <이근배, 문양집(文樣集), 노래여 노래여, 문학세계사, 1981>

*a 열도(熱稻)

불이 꺼진들 / 봉화대가 아니며 / 뿔

이 꺾인들 / 황소가 아니랴 / 모든 산상(山上)이 강토의 정점이듯 / 모든 가슴은 사상의 초점이라 / 이로써 가히 조국의 섬이오 / 이로써 비로소 / 조국이 풍양(豊穰)함이라 / 이는 다시 황주(黃州) 장단(長湍)벌 / 김제(金堤) 하동(河東)드을에 / 수백만 청춘의 팔뚝같이 여문 / 열도(熱稻)만을 이름이 아니라 / 거기 벌써 서리잡는 / 공화국의 주권이라 <설정식, 송가(頌歌)&3&, 포도, 정음사, 1948>

*a 열반적멸궁(涅槃寂滅宮)

빈 속 에 무(無)가 숨어 유(有)를 꼬이고 / 찬 속에 유(有) 못 견뎌 무(無)를 부르네 / 유무(有無)의 숨바꼭질 끝도 없거니 / 유무(有無)의 끝나는 곳 열반적멸궁(涅槃寂滅宮) <오상순, 항아리&5&, 공초오상순시선(空超吳相淳詩選), 자유문화사, 1963>

*a 열병신(熱病神)

열반이 번져 온 마을에 노을이 / 타는 / 이 언덕에 / 꽃 타는 이 언덕에 / 언제 머루나무의 새잎이 돋아날 건가 / 밤 밤 밤 / 기어오르는 뱀의 혓바닥과 환장할 / 한바다의 물결이 넘실거리는 움직임과 / 전신의 혼이 녹아내리는 마디마디는 / 열병신(熱病神)에게야 횟갓이어라 <신석초, 처용(處容)은 말한다, 현대문학, 1964. 5>

*a 열파(悅波)

내 마음 가운데 바람이 불어오다 적열(寂悅)의 바람이 / 봄들에 소리없이 부는 바람같이 / 고요한 호수(湖水)에 넘치는 난파(暖波)같이 / 내 혈맥(血脈)을 통(通)하야 내 전신(全身)을 통(通)하야 / 그 마음의 오궁(奧宮)으로부터 / 까닭 모르는 적열(寂悅)의 바람이 불어오다 / 그는 까닭 모르는 생명(生命)의 열파(悅波) / 지혜(智慧)와 감각(感覺)을 떠난 영혼(靈魂)의 미소(微笑) / 아아 이 알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 천구백이십이년 시월 십오일(一九二二年十月十五日) / 햇빛은 머리에 비춘 석양 침상(夕陽枕上)에. <조명희, 불사의(不思議)의 생명(生命)의..., 봄 잔디 밭 위에, 춘추각, 1924>

*a 염불성(念佛聲)

옛 절에 밤 깊으니 풍경소리 뿐이로다. / 노승(老僧)의 염불성(念佛聲)도 끊인 지 오래거든 / 산(山)비만 비인 뜰가로 오락가락 하더라. <이광수, 보광암(普光庵), 춘원시가집(春園詩歌集), 박문서관, 1940>

*a 염요(艶謠)

발부리를 잡아 공주산성(公州山城)에 오름. 동물이라고는 나 한 마리. 나머지는 모두 공주산성(公州山城)임. / 당갑사 중치마 붉어서 좋고 / 백화나 단속곳 넓어서 좋아 / 이 염요(艶

謠)를 부르던 금강의 백성(百姓)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음. 나 혼자 그 염요(艶謠)의 단속곳에 일박(一泊)함. <오규원, 한 나라 또는 한 여자(女子)의 길, 왕자가 아닌 한 아이에게, 문학과지성사, 1978>

*a 염천지옥(炎天地獄)

이태 전쯤 얻어다 기른 / 축자지송(筑紫之松) 두 뿌리. / 올여름 염천지옥(炎天地獄) 속에서 / 놋날같이 쩟쩟한 줄기 뻗어 / 골짜기 숨은 산(山)빛 끌어 내리다. <조정권, 축자지송(筑紫之松)*송(頌), 산정묘지, 민음사, 1991>

*a 엽록(葉綠)

어디로 갔는가. 그때 어둠 속에서 날 이끌던 손, 명주실처럼 곱고 강물소리보다 낮은 그 목소리. 끝없이 날 어루만지는 햇빛의 손길. 바람의 문을 밀치자 나는 어느 사이 한 마리 새, 엽록(葉綠)의 바다를 비상하고 / 내 머리맡에는 늘 빛으로 밝아 있는 일세기의 꽃말들. / 밖에는 무시로 창을 두드리며 가는 푸른 소나기떼. <손종호, 열매의 지평, 숨은 신, 현대문학사, 1994>

*a 엽신(葉信)

제대를 하고 대학(大學)을 졸업하면 / 나는 개나리꽃이 한 닷새 마을의 봄을 앞당기는 /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조그만 시골에서 / 시(詩)나 쓰는 가난한 서생(書生)이 되어 살려고 생각했다. / 고급장교가 되어 있는 국민학교 동창과 / 개인회사 중역(重役)이 되어 있는 어릴 적 친구들이 모두 마을을 떠날 때 / 나는 혼자 다시 이 마을로 돌아와 탱자나무 울타리를 / 손질하는 촌부(村夫)가 되어 살려고 생각했다. / 눈 속에서 지난해 지워진 쓴냉이 잎새가 새로 돋고 / 물레방앗간 뒷쪽에 비비새가 와서 울면 / 간호원을 하러 독일로 떠난 여자 친구의 항공엽서나 기다리며 / 느린 하학종을 울리는 낙엽송 교정(校庭)에서 / 잠처럼 조용한 풍금 소릴 듣는 2급정교사가 되어 살려고 생각했다. / 용서할 줄 모르는 시간은 물처럼 흘러갔고 / 늘 속에 묻히는 봄보리들의 침묵이 나를 무섭게 위협했을 때 / 관습의 신발 속에 나는 맨발을 꽂으며 / 눈에 익은 돌멩이들의 정분(情分)을 거역하기 시작했다. / 염소들 불러 모으는 비음(鼻音)의 말들과 / 부피가 작은 몇 권의 국정교과서(國定敎科書)를 거역했다. / 뒷산에 홀로 누운 할아버지의 산소를 한번만 바라보았고 / 그리고는 뛰는 버스에 올라 도시(都市) 속의 먼지가 되었다. / 봄이 되면 아직도 그 고을의 물소리와 아이들의 자치기 소리가 / 도시의 옆구리에 잠든 나의 꿈 속에 / 배달되지 않는 엽신(葉信)으로 녹아 문지방을 울리며 흐르고 있다. <이기철, 이향(離鄕), 자유시, 실천문학사, 1983>

*a 엽주(葉舟)

또 깊은 거울엔, 고요가 깃들고 / 고요에 잠든 엽주(葉舟)는 저마다 / 홍보석을 실어서, 옛날 왕녀가 버린 / 황금 첩지를 생각케 하누나. <신석초, 연(蓮)꽃, 석초시집, 을유문화사, 1946>

*a 영감(靈感)하다

한(限)없이 샘솟는 이 수원(水源)은 실(實)로 창망(滄茫)한 동해(東海)바다로 직통(直通)하였음을 / 아니! 태초(太初) 혼돈(混沌)에서 하늘과 땅이 나뉘고 하늘과 바다가 갈라지던 / 그 태고겁초(太古劫初)의 창조(創造)의 바다 속에 뿌리 박았음을 / 나는 직관(直觀)하고 영감(靈感)했건만 / 물맛은 짜지가 않고 감로(甘露)같이 달았다 / 이 생명수(生命水)와도 같은 거룩한 샘물이 망막무제(茫漠無際)한 / 사막(沙漠)과 대지(大地)를 골고루 적시고 스며들어 / 전체(全體)를 녹화(綠化)하고 소생(蘇生)하여 꽃피고 열매 맺을 / 참 평화(平和)의 명일(明日)을 예감(豫感)코 / 무한(無限)한 환희(歡喜)와 감사(感謝)와 법열(法悅)에 넘치며 잠기며 / 무심(無心)코 용(勇)을 써 몸을 뒤치는 찰나(刹那) / 깨고 보니 꿈일러라. <오상순, 바다물은 달다, 공초오상순시선(空超吳相淳詩選), 자유문화사, 1963>

*a 영구막사

부목 대고 새끼줄 감고 / 물을 주며 가꾸던 그 나무는 / 내가 제대를 할 무렵 / 콘크리트 영구막사처럼 어느새 튼튼하게 뿌리 내려 버렸는데 <김명수, 그 봄의 식수, 하급반 교과서, 창작사, 1983>

*a 영락(玲珞)

너는 무슨 일로 사막의 공주(公主) 같아 연지 찍은 붉은 입술을 내 근심에 표백된 돛대에 거느뇨 오—안타까운 신월(新月) / 때론 너를 불러 꿈마다 눈덮인 내 섬 속 투명한 영락(玲珞)으로 세운 집안에 머리 푼 알몸을 황금 정쇄(頂鎖) 족쇄(足鎖)로 매어 두고 <이육사, 해후, 육사시집(陸史詩集), 서울출판사, 1946>

*a 영생불로

돌 하나 품속에 간직하라 / 차고 단단한 목소리 하나 / 차고 단단한 슬픔 하나 / 꽃꽃이 자랄 것이다 / 한가닥 마른 번개 번쩍일 것이다 / 영생불로의 바람 한자락 펄럭일 것이다 / 곧게 내려꽂히는 햇살 한보자기 풀어놓을 것이다 <이종욱, 돌 &3&, 꽃샘추위, 창작과비평사, 1981>

*a 영어(囹圄)되다

나는거울있는실내(室內)로몰래들어간다. 나를거울에서해방(解放)하려고. 그러나거울속의나는침울(沈鬱)한얼굴로동시(同時)에꼭들어온다. 거울속의나는내게미안(未安)한뜻을전(傳)한다. 내가그때문에영어(囹圄)되어있드키그

도나때문에영어(囹圄)되어떨고있다. <이상, 시제십오호(詩第十五號), 조선중앙일보, 1934. 8. 8>

*a 영어(囹圄)하다

연륜이 그 둘레를 해바라기처럼 / 향수했다 하지만 / 영육(靈肉)은 이율배반(二律背反)하고 / 양극 사이에 끼인 약자는 스스로를 영어(囹圄)하여 <김용호, Y라는 부호, 날개, 대문사, 1956>

*a 영원사역(永遠使役)

영원사역(永遠使役)에 떨어진 포로수(捕虜囚)와도 같이 / 불타는 정열(情熱)과 굳센 의지(意志)와 양심과 열성(熱誠)과 / 최후(最後)의 희생(犧牲)까지를 바쳐서 섬길지라도 / 오히려 우리를 의심(疑心)하고 채찍질하는 / 나의 신(神)은 그런 엄격(嚴格)한 신(神)이리라 <함형수, 나의 신(神)은, 미발표 / 연도 미상>

*a 영채(榮彩)

일개 학도인 그이가 일르기를 / 푸르특특한 돌은 너무 빛이 없으니 / 우리 집 정원 고석(古石)으로 다시 새깁시다! / 영채(榮彩)있는 눈으로 먼 곳을 가리키며 갔다 / 이리하여 내 죄도 감추었지마는 / 그야말로 후원의 고석이 운치있으리라 <김명순, 석공(石工)의 노래, 삼천리, 1938. 8>

*a 영화안락(榮華安樂)

썩어질 몸이어늘 영화안락(榮華安樂) 무엇이뇨 / 불의(不義)엔 침 배알고 향기(香氣)로이 살았어라 / 내 일생(一生) 이 뜻을 지켜 님의 뒤를 이으리다 <이은상, 맹서(盟誓), 노산시조집(鷺山時調集), 한성도서주식회사, 1932>

*a 예각(銳角)화되다

이제 난 일어선다. / 성낸 쟈이안트처럼 감연히 일어선다. / 예각(銳角)화된 내 등덜미 위에 / 아무도 기어오르지 못한다. <설창수, 개폐교(開閉橋), 개폐교, 백양당, 1950>

*a 예데가리밭

눈이 많이 와서 / 산엣새가 벌로 나려 멕이고 / 눈구덩이에 토끼가 더러 빠지기도 하면 / 마을에는 그 무슨 반가운 것이 오는가 보다 / 한가한 애동들은 어둡도록 꿩사냥을 하고 / 가난한 엄매는 밤중에 김치가 재미로 가고 / 마을을 구수한 즐거움에 사서 은근하니 흥성흥성 들뜨게 하며 / 이것은 오는 것이다 / 이것은 어느 양지귀 혹은 능달쪽 외따른 산옆 은댕이 예데가리밭에서 / 하룻밤 뽀오얀 흰 김 속에 접시귀 소기름불이 뿌우연 부엌에 / 산멍에 같은 분틀을 타고 오는 것이다 / 이것은 아득한 옛날 한가하고 즐겁던 세월로부터 / 실 같은 봄지 속을 타

는 듯한 여름볕 속을 지나서 들쿠레한 구시월 갈바람 속을 지나서 / 대대로 나며 죽으며 죽으며 나며 하는 이 마을 사람들의 의젓한 마음을 지나서 텁텁한 꿈을 지나서 / 지붕에 마당에 우물둔덩에 함박눈이 푹푹 쌓이는 여느 하룻밤 / 아배 앞에 그 어린 아들 앞에 아배 앞에는 왕사발에 아들 앞에는 새끼사발에 그득히 사리워오는 것이다 / 이것은 그 곰의 잔등에 업혀서 길여났다는 먼 옛적 큰 마니가 / 또 그 잡등색이에서서 재채기를 하면 산 넘엣 마을까지 들렸다는 / 먼 옛적 큰아바지가 오는 것같이 오는 것이다 <백석, 국수, 문장, 1941. 4>

*a 예범

또 그 다음에는 화려치 못한 아연 속된 철 취미가 높지 못한 동 / 그러나 천하에 많고 많은 부엌 며느리 같은 / 그네의 은공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올시다 / 신비한 푸른색 가진 백동 그와 한쌍인 붉은 코발트 / 가장 옷 잘차리기는 누런 치마의 카드뮴 등황색의 크롬 / 수은은 여승같이 세상을 버린 이 / 그러나 순홍과 주토의 붉은 빛이 수은계로 온 것은 / 잊지 못할 것의 하납니다 / 무거운 '연' 젊은 라듐이 천만 세기를 늙어서 된 '연' / 예범 있고 깨끗한 '은' 참 말레디 / 한빛의 아름다움을 몸소 가르치는 은 / 교만한 금보다도 가면 쓴 백금보다도 / 은은 더 사랑스럽습니다 / 여보시오 여기는 투르키의 미인시장 / 각색 금속이 색을 자랑하는 실험실이올시다 <주요한, 금속의 노래, 봉사꽃, 세계서관, 1930>

*a 예서체(隸書體)

대관절 가슴에 서린 한이 / 얼마나 크고 사무쳤길래 / 푸르고 질긴 잎에 예서체(隸書體)로 숨겼다가 / 오뉴월 눈시린 서릿발로 치는가 <임영조, 나도풍란, 그림자를 지우며, 현대문학, 1988>

*a 예저기

유난히도 포근한 초동 날씨 / 더없이 옥빛 귀한 하늘빛이다. / 고마와라, 이런 날도 있었던가 / 좋았던 날은 하마 가고 없는데. / 하늘거리며 그리 춥지도 않은 바람이 / 시름없이 건너가고 있다. / 뜰의 모과나무엔 예저기 / 아직도 매달린 가랑잎새들 / 하르라니 살랑이며 맑게 떨고 있다. / 그때는 구슬프기 짝이 없던 나문데 / 그 사이 어언 자라 / 실하고 당당한 나무가 되었다. / 여름이면 보기에도 시원히 / 잎새를 살랑이며 / 호젓한 저녁 한때를 / 심심히도 반겨 주더니 / 그 사이도 식구들은 하나 둘 줄고 / 뜻밖에도 이 몸은 망가져 / 삽시에 많은 것이 변하고 말았다. /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 햇살에 살랑이는 모과나무의 향내라 할까. / 햇살 바른 뜰에는 향기 드높이 / 코에 스미던 모과 열매도 / 지금은 거진 다 따고 말았다. /

몇 개만 가지 끝에 / 지금도 남아 있을 뿐. / 바람이 하늘거릴 때마다 / 지금도 향내는 코에 스미듯 / 감돌고 있다. / 드디어 나뭇잎도 다 떨어지면 / 사람들은 영하 깊이 문을 닫아 걸리라. / 원컨대 해가 바뀌면 또 / 가지 추운 나무도 다시 살아나 / 향내 그윽한 열매를 달아 주기를. / 바라는 것이 또 무엇이랴, / 유난히도 포근한 초동(初冬) 날씨에 / 더없이 옥빛 귀한 이 하늘 / 고마와라, 이런 날도 있었던가 / 좋았던 날은 하마 가고 없는데. / 경건히 고개 숙여 / 지팡이를 다시 짚는다. <신동집, 모과나무, 송별, 문학세계사, 1986>

이른 봄 들에 나오면 / 과원엔 예저기 가지 치는 사람들 / 벌레나 먹고 병들어 / 못쓰는 가지라면 몰라도 / 치기엔 아까운 / 그런 가지도 더러는 있다. / 옥석이 분간 없는 일이 / 세상엔 한두 가지가 아니다. / 보다 큰 보람을 위해서라면 / 도리 없는 일이기도 하리라. / 잘라서 오히려 튼튼한 나무 / 굵다란 앞날의 과일도 / 탐스러이 지레 비쳐 보인다. / 이윽고 풍작의 가을은 오고 / 겨울이 다시 끝날 무렵이면 / 과원에도 작년의 사람이 또 / 어김없이 돌아오리라. / 돌아와 예저기 가지를 치며 / 한동안 잊었던 신(神)의 손을 / 다시 익혀도 보리라. <신동집, 가지치기&2&, 신동집 전집, 영락출판사, 1984>

해질 무렵의 석양 하늘 언저리 / 수심가(愁心歌)같이 스러운 노을이 떨어지고 밤그늘이 덮이면 예저기 하나둘씩 초록별이 솟아나 새초롱한 눈초리로 운근히 속샐기며 어리석음을 흔들어 일깨워 준다. <김관식, 자하문(紫霞門) 밖, 김관식시선, 자유세계사, 1957>

*a 오복수

단당이 휘친 휘친하게 쌍건네 잘뛰던, 모본단 댕기랑 오복수 댕기랑 디리구 새빨간 새 노란 알락달락한 무대소* 꽈리 뽀두두룩 빠가각 잘 울리던 체니들—특실이 확실이 자근네 간다이 삼네 탐네 우개미 곤네 보비 옥네 먹시기 쌍퉹이 칠성네 탄실이 복실이들은 다덜 어디캐덜 사노. <양명문, 단오(端午)&2&, 화성인(火星人), 장왕사, 1955>

*a 오불관(吾不關)

어느 것은 웅크리고 앉아, 이마를 맞대고 수군거리듯, 어느 것은 힐끗이 돌아보고, 말쑥히 물러서고, 또한 어느 것은 어깨를 추스리고 서서 고개를 젖혀 하늘을 우러러 오불관(吾不關)의 태(態), 다만 어느 하나는 얌전히 동구(洞口) 앞에 이르러, 너붓이 절을 드리듯. 그것은 문안 온 외손자뻘. <박목월, 산(山)·소묘 4, 난·기타(蘭·其他), 신구문화사, 1959>

*a 오솜소리

나를 반듯이 눕힌 널판을 허비다도

/ 배와 두 다리에 / 징글스럽게 감긴 누더기를 쥐어뜯다도 / 밤 / 뛰어 뛰어 높은 재를 넘은 어린 사슴처럼 / 오솝소리 맥을 버리고 / 가벼이 볼을 만지는 야윈 손 <이용악, 밤&8&, 낡은 집, 삼문사, 1938>

*a 오안(傲岸)하다

어디서 창랑의 물결 새에서 생겨난 것. / 저 창궁(蒼穹)의 깊은 남벽(藍碧)이 방울져 떨어진 것 / 아아 밝은 칠월달 하늘에 / 높이 뜬 맑은 적은 넋이여 / 오안(傲岸)하게도 / 동물성의 땅의 집념을 떠나서 / 모든 애념(愛念)과 인연의 번쇄함을 떠나서 / 사람이 다스리는 세계를 떠나서 / 그는 저만의 삼가하고도 방침(放瞻) 한 넋을 타고 / 저 무변대(無邊大)한 천공(天空)을 날아 / 거기 정사(靜思)의 닻을 고요히 놓고 / 황홀한 그의 꿈을 / 백일(白日)의 세계 위에 높이 날개 편 / 아아 저 소리개 <유치환, 소리개, 청마시초, 문성사, 1939>

*a 오욕칠정

백팔번뇌도 오욕칠정도 / 모두 불타고 재만 남은 / 허무의 늪이여 <박종해, 잠의 늪, 이 강산 녹음 방초, 민음사, 1992>

*a 오유(烏有)되다

별안간 파상철판(波狀鐵板)이넘어졌다 완고(頑固)한음향(音響)에는 여운(餘韻)도없다 / 그밑에서 늙은 의원(議員)과 늙은 교수(敎授)가 번차례로강연(講演)한다 / '무엇이 무엇과와야만하느냐' / 이들의상판은 개개(個個) 이들의선배(先輩)상판을닮았다 / 오유(烏有)된역(驛)구내(構內)에 화물차(貨物車)가 우뚝하다 향(向)하고있다 <이상, 파첩(破帖), 자오선, 1937. 11>

*a 오이디프스

눈빛도 변하자 구름빛이 푸르던가 / 그러나 지금은 겨울, / 매몰찬 하늘 아래 / 제가 뿌린 씨 / 저에게 안겨주는 낙백(落魄)의 자작나무. / 코로노스 들판에서 비로소 / 눈뜨는 오이디프스같이, / 손에 한 모든 것을 / 놓쳤을 때 비로소 눈뜨는 / 심봉사 같이, <장호, 눈뜨는 겨울, 동경 까마귀, 문학세계사, 1988>

*a 오입담(誤入談)

일단, 오징어는 맛나게 / 잘 섞은 오입담(誤入談) 날리며 날리며 / 화투짝 신나게 / 신(神)도 죽음도 / 땡잡는 황홀함 알 턱 없다 <이윤택, 친구의 시신(屍身) 옆에서 불 밝히고, 시민, 청하, 1983>

*a 오접되다

구르는 바퀴 위에 낯선 삶들과 함께 서서 / 달려가며 먼지앉은 창밖으로 스치는 도시를 본다 / 더러운 짐승아황산가스의 마스크로 얼굴 가린 /

창부같은 도시의 벌린 가랑이 사이를 질주하며 / 도처에 공처럼 튀어 오르는 노랗게 타는 유황의 태양 / 오늘도 무사할 것인가 썩어서 빛나는 아침의 평화 / 누군들 괴롭지 않으랴 나날의 태평무사한 삶에의 / 자욱같은 입맞춤 시내버스 손잡이에 매달려 흔들리는 일 / 흔들림의 이 끈적끈적한 즐거움을 소유하며 난 이제 / 지쳤어 라고 말하지 마라 나의 흔들림은 / 저 흐르는 바깥풍경을 안심케 하기 위함이다 / 일용할 양식과 그분의 말씀에 매달리고 / 어린 새끼들과 오접된 전화에 매달리고 / 화학 조미료가 듬뿍 녹아든 달착지근한 점심과 / 검은 커피와 음담패설과 술집과 취해 넘어지는 세상과 / 그 모든 우리의 매달림에 축복 있을진저 아, 어리석은 입맞춤 / 저녁 시내버스 안에서 침침히 고여있는 불빛 속에서 / 다시 오늘의 삶의 시시함과 만나며 / 나는 자유로왔노라 아침 시내버스 구금에서 풀려난 / 해방은 그러나 언제까지 내 것일 수 있겠는가 / 녹슨 철관을 타고 클럭클럭 천식하듯 토해내는 / 수돗물에 얼굴 씻고 냄새나는 발 씻으면 / 천국처럼 아름다운 프로판개스의 불꽃 위로 끓어 넘치는 / 절망인 우리의 양식, 양식인 우리의 절망 그 / 끓는 절망과 괴로움은 얼마나 질기고 뿌리 깊은 것인가 / 지구 위의 이 기막힌, 싫은, 정든, 되풀이의 삶과 실패, 그러나 / 포기할 수 없는 무상배급 받은 그분의 / 구호물자같은, 누추한, 내 것이 아닌 삶의 시시한 / 기미를……아아, 나는…… / 어디로 가는가……어둠 속에 눈뜨는 땅의 유리의 불빛들 / 빠르게……스쳐……지나가며, 돌아가리, 거기, 여기 / 아닌 곳으로, 육신은 고깃덩이처럼 손잡이에 / 엉겨붙어 뜻없이 흔들리고, 어쩔 수 없다 / 눈구멍으로 내다보는 이 낯선 천국, 때론 정든 지옥의 / 세계 안에 흐르는 시간과 흐르지 않는 / 나의 있음과 때론 나의 없음을 <장석주, 삶과 꿈, 그리운 나라, 평민사, 1984>

*a 오척단신

날지 못할 날개는 떼어버려요 / 지지 못할 십자가는 벗어놓아요 / 오척단신 분수도 모르는 양심에 치어 / 돌아서는 자리마다 비틀거리는 / 무거운 짐수레 죄다 비우고 / 손 털고 돌아서는 빌라도로 살아요 / 상처의 암실엔 침묵의 쇠 채우고 / 죽지 못할 유서는 쓰지 말아요 / 한 사발의 목숨 위해 / 날마다 일심으로 늙기만 해요 / 형제여 지금은 다친 발 동여매고 / 살얼음 건너야 할 겨울 진군 / 되도록 몸은 작게 숨만 쉬어요 / 바람 불면 들풀처럼 낮게 누워요 / 아, 그리고 혼만 깨어 혼만 깨어 / 이 겨울 도강(渡江)을 해요 <홍윤숙, 사는 법(法) 2, 사는 법, 열화당, 1983>

*a 오천춘광(五千春光)

운수(運數)는 나로 하여금 나라를 떠나게 하도다 / 버티려 하면 손도 있

고 뻗디디려 하면 발도 있으나 우리는 구태여 운수(運數)의 시킴을 항거(抗拒)하려 아니 하노니 그 소용(所用) 없음을 아는 고(故)라 / 오천춘광(五千春光)에 한(限)없이 번화(繁華)하였던 무궁화(無窮花)! 내가 어떻게 사랑하던 것이뇨 / 우리의 활개가 적은 줄을 모름이 아니나 너를 위(爲)하여는 대붕(大鵬)의 날개같이 덮어 주려 하였고 / 나도 사람의 자식(子息)이라 자연(自然)의 맹폭(猛暴)을 제복(制伏)치 못할 줄은 알으나 너를 위(爲)하야는 보기좋게 이 몸을 버려서라도 막을 데까지는 막고자 하지 아님이 아니로라 / 그러나 운수(運數)로다 / 운수(運數)는 기어(期於)코 너를 한번 흔들어 떨어뜨리고야 만다고 하는구나 /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나라를 떠나게 하는도다—젖 떨어진 아해를 만들게 너의 목숨은 이미 너의 자유(自由)에 벗어났도다 그런데 너의 목숨을 자유(自由)로 하는 자(者)는 너의 목에 칼을 얹었도다 / 살기를 영화(榮華)로이 하였으니 지기도 영화(榮華)로이 하여라! 살았을 때에도 사나이였으니 질 때에도 사나이여라! / 저 천심(天心)에 달린 달을 보니 이즐어질 때에는 조곰도 원통(寃痛)해 하지 아니하고 이즐어지는 대신(代身)에 둥글 때에도 거침 없이 둥글어 지는도다 / 너로 하여금 조락(凋落)하게 한 운수(運數)는 미구(未久)에 번영(繁榮)케할 운수(運數)가 아닌 줄 누가 담보(擔保)한다더냐 / 너의 온갖을 다 뭉치여 모다 '때'의 바퀴에 실려라 서(西)으로 향(向)하였던 것이 곧 동(東)으로 향(向)하게 되리라 / 떨어져라 죽어라 나는 가노라 / 피울 때 살을 때에 다시 오리라 다행(多幸)히 미력(微力)이 남아 있노니 동군(東君)의 수레를 밀기에 쓰리라 <최남선, 나라를 떠나는 슬픔, 소년, 1910. 4>

*a 옥련화

하늘 위 옥련화가 삼간난리 인간으로 / 늘 보기 바라리만 너무 총총이다지오 / 씨남겨 새잎 나오니 정머문 줄 아노라 <정인보, 첫 정, 담원시조, 을유문화사, 1948>

*a 옥류(玉流)

옥석을 씻어 나려 옥류(玉流)가 되읍든가 / 옥류(玉流)로 닦아 내어 옥석(玉石)이 되음인가 / 두 옥(玉)이 씻고 닦이니 어느 그ㅣㄴ 줄 몰라라 <이은상, 옥류동(玉流洞), 노산시조집(鷺山時調集), 한성도서주식회사, 1932>

옥석을 씻어 나려 옥류(玉流)가 되읍든가 / 옥류(玉流)로 닦아 내어 옥석(玉石)이 되음인가 / 두 옥(玉)이 씻고 닦이니 어느 그ㅣㄴ 줄 몰라라 <이은상, 옥류동(玉流洞), 노산시조집(鷺山時調集), 한성도서주식회사, 1932>

이화(李花), 도화(桃花) 방창(芳暢)한데 / 지저귀는 저 새들과 / 옥류(玉流)에서 노니는 고기떼들의 / 생래

(生來)의 즐거움으로 계십니까. <구상, 무소부재(無所不在), 구상문학선, 1975>

*a 옥서(玉黍)

불이 보인다 새빨간 불빛이 / 저리 강 건너 / 대안(對岸) 벌에서는 순경들의 파수막(把守幕)에서 / 옥서(玉黍)장 태우는 빨—간 불빛이 보인다. / 까—맣게 타오르는 모닥불 속에 / 호주(胡酒)에 취한 순경들이 / 월월월 이태백을 부르면서. <김동환, 국경의 밤, 국경의 밤, 한성도서, 1924>

*a 옥화병(玉花瓶)

고통(苦痛)과 번뇌(煩惱)를 못 견디는 '나' / 대령(大靈)의 무형(無形)한 공기(空氣) 펌프를 빌어 / 전신(全身)의 피를 모두 다 / 뽑아 짜내어 / 투명순백(透明純白)한 옥화병(玉花瓶) 속에 넣어 / 쇠마개로 봉(封)하여 / 공중(空中)에 매단다. <오상순, 몽환시(夢幻詩), 공초오상순시선(空超吳相淳詩選), 자유문화사, 1963>

*a 옹숭거리다

옹숭거리고 살아난 양이 / 아아 꿈 같기에 설워라. <정지용, 춘설(春雪)&2&, 백록담, 문장사, 1941>

*a 옹졸옹졸하다

당신도 아다시피 나는 죄많은 시인(詩人) / 불상만한 아내가 있고 / 아이들이 옹졸옹졸합니다 / 그래도 아직 이 백지(白紙)에 / 당신이 부를 노래를 써 보고만 싶습니다 <김용제, 백지(白紙), 산무정(山無情), 대신문화사, 1956>

*a 와문(訛聞)

와문(訛聞)으로 들뜬 축제(祝祭) / 트로이의 목마(木馬)가 지나가고 / 굵은 팔과 아우성 / 어쩌다 이빨에 걸린 / 유죄(有罪)를 수확(收穫)으로 / 당당히 개선(凱旋)하며 / 오딧세이와 같은 잠을 청(請)했어요. <허소라, 그 연대(年代)의 잠, 풍장, 태을출판사, 1968>

*a 와이담

입으로 읽는 시(詩)도 좋고 눈으로 보는 시(詩)도 좋다. 소설(小說) 이바구 같은 시(詩)도 좋고 말초신경(末梢神經)을 간지르는 와이담 같은 시(詩)도 좋다. 그러나 심장(心臟)에 와 부딪쳐 영혼(靈魂)과 대화(對話)하는 시(詩)는 더 좋다. <림영창, 시(詩)의 파편(破片)들, 1986년 12월 18일, 문무사, 1985>

*a 왕구새자리

이슥하니 물기에 누굿이 젖은 왕구새자리에서 저녁상을 받은 가슴 앓는 사람은 참치회를 먹지 못하고 눈물겨웠다 <백석, 시기(柿崎)의 바다, 사슴, (자가본), 1936>

*a 왕래무상(往來無常)하다

오오— / 무(無)여 공(空)이여 허(虛)여 현(玄)이여 상(象)이여 있다 해도 남고 없다 해도 남고 있고도 남고 없고도 남고 알고도 남고 모르고도 남고 믿고도 남고 안 믿고도 남고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어찌 할래야 어찌 할 수도 없고 낳[生]도 않고 죽도 않고 그저 본래(本來) 제작으로 왕래무상(往來無常)하고 은현자재(隱顯自在)한 영원(永遠) 불가사의(不可思議)의 본존(本尊)이여 / 우주(宇宙)를 낳고 만유(萬有)를 낳고 키우고 거두고 없애는 활살자재(活殺自在)하고 밑도 끝도 없이 조화(造化) 무궁(無窮)한 생명(生命)의 혈맥(血脈)이요 호흡(呼吸)이요 모태(母胎)요 태반(胎盤)이여 <오상순, 백일몽(白日夢), 공초오상순시선(空超吳相淳詩選), 자유문화사, 1963>

*a 왕자공손(王子公孫)

화원(花園) 터 어드매오 왕자공손(王子公孫)은 누구시오 / 팔각전(八角殿) 화초 향기 끊인 적이 오랜 이제 / 빈가(貧家)에 낙엽(落葉)져 날리니 아무덴 줄 몰라라 <이은상, 화원(花園)&2&, 노산시조집(鷺山時調集), 한성도서주식회사, 1932>

*a 외씨보선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 올린 외씨보선이여. <조지훈, 승무(僧舞), 청록집(靑綠集), 을유문화사, 1946>

*a 외얏맹건

한 해에 몇 번 매연지난 먼 조상들의 최방등 제사에는 컴컴한 고방 구석을 나와서 대멀머리에 외얏맹건을 지르터 맨 늙은 제관의 손에 정갈히 몸을 씻고 교의 우에 모신 신주 앞에 환한 촛불 밑에 피나무 소담한 제상 위에 떡 보탕 식혜 산적 나물지짐 반봉 과일들을 공손하니 받들고 먼 후손들의 공경스러운 절과 잔을 굽어보고 또 애끊는 통곡과 축을 귀애하고 그리고 합문 뒤에는 흠향오는 구신들과 호호히 접하는 것 <백석, 목구(木具), 문장, 1940. 2>

*a 외인묘지(外人墓地)

외인묘지의 어두운 수풀 뒤엔 / 밤새도록 가느란 별빛이 내리고 <김광균, 외인촌, 와사등, 남만서고, 1939>

휘장에 가리운 외인묘지(外人墓地). 저 호젓한 구릉(丘陵)에도 초록빛 사이사이, 흰 묘비(墓碑) 사이사이, 연교(連翹)꽃 노오랗게 어우러졌다. 브로크 담장 밖엔 살빛 분홍꽃도 조금씩 조금씩 초친 듯이 번져난다. <김상옥, 화창(和暢)한 날, 묵(墨)을 갈다가, 창작과비평사, 1980>

*a 외채난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심각한 외채난을 해소하고 국민이 여망

하는 안정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 길은 저축증대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정부의 시책에 적극 발맞추어 다음날부터 전사원의 봉급을 예금통장으로 지급하게 되었다. 이는 현시점에서 우리 회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저축증대 방안의 일환으로서 사원을 가족처럼 회사를 내 집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노사간의 우호적 합의에 의한 것이다…… <강현국, 물끄러미 보고 있다, 절망의 이삭, 문학세계사, 1992>

*a 외포미(外包美)

금강! 아, 너 같은 극치의 미가 꼭 조선에 있게 되었음이 야릇한 기적이고 자그마한 내 생명이 어찌 내 애훈(愛熏)을 받잡게 되었음이 못 잊을 기적이다. 너를 예배하러 온 이 가운데는 시인도 있었으며 도사도 있었다. 그러나 그 시인들은 네 외포미(外包美)의 반쯤도 부르지 못하였고 그 도사들은 네 내재상(內在想)의 첫길에 헤매다가 말았다. <이상화, 금강송가(金剛頌歌), 여명, 1925. 9>

*a 외합(外盒)

햇살이 탑신(塔身)을 빙빙 두르고 / 탑신(塔身)의 꽃자리엔 거북뚜껑, / 막 반쯤 핀 연(蓮)꽃의 / 눈웃음과도 살짝 헤어져 / 봉오리 일곱 겹을 열고 들어서면 / 네모 지붕 훤히 정자(亭子)가 선다. / 네 개의 기둥 하늘을 받들고 / 그 바닥은 연화문(蓮花文) / 난간(欄干)을 돌려서 기단(器壇)은 넓고 / 그 왼쪽을 밝히며 내 / 꽃과의 눈맞춤도 작별(作別)을 하고 나면 / 그 위의 유리잔(琉璃盞) 속의 / 마침내 짜릿한 사리병(舍利瓶)아, / 유리잔(琉璃盞)의 유리옥(琉璃玉) 곁에 진주(眞珠)알 / 그리고, 금제의 보리수(菩提樹) 그늘을 / 이불(泥佛)은 활짝 핀 웃음인데 / 오른 켠으론 실날 같은 길이 있어 / 사리내합(舍利內盒)은 다시 외합(外盒)에 있는 / 어둡고도 아삼한 저승길이 / 저리도 쓸쓸히 열리고 있구나. <박주일, 사리합(舍利盒), 신라유물시초, 흐름사, 1980>

*a 왼하루

세염도 없이 왼하루 내리는 비에 / 내 맘이 그만 여위어가다니 / 아까운 갈매기들은 다 젖어 죽었겠다. <박용철, 비 나리는 날, 박용철전집, 시문학사, 1939>

*a 요료(遙寥)하다

가만히 눈감고 아내여 / 이 덧없이 무상한 / 골육(骨肉)에 엉기인 유정(有情)의 거미줄을 관념하며 / 요료(遙寥)한 태허(太虛) 가운데 / 오직 고독한 홀몸을 응시하고 / 보지 못할 천상의 아득한 성망(星芒)을 지키며 / 소조(蕭條)히 지저(地底)를 구우는 무색(無色) 음풍(陰風)을 듣는가 / 하여 애련의 야윈 손을 내밀어 / 인연의 어린 새새끼들을 애석하는가 <유치환, 병처(病妻), 청마시초,

문성사, 1939>

*a 요치술(療治術)

영원의 과거에서, 영원의 미래로 향하는 시발점, 아니면 종점을 동시에 제시하는, 다리의 섭리에서 나는 새삼 요치술(療治術)을, 외어야 하느뇨. 필경은 잡답한 공간을 헤쳐, 여기 시간이, 교차되는 다리의 생리에서 순간이라는 것, 아, 다시 영원이라는 것, 아니면 찰나(刹那)에서 무한에로, 흘려 버리고 난 생경한 위치만이, 나의 것이 분명하구나. <박양균, 다리위에서 2, 두고온 지표, 춘추사, 1952>

*a 욕녀(浴女)

처음 그것은 미풍(微風)이었네 / 꽃술을 마구 날리며 / 공중에 흩어져 있다가 / 흐늘 흐늘 허무러져 가는 빛의 광막(廣漠) / 그 한가운데서 / 부끄러운 욕녀(浴女)의 몸짓으로 / 손짓하며 사라진 해 / 질풍처럼 해일(海溢)이 일고 / 별들이 일제히 몰려와 / 창을 부수고 창을 부수고 / 나의 잠 자리로 쏟아져 왔다 / 아— 어둠속의 바람 / 바깥에 자연발생(自然發生)하는 / 생명(生命)의 소리여 / 스석이는 밀밭, 밀내음에 싸인 / 나는 숨가쁜 짐승, / 소리내어 울어보았네 / 회오리 바람이듯 / 내 전신을 이끌고 / 어디론가 그것은 숨어버렸네 / 마법의 유희로 / 나를 삼켜버리고 / 공중을 휩쓸어가는 깊은 밤, / 윙윙 꿀벌의 둥지속에는 / 사역(使役)의 시간이 끝나고 / 두둥실 떠가는 수면(睡眠)이었네 <박이도, 밤&3&, 회상의 숲, 삼애사, 1968>

*a 용상(龍牀)

별도 얼어 붙은 하늘 / 불 끓는 땅 속에서 / 날라 왔는가. / 신(神)으로 귀신(鬼神)으로 더불어 / 뭇 손님을 맞이하고 / 어둠 속에 흘러 간 피가 굳어서 / 태난 눈이, / 춤추는 치마폭을 / 휘도는 소매를 따라, / 연기(煙氣)에 싸인 용상(龍牀) / 번득이는 서슬, / 갈마드는 감옥(監獄)과 자유(自由)를 굽어보면 / 가슴에 타오르는 유황염초(硫黃焰硝) 불! / 역사(歷史)도 막바지에 다다른 이 거리에 / 날을 듯 금시에도 칠 듯한 / 활개를 추켜들고 / 아아 꿈이여! / 금(金)빛 장미(薔薇)빛 나래 깃은 / 어디 갔는가. / 굽이굽이 흐르는 성하(聖河), / 얼음을 깨면 눈부시게 빛나는 / 어느 샘물가에서 / 곰과 이리가 물려주던 / 꿀 같은 젖은? / 아아 기다림이여! / 태몽(胎夢)자리에선 횃불이 되고 / 숲과 들을 울리던 / 목가(牧歌)인 네가, / 허물어져 늙는 성(城) / 불붙는 탑(塔)이여! / 시간(時間)을 앞섰기에 모두 보았다. / 가슴을 휩싸는 / 총알과 번갯불은 / 사랑하기에 아아 사랑하기에 / 벗어나 왔다. / 산하(山河)까지 사라지고 / 하늘만이 푸르러도 / 어찌 네가 해와 달을 부러워하랴? / 어둠에서 어둠으로 / 흐느끼며 흘러가는 / 피 눈물에 몸을 씻고, / 오로지 스스로 맘을 태운

/ 재의 더미뿐. / 별도 얼어 붙은 하늘 / 불 끓는 땅으로 더불어 / 외곬으로 가꿔 온 / 불타는 꿈을 / 사랑을 가로막는 / 아아 벗지 못할 너의 탈이여! / 영혼(靈魂)이여! / 기다림으로 하여 / 끝내 웅얼거리는 도읍(都邑) / 어리석은 너의 신작로(新作路)여! <송욱, 남대문(南大門)&2&, 하여지향, 일조각, 1961>

*a 우금치

아직도 피가 뜨거운 사내들은 / 죽음처럼 새파랗게 날선 고개를 넘는다. / 우리들의 새벽 출근길에, 책 위에, 식탁 위에 / 문득 문득 막아서는 우금치여, 휴전선이여, 모든 철조망이여 / 너를 넘는다. 우리들의 죽은 몸 위에 뿌리를 내려 / 넘을 수 없는 너를 넘는다. <김진경, 우금치의 노래, 광화문을 지나며, 풀빛, 1986>

이것은 사랑의 매라고 / 종아리를 때리시는 선생님 / 우리들은 얼마나 더 사랑을 받아야 되나요 / 20만 동학군이 죽었다는 우금치 / 한 마을이 몰살당했다는 제암리 / 어린애까지 학살당했다는 거창군 / 아, 이루 다 헬 수 없는 마을과 도시 / 온 땅이 푸른 멍이 들었는데 / 우리는 얼마나 더 사랑을 받아야 되나요 / 남의 자유와 남의 평등을 위해 / 얼마나 더 맞아야 하나요 <김진경, 질문, 광화문을 지나며, 풀빛, 1986>

*a 우랄산

아침 해의 축복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크고 작은 유리창들이 / 순간의 영광답게 최후의 찬란(燦爛)답게 빛이 어리었음은 / 저기 저 찬 하늘과 추운 지평선 위에 붉은 해가 피를 뿌리고 있습니다. / 날이 저물어 그들의 황홀한 심사가 멀리 바라보이는 / 광활한 하늘과 대지와 더불어 황혼의 묵상(默想)을 모으는 곳에서 / 해는 날마다 그의 마지막 정열만을 세상에 붓는다 합니다. / 여보세요. 저렇게 붉은 정열만은 아마 식을 날이 없겠지요. / 아니 우랄산 골짜기에 쏟아뜨린 젊은 사내들의 피를 모으면 저만할까? <김현승, 쓸쓸한 겨울 저녁이 올 때 당신들은, 동아일보, 1934. 3. 25>

*a 우주만유(宇宙萬有)

우주만유(宇宙萬有)의 본질(本質)이 모두 / '생(生)'이라는 / 철학적(哲學的) 직각(直覺)의 충동(衝動) 속에 / 돌에다 귀를 / 가마-ㄴ히 기울여 보고 / 쇠에다 손을 / 슬며시 대어 보았다 / 미친 듯이……. <오상순, 생(生)의 철학(哲學), 공초오상순시선(空超吳相淳詩選), 자유문화사, 1963>

*a 우피장화(牛皮長靴)

서부인(徐夫人)의 손은 나이보다 젊고 / 이마는 아직도 밝은 밀감(蜜柑) 빛이다. / 서부인(徐夫人)이 봄나들이를 가면 / 맥엽(麥葉)에도 하늘이 그득히 고이고 / 서부인(徐夫人)이

가을 나들이를 가면 / 바다가 수심(水深)을 드러내고 / 그 많은 사과알이 / 하늘로 깊숙이 떨어지는 것을 본다. / 서부인(徐夫人)이 나들이를 가지 않으면 / 하늘은 / 낮동안 멍청히 누웠다가 / 한밤에 서부인(徐夫人)의 머리맡에 와서 근심스럽게 / 에메랄드의 눈을 뜬다. / 서부인(徐夫人)이 나들이를 가지 않으면 / 우피장화(牛皮長靴)를 신은 팔자(八字) 수염의 장군(將軍)이 / 사냥개를 몰고 왔다 가고 / 서촌(西村) 마을은 / 시들시들 앓아 눕는다. / 바다는 / 시들어 낙엽(落葉)이 진다. <김춘수, 서촌(西村) 마을의 서부인(徐夫人), 타령조(打令調)·기타(其他), 문화출판사, 1969>

*a 운명(運命)하다

싸늘한 대리석(大理石) 기둥에 모가지를 비틀어맨 한난계(寒暖計), / 문득 들여다볼 수 있는 운명(運命)한 오척육촌(五尺六寸)의 허리 가는 / 수은주(水銀柱), / 마음은 유리관(琉璃管)보다 맑소이다. <윤동주, 한난계(寒暖計),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정음사, 1948>

*a 운모질(雲母質)

어느 날 사람들은 / 그 빈터를 사막이라 불렀다. / 모래 한 알마다에 / 말라버린 바다의 최종단위 / 운모질(雲母質) 반짝임이 숨어 있는 줄도 모르고. <이형기, 외톨 바다, 보물섬의 지도, 서문당, 1985>

*a 운무만리(雲霧萬里)

운무만리(雲霧萬里)를 / 단숨에 난다. <이형기, 산비, 적막강산, 모음출판사, 1963>

*a 운애(雲靄)

얼었던 산(山)이 젖빛 운애(雲靄) 속에 몸을 풀고 / 내 입술에도 노래가 되살아난 것은 / 그날부터다. 천지(天地)에 훤히 <김종길, 발화(發花), 하회에서, 민음사, 1977>

현애(懸崖)에는 목수국(木水菊)이 지천으로 피어서 향내 자욱히 서글거리는 시푸런 운애(雲靄). 바람 되어 비인 골을 흔드는 옆에 하루에 천리(千里) 달리는 시내. 이 근처(近處)에는 나무하는 더꺼머리 옛적 효자(孝子)의 아버지를 위하여 사철 술이 괴는 샘이라도 정녕 있을 법하야 낙엽(落葉)을 사뤄 대려 온 차[茶]를 마시는 인 응당 오래 살 게다. <김관식, 삭풍(朔風)에 기대어 말이 울면, 김관식시선, 자유세계사, 1957>

*a 울암(鬱暗)

이곳 시월은 벌써 죽음의 계절의 시초리뇨 / 까마귀는 성(城)귀에 모여들 근심하고 / 다시 천일(天日)도 볼 수 없는 한 장 납빛 하늘은 / 황막한 광야를 철책인 양 눌러 막아 / 아아 북방 이 거대한 울암(鬱暗)의 의지는 / 창부(娼婦)인 양 허무를 안고 나누었나니 / 내 스스로 여기에

다 버리려는 고독한 사유도 / 이렇게 적고 찾을 길 없음이여 / 호올로 허물어진 성(城)터에 서건대 / 삭풍에 남은 고량(高粱)대만 / 갈 데 없는 감정인 양 못 견디어 울고 / 한때 기마(騎馬)의 흙빛 병정 있어 / 인력이 아닌 듯 / 묵묵히 서쪽 벌 끝으로 향하여 달려가도다 <유치환, 북방(北方) 10월(月), 생명의 서, 행문사, 1947>

*a 울화(鬱火)되다

분노(憤怒)는 강(江)물처럼 / 터지고 / 미움은 울화(鬱火)되어 / 폭발(爆發)한다. <조영암, 진격(進擊)의 노래 1, 시산(屍山)을 넘고 혈해(血海)를 건너, 정음사, 1951>

*a 원림처처(園林處處)

구십춘광(九十春光) 자랑노라 원림처처(園林處處) 피운 꽃아 / 겉모양만 번영(繁榮)하면 부귀기상(富貴氣像) 있다하랴 / 진실로 날 호리려면 오직 열매. <최남선, 봄맞이, 소년, 1910. 4>

*a 원왕생(願往生)

저 아름다운 연꽃못 뵈시겠지 / 드높이 솟아 정토에 열려 있지 / 그 뿌리는 지옥에 박혔어도 / 연꽃잎이야 한없이 청정해도 / 어리석은 자에겐 돌로 뵌다면서? / 이 몸은 어둡기 돌보다 더하면서 / 정토에 원왕생(願往生) 원왕생하여 / 이 몸의 업장을 밝히기 소원하여 / 저 연꽃못 둘레를 돌고 돌아 / 일곱 낮 일곱 밤을 돌고 돌아 / 지치어 쓰러지면 이슬로 녹아질까 / 연꽃못 채우는 이슬로 스러질까 <박희진, 석련지*환상(石蓮池幻想), 미소하는 침묵, 현대문학사, 1970>

*a 원재(原在)

한 산맥과 한 광야의 적막을 대결할 수 있는 나의 노호(怒號)와 / 한 절벽과 한 바위의 완고를 각충(角衝)할 수 있는 나의 무기로써 / 여기 한 마리 묵묵한 노예의 신세를 자위(自衛)함은 / 너희들 사역자(使役者)의 도도한 번영이 가져 올 낙조의 때에 입회(立會)하고자 함이오, / 티끌 같은 총명(聰明)을 장(匠)바치 하여 / 원재(原在)를 저버린 고아(孤兒)들의 실종(失踪)을 감시하려 함이니 / 그러므로 하여 한갓 / 절망이나 혹사에 지친 비분(悲憤) 때문이 아닌 눈물 어린 창(窓)알 속의 / 내 한 쌍 불멸(不滅)의 횃불을 보라. <설창수, 역우(役牛), 개폐교, 백양당, 1950>

*a 원족지(遠足地)

문은 삐걱삐걱하며 겨우 열렸다. / 낯선 공간(空間). / 습자시간(習字時間)의 대표작(代表作)들. / 내 동무의 공동묘지 그림. / 그리고 붉은 해의 미개(未開)의 얼굴. / 군가(軍歌)를 불렀던 원족지(遠足地) 가사메 바다의 그림. / 하얗게 늙은 먼지속의 교탁(教卓). / 내 벌(罰) 받는 걸상. /

방앗간과 일본(日本)사람이 목을 맨 떡갈나무가 멀리 보인다. / 몇 번이고 닦아야 할 흐린 창(窓)으로…… <고은, 하계학교(夏季學校), 신. 언어 최후의 마을, 민음사, 1967>

*a 월곡(月谷)

우주복(宇宙服)처럼 월곡(月谷)에 등등 떠 있다 / 귀환 시각(時刻) 미정(未定). <김종삼, 올페, 시인학교, 신현실사, 1977>

*a 월출동령(月出東嶺)

빛깔 환히 / 동창에 떠오름을 기둘리신가 / 아흐레 어린 달이 / 부름도 없이 홀로 났네 / 월출동령(月出東嶺)! / 팔도 사람 다 맞이하소 / 기척 없이 따르는 마음 / 그대나 홀히 싸안아 주오 <김영랑, 빛깔 환히, 영랑시선, 정음사, 1949>

*a 월평선(月平線)

그냥 헤어질 순 없지. / 서로 오랜만인데 / 술이라도 한 잔 나누자는군. / 그야 그렇지. / 월평선(月平線)으로 떠오르는 / 지구의 이편 구석에서 / 아는 사람끼리 만나 / 그냥 헤어질 순 없지. / 어느 술집으로 들어가면 / 혀가 갈라진 / 저것은 / 몬스테리아 <박목월, 사력질(砂礫質), 무순(無順), 삼중당, 1976>

숲이 흔들린다 / 들판에 놓인 길다란 칼이 달빛에 꿈틀거린다. / 기이타가 놓인 늪에 / 두 마리 능구렁이가 잠들고 / 야만(野蠻)의 손이 하나 / 월평선(月平線)에 떠올라 멀어져가는 게 보인다. / 목마른 사내의 옆을 지나 / 늑대가 한 마리 숲속으로 사라진다. / 억새끝이 하얗게 흔들리고 / 첫 밀회의 능구렁이들이 / 정답게 비늘을 맞대고 있다. <이건청, 황인종의 개 9, 목마른 자는 잠들고, 조광출판사, 1975>

*a 위생관념

식물학 교수 박두식(朴斗植)씨(48)는 중증(重症)이라 했고, / 의학협회 회장 이해만(李海萬)씨(57)는 단순히 생리적(生理的)이라 했다. / 우려스럽다고 하는가 하면 /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도 했다 / 민영방송 에므비씨 기자는 명륜동 대학가 앞 상인에게 / 마이크를 들이댄다. / 푸른 안개 자욱한 춘계(春季)의 캠퍼스를, / 적진(敵陣)에서 적진(敵陣)으로 / 보여준다. 노란 가래침을 뱉는 개나리꽃. / 가정주부 안(安)정숙씨(34)는 "불안해요"라고 말했고, / 택시기사 김(金)상훈씨(42)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 걱정된다고 했다. / 누르기만 하면 스테레오 타이프 카세트 테이프에서 말이 나왔다. / 신문이 말하는 시계(視界)제로에 대해 / 치안본부는 절대로 고문한 사실이 없다고 발표했다. / 고통의 배기통이 콱 막힌 버스가 급정거했다. / 급격한 우회전은 승객의 머리를 좌경화시킨다는 걸 몰라요? / 기회에 민감하다는 하마평(下馬評)을

받고 있는 한 온건론자는 말했다. / <중심의 상실>을 쓴 예술사학사자세들 마이어씨는 / 나치협력자였다. / 4·19세대, 정부 여당 관념조정부장 김익달(金益達)씨(44)는 / 수유리 묘소에 헌화했다. 대리석 속의 상한 이름들. / 상채기에서 꽃잎을 밀어내는 진달래. / 상흔은 치유를 위해서 있다는 말로 그는 기념사에 가름했다. / 그는, 정치적 위생관념을 강조했고 / 이성(理性)을 강조했다. 비위생적인 것에 대한 대안은 주문제 식단이었다. / 이성의 기념 케이크 속에 방부처리된 이스트. / 살아 있는 것은 모두 보균자였다. / 주한 미군 사령관 스튜어드씨의 '들쥐' 발언은 사실과 다름이 / 공식적으로 밝혀졌고, / 한국인의 의식을 도굴(盜掘)한, 의식의 고고인류학자 이언영(李言榮)씨(52)는 / 일본 독자들이 더 좋아한다. '오프 더 레코드'를 요구하고, <황지우, 꽃말,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민음사, 1985>

*a 유도화(柳桃花)

유도화(柳桃花)가 만발하여 / 제주도의 여름은 서늘하더니 / 어느덧 풍설 속에 향전매* 한 그루 피어 / 그 향기 물길 천 리를 타고 간다. <송수권, 향전매(梅), 한국대표시인100선집, 지리산 뻐꾹새, 미래사, 1991>

*a 유동자세(流動姿勢)

그것은 차라리 '망각(忘却)의 도시(都市)' / 다채(多彩)로웠던 프로가 끝난 다음 / 노천(露天) 넓은 뜰 / 앙상한 늑골(肋骨)만이 즐비(櫛比)하여 / 원수는 원수에 의지해 잠들었고 / 사랑과 미움이 어깨하여 쓰러져 / 이제는 불러도 소리쳐도 / 우리들을 위해서 마련된 역사(歷史)의 갈피는 없이 / 그 수많은 길과 길이 다한 곳 / 그 수많은 흐름을 모아 / 숨길조차 끊인 듯 잠잠한 유동자세(流動姿勢) <박재륜, 하구(河口)의 장(章), 궤짝 속의 왕자, 해동문화사, 1959>

*a 유배인(流配人)

주막(酒幕) 작부(酌婦) 웃지 않음. 옛 독노국(瀆盧國), 유민(流民)과 유배인(流配人)의 고독한 땀냄새가 나는 바닷가, 거제(巨濟)의 갈도주막(葛島酒幕)에 앉아 나는 무슨 노래를 들었던가. <오규원, 한 나라 또는 한 여자(女子)의 길, 왕자가 아닌 한 아이에게, 문학과지성사, 1978>

*a 유선(乳線)

그 때 유선(乳線) 위를 스치는 / 발걸음의 군단(軍團)과 / 인조(人造) 햇살과 / 낯 선 음향(音響). / 나는 살이 찐 눈꺼풀을 마구 벗기며 / 신기(新奇)해 하였지. <허소라, 발견(發見)의 늪, 풍장, 태을출판사, 1968>

*a 유소한삼(流蘇汗衫)

창(槍)들고 내리닫다 유소한삼(流蘇汗衫) 어인 춤고 / 뇌성(雷聲)에 섞

인 생황(笙簧) 드문드문이 옥경(玉磬)이라 / 만물초(萬物肖) 어디라드뇨 나는 옌가 하노라 <정인보, 박연행(朴淵行), 담원시조, 을유문화사, 1948>

*a 유작전(遺作展)

학우(學友)들이 마련한 너의 유작전(遺作展)을 돌아보았더니, / 시(詩)에서도 너는 그만큼 자랐었더군. <김종길, 채점(採點), 하회에서, 민음사, 1977>

*a 유채꽃

유채꽃 같은 슬픔 / 노오란 유채꽃 같은 절망 / 봄경 따라 나선 길에 유채꽃은 웬말인가? / 춘삼월 구화산 가는 길은 / 유채꽃밭을 지나 유채꽃 등성이를 넘어 / 유채꽃 산맥을 넘어간다. / 몇백 리 노오란 발길 물든 / 저 적막 끝에 / 문득 와 머무는 절벽 같은 독불, / 부처도 맨발이구나! <김종철, 등신불(等身佛) 7, 현대문학, 1995>

장돌뱅이가 사는 동네 / 포기와 베스도 사는 동네 / 달이 지면, 유채꽃이 피면 / 창호지가 환하게 노랗게 노란 / 유채꽃밭 포기가 베스를 업어주듯 / 숨이 차면, 장돌뱅인 지레 흥이 나면 <김영태, 색동넘어, 느리고 무겁게 그리고 우울하게, 민음사, 1989>

*a 유혈(流血)하다

유혈(流血)하는 햇살의 비명(悲鳴) / 비명을 분쇄하는 / 바람의 포격(砲擊)을 보라 <홍윤숙, 우리들 시대(時代)의 아들아, 하지제, 문지사, 1978>

*a 유황염초(硫黃焰硝)

별도 얼어 붙은 하늘 / 불 끓는 땅 속에서 / 날라 왔는가. / 신(神)으로 귀신(鬼神)으로 더불어 / 뭇 손님을 맞이하고 / 어둠 속에 흘러 간 피가 굳어서 / 태난 눈이, / 춤추는 치마 폭을 / 휘도는 소매를 따라, / 연기(煙氣)에 싸인 용상(龍牀) / 번득이는 서슬, / 갈마드는 감옥(監獄)과 자유(自由)를 굽어보면 / 가슴에 타오르는 유황염초(硫黃焰硝) 불! / 역사(歷史)도 막바지에 다다른 이 거리에 / 날을 듯 금시에도 칠 듯한 / 활개를 추켜들고 / 아아 꿈이여! / 금(金)빛 장미(薔薇)빛 나래 깃은 / 어디 갔는가. / 굽이굽이 흐르는 성하(聖河), / 얼음을 깨면 눈부시게 빛나는 / 어느 샘물가에서 / 곰과 이리가 물려 주던 / 꿀 같은 젖은? / 아아 기다림이여! / 태몽(胎夢)자리에선 횃불이 되고 / 숲과 들을 울리던 / 목가(牧歌)인 네가, / 허물어져 눕는 성(城) / 불붙는 탑(塔)이여! / 시간(時間)을 앞섰기에 모두 보았다. / 가슴을 휩싸는 / 총알과 번갯불은 / 사랑하기에 아아 사랑하기에 / 벗어나 왔다. / 산하(山河)까지 사라지고 / 하늘만이 푸르러도 / 어찌 네가 해와 달을 부러워하랴? / 어둠에서 어둠으로 / 흐느끼며 흘러가는 / 피 눈

물에 몸을 씻고, / 오로지 스스로 맘을 태운 / 재의 더미뿐. / 별도 얼어붙은 하늘 / 불 끓는 땅으로 더불어 / 외곬으로 가꿔 온 / 불타는 꿈을 / 사랑을 가로막는 / 아아 벗지 못할 너의 탈이여! / 영혼(靈魂)이여! / 기다림으로 하여 / 끝내 웅얼거리는 도읍(都邑) / 어리석은 너의 신작로(新作路)여! <송욱, 남대문(南大門)&2&, 하여지향, 일조각, 1961>

*a 육고간(肉庫間)

관수동(觀水洞) 다리를 건너면 변전소(變電所)의 / 드높은 빌딩이 있는 부근(附近). / 독을 파는 전방이 있고 / 담배 가게가 있고 / 모퉁이의 육고간 【육고간(肉庫間)】을 돌아 골목길로 들어서면 / 바로 관수동(觀水洞) 이십이번지(二十二番地). / 담도 판장도 없이 / 길이자 뜰이요, 뜰이자 방(房)인 집은 / 그 옛날 / 내가 순이와 외롭게 살던 / 외롭게 살며 '제사(祭祀)'를 쓰던 곳. / 오늘 이 앞을 지나가며 / 나는 소식조차 모르는 순이를 생각한다. / 서로 사랑은 하고 / 그러면서도 이루지 못하고 헤어져버린 / 나와 순이와의 사랑을 생각한다. / 순이와 내가 살던 저 집에 / 지금은 누가 사는 것일까? / 밖으로 녹슨 자물쇠가 잠긴 채 / 조용한 것이 빈 집 같아라. <장만영, 관수동(觀水洞), 밤의 서정, 정양사, 1956>

친구들 / 전화번호 오래 전에 지웠다. / 깊은 뻘밭 밑바닥으로 / 들어앉은 붕어가 되었다. / 진흙처럼 퍼져 있는 이 마음에 / 무슨 길 있겠느냐. / 육고간(肉庫間) 같은 이 머리통 / 뻘밭 속으로 처넣었다. / 좀더 시커멓게 / 뻘밭 속으로 퍼져 있겠다. / 몸에 무슨 길이 있겠느냐. / 머릿속에 뻘흙 가득 처넣고 / 나는 나를 잠궜다. / 친구들 / 나는 내 속에서 / 발광(發光)할 시간이 필요하다. <조정권, 튀빙겐 가는 길, 신성한 숲, 문학과지성사, 1994>

*a 육효점괘

진 날 갠 날 마른 땅을 골라 / 언제고 태평한 세월 평사낙안(平沙落雁)이야 / 따로 있었을까마는 / 이곳 촌로(村老)들의 말에 따르면 / 육효점괘 하나는 늘 입성이 나 / 경천, 경천을 조심하라고 / 그래서 봉준은 공주성을 칠 때도 / 노상 비실거리며 경천점(敬天店)을 겉돌기만 했던가 <송수권, 평사리행(平沙里行), 한국대표시인100선집, 지리산 뻐꾹새, 미래사, 1991>

*a 윤사월

윤사월 해 길다 / 꾀꼬리 울면 <박목월, 윤사월(閏四月), 청록집, 을유문화사, 1946>

아배요 아배요 / 내 눈이 티눈인 걸 / 아배도 알지러요. / 등잔불도 없는 제사상에 / 축문이 당한기요. / 눌러 눌러 / 소금에 밥이나마 많이 묵고 가이소. / 윤사월 보릿고개 / 아배도

알지러요. / 간고등어 한 손이믄 / 아배 소원 풀어 드리련만 / 저승길 배고플라요 / 소금에 밥이나마 많이 묵고 묵고 가이소. <박목월, 만술(萬述) 아비의 축문(祝文), 경상도의 가랑잎, 민중서관, 1968>

우리는 독(毒)을 피우고 있다. / 우리의 독(毒)은 윤사월 꽃가루처럼 퍼져 / 허공을 향그러이 떠돌다가, 하느님의 눈빛으로 / 세상의 어둠을 핥다가, 불의 곁에서 물로 흐르는 자(者)에게 / 불의 독을 먹인다. / 물의 곁에서 불로 타오르는 자(者)에게 물의 독을 먹인다. / 썩은 것 앞에서도 끊임없이 헐덕이는 식욕(食欲), 불을 녹이고 / 물을 녹이더라도 분해(分解)되지 않는 우리의 독(毒)이여. / 가려진 곳에서 장대한 발기를 꿈꾸는 사람들의 혈관 깊숙이 / 아프지 않게, 슬프지도 않게 마약처럼 황홀하게 피우리. / 그러나 견디지 못하리. / 서서 피우는 사람들의 형형색색의 독기(毒氣) 앞에서 / 보이지 않는 우리의 육신을 말리우고 / 마지막 핏방울을 터뜨려 스스로 사람들의 독기(毒氣)가 되어 / 이 세상의 허공을 맨 처음과 맨 끝까지 질펀히 채우게 되리라. <구석본, 대장균(大腸菌), 지상의 그리운 섬, 문학세계사, 1985>

*a. 윤창(輪唱)하다

나의 심부를 밀항하다 쐐기쐬서 / 사시(斜視)가 된 유감(遺憾)의 별똥들이 / 윤창(輪唱)하는 태양의 털에 그슬리고 / 등허리에 누전(漏電)되는 암흑교류(暗黑交流)에 자지러져 / 공룡(恐龍)의 비늘 내 나는 삼진시간(三辰時間)의 사타구니에 몰려 / 도리없이 자살하고 부활해서 탄생한 것이 너다. / 천둥과 포도의 대립선율(對立旋律)에 목 졸리고 / 5막(幕)짜리 짠 거품에 거꾸로 저려져서 썩을수록 / 너는 돈사(頓死) 않고 자란다. / 이울고 백색왜성(白色矮星)만큼 엉글어서 어느 금환식일(金環蝕日)에 독립하는 너. / 팽기고 돌 고드름 열린 것이 이끼 낀 종유동(鍾乳洞). / 피리 구멍 나고 바람 들랑거리는 것이 떠는 삼반규관(三半規管). / 굴절(屈折)의 비수(匕首) 차고 오무렸다 늘어날 땐 펴런 신기루(蜃氣樓). / 허나 언제나 나의 오미(五味)의 유령을 버릇없이 만끽하고 대전(帶電)되어 / 아린 심술부리는 미립(微粒) 응어리. / 하늘님의 정자(精子)와 할머님의 사골(死骨)을 / 한 대롱에 소화하는 정교(精巧)한 준동(蠢動). 용쓰는 / 십이파(十二派)의 팔씨름을 승부 없이 끌고 가는 궁자(弓字) 건(腱). / 네가 약오른 영혼의 전관(電管)을 토닥거릴 땐 위험하다. / 장미와 무구녀(無垢女)가 너무 오래 입맞추고, 수정사변(水晶思辨)이 / 피를 빨기 좋아하고, 도깨비가 순하게 곡(哭)하고, / 심장이 황금비(黃金比)의 금속(金屬) 관(棺)을 그리워한다. / 결국 너의 본업(本業)은 차진 / 연정(戀情)의 맥질이다. 희한한 효험과 / 역효과(逆效果)에 암수 바위 금슬이 빼개지기도 하고 달라붙

기도 한다. / 그러나 아아, 방랑하는 고아. 쾌미(快美)의 의적(義賊). / 귀여운 밀핵(密核)이여. / 스스로의 구조에 집혀 불확실성원리(不確實性原理)모양 앙감질하며 / 한 광주리의 심해어(深海魚)를 이미 부화(孵化)해 낸 지금의 너의 좌표(座標)는 / 아슬아슬한 접선(接線)의 서슬. / 날이 저문다. 환등(幻燈) 황혼(黃昏)이 풍악을 친다. 꽹매기의 틈 서리로 / 이제 기웃거리는 것은 눈매 곳날이 흡사 너를 닮은 / 동그라미의 심연(深淵). 그 속에 휘휘 맴도는 무시무시한 정점(靜點)이 / 사리고 있다. 너는 그것을 마저 해내기 위해서 / 더욱 무섬타는 기술(技術)을 가는 매친틀이다. <성찬경, 밀핵, 화형둔주곡, 정음사, 1966>

*a 울도국

울도국에 가고 싶다 / 내 흉곽의 강안(江岸)을 깎는 / 파란만장(波瀾萬丈) / 물결 하나가 / 수만 겹의 물결을 데리고 와서 / 나의 애간장 다 녹이는 / 조이고 쪼이는 / 내 몸뚱아리 빨래가 되고 / 오 빨래처럼 / 시신(屍身)으로 떠내려가도 / 저 울도국으로 흘러가고 싶다 <황지우, 파란만장,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문학과지성사, 1983>

우리는 여기를 떠나지 않기로 했다 / 형들이 뛰쳐 나간 학사(學舍) 한 모서리 추위에 떨며 화학방정식을 풀었고 / 형들이 남기고 간 공책— 미증유의 분노로 휘갈겨 쓴 고백체 필서 / 남은 부분에 소프트웨어 회로를 그려 넣기도 하고 / 시험에 잘 나오는 정언(定言) 삼단논법이랑 <잉여기생계층이 경제에 미치는 분배불평등지수>를 수치로 계산해 보기도 했다 / 우리는 형들이 찾아나선 울도국이 어느 위도상에 있는지 모른다 / 간혹 다리를 절며 학사(學舍) 근처 술집에 나타나 무용담을 털어 놓거나 / 아직 소식이 없는 형들의 행방에 대해 관심없다 / 우리에게 지금 절실한 것은 탄환 / 저 오십 센티미터 두께 콘크리트 벽 뚫고 들어가 / 구체적으로 몸 부딪칠 수 있는 과녁 / 밤 깊은 도서관 생라면 씹는 우리들 궁상맞은 표정 / 단단하게 여문 정신이 될 때 / 우리는 프랑스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은 연애사건도 없이 / 팔뚝 걷고 시가지를 질주했던 형들의 사자후도 없이 / 단조로운 악수 짤막한 눈웃음으로 학사(學舍)를 떠날 것이다 / 일 년 내내 걷히지 않는 안개, 그리고 도시 / 곳곳 부비추랩이 눈 뜨고 있는 정글 속으로 / 숙달된 조교의 시범을 보이며 잠입해 들어갈 것이다 / 한 치의 오차도 허락치 않는 정보 분석 초읽기 / 3개 국어 정도는 훑어내릴 수 있는 독도법 / 최신 정밀장비를 갖춘 우리는 이 땅의 안개와 살 섞으며 / 위장된 평화까지 접수하면서 / 밑에서부터 기둥뿌리 하나씩 갉아먹을 것 / 아버지의 식민지 체질은 철거시킬 것 / 형들의 울도국 사상도 폐기처분 / 우리의 울도국은 마라도 그 남쪽 이하에는 존재하지 않

는다 / 전쟁이 여기를 지날 때 / 우리는 헤엄치는 한 마리 짐승이었으므로 / 빚이 없다 우리는 상처가 없다 / 상처가 없음에 대해 유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지만 / 우리는 스켈링할 필요가 없는 순백의 치아 / 우리의 턱은 하루 10시간 정도 풀 가동될 수 있다 / 우리는 유언비어로 혹은 선언문 정도로 참여하지는 않는다 / 정언(定言) 삼단논법과 소프트웨어 기술로 여기를 교통정리할 것 / 우리에겐 지금 흰 와이셔츠 단색 넥타이 그리고 / 한 벌 제일모직 기성복이면 족하다, 아 / 잘 닳지 않는 금강제화 구두 한 켤레도 마련해야지 / 이외 모든 것은 우리들 두개골에 고스란히 이전된 학사(學舍) 속에 있다 / 가슴에 정밀하게 그려 넣은 설계도 속에 / 책상 위 열려 있는 성서 속에 / 새로이 배수로 파고 자유도시 권리장전 만들어 /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위장된 평화 속에서 / 우리들의 사랑을 건설하는 일 <이윤택, 우리들의 학사(學舍) 위에..., 춤꾼이야기, 민음사, 1986>

*a 은댕이

눈이 많이 와서 / 산엣새가 벌로 나려 멕이고 / 눈구덩이에 토끼가 더러 빠지기도 하면 / 마을에는 그 무슨 반가운 것이 오는가 보다 / 한가한 애동들은 어둡도록 꿩사냥을 하고 / 가난한 엄매는 밤중에 김치가 재미로 가고 / 마을을 구수한 즐거움에 사서 은근하니 흥성흥성 들뜨게 하며 / 이것은 오는 것이다 / 이것은 어느 양지귀 혹은 능달쪽 외따른 산옆 은댕이 예데가리밭에서 / 하룻밤 뽀오얀 흰 김 속에 접시귀 소기름불이 뿌우연 부엌에 / 산멍에 같은 분틀을 타고 오는 것이다 / 이것은 아득한 옛날 한가하고 즐겁던 세월로부터 / 실 같은 봄지 속을 타는 듯한 여름볕 속을 지나서 들쿠레한 구시월 갈바람 속을 지나서 / 대대로 나며 죽으며 죽으며 나며 하는 이 마을 사람들의 의젓한 마음을 지나서 텁텁한 꿈을 지나서 / 지붕에 마당에 우물둔덩에 함박눈이 푹푹 쌓이는 여느 하룻밤 / 아배 앞에 그 어린 아들 앞에 아배 앞에는 왕사발에 아들 앞에는 새끼사발에 그득히 사리워오는 것이다 / 이것은 그 곰의 잔등에 업혀서 길여났다는 먼 옛적 큰 마니가 / 또 그 잡등색이에 서서 재채기를 하면 산 넘엣 마을까지 들렸다는 / 먼 옛적 큰아바지가 오는 것같이 오는 것이다 <백석, 국수, 문장, 1941. 4>

*a 은불(銀佛)

눈동자에 흰눈 그득한 채 희고 흰 길 가다 눈사람에게 인사한다. '당신은 온몸이 눈송이뿐이군요. 당신이 참으로 은불(銀佛)이십니다' 눈사람이 바보달처럼 흰 웃음을 웃으니 눈송이들이 모두 흰 웃음을 웃는다. 은니빨 드러난 중 둘이서 어린애처럼 눈싸움을 하며 즐겁다. 적의 없는, 이 흰 소리, 그대로 두기로 한다. 나

는 눈사람에게 인사하며 집으로 오지 않았다. 나는 지금 설경(雪景) 속 방 안에 있다. 나는 이불 쓰고 눕고, 스님들은 일어나 범종 울리고 목어(木魚)치는 새벽, 설경(雪景) 핀 눈동자 속으로 은불(銀佛)이 훤한 달을 이고 지나 간다. <최승호, 설경(雪景) 속, 고해문서, 미래사, 1991>

*a 은하만년(銀河萬年)

새벽 잠결에 언뜻 들리어 / 내 무건 머리 선뜻 씻기우느니 / 황금 소반에 구슬이 굴렀다 / 오 그립고 향미론 소리야 / 물아 거기 좀 멈췄으라 나는 그윽히 / 저 창공의 은하만년(銀河萬年)을 헤아려 보노니 <김영랑, 물소리, 영랑시집, 시문학사, 1935>

*a 은현자재(隱顯自在)하다

오오― / 무(無)여 공(空)이여 허(虛)여 현(玄)이여 상(象)이여 있다 해도 남고 없다 해도 남고 있고도 남고 없고도 남고 알고도 남고 모르고도 남고 믿고도 남고 안 믿고도 남고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어찌 할래야 어찌 할 수도 없고 낳[生]도 않고 죽도 않고 그저 본래(本來) 제작으로 왕래무상(往來無常)하고 은현자재(隱顯自在)한 영원(永遠) 불가사의(不可思議)의 본존(本尊)이여 / 우주(宇宙)를 낳고 만유(萬有)를 낳고 키우고 거두고 없애는 활살자재(活殺自在)하고 밑도 끝도 없이 조화(造化) 무궁(無窮)한 생명(生命)의 혈맥(血脈)이요 호흡(呼吸)이요 모태(母胎)요 태반(胎盤)이여 <오상순, 백일몽(白日夢), 공초오상순시선(空超吳相淳詩選), 자유문화사, 1963>

*a 음부(淫夫)

나는 들었다 / 굶은이에게는 밥먹으란 말 밖에 안 들리고 / 음부(淫夫)에게는 탕녀의 소리 밖에 안 들리고 / 난봉의 입에서는 더러운 소리 밖에 안 나오는 것을 <김명순, 무제(無題)&14&, 조선일보, 1925. 7. 6>

*a 음협(陰狹)하다

음협(陰狹)한 씨내기, 사탄의 낙륜(落倫), / 너의 더러운 껍데기는 / 일찍 / 바닷가에 소꿉 노는 어린애들도 주워 가지는 아니하였다. <오장환, 해수(海獸), 성벽(城壁), 풍림사, 1937>

*a 응감시키다

애들아! / 박명(薄明), 저 가지에 걸치는 서광(曙光)과 / 모혼(暮昏)의 정적(靜寂)을 생식(生食)하면서 / 운명(運命)을 정서(情緖)로 응감(應感)시킨 / 내사 갖는 이 즐거움이야 / 늬들은 모르지. <구상, 독락(獨樂)의 장(章), 구상문학선, 1975>

*a 응지(凝脂)

조국으로 가는 길 / 어데 감히 응지(凝脂) 들어설 자리 있으리 / 다만

땀으로 깎은 육체는 청죽(青竹) / 청죽(青竹)마저 멀리 물려 놓고 / 다만 무거이 뜨는 눈 / 하늘에 성신(星晨)을 들이삼킨 / 눈으로 마주치는 / 우리들 잠을 버린 눈으로써 / 다만 내일의 조명을 삼는 게라 <설정식, 무(舞)&3&, 제신(諸神)의 분노, 신학사, 1948>

*a 응천(應天)하다

아니라 보라 / 군청(群青)일세 하도라 / 만경(萬頃) 해소(海嘯) / 밀어 올린 물은 꿈틀거려 / 살아 있는 천지 곧 / 응천(應天)하는 해방의 상징이라 / 무산(茂山) 풍산(豊山) 마천령(摩天嶺)으로 / 같이 넘은 남도(南圖)의 깃은 토조(土鳥)의 뜻 / 동일 언어의 선행(先行)이요 / 유목 이후의 발견이라 / 착락삼양(錯落參羊) / 만이천봉마다 인연이 서리워 / 함께 다시 뻗은 봉우리 봉우리마다 / 인민 봉화(烽火) 기다리는 / 강토의 정점이니 / 등골으로써 전지(傳之)하는 / 장백산 오대산맥은 / 인민 모반(母盤)의 탯줄이라 / 어느 골엔들 / 신생을 영위하는 출혈이 없으리오 / 나라의 슬픔이 / 골짜구니마다 들어찼다 함은 / 태동의 아픔을 이를 뿐이니 / 들으라 / 불사(不死)의 곡신(谷神)조차 몰아내는 함성을 / 눈물을 북망에 봉하고 / 수백만 청춘의 똑같은 눈초리 / 타는 초롱불 / 봉화재로 오르며 / 구천에 올리는 헌가를 <설정식, 송가(頌歌)&3&, 포도, 정음사, 1948>

*a 응향(凝香)

몸에서 배는 향(香)내는 먼데서 사운대는 바람소리라 / 무심(無心)에 굳어버린 이제는 그만 응향(凝香)이 된 사리(舍利)이어야. <김광림, 법열(法悅), 오전의 투망, 광명인쇄공사, 1965>

하나의 지론(持論)같은 고집(固執)의 덩어리. / 꽃망울은 / 달라져 가는 미의식(美意識)의 / 이파리들 / 앞에 선 / 응향(凝香)이고저 / 하는 듯 <김광림, 꽃의 서시(序詩), 상심(傷心)하는 접목(接木), 백자사, 1959>

혹은 / 온통 꽃밭을 휘저어 한줌으로 움켜잡을 응향(凝香)의 궁리(窮理)인지도 모르는가. <김광림, 돌을 찬다, 상심(傷心)하는 접목(接木), 백자사, 1959>

*a 응혈(凝血)되다

마침내 이 구슬들. / 목숨이 빛이 되어 영겁(永劫)을 쉬누나. / 살에 이는 돌도 가지가지. / 삶이 오욕(五欲)에 머슴살면 / 담에건 콩팥에건 썩은 돌이 고여 / 사지(四肢)가 뒤틀리는 지옥에 울건만. / 허나 이 구슬들은 / 오히려 고행을 악기처럼 타며 부채질한 / 일념(一念)의 불에서 태어났다. / 여겨보니 어른거리는 오색(五色)의 신비. / 피빛 살 생각과 누른 시름이 / 그토록 뿌리 뽑혔음인가. / 거무틱틱한 목숨의 응달이 / 그토록 가위눌렸음인가. / 푸른 고독

이 그처럼 심령(心靈)을 비쳤음인가. / 달무리 입은 덕(德)이 골수마다 찰름 고여 / 삼계(三界)를 넘나들며 영글어 갔었구나. / 청정(淸淨)한 목숨의 궁극(窮極)의 화신(化身). / 말 없는 설법. / 그런 도가니는 있다. / 무량한 한 목숨이 그렇게 타면 / 구슬로 응혈(凝血)되는 그 도가니. / 초자연의 봉우리에서 내려다보면 / 그렇게 단순한 이 현실. / 아아, 딱한 나의 헤아림. / 내 눈 앞의 삼십사과(三十四顆)*의 사리여. <성찬경, 사리(舍利), 벌레소리 송(頌), 문원사, 1970>

*a 의념(意念)

무한한 생(生)에의 의념(意念)이 백일(白日)을 지나온 한나절엘지라도 / 이제 여기 광명이 황미(黃迷)한 자리에 앉았으면 / 슬픈 말들이 모여드노니 이것은 향료를 구하는 섬 / 밤은 밤마다 이렇게 저물어가나 봅니다. <김광섭, 황혼, 동경, 연구서림, 1938>

*a 의용군인(義勇軍人)

따듸따닷따! 두당둥당둥! / 나아가세 나아가세 기(氣)껏 나가세 / 대한소년(大韓少年) 의용군인(義勇軍人) 큰 발자취로 / 성큼성큼 건장(健壯)하고 용맹(勇猛)스럽게 / 최후승첩(最後勝捷) 얻기까지 기(氣)껏 나가세 / 허쿨쓰의 높은 산(山)도 한번 뛰우고 / 태평양(太平洋)의 넓은 바다 한 번 헤엄해 / 정의도중(正義圖中) 왼 세계(世界)를 집어느라신 / 하늘 명령(命令) 성취(成就)토록 기(氣)껏 나가세 <최남선, 대한소년행(大韓少年行), 소년, 1909. 10>

*a 이대(異大)하다

사람아 / 인간(人間)아 / 너는 과시(果是) 지상(地上)의 꽃이다 별이다 / 우주(宇宙)의 광영(光榮)—그 자랑이요 / 생명(生命)의 결정(結晶)—그 초점(焦點)이겠다 / 그리고 너는 정녕 위대(偉大)하다 / 하늘에까지 닿을 / '바벨'의 탑(塔)을 꿈꾸며 실로 싸우며 있다 / 절대(絶對)의 완성(完成)과 원만(圓滿)과 행복(幸福)을 끊임없이 꿈꾸며 / 쉬임없이 동경(憧憬)하고 추구(追求)하는 / 인자(人子)들아 / 너희들은 / 자연(自然)을 정복(征服)하고 신(神)들을 암살(暗殺)하였다 한다 / 정녕 그러하다 / 오— 그러나 / 준엄(峻嚴)하고 이대(異大)한 파멸(破滅)의 '스핑스' / 너를 확착(攫捉)할 때 / 너의 / 검은 땅도 / 붉은 피도 / 일체(一切)의 역사(役事)도 / 끔찍한 자랑도 / 그 다 무엇인가…… <오상순, 허무혼(虛無魂)의 선언(宣言), 공초오상순시선(空超吳相淳詩選), 자유문화사, 1963>

*a 이바구하다

내가 미리 동네 어르신네들한테 양해를 얻어야겠습니다 자고 이래로 삼년들이로 해오는 별신이 되다 보니 내가 말 아니 하더래도 동네 어르신들 귀가 쩨진 단보들이라 잘 아

시겠지마는 이 거리굿이라 하는 건 이 세월에 욕도 많이 해야겠고 여러 가지 귀신을 풀어먹이랴면 천상 욕을 많이 해야 됩니다. / 예, 이놈으것 고속화도론지 뭔지가 새로 생겨나면서 / 웃목하고 안목하고를 갈라쳐 놓은 뒤 / 밥 잘먹고 똥 잘 뀌는 박씨 집안은 영 / 둘로 쪼개졌다 캐도 과언 아이시더 / 따지고 보면 박씨네만 그런게 아이라 / 주제넘고 쪼만한 허씨네가 그렇고 / 싱거운 윤시네가 얼추 그 지경이 됐다 안카나 / 온동네방네 사람들이 둘로 갈라졌는데 / 가만 있거라 이 동네 이름이 뭐라캤노 / 삼 년 만에 그 동안에 많이들 늙었뿟구나 / 옛날 노인 말씀에 응께를 너무 쓰면 / 아래 소문이 빠진다 캤나 웃지 마레이 / 배를 모두 모래사장에 끌어올려놓고 / 뱃일하는 사람이나 농사짓는 사람이나 / 남녀노소 모지리 모여설랑 저거시키 만국기 펄럭이며 / 짐대 새끼줄에 한지(韓紙) 금줄 쳐 놓고 한덩어리로 춤추는 / 이 별신굿이 한차례 연기돼야 했고 이건 큰 사건이었재 / 증조할아버지 제사날에 도망치드키 도로를 넘어온 / 작은아버지네 식구들 봤지를요 / 아 생각나지러요 엄숙하게 가라앉은 제사집 분위기라기보담 / 이건 뭣이냐 하믄 / 살벌하게시리 바람부는 낯선 언덕배기 같았니더구마 / 그렇지 단순히 되돌아갈 길이 난감한 표정이냐 하면 / 천만에 올시다 어데까장 이바구했노 / 그런 어정쩡한 내왕이 몇 차례 있은 뒤 / 때맞춰 전화란 놈이 새로 들어왔고 / 행정구역마저 쪼개졌고 그 무렵해서 또 뉘집에선 / 개를 잃었다 카재 야밤중에 화물트럭에 콱! 치었다 카재구마 / 헤들라이트에 붙잡힌 채 옴짝달싹 못 한 / 개의 마지막 꼬라지라니 쯧쯧 / 왜 비명도 못 지르노, 개새끼 ! 앙 그렁교 여러 어르신들 / 내가 돈만 있으면 애기 밴 종도 살 수 있고 / 살찐 개만 있으면 인왕산 호랭이도 사는 법인데 / 이 눈을 바라 호랭이 못 살 눈인가 / 하여간에 밤마실들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게 분명하고 / 길 이쪽저쪽에서 어이! 하면 서로 들릴 정도지만 서두 / 어르신네들은 실재 거리 이상의 거리감을 / 가슴 속에 묻으며 살아온 게 분명하구마 / 보자, 그 응어리는 거짓말 쫌 보태 돌이 됐다이 말이시더 / 아따 구마 손바닥들 구만 치고. 암…… <최석하, 소물동(少勿洞)의 개죽음, 물구나무서기, 문학과지성사, 1987>

*a 이상기류

이삭 하나에서 이상기류가 흐른다. <정동주, 이삭줍기, 논두렁에 서서, 문학세계사, 1987>

*a 이상난춘(異常暖春)

신부와 신랑이 겨울 몽블랑 산 속으로 신혼여행을 왔었는데요. 가파른 어느 낭떠러지에서 신랑이 실족하여 미끄러져 내려가 버린 것이 아무리 찾아 보아도 영 눈에 띄질 않았습니다. 몽블랑의 산신녀가 그 신랑이 탐

나서 그런 거라고 사람들은 말하기도 합지요만은……. / 해가 바뀌도록 찾고 찾고 또 찾았지만 신랑의 모양은 어느 바위 틈에도, 흙 위에도, 냇물 속에도, 아무데도 나타나 보이질 않아, 신부는 할 수 없이 이 몽블랑 산골에 초막을 엮어 살며, 그를 찾아 기다리노라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다섯 해가 가고, 열 해가 가고, 여러 10년의 세월이 첩첩이 흘러서 드디어는 파뿌릿빛 머리털의 할마씨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 그러다가 어느 초봄 산골의 눈녹이 때의 일인데요. 눈 녹은 물이 새로 흘러내리는 어느 골짜기의 개울가에서 신부는 그 물 속에 잠기어 떠내려오고 있는 그네의 신랑을 겨우 다시 보게는 됐는데, 그건 하도나 오랜만이라서 숨결이사 날아간 지 오래였지만, 이상하게도 얼굴이나 머리털이나 살결의 젊음은 그때 신혼 때 그대로더라구요. / '몽블랑 산의 중턱부터 위에는 일년 내내 눈이 덮여 꽁꽁 얼어 있으니, 신랑은 그 어디 바위 사이에 걸려 냉장(冷藏)되어 있다가, 여러 10년 만의 이상난춘(異常暖春)의 드문 기온에 풀려 흘러내려온 것이리라고, 사람들은 말씀을 하기도 하고, 또 '아닐 거다. 그건 몽블랑의 산신녀의 짓일 것이다'고 하기도 합지요만은……. <서정주, 몽블랑의 신화, 서으로 가는 달처럼, 문학사상사, 1980>

*a 이율배반(二律背反)하다

연륜이 그 둘레를 해바라기처럼 / 향수했다 하지만 / 영육(靈肉)은 이율배반(二律背反)하고 / 양극 사이에 끼인 약자는 스스로를 영어(囹圄)하여 <김용호, Y라는 부호, 날개, 대문사, 1956>

*a 이윽달

그날 밤 그대의 밤을 지키던 삽사리 괴임직도 하이 짙은 울 가시 사립 굳이 닫히었거니 덧문이요 미닫이오 안의 또 촉불 고요히 돌아 환히 새우었거니 눈이 치로 쌓인 고삿길 인기척도 아니하였거니 무엇에 후젓하던 맘 못 놓이길래 그리 짖었더라니 얼음 아래 잔돌 사이 뚫노라 죄죄대던 개울물 소리 기어들세라 큰 봉을 돌아 둥그레 둥긋이 넘쳐 오던 이윽달도 선뜻 나려설세라 이저리 서대던 것이러냐 삽사리 그리 굴음직도 하이 내사 그댈 새레 그대것엔들 닿을 법도 하리 삽사리 짖다 이내 허울한 나릇 도사리고 그대 벗으신 고운 신이마 위하며 자더니라. <정지용, 삽사리, 백록담, 문장사, 1941>

*a 이재만발

어라 이 내 삭신 위로 하늘 아래로 구천 열 둘에 학당 들고 열 일곱에 산에 들어 스물 일곱 명당 찾아 높은 데다 별당 짓고 낮은 데다 초당 지어 세상경영 할 적에 선보름에 도가 출입 뒷보름에 이재만발 애기 없는 며느리 수명장수 애기 내리고 비린 것도 마다 않고 누린 것도 마다

않고 걸사 뻰장주위 호위 짬짬이 고깔 쓰고 동냥 공양 받을 제 콩이라 팥이라 서 되 네 홉을 받으시고 백설기로 거두시고 앞돈 뒷돈 거둔 돈으로 이 내 정성 다름 아니오 대한국은 해동 해로는 반만년 죽어도 육천만 가웃이요 살아도 이 내 식솔 열둘이라 소원성취 한 마음으로 비난수 하는 말이 세세년년 재물 보지 이권 보지라 비나이다 / 에라. <박태일, 치산거리 노래, 가을 악견산, 문학과지성사, 1989>

*a 이즈막하다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 이 흰 바람벽에 / 희미한 십오촉(十五燭)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던지고 / 때글은 다 낡은 무명샤쯔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 그리고 또 달디 단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 이 흰 바람벽에 /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 찬 물에 손은 담그고 무며 배추를 씻고 있다 /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즈막한 집에서 / 그의 지아비와 마주앉아 대구국을 끓여 놓고 저녁을 먹는다 / 별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 그런데 또 이즈막하야 어느 사이엔가 / 이 흰 바람벽엔 /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력하는 듯이 /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 그리고 또 '프랑시쓰 쨈'과 도연명(陶淵明)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 문장, 1941. 4>

*a 이카루스

등나무여 지휘(指揮)하라 부끄러움 고만 타고 / 이제는 지휘(指揮)하라 이카루스의 날개처럼 / 쑥잎보다 훨씬 얇은 / 너의 잎은 지휘(指揮)하라 / 베적삼, 옥양목, 데드롱, 인조견, 항라, / 모시치마 냄새난다 냄새난다 / 냄새여 지휘(指揮)하라 / 연기여 지휘(指揮)하라 / 등나무 등나무 등나무 등나무 <김수영, 등나무&2&, '거대한 뿌리, 민음사, 1974>

우리들은 모두 가만히 있었다. / 「이카루스만이 영원하다. / 그것을 모르고 사는 자(者)는 / 이 지상에서 아무것도 모른다」 <김승희, 이카루스의 잠, 태양미사, 고려원, 1979>

***a 인골적(人骨笛)**

아득히 아득히 몇 억겁을 두고 두고 / 울고 온 소리냐, 인골적(人骨笛) 소리냐 <한하운, 인골적(人骨笛), 한하운 시초, 정음사, 1949>

***a 인공기**

어제는 인공기 오늘은 태극기 / 관언(關焉)할 바 없는 기폭이 나부껴 있다 <유치환, 기(旗)의 의미(意味), 보병과 더불어, 문예사, 1951>

***a 인과불멸(因果不滅)**

깊은 잠결의 어느 겨를에 생겼음인지 한결같이 울려 오는 낭랑한 먼 다듬이 소리는 한 홰 두 홰 간곡히 외치는 닭 울음소리로 더불어 겨우 짐작할 수 있는 새벽의 가차워옴에 따라 점점 맑아질 따름이었다 / 열사흘 달은 어느덧 서쪽 대밭 위에 기울고 마을은 집집이 지닌 한량없이 아늑한 제 그늘에 가리어 누리는 늘어진 안식도 이미 몇 고비를 무르익은 무렵 차라리 먼 암자의 인경소리는 겨을한 중의 선하품과 시금한 눈시울의 여운을 늘여뜨려 오건만 어느 마을 방 어둑한 등잔 아래 초롱초롱 맑은 눈매와 단정한 앉음새로 홀로 일어 깨우치는 이 여인의 다듬이 소리는 물 같은 밤 고요의 온갖에 울림하여 남김없는 그 대기(大氣)의 무늬는 드디어 깊이 잠든 먼 별들까지 즐거운 선율로 눈뜨이고 다시 몇 억만광년(億萬光年)을 인과불멸(因果不滅)의 법칙과도 같이 무궁으로 무궁으로 번지어 갈지니 / 저 먼 동방(東方)의 항가새꽃빛 새벽을 부르며 부르며— <유치환, 깨우침, 청령일기, 백자사, 1949>

***a 인동(忍冬)하다**

아득한 들녘 / 폭설(暴雪) 아래 마른 풀들이 / 서로 얼어붙어 꼼짝없이 죽어 있는 빛깔이 / 어쩌면 새삼 / 우리 허기진 시절의 얼굴빛 많이나 닮아서 / 아무래도 잊힐 도리가 없고 / 요렇게 서로 껴안고 끝끝내 / 마지막 죽음까지도 놓아주질 않고 / 차례로 임종하는 일 / 눈여겨 보아진다. / 오늘날 인간 세계 그 어디에고 찾아보기 / 힘든 노릇인데 / 가막살이나, 비비추에 이르기까지 / 바위와 바위 사이에서도 / 한사코 떨어지질 않고 / 바람이며 눈 닥치면 닥치는 대로 / 더욱 꼭 손잡고 / 인동(忍冬)하는 곳에 / 결코 피들은 녹슬지 않네 / 마른 풀잎에 달라붙은 귀뚜라미 / 날개를 가슴에 묻고 / 날개 끝에 노래를 묻고 / 눈은 모든 것들을 덮어 버리고 / 잠긴다. / 백발(白髮)의 그 어둠에 잠긴다. <박주일, 백발(白髮)의 어둠 4, 제비풀들이, 현대문학사, 1994>

*a 인두불

또 이러한 밤 같은 때 시집갈 처녀 막내고무가 고개 너머 큰집으로 치장감을 가지고 와서 엄매와 둘이 소기름에 쌍심지의 불을 밝히고 밤이 들도록 바느질을 하는 밤 같은 때 나는 아룻목의 삿귀를 들고 쇠든밤을 내어 다람쥐처럼 밝어 먹고 은행여름을 인두불에 구워도 먹고 그러다는 이불 위에서 광대넘이를 뒤이고 또 누워 굴면서 엄매에게 웃목에 두른 병풍의 새빨간 천두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고무더러는 밝는 날 멀리는 못 난다는 메추라기를 잡아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백석, 고야(古夜), 사슴, (자가본), 1936>

*a 인민전선파

'이십세기의 대유행 동족상잔 같은 것도 / 우리가 일찍이 1930년대에 / 뻰보이기로 해보기사 했지만서두 / 행여나 너무 나뻔 보지 말아라. / 알아주건 말건 맘대로 하게마는, / 우리 푸랑코와 인민전선파의 혈전 / 그것은 순수 스페인적인 / 조끔 과한 스포츠에 불과했었네. / 아닌가 긴가 공동묘지에 가 보렴. / 푸랑코는 죽을 때 유언한 대로 / 인민전선파들하고 한 묘지에 가 묻혔노라. / 영원히 나란히 의좋게 묻혔노라. / 원수가 따로 없네 잉? / 가가가가가가가(呵呵呵呵呵呵呵)! 가가가가가가가(呵呵呵呵呵呵呵)! / 가가가가(呵呵呵呵) 가가가가(呵呵呵呵) 가가가가(呵呵呵呵) 가가가(呵呵呵)!' <서정주, 서반아(西班牙)의 가가대소(呵呵大笑), 서으로 가는 달처럼, 문학사상사, 1980>

*a 인생일장(人生一場)

신부(新婦)는 이미 죽었거나 / 아직 오지 않았으니 / 꿈일랑 그냥 비워두어라 그대여, / 고향 없는 인생일장(人生一場)들이 / 눈송이처럼 빗방울처럼 / 아득히 휘날려 내리는구나 <정현종, 꿈 노래, 사물의 꿈, 민음사, 1972>

*a 인화석(引火石)되다

퇴짓돌 뿔뿔이에 밤새며 갈자! / 또 다시 갈라치면 우리 몸뚱이마다 / 인화석(引火石)되어 삼단처럼 불 불어지리. / 아아, / 나의 못 잊을 나의 영원(永遠)한 사람들아! <박거영, 나의 사람들을 위하여, 바다의 합창, 시문학사, 1949>

*a 일격필살

저격을 꿈꾼다 / 가장 편한 자세로 / 앉거나 서서 또는 누워서 / 증오의 화상을 처치하는 꿈 / 귀신도 곡할 범죄를 꿈꾼다 / 잠시 숨을 멈추고 / 긴장을 풀고 / 일격필살을 노리는 / 복수의 버튼만 살짝 누르면 / 세상은 전혀 딴판으로 바뀌고 / 놈은 쥐도 새도 모르게 / 눈앞에서 썩 사라지겠지 / 외마디 비명은 커녕 /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 행적은 묘연

한 채 / 별의별 소문만 분분하겠지 / 물증은 없고 심증만 가는 / 이 시대의 테러리스트 / 언제나 깨어 있는 눈으로 / 완전무결한 단죄를 꿈꾼다. <임영조, 리모콘, 갈대는 배후가 없다, 세계사, 1992>

*a 일대명공(一代名工)

아침해 붉게 바다에 소용돌이쳐 솟으니, / 서기(瑞氣), 굴속에 서리우고 / 달빛 휘영청히 떠오르니 / 향연(香煙) 님 앞에 조요하다 / 일대명공(一代名工)의 크나큰 솜씨에 / 고개 숙여 눈물 겨워지옵네. <박종화, 석굴암대불(石窟庵大佛), 청자부(靑磁賦), 고려문화사, 1946>

*a 일출이경(日出而耕)하다

아아 나도 나이 불혹(不惑)에 가까웠거늘 / 슬플 줄도 모르는 이 골짜기 부조(父祖)의 하늘로 돌아와 / 일출이경(日出而耕)하고 어질게 살다 죽으리 <유치환, 거제도(巨濟島) 둔덕(屯德)골, 울릉도, 행문사, 1948>

*a 일편청심(一片靑心)

자라나는 형상(形象) / 벗겨지는 껍질의 의미(意味) / 바람을 찌르는 솔잎의 / 일편청심(一片靑心) <박이도, 솔거(率居), 바람의 손끝이 되어, 문학예술사, 1981>

*a 일홍징담(一泓澄潭)

사벽(四壁)을 덮은 수목(樹木) 쌓이다 못 덩이덩이 / 고울사 일홍징담(一泓澄潭) 초록색(草綠色)을 뉘들인고 / 신나무 처진가지가 반(半)쯤 물에 잠겨라 <정인보, 만폭동(萬瀑洞)&2&, 담원시조, 을유문화사, 1948>

*a 일화예보(日和豫報)

고도(孤島)의 일화예보(日和豫報)를 받은 / 갈매기 하나 / 활기로운 날개 <이용악, 새벽 동해안, 분수령, 삼문사, 1937>

*a 임익평야(臨益平野)

구릉(丘陵) 구릉(丘陵) 구릉(丘陵) 그 사이 사이 마을 / 금만경(金萬頃) 희마밋들 한편엔 임익평야(臨益平野) / 진실로 남국(南國)의 옥토(沃土) 제일곡창(第一穀倉) 아닌가 <이병기, 농촌화첩(農村畵帖) 2, 가람문선, 신구문화사, 1966>

*a 입정(入定)되다

당신은 나로 하여금 날마다 날마다 당신을 기다리게 합니다. / 일정한 보조로 걸어가는 사정(私情) 없는 시간이, 모든 희망을 채찍질하여 밤과 함께 몰아 갈 때에, 나는 쓸쓸한 잠자리에 누워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 가슴 가운데의 저기압은 인생의 해안에 폭풍우를 지어서, 삼천세계(三千世界)는 유실(流失)되었습니다. / 벗을 잃고 견디지 못하는 가엾은 잔

나비는 정(情)의 삼림에서 저의 숨에 질식되었습니다. / 우주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대철학(大哲學)은 눈물의 삼매(三昧)에 입정(入定)되었습니다. / 나의 '기다림'은 나를 찾다가 못 찾고, 저의 자신까지 잃어버렸습니다. <한용운, 고대(苦待), 님의 침묵, 회동서관, 1926>

*a 잉앗줄

난데없이 하루는 잉앗대는 동강, 깃털은 잉앗줄 부챗살에 튕겨 흩어지고 흩어지고, 천길 벼랑에 떨어지고, 영롱한 달빛도 다시 횃대에 걸리지 않았지요. <박용래, 제비꽃&2&, 백발의 꽃대궁, 문학예술사, 1980>

*a 잎갈이나무

만나는 사람들의 몸놀림 계속 시계침 같고 / '반포 치킨'에 묻혀 맥주 마시는 / 내가 지겨운 기름 냄새 같을 때 / 읽는 책들도 하나같이 맥빠져 시들할 때 / 알맞게 섞인 잎갈이나무와 늘푸른 나무들이 / 멋대로 숲을 이루고 서서 / 눈발 날리는 강진만을 내려다보고 있는 / 다산초당에 오르곤 한다, / 는 실은 거짓말이고 / 다산초당은 달포 전에 처음 갔다. / 해가 떴는데 눈발이 날리는 희한한 날이었다. / 몇 대의 버스와 택시를 종일 번갈아 타고 / 강진의 귤동 마을에 도착했다. / 공터에서 차의 맥박이 끊어지자 / 흰 눈발이 앞창을 한번 완전히 지웠다가 / 다시 열어주었다. <황동규, 다산초당(茶山草堂), 몰운대행, 문학과지성사, 1991>

*a 자개밭둑

한 십리(十里) 더 가면 절간이 있을 듯한 마을이다 낮 기울은 볕이 장글장글하니 따사하다 흙은 젖이 커서 살같이 깨서 아지랑이 낀 속이 안타까운가 보다 뒤울 안에 복사꽃 핀 집엔 아무도 없나 보다 비인 집에 꿩이 날아와 다니나 보다 울 밖 늙은 들매나무에 튀튀새 한불 앉았다 흰 구름 따라가며 딱정벌레 잡다가 연둣빛 잎새가 좋아 올라왔나 보다 밭머리에도 복사꽃 피었다 새악시도 피었다 새악시 복사꽃이다 복사꽃 새악시다 어디서 송아지 매—하고 운다 골갯논두렁에서 미나리 밟고 서서 운다 복사나무 아래 가 흙장난하며 놀지 왜 우노 자개밭둑에 엄지 어디 안 가고 누웠다 아랫동리선가 말 웃는 소리 무서운가 아랫동리 망아지 네 소리 무서울라 담모도리 바윗잔등에 다람쥐 해바라기하다 조은다 토끼잠 한잠 자고 나서 세수한다 흰 구름 건넛산으로 가는 길에 복사꽃 바라노라 섰다 다람쥐 건넛산 보고 부르는 푸념이 간지럽다 <백석, 황일(黃日), 조광, 1936. 3>

*a 자매별

대학 교정에서 그대를 만났을 제 / 내 눈은 신록을 본 듯 번쩍 띄었고 / 손길을 잡게 되던 날 내 가슴은 뛰었었나니 / 그대와 나는 자매별모

양 빛났더니라 <노천명, 어떤 친구에게, 별을 쳐다보며, 희망사, 1953>

*a 자성(自盛)하다

서러워하지 말자 언젠가 다시 / 해후(邂逅)의 약속 없음을 / 굳이 바래옵거니 / 시공을 넘어선 무상(無想)의 언덕 위에 / 무심히 마주 선 한 쌍의 은행이기를 / 구원(久遠)한 마음의 하늘 수정의 바다를 / 머리에 이고 / 아득히 바라보는 바래움 없는 위치에서 / 묵묵 자성(自盛)하는 나무의 역사(歷史) <홍윤숙, 생명(生命)의 향연(饗宴), 여사시집(麗史詩集), 동국문화사, 1962>

*a 자스민차(茶)

있는지 없는지 / 물 위에 뜨는 꽃잎 / 자스민차(茶) 마시는 / 쑥색 건달 뉘시드라? / 대여섯 번 망가졌다 뒤집혔다 / 댁은 뉘 시 드 라 <김영태, 댁은 뉘시드라?, 결혼식과 장례식, 문학과지성사, 1986>

*a 자실상태(自失狀態)

세컨드 세컨드 게으른 슬리퍼를 끌며, 분홍빛 자실상태(自失狀態) 속에 어리석어지는 생명의 한때를 <박목월, 사력질(砂礫質), 무순(無順), 삼중당, 1976>

*a 자웅(雌雄)하다

파리 감히 콧등에 자웅(雌雄)하는 실예론 시절 / 묘지에 우거선 풀·나무 더욱 경건을 잃었다. / 뜨을새도 경원하는 삼복(三伏)·염천 아래 / 비석이여 우울히 선 채 무슨 애수에 잠기었느뇨 <이찬, 묘비(墓碑), 분향(焚香), 한성도서주식회사, 1938>

*a 자즌닭

자즌닭이 울어서 술국을 끓이는 듯한 추탕(鰍湯)집의 부엌은 뜨수할 것 같이 불이 뿌연히 밝다 <백석, 미명계(未明界), 사슴, (자가본), 1936>

*a 작열(炸裂)하다

공화국(共和國)에는 최후의 날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 날개없는 흉조(兇鳥)의 나라가 만든 저수지(貯水池)의 준공식에서 / 오색(五色)의 '테프'를 끊는 가위 소리와 함께 / 시냇물 줄기는 / 끊어지고, / 공화국(共和國)의 영토는 / 햇볕에 작열(炸裂)하는 초토(焦土). / 총의(總意)의 의사(議事)도, / 여왕도, / 없이 / 어디론가 / 망명지(亡命地)를 찾아 떠나려던 날, / 흩어지는 / 최후의 비명과 함께 / 공화국(共和國)의 문명(文明)은 은하수(銀河水)로 이동되었다. <김종문, 오리 공화국(共和國), 한국전후문제시집, 신구문화사, 1963>

*a 잔바람

흐르고 / 있다. / 포롱 / 포롱 / 포롱 / 시냇물 위에 날리는 잔바람에 / 하

늘이 떨어져 / 파안(破顔)의 즐거운 파문. <박남수, 종달새, 신의 쓰레기, 모음출판사, 1964>

*a 잠물[漣]

저녁 하늘의 바닷가에 / 흰모래는 깔렸는데 / 키스에 붉어진 처녀(處女)의 빰같은 / 황감(黃柑)의 잠물[漣]은 춤을 춘다 <노자영, 미지(未知)의 나라에, 처녀의 화환, 장문서당, 1929>

*a 잠방둥에

산골 사람은 막베 둥거리 막베 잠방둥에를 입고 / 노루 새끼를 닮았다 <백석, 함주시초(咸州詩抄), 조광, 1937. 10>

*a 잠쟁이

논두렁에 잠쟁이를 적시고 개울물에 발을 적시고 어두운 잔디밭을 조오그만 가닥손을 쥐여든 채 소년(少年)은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달렸다 / 파아란 반딧불 그것은 움직이는 또 다른 별이었다. <함형수, 형화(螢火), 시인부락, 1936. 11>

*a 잠풍날씨

내가 이렇게 외면하고 거리를 걸어가는 것은 잠풍날씨가 너무나 좋은 탓이고 / 가난한 동무가 새 구두를 신고 지나간 탓이고 언제나 꼭 같은 넥타이를 매고 고운 사람을 사랑하는 탓이다 <백석, 내가 이렇게 외면하고, 여성, 1938. 5>

*a 잡도(雜蹈)

그것은 잡도(雜蹈) / 차라리 함성(喊聲) <박재륜, 하구(河口)의 장(章), 궤짝 속의 왕자, 해동문화사, 1959>

*a 장(匠)바치

한 산맥과 힌 광야의 적막을 대결할 수 있는 나의 노호(怒號)와 / 한 절벽과 한 바위의 완고를 각충(角衝)할 수 있는 나의 무기로써 / 여기 한 마리 묵묵한 노예의 신세를 자위(自衛)함은 / 너희들 사역자(使役者)의 도도한 번영이 가져 올 낙조의 때에 입회(立會)하고자 함이오, / 티끌 같은 총명(聰明)을 장(匠)바치 하여 / 원재(原在)를 저버린 고아(孤兒)들의 실종(失踪)을 감시하려 함이니 / 그러므로 하여 한갓 / 절망이나 혹사에 지친 비분(悲憤) 때문이 아닌 눈물 어린 창(窓)알 속의 / 내 한 쌍 불멸(不滅)의 횃불을 보라. <설창수, 역우(役牛), 개폐교, 백양당, 1950>

*a 장단음(長短音)

배가 닿자 어부들은 한 마리 커다란 고래를 / 밧줄로 달아 내렸다 / 사람들이 모여들고 물결이 / 가슴적시면서 / 갑자기 풍문의 바다가 / 부두에 펼쳐졌다 / 푸르디 뻗센 힘줄과 바다가 이루는 장단음(長短音) <김명인, 고래 Ⅰ, 동두천, 문학과지성사,

1979>

*a 장락태평(長樂太平)하다

길 밝혀라 처용아 / 열두 나라 지은 이들 / 장락태평(長樂太平)하랐다. <신석초, 처용(處容) 무가(巫歌), 현대문학, 1969. 4>

*a 장례소(葬禮所)

당신이 죽은 건 내 오진(誤診)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당신이 12동(棟) 병실(病室)에서 장례소(葬禮所)로 퇴근(退勤)할 때 나는 퇴근(退勤)할 기운도 용기도 없었네. 용서하게. <마종기, 증례(證例) 5, 안 보이는 사랑의 나라, 문학과지성사, 1980>

*a 장뭏이

아무리 밤이 좋은들 오리야 / 해변벌에선 얼마나 너희들이 욱자지껄하며 멕이기에 / 해변 땅에 나들이 갔던 할머니는 / 오리 새끼들은 장뭏이나 하듯이 떠들썩하니 시끄럽기도 하더란 숭인가 <백석, 오리, 조광, 1936. 2>

*a 장별(葬別)

가엾은 망령(亡靈)의 흑점(黑點)이여 / 가엾은 인류(人類)의 오점(汚點)이여 / 너의 이름의 장별(葬別)은 너의 행복(幸福)이여 / 너의 이름의 신생(新生)은 너의 향수(鄕愁)이었다 / 그것은 너의 생명(生命)의 부활(復活)이며 / 또 너의 거룩한 첫 울음소리련매 <김용제, 정열(情熱)의 처녀도(處女島), 조광, 1942. 3>

*a 장송보(葬送譜)

장송보(葬送譜)도 없이 / 나는 사구(砂丘) 위에서 / 풍장(風葬)이 되는구나 <이한직, 풍장(風葬)&2&, 문장, 1939>

*a 장전(長箭)곶

나룻배 열두 척 다 들어와도 / 그이만 안 오네, 안 온다네. / 장전(長箭)곶 삼십 리 파도 세던가, / 파도가 셌으면 갈매기 넘게. / 돛대가 세 동강 나더라도 / 나는야 올 줄 아오 올 줄을 알았소. <김동환, 해녀의 노래, 삼인시가집, 삼천리사, 1929>

*a 장좌불와(長坐不臥)

소소산방(笑笑山房) 그 납자(納子)는 / 10년간 장좌불와(長坐不臥) 했단다. <정동주, 첫날. 성전(聖殿)에서, 순례자, 민음사, 1984>

*a 재수형통(財數亨通)

이 약수(藥水)를 마시는 데는 지장(支障)이 없고, / 맛이 달라질 수는 없을 것이니 / 재수형통(財數亨通)만 빌 뿐이다. <천상병, 비&17&, 주막에서, 민음사, 1979>

*a 재앙스럽다

뉘 눈결에 쏘이었소 / 온통 수줍어 진 저 하늘빛 / 담 안에 복숭아꽃이 붉고 / 밖에 봄은 벌써 재앙스럽소 <김영랑, 뉘 눈결에 쏘이었소, 영랑시집, 시문학사, 1935>

*a 저룹등

찻길이 놓이기 전 / 노루 멧돼지 쪽제비 이런 것들이 / 앞뒤 산을 마음 놓고 뛰어다니던 시절 / 털보의 셋째아들은 / 나의 싸리말 동무는 / 이 집 안방 짓두광주리 옆에서 / 첫울음을 울었다고 한다 / "털보네는 또 아들을 봤다우 / 송아지래두 불었으면 팔아나 먹지" / 마을 아낙네들은 무심코 / 차거운 이야기를 가을 냇물에 실어 보냈다는 / 그날 밤 / 저룹등이 시름시름 타들어가고 / 소주에 취한 털보의 눈도 일층 붉더란다 <이용악, 낡은 집, 낡은 집, 삼문사, 1938>

*a 저자거리

강(江)은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 / 노하여 넘치면 사정없이 휩쓸고 / 주저앉아 마르면 가슴 바닥까지 내보이는 / 저자거리의 사람들일지도 모른다. <김창완, 강(江)&7&, 우리 오늘 살았다 말하자, 실천문학사, 1983>

그해 이월 현동*을 떠났다 / 도평 거성 눌인 땅 흐르는 개울물 좇아 / 살얼음 밟으며 걸어가는데 / 먼 곳 청둥오리 울음이 무겁다 / 거성 산마루턱에 오르자 이내 바람이 / 얼굴살 가르고 / 멀리 보현산이 첩첩 적막, 한 잎으로 솟아 있다 / 썩지 않는 눈부심이란 없다는 편지 띄우고 / 저자거리서 국밥을 먹었다 / 반년간 현동땅에서 내가 주고 받은 편지는 / 이 겨울 또 다른 추위일 뿐 / 선산(先山) 단풍숲 아래 도망 온 육신은 / 무엇으로 쓰러져 있었던가 / 산그늘 길은 차갑다 / 텃새 터인 양 되새떼 잔설 쪼는 산모롱이 따라 / 눌인 경계로 접었다 / 사마천은 울분이 뜻을 일으켜 글을 이룬다고 적는데 / 내가 읽는 부분은 울분이다 / 굽자란 소나무 삐죽한 굴참나무 사이로 / 길들은 끝없이 엉켜 돌고 있고 / 내 생각 흔적은 / 저 따위 길들에 다름아닌 것을, / 재를 내려서자 진눈깨비 끝나고 / 산기슭 곳집에서 무명 옷자락 사내들이 / 조용히 상여와 제구(諸具)를 챙긴다 / 길을 물으니 한 중년이 부르튼 손을 들어 / 먼 산자락을 보여 주는데 / 몇 줄기 햇살이 그 쪽으로 따사롭다 / 아아 산 속 겨울 찬 물 / 산저수지 저녁 햇빛은 부서지고 부서져 / 끊임없는 화살로 두 눈을 쪼고 / 다시 물 아래위 좌 우 사정없이 쪼아간다, 문득 / 쇠박새 한 울음이 짧고 아름답다 / 썩은 낙엽 부스러진 나뭇가지로 불을 피운다 / 날짜마다 고요 어둠으로 타오르는 불꽃 / 그 불을 바라보기 위하여 은화식물도감을 생각한다 / 물 그늘 아래 가근(假根)으로 물 빨고 / 침엽으로 바람 씌던 음습한 사람, / 어두운 날짜 저 깊은 곳에서

/ 나는 오랫동안 불을 피운 듯하다 <송재학, 어두운 날짜를 스쳐서, 서정시학, 깊은 샘, 1994>

떠나 버린 그대 /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 저무는 등 뒤에서 대문은 잠기고 / 사라져 가는 그대 뒷모습 /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적막 허공 / 때 묻은 손으로 저자거리를 떠돌며 / 그대 육신은 소리없이 금 가고 / 눈먼 욕망의 사슬이 휘감은 가슴 / 머리에 인 저 캄캄한 관 위에 / 눈이 내리고 / 소리쳐 불러도 어머니의 궁은 닫혀 있다 / 갈 곳 없이 갈 길은 먼데 / 밤새워 처세술을 읽고 / 숨겨 둔 칼을 갈고 / 피 흘리는 몸뚱어리 위에 탑을 세우고 / 종로 거리에 울리는 어지러운 발짝소리 속에서 / 그대는 홀로 내던져진 하나의 사물 / 녹색 그늘 아래 한 사나이의 가을이 오고 / 흰 머리칼이 시든 눈빛을 가리고 / 떨리는 손을 들어 고향 길을 가리키지만 / 끝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 긴 그림자를 멈추고 / 무덤 속에 관을 내려 놓고 / 고요히 그대는 누워서 /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 바람이 분다 / 무덤조차 어디론가 떠나서 /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 아무도 그대의 쉰 목소리를 / 기억하지 못한다 <정성수, 비망록을 위하여, 살아남기 위하여, 친우, 1986>

벌레 울음소리가 드높은 밤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 나이 들수록 배운 것을 조금씩 까먹게 마련인데 / 언제나 아는 대로 다 말하는 병(病)만은 버리지 못한다 / 꽃이 지고 새가 우는 까닭조차 헤아릴 수 없어 / 저자거리에 숨어 한 잔 술에 몸을 맡기기도 한다 / 잘난 이름 석 자를 내두르며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 돌아다님은 다만 뜻한 바를 펼쳐 보임이다 / 그때 그 구름 속에 뿌리를 내렸던 난초잎을 기리며 / 벌레 울음소리에 장단을 맞춰보는 밤이 늘었다 <박제천, 정암(靜菴), 달은 즈믄 가람에, 문학세계사, 1984>

*a 저항시(抵抗詩)

요 시인(詩人) / 이제 저항시(抵抗詩)는 / 방해(妨害)로소이다 / 이제 영원히 / 저항시(抵抗詩)는 / 방해(妨害)로소이다 / 저 펄펄 / 내리는 / 눈송이를 보시오 / 저 산(山)허리를 / 돌아서 / 너무나도 좋아서 / 하늘을 / 묶는 / 허리띠모양으로 / 맴을 도는 / 눈송이를 보시오 <김수영, 눈-3-&4&, 김수영 전집, 민음사, 1981>

*a 적멸보궁

적멸보궁을 오르는데 물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 적멸보궁을 내리는데도 물소리는 그러했다. / 물은 마음따라 내려가고 올라가기도 했다. / 무명 한 필 팔은 노자만큼의 이 눈길. <강우식, 적멸보궁, 설연집, 청맥사, 1988>

도선사 길을 오른다 / 큰바위 아래 가쁜 숨쉬고 / 암자 곁 샘에서 물

한 모금 먹고 / 눈 마주쳐도 얼굴색 바꾸지 않는 / 비구니를 뒤에 두고 지상에 그림자 하나 / 떨어뜨리는 일 송구스러워하는 마음을 / 생각한다 적멸보궁이 어디죠? 물으니 / 눈으로 대답한다 어두운 눈빛! / 신발을 벗고 보궁으로 들어가, / 남무아미타불을 곡조를 넣어서 / 읊조리는, 나는, 일어서고 허리굽히는 / 불자들을 넋도 없이 본다 / 내려오는 길 - 북한산 바위들이 꽃처럼 / 피고 냇물 소리 깊은 곳에서 / 어떤 사내가 어두워 소리지른다 <최하림, 날마다 산길 2, 속이 보이는 심연으로, 문학과지성사, 1991>

*a 적성(赤星)

백곰이 울고 북성성(北猩星)이 눈 깜박일 때마다 / 제비 가는 곳 그리워하는 우리네는 / 서로 부둥켜안고 적성(赤星)을 손가락질하며 얼음벌에서 춤추느니, / 모닥불에 비치는 이방인의 새파란 눈알을 보면서 / 북국은 추워라 이 추운 밤에도 / 강녘에는 밀수입 마차의 지나는 소리 들리느니, / 얼음장 깔리는 소리에 쇠방울 소리 잠겨지면서. <김동환, 눈이 내리느니, 국경의 밤, 한성도서, 1924>

*a 적음(寂音)

한 덩이의 마음을 묵(墨)에다 개고 또 개면서 오랫동안 가슴으로 품어온 비쩍 마른 갈필 하나로 / 풀어헤쳐 놓은 / 옛 그림을 보고 있으면 / 어디선가 / 일만개(一萬個)의 꽃송이를 전신에 단 꽃나무들이 한결같이 밤을 이루면서 몰려들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 / 어디선가 / 일만개(一萬個)의 꽃송이를 전신에 단 꽃나무들이 사방에 고요한 암향(暗香)을 끼얹으며 방울을 터뜨리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 / 저마다 고요한 방울소리로 찰랑대다가 어떤 놈은 적음(寂音)속으로 스며들고 어떤 놈은 갈필선(線)의 끝간 곳으로 미끄럼질을 타고 내려간다. /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다. / 마르고 수척한 나뭇가지들이 점점 야위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 그림을 볼 때마다, 수척해가고 야위어가는 그놈들이 / 말라가면서 더 강골(强骨)이 되어 있다는 점이다. / 시(詩)를 쓰는 내게는 이러한 일이 보통이 아니다. <조정권, 심골(心骨), 백지 위에 별빛을, 민족문학사, 1985>

*a 적층

시야를 가리는 / 눈보라의 화사한 적층. <손종호, 수족관 속의 지평, 숨은 신, 현대문학사, 1994>

*a 전등형(全等形)

사람은전등형(全等形)의체조(體操)의기술(技術)을습득(習得)하라, 불연(不然)이라면사람은과거(過去)의나의파편(破片)을여하(如何)히할것인가.
<이상, 선(線)에 관(關)한 각서(覺書) 5, 조선과 건축, 1931. 10>

*a 전령(全靈)

조용하고 늠름한 불빛 아래 / 가족(家族)들이 저마다 떠드는 소리도 / 귀에 거슬리지 않는 것은 / 내가 그들에게 전령(全靈)을 맡긴 탓인가 / 내가 지금 순한 고개를 숙이고 / 온 마음을 다하여 즐기고 있는 서책(書冊)은 / 위대(偉大)한 고대조각(古代彫刻)의 사진(寫眞) <김수영, 나의 가족(家族), 거대한 뿌리, 민음사, 1974>

*a 전별(餞別)

말이 죽었다, 간밤에 / 검고 슬픈 두 눈을 감아 버리고 / 노동의 뼈를 쓰러뜨리고 / 들리지 않는 엠마누엘의 성가(聖歌) 곁으로 / 조용히 그의 생애를 / 운반해 갔다. / 오늘 아침에는 비가 내린다, / 그를 덮은 아마포(亞麻布) 위에 / 하늘에서 슬픈 전별(餞別)이. <이수익, 말&5&, 우울한 샹송, 삼애사, 1969>

*a 전생대(前生代)

몸의 일부들이 / 전남대학(全南大學) 대학병원(大學病院) 로터리 한켠 / 호남의수족관(湖南義手足館) 유리 진열대에 놓여 있다 / 볼트로 관절을 연결한 플라스틱 다리들, 팔뚝들 / 그리고 자잘한 손금이며 퍼런 실핏줄하며 / 분홍빛 손톱의 흰 초승달까지 / 영락없이 '살아 있는' 사람 손 같은 살색 고무손, / 전생대(前生代) 얼음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 저기, 아직도 구멍 흔적이 남은 대학병원 붉은벽돌 앞 / 히말라야 소나무를 가리킨다, 가리키는 듯하다 / 링겔병을 꽂은 채 환자가 소나무 아래 / 휠체어에 앉아 있다 / 아, 아픈 사람만이, 실감(實感)난다, 사람 같다 / 비로소 사람에 가까워지려 저렇게 끙끙거리는 / 푸른 세로줄 무늬 환자복이 휠체어를 밀며 / 히말라야산(山)으로 가고 있는 사이 / 또 금남로(錦南路)에 대학생들이 나타났는지 / 십방(十方)으로부터 길이 방사선으로 들어오는 로터리, / 꽉, 막혀 있다 / 목에 쇠가시가 걸린 듯 / 무쇠 말들이 차선(車線)에서 클랙슨 방귀, 빵빵거리면서 / 헛 시간(時間)을 뀐다 / 하루하루 삶이 그저 일상(日常)이지만 / 삶, 바로 그것이 시간성(時間性)이기 때문에 <황지우, 호남의수족관(湖南義手足館), 게눈 속의 연꽃, 문학과지성사, 1991>

*a 전승무(戰勝舞)

따듸따닷따! 두당등당등! / 번듯번듯 장공(長空) 덮은 작고 큰 기(旗)엔 / 발발마다 정의자(正義字)가 신면목(新面目)이오 / 번쩍번쩍 일광(日光) 가린 길고 짧은 칼 / 끝끝마다 정의신(正義神)이 전승무(戰勝舞)추네 / 말 바르고 이치(理致) 맞고 형세장(形勢壯)하게 / 거침없이 나아가는 우리 군전(軍前)에 / 안 꺾이는 군사(軍士)란 게 누구 있으며 / 안 눌리는 형세(形勢)란 게 어대 있나뇨

<최남선, 대한소년행(大韓少年行), 소년, 1909. 10>

*a 전신배례

긴 날의 불볕을 식히는 / 여름나무들이, / 제 기름에 불 켜는 / 초밤의 밀촉이, / 하늘 아래 수직으로 전신배례를 올릴 때 / 사람들의 고통이 흘러가서 / 바다를 이룰 때 / 고통의 짝을 찾아 / 서로 포옹할 때 <김남조, 어머님의 성서(聖書), 동행, 서문당, 1976>

*a 전진심(前進心)

그 안화(顔華) 볼 때마다 우리 이상(理想)은 / 빛나기 태양(太陽)으로 다투려 하고 / 그 풍신(風神) 대(對)할 때에 우리 전진심(前進心) / 하늘을 꿰뚫도록 높아지노라. <최남선, 태백산(太白山)과 우리, 소년, 1910. 2>

세상(世上)사람이 말큼 다 나불나불한 입술과 산뜻산뜻한 생각과 귀쳐진 눈과 끝들린 수염(鬚髥)을 가지고 분분하게 되고 못될 것을 말하더라도 / 그는 그오 나는 나다! / 나는 그런 요량(料量)이 당초(當初)부터 없음을 다행(多幸)으로 아노라. / 우리의 혈관(血管)으로 돌아 다니는 것은 통장작(通長斫)집 휜 가마물보담도 더 뜨거운 피. / 우리의 흉우(胸宇)에 그득한 것은 한(限) 없는 동력(動力)으로 거칠 것 없이 나가는 기차(汽車)와 같은 전진심(前進心)이로다. / 경영(經營)하고 착수(着手)하고 진행(進行)하다가 실패(失敗)·성공(成功)하고 입신(立身)·살신(殺身)하고 이것이 우리의 생애(生涯)를 결락(結絡)한 사실이로다. / 일이라고 있으면 하리라! / 어여쁜 것 있으면 온 마음을 다 바쳐 상사(相思)하리라. 그가 어여쁘니깐 날로 상사(相思)할 뿐이지, 이루고 못 이룸은 우리의 물을 바도 아니오, 알 바도 아니라. / 잘되면 살고 못되면 죽고, 너를 운명(運命)이라 하더구나, / 그런 것은 내가 알아둘 소용(所用)없어. / 우리는 다만 생각할 뿐 만들 뿐 할 뿐 / 뜨거운 피와 전진심(前進心)이 있기까지는 그러하지 / 아니하려하여도 아니할 수 없어. / 송곳 같은 바늘이 왼몸을 두루두루 찌를지라도 나는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 가시 있는 것이면 장미(薔薇)로만 알지. / 구린내어니 지린내어니 내면 다 마치 한가지로 알겠다. / 차별(差別)이 있기로 얼마 있어. / 뜨거운 국에 맛 알겠느냐, 뜨거운 피는 온갖 차별(差別)의 날을 무디게, 아니라 아주 없이 한다. / 아무것이고 다 좋아. / 하지. / 피는 선동(煽動), 마음은 조세(助勢), 그리하여 두 팔이 들먹들먹 / 가만히 있을 순 없다 / 대(大)한 세계(世界)는 소(小)한 나를 위(爲)하여 있도다. / 열두 번 죽어도 재(才)주 있난 사람은 아니되여. <최남선, 뜨거운 피, 소년, 1910. 2>

*a 전피수갑(全皮手匣)

몸 한구석에 감출 수 없는 고민을 지니고 / 병장 이하의 계급으로 돌아다녀 보라 / 김해에서 화천까지 / 방한복(防寒服) 외피(外皮)에 수통을 달고 / 도처철조망(到處鐵條網) / 개유검문소(皆有檢問所) / 그건 난해한 사랑이다 / 난해한 사랑이다 / 전피수갑(全皮手匣) 낀 손을 내밀면 / 언제부터인가 / 눈보다 더 차가운 눈이 내리고 있다. <황동규, 태평가(太平歌), 평균율 1, 창우사, 1968>

*a 전한목(電桿木)

그네들의 마음은 화장(火葬)터의 새벽과 같이 쓸쓸하고 / 그네들의 생활(生活)은 해수욕장(海水浴場)의 가을처럼 공허(空虛)하여 / 그 마음 그 생활(生活)에서 순간(瞬間)이라도 떠나고저 술을 마신다. / 아편(阿片) 대신으로 죽음 대신으로 알콜을 삼킨다. / 가는 곳마다 양조장(釀造場)이요 골목마다 색주가(色酒家)다 / 카페의 의자(椅子)를 부시고 술잔을 깨뜨리는 사나이가 / 피를 아끼지 않는 조선의 '테로리스트'요, / 파출소(派出所) 문(門) 앞에 오줌을 깔기는 주정(酒酊)꾼이 / 이 땅의 가장 용감(勇敢)한 반역자(反逆者)란 말이냐? / 그렇다면 전한목(電桿木)을 붙안고 통곡(慟哭)하는 친구는 / 이 바닥의 비분(悲憤)을 독차지한 지사(志士)로구나. <심훈, 조선은 술을 먹인다, 그날이 오면, 한성도서주식회사, 1949>

*a 절강공사하다

피라미가 잡히는지 여쭙습니다 / 피라미는 색깔 고와 저녁에만 잡히고 / 사나운 제풀에 몸 던지는 모래 고랑 / 소 몰아 오는 조카 뒤에 노을이 곱습니다 / 아버지 이런 일도 이제 그만입니다 / 돌이샘 큰 키 느티가 초저녁 별들을 거느리고 / 어둠 엷은 속까지 흔들어 줍니다 아버지 / 사는 일 또한 저런가 합니다 / 땅고개 높은 고개 물길이 된다고 / 하늬 못물에 갇힌 논마지기가 살아날는지 궁금합니다 / 밤새 절강공사하는 중기들은 개웅개웅 마을 앞을 지나고 / 그 훤한 불 밑에서 아버지 / 어제는 읍내 아우가 선산 근처를 파서 / 고려장터를 발견했는지 어쩨 그릇이나 숱하게 꺼낸 모양입니다 / 온전한 뚱단지나 가락지를 캐 살림에 보탬이 된다면 / 그 짓도 썩이나 고마운 일입니다 / 세상 어딜 파도 무덤 없는 곳 없다지만 / 선산 근처로는 무슨 난리가 그리 흩어져 / 돌 굴리고 흙을 뒤집으면 창검이 나오는지 모를 노릇입니다 / 아버지 좋은 세상은 어제도 아니었고 오늘도 아닙니다 / 눈에 피눈물 함께 날 때 세상 대명할 거라 말씀 주신 줄 알겠습니다 / 자식 키우기 어렵다 어렵다 해도 / 그저 제 복인가 합니다 / 장롱을 들어내고 방구들 뒤집으면 / 콧속까지 매캐하던 미금냄새처럼 / 때로 슬픔도 풀썩거려 애를 말립니다 / 그런대로 저는 대처에서 여름 겨울로 옷가지나 챙기고 / 비좁은

차나마 수이 타니 이 또한 복이 됩니다 / 접장 노릇도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 세월도 못된 세월이 되어 / 해를 걸러 들리던 이 일도 이제 그만입니다 / 절강공사 끝나고 물이 들기 앞서 한 번 더 오겠습니다 / 산일은 집안 어른들과 시제길에 다시 의논하겠습니다 / 읍내 작은집에 들러 / 돼지비계 몇 점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 아직도 황강 물바닥 피라미 뛰고 / 무당매미만 파랗게 울어제낍니다 / 막걸리 올립니다 / 감읍합니다. <박태일, 피라미가 잡히는지, 가을 악견산, 문학과지성사, 1989>

*a 절두산(切頭山)

여기는 절두산(切頭山) 드높인 성당(聖堂), 낭떠러지 받쳐든 위태로운 난간(欄干)을 기대 선다. 삶과 죽음마저 남의 일처럼 굽어보기에 알맞은 곳. 살아 있는 외로움이 뼈에 사무친다. <김상옥, 화창(和暢)한 날, 묵(墨)을 갈다가, 창작과비평사, 1980>

*a 절록(絶綠)

소나무 잣나무들은 등치마다 태고를 닮은 껍질의 옷을 입고 있다 / 옷 한 벌이면 넉넉히 일생을 견디는 나무들 곁에서 / 사람들만 아침 저녁 옷 벗고 옷 갈아입는다 / 산에 든 자 삭발하고 베 옷 입음은 / 절록(絶綠)을 뜻함이 아니라 뼈를 갈아 끼우지 못하는 육신을 / 냉혹으로 다스리기 위함이다 <이기철, 나무의 옷, 지상에서 부르고 싶은 노래, 문학과지성사, 1993>

*a 절미방순(絶美芳醇)하다

영(靈)의 불꽃은 여전(如前)히 / 맹렬(猛烈)한 기세(氣勢)로 공중(空中)으로 타오른다 / 무슨 원수나 갚으려는 듯이…… / 독사(毒蛇)의 혀 같은 그 혀로 / 옥화병(玉花瓶)을 핥는다. / 병(瓶)속의 피가 기름같이 끓더니 / 봉(封)한 쇠마개가 녹아 흘러내려 / 피에 섞어서 한참 / 바글바글 끓더니 / 보라! / 그— 병구(瓶口)에 무슨 꽃 모양이 / 희미하게 나타난다 / 아아, 절미방순(絶美芳醇)한 / 백합화(百合花) 한 송이 / 우주창조시대(宇宙創造時代)에 / 파라다이스 동산에 피었던 그것 같은—- / 또 보라! / 불꽃의 춤과 탐이 심(深)하면 심(深)할수록 / 그 백합화(百合花)는 / 맹렬(猛烈)하고 아름다운 불꽃의 / 춤과 곡(曲)을 따라 공(空)에 떠 올라서는 / 간 곳 없이 자취 없이 사라지고 / 사라진 자국에서 그 모양 같은 / 다른 백합화(百合花)가 또 피어 오른다. / 불꽃의 가는 노래의 조자(調子)를 따라 / 붓 뚜껑에 / 비눗물 묻혀 불 때에 되는 모양으로 / 수없이 / 피어 오르곤 사라지고 / 사라지곤 피어 오르고…… / 아아, 그리고 또 보라! / 사라져 가는 그— 백합화(百合花) 속에 / 나의 이메지[像]가 / 레테르 같이 몽환(夢幻)처럼 나타난다 / 아아, / 나의 혼(魂)도 의

식(意識)도 꽃속의 나의 이메지로 / 옮겨가는 듯하던 순간(瞬間) / 내가 꽃 속에서 꿈같은 가운데 / 희미하게 아래를 내려다 보니 / 피와 불꽃의 싸움에 / 못 견디던 나의 육괴(肉塊)는 / 흙빛처럼 까맣게 타서 / 그 꽃에 빗겨 누웠다! <오상순, 몽환시(夢幻詩), 공초오상순시선(空超吳相淳詩選), 자유문화사, 1963>

*a 절복(切腹)

갈가마귀 울음 자옥이 잦아가는 / 언 하늘에 / 온통 시퍼런 청죽(靑竹)을 치겠다. / 삭풍이여, 삭풍이여, / 우리를 다시 한 몸으로 묶으라. / 또 한 차례 땅 속 깊은 뿌리들을 출렁이게 하고 / 우리들을 다시 한 뿌리로 묶으라. / 그리고 지상에 홀로 남아 / 칼을 입에 물고 노래하는 가인(歌人)을 / 오래 머물게 하라. / 절복(切腹)의 시대가 온다. / 삽과 망치와 깃대를 / 땅속 깊이 매장하고, 삭풍 앞에 나서 / 입에 문 칼끝을 삼키면서 / 스스로를 증명하는 / 절복(切腹)의 시대가 온다. / 한 뿌리에서 올라온 수천의 잎 / 다 찢겨가고 / 헐벗은 나뭇가지에 언 하늘 빛 뿜을 때 / 언 하늘에다 / 죽(竹)을 치며, 죽(竹)을 치며 / 자신의 발등에다 / 스스로 얼음을 터뜨리며 / 스스로 맨발로 얼음 위를 딛는…… / 스스로 증명하는 이여. / 증명하는 이여. / 절복(切腹)의 시대가 오고 있다. <조정권, 산정묘지(山頂墓地) 5, 산정묘지, 민음사, 1991>

*a 절식(絶息)되다

우리의 생(生)의 씨는 예원(藝園)에서 받아 다시 예원(藝園)으로 돌아가느니 · · · · · / 우리의 절식(絶息)된 설움도 넘치는 웃음도 예원(藝園)에서 예원(藝園)으로……. / 우주(宇宙)는 큰 예원(藝園)이다 / 들으라 사람아! 밤낮에 쉬잖는 그의 창조곡(創造曲)의 하—모니—를! / 너희의 찾는 진실(眞實)한 천국(天國)이 여기 있나니— 그 문(門)을 힘차게 두드려라! <백기만, 예술(藝術), 개벽, 1923>

*a 절원(絶願)

하얗게 눈부신 조약돌에 / 휘감기는 절원(絶願)의 꽃으로 피는 것입니다. <김여정, 편지&3&, 화음, 현대문학사, 1969 >

*a 점등되다

영등포는 / 갈대가 바람에 사각거리는 포구였다. / 오늘은 / 나직한 이자리에서 예감이 / 딸기밭같이 점등되고 있다. / 저쪽 병영의 잔잔한 불빛을 / 지나면 / 여자들의 소리가 흐른다. / 영등포의 밤을 밝히며 누구에겐가 속삭이고 있다. / 아마 남자겠지, / 낮엔 무슨 일을 하고 / 어떻게 지냈는지 몰라도 / 밤에는 대개가 그렇고 그럴 테지, / 공장의 바퀴소리와 / 둔탁한 쇠망치 소리들이 / 어쩌면 검은 달빛 번진 이 지대 지

봉 아래, / 변두리의 저 작은 불빛 속에서도 / 지금은 / 발열하고 있다. / 하루의 노동 다음의 거친 술잔과 / 몸뚱아리로 부딪친 쇠잔한 낡은 기운이 / 제 집을 찾았겠지, / 제 집에서 세신하고 있겠지, / 차츰 여자들의 소리는 높았다 죽어가고 / 마지막 미력도 / 밤을 지새며 웅웅거리는 굉음 속에 빨려 / 적나라한 / 나머지의 잠 속에 침몰한다. / 아, 붉은 아름다움의 도시, / 낮일과 밤일에 젖는 검붉은 대기며 / 흐릿한 달빛 번진 / 영등포의 기질 한가운데에서 / 예감은 어떤 사건을 만나고 싶다, / 군데군데 썩어 문드러져도 / 영등포는 포구! / 무수한 점등을 하다가 망하고 싶다. <정공채, 영등포 기질 3, 땅에 글을 쓰다, 신원문화사, 1990>

*a 점령기(占領旗)

고요로운 바다 나비도 날으잖는 봄날 노오란 공동묘지에 소시랑 곤두세우고 점령기(占領旗) 디밀어 오면 고요로운 바다 나비도 날으잖는 꽃살 이부자리가 예의가 되겠는가 말일세. <신동엽, 기계(機械)야, 시단(詩壇), 1963>

*a 접분(接分)

청(靑)참외 / 속살과 속살의 / 아삼한 접분(接分) / 그 가슴 / 동저고릿바람으로 / 붉은 산(山) / 오내리며 / 돌밭에 / 피던 아지랭이 / 상투잡이 / 머슴들 / 오오, 이제는 / 배나무 / 빈 가지에 / 걸리는 기러기. <박용래, 접분(接分), 먼 바다, 창작과비평사, 1984>

*a 접선자(接線者)

그는 자유롭다 : 그는 외롭다 : 캄캄한 날들과 환한 밤들 사이의 경계(境界)를 그는 알기 때문에, 그 불가능성을 그는 넘나들기 때문에. / 나는 시궁창에 살고 있다. 이 편안한 더러움이여. 전후(戰後)에 / 태어난 후,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았으며, 아무도 사랑해본 적이 없다 / 아무것도, 아무도. / 사랑하는 천적(天敵) : 이상하다, 천적(天敵)에게서 묘한 애정 같은 것이 생기는 것은, / 내 안에 이적(利敵)이 있기 때문이다. 나의 접선자(接線者)여., 1985년 5월 21일 pm 3시, 종로서적 앞으로 나오라(ps :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할 것). 종로1가에서 5가까지의 거리는 전투경찰(戰鬪警察)의 거리다. / 붙들려가 털 깎인 경험의 소유자여, 견뎌라, 모독감을,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살아남기위해서는. / 안심하라. 흰 이 드러내며 파르르르 떨며, / 털 세운 하이에나, 난, / 죽은 고기만 안심하고 탐식하는 이빨들을 위한 살덩어리가 아냐. / 때로는, 유학이나 가버릴까. / 다시 감옥으로 갈까, / 왔다리갔다리하는 내 험악한 무의식(無意識)의 요양소는 어디, 어디 / 식은 팥죽을 담은 내 염통이여. / 다른 것은 다 속여도 시(詩)만은 못 속이겠다. /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관대.

누가 나에게 그것이 무어냐고 물으신다면("사랑이 무어냐고 물으신다면") / 현실에로 열린 나의 시적 통로는 련민이오. / 련민은 두가지가 있소. / 하나는 도덕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자의 그것이요, / 다른 하나는 상처받은 자의 그것이오. / 나의 그것은 나의 상처요. / 라고 답할까? 아냐, 연민은 도덕적 임포야, 혁명의 설사제야 / 미문화원(美文化院)을 점거한 학생들, 자진 해산하고 나오다. / 국민들 크게 안도. / 아이들은 고도(孤島)로 갔다. / 기자놈들, 체제의 합승자들, 그들의 충성심은 / 가면 같이 간다는 위기감이야. / 나의 동시대인들에게는 해태 타이거즈와 광주 사태를 연관 짓는 묵시록적 경향이 있. / 시(詩)는 나에게 성적(性的)이다 : 매혹과 수치심이 함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한 현실의 수태(受胎)이다. / 헛물키지 말고, 낳고 낳아라. / 나의 스승, 유 아무개 아무개는 위대한 무위도식주의자(無爲徒食主義者)이다. / 당신을 숭배합니다 : 너를 죽일거야. / 이중배 보아라. 어서 와서 나를 들것으로 옮겨가다오. / 여기는 막막한 섬이다. / 85 - 05 - 27 / 종로에서 / 똥개로부터 / 날뛰는 나의 정신을 나는 유물론으로 치유한다. / 미치광이병에는 이게 약이요, 극약이다. / 어느 날, 나는 월경(越境)할 것이다. / 어느 날, 나는 만원버스 속에서 늙은 여자에게 자리를 양보했다 : / 그 늙은 여자는 창 밖만 내다볼 뿐, 내 무거운 가방은 받아주지 않는다. 철판이 깔린 가슴.개. 똥. 섭. 걸레. 튀김. 죽일. 다음날 아이 업은 젊은 여자가 내 자리 쪽으로 다가온다. <황지우, 박쥐&3&,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민음사, 1985>

*a 정글도(刀)

내 손에 정글도(刀)만 쥐어진다면 / 자르고 싶은 것은 적(敵)이 아니라 나의 연민이다. / 불란서 튀기 너는 우리 부대의 마스코트였지만 / 가난한 나라의 한 병사가 바라본 너는 / 슬픔이 아니라 미움이었다. <김명인, 베트남 Ⅱ, 동두천, 문학과지성사, 1979>

*a 정념(精念)

그야말로 피빛으로 대추알들이 / 새빨갛게 무르익거들랑 / 그 육신(肉身)과 아울러 / 그 정신(精神)! 그 정념(精念)! <오상순, 대추나무, 공초오상순시집(空超吳相淳詩選), 자유문화사, 1963>

*a 정동일여(靜動一如)

저 두 분의 모습이 다 함께 / 진리의 체현(體現)임에 다를 바 없으니 / 유무상통(有無相通)의 소식이란 바로 / 이런 것이었구나! / 정동일여(靜動一如)의 소식이란 바로 / 이런 것이었구나! <구상, 정(靜)과 동(動), 구상연작시집, 시문학사, 1985>

*a 정막(靜寞)하다

정막(靜寞)한 가운데 / 인광(燐光)처럼 비치는 무수한 눈 / 암흑의 지평은 / 자유에의 경계를 만든다. <박인환, 밤의 노래, 박인환 시선집, 산호장, 1955>

*a 정박(碇泊)되다

나에게 닿기 전(前)엔 / 순진하게 배부르던 바람, / 흰 이빨의 사막(沙漠)을 타고 / 모자(帽子)를 벗으며 / 유유히 시간(時間)을 추수(秋收)하던 / 외눈깔의 바람, / 이윽고 태초(太初)의 말씀은 / 흔들리는 수염이 되고 / 나에게 닿기 전(前)엔 / 女醫師(여의사)의 배처럼 / 하얗던 바람, / 한줄기만이 요도(尿道)를 타고 / 기침을 하고 / 우리는 제왕수술(帝王手術)을 받았지. / 그 때 피흘리던 이야기는 멀어 가고 / 수염은 길어나 / 이제 바람은 / 곤봉(棍棒)일 수도 있고 / 아코디온일 수도 있다. / 입이 많은 우리는 / 아직 정박(碇泊)되지 않은 / 내일치의 바람으로 / 일월(日月)을 길어 올리나 / 드디어 / 가늘게 빛을 꼬다가 / 뼈가 드러나는 달빛에 / 쓰러질 수 밖에. / 쓰러져 / 컴컴한 대질(對質)로 / 서로 고함을 지르며 / 이마엔 철 이른 낙과(落果), / 바람이 닿았을 때 / 우리는 묶이고 있었다. / 3/4박자(拍子)로 죽어가고 있었다. <허소라, 풍경(風景) I &3&, 풍장, 태을출판사, 1968>

*a 정사(征邪)

그대의 발길에 휘감기는 것은 물결이냐, 또한 그리움이냐, / 꿈은 정사(征邪)의 기폭(旗幅)에 싸여 진주(眞珠)인 양 빛난다. <김동명, 진주만(眞珠灣), 진주만, 이대출판부, 1954>

*a 정원(情怨)

청상(靑孀)의 정원(情怨)보담 아픈 가락에 피리는 울고 / 이십오현(二十五絃) 금슬(琴瑟)이 화(和)하는 소리 / 퉁겨지는 줄 위에서 원앙새야 울어라 <조지훈, 고조(古調), 조지훈시선, 정음사, 1956>

*a 정위(淨偉)

금강! 너는 보고 있도다—너의 정위(淨偉)로운 목숨이 엎디어 있는 가슴—중향성 품 속에서 생각의 용솟음에 끄을려 참회하는 벙어리처럼 침묵의 예배만 하는 나를! <이상화, 금강송가(金剛頌歌), 여명, 1925. 9>

*a 정초(定礎)되다

내두통(頭痛)위에신부(新婦)의장갑이정초(定礎)되면서내려앉는다. 써늘한무게때문에내두통(頭痛)이비켜설기력(氣力)도없다. 나는견디면서여왕봉(女王蜂)처럼수동적(受動的)인맵시를꾸며보인다. 나는이왕(已往)이주춧돌밑에서평생(平生)이원한(怨恨)이거니와신부(新婦)의생애(生涯)를침식(浸蝕)하는내음삼(陰森)한손찌거미를불개아미와함께잊어버리지는않는다. 그래서신부(新婦)는그날그날까무러치거나웅봉(雄蜂)처럼죽고죽고한다. 두통

(頭痛)은영원(永遠)히비켜서는수가없다. <이상, 생애(生涯), 조선일보, 1936. 10. 8>

*a 정향(精香)

마취(痲醉)와 비장(悲壯) 통열(痛悅)과 광희(狂喜) / 침정(沈靜)과 냉소(冷笑) 환각(幻覺)과 독존(獨尊)의 / 당신의 나라 / 구름과 물결 백작(白灼)과 정향(精香)의 / 그리고도 오히려 극야(極夜)의 새벽빛이 출렁거리는 당신의 나라를 / 오 님이여! 나는 믿습니다. <김동명, 당신이 만약 내게 문을 열어 주시면, 개벽, 1923>

*a 정화(淨和)하다

너의 어머니의 낡은 이름도 벌써 젊어져 / 대동아해(大東亞海)의 정화(淨和)한 물결은 태양(太陽)을 맞았노라 / 아아 사랑스러운 소남(昭南)의 처녀도(處女島)야 / 너도 또한 아름다운 아세아(亞細亞)의 딸로야 되었구나 / 시집갈 날의 고운 꿈은 동양평화(東洋平和)의 꽃이 되어라 <김용제, 정열(情熱)의 처녀도(處女島), 조광, 1942. 3>

*a 제금사(提琴師)

젊은 제금사(提琴師)들의 제금(提琴) 위에 / G선(線) 위에 / 수많은 요정(妖精)들이 / 단거리(短距離) 코—스를 달리고 있다. <장서언, 음악당(音樂堂), 장서언시집, 신구문화사, 1959>

*a 제물배

내가 엄매 등에 업혀 가서 상사말같이 항약에 야기를 쓰면 한창 피는 함박꽃을 밑가지째 꺾어 주고 종대에 달린 제물배도 가지째 쪄 주고 그리고 그 애끼는 게사니 알도 두 손에 쥐어 주곤 하는데 <백석, 넘언집 범 같은 노큰마니, 문장, 1939. 4>

*a 제비손이구손이

저녁술을 놓은 아이들은 외양간섶 밭마당에 달린 배나무 동산에서 쥐잡이를 하고 숨굴막질을 하고 꼬리잡이를 하고 가마 타고 시집가는 놀음 말 타고 장가가는 놀음을 하고 이렇게 밤이 어둡도록 북적하니 논다 / 밤이 깊어가는 집안엔 엄매는 엄매들끼리 아르간에서들 웃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웃간 한 방을 잡고 조아질하고 쌈방이 굴리고 바리깨돌림하고 호박떼기하고 제비손이구손이하고 이렇게 화디의 사기방등에 심지를 몇 번이나 돋구고 홍게닭이 몇 번이나 울어서 졸음이 오면 아릇목 싸움 자리 싸움을 하며 히드득거리다가 잠이 든다 그래서는 문창에 텅납새의 그림자가 치는 아침 시누이 동세들이 욱적하니 흥성거리는 부엌으론 샛문틈으로 장지문틈으로 무이징게국을 끓이는 맛있는 내음새가 올라오도록 잔다 <백석, 여우난골족(族), 사슴, (자가본), 1936>

*a 제촉(祭燭)

아아 수풀의 스치는 바람은 뉘 한숨이며 / 여울에 우는 강(江)은 누구의 추도(追悼)인가 / 낮별과 밤달의 번가는 제촉(祭燭) / 창공(蒼空)의 상여개(喪輿盖)는 영원(永遠)히 떠 있어라. <조명희, 나그네의 길, 봄 잔디밭 위에, 춘추각, 1924>

*a 조고상금(弔古傷今)

임오년(壬午年) 이른봄 내 불현듯 서라벌(徐羅伐)이 그리워 표연(飄然)히 경주(慶州)에 오니 복사꽃 대숲에 철아닌 봄눈이 뿌리는 4월일레라. 보름동안을 옛터에 두루 놀 제 계림(鷄林)에서 이 한 수(首)를 얻으니 대개 마의태자(麻衣太子)의 혼(魂)으로 더불어 같은 운(韻)을 밟음이라. 조고상금(弔古傷今)의 하염없는 탄식(歎息)일진저! <조지훈, 계림애창(鷄林哀唱), 조지훈시선, 정음사, 1956>

*a 조등(弔燈)

큰일이 나긴 난 모양이야 저 연기 / 바람 따라 퍼질 때마다 / 눈발이 땅에서 하늘로 솟아오르네 / 설악 대폭설 때처럼 저 나방떼 / 흩어지는 저 나방떼 / 모든 아카시아들 하나씩 매단 / 조등(弔燈) 아래로 달려드는 저 나방떼 / 먹으러 달려드는 저 새떼 먹으러 / 하늘 검게 칠하며 돌처럼 달려드는 / 저 자동차떼 / 막혔다 터져 흐르는 <김혜순, 사월 초파일, 나의 우파니샤드,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4>

*a 조수어별(鳥獸魚鼈)

대(對)하여 말할 뉘 없고 조수어별(鳥獸魚鼈) 다 자는 밤에 / 강월(江月) 강풍(江風)이 빈 하늘에 깨어 있어 / 한(恨) 품은 나그네 하나 지나감을 보더라 <이은상, 임진강(臨津江)을 지나며, 노산시조집(鷺山時調集), 한성도서주식회사, 1932>

*a 조아질하다

저녁술을 놓은 아이들은 외양간섶 발마당에 달린 배나무 동산에서 쥐잡이를 하고 숨굴막질을 하고 꼬리잡이를 하고 가마 타고 시집가는 놀음 말 타고 장가가는 놀음을 하고 이렇게 밤이 어둡도록 북적하니 논다 / 밤이 깊어가는 집안엔 엄매는 엄매들끼리 아르간에서들 웃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웃간 한 방을 잡고 조아질하고 쌈방이 굴리고 바리깨돌림하고 호박떼기하고 제비손이구손이하고 이렇게 화디의 사기방등에 심지를 몇 번이나 돋구고 홍게닭이 몇 번이나 울어서 졸음이 오면 아릇목 싸움 자리 싸움을 하며 히드득거리다가 잠이 든다 그래서는 문창에 텅납새의 그림자가 치는 아침 시누이 동세들이 욱적하니 홍성거리는 부엌으론 샛문틈으로 장지문틈으로 무이징게국을 끓이는 맛있는 내음새가 올라오도록 잔다 <백석, 여우난골족(族), 사슴, (자가

본), 1936>

*a 조앙님

나는 이 마을에 태어나기가 잘못이다 / 마을은 맨천 구신이 돼서 / 나는 무서워 오력을 펼 수 없다 / 저 방안에는 성주님 / 나는 성주님이 무서워 토방으로 나오면 토방에는 디운 구신 / 나는 무서워 부엌으로 들어가면 부엌에는 부뚜막에 조앙님 / 나는 뛰쳐 나와 얼른 고방으로 숨어 버리면 고방에는 또 시렁에 제석님 / 나는 이번에는 굴통 모퉁이로 달아가는데 굴통에는 굴대장군 / 얼흔이 나서 뒤울안으로 가면 뒤울안에는 곱새녕 아래 털능구신 / 나는 이제는 할 수 없이 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 대문간에는 근력 세인 수문장 / 나는 겨우 대문을 뻬쳐나 바깥으로 나와서 / 밭 마당귀 연자간 앞을 지나가는데 연자간에는 또 연자당구신 / 나는 고만 기겁을 하여 큰 행길로 나서서 / 마음 놓고 화리서리 걸어가다 보니 / 아아 말마라 내 발뒤축에는 오나 가나 묻어다니는 달걀구신 / 마을은 온데간데 구신이 돼서 나는 아무데도 갈 수 없다 <백석, 마을은 맨천 구신이 돼서, 신세대, 1948. 5>

*a 조연자(助演者)

공동우물이 있는 어느 골목에서 / 아낙네들은 서로의 하루를 휘갑하는 / 저녁 보리쌀의 피부를 주무르며 / 상기 돌아오지 않는 권속들의 / 피곤에 겨운 얼굴들을 기다리는 시간에 / 새들은 저마다의 집 언저리를 돌면서 / 어제 이 골목을 온통 난장판으로 휘몰던 / 그 엿장수의 익살을 기다리고 있었다. / 참 어처구니없는 사람들의 기교(技巧) / 그것은 모순이다. / 그럴 줄 알았더면 나도 술이나 한 잔 할 것을 / 하필 그 엿장수만 취했고 / 둘레의 그 많은 사람들은 맹맹한 생정신이란 말이야 / 연극은 우리들의 눈에서 막이 오르고 / 엿장수의 가위소리와 함께 모두는 / 하루의 종점에 충실한 조연자(助演者)가 된다. / —자아 한잔 한김에 까짓것 싸게 드려요…… / 저만큼 저녁 노을은 불꽃처럼 피어오르는데. <황명, 풍경초(風景抄), 날아라 아침의 새들이여, 예전사, 1985>

*a 조원(肇源)

사람도 육축(六畜)같이 슬픈 진눈까비만 / 그지없이 내리는 이 먼 조원(肇源)의 거리는 / 절도(絶島)인 양 한 자욱도 나갈 데 없고 / 호올로 사회교육관의 초옥(草屋)으로 찾아오니 / 녹슬은 난로 연료의 고량(高粱)대만 삭막(索漠)히 쌓여 있고 / 도리만성(桃李滿城)의 족자 하나 바람벽에 걸렸나니 / 아지랑이 저물은 먼 봄하늘 아래 / 꿈인 양 적적(寂寂)히 떠오른 그 도원성(桃源城) 아래 와서 / 나는 우러러 가장 남루한 나그네였다 <유치환, 곽이라사후기행(郭爾羅斯後紀行), 생명의 서, 행문사, 1947>

*a 조이발

그 늙은인 / 암소 따라 조이밭 저쪽에 사라지고 / 어느 길손이 밥 지은 자췬지 / 끄슬은 돌 두어 개 시름겨웁다 <이용악, 강가, 오랑캐꽃, 아문각, 1947>

*a 조포미(粗暴美)

저것 보세요. 붉은 소나무 뚝뚝 찍어 우달북달 묶어 놓은 참외막이 제법 조포미(粗暴美)를 자랑하며 저 산등 위에 가서 있습니다그려! / 가지나무의 자색 열매와, 타원형의 푸른 호박과, 산딸기 붉은 열매들이 또한 새벽의 맑은 들을 장식하여 놓기를 잊었겠지요? <김현승, 새벽은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1934. 5>

*a 조형(彫型)

강렬한 조형(彫型)이 내 뼈에 속삭인다 / 밤에도 열려 있는 집이, / 주황색으로 물드는 / 채광창(採光窓)의 밤이, / 삼층방에서 개스불이 꺼진다 / 안개 낀 늦가을의 만월(滿月) / 창 뒤에서 / 손등이 먼저 젖는다 <황동규, 외지(外地)에서 1, 평균율 1, 창우사, 1968>

*a 종려수(棕櫚樹)

한 손으로 / 늙은 종려수(棕櫚樹)를 휘잡노니 / 종려수(棕櫚樹)! / 너도 고향(故鄕)이 그리울 게다. <오일도, 지하실(地下室)의 달, 출전 미상 / 연도 미상>

*a 종신감(終身監)

서재(書齋)는 이 죄수(罪囚)의 종신감(終身監) / 붓과 종이를 주며 / 이몸을 매질 하누나 <이하윤, 비운(悲運), 물레방아, 청색지사, 1939>

*a 종신서언(終身誓言)

나는 비탈산, 거친 들판을 헤매면서 / 썩은 고기와 죽은 벌레로 배를 채우며 / 종신서언(終身誓言)의 고행수도(苦行修道)를 하는 새다. <구상, 까마귀, 까마귀, 홍익사, 1981>

*a 종아지물본

집에는 아배에 삼촌에 오마니에 오마니가 있어서 젖먹이를 마을 청능그늘 밑에 삿갓을 씌워 한종일내 뉘어 두고 김을 매러 다녔고 아이들이 큰마누래에 작은마누래에 제구실을 할 때면 종아지물본도 모르고 행길에 아이 송장이 거적때기에 말려 나가면 속으로 얼마나 부러워하였고 그리고 끼때에는 부뚜막에 바가지를 아이들 수대로 주룬히 늘어 놓고 밥한 덩이 질게 한 술 들여뜨려서는 먹였다는 소리를 언제나 두고 두고 하는데 <백석, 넘언집 범 같은 노큰마니, 문장, 1939. 4>

*a 종파심(宗派心)

"너의 적(敵)을 사랑하라" / 그 그

리스도의 말씀야 지극하지만 / “가장 무서운 미움은 종교적 미움” / 그런 종파심(宗派心)은 무어라 할 슬픔인고 <김용제, 그리움&3&, 산무정(山無情), 대신문화사, 1956>

*a 쥔두기송편

내일같이 명절날인 밤은 부엌에 쩨듯하니 불이 밝고 솥뚜껑이 놀으며 구수한 내음새 곰국이 무르끓고 방안에서는 일가집 할머니가 와서 마을의 소문을 펴며 조개송편에 달송편에 쥔두기송편에 떡을 빚는 곁에서 나는 밤소 팥소 설탕 든 콩가루소를 먹으며 설탕 든 콩가루소가 가장 맛있다고 생각한다 / 나는 얼마나 반죽을 주무르며 흰가루 손이 되어 떡을 빚고 싶은지 모른다 <백석, 고야(古夜), 사슴, (자가본), 1936>

*a 주물하다

나는 여름을 돌리는 바퀴 속에서 / 산을 짓고 안개숲을 주물해내는, / 아니다, 피로와 임금(賃金)과 밤길을 / 절삭해내는 공장을 보았다 / 나 자신까지도 나의 피까지도 / 생산하는 체계를 / 내 밥과 내 아들들을 포장하는 시간표를 <한기찬, 나는 여름을 돌리는 바퀴 속에서, 나무오르기, 현암사, 1986>

*a 주박(呪縛)

넘실거리는 불길의 파도(波濤)! / 타오르는 불길의 산악(山嶽) 속에서 / 이 강토(疆土)와 겨레의 / 모든 주박(呪縛)이 스러지고 / 모든 속박(束縛)이 풀린다. / 오오 타라, 타오르라. / 한 달도 석 달도 타오르라. / 그리고 모든 것이 연기와 재로 사라진 뒤, / 피비린내 나는 음산(陰散)마저 가시고 난 뒤, / 화장장(火葬場)의 고요와 산모(産母)의 해방감(解放感) 속에서 / 출현(出現)하는 신영토(新領土)! / 상흔(傷痕)을 아물리는 새살처럼 / 강단(强斷)된 남북(南北)을 합쳐놓은 원야(原野)! <구상, 화전민(火田民)의 꿈, 구상연작시집, 시문학사, 1985>

*a 주월(晝月)

아쉬운 아쉬운 주월(晝月)이 어울린 / 긴 포구(浦口)는 밀물로 소리 곱고 / 더 곱게 낙조(落照)로 희한하게 물든다. / 이 언덕에서 천막(天幕)을 헐어 그네, 여름봇짐을 싸 짊어질 때 / 희랍(希臘)의 그 아양을 본뜬 계집들 / 반허리에 휘감은 엷은 옷을 추키며 / 거리에서 숨어들고 / 이날도 / 천기예보(天氣豫報), 흰 깃발은 멀리 나부낀다. / (내 사랑하는 숲과 들로 돌아가보면) / 뉘엿이 해 저물어 / 두 가슴으로 새어드는 바람 / 수만 줄기 높낮은 벌레울음 / 수풀과 덩굴에 사모치고 / 어디 갔던 고양이 집으로 기어들 때 / 할머니는 / 널어 말린 뽕잎담배를 치맛자락으로 거둬들인다. / 소수레는 천천히 / 두 바퀴에 이가는 여름 저녁을 감으며 감으며 / 먼 뒷골에서 예돌아든다. /

젊은이는 끌단에 비껴앉아 / 소방울에 고요히 / 장단을 놓으며 / 언덕길을 굽이돌 제 / 품앗이 베아리꾼 젊은 주인(主人)을 맞이하는 / 삽사리는 싸리문 밖으로 내달으며 짖나니 / 오 이러할 때 / 남묘(南畝)에 할아버지도 원두막에서 내려온다. <설정식, 여름이 가나보다, 동광, 1932. 10>

*a 주음(呪音)

백(百) 번 통곡한 자유(自由)의 슬픔에 장송이 되어도 / 칠야(漆夜)를 지켜 새우는 너 인(燐)빛 눈망울과 / 각고(刻苦)의 주음(呪音) 앞에 할 말이 없다. <설창수, 시계(時計)&4&, 개폐교, 백양당, 1950>

*a 주훈(酒薰)

이제 다감한 여인(女人)의 살내음 같은 / 이 방향(芳香)한 주훈(酒薰)에 / 홍그러이 잠기는 시간 / 일몰(日沒)이 우리의 머리 위에 / 종일(終日)의 피곤을 씻어 주는 해풍(海風)처럼 / 싱그러우니 <홍윤숙, 포도주(葡萄酒) 익어, 풍차, 신흥출판사, 1964>

*a 죽두화

호주(濠洲) 선교사(宣敎師)네 집에는 / 호주(濠洲)에서 가지고 온 해와 바람이 / 따로 또 있었다. / 탱자나무울 사이로 / 겨울에 죽두화가 피어 있었다. / 주(主)님 생일(生日)날 밤에는 / 눈이 내리고 / 내 눈썹과 눈썹 사이 보이지 않는 하늘을 / 나비가 날고 있었다. / 한 마리 두 마리, <김춘수, 처용단장(處容斷章) 제1부(第一部), 타령조(打令調)·기타(其他), 문화출판사, 1969>

*a 죽엄나무[死木]

거미줄 엉키운 / 검은 죽엄나무[死木]에 걸다. <박종화, 내 추(醜)한 넋은, 흑방비곡(黑房秘曲), 조선도서주식회사, 1924>

*a 준천재(準天才)

너의 파아란 눈으로 저 우람한 하늘을 우러르면 너는 금시 한 그루 관목(灌木). 어이없이 밀리는 강물의 저류(低流)에 너는 한 알의 모래로 있을지도 모른다.저러히도 산이, 들이, 강이 말이 없는 것은 그 오래고도 숱한 내력들을 상기 정리하지 못한 채,준천재(準天才)로 남아있기 때문. 진정 산다는 것 너와 나의 가슴에 응어리진 긴 시간에의 순례(巡禮). <황명, 각서(覺書)&2&, 날아라 아침의 새들이여, 예전사, 1985>

*a 줄광대

그리운 사람들 모두 눈을 감고 / 듣고 싶은 사람들 모두 귀를 막는다. / 오 우리들 세상 이 우스개 한판 놀이 / 줄광대로 쳐다볼 때마다 우리나라 보물하늘 / 내려다보면 입벌린 바보땅! <이성부, 굿을 보면서 1, 빈 산 뒤에 두고, 풀빛, 1989>

*a 중고대(中古代)

중고대(中古代)의 사슴은 / 뿔 위에 뿔이 자라 / 근지러운 뿔을 마주 부비며 / 끝내는 생사를 걸고 결판을 내고 / 모든 뿔이 부러져, 다시 / 그 태반이 절멸하였습니다. <박남수, 사슴의 관(冠), 사슴의 관(冠), 문학세계사, 1981>

*a 중도보수주의

하늘에 칼을 대는 산바람 속에서 긴 긴 봄날, 띵까띵까 / 서울의 백성들은 가무를 즐기고 / 쓸쓸히 목을 꺾은 젊은이의 무덤에 / 넋을 달래는 진혼제가 올려진 후 / 나는 생각하네, 친구여 / 한 나라의 자유를 위한 죽음은 / 선택이 아니라 복종이기에 / 간을 적셔 쓴 몇 줄의 시로는 나 / 구원받지 못하리라 예감하네 / 더운 목숨의 외로움 탓으로 / 칼이 되지 못하는 우리들의 언어와 / 끈질긴 목숨의 죄 때문에 / 훼절로 부지하는 당대의 문화가 / 어느 날 꽃이 피긴 피리라는 중도보수주의는 / 필경 무덤까지 따라와 / 수세대에 이어질 쇠사슬로 덮일 것이네 / 오 우리들의 광장엔 광대들뿐이고 / 누군가의 빈손이 허공을 휘젓네 <고정희, 프라하의 봄 1, 이 시대의 아벨, 문학과지성사, 1983>

*a 중앙어

이 탁자를 보십시오. 흰줄로 그어진 중앙선에 박혀 있는 UN기와 / 붉은 깃발이 조금씩 높아지며 펄럭이는 것을 — 이 선을 / 연장해 나가면 똑바로 휴전선이 되는 게지요? 그럼, 이 집을 설계할 때 / 이 중앙선만는 신성불가침의 절대적인 사명감으로 단 0.1mm의 오차도 / 없이 완벽한 설계를 했다 이 말 아입니꺼. 오, 언제나 즐거운 나의 손님 / 커다란 딸기코를 흔들며 오 땡큐 하면 언제나 저쪽도 쎄쎄 이렇다 / 아입니꺼. 팔에 빨간 완장을 두른 쪽은 언제나 북쪽 강냉이 수염들이구 / 넥타이를 풀며 카메라를 들이대는 쪽은 언제나 이쪽 아이들 아입니꺼. / 아 지금 ××차 무슨 정전위원회가 시작되나 봅니다. 무쇠 테이블이 / 셋, 무쇠 스프링 의자가 똑같이 중앙선을 마주보며 한쪽씩이 / 여섯, 이 탁자 위에 올려진 유일 품목, 오늘 글쎄 어떤 상품이 / 진열될지요. 납북어부? 무차별 사격? 다단추식의 지뢰? 아웅산 사건으로 인한 / 테러근성? 인도주의 교습? 88 올림픽 교류? 우리 솔직히 터놓고 합시다. / 그래, 그 말버릇 여전하시구레. 뭐라구? 갓댐! (죄없는 무쇠탁자 흔들흔들) / 두 개의 판자문 열고 닫고. 남문과 북문. 허 이거 왜 이래? 노동자 농민들 피땀 빨아 이젠 / 낯가죽이 뻔뻔해졌다 이거 아입니꺼? 만나자마나 / 또 공세로군! 공세? 디게 무서워하네. / 정초부터 떨긴? 그 성깔 여전하시다레. / 담배 피기라요. 담배 피기라요. 개성시 남단, 문화회관이 섰던 자리 / 아니, 문화회관의 변소, 우리 지금

앉아 있는 이 자리 / 그 변소간이란 것, 동무나들 알기나 하갔수레. 이 똥자리를 깔구서라도 / 우리에게 필요한 건 까꾸로든 옳게든 통일이우다. 아, 우리들의 즐거운 집짓기놀이. / 저는예, 이 문을 자유로이 남문으로 빠지려다 영웅적으로 / 귀쌈을 맞을 뻔한 적도 있지만예, 지금은 철이 들어 / 노크(에취! 이게 부르조아 무슨 냄샌데?)도 할 줄 알고 / 급하면 우리 중앙어로 '탕! 탕!' 두 번, 이렇게. 그러나 익숙해진 게 아니라예. / 팔에 완장을 두르고 사타구니에 개짐을 처박고 피양에서 / 내려오는 날은 아침부터 동무들에게 시집 간 것처럼 괜히 / 기분이 좋아라예. 뭐라꼬? 퇴폐적이라꼬예? 이래봬도 / 내 처녀성은 우리 아바이 동무나도 알고 있다는 것 / 이거이 동무나들 알기나 하갔수레. <송수권, 우리들의 즐거운 집짓기 놀이, 아도, 창작과비평사, 1985>

*a 중향(衆香)

그 밤 가득한 산(山) 정기는 기척 없이 솟은 하얀 달빛에 모두 쓸리우고 / 한낮을 향미로우라 울리던 시냇물 소리마저 멀고 그윽하여 / 중향(衆香)의 맑은 돌에 맺은 금이슬 구을러 흐르듯 / 아담한 꿈 하나 여승의 호젓한 품을 애끊이 사라졌느니 <김영랑, 불지암(佛地庵), 영랑시집, 시문학사, 1935>

*a 중화당(中和堂)

선인교(仙人橋) 나린 물은 예같이 흐르는데 / 중화당(中和堂) 삼한국로(三韓國老) 그들은 어디 간고 / 자하곡(紫霞曲) 남은 장단(長短)만 추풍(秋風) 속에 들었더라 <이은상, 자하동(紫霞洞), 노산시조집(鷺山時調集), 한성도서주식회사, 1932>

*a 즈로오스

유치장(留置場)에서 즈로오스의 끈마저 빼앗긴 양가(良家)집 규수(閨秀)는 한 자루 가위를 경관(警官)에게 요구(要求)했다 / ―저는 무기(武器)를 생산(生産)하는 거예요 / 이윽고 자라나는 규수(閨秀)의 단발(斷髮)한 모발(毛髮) / 신(神)은 사람에게 자살(自殺)을 암시(暗示)하고 있다…… 고 독두옹(禿頭翁)이여 생각지 않습니까? / 나의 눈은 둘 있는데 별은 하나밖에 없다 폐허(廢墟)에 선 눈물 ―눈물마저 하오(下午)의 것인가 불행(不幸)한 나무들과 함께 나는 우두커니 서 있다 <이상, 작품(作品) 제3번, 조선중앙일보, 1934. 7. 25>

*a 즌데

태어날 때부터 쉬임 없이 걸어온 운명, / 즌데만 딛고 온 고단한 발길 따라 / 캄캄한 어둠도 밟고 가고 / 끝없이 펼쳐진 노동의 아침, / 타오르는 불길도 밟고 간다. <문병란, 고무신, 죽순밭에서, 인학사, 1977>

*a 즘부러지다

백구둔(白狗屯)의 눈 녹이는 밭 가운데 땅 풀리는 밭 가운데 / 촌부자 노왕(老王)하고 같이 서서 / 밭최뚝에 즘부러진 땅버들의 버들개지 피어나는 데서 / 별은 장글장글 따사롭고 바람은 솔솔 보드라운데 / 나는 땅임자 노왕(老王)한테 석상디기 밭을 얻는다 <백석, 귀농(歸農), 조광, 1941. 4>

*a 증유자(贈遺者)

한쪽 날개 부서진 장난감 비행기(飛行機) 한 채는 / 주책없는 칭찬(稱讚)말 몇 마디에 / 일약(一躍) 하늘같이 나르려는 철없는 '일류대가(一流大家)'에게 / 특(特)히 물려주노라 오직 그대에게만 / 이것이라도 타고 어서 날아 보게 / 단(但) 우유산품(右遺産品)의 기계성능(機械性能)에 대(對)한 책임(責任)은 일절(一切) 증유자(贈遺者)에게 무(無)함 <권환, 유언장, 동결, 건설출판사, 1946>

*a 증화(蒸化)

내 앞을 유연(悠然)히 흐르는 / 강물을 바라보며 / 증화(蒸化)를 거듭한 윤회(輪廻)의 강이 / 인업(因業)의 허물을 벗은 나와 / 현존(現存)으로 이곳에 다시 만날 / 그날을 생각는다네. <구상, 강(江)&5&, 구상연작시집, 시문학사, 1985>

*a 지게굳게

촌에서 온 아이여 / 촌에서 어젯밤에 승합자동차를 타고 온 아이여 / 이렇게 추운데 웃동에 무슨 두룽이 같은 것을 하나 걸치고 아랫도리는 쪽 발가벗은 아이여 / 뺄다구에는 징기징기 앙광이를 그리고 머리칼이 노란 아이여 / 힘을 쓸려고 벌써부터 두 다리가 푸둥푸둥하니 살이 찐 아이여 / 너는 오늘 아침 무엇에 놀라서 우는구나 / 분명코 무슨 거짓되고 쓸데없는 것에 놀라서 / 그것이 네 맑고 참된 마음에 분해서 우는구나 / 이 집에 있는 다른 많은 아이들이 / 모두들 욕심 사납게 지게굳게 일부러 청을 돋혀서 / 어린 아이들치고는 너무나 큰소리로 너무나 튀겁 많은 소리로 울어 대는데 / 너만은 타고난 그 외마디 소리로 스스로웁게 삼가면서 우는구나 / 네 소리는 조금 썩심하니 쉬인 듯도 하다 / 네 소리에 내 마음은 반끗이 밝아오고 또 호끈히 더워 오고 그리고 즐거워 온다 / 나는 너를 껴안아 올려서 네 머리를 쓰다듬고 힘껏 네 작은 손을 쥐고 흔들고 싶다 / 네 소리에 나는 촌 농삿집의 저녁을 짓는 때 / 나주볕이 가득 드리운 밝은 방안에 혼자 앉아서 / 실감기며 버선짝을 가지고 쓰렁쓰렁 노는 아이를 생각한다 / 또 여름날 낮 기운 때 어른들이 모두 벌에 나가고 텅 비인 집 토방에서 / 햇강아지의 쌀랑대는 성화를 받아 가며 닭의 똥을 주워 먹는 아이를 생각한다 / 촌에서 와서 오늘 아침 무엇이 분해서 우는 아이여 / 너는 분명히 하늘이 사랑하는 시인이나 농사꾼이 될 것

이로다 <백석, 촌에서 온 아이, 문장, 1941>

*a 지락(地落)

어느 짬 우주의 윤회에서 생긴 지락(地落)이 / 오오랜 햇살과 비바람을 겪고 / 스스로 한 풍모를 갖추었나니 <유치환, 단애(斷崖), 청마시초, 문성사, 1939>

*a 지박령(地縛靈)

지붕이 모든 것을 가리워 준다는 듯 / 열심히 수음하는 내 친구놈도 보였다. / 그는 지박령(地縛靈)의 사진을 보여 주며 / 죽음은 자유로운 세계라며 / 단 자유는 지상의 개념임을 강조했다. <손종호, 심령학자 K씨의 집, 숨은 신, 현대문학사, 1994>

*a 지순무구(至純無垢)

보아라 / 지순무구(至純無垢) / 나무들의 사랑을 보아라 / 머잖아 잎은 떨어지고 / 가지는 남게 될 일을 / 이들은 알고 있어 / 알고 있는 깊이만큼 / 사랑하고 있어 <김남조, 나무들 -2-, 빛과 고요, 서문당, 1982>

*a 지순무구(至純無垢)하다

지순무구(至純無垢)한 / 성처녀(聖處女)의 살. <허영자, 복숭아, 어여쁨이야 어찌 꽃뿐이랴, 범우사, 1977>

*a 지장미륵(地藏彌勒)

금강! 오늘의 역사가 보인 바와 같이 조선이 죽었고 석가가 죽었고 지장미륵(地藏彌勒) 모든 보살이 죽었다. 그러나 우주 생성의 노정을 밟노라—때로 변화되는 이 과도 현상을 보고 묵은 그 시절의 조선의 얼굴을 찾을 수 없어 조선이란 그 생성 전체가 죽고 말았다—어리석은 말을 못하리라. 없어진 것이란 다만 묵은 조선이 죽었고 묵은 조선의 사람이 죽었고 묵은 네 목숨에서 곁방살이 하던 인도의 모든 신상이 죽었을 따름이다. 항구한 청춘—무한의 자유—조선의 생명이 종합된 너의 존재는 영원한 자연과 미래의 조선과 함께 길이 누릴 것이다. <이상화, 금강송가(金剛頌歌), 여명, 1925. 9>

*a 지정대순(至精大醇)

송곳? 화저(火箸)? 필통(筆筒)의 붓? / 영광(榮光)의 첨탑(尖塔)? / 피뢰침(避雷針)? 기(旗)ㅅ대? 전간목(電桿木)? / 온갖 아름다운 용(勇)이 한데로 뭉크가어 된 조선(朝鮮) 남아(男兒)의 지정대순(至精大醇)의 큰 팔뚝! <최남선, 태백산부(太白山賦), 소년, 1910. 2>

*a 진객(塵客)

물 아래 저 용낭(龍娘)아 옥(玉)저 부는 님 데리고 / 달 밝은 이런 밤에 나와 논들 어떠하리 / 아마도 진

객(塵客)을 끄는가 하여 돌아갈까 하노라 <이은상, 박연(朴淵), 노산시조집(鷺山時調集), 한성도서주식회사, 1932>

바위벽(壁) 돌아드니 한마당 백사(白沙)로다 / 거니는 이 발자옥 물이 밀면 쓸리려니 / 진객(塵客)에 더러힌 자취 남겨 무삼하리오 <이은상, 삼개에서, 노산시조집(鷺山時調集), 한성도서주식회사, 1932>

*a 진상항아리

섣달에 냅일날이 들어서 냅일날 밤에 눈이 오면 이 밤엔 쎄하얀 할미귀신의 눈귀신도 냅일눈을 받노라 못 난다는 말을 든든히 여기며 엄매와 나는 앙궁 위에 떡돌 위에 곱새담 위에 함지에 버치며 대냥푼을 놓고 치성이나 드리듯이 정한 마음으로 냅일눈 약눈을 받는다 / 이 눈세기물을 냅일물이라고 제주병에 진상항아리에 채워 두고는 해를 묵혀 가며 고뿔이 와도 배앓이를 해도 갑피기를 앓아도 먹을 물이다 <백석, 고야(古夜), 사슴, (자가본), 1936>

*a 진선미성(眞善美聖)

어깨춤 절로 나고 노래 제절로 / 아득한 아리랑재 넘겨주는 듯 / 거문고 가야금줄 타지 않건만 / 용궁월궁악사(龍宮月宮樂師)들 반주(伴奏)하누나 / 그윽고 신비(神秘)할사 흙그릇 조화(造化) / 진선미성(眞善美聖)의 향연(饗宴) 천래(天來)의 소식(消息) <오상순, 항아리&5&, 공초오상순시선(空超吳相淳詩選), 자유문화사, 1963>

*a 진운(進運)하다

평면적(平面的)으로 흐르는 으젓한 계곡물 / 쉼없이 가고 또 가며 / 바다의 지령(指令)대로 움직이는가! / 나무 뿌리에서 옆으로 숨어서 냇가에 이르고, / 냇가에서 아래로만 진운(進運)하는 물이여 <천상병, 계곡물, 주막에서, 민음사, 1979>

*a 진청미(眞淸味)하다

이 빗물은 바위와 바위틈 사이로 / 흘러가는 이 물덩이는 진청미(眞淸味)한 소질액(素質液)—. / 밑바닥 돌이 다이야몬드인 양 조명적(照明的)이다. / 심산(深山) 골짜기 정치(靜致)에 물은 수정(水晶)같으니…… / 생명(生命)의 근원(根源)을 지배(支配)하듯 하는 것은 / 바다의 무게보다 더 중량감(重量感)이 있다 / 사람이 산보(散步)하듯 물은 아래로 흐른다. / 바다의 무게보다 더 중량감(重量感)이 있다 / 사람이 산보(散步)하듯 물은 아래로 흐른다. / 그 도중(途中)에 전시(展示)된 흥망성쇠(興亡盛衰)는 / 물이 그여히 영원(永遠)으로, 영원(永遠)으로 흐르는 것을 모른다. <천상병, 선경(仙境) -1-, 주막에서, 민음사, 1979>

*a 짓두광주리

찻길이 놓이기 전 / 노루 멧돼지 쪽제비 이런 것들이 / 앞뒤 산을 마음놓고 뛰어다니던 시절 / 털보의 셋째아들은 / 나의 싸리말 동무는 / 이 집 안방 짓두광주리 옆에서 / 첫울음을 울었다고 한다 / "털보네는 또 아들을 봤다우 / 송아지래두 불었으면 팔아나 먹지" / 마을 아낙네들은 무심코 / 차거운 이야기를 가을 냇물에 실어 보냈다는 / 그날 밤 / 저릎등이 시름시름 타들어가고 / 소주에 취한 털보의 눈도 일층 붉더란다 <이용악, 낡은 집, 낡은 집, 삼문사, 1938>

*a 징검새우

아, 물에서는 또 물이래서 오래 사는, / 그 중에서도 못생기다 못생긴, / 미꾸라지여. 구구락지여. 자가사리여. 개멱자구여. 실뱀장어여. / 모래무지, 징검새우, 물무당이여, 똥방개여, 참방개여. 송사리떼여. / 너희들의 집단, 너희들의 보람, 너희들의 투쟁, / 너희들의 사상, 너희들의 유전, 너희들의 발광, 너희들의 죽음들을 위하여, / 너희들의 눈물, 너희들의 피, 너희들의 분노와 반항들을 위하여, <박두진, 봄에의 격(檄), 거미와 성좌(星座), 대한기독교서회, 1961>

*a 짚새기

짚풀을 삼어 / 짚새기 신고 <이한직, 놉새가 불면, 문장, 1939>

*a 짬밥

설은 세 그릇 짬밥으로 / 기름투성이 체력전을 / 전력을 다 짜내어 바둥치는 / 이 전쟁 같은 노동일을 / 오래 못가도 / 끝내 못가도 / 어쩔 수 없지 <박노해, 노동의 새벽, 노동의 새벽, 풀빛, 1984>

*a 쭝쿠레

지금 오가는 네 마음이 / 탁류에 휩쓸리는 강가를 헤매는가 / 비 새는 토막에 누더기를 쓰고 앉았나 / 쭝쿠레 앉았나 <이용악, 제비 같은 소녀야, 분수령, 삼문사, 1937>

*a 차안방촌(此岸方寸)

적멸궁(寂滅宮)에 가는 길 하도 멀기에 / 시공(時空)을 주름잡은 곡선(曲線)항아리 / 가슴 속 은하수(銀河水)에 오작교(烏鵲橋) 놓아 / 견우직녀(牽牛織女) 만나듯 영혼(靈魂)을 꾀어 / 적멸궁(寂滅宮) 우리 님을 저 피안(彼岸)인양 / 차안방촌(此岸方寸)에 뵈는 필로소피아 <오상순, 항아리&5&, 공초오상순시선(空超吳相淳詩選), 자유문화사, 1963>

*a 차엽[茶葉]

향을 따라 / 입안으로 녹아 흐르는 / 중국의 차엽[茶葉] / 물빛이 칭얼거리는 / 숨소리를 느끼며 / 한 입 감돌 때 / 혀끝에 와 머문 / 순간의 멈춤 / 온몸이 짜르르 / 떨리는 향기 /

모두가 / 하나로 / 머물어 버렸다. <조병무, 용정차[龍井茶, 1993> / 떠나가는 시간, 우리문학사]

*a 찬연(餐宴)

한 개의 별 한 개의 지구 단단히 다져진 그 땅 위에 / 모든 생산의 씨를 우리의 손으로 휘뿌려 보자 / 영속처럼 찬란한 열매를 거두는 찬연(餐宴)엔 / 예의에 끌림 없는 반취(半醉)의 노래라도 불러 보자 <이육사,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 풍림, 1936. 12>

*a 참솔

참솔 같던 젊은이들 총 맞아 죽고 / 꽃다운 홀어미들 지쳐 잠든 곳 / 불에 탄 집터마다 쑥대풀 서걱이고 / 도채비불 밤이면 펄럭인다네. <민영, 고향 생각, 엉겅퀴꽃, 창작사, 1987>

*a 참수(斬首)되다

눈이 트였으면 / 두 눈 맑게 트여 / 십리(十里)를 볼 수 있었으면 / 십리(十里) 앞을 걷다가 참수(斬首)된 사람들 / 풀밭에 떨어진 번개 같은 눈들 지나치지 말았으면 / 별 하나이 흘리는 눈물 / 아득한 땅에서 이는 연기 / 칼빛 속에서 소리치는 크나큰 손들 / 덥석 잡을 수 있었으면 / 썩은 눈 빼어버리고 / 나뭇잎에 닿으면 고요히 오므리고 / 쇠를 보면 한 자는 뛰쳐나올 / 커다란 눈을 가졌으면 <이시영, 여름 속에서, 만월, 창작과비평사, 1976>

*a 창궁(槍弓)

오호, 동경(東京)이여, / 낙일(落日)에 외싸여 대지(大地)에 엎디어 우는 옛날의 도부(都府)여, 잿속에 파묻힌 찬연한 전당과 누대에 조사를 드리는 시민이여, / 애닯아라 이 '문명의 몰락'을 바라보는 서러운 그 눈이여, / 이제는 황금과 미인을 지키던 옛날의 기사는 / 창궁(槍弓)을 내던지고 폐허의 제단을 향하여 만가를 불러보나 / 아, 오동마차에 실리어 묘지로 향하는 '문명의 말로'여, / 미와 부와에 결별치 않을 수 없던가, 오호, 동경이여, <김동환, 곡폐허(哭廢墟), 국경의 밤, 한성도서, 1924>

*a 창랑하다

내 무슨 오지 않는 행복을 기다리기에 / 스산한 밤바람에 입술을 적시고 / 어느 곳 지향 없는 지각(地角)을 향하여 / 한옛날 정열의 창랑한 자취를 그리는 거냐 / 끝없는 어둠 저으기 마음 서글퍼 / 긴—하품을 씹는다 <김광균, 공지(空地), 와사등, 남만서고, 1939>

*a 채색등

거리 우의 풍경은 표현파의 그림. / 붉고 푸른 채색등, 네온싸인, / 사람의 물결 속으로 헤엄치는 나의 젊은 마음은 / 지금 크나큰 기쁨 속에 잠겨 있다. <박팔양, 점경(點景)&3&,

여수시초(麗水詩抄), 박문서관, 1940>

*a 챙이질

아래쪽을 구워서 다 굽히면 / 보기 좋은 챙이질로 위쪽을 굽자. <신진, 빈대떡, 멀리 뛰기, 민음사, 1986>

*a 처하(淒夏)

한여름 떼구름 몰아치는 처절한 포화(砲火)에 / 푸른 평화(平和)는 땅위에 깨어지고 / 몇 번인가 까무러치듯 숨 죽던 / 서울의 하늘을 / 끝내 지키던 처하(凄夏)의 기억(記憶) / 그것도 이젠 아득히 먼 옛일 같은데 / 오늘도 전화(戰火)에 젖은 북(北)쪽 하늘엔 / 환난(患難)의 별들이 솟아오른다 <홍윤숙, 가고 싶다 폐허(廢墟)로 변한..., 여사시집(麗史詩集), 동국문화사, 1962>

*a 천기누설죄(天機漏泄罪)

누군가 말하였다 / 나무를 심되 큰 나무는 살리기 어렵고 / 잔 나무는 크기를 기다릴 수 없다 / 누군가 평(評)하였다 / 어떤 나무는 가지도 몸통도 뿌리도 없으니 / 절로 크고 절로 죽을 뿐 / 기다리거나 버려두거나 마음나라의 일이어라 / 묻건대 / 어찌 나무 심기를 떠올렸을까 / 저 또한 한 그루 나무이려니 / 덧붙이자면 / 바람이든 물푸레나무든 곡괭이자루든 / 지렁이든간에 / 이름짓기 나름 아닌가 / 돌아앉아서 비문(秘文)을 뒤적이다 보니 / 함부로 작명(作名)하는 자는 천기누설죄(天機漏泄罪)를 입는다고 한다 / 이 봄에 내가 심은 나무는 / 그 때문에 / 허명(虛名)도 예명(藝名)도 본명(本名)도 없다 / 나무가 제 스스로 이름 지으리라 기다릴 뿐이다. <박제천, 이름짓기, 어둠보다 멀리, 오상사, 1987>

*a 천도용궁(天都龍宮)

야폭경(夜瀑景) 더 좋으이 오르는지 나리는지 / 우렁찬 물소리도 우에선지 아래선지 / 다만지 천도용궁(天都龍宮)이 이로 이어졌더라 <이은상, 박연(朴淵), 노산시조집(鷺山時調集), 한성도서주식회사, 1932>

*a 천도화(天桃花)

밝아 오라 / 너의 높은 연화(蓮花)로부터 / 하늘로 솟아오른 / 너의 크낙한 심연으로부터 / 신룡(神龍)이 살아 굼실거리고 / 오색 영롱한 벽으로 / 천둥 번개를 하며 / 진동하는 하늘의 / 정수리로부터 / 그 높은 심장으로부터 / 일월은 천지 개벽을 하고 / 천도화(天桃花)를 피우고 / 태초에 하나의 무리의 / 조상을 낳았나니. <신석초, 천지(天池), 수유동운(水踰洞韻), 조광출판사, 1974>

*a 천리객(千里客)

가을 들 마르는 풀 바람에 흔드는데 / 반계(半溪) 단풍(丹楓)은 석양에 타는구야 / 천리객(千里客) 이내 상

혼(傷魂)을 뉘게 말씀하리오 <이은상, 가윗날에, 노산시조집(鷺山時調集), 한성도서주식회사, 1932>

*a 천만사(千萬絲)

우리 평생(平生)에 이런 날이 며칠이나 될까. 지금 강변로(江邊路)엔 꾀꼬리빛 수양버들, 머리 푼 세우(細雨)처럼 드리웠다. 흩뿌리는 시늉으로 천만사(千萬絲) 가지마다 연초록 휘장모양 드리워 있다. <김상옥, 화창(和暢)한 날, 묵(墨)을 갈다가, 창작과비평사, 1980>

*a 천부(賤富)

내게는 믿는 마음밖에 없고. / 천부(賤富)도 없고, / 가진 것이 없는 바이다. <천상병, 심신록(心信錄) 1, 주막에서, 민음사, 1979>

*a 천상만상(千象萬象)

천상만상(千象萬象)의 잡연(雜然)한 소음(騷音)이 / 창조적(創造的)인 나의 꿈속에 스며들어 / 비단결같이 고운 오색(五色) 영롱(玲瓏)한 내 꿈의 체를 걸러 조화(造化) 무궁(無窮)한 꿈 천재(天才)의 표현활동(表現活動)의 과정(過程)을 거쳐 / 우주적(宇宙的)인 대(大)심포니의 조화(調和)를 이루었음을…… <오상순, 백일몽(白日夢), 공초오상순시선(空超吳相淳詩選), 자유문화사, 1963>

*a 천수천안(千手千眼)

만권(萬卷) 책이 눈을 감았다. / 술취한 새벽 세시! / 내 방의 어둠만으로 살 수 없다. / 문을 열자 / 문을 열자 / 모든 어둠놈들이 들어와서 / 어떤 먹 그믐밤 개구리 운다. / 문을 열자 / 문을 열자 / 모든 어둠놈들이 들어와서 / 벙어리귀신 가슴앓이. / 새벽 세시 몇분! / 내 방의 어둠만으로 살 수 없다. / 관음보살(觀音菩薩), 나에게 천수천안(千手千眼) 어둠놈들을 보내다오. <고은, 어둠과 더불어, 입산, 민음사, 1977>

*a 천애지애(天涯地涯)

삼라만상의 태반(胎盤)인 산천마저 사막으로 / 한 떨기 꽃도 피어날 가지 없이 / 한 마리 새도 쉴 나무숲도 없이 / 별이 쉬어갈 샘물도 없이 / 천애지애(天涯地涯) 평사만리(平砂萬里)로 황폐시켰고 / 인간의 존귀성마저 유린한 채 / 나라를 망해먹고 / 민족마저 망해먹었다 <한하운, 인골적(人骨笛), 한하운 시초, 정음사, 1949>

*a 천정(天井)되다

부쩍 부쩍 빗발나는 남(南)녁 하늘 보아라, / 광명(光明)구름 천정(天井)되어 가로 퍼진 면(面)에는 / 온갖 세력(勢力)이 주재(主宰)이신 태양(太陽)이 떠 있네 / 인축(人畜)은 밝은 빛에 부지런을 다투고, / 초목(草木)은 붓는 힘에 자라기를 힘쓰네, / 게으름에 붙들렸던 억천만(億千萬)의 품물(品物)이 / 손발 놀려 일을 하는

활기(活氣)있으며 / 조화(造化) 빌어 열매 맺는 생의(生意) 보이네, / 가다듬고 힘써 하는 한나절 일 모양은 / 어느 것이 태양정기(太陽精氣) 표현(表現)함이 아니냐, / 이러하게 만물(萬物)이 다 힘을 입는 태양(太陽)은 / 영해수(海水)를 사이하야 마주 우리 쪼이네, / 그렇다 우리 나라는 / 남방(南方)도 바다이니라. <최남선, 삼면환해국(三面環海國), 소년, 1909. 9>

*a 천지만상

꿈이 나를 사랑하는지 / 내가 꿈을 사랑하는지 / 확실치 않은 관계 속에서 / 우리는 자주 합동이 된다 / 산 아래 흘러내린 / 치맛자락 같은 논두렁길을 따라 / 풀밭 속을 간다 / 내 꿈과 손을 잡고 / 땅도 안 보이는 풀 속에서 보는 / 천지만상은 푸르고 넓기만 하다 / 풀밭은 내 맨발을 받아주려고 / 미리 매끄러운 융단을 깔아놓았구나 / 이따금 바람이 풀 머리 꼭대기에 / 휘파람을 쏟아부을 땐 / 한 쪽 귀를 열고 풀이 듣는다 /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 알겠다 / 풀이 응답한다 / 나는 의미를 모르지만 / 풀을 순종시킨 휘파람 속에 빠져 들어가본다 / 슬픈 문제나 어려운 고뇌라곤 없구나 / 어머니 치마폭 같은 휘파람의 살속 / 햇살이 황금지붕을 씌워 / 내 꿈을 재우는 성·누가 수도원을 만들었네 / 나는 듣는다 / 성·누가 상으로 얼굴을 가린 '사람'이 / 말하는 목소리, 풀빛처럼 푸른 목소리를 / 내 꿈이 나를 이끌고 / 이 목소리를 만나러 풀밭집에 왔나봐 / 나보다 한발 먼저 풀이 되어 / 내 몸을 지우려고 / 근심도 욕심도 고뇌도 외로움도 지우려고 / 내 꿈이 풀이 되었나봐 / 풀잎을 타고 굴러 떨어진 그 목소리를 / 나는 손바닥에 주워담아 똑똑히 본다 / 소리가 형상을 입고 일어나기를 희망하며 / 무형의 몸으론 내 꿈의 공간을 / 채우지 못하므로 / 바람소리인듯 휘파람 소리인 듯, / 성·누가 상 뒤에 숨은 / 소리의 얼굴을 보는 날 / 내 몸은 지워져도 좋으리라. <김지향, 꿈과 합동이 되어, 비온 뒤 풀밭, 문학아카데미, 1993>

*a 천지총아(天之寵兒)

광자(狂者)는 천지총아야(天之寵兒也) 아암 천지총아(天之寵兒)지 / 하늘과 땅이 마구 물결을 치는구나 / 내 언제 풍선(風船)이 됐길래 둥 둥 이렇게 좋냐. <이호우, 술, 이호우시조집, 영웅출판사, 1955>

*a 천진픠치마

마을에서는 세 벌 김을 다 매고 들에서 / 개장취념을 서너 번 하고 나면 / 백중 좋은 날이 슬그머니 오는데 / 백중날에는 새악시들이 / 생모시치마 천진픠치마의 물팩치기 껑추렁한 치마에 / 쇠주픠적삼 항라적삼의 자지고름이 기드렁한 적삼에 / 한끝나게 상나들이옷을 있는 대로

다 내 입고 / 머리는 다리를 서너 켜레씩 들어서 / 시뻘건 끄둘채댕기를 삐뚜룩하니 해 꽂고 / 네날백이 따배기신을 맨발에 바꿔 신고 / 고개를 몇이라도 넘어서 약물터로 가는데 / 무썩무썩 더운 날에도 벌 길에는 / 건들건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 허리에 찬 남갑사 주머니에는 오랜만에 돈푼이 들어 즈벅이고 / 광지보에서 나온 은장도에 바늘집에 원앙에 바둑에 / 번들번들하는 노리개는 스르럭스르럭 소리가 나고 / 고개를 몇이라도 넘어서 약물터로 오면 / 약물터엔 사람들이 백재일 치듯 하였는데 / 봉가집에서 온 사람들도 만나 반가워하고 / 깨죽이며 문주며 섶가락 앞에 송구떡을 사서 권하거니 먹거니 하고 / 그러다는 백중 물을 내는 소내기를 함뿍 맞고 / 호주를하니 젖어서 달아나는데 / 이번에는 꿈에도 못 잊는 봉가집에 가는 것이다 / 봉가집을 가면서도 칠월(七月) 그믐 초가을을 할 때까지 / 평안하니 집살이를 할 것을 생각하고 / 애끼는 옷을 다 적시어도 비는 시원만 하다고 생각한다 <백석, 칠월(七月) 백중, 문장, 1948. 10>

*a 천하무비

한 남자를 사랑했다고 하여 / 이런 고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한 남자와 잠깐 쾌락을 같이했다 하여 / 이런 원통한 아픔이 /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여인들이여, 울고 찢기고 흐느끼며 발광하는 / 여인들이여, / 이 성스러운 하얀 굴 속에서 / 한 남자란 이제 지극히 사소한 우연에 / 지나지 않습니다 / 짐승처럼 짐승처럼 지금 우리가 / 온몸을 물어 뜯으며 울부짖는 것은 / 스님이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 다비의 불바다 속으로 들어감과 같습니다 / 하얀 도자기를 구워내기 위하여 / 불가마 속에 천하무비의 큰 불을 / 지피는 것과 같습니다 <김승희, 여인 등신불, 왼손을 위한 협주곡, 문학사상사, 1983>

*a 천하선경(天下仙境)

내가 새벽마다 가는 약수(藥水)터가에는 / 천하선경(天下仙境)이 아람드리 펴진다. / 요순(堯舜)이 놀까말까 한 절대미경(絶對美景)이라네. <천상병, 약수(藥水)터, 주막에서, 민음사, 1979>

*a 천한절통(千恨切痛)

엉 엉 못살고 죽은 생령(生靈)이 운다 / 아 천한절통(千恨切痛)의 울음이 운다 <한하운, 인골적(人骨笛), 한하운 시초, 정음사, 1949>

*a 천행루(千行淚)

아실 이 누구신고 이 가슴 내 진정(眞情)을 / 천행루(千行淚) 만곡가(萬曲歌)론들 어이 능(能)히 표할손가 / 상월(霜月)이 죽창(竹窓)에 드니 잠 못 이뤄하노라 <이은상, 가윗날에,

노산시조집(鷺山時調集), 한성도서주식회사, 1932>

*a 천험비경(天險秘境)

그래서 삼방이라 하였는가 / 하늘을 찌르는 칠전팔도(七顚八倒)의 험산이 / 모조리 올 것을 막아버린 천험비경(天險秘境)에 / 구비구비 곡수(曲水)는 바위에 부딪혀 지옥이 운다. <한하운, 삼방(三防)에서, 한하운 시초, 정음사, 1949>

*a 철요면(凸凹面)

어린 곡예사인 별들은 끝이 없는 암흑의 그물 속으로 수없이 꼬리를 물고 떨어집니다. 포플라의 나체는 푸른 저고리를 벗기우고서 방천 위에서 느껴 웁니다. 과수원 속에서는 임금(林檎)나무들이 젊은 환자와 같이 몸을 부르르 떱니다. 무덤을 찾아다니는 잎 잎 잎…… / 서(西) 남(南) 서(西) / 바람은 아마 이 방향에 있나 봅니다. 그는 진둥나무의 검은 머리채를 찢으며 아킬러쓰의 다리를 가지고 쫓겨가는 별들 속을 달려갑니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찾는 광란한 기적소리가 지구의 모—든 철요면(凸凹面)을 굴러갑니다. SOS·SOS. 검은 바다여 너는 당돌한 한 방울의 기선마저 녹여 버리려는 의지를 버리지 못하느냐? 이윽고 아침이 되면 농부들은 수없이 떨어진 별들의 슬픈 시체를 주우려 과일밭으로 나갑니다. 그러고 그 기적적인 과일들을 수레에 싣고는 저 오래인 동방의 시장 바그다드로 끌고 갑니다. <김기림, 가을의 과수원, 기상도, (자가본), 1936>

*a 청계명월(淸溪明月)

하늘 땅 온갖 것이 다 흩어져 없어지고 / 나마저 스ㅣㄹ지라도 청계명월(淸溪明月)은 남기과저 / 만고(萬古)에 흐르고 밝아 그ㅊ지 마시오시라 <이은상, 계월송(溪月頌), 노산시조집(鷺山時調集), 한성도서주식회사, 1932>

*a 청노루

하늘을 나는 새가 나를 비웃네 / 날개도 없는 주제에 내 꿈의 높이가 하늘에 있는 줄 알고 / 그 꿈 키우다가 땅에 떨어져 이런 신세 철창 신세 면치 못한 줄 알고 / 그러나 웃지 마라 새야 / 십년을 하루같이 벽과 벽 사이에 / 갇혀 / 오가도 못하는 이 사람을 보고 / 팔다리 육신이야 이렇게 기막히게 철창과 철창새에 끼여 / 옴짝달짝 못한다만 / 나에게도 날개가 있단다 꿈의 날개가 / 바람의 속도로 별과 달의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 무기의 꿈이 있고 / 햇님의 은총을 받아 기름진 대지에 / 달무리의 원을 그리며 씨를 뿌리고 / 만인의 입술에 가을의 결실을 가져다주는 / 노동의 날개가 있단다 / 그러나 새야 / 하늘 높이에서 나를 비웃고 / 철창에 그림자를 떨어뜨리며 비켜가는 매정한 새야 / 나의 꿈은 너처럼 먼 데 있지 않단

다 / 나의 날개는 너처럼 높은 데 있지 않단다 / 나의 꿈 나의 날개는 / 지금 이곳에 있단다 지상에 있단다 / 노동의 팔이 닿을 수 있는 인간의 대지에 있고 / 발을 굴러 산맥과 함께 강과 함께 전진할 수 있는 벌판의 싸움터에 있단다 / 가장 높아야 내 꿈의 날개는 / 하늘 아래 첫동네 백두산에 있단다 / 그 산기슭에서 강가에서 숲 속에서 / 재롱을 피우며 자작나무 가지를 오르락 내리락하는 다람쥐의 꼬리에 있단다 / 팔팔하게 뛰노는 붕어의 지느러미에 있단다 / 무지개 끝을 달리는 청노루의 뒷다리쯤에 있단다 / 다람쥐와 함께 붕어와 함께 청노루와 함께 / 춤과 노래로 밤을 지새는 온갖 잡새와 함께 / 인간세계를 이루고 사는 작은 농장에 있단다 / 무르익은 노동의 과실 맑은 물과 맑은 공기 / 하늘의 별과 산에 들에 만발한 꽃과 / 인간에게 공기와도 같은 것 / 밀이며 옥수수며 남새며 이슬이며 집이며 / 인간에게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너나없이 만인의 입으로 가슴으로 / 골고루 들어차는 그런 세상 바다에 있단다 / 가장 높아야 내 날개의 꿈은 / 기차로 한나절쯤 달리면 닿을 수 있는 청천강 푸른 물결 위에 있단다 / 그 물결 위에 아롱진 이름이여 아침의 나라여 / "조국은 하나다"에 있단다 / "조국은 하나다"에 있단다 <김남주, 나의 꿈 나의 날개,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미래사, 1991>

*a 청능

집에는 아배에 삼촌에 오마니에 오마니가 있어서 젖먹이를 마을 청능그늘 밑에 삿갓을 씌워 한종일내 뉘어 두고 김을 매러 다녔고 아이들이 큰마누래에 작은마누래에 제구실을 할 때면 종아지물본도 모르고 행길에 아이 송장이 거적때기에 말려 나가면 속으로 얼마나 부러워하였고 그리고 끼때에는 부뚜막에 바가지를 아이들 수대로 주룬히 늘어 놓고 밥한 덩이 질게 한 술 들여뜨려서는 먹였다는 소리를 언제나 두고 두고 하는데 <백석, 넘언집 범 같은 노큰마니, 문장, 1939. 4>

*a 청람빛

거기 물마시는 이여. 아랫 물 윗 물을 가리지 말거라. 이 핏물 괸 아랫물도 마시면 물인 것을. 그는 몇 차례 헛구역질을 합니다. 핏물은 마시지 않습니다. 그는 물 뜬 여인을 밀치고 서둘러 산모롱이를 돌아갑니다. 그녀 흘린 애련의 피 씻은 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잠시 돌아보는 사이, 저 천야한 시간 벼랑 아래 여인은 새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는 그를 지나쳐 먼 바다 끝으로 날아갔습니다. 무한 공간이 물그물처럼 일렁이더니, 연꽃 한 송이 청람빛 하늘 귀에 피어 올랐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들어 연꽃을 가리킵니다. <최명길, 서시(序詩) 2: 밀애, 반만 울리는 피리, 동학사, 1991>

에게해(海)는 청람빛, / 삶과 죽음의 일천 겹 물굽이를 돌아 / 포세이돈 신전에 와서 나는 나의 바다를 비워 내다 / 해신(海神)들이 울리는 아침 종소리는 / 어디에서도 울려오지 않았지만 / 귤빛 젖가슴을 드러낸 그리스 소녀가 / 에게해(海)를 지키고 있었다 / 지진과 바다를 관장하는 포세이돈, / 나는 아직 그를 만나지 못했지만 / 오늘 그가 지키는 청람빛 바다에 / 잠시 닻을 내리다 / 바람은 머리칼을 날리며 / 대리석 신전의 일만 년 허적(虛寂)을 뒤적이지만 / 포세이돈, 그대만은 알리라 / 내가 숨기고 있는 한(恨)과 / 내 해저에 잠복한 큰 지진을 그대만은 알리라 / 에게해(海)는 청람빛, / 포세이돈 신전에 와서 잠시 정박하다 <김종해, 항해일지 15, 항해일지, 문학세계사, 1984>

*a 청람색

새가 울어요. / 온몸을 떨며 녹나무 가지 위에서 우나 / 울음소리가 들려 오지 않아요. / 적막을 밀고 가는 구름. / 밀고 가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구름들. / 청람색 깃털을 날리며 새는 애타게 호소하고 있지만 / 아뭇 소리도 들려 오지 않아요. / 녹나무의 귀는 떨어지고 / 적막의 거미줄에 소리들은 걸려 있다. / 땅거미 질 무렵 / 거미들에게 잡혀 먹힐 뿐. / 필름이 끊어졌는지 이젠 새마저 뵈지 않아요. / 녹나무 숲도 아무것도 없어요. / 주변엔 자동차만 달리고 / 하얀 스크린은 언제나 하얗게 비어 있어요. <이진호, 녹나무 숲, 달이 지는 곳으로, 청하, 1990>

*a 청랭(晴冷)하다

동구 밖에는 청랭(晴冷)한 달빛에 / 허물어진 향교(鄕校) 기왓장이 빛나고 / 댓돌 밑 귀뚜리 운다. <오장환, 영회, 헌사, 남만서방, 1939>

*a 청렬(淸冽)

청렬(淸冽)이 결코 설움은 아니련만 / 내 눈에는 찬이슬이 맺힌다. <구상, 초동(初冬)의 서정(抒情), 구상문학선, 1975>

상강(霜降) 아침 / 나목(裸木) 가지에 펼쳐 있는 / 청렬(淸冽) 안에 계십니까. <구상, 무소부재(無所不在), 구상문학선, 1975>

*a 청막(聽膜)

거리의 소음을 / 모조리 녹음할 수 있는 / 나의 청막(聽膜)은 / 불행한 제라늄인가 <김경린, 나는 불행(不幸)한 녹음기(錄音機)인가, 현대의 온도, 도시문화사, 1957>

*a 청시(靑柹)

꿈을 깨고 일어나 창문을 여니 / 창밖에는 가을이 와 있었다. / 돌담 위에 서린 안개 속에 / 가지마다 휘어진 감들이 보인다 / 팔, 구월에 달려 있던 청시(靑柹)들 / 알알이 등불을

켜고 / 감나무는 절반이 가을 하늘에 잠기어 있다 / 아— 어느 보이지 않는 손이 열매를 맺게 하고 / 조용히 지상(地上)을 지나간 것일까. <김광균, 추일서정(秋日抒情) -1-, 임진화, 범양출판사, 1989>

*a 청일(晴日)

지금 바깥에는 우중(雨中)일까 / 혹은 / 구름이 청일(晴日)을 위해 흘러가고 있을까. <정공채, 사람소리 2, 사람소리, 1989>

*a 청천풍우(晴天風雨)

한 구비 도라들 제 청천풍우(晴天風雨) 급히 들려 / 반공에 걸린 폭포 눈에 벌써 어리인다 / 맘 아니 바쁘리마는 곧 보일가 저허라 <정인보, 박연행(朴淵行), 담원시조, 을유문화사, 1948>

*a 청청백일

꿈길로만 오는 / 달빛 같은 그대 / 청청백일 대낮보다야 / 긴 밤을 기다리며 살아온 날 <김여정, 그대 꿈꾸는 동안, 화음, 현대문학사, 1969>

*a 청탁불문

청탁불문 장소불문 / 우리는 어디서나 앉는다 <오규원, 우리는 어디서나, 가끔은 주목받는 생이고 싶다, 문학과지성사, 1987>

*a 청학동(靑鶴洞)

오랜만에 무우꽃밭을 / 청학동(靑鶴洞) 골짜기 밤하늘에서 보았다. <김종길, 청학동소견(靑鶴洞所見), 하회에서, 민음사, 1977>

하늘에는 비행기가 격에 어울리고 / 고속도로에선 자동차가 / 시골길에는 자전거? 오토바이? 우마차? 경운기? 트랙터? / 청학동(靑鶴洞)이나 골목길, 남대문시장에선 / 그야 물론, 두발 자가용이 더 좋고…… / 아니, 틀렸어! / 그 모든 지상(地上)에선 / 탱크를 따를 자(者)는 없지! <김정웅, 천로역정(天路歷程), 혹은: 이명(耳鳴), 천로역정, 혹은, 문학과지성사, 1988>

*a 청형(淸馨)

이 승지(勝地) 찾아 들며 바삐 오던 저 사람아 / 돌아서 가는 걸음 어이 저리 더딘게오 / 청형(淸馨)이 성관(城關)에 남았기로 넘지 못해 그리노라 <이은상, 박연(朴淵), 노산시조집(鷺山時調集), 한성도서주식회사, 1932>

*a 초당집

칠성아 칠성아 / 네 이름이 흔하건만 / 초당집 보비는 삼년 전부터 / 가만히 자라는 마음의 풀을 / 베어 버릴 힘 없어서 '칠성'이라고 / 피로 쓰고 피로 지워 피로 샀다 / 사람의 손이 가 닿지 않는 밭에 / 깨끗한

마음 속 깊이 자라는 풀이라 <김명순, 사랑하는 이의 이름, 생명의 과실, 한성도서주식회사, 1925>

*a 초동(草童)

저녁연기 무거이 뻗드린 마을가로 / 고요히 걸어나오는 서녘의 황(黃)소도 / 두 눈 반쯤만 닫고 다리 한 곳에 멈추고 / 피리 입에 머금은 하낫 초동(草童)도 없건만, / 들바람에 씻긴 소녀(少女)의 얼굴과 같이 / 붉은 바탕에 군데군데 금(金)모래를 흩은 문의. / 기나긴 인류(人類)의 역사(歷史)가 음울히 조을고 있는 듯한 / 저 동굴에서 가늘게 흘러나려 / 이윽고 비스듬이 다시 둥글어지는 이 곡선(曲線). <임학수, 석류(石榴)&5&, 석류, 자가본, 1937>

*a 초병단(哨兵團)

오오, 몸을 일으키어 두 팔을 걷어라. / 그리하여 네 손에 닿는 모든 것을 잡아, / 이 졸음과 생각을 다 한데 깨치고, / 바로 우리 병들고 수척한 육신을 쥐어 뜯는 / 밤의 미운 초병단(哨兵團)을 향하여, / 주검으로써 야격(夜擊)에 일어서라. <임화, 나는 못 믿겠노라, 현해탄, 동광당서점, 1938>

*a 초연(初戀)

생전에 처음좋은 천진(天眞)의 내다 / 그러나 그러나, 이 어린 손으로 / 초연(初戀)의 붉은 문을 두드릴 때에 / 꿈에나 뜻했으랴, 뜻도 아니한 / 무지한 문직(門直)이의 성난 눈초리 / 그래도 나는, 거침 없이 말하겠노라 / 이 꽃의 임자는, 우리 님이시다 <홍사용, 꿈이면은?, 백조, 1922. 1>

하나로는 제 모습을 떠올릴 수 없는 / 무엇이라 이름을 붙일 수도 없는 / 그런 막연한 안타까움으로 빛깔진 / 초연(初戀)의 / 꽃. <이수익, 안개꽃 &4&, 슬픔의 핵, 고려원, 1983>

*a 초월계(超越界)

아무래도 절실(切實)한 원한(怨恨)은 필경 / 잎새도 다 떨구어 악마디게 자라서 등치만 남은 한 그루 늙은 괴목(槐木)나무가 혼자 오묘(奧妙)한 소리를 갊아 바람이 입맞출 때 목을 놓아 울듯이 이름지을 수 없는 그림자로 되살아 항용 나직히 초월계(超越界)에 숨어서 뜻있는 이의 마음과 맞부딪쳐 언제든지 이렇게 울릴 줄은 몰랐다. <김관식, 홍련(紅蓮)이에게, 김관식시선, 자유세계사, 1957>

*a 초제(草堤)

어포(漁浦) 달 밝은 밤에 모래 위를 거니노라 / 밀물을 피(避)하는 걸음 깨달으니 초제(草堤)로다 / 무심(無心)코 풀 위에 앉을 제 반디 놀라 날더라 <이은상, 어포(漁浦) 달 밝은 밤에, 노산시조집(鷺山時調集), 한성도서주식회사, 1932>

*a 초진(楚陣)

장자방(張子房)의 단소 소리에 초진(楚陣)이 흩어진 때는 지금 이 절과 죽림도 없었으련만 / 산(山)은 아무 말 없는데도 / 죽림은 푸시시 울고, 개는 짖는다. <박세영, 월야(月夜)의 계명사(鷄鳴寺), 산제비, 중앙인서관, 1938>

*a 초치(初齒)

백발(白髮)의 / 팔순(八旬) 늙은 할머니 / 걸음발 겨우 떼어 놓는 / 초치(初齒)의 어린아이 / 면(面)과 면(面)을 서로 대하고 / 눈과 시선이 서로 마주칠 때 / 나는 묻고 싶었다 / 할머니에게 / 당신(當身)은 그 아이를 / 아시나이까? / 나는 묻고 싶었다 / 어린아이에게 / 너는 저 할머니를 / 아느냐고……. <오상순, 의문(疑問), 공초오상순시선(空超吳相淳詩選), 자유문화사, 1963>

*a 초태(草苔)

수지에 스미는 물감인 양 파랑(波浪)은 퍼져 / 막을 수 없이 걷잡을 수 없이 파랑은 퍼져 / 오래인 성진(星辰) 아래 길러 길러 덮었던 / 아으—ㄱ한 고요(孤寥)의 초태(草苔)는 갈갈이 찢기고 말았나니 <이찬, 돌팔매&3&, 분향(焚香), 한성도서주식회사, 1938>

*a 촉도난(蜀道難)

삼수갑산(三水甲山) 보고지고 / 삼수갑산(三水甲山) 아득코나 / 아하 촉도난(蜀道難)이 이보다야 더할소냐 <김억, 삼수갑산(三水甲山)&2&, 안서시집, 한성도서주식회사, 1929>

*a 촉도지난(蜀道之難)

내 고향을 도로 가자 내 고향을 내 못 가네 / 삼수갑산 멀더라 아하 촉도지난(蜀道之難)이 예로구나 아하하 <김소월, 삼수갑산(三水甲山), 신인문학, 1929. 11>

*a 촉성재배하다

사람들은 특별과 / 불신의 만성질환을 씹으며 / 종합과 합동의 모순을 / 촉성재배하고, /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그리다가 / 어둠 없는 낮과 밤을 꿈꾸다가 / 흐르지 않는 세월을 설계하다가, <정동주, 첫날. 성전(聖殿)에서, 순례자, 민음사, 1984>

*a 최전지

여우굴에서 십오 년째 버섯을 기르는 전씨는 오 년 전 북한쌀이 판문점을 넘어오던 해에 철거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 그렇지만 그는 변 함없이 계속 볏짚에 깻묵과 닭똥을 버무려 양송이를 길렀다. 남북 합의는 언제나 깨지기 마련이고 복구 공사 착수 후에 옮겨도 충분하다고 계산한 때문이었다. 그런데 막상 재벌 왕초 정주영이 북행길에 올랐을 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싶어 옮겨갈 땅까지 빌어 놓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요즘 자신이 성급했음을 후회하

고 있다.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굴 속은 사철 양송이 재배의 최적지, 굴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인절미 두고 보리개떡 찾는 격이라고 말한다. 통일만 된다면 이까짓 버섯이 문제냐고, 언제라도 털고 일어서겠다고 기염을 토하지만 문익환과 임수경의 방북은 막무가내 인정하려 않는다. 경의선 기차를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감옥에 가야 한다고 침을 튀긴다. <최두석, 전길수씨, 성에꽃, 문학과지성사, 1990>

*a 최후승첩(最後勝捷)

따듸따닷따! 두당둥당둥! / 나아가세 나아가세 기(氣)껏 나가세 / 대한소년(大韓少年) 의용군인(義勇軍人) 큰 발자취로 / 성큼성큼 건장(健壯)하고 용맹(勇猛)스럽게 / 최후승첩(最後勝捷) 얻기까지 기(氣)껏 나가세 / 허큘쓰의 높은 산(山)도 한번 뛰우고 / 태평양(太平洋)의 넓은 바다 한 번 헤엄해 / 정의도중(正義圖中) 왼 세계(世界)를 집어느라신 / 하늘 명령(命令) 성취(成就)토록 기(氣)껏 나가세 <최남선, 대한소년행(大韓少年行), 소년, 1909. 10>

전부(全部)의 성심(誠心) 다 들여 힘 기르고 / 전부(全部)의 정신(精神) 다 써 지식(知識) 늘여서 / 우리는 장차(將次) 누를 위(爲)해 무슨 일 / 하려 하느냐 / 약(弱)한 놈 어린 놈을 도울 양으로 / 강(强)한 놈 넘어뜨려 '최후승첩(最後勝捷)은 / 정의(正義)로 돌아간다'는 밝은 이치(理致)를 / 보이려 함이 아니냐 / 옳다 옳다 과연(果然) 그렇다 / 신대한(新大韓)의 소년(少年)은 / 이러 하니라. <최남선, 신대한소년(新大韓少年), 소년, 1909. 1>

*a 추로(墜路)

어깨를 뻗대고 노호(怒號)하는 / 기중기(起重機)의 팔대가 / 또 한 켜 지층(地層)을 물어 뜯었나니…… / 히말라야의 추로(墜路)를 가로막은 암벽(岩壁)의 / 심장(心臟)을 화살한 장철(長鐵) / 그 우에 '메'가 나려 / 승리(勝利)의 작열(灼熱)이 별보다 찬란하다. <김상용, 굴뚝 노래, 망향, 문장사, 1939>

*a 추석절사(秋夕節祀)

팔월(八月)에도 한가위는 / 고구려(高句麗)의 시름이라 / 칠백리(七百里) 거친 벌판 / 무슨 일이 있더니까 / 추석절사(秋夕節祀) 아기네들 / 조상내력(祖上來歷) 일으라니 / 도래떡 울든 겨레 / 오례송편 목이 메네 <홍사용, 월병(月餠), 월간매신(月刊每申), 1934. 11>

*a 축마식

하루해가 질 무렵 / 도끼는 이미 썩은 나무 위에 놓여 있고 / 성급한 사람들은 벌써 불을 피우고 / 온갖 잡귀 몰아낼 축마식을 벌이고 <이종욱, 하루해가 질 무렵, 꽃샘추위, 창작과비평사, 1981>

*a 축제(縮製)하다

열정의 세례를 받지도 않고서 자연의 성과만 기다리는 신령아! 진리를 따라가는 한 갈래 길이라고 자랑삼아 안고 있는 너희들의 그 이지는 자연의 지혜에서 캐온 것이 아니라 인생의 범주를 축제(縮製)함으로써 자멸적 자족에서 긁어모은 망상이니 그것은 진도 아니요 선도 아니며 더우든 미도 아니요 다만 사악이 생명의 탈을 쓴 것뿐임을 여기서도 짐작을 할 수 있다. <이상화, 청량 세계, 여명, 1925. 6>

*a 축조금

매달 스무하루가 되면 월급봉투를 들고 이 새끼들 하고 냅다 팽개치면서 / 이게 생활이다 현실이다 / 무슨 축조금 무슨 적립금 무엇에 빼고 / 덜고 까다보니 칠만 육천에서 / 육만이천환인가 / 쌀 한 가마 삼만환인데 / 아홉식구다 이걸 가지고 한 달을 살아야 한다 / 육만 이천환을 일천 삼백대 일의 딸라로 나누면 사십칠딸라 육십구센트 / 우리가 알기에는 미국에서는 최하 월급이 삼백 딸라라는데 / 사사오입하는 나라에서 아무리 사사오입을 하더라도 / 오십대 삼백은 육대 일 / 에이 형이상학적 동물들 / 이건 하늘과 땅이 아닌가 / 대학에서 문화산가 미술사에서 / 라파이엘이 그린 것 중에 / 아리스토틀과 푸레이토의 그림이 있다는 것을 들은 것을 들은 것 같다 / 그 한 폭의 그림에서 검지손가락으로 아리스토틀은 하늘을 찾고 푸레이토는 땅을 가리킨다는 / 하늘과 땅 그런 땅일까 / 옳다 땅에서 죽으라는 말이다 / 오전 중의 잔무를 정리하면서 / 형광등과 같이 국책에 가깝게 장려하는 / 도시락 알미늄 도시락에 눈을 돌린다 / 오늘 하루의 일과에 하루의 반이 간다는 열두시 싸이렌이 따분하게 들려온다 / 시간은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이라는 이 진리는 / 꼭 내가 처음 하고픈 말이었는데 / 어느 개자식이 먼저 지껄였는지 그 놈은 죽은 놈인가 / 하여튼 이 놈의 세상에서 죽은 자식이다 / 냉수 대신 급사를 불러 어쨌든 보리차를 찾는다 / 알미늄 도시락 뚜껑을 열고 젓가락을 든다 / 우선 잡곡 섞인 점심에 구미를 돋구어 본다 / 살기 위해 먹는다는 것보다 이건 의무를 위해 배를 불려보는 / 아 이건 죽기 위해 먹는 것이다 / 비오는 창밖을 내다본다 / 기독교대학에 적을 둔 친구의 말이 생각난다 / 대한민국 의무를 다 안하는 거 많아요 권리도 주장도 못해요 돈 많은 사람 세금 적게 내도 돼요 권리도 많고 잘 사는 사람 군대도 적게 해요 가난한 집 아들 교육 의무 하지않고 있어요 권리요 주장도 못해요 하구싶은 말 하두 못해요 투표 어디 있어요 선거 어디 있어요 권리 어디 있어요 이래서 민주주의 돼요 / 이 말은 미국 선교사가 삼천여명의 학생들 앞에서 한 설교라는데 / 굴비에 밥이 목구

멍을 넘어간다 / 세상의 애국자란 오늘날 독립한 나라에서 세금을 고지서대로 기일대로 어김 없이 내는 위인이 애국자지 허튼 소리 꼬부라진 소리 정치를 한답시고 애국이니 정당이구 이것이 그것이구 어느 것이라는 놈일 수록 뇌물이나 바쳐 탈세를 한 자들이 아닌가 / 고지식하고 착하고 어진 자들만이 못사는 나라 / 이 나라 수도 서울에서 / 목구멍은 포도청이라면서 / 굴비에 밥이 목구멍을 넘어간다는데 / 정치를 한다는 놈 정권을 잡았다는 자들 이 친구들을 믿으면서 / 닭과 토끼를 기르고 돼지를 칠 것을 열심히 생각한다 / 지난날에 남도 사람들이 바가지를 등에 지고 / 이민열차에 흔들려 만주에 살 길을 찾아가듯이 / 브라질에 이민을 할 것을 생각한다 / 마음은 이미 쌍파우로 아마존 / 구름을 보면서 산과 바다를 생각하듯이 / 날이 흐리고 비가 올 때마다 죽은 자식 생각하듯이 / 열두 하늘 건너 조국을 생각할 것이 아닌가 <전영경, 속(續) 낙화유수(落花流水), 어두운 다릿목에서, 일조각, 1964>

*a 축혼하다

아아! 나는 장난꾼에게 놀림받는 / 불행한 사람이로다. / 축혼행진곡을 들을 때 / 추도곡도 들리는 것 같으며 / 어린아이의 요람을 볼 때에 / 풀 우거진 분묘가 눈에 보이도다. <박팔양, 나는 불행(不幸)한 사람이로다, 여수시초(麗水詩抄), 박문서관, 1940>

*a 출납창구

자동칼라 사진실의 출납창구 아래로 / 내 사진이 덜컥 하고 완성되어 떨어질 때 / 나는 행복하다. / 어제보다 더 늙었다든지 / 점점 더 괴상한 추녀가 되어간다고 해도 / (추함만큼 우리에게 일상적인 게 또 있으랴) / 나는 정말 관심이 없다. / 다만 나는 나와 만나는 / 그 짧은 순간의 영원. 어머니. 자궁. / 고향같은 따스한 어둠을 기억할 뿐. / 아무도 이제 내가 안 보인다고 / 말하지는 못하겠지. <김승희, 평화일기 2, 달걀 속의 생(生), 문학사상사, 1989>

*a 충왕묘

이리하여 노왕(老王)은 밭을 주어 마음이 한가하고 / 나는 밭을 얻어 마음이 편안하고 / 디퍽디퍽 눈을 밟으며 터벅터벅 흙도 덮으며 / 사물사물 햇볕은 목덜미에 간지러워서 / 노왕(老王)은 팔짱을 끼고 이랑을 걸어 / 나는 뒷짐을 지고 고랑을 걸어 / 밭을 나와 밭뚝을 돌아 도랑을 건너 행길을 돌아 / 지붕에 바람벽에 울바주에 볕살 쇠리쇠리한 마을을 가리키며 / 노왕(老王)은 나귀를 타고 앞에 가고 / 나는 노새를 타고 뒤에 따르고 / 마을 끝 충왕묘(蟲王廟)에 충왕(蟲王)을 찾아 뵈러 가는 길이다 / 토신묘(土神廟)에 토신(土神)도 찾아 뵈러 가는 길이다 <백석, 귀농(歸農), 조광, 1941. 4>

*a 취적(取適)

청류(淸流)에 낚시 던져 놀이하는 저 분들아 / 고기야 네 것이냐 취적(取適)이나 하올 것이 / 어조(魚鳥)도 봄을 아나니 같이 논들 어떠리 <이은상, 삼개에서, 노산시조집(鷺山時調集), 한성도서주식회사, 1932>

*a 취중득도(醉中得道)하다

나는 너희가 체현(體現)하고 있는 저 오묘한 / 뜻을 알지만 나는 짐짓 너희를 외면한다 / 왜냐하면 나는 / 안팎이 같은 너희보다 / (너희의 이름은 안팎이 같다는 뜻이거니와) / 안팎이 다른 나를 더 사랑하니까. / 너와 나는 그동안 / 은유(隱喩) 속에서 한몸이었으나 / 실은 나는 비의(秘意)인 너희를 해독하는 / 기쁨에 취해 / 그런 주정뱅이의 자로 세상을 재어온지라 / 나는 아마 취중득도(醉中得道)했는지 / 인제는 전혀 구별이 안 가느니— / 누가 거지고 / 누가 광인인지 <정현종, 거지와 광인(狂人),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문학과지성사, 1984>

*a 치상길

더디 넘는 / 봉산도 재넘이 / 오라버니 치상길 / 치마폭에 감겨 젖는 소발굽 요령소리며 / 사철쑥 덤불 아래 / 돌귀만 차도 / 산제비 날아가는 유월도 초사흘. <박태일, 유월, 가을 악견산, 문학과지성사, 1989>

*a 친개지(親開地)

무연한 벌 위에 들어다 놓은 듯한 이 집 / 또는 밤새에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아지 못할 이 비. / 친개지(親開地)에도 봄은 와서 가냘픈 빗줄은 / 뚝가의 어슴푸레한 개버들 어린 엄도 축이고, / 난벌에 파릇한 뉘집 파밭에도 뿌린다. / 뒷 가시나무밭에 깃들인 까치떼 좋아 지꺼이고 / 개굴가에서 오리와 닭이 마주 앉아 깃을 다듬는다. / 무연한 이 벌 심어서 자라는 꽃도 없고 메꽃도 없고 / 이 비에 장차 이름 모를 들꽃이나 필는지? / 장쾌한 바닷물결, 또는 구릉의 미묘한 기복도 없이 / 다만 되는 대로 되고 있는 대로 있는 무연한 벌! / 그러나 나는 내버리지 않는다. 이 땅이 지금 쓸쓸하다고, / 나는 생각한다. 다시금, 시원한 빗발이 얼굴에 칠 때, / 예서뿐 있을 앞날의 많은 변전의 후에 / 이 땅이 우리의 손에서 아름다워질 것을! 아름다워질 것을! <김소월, 상쾌한 아침, 삼천리, 1934. 11>

*a 칠관(漆棺)

속이지 마라, 웃는 님이여 / 속이지 마라, 부대 나를 속이지마라 / 그러할터면, 차라리 나를 / 검은 칠관(漆棺)에다 집어 넣고서 / 뾰족한 은정(銀釘)을, 네 손으로 쳐박어 다고 <홍사용, 꿈이면은?, 백조, 1922. 1>

*a 칠보색(七寶色)

칠보색(七寶色) 꽃들은 / 스스로 역겨워 스러지고 <황명, 눈오는 날에, 날아라 아침의 새들이여, 예전사, 1985>

*a 칠죄(七罪)

미닫이에 밤 그림자같이 / 꼬리를 휘젓는 육근(六根)이나 칠죄(七罪)의 / 심해어(深海漁)보다도 <구상, 나, 구상문학선, 1975>

한마디로 이제까지의 나의 생애는 / 천사의 날개를 달고 / 칠죄(七罪)의 연못을 휘저어 온 / 모험과 착오의 연속, / 나의 심신(心身)의 발자취는 / 모과(木瓜) 옹두리처럼 사연투성이다. <구상, 근황(近況), 모과(木瓜) 옹두리에도 사연이, 현대문학사, 1984>

*a 칡순

맨 몸 채, 뙤약볕 아래 / 서해(西海) 바다로 들아가던 / 넌 칡순 같은 짐승이었지. <신동엽, 보리밭, 창작과 비평, 1968. 여름>

*a 침해(侵害)되다

오, 그러나 / 이제 이단(異端)과 사탄에게 침해(侵害)되고 / 유린(蹂躪)된 세기말(世紀末)의 아시아의 땅 / 살륙(殺戮)의 피로 물들인 / 끔찍한 아시아의 바다빛이여. <오상순, 아시아의 여명(黎明), 공초오상순시선(空超吳相淳詩選), 자유문화사, 1963>

*a 캠브리아기(期)

고생대(古生代)에 형성된 / 캠브리아기(期)의 지층이여 / 거기에서 꺾어낸 작약꽃 한 다발 / 향기로 가슴가득 눈물 출렁거리네 <함혜련, 우정(友情)&2&, 바람과 야생조(野生鳥), 서문당, 1986>

*a 코오러스

(L · S) / 기울어지는 성교당(聖教堂) / (M · S) / 비스듬히 십자가. / 탄도탄이 십자가에 명중. / (L · S) / 검은 태양. / —— 바람 소리 · 사이 사이로 코오러스 —— <조향, 검은 SERIES, 사상계, 1958. 11>

갈구(渴求)의 제비 새끼를 / 노오란 코오러스 / 소년(少年) 성가대(聖歌隊)는 / 발돋움하는 / 감람(橄欖)나무 잎사귀 <김광림, 주일(主日), 오전의 투망, 광명인쇄공사, 1965>

*a 타고동동(打鼓冬冬)

사랑이여, 너는 / 어둠의 변두리를 돌고 돌다가 / 새벽녘에사 / 그리운 그이의 / 겨우 콧잔등이나 입 언저리를 발견(發見)하고 / 먼동이 틀 때까지 눈이 밝아 오다가 / 눈이 밝아 오다가, 이른 아침에 / 파이프나 입에 물고 / 어슬렁어슬렁 집을 나간 그이가 / 밤, 자정(子正)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는다면 / 어둠의 변두리를 돌고 돌다가 / 먼동이 틀 때까지 사랑이여, 너는 / 얼마만큼 달아서

병(病)이 되는가, / 병(病)이 되며는 / 무당(巫堂)을 불러다 굿을 하는가, / 넋이야 넋이로다 넋반에 담고 / 타고동동(打鼓冬冬) 타고동동(打鼓冬冬) 구슬채찍 휘두르며 / 역귀신(役鬼神) 하는가, / 아니면, 모가지에 칼을 쓴 춘향(春香)이처럼 / 머리칼 열 발이나 풀어뜨리고 / 저승의 산하(山河)나 바라보는가, / 사랑이여, 너는 / 어둠의 변두리를 돌고 돌다가…… <김춘수, 타령조(打令調) 1, 남천, 1977>

*a 타관객로(他關客路)

다 큰 이 시절 노돌 지날라니 / 버들 방축에서 피리 소리 들리네. / 나도 어린 철 피리 부노라면 / 황혼 어스름길, 누나 있어서 / 산곡간(山谷間)을 날 찾아 헤매 주더니 / 타관객로(他關客路)에 다 버린 줄 알았더니 노돌 소년이 / 오늘, 이 심사 괴롭히네 <김동환, 버들피리, 해당화, 삼천리사, 1942>

*a 타관만리

까투리도 산 속에 새끼 치고 / 타관만리에 와 있노라고 / 산중만 바라보며 목메인다 / 눈물이 앞을 가리운다고 <김소월, 집 생각, 진달래꽃, 매문사, 1924>

*a 타래곱

다시 만나면 알아 못 볼 / 사람들끼리 / 비웃이 타는 데서 / 타래곱과 도루모기와 / 피 터진 닭의 볏 찌르르 타는 / 아스라한 연기 속에서 / 목이랑 껴안고 / 웃음으로 웃음으로 헤어져야 / 마음 편쿠나 / 슬픈 사람들끼리 <이용악, 슬픈 사람들끼리, 오랑캐꽃, 아문각, 1947>

*a 타율(他律)되다

자율(自律)은 타율(他律)되지 않고 / 타율(他律)은 자율(自律)되지 않고. <홍희표, 얼음산, 살풀이, 문학과지성사, 1984>

*a 타종수(打鐘手)

타종수(打鐘手)와 그의 가족(家族)들, 방울개는 마루 밑의 어둠을 빨며 컹 컹 컹 탄소(炭素)가루를 뱉으며, 그렇게 결국 종(鐘)을 때리며, <박의상, 전후(戰後) 3, 금주에 온 비, 성문각, 1967>

*a 타타황금(朶朶黃金)

찬 선비 졸부(富)되는 추구월(秋九月)이 늦었어라 / 뜰앞의 타타황금(朶朶黃金) 엄청나지 아니하냐 / 이때야 밥 아니 먹다 배곯을 줄 있으리. <최남선, 국화(菊花) -2-, 자유신문, 1954. 12. 13>

*a 탄색(炭色)

그때 탄색 모래 저편에서 / 머리칼을 날리며 / 한 사람의 청년이 나에게 다가왔다. / 그는 나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 푸른 크레용을 들어 / 거칠게 한 마리의 말을 나의 마차에 매었다. / 푸르고 푸른 말. / 나의 마차(馬車)는 강(江)과 강(江), 들과 들을 건너 / 하늘 속으로 뛰어 들어갔다. / 모래가 빛나기 시작했다. / 해안이 출추었다. <김승희, 나의 마차(馬車)엔 고갱의 푸른 말[馬, 1979>을 / 태양미사, 고려원]

겁부터 난다. 나는 눈을 감고 가수(假睡) 상태(狀態)에 들어간다. / 너, 민중 없는 민중주의자! 가짜! 냄새나! 꺼져! / 나는 왜 적(敵)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적전(敵前)에서 자꾸 뒤돌아보는가. / 80년대는 막장이냐. / 최전선이냐. / 너 살아 넘어갈래, 죽어 돌아올래. 그렇지만, / 돌아보라. 가장 현실적인 색(色)은 탄색(炭色)이다. 그대 손은 묻어 있다. / 내 마음 속의 동굴 속의 외로운 박쥐여 / 내 피를 빨아먹어라. 실컷, 그대 투명한 색(色)의 / 악령(惡靈)이 임할 때까지. 내 알몸의 투명한 색(色)의 닻이 해저(海底)의, / 밑 모를 심연의 땅을 찍을 때까지. <황지우, 박쥐&3&,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민음사, 1985>

*a 탕수물

지은 죄가 있다 하면 / 농부된 것 밖에 없네 / 탕수물에 풍덩실 / 죽지 못한 죄 뿐일세 <주요한, 늙은 농부의 한탄, 삼인시가집(三人詩歌集), 삼천리사, 1929>

*a 태고목(太古木)

여느 새벽보다도 일찍이 화계사 숲속의 약수(藥水)터로 오르다가 보았다. / 자색(紫色)안개에 휘감긴 아름드리 태고목(太古木)들의 숙연한 전신침묵(全身沈默)을, 한결같이 그 주변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큰 바위들의 단좌(端坐)를. / 그때던가 어제까지도 죽었다고 생각해오던 고목(古木)들의 출렁거리는 뿌리등치께에서 놋쇠와 놋쇠가 부딪듯이 쩡 하는 소리를 들은 것은. / 나는 걸음을 멈추고 / 이 겨울내내 산중(山中)에서 두문불출(杜門不出)하고 있는 어느 강철의 근육을 향그러운 쇠망치로 때려 깨우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조정권, 수유리(水踰里) 시편(詩篇), 허심송, 영언문화사, 1985>

*a 태고색(太古色)

난데없이, / 억만년(億萬年)의 태고색(太古色) 창연(蒼然)한 거대(巨大)한 암석(巖石)의 돌학(돌함)이 / 돌출(突出)하자 / 보라! 다시 눈을 부릅뜨고 / 희다 못해 푸르고 속모를 청열(淸列)한 물더미 / 그 무한량(無限量)의 물더미의 샘고아 힘차게 터져 / 용솟음치며 절대도(絶對度)로 / 힘차게 솟아 넘쳐 흐름을……. <오상순, 바다물은 달다, 공초오상순시선(空超吳相淳詩選), 자유문화사, 1963>

쪽깔린 측백(側柏)나무 그런대로 태고색(太古色)이 / 꿀 같은 거자물을

봄에 오면 먹는다네 / 가즈레* 풀 자란 저기 콩밧등가 하노라 <정인보, 비로봉(毘盧峯)&2&, 담원시조, 을유문화사, 1948>

*a 태와(苔瓦)

뜨락과 태와(苔瓦)마루에 긴 풀이 자랐다. / 한 모퉁이에 작은 발자욱이나 있었다. <김종삼, 해가 머물러 있다, 십이음계, 삼애사, 1969>

*a 태초청류(太初淸流)

푸른 초원(草原)에 방만(放漫)하던 네 조상(祖上) / 맘 놓고 마른 목 축이든 시절(時節)엔 / 굴레 없는 씩씩한 얼굴이 / 태초청류(太初淸流)에 비췬 일도 있었거니…… <김상용, 어미소, 망향, 문장사, 1939>

*a 태허공간(泰虛空間)

이제 무심헌 돌팔매질을 거둔 후 / 불러야 다시 올 파랑도 없고 / 찾아야 쉬이 얻을 초태도 없고 / 아하 태허공간(泰虛空間)에 선잠 깬 아이 같이 달래어도 달래어도 / 발버둥치는 이 마음이여. <이찬, 돌팔매&3&, 분향(焚香), 한성도서주식회사, 1938>

*a 털능구신

나는 이 마을에 태어나기가 잘못이다 / 마을은 맨천 구신이 돼서 / 나는 무서워 오력을 펼 수 없다 / 저 방안에는 성주님 / 나는 성주님이 무서워 토방으로 나오면 토방에는 디운 구신 / 나는 무서워 부엌으로 들어가면 부엌에는 부뚜막에 조앙님 / 나는 뛰쳐 나와 얼른 고방으로 숨어 버리면 고방에는 또 시렁에 제석님 / 나는 이번에는 굴통 모퉁이로 달아가는데 굴통에는 굴대장군 / 얼혼이 나서 뒤울안으로 가면 뒤울안에는 곱새녕 아래 털능구신 / 나는 이제는 할 수 없이 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 대문간에는 근력 세인 수문장 / 나는 겨우 대문을 빠쳐나 바깥으로 나와서 / 밭 마당귀 연자간 앞을 지나가는데 연자간에는 또 연자당구신 / 나는 고만 기겁을 하여 큰 행길로 나서서 / 마음 놓고 화리서리 걸어가다 보니 / 아아 말마라 내 발뒤축에는 오나 가나 묻어다니는 달걀구신 / 마을은 온데간데 구신이 돼서 나는 아무데도 갈 수 없다 <백석, 마을은 맨천 구신이 돼서, 신세대, 1948. 5>

*a 테크놀러지

이렇게 쓰고, 더 쓰기를 / 멈춘다. 빠르고 정확한 손놀림으로 / 나는 끼워진 종이를 빼어, / 구겨버린다. 이 놈의 시는 / 왜 이다지도 애를 먹인담. 나는 / 테크놀러지와 자연에 대한 현대인의 / 갈등을 추적해보고 싶다. 종이를 새로 / 끼우고, 다시 쓴다. <장정일, 길안에서의 택시잡기, 길안에서의 택시 잡기, 민음사, 1988>

*a 토면(土麵)국수

봄날에 날풀들 돋아 오니 눈물난다 / 쇠뜨기풀 진드기풀 말똥가리풀 여우각시풀들 / 이 나라에 참으로 풀들의 이름은 많다 / 쑥부쟁이 엉겅퀴 달개비 개망초 냉이 족두리꽃 / 물곶이 앉은뱅이 도둑놈각시풀들 / 조선총독부 식물도감을 펼치니 / 구황식(救荒食)의 풀들만도 백오십여가지다 / 쌀 일천만 섬을 긁어가도 끄떡 없는 민족이라고 / 그것이 고려인의 기질이라고 / 나마무라 이시이가 서문에서 점잖게 게다짝을 끌고 나온다 / 나는 실제로 어렸을 때 보리 등겨에 토면(土麵)국수를 말아먹고 / 북어처럼 배를 내밀고 죽은 늙은이를 / 마을 앞 당각에 내다버린 것을 본 일이 있었다 / 햄이나 치이즈 버터나 인스턴트 식품이면 / 뭐나 줄줄이 외워대는 어린놈에게 / 어서 방학이나 왔으면 싶다 /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를 위해 센인바리[천인침(千人針)]를 받으러 / 이 마을 저 마을 떠돌았듯이 / 나 또한 이 나라 산천을 떠돌며 / 어린것의 식물 표본을 도와주고 싶다. / 쇠똥가리풀 진드기풀 말똥가리풀 여우각시풀들 / 이 나라에 참으로 풀들의 이름은 많다 / 쑥부쟁이 엉겅퀴 달개비 개망초 냉이 족두리꽃 / 물곶이 앉은뱅이 도둑놈각시풀들. <송수권, 우리 나라 풀이름 외기, 한국대표시인100선집, 지리산 뻐꾹새, 미래사, 1991>

*a 토방돌

얼굴에 별자국이 솜솜 난 말수와 같이 눈도 껌벅거리는 하루에 베 한 필을 짠다는 벌 하나 건넛집엔 복숭아 나무가 많은 신리(新里) 고무 고무의 딸 이녀(李女) 작은 이녀(李女) / 열여섯에 사십(四十)이 넘은 홀아비의 후처가 된 포족족하니 성이 잘 나는 살빛이 매감탕 같은 입술과 젖꼭지는 더 까만 예수쟁이 마을 가까이 사는 토산(土山) 고무 고무의 딸 승녀(承女) 아들 승(承)동이 / 육십리(六十里)라고 해서 파랗게 뵈이는 산(山)을 넘어 있다는 해변에서 과부가 된 코끝이 빨간 언제나 흰옷이 정하던 말끝에 설게 눈물을 짤 때가 많은 큰골 고무 고무의 딸 홍녀(洪女) 아들 홍(洪)동이 작은 홍(洪)동이 / 배나무 접을 잘하는 주정을 하면 토방돌을 뽑는 오리치를 잘 놓는 먼섬에 반디젓 담그러 가기를 좋아하는 삼춘 삼춘엄매 사춘누이 사춘동생들 <백석, 여우난골족(族), 사슴, (자가본), 1936>

*a 토방문

탁수기씨는 화개 장터에서 / 반달낫 갈며 한 오십년 살았지 / 화개나루에 소금배 들고 복사꽃 피던 이팔청춘에 / 처음 쇳물 끓이고 풀무질 익혔지 / 된장 내음 땀내 적시는 저녁나절이면 / 운천리 백사장에 누워 하늘의 별을 세었지 / 아니 아니 운천리 안열 부락 김초시네 / 둘째딸

생각으로 별이 보이지 않았지 / 작은 토담 타고 돌다 칡꽃 한 묶음 깨금발로 던지면 / 꽃내음보다 먼저 토방문이 열리고 / 그때 처음 사랑을 알았지 / 섬진강 푸른 강물과 지리산 산바람이 / 어느 산곡에서 속삭이다 함께 어둠에 드는지도 알았지 / 그 이쁜 전라도 가스나 동란 끝나고 죽었지 / 산사람 밥 한 솥 푸짐하게 해낸 죄로 강물되어 떠났지 / 탁수기씨 화개 장터에서 / 반달낫 갈며 한 오십년 살았지 / 고스레 고스레 거칠은 강바람에 소주 한잔 부으며 / 앞으로도 한 백년 운천리 백사장 별을 헤겠지. <곽재구, 화개장터, 사평역에서, 문학과지성사, 1983>

섣달 스무 아흐레 어머니는 시루떡을 던져 앞바다의 흩어진 물결들을 달래었습니다. 이튿날내내 청태(靑苔)밭 가득히 찬비가 몰려왔습니다. 저희는 우기(雨期)의 처마 밑을 바라볼 뿐 가난은 저희의 어떤 관례와도 같았습니다. 만조(滿潮)를 이룬 저의 가슴이 무장무장 숨가빠하면서 무명옷이 젖은 저희 일가(一家)의 심한 살냄새를 맡았습니다. 빠른 물살들이 토방문(土房門)을 빠져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저희는 낮은 연안(沿岸)에 남아 있었습니다. / 모든 근경(近景)에서 이름 없이 섬들이 멀어지고 늦게 떠난 목선(木船)들이 그 사이에 오락가락했습니다. 저는 바다로 가는 대신 뒤안 장독의 작게 부서지는 파도소리를 들었습니다. 빈 항아리마다 저의 아버님이 떠나신 솔섬 새울음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물 건너 어느 계곡이 깊어가는지 차라리 귀를 막으면 남만(南灣)의 멀어져가는 섬들이 세차게 울고울고 하였습니다. / 어머니는 저를 붙들었고 내지(內地)에는 다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럴수록 근시(近視)의 겨울 바다는 눈부신 저의 눈시울에서 여위어갔습니다. 아버님이 끌려가신 날도 나루터 물결이 저렇듯 잠잠했습니다. 물가에 서면 가끔 지친 물새떼가 저의 어지러운 무릎까지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느 외딴 물나라에서 흘러들어온 흰 상여꽃을 보는 듯했습니다. 꽃 속이너무나 환하여 저는 빨리 잠들고 싶었습니다. 언뜻언뜻 어머니가 잠든 태몽(胎夢)중에 아버님이드나드시는 것이 보였고 저는 석화(石花)밭을 넘어가 인광(燐光)의 밤바다에 몰래 그물을 넣었습니다. 아버님을 태운 상여꽃이 끝없이 끝없이 새벽물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 삭망(朔望)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러나 바람 속은 저의 사후(死後)처럼 더 이상 바람 소리가나지 않고 목선(木船)들이 빈 채로 돌아왔습니다. 해초 냄새를 피하여 새들이 저의 무릎에서 뭍으로 날아갔습니다. 물가 사람들은 머리띠의 흰 천을 따라 내지(內地)로 가고 여인들은 환생(還生)을 위해 저 우기(雨期)의 청태(靑苔)밭 넘어 재배삼배(再拜三拜) 흰떡을 던졌습니다. 저는 괴로워하는 바다의 내심(內心)으로 내려가 땅에 붙어 괴로워하는 모든 물풀들을 뜯어 올렸습니다. / 내륙(內陸)에 어느 나

라가 망하고 그 대신 자욱한 앞바다에 때아닌 배추꽃들이 떠올랐습니다. 먼 훗날 제가 그물을 내린 자궁(子宮)에서 인광(燐光)의 항아리를 건져 올 사람은 누구일까요. <황지우, 연혁(沿革),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문학과지성사, 1983>

*a 토신묘

이리하여 노왕(老王)은 밭을 주어 마음이 한가하고 / 나는 밭을 얻어 마음이 편안하고 / 디퍽디퍽 눈을 밟으며 터벅터벅 흙도 덮으며 / 사물사물 햇볕은 목덜미에 간지러워서 / 노왕(老王)은 팔짱을 끼고 이랑을 걸어 / 나는 뒷짐을 지고 고랑을 걸어 / 밭을 나와 밭뚝을 돌아 도랑을 건너 행길을 돌아 / 지붕에 바람벽에 울바주에 볕살 쇠리쇠리한 마을을 가리키며 / 노왕(老王)은 나귀를 타고 앞에 가고 / 나는 노새를 타고 뒤에 따르고 / 마을 끝 충왕묘(蟲王廟)에 충왕(蟲王)을 찾아 뵈러 가는 길이다 / 토신묘(土神廟)에 토신(土神)도 찾아 뵈러 가는 길이다 <백석, 귀농(歸農), 조광, 1941. 4>

*a 통경환(通經丸)

예순이 훨씬 넘은 여류명사(女流名士), / 통경환(通經丸) 안내장이 / 회춘(回春)을 재촉한대나. <김시종, 유명세(有名稅), 얼굴 없는 여인, 시문학사, 1990>

*a 통속(通俗)하다

한잔의 술을 마시고 /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 목마(木馬)를 타고 떠난 숙녀(淑女)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 목마(木馬)는 주인을 버리고 그저 방울 소리만 울리며 / 가을 속으로 떠났다 술병에서 별이 떨어진다 / 상심(傷心)한 별은 내 가슴에 가벼웁게 부숴진다 / 그러한 잠시 내가 알던 소녀(少女)는 / 정원의 초목 옆에서 자라고 / 문학이 죽고 인생이 죽고 / 사랑의 진리마저 애증(愛憎)의 그림자를 버릴 때 / 목마(木馬)를 탄 사랑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 세월은 가고 오는 것 / 한때는 고립을 피하여 시들어가고 / 이제 우리는 작별하여야 한다 / 술병이 바람에 쓰러지는 소리를 들으며 / 늙은 여류작가(女流作家)의 눈을 바라다보아야 한다 / ……등대(燈臺)에…… / 불이 보이지 않아도 / 그저 간직한 페시미즘의 미래를 위하여 / 우리는 처량한 목마(木馬) 소리를 기억하여야 한다 / 모든 것이 떠나든 죽든 / 그저 가슴에 남은 희미한 의식을 붙잡고 /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서러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 두 개의 바위 틈을 지나 청춘(靑春)을 찾은 뱀과 같이 / 눈을 뜨고 한잔의 술을 마셔야 한다 / 인생(人生)은 외롭지도 않고 / 그저 잡지(雜誌)의 표지처럼 통속(通俗)하거늘 / 한탄할 그 무엇이 무서워서 우리는 떠나는 것일까 / 목마(木馬)는 하늘에 있고 / 방울 소리는 귓전에 철렁거리는데 / 가을 바람 소리는 / 내 쓰러진 술병 속에서 목메어 우는

데 <박인환, 목마(木馬)와 숙녀(淑女), 박인환 시선집, 산호장, 1955>

*a 통열(痛悅)

마취(痲醉)와 비장(悲壯) 통열(痛悅)과 광희(狂喜) / 침정(沈靜)과 냉소(冷笑) 환각(幻覺)과 독존(獨尊)의 / 당신의 나라 / 구름과 물결 백작(白灼)과 정향(精香)의 / 그리고도 오히려 극야(極夜)의 새벽빛이 출렁거리는 당신의 나라를 / 오 님이여! 나는 믿습니다. <김동명, 당신이 만약 내게 문을 열어 주시면, 개벽, 1923>

*a 통즉도(通卽道)

날라리 세상에 망둥이가 제 격(格)이다 / 빗줄기를 가로질러 흙탕물이나 퉁겨라 / 옷 한번 마음잡고 입고 나선 늦은 철에 / 통즉도(通卽道)라 어줍잖은 대갈통이 달린다 / 계집끼고 잘살면 그만이더냐. <정공채, 시월(十月)의 비 1, 사람소리, 1989>

*a 퇴금색(褪金色)

뭉트더 내버린 꽃송일 / 주섬주섬 주워담자 / 임자가 나서거든, 던져주라고 / 앞산의 큰 영(嶺)을 처음 넘어서 / 낯모르는 마을로 찾아나 가자 / 퇴금색(褪金色)의 옷 입은 여왕의 사자(使者)가 / 번쩍거리는 길가에, 나를 붙들고 / 동산의 은빛 달이 동그레 돈거든 / 여왕궁의 뒷문으로, 중마지오라면 / 옳지 좋다, 좀이나 좋으료 <홍사용, 꿈이면은?, 백조, 1922. 1>

*a 투기(投企)되다

이른 녘에 / 넘어오는 햇살의 열의를 / 차고, / 산탄처럼 뿌려지는 새들은 / 아침 놀에 / 황금의 가루가 부신 해체. / 머언 기억에 / 투기(投企)된 순수의 그림자. <박남수, 새 2, 신의 쓰레기, 모음출판사, 1964>

*a 투사(透思)

선행(先行)하는 분망(奔忙)을 싣고 전차(電車)의 앞 창(窓)은 / 내 투사(透思)를 막는데 / 출분(出奔)한 안해의 귀가(歸家)를 알리는 '페리오드'의 대단원(大團圓)이었다. <이상, 무제(無題) -1-&8&, 맥, 1938. 12>

*a 튀튀새

초아흐레 장판에 / 산 멧도야지 너구리가죽 튀튀새 났다 / 또 가얌에 귀이리에 도토리묵 도토리범벅도 났다 <백석, 월림(月林)장, 조선일보, 1939. 11. 11>

한 십리(十里) 더 가면 절간이 있을 듯한 마을이다 낮 기울은 볕이 장글장글하니 따사하다 흙은 젖이 커서 살같이 깨서 아지랑이 낀 속이 안타까운가 보다 뒤울 안에 복사꽃 핀 집엔 아무도 없나 보다 비인 집에 꿩이 날아와 다니나 보다 울 밖 늙은 들매나무에 튀튀새 한불 앉았다 흰 구름 따라가며 딱정벌레 잡다가 연둣빛 잎새가 좋아 올라왔나 보다

발머리에도 복사꽃 피었다 새악시도 피었다 새악시 복사꽃이다 복사꽃 새악시다 어디서 송아지 매—하고 운다 골갯논두렁에서 미나리 밟고 서서 운다 복사나무 아래 가 흙장난하며 놀지 왜 우노 자개밭둑에 엄지 어디 안 가고 누웠다 아랫동리선가 말 웃는 소리 무서운가 아랫동리 망아지 네 소리 무서울라 담모도리 바윗잔등에 다람쥐 해바라기하다 조은다 토끼잠 한잠 자고 나서 세수한다 흰 구름 건넛산으로 가는 길에 복사꽃 바라노라 섰다 다람쥐 건넛산 보고 부르는 푸념이 간지럽다 <백석, 황일(黃日), 조광, 1936. 3>

*a 파과(破瓜)하다

여기는어느나라의데드마스크다. 데드마스크는도적(盜賊)맞았다는소문도있다. 풀이극북(極北)에서파과(破瓜)하지않던이수염은절망(絶望)을알아차리고생식(生殖)하지않는다. 천고(千古)로창천(蒼天)이허방빠져있는함정(陷穽)에유언(遺言)이석비(石碑)처럼은근히침몰(沈沒)되어있다. 그러면이곁을생소(生疎)한손짓발짓의신호(信號)가지나가면서무사(無事)히스스로와한다. 점잖던내용(內容)이이재저래구기기시작이다. <이상, 자상(自像), 조선일보, 1936. 10. 9>

*a 파촉(巴蜀)

파촉(巴蜀)으로 가는 길은 / 서역 삼만리. / 뜸부기 울음 우는 논두렁의 어둔 밤에서 / 길라래비 날려 보는 외방 젊은이, / 가슴에 깃든 꿈은 나래 접고 기다리는가. <오장환, 귀촉도(歸蜀途)&2&, 춘추, 1941. 4>

눈물 아롱아롱 / 피리 불고 가신 님의 밟으신 길은 / 진달래 꽃비 오는 서역(西域) 삼만리(三萬里). / 흰 옷깃 여며 여며 가옵신 님의 / 다시 오진 못하는 파촉(巴蜀) 삼만리(三萬里). <서정주, 귀촉도(歸蜀途), 귀촉도, 정음사, 1948>

*a 팔각전(八角殿)

화원(花園) 터 어드메오 왕자공손(王子公孫)은 누구시오 / 팔각전(八角殿) 화초 향기 끊인 적이 오랜 이제 / 빈가(貧家)에 낙엽(落葉)져 날리니 아무덴 줄 몰라라 <이은상, 화원(花園)&2&, 노산시조집(鷺山時調集), 한성도서주식회사, 1932>

*a 팔모알상

부엌에는 빨갛게 질들은 팔모알상이 그 상 위엔 새파란 싸리를 그린 눈알만한 잔(盞)이 뵈였다 <백석, 주막(酒幕)&2&, 사슴, (자가본), 1936>

*a 팔진(八陣)

이건 집이고 / 저건 나무다 / 이건 조그만 집이고 / 저건 조그만 나무다 / 이건 네가 사는 조그만 집이고 / 이건 네가 심은 조그만 나무다 / 이건 웃지 않는 네가 사는 조그만 집이고 / 저건 자주 깨는 네가 살리려는 조그만 나무다 / 너는 밤마다

혼자서 중얼거린다 / 밖에선 무서리가 조용히 내리고 / 같은 자리에서 밤개가 짖고 있다 / 가장 나은 패를 벌려 놓고 / 가장 나은 패 펴 놓은 표정으로 / 너는 속이기 연습을 한다 / 이건 주위 살피지 않으려는 네 눈이고 / 저건 전신(全身)이 매달리는 네 눈물이다 / 속이기, 아내와 아이를 팔진(八陣)에 벌려 놓고 / 너를 감추기, 손이 떨어진다 / 이건 집이고 / 저건 나무다. <황동규, 수화(手話), 나는 바퀴를 보면 굴리고 싶어진다, 문학과지성사, 1978>

*a 팔혹성(八惑星)

태양계(太陽系)는 / 화려(華麗)한 성운(星雲)의 전각(殿閣)의 허물어진 폐허(廢墟)! / 팔혹성(八惑星)과 / 달과 / 태양(太陽)은 / 그 폐허(廢墟) 우에 남겨진 기둥, 석가래, 주춧돌들의 잔영(殘影)! <황석우, 태양계(太陽系), 자연송, 조선문단사, 1929>

*a 패류(敗類)

지난 여름에는 홍길동(洪吉童)의 나라 율도(聿島)를 다녀왔습니다 율도(聿島) 그곳은 사실 상상 속의 섬입니다 소설가(小說家) 허균(許筠)의 소설(小說) 속에 그려진 이상의 나라입니다 그의 별명(別名)은 올빼미로서 패류(敗類)와 즐겨 노닐었다 합니다 그는 또한 머리며 두 팔 두 다리 몸뚱이가 제각기 찢겨져 죽음을 당했던 비운(悲運)의 혁명아(革命兒)였습니다 처음에 나는 율도(聿島)를 이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섬으로 여겼습니다 물론 춘섬이의 아들 길동(吉童)이가 임금으로 있다는 율도(聿島)는 지도의 어느 곳에도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녀왔습니다 율도(聿島)의 공기를 마셨고 율도(聿島)의 하늘을 보았고 율도(聿島)의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상의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허균(許筠)은 그곳에서도 또한 머리며 두 팔 두 다리 몸뚱어리가 찢겨져 아무렇게나 길가에 나뒹굴어져 있었습니다 명아주풀 한 포기가 다만 그의 영혼을 받아들여 바람이 불 적마다 시나브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제천, 율도(聿島), 달은 즈믄 가람에, 문학세계사, 1984>

*a 페피아민트

해협(海峽)은 출렁거리는 한 잔(盞) 페피아민트가 아니겠니? 데크에서 한쪽 다리를 지팡이처럼 짚고 서서 푸름이 사뭇 쏟아지는 하늘에 눈이 아프도록 박혀지는 빨간 기폭(旗幅)일랑 청춘(靑春)의 도안(圖案)으로 접어 두면서 너는 아슴히 넘실거리는 수평선(水平線) 위에다 가느다란 구역질을 뱉어 놓을 게 아닌가? <조향, BON VOYaGE!, 백민, 1950. 3>

*a 편광(片光)

너는 ○억만(億萬) 촉광(燭光)의 / 엄청난 빛을 무심(無心)한 공간(空間)에 발사(發射)하면서 / 백주(白晝)에 캄캄한 지옥(地獄) 속에서 울부짖

는 무리에게는 / 반딧불만한 편광(片光)조차 아끼는 인색(吝嗇)한 놈이다. <심훈, 태양(太陽)의 임종(臨終), 그날이 오면, 한성도서주식회사, 1949>

*a 평문(評文)

외숙(外叔) 납인(納人)의 평문(評文)과 / 장서도 / 낯선 사내들이 / 바리바리 지고 갔다. <이명자, 표범 이빨, 신반야경, 왕문사, 1973>

*a 평사만리(平砂萬里)

삼라만상의 태반(胎盤)인 산천마저 사막으로 / 한 떨기 꽃도 피어날 가지 없이 / 한 마리 새도 쉴 나무숲도 없이 / 별이 쉬어갈 샘물도 없이 / 천애지애(天涯地涯) 평사만리(平砂萬里)로 황폐시켰고 / 인간의 존귀성마저 유린한 채 / 나라를 망해먹고 / 민족마저 망해먹었다 <한하운, 인골적(人骨笛), 한하운 시초, 정음사, 1949>

*a 페이(廢弛)되다

젊은 사람의 무리야 / 모든 새로운 살림을 / 이 세상 우에 세우랴는 사람의 무리야 / 부르짖어라, 그대들의 / 얇으나 강(强)한 성대(聲帶)가 / 찢어서 폐이(廢弛)될 때까지 부르짖어라, <박종화, 사(死)의 예찬(禮讚), 흑방비곡(黑房秘曲), 조선도서주식회사, 1924>

*a 폐촌(廢村)

바람은 부는데, / 꽃피던 역사(歷史)의 살은 / 흘러갔는데, / 폐촌(廢村)을 남기고 기름을 / 빨아가는 고층(高層)은 높아만 가는데. <신동엽, 삼월(三月)&2&, 현대문학, 1965. 5>

*a 폐항(廢港)

저 막막한 눈보라 속으로 / 껌정신을 끌고 갔다. / 늦기 전에 가리라, / 흰 옷을 입은 남자들이 휠체어에 실려 / 분수가 쏟아지는 마을의 긴 골목을 / 밤새도록 밀려가고 / 이 세대의 폐항(廢港)에 / 돌아온 배들이 굳게 굳게 묶인다. / 묶인 채 기우뚱거리며 / 눈보라 속에 있다. <이건청, 폐항(廢港)의 밤, 목마른 자는 잠들고, 조광출판사, 1975>

*a 포로수(捕虜囚)

영원사역(永遠使役)에 떨어진 포로수(捕虜囚)와도 같이 / 불타는 정열(情熱)과 굳센 의지(意志)와 양심과 열성(熱誠)과 / 최후(最後)의 희생(犧牲)까지를 바쳐서 섬길지라도 / 오히려 우리를 의심(疑心)하고 채찍질하는 / 나의 신(神)은 그런 엄격(嚴格)한 신(神)이리라 <함형수, 나의 신(神)은, 미발표 / 연도 미상>

*a 포만증(飽滿症)

노고지리는 / 포만증(飽滿症)을 새기느라 / 진종일 울어야 하지만 <한하운, 춘곤(春困), 한하운 시초, 정음사, 1949>

도대체 웃음이란 얼마나 / 짓궂게 왔다가는 포만증(飽滿症)이냐. <한하운, 자화상(自畵像)&14&, 보리피리, 인간사, 1955>

*a 포우커

4·19가 나던 해 세밑 / 우리는 오후 다섯 시에 만나 /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 불도 없이 차가운 방에 앉아 / 하얀 입김 뿜으며 /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어리석게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 정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무엇인가를 / 위해서 살리라 믿었던 것이다 / 결론 없는 모임을 끝낸 밤 / 혜화동 로우터리에서 대포를 마시며 / 사랑과 아르바이트와 병역 문제 때문에 / 우리는 때묻지 않은 고민을 했고 / 아무도 귀기울이지 않는 노래를 /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노래를 / 저마다 목청껏 불렀다 / 돈을 받지 않고 부르는 노래는 / 겨울밤 하늘로 올라가 / 별똥별이 되어 떨어졌다 / 그로부터 18년 오랜만에 /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 되어 / 혁명이 두려운 기성 세대가 되어 / 넥타이를 매고 다시 모였다 / 회비를 만 원씩 걷고 / 처자식들의 안부를 나누고 / 월급이 얼마인가 서로 물었다 / 치솟는 물가를 걱정하며 / 즐겁게 세상을 개탄하고 / 익숙하게 목소리를 낮추어 / 떠도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 모두가 살기 위해 살고 있었다 / 아무도 이젠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 적잖은 술과 비싼 안주를 남긴 채 / 우리는 달라진 전화번호를 적고 헤어졌다 / 몇이서는 포우커를 하러 갔고 / 몇이서는 춤을 추러 갔고 / 몇이서는 허전하게 동숭동길을 걸었다 / 돌돌 말은 달력을 소중하게 옆에 끼고 / 오랜 방황 끝에 되돌아온 곳 / 우리의 옛사랑이 피 흘린 곳에 / 낯선 건물들 수상하게 들어섰고 / 플라타너스 가로수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 아직도 남아 있는 몇 개의 마른 잎 흔들며 / 우리의 고개를 떨구게 했다 / 부끄럽지 않은가 / 부끄럽지 않은가 / 바람의 속삭임 귓전으로 흘리며 / 우리는 짐짓 중년기의 건강을 이야기했고 / 또 한 발짝 깊숙히 늪으로 발을 옮겼다 <김광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우리를 적시는 마지막 꿈, 문학과지성사, 1979>

*a 포족족하다

얼굴에 별자국이 솜솜 난 말수와 같이 눈도 껌벅거리는 하루에 베 한 필을 짠다는 벌 하나 건넛집엔 복숭아 나무가 많은 신리(新里) 고무 고무의 딸 이녀(李女) 작은 이녀(李女) / 열여섯에 사십(四十)이 넘은 홀아비의 후처가 된 포족족하니 성이 잘 나는 살빛이 매감탕 같은 입술과 젖꼭지는 더 까만 예수쟁이 마을 가까이 사는 토산(土山) 고무 고무의 딸 승녀(承女) 아들 승(承)동이 / 육십리(六十里)라고 해서 파랗게 뵈이는 산(山)을 넘어 있다는 해변에서 과부가 된 코끝이 빨간 언제나 흰옷이 정하던 말끝에 설게 눈물을 짤 때가

많은 큰골 고무 고무의 딸 홍녀(洪女) 아들 홍(洪)동이 작은 홍(洪)동이 / 배나무 접을 잘하는 주정을 하면 토방돌을 뽑는 오리치를 잘 놓는 먼섬에 반디젓 담그러 가기를 좋아하는 삼춘 삼춘엄매 사춘누이 사춘동생들 <백석, 여우난골족(族), 사슴, (자가본), 1936>

*a 푸로메듀스

나를 붙들어다 저 상상봉(上上峰)에 비끄러매어 / 나의 오장(五臟)을 쪼아 뜯어먹여 다오, 푸로메듀스처럼 / 그 가열한 발톱과 부리의 의지로써 / —아아 나는 취한다 / 취하여 그만 여게 풀섶에 쓰러지것다 <유치환, 창천(蒼天)에 취(醉)하다, 제 9시집, 한국출판사, 1957>

*a 풀바작

어둠 속에서 누구나 부른다 / 행인(行人)이 있으면 누구나 손짓을 한다 / 아무개 아니냐, 아무개 아들이 아니냐 / 또랑물에 발을 담근 채 노래도 그친 채 / 논둑에 앉아 캄캄한 밥을 먹는 농부들 / 일찌기 돈도 빽도 없이 태어난 농부들 / 사람이 죽으면 지붕 위에 속옷 던져 놓고 울던 농부들 / 정든 조상들이 죽어 묻힌 산줄기에 에워싸여 / 자식이나 키우며 감나무나 키우며 살아가더니 / 오늘은 어둠 속에서 누구나 부른다 / 가까이 가 보면 젊은이들은 그림자도 없고 / 늙은이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들 / 밥을 이고 나온 꼬부랑 할멈뿐인데 / 아무개 아니냐, 아무개 아들이 아니냐 / 덥석 손을 잡고 많이 먹고 가라 한다 / 수렁냄새 젖은 손가락으로 김치도 찢어주며 / 오동나무 잎새에 머슴밥을 부어 놓는다 / 밤길을 아니 걷는 게 영리한 짓이여 / 밤엔 사람이 제일로 무서운 놈이란 말여 / 풀바작을 짊어진 채 땅거미에 엎어진 / 파아란 넋들, 그 시절의 젊은이를 되뇌이며 / 달빛에 너울대는 성황당 두레산길 / 양키보다 몇 배 더 큰 시멘트 전봇대가 / 잉잉 소리치며 우쭐우쭐 쑤욱 자라나는 / 도깨비불이 휘익 쏟아져 내리는 상수리나무 골짜기 / 호박같이 쭈그러진 얼굴로 감추면서 / 무거운 밥숟가락에 빨건 김치를 올려준다. <김준태, 들밥, 참깨를 털면서, 창작과비평사, 1977>

*a 풍선구(風船球)

저 한 점 백운(白雲)이 / 어린 날 풍선구(風船球)보담 더 타고 싶어…… <오일도, 가을 하늘&2&, 출전 미상 / 연도 미상>

*a 풍엽(風葉)

정자(亭子)옆 좁은 산길 이즌 칭대 몇 번 돈고 / 어둑한 홍에 궁게 드나들손 풍엽(風葉)이라 / 흥망(興亡)이 수* 있다 한들 정도수를 알리까 <정인보, 박연행(朴淵行), 담원시조, 을유문화사, 1948>

*a 풍우상설

이 충실한 무덤의 파수병들, 이끼 낀 / 비석들이 죽음이 아니라면—죽어서 / 남는 것은 돌에 새겨진 이름 석 자일 뿐…… / 돌은 허지만 풍우상설에 깍이고 닳아 / 무명의 시원으로 모양을 잃거나, / 어쩌면 한 마리 새가 되어 홀연 어느날 / 날아갈지도 몰라, 아무도 모르게 / 훨훨 깃을 치며 미지의 천공으로. / 그리하여 이름은 돌을 벗어나서 / 다시 이름없는 것으로 되고, 이름이 없는 것은 / 다시 각각으로 새로운 이름을 획득해 간다. <박희진, 미아리묘지(彌阿里墓地), 실내악, 사상계사, 1960>

*a 풍장(風葬)하다

그의 온몸에서 깽깽소리가 들린다. / 그의 온몸에 눈물이 열리고 / 강아지들이 태어나고 있다. / 눈만 달고 태어나는 어린것들, / 눈짓 한번으로 생(生)을 마치는 / 불쌍한 것들, / 그가 왜 눈물을 흘리지 않고 / 치렁치렁 늘어뜨리고만 있는지 / 이제 알겠다. / 허공무덤에 풍장(風葬)한 / 눈 못 감은 어린 눈물들이 / 그 가슴에 있으니 / 그의 눈물이 왜 떨어지지 않고 / 한들한들 흔들리고만 있는지 / 이제 알겠다. <이명자, 봄을 넘기는 여섯 개의 개성(個性) 1, 별제, 나남, 1989>

깊숙히 울린다. / 울림 속에서 / 부분과 전체는 마침내 하나이다 / 논리적 분석의 실타래를 타고서는 / 넘을 수 없는 벽 / 철벽에 갇혀 / 세월의 담금질로 벼리어낸 뿔 / 주의 주장의 서슬 퍼런 뿔에 받혀 / 나는 지금 산울림 / 채광석을 데불고 갓바위를 오른다 / 발정한 짐승처럼 / 대전시 선화동 꽃집 거리를 지나 / 꺼이 꺼어이 / 팔공산 찾아 시간(屍姦)하러 가노니 / 나는 지금 피울림 / 쓸쓸한 추억을 풍장하러 가노니 / 아아 울림 속에 산 자와 죽은 자는 마침내 하나이다 <강현국, 부분과 전체, 절망의 이삭, 문학세계사, 1992>

*a 풍진세상(風塵世上)

한 폭의 묵란(墨蘭)을 심어 보고 싶네. / 한 천년(千年)쯤 짙게 먹을 갈아 / 황모(黃毛) 큰 붓을 창(槍)으로 곧게 세워 / 한산(韓山) 가는 모시 그대 치마폭에 / 한란(寒蘭) 아홉 꽃잎 새기고 고쳐 새겨 / 천년(千年) 묵은 향(香), 청산(靑山) 님의 뜻을 / 오월(五月) 단오(端午) 푸른 그네 바람결에 / 백설(白雪) 꽃잎으로 은하(銀河)토록 밀고 밀어 / 한(恨)많은 풍진세상(風塵世上) 태워 보고 싶네 <임보, 율(律) 1, 목마일기, 동천사, 1987>

*a 풍치(風致)롭다

어느 성좌에서 떨어졌나? / 어떤 신화의 속삭임인고? / 입술에 따가운 참한 유리 술잔, / 파름한 은행 열매가 스스로 풍치(風致)롭네. <김달진, 눈[眼, 1983> -1- / 올빼미의 노래, 시인사]

*a 풍화작용(風化作用)하다

어둠 속에서 곱게 풍화작용(風化作用)하는 / 백골(白骨)을 들여다 보며 /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 백골(白骨)이 우는 것이냐 / 아름다운 혼(魂)이 우는 것이냐 <윤동주, 또 다른 고향(故鄕),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정음사, 1948>

*a 프란네르

하얀 종이 조각처럼 밝은 너의 오전의 공백(空白)에서 내가 그즘 잠시를 놀았더니라 허겁지겁 하얀 층층계를 올라버린 다음 또아리빛 달을 너와 나는 의좋게 나눠 먹었지 옛날에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고대(古代)의 원주(圓柱)가 늘어선 여기 내 주름 잡힌 반생을 낭독하는 청승맞은 소리 밤이 까아만 비로오드의 기침을 또박또박 흘리면서 내 곁에 서 있고 진흙빛 말갈(靺鞨)의 바람이 설레는 하늘엔 전갈이 따악들 붙여 있다 참새 발자국 모양한 글자들이 마구 찍혀 있는 어느 황토 빛 영토의 변두리에서 검은 나비는 맴을 돌고 아으 다롱디리! 안타까비의 포복(匍匐)이 너의 나의 육체에 의상(衣裳)처럼 화려하구나 나는 골고다의 스산한 언덕에서 마지막 피를 흘린다 나의 손바닥에서 하얀 네가 멸형(滅形)하고 나면 물보라 치는 나의 시커먼 종점에서 앙상하게 걸려 있는 세월의 갈비뼈 사이로 레테의 강물이 흐른다 나는 검은 수선꽃을 건져 든다 섹스폰처럼 흰 팔을 흔드는 것은 누굴까! 팔목에 까만 시계줄이 감겨 있다 인공위성 이야길 주고 받으면서 으슥한 골목길로 피해 가는 소년들의 뒤를 밟아 가니까 볼이 움폭 파인 아낙네들이 누더기처럼 웃고 섰다 병든 풍금이 언제나 목쉰 소리로 오후의 교정을 괴롭히던 국민학교가 서 있는 마을에 아침마다 파아란 우유차를 끌고 오던 늙은이는 지금은 없다 바알간 석양 비스듬히 십자가 교회당 하얀 꼬리를 흔들면서 지나가는 바람결에 항가리아 소녀 탱크에 깔려 간 소녀들의 프란네르 치맛자락이 명멸한다 소롯한 것이 있다 아쉬운 것이 있다 내 어두운 마음의 갤러리에 불을 밝히러 너는 온다 지도를 펴 놓고 이 논샤란스의 지구의 레이아웃(layout)를 가만히 생각해 보자 내일이면 늦으리 눈이 자꾸 쌓인다. <조향, 검은 전설, 자유문학, 1958. 12>

*a 프레스코화

시스타나 성당의 프레스코화처럼. <이진호, 십자가 1, 달이 지는 곳으로, 청하, 1990>

*a 피성하다

벌개누됴녘에서 바리깨를 두드리는 쇳소리가 나면 / 누가 눈을 앓아서 부증이 나서 찰거마리를 부르는 것이다 / 마을에서는 피성한 눈슬ㄱ에 저린 팔다리에 거마리를 붙인다 <백석, 오금덩이라는 곳, 사슴, (자가본),

1936>

*a 피수포(被首布)

내 생명의 새벽이 사라지도다 / 그립다 내 생명의 새벽—설워라 나 어릴 그때도 지나간 검은 밤들과 같이 사라지려는도다 / 성녀의 피수포(被首布)처럼 더러움의 손 입으로는 감히 대이기도 부끄럽던 아가씨의 목— / 젖가슴빛 같은 그때의 생명! <이상화, 그날이 그립다, 상화와 고월, 미발표, 1951>

*a 필연상(筆硯床)

인젠 / 할아버지의 부싯돌은 / 필연상(筆硯床) 어느 구석에 숨어 있는지 / 모르지만, / 할아버지 산소엘 / 성묘 가는 팔월이면 <신석정, 오는 팔월(八月)에도, 빙하(氷河), 정읍사, 1956>

*a 하루품

안지랭이* 개천가에 새벽 안개 깔릴 때 / 발자욱 터벅터벅 어둠을 밟고 / 낯선 사내들이 모여드는데 / 누구냐 하면 미장공 목공 노가다들 / 하루품 팔려가기를 기다린다 이거라. <하종오, 노동시장, 사월에서 오월로, 창작과비평사, 1984>

*a 하마배(下馬拜)

충신(忠臣)의 남긴 뜻이 돌에 스며 붉었으니 / 하마배(下馬拜) 하온 이들 몇 만(萬)인지 모르리만 / 돌아가 행(行)하신 이는 몇 분이나 되는고 <이은상, 선죽교(善竹橋), 노산시조집(鷺山時調集), 한성도서주식회사, 1932>

*a 하빈(河濱)

어디로 간들 / 숨통이 트이랴, / 여뀌풀 흐드러진 하빈(河濱) / 기(氣)를 돌린다. / 저자의 왁자지껄 / 들 앞에서 멈추고, / 거무튀튀한 쓰거운 물이 / 창자를 훑는다. / 내 생애의 만 리(萬里)의 구름, / 잣 씹는 어금니의 허전한 새벽. / 예서 살으리 / 발굽 닳을 때까지! <민영, 답십리(踏十里), 용인(龍仁) 지나는 길에, 창작과 비평사, 1977>

*a 하야식(下野式)

긴 겨울 이야기는 / 끝나지 않았다 / 모두 발버둥치는 벌판에 / 풀잎은 돋아나고 / 오직 자유만을 그리워했다 / 꽃을 꺾으며 / 꽃송이를 꺾으며 덤벼드는 / 난군(亂軍) 앞에 / 이빨을 악물며 견디었다 / 나는 떠나련다 / 서울을 떠나련다 / 고향을 가려고 / 농토를 찾으려고 가는 것은 / 아니겠지 / 이 못된 손아귀에서 / 벗어나는 것만이 / 옥토를 지키는 것 / 봄은 오는데 / 긴 겨울 이야기는 / 끝나지 않았다 / 오랜 역사의 악몽 속에서 / 어서 깨어나 어서 깨어나 / 보리밭에 녹두밭에 / 석유냄새 토하며 쓰러질 / 서울 하야식(下野式) / 외진 남산 기슭의 진달래야 / 찬 북

녘 바람은 알겠지 / 소금장수 / 쌀장수 / 갈 곳도 없는 / 고향도 없는 / 어서 서울을 떠나야지 / 서울을 떠나야지 <박봉우, 서울 하야식(下野式), 휴전선, 정음사, 1957>

*a 하역장

부두(埠頭)를 나는 / 배고픈 갈매기들. / 기름 위에 뜬 밥풀을 쪼아올리며 / —이거 정말 못 살갔쉐다가레. / —므스거 그 따위 마르 하지비. / 늙은 갈매기는 수척한 목소리로 / 서로를 위무하며 / 하역장에서 얌생이를 치고 있었지. / 어디선가 들리는 확성기는 / —켓세라, 켓세라. / 신의 음성처럼 고귀한 격려를 보내고 있었다. <박남수, 비가(悲歌)&2&, 갈매기 소묘(素描), 춘조사, 1958>

*a 하적(荷積)되다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들은 / 하늘다운 하늘 한 번 못 보고 / 빛다운 빛 한 줄기 얻어먹지 못하고 / 세월의 쓰레기로 하적(荷積)되고 있었다. <정동주, 첫날. 성전(聖殿)에서, 순례자, 민음사, 1984>

*a 하회(河回)

하회(河回) 탈춤에라도 나올 것 같은 / 맘좋은 초면(初面)의 미국시인(美國詩人)이여, <김종길, 수국(水菊)&3&, 하회에서, 민음사, 1977>

냇물이 마을을 돌아 흐른다고 하회(河回), / 오늘도 그 냇물은 흐르고 있다. <김종길, 하회(河回)에서, 하회에서, 민음사, 1977>

사람 사이에 사람이 들켜 사람이 될 때 / 들키지 않았다면 / 사람 사는 거리를 옅은 안개처럼 떠돌며 /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중간에서 / 보이는 것을 그리워하는 안보이는 것이 되어 / 혹은 하회(河回)를 싸고 도는 낙동강 물이 되어 / 하회(河回)탈을 비출 수 있었을 것인가 / 웃는 탈과 우는 탈 성난 탈을 동시에 비추는, / 그 뒤에 숨어 있는 또 하나의 탈을 비추는, <황동규, 겨울의 빛, 악어를 조심하라고?, 문학과 지성사, 1986>

*a 한가람

한가람 청풍(淸風) 물 위를 스치고 가니 / 기슭에 나룻배엔 등불만 조을고 / 사공의 노랫가락 마디마디 구슬퍼 / 호수같이 고요하던 마음 바다에 잔물결 이니 / 한때의 옛 곡조 다시 떠도네 <노천명, 포구의 밤, 산호림, 자가본, 1938>

허나 한 줄기 두 줄기 / 모이고 또 모여 / 시내가 되고 폭포를 이뤄 / 한가람 흘러 흘러 바다로 바다로. <박아지, 그날의 데모, 심화(心火), 우리문화사, 1946>

*a 한겹다

내 손이 그 나래를 상하지나 않았을까 / 한겨운 그 죽음을 지은 이가 / 아아 내 뜻이었다면 내 손길이었다

면 / 어이하랴, 이 한탄은 너무나 길어지리니 <모윤숙, 남빛 새, 옥비녀, 동백사, 1947>

*a 한끝나다

마을에서는 세 벌 김을 다 매고 들에서 / 개장취념을 서너 번 하고 나면 / 백중 좋은 날이 슬그머니 오는데 / 백중날에는 새악시들이 / 생모시치마 천진푀치마의 물팩치기 껑추렁한 치마에 / 쇠주푀적삼 항라적삼의 자지고름이 기드렁한 적삼에 / 한끝나게 상나들이옷을 있는 대로 다 내 입고 / 머리는 다리를 서너 커레씩 들어서 / 시뻘건 꼬둘채댕기를 삐뚜룩하니 해 꽂고 / 네날백이 따배기신을 맨발에 바꿔 신고 / 고개를 몇이라도 넘어서 약물터로 가는데 / 무썩무썩 더운 날에도 벌 길에는 / 건들건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 허리에 찬 남갑사 주머니에는 오랜만에 돈푼이 들어 즈벅이고 / 광지보에서 나온 은장도에 바늘집에 원앙에 바둑에 / 번들번들하는 노리개는 스르럭스르럭 소리가 나고 / 고개를 몇이라도 넘어서 약물터로 오면 / 약물터엔 사람들이 백재일 치듯 하였는데 / 붕가집에서 온 사람들도 만나 반가워하고 / 깨죽이며 문주며 섶가락 앞에 송구떡을 사서 권하거니 먹거니 하고 / 그러다는 백중 물을 내는 소내기를 함뿍 맞고 / 호주를하니 젖어서 달아나는데 / 이번에는 꿈에도 못 잊는 붕가집에 가는 것이다 / 붕가집을 가면서도 칠월(七月) 그믐 초가을을 할 때까지 / 평안하니 집살이를 할 것을 생각하고 / 애끼는 옷을 다 적시어도 비는 시원만 하다고 생각한다 <백석, 칠월(七月) 백중, 문장, 1948. 10>

*a 한련화

그대는 천상으로 날아가며 / 구름속에 하늘한 꽃이파리 / 누가 그대를 하늘의 나비로 그려 / 적(笛) 불며 깊은 푸름 속으로 / 날아가게 하였던가 / 먼 우리 조상들 / 아득한 고려인들의 신비로운 솜씨가 / 이곳에 있다 / 주황색 옷자락을 펄렁거리며 / 선연히 검은 눈썹이여 / 금세 피어난 한련화 / 선녀 / 애무당 / 꽃같은 님의 얼굴이여. <신석초, 선녀(仙女) 비천(飛天), 수유동운(水踰洞韻), 조광출판사, 1974>

*a 한파수

한파수에 열 두 벌씩 깎아도 / 동이 나서 미리 마춰야 하던 / 전성시대(全盛時代)는 가고 / 진상(進上)할 님조차 없어 / 쭈그리고 앉아 / 돌아오지 않는 장꾼을 기다린다. <임홍재, 안성(安城)장날, 청보리의 노래, 문학세계사, 1988>

*a 함묵(喊默)

함묵(喊默)의, / 그러나 눈물겹게 유정한, / 신록(新綠)뿐인가, 아 신록(新綠)뿐인가? <김종길, 신록(新

綠)&5&, 황사현상, 민음사, 1986>

*a 함함이

그대의 함함이 빗은 머리결에는 / 새빨간 동백꽃이 핀다. <조지훈, 여인, 여운, 일조각, 1964>

*a 항가(巷街)

저문 항가(巷街)를 싸다니다가 / 극장 앞에서나 어느 기억의 점방(店房)에서 / 우연히 마주치는 것도 아니요, <박화목, 다시 만나는 날, 그대 내 마음의 창가에 서서, 보문출판사, 1960>

*a 항분(亢奮)

검은 베일을 쓰고 오는 젊은 여승(女僧)들의 부르짖음 / 고이한 소리! 발밑을 지나며 흑흑 느끼는 건 / 어느 사원(寺院)을 탈주해 온 어여쁜 청춘의 반역인고? / 시들었던 내 항분(亢奮)도 해조처럼 부풀어오르는 이 밤에. <이육사, 해조사(海潮詞), 풍림, 1937>

*a 항적(航笛)

부우—ㅇ— / 항적(航笛)이 하늘 우에서 울면 / 헐어진 구름도 모여 운다 <김용호, 항구(港口)&2&, 향연(饗宴), (동경), 1941>

*a 항진(抗進)

태풍 속에 항진(抗進)을 계속해 온 귀와 / 원정(遠征)의 깃대를 높이 세운 가슴들도 / 살아 있다. <조정권, 구름의 편지, 산정묘지, 민음사, 1991>

*a 항천(抗天)

진실론 평생(平生)에 한번인들 있을락 말락한 / 사랑이나 싸움을 위하여 상속받은 무기(武器)가 아니라 / 차라리 항거(抗拒)를 스스로 막는 전위(前衛)와 / 순종에의 서약을 담보하는 한 쌍 뿔— / 천심(天心)을 겨눈 미묘 무한폭의 전개각(展開角)은 / 곧 항천(抗天)의 예봉(銳鋒)인가, / 대천(戴天)의 지주(支柱)인가. <설창수, 역우(役牛), 개폐교, 백양당, 1950>

*a 해우소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 한꺼번에 싸게 사서 / 마구 쓰다가 /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며 /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 시우쇠처럼 나를 달구고 / 모루 위에서 벼리고 / 숫돌에 갈아 / 시퍼런 무쇠낫으로 바꾸고 싶다 / 땀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낸 / 꼬부랑 호미가 되어 /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 온통 부끄러워지고 / 직지사 해우소

/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 어딘가 걸려 있고 싶다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 좀팽이처럼, 문학과지성사, 1988>

*a 해원신

나무 태극귀신 해원신 / 나무 문학귀신 대길신 / 나무 사월귀신 보신신 / 나무 오월귀신 오살신 / 그나마 늦은 귀신 나무 시월귀신 마하살 / 어라 태극귀신 내려온다 문학귀신 내려온다 바람과 구름 사이 푸른 중생 내려온다 붉은 중생 내려온다 나무 자기반성인지 나무 작위반생인지 은산 가서 은을 뜨고 금산 가서 금을 떠서 일생에 덩더쿵 평생에 까강까강 워낙 바쁜 문학 내려와서 좋은 것이 아니니 노지 못하리라 내 사랑 주지 말고 남 사랑 두지 말며 틈틈이 입을 열고 열고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서 어지러운 사바세계 의지할 곳 가이 없어 이 내 중생 골고루 콘돔 나무 글로리 콘도미니엄 속에서 춤추고 까불기를 어화둥둥 내 사랑아 칠년 대한 가문 날에 빗살같이 반긴 문학 영자에 순자에 하루만 못 봐도 못 살 문학 이렇게 오진 사랑 처음 보겠네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 나무 태극귀신 해원신 / 나무 문학귀신 대길신 / 나무 사월귀신 보신신 / 나무 오월귀신 오살신 / 나무 시월귀신 마하살 옴 하나 하나 마나. <박태일, 문학거리 노래, 가을 악견산, 문학과지성사, 1989>

*a 해피엔딩

가거라 38선, 그러나 / 이제는 해피엔딩을 경계해도 좋다. <이세룡, 지구인, 종이로 만든 세상, 고려원, 1992>

*a 핼쓱하다

격포로 가는 차창에 / 사각으로 어린, / 야위고 핼쓱한 얼굴에 청청한 눈빛 / 원근의 산봉우리들 그 안에 와 / 못다한 사연들을 풀어놓는다. <강희근, 전라도 기행 1, 사랑제 이후, 홍익출판사, 1987>

*a 햇츩방석

노란 싸릿잎이 한 불 깔린 토방에 햇츩방석을 깔고 / 나는 호박떡을 맛있게도 먹었다 <백석, 여우난골, 사슴, (자가본), 1936>

*a 행이불언(行而不言)하다

검정 사포를 쓰고 뚝딱선을 내리면 / 우리 고향의 선창 가는 길보다도 사람이 많았소 / 양지바른 뒷산 푸른 송백을 끼고 / 남쪽으로 트인 하늘은 깃발처럼 다정하고 / 낯설은 신작로 옆대기를 들어가니 / 내가 크던 돌다리와 집들이 / 소리 높이 창가하고 돌아가던 / 저녁놀이 사라진 채 남아 있고 / 그 길을 찾아가면 / 우리 집은 유약국 / 행이불언(行而不言)하시는 아버지께선 어느덧 / 돋보기를 쓰시고 나의 절을 받으

시고 / 헌 책력(冊曆)처럼 애정에 낡으신 어머님 옆에서 / 나는 끼고 온 신간을 그림책인 양 보았소 <유치환, 귀고(歸故), 생명의 서, 행문사, 1947>

*a 행정(杏亭)

솔개 그림자 / 스치는 / 행정(杏亭) 마슬 / 그대 / 팔꿈치로 / 그리는 / 소금쟁이 / 잠자리 아재비 / 물방개 / 지우고 지우고 / 그대 / 발꿈치로 / 그리는 / 엉겅퀴 / 도깨비 바늘 / 괭이풀 / 지우고 지우고 / 오 그대 / 가장 뜨거운 / 입김으로 / 그리는 / 쇠죽가마 / 불씨 / 하나뿐인 젊음 / 하나뿐인 노래. <박용래, 쇠죽가마, 백발의 꽃대궁, 문학예술사, 1980>

*a 행진열(行進列)

존재(存在). / 용무도 없는 존재(存在) / 뼈만 길은 계절이 / 침묵을 틀어안고 / 소년(少年)을 울고 간다. / 동그스럼한 행진열(行進列)을 따라 <김용태, 검은 존재(存在), 원형을 찾아서, 현대문학사, 1975>

*a 향등(香燈)

창검(槍劍) 부러지고 향등(香燈)도 꺼진 뒤에 / 남북(南北) 구정(球庭)이 이랑이랑 밭이 되어 / 석양(夕陽)에 찾아온 손을 울려 돌려보내더라 <이은상, 구정(球庭), 노산시조집(鷺山時調集), 한성도서주식회사, 1932>

*a 향랑

가슴에 지닌 향랑보다 / 너는 언제고 마음이 더 향그러워라 <노천명, 여인부(女人賦), 창변, 매일신보사, 1945>

*a 향물

내 이제 이 세상에 뫼을 임 없사오니 / 분인들 바르리까? 향물인들 뿌리리까? / 단장을 버리나이다. 누더기를 입나이다. <이광수, 단장을 버리나이다, 춘원시가집(春園詩歌集), 박문서관, 1940>

*a 향탑(香榻)

명산대찰이 그 어느메냐 / 향안(香案), 향탑(香榻), 대그릇에 / 석양이 산머리 넘어가고 / 사면에 백여 리, 물소리라 <김소월, 집 생각, 진달래꽃, 매문사, 1924>

*a 허량(虛凉)

공산(空山)에 사람 없고 수류화개(水流花開) 뿐이로다 / 희암(希菴)의 노든 그때 글씨 아니 머무른가 / 허량(虛凉)은 예런듯한대 간 일 아득하고녀 / 아심도 많거니와 영롱(玲瓏)함도 짝이 없네 <정인보, 소광암(昭曠巖), 담원시조, 을유문화사, 1948>

*a 허방세계(虛方世界)

그러나, / 낡은 거미줄로 뒤덮인 내

기억의 시계는 / 영원히 멈춰져 있네 / 깊은 잠 속에서 깨어나지 않네 /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있는 허방세계(虛方世界)에 / 녹슨 닻을 내리고 있네 / 그대를 생각하며, 그대를 꿈꾸며, 그대를 그리워하며. <서원동, 겨울 강(江)가에서 1, 현대문학 93년 7월호, 1993>

*a 허청하다

훨훨 날아다니는 새의 나라에도 / 이룰 수 없어 허청한 일 매한가지냐. <장서언, 우는 나무, 장서언시집, 신구문화사, 1959>

*a 허허망망하다

울림(鬱林)도 오솔길도 없는 / 경비대(警備隊)도 보루(堡壘)도 없는 / 허허망망한 궁륭(穹隆)을 날어 / 너, 대한(大韓)의 호반 이제 왔는가. <조영암, 비상(飛翔), 시산(屍山)을 넘고 혈해(血海)를 건너, 정음사, 1951>

*a 허환(虛幻)하다

금강! 너는 완미한 물(物)도 허환(虛幻)한 정(精)도 아닌—물과 정의 혼융체 그것이며, 허수아비의 정(靜)도 미쳐 다니는 동(動)도 아닌—정과 동의 화해기 그것이다. 너의 자신이야말로 천변만화(千變萬化)의 영혜(靈慧) 가득 찬 계시이어라. 억대조겁(億代兆劫)의 원각(圓覺)덩어리인 시편이어라. 만물상이 너의 혼융에서 난 예지가 아니냐. 만폭동이 너의 지해(知諧)에서 난 선율이 아니냐. 하늘을 어루만질 수 있는 비로(毘盧)—미륵이 네 생명의 승앙(昇昻)을 보이며 바다 밑까지 꿰뚫은 팔담(八潭), 구룡이 네 생명의 심삼(深滲)을 말하도다. <이상화, 금강송가(金剛頌歌), 여명, 1925. 9>

*a 험렬(險烈)하다

십이월의 북만(北滿) 눈도 안 오고 / 오직 만물을 가각(苛刻)하는 흑룡강 말라빠진 바람에 헐벗은 / 이 적은 가성(街城) 네거리에 / 비적(匪賊)의 머리 두 개 높이 내걸려 있나니 / 그 검푸른 얼굴은 말라 소년같이 적고 / 반쯤 뜬 눈은 / 먼 한천(寒天)에 모호히 저물은 삭북(朔北)의 산하를 바라고 있도다 / 너희 죽어 율(律)의 처단이 어떠함을 알았느뇨 / 이는 사악(四惡)이 아니라 / 질서를 보전하려면 인명(人命)도 계구와 같을 수 있도다 / 혹은 너의 삶은 즉시 / 나의 죽음의 위협을 의미함이었으리니 / 힘으로써 힘을 제(除)함은 또한 / 먼 원시에서 이어 온 피의 법도로다 / 내 이 각박한 거리를 가며 / 다시금 생명의 험렬(險烈)함과 그 결의(決意)를 깨닫노니 / 끝내 다스릴 수 없던 무뢰한 넋이여 명목(瞑目)하라! / 아아 이 불모한 사변(思辯)의 풍경 위에 / 하늘이여 은혜하여 눈이라도 함빡 내리고지고 <유치환, 수(首), 생명의 서, 행문사, 1947>

*a 험온(驗溫)

천진(天眞)한촌락(村落)의축견(畜犬) 들아짖지말게나 / 내험온(驗溫)은적당(適當)스럽거니와 / 내희망(希望)은감미(甘美)로웁다 <이상, 공복(空腹), 조선과 건축, 1931. 7>

*a 현군양상(賢君良相)

시(詩)를 쓰되 좀스럽게 쓰지 말고 뚝 이렇게 쓰랏다. / 내 어쩌다 붓끝이 험한 죄로 칠전에 끌려가 / 볼기를 맞은지도 하도 오래라 삭신이 근질근질 / 방정맞은 조동아리 손목댕이 오물오물 수물수물 / 뭐든 자꾸 쓰고 싶어 견딜수가 없으니, 에라 모르것다 / 볼기가 확확 불이 나게 맞을때는 맞더라도 / 내 별별 이상한 도둑이야기를 하나 쓰것다. / 옛날도 먼옛날 상달 초사흘날 백두산 아래 나라선 뒷날 / 배꼽으로 보고 똥구멍으로 듣던중엔 으뜸 / 아동방(我東方)이 바야흐로 단군이래 / 으뜸가는 태평 태평 태평성대라 / 그 무슨 가난이 있겠느냐 / 포식한 농민은 배터져 죽는 게 일쑤요 / 비단옷 신물나서 사시장철 벗고사니 / 고재봉 제 비록 도둑이라곤 하나 / 공자님 당년에도 도척이 났고 / 부정부패 가렴주구 처처에 그득하나 / 요순시절에도 사흉은 있었으니 / 아마도 현군양상(賢君良相)인들 세살 버릇 도벽(盜癖)이야 / 여든까지 차마 어찌할수 있겠느냐 / 서울이라 장안 한복판에 다섯 도둑이 모여 살았것다. / 남녘은 똥덩어리 둥둥 / 구정물 한강가에 동빙고동 우뚝 / 북녘은 털빠진 닭똥구멍 민둥 / 벗은 산 만장아래 성북동 수유동 뾰족 / 남북간에 오종종종 판잣집 다닥다닥 / 게딱지 다닥 코딱지 다닥 그 위에 불쑥 / 장충동 약수동 솟을대문 제멋대로 와장창 / 저솟구싶은대로 솟구쳐 올라 삐까번쩍 / 으리으리 꽃궁궐에 밤낮으로 풍악이 질펀 떡치는 소리 쿵떡 / 예가 바로 재벌, 국회의원, 고급공무원 / 장성, 장차관이라 이름하는, / 간뗑이가 부어 남산만하고 목질기기는 동탁배꼽 같은 / 천하흉포 오적(五賊)의 소굴이렷다. / 사람마다 뱃속이 오장육보로 되었으되 / 이놈들 배안에는 큰 황소불알만한 도둑보가 곁붙어 오장칠보, / 본시 한 왕초에게 도둑질을 배웠으나 재조는 각각이라 / 밤낮없이 도둑질만 일삼으니 그 재조는 또한 신기(神技)에 이르렀겄다. / — 하략 — <김지하, 오적(五賊), 사상계, 1970>

*a 현금(絃琴)

그 뒤에 댕기는 음식과 어둠은 / 원바다의 고기떼처럼 살 속에서 놀아 / 아픔으로 훤히 밝기도 하며 / 오감(五感)의 현금(絃琴)들은 타오르고 떨리어 / 아픈 혼(魂)만큼이나 싸움을 익혀가느니. <정현종, 화음(和音)&3&, 고통의 축제, 민음사, 1974>

*a 현매(眩昧)

눈 눈 흰 눈—아니, 샛파란 눈—— / 꼬리를 살살 치는 어여쁜 백호(白狐)—도화(道化)의 요희(妖姬) / 뻐가 저린 술에 취한 듯이 / 현매(眩昧)에 달려가는 내 혼(魂)의 발걸음 / 산으로 들로 바다로 하늘가으로 / 먼 암사(暗死)의 나라로 끝없는 '팔랑개비'의 나라로——. / 아아 쓰리기도 하여라 / 피묻은 단의(單衣)를 휘감은 듯한 나의 혼(魂)은 / 밤놀의 휘장들린 동살지대(凍殺地帶)에 서서 / 달의 해골(骸骨)이 눈땅의 빰을 갈길 때 / 그는 가슴을 움켜쥐고 / 누구를 찾아 호곡(號哭)하다 / 최후(最后)의 심판정(審判廷)이나 다다른 듯이, <조명희, 눈[雪, 1924>&26& / 봄 잔디밭 위에, 춘추각]

*a 현빈(玄牝)

뭇사람이 싫어서 내가 싫고 / 싫음이 싫으면 죽음으로 원(圓)으로, / 피묻은 나선(螺線)을 / 미치게 두루 돌며 기어 오른다. / 왜란(倭亂)과 호란(胡亂)과 양요(洋擾)를 겪고 / 움직여야 하니까 동란(動亂)을 거쳐, / 목이며 사지(四肢)가 / 갈라지다 합치고 하는 사이에 / 역사(歷史)가 넣은 / 주릿대가 틀리는데, / 나날이 넓어가는 / 어두운 하늘을 / 밝히려고 밝히려고 애타는 것은 / 스스로 어둠인 까닭이라는 / 까닭 모를 슬픔뿐. / 현빈(玄牝)이 방사능(放射能)을 쬐는 골짜기에선, / 핏줄과 죄악(罪惡)이 끈끈한 대로 / '이놈'과 '네네'가 같은 자리다. / 자복(雌伏)하는 영웅(英雄)들을 / 위장(胃腸)으로 생각하며 / 뇌수(腦髓)로 먹는 시민(市民)을 / 안녕히 숨지지 말고 / 마구 욕하라. / 명백(明白)히 박명(薄命)이며 / 빛을 바라는 / 눈 뜬 송장이며 / 눈 감은 목숨들이 / 의안(義眼)과 의지(義肢)로 의리(義理)를 지켜간다. / 이마에 해를 받고 / 밭을 갈던 조상(祖上)들이 / 추위가 정규군(正規軍)을 몰고 오면은 / 남(南)으로 남(南)으로 어머니 뱃 속으로— / 물고기처럼 뛰놀던 시절이여! / 바닷가라면 돌아서야만 한다. / 사화(士禍)가 오히려 사복(士福)인 양하여 / 백화점(百貨店)이 아니면 은행(銀行)으로 가거나, / 시장(市場)이 아니면 술집에서 살아간다. / 눈 앞을 휘황히 가려주는 / 번뇌(煩惱)가 배어 고독(孤獨)이 낳은 딸이 죽은 뒤에, / 안으로 들어가면 / 의증(疑症)으로, / 밖으로 나가면 / 번개로 치시는 분! / 어떻게가 그렇게 / 되지 않는 내일이 / 어저께라면, / 안개가 눈물이라 / 빛처럼 찬송(讚頌)한다. <송욱, 하여지향(何如之鄕) 3, 하여지향, 일조각, 1961>

*a 현암(玄暗)

억만 광년의 현암(玄暗)을 거쳐 / 나의 목숨 안에 와 닿는 / 한 개의 별빛 <신동집, 목숨, 서정의 유형, 영웅출판사, 1954>

*a 현해(玄海)

현해(玄海) 바다 저쪽 큰 별 하나이 우리의 머리 위를 비출 뿐, / 아무것도 우리의 마음을 모르는 않는다만, / 아아, 우리는 스스로 명령에 순종하는 청년이다. <임화, 밤 갑판 위, 현해탄, 동광당서점, 1938>

*a 현회(玄晦)

아시아의 침묵(沈默)과 정밀(靜謐)과 유적(幽寂)과 고담(枯淡)과 전아(典雅)와 곡선(曲線)과 여운(餘韻)과 현회(玄晦)와 유영(幽影)과 후광(後光)과 또 자미(滋味) 제호미—는 아시아의 밤신(神)들의 향연(饗宴)의 교향곡(交響曲)의 악보(樂譜)인저 / 오—숭엄(崇嚴)하고 유현(幽玄)하고 신비(神秘)롭고 불가사의(不可思議)한 아시아의 밤이여! <오상순, 아시아의 마지막 밤 풍경(風景), 공초오상순시선(空超吳相淳詩選), 자유문화사, 1963>

*a 혈강(血江)

타는 혈강(血江)띠 숙연(肅然)한 대해(大海), / 아! 급기야 지는 낙일(落日)이 끌고 발버둥치고 흐르고 목놓아 울제 / 내 채운(彩雲)을 헤쳐 서(西)으로…… 서(西)으로…… 어족(魚族)의 행렬(行列)을 넘어서 / 차라리 뛰어들까나? 그 도가니에 이 몸도 녹일까나? <임학수, 갈매기의 노래, 후조(候鳥), 한성도서주식회사, 1939>

*a 혈적(血滴)

마지막 내려 덮는 바위 같은 어둠을 어떻게 당신은 버틸 수가 있었는가? 뜨물 같은 치욕(恥辱)을, 불붙는 분노(憤怒)를, 에어 내는 비애(悲哀)를, 물새 같은 고독(孤獨)을 어떻게 당신은 견딜 수 있었는가? 꽝꽝 쳐 못을 박고, 창(槍)끝으로 겨누고, 채찍질해 때리고, 입맞추어 배반(背叛)하고, 매어 달아 죽이려는, 어떻게 그 원수(怨讐)들을 사랑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강(强)할 수가 있었는가? 파도(波濤)같이 밀려오는 승리(勝利)에의 욕망(欲望)을 어떻게 당신은 버릴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패(敗)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약(弱)할 수가 있었는가? / 어떻게 당신은 이길 수가 있었는가? 방울방울 땅에 젖는 스스로의 혈적(血滴)으로, 어떻게 만민(萬民)들이 살아날 줄 알았는가? 어떻게 스스로가 신(神)인 줄을 믿었는가? 커다랗게 벌리어진 당신의 두 팔에 누구나 달려들어 안길 줄을 알았는가? 엘리…… 엘리…… 엘리…… 엘리…… 스스로의 목숨을 스스로가 매어 달아, 어떻게 당신은 죽을 수가 있었는가? 신(神)이여! 어떻게 당신은 인간(人間)일 수 있었는가? 인간(人間)이여! 어떻게 당신은 신(神)일 수가 있었는가? 아! 방울방울 떨구어지는 핏방울은 잦는데, 바람도 죽고 없고 마리아는 우는데, 마리아

는 우는데, 인자(人子)여! 인자(人子)여! 마지막 쏟아지는 폭포(瀑布) 같은 빛줄기를 어떻게 당신은 주체할 수 있었는가? <박두진, 갈보리의 노래 2, 거미와 성좌(星座), 대한기독교서회, 1962>

*a 혈한(血恨)

오 드디어 천심(天心)에 닿은 혈한(血恨)의 불길 <최재형, 군가(軍歌), 한화집(寒火集), 현대사, 1953>

*a 협궤열차

협궤열차는 서서 / 기적만 울리고 좀체 떠나지 못한다 <신경림, 군자(君子)에서, 새재, 창작과비평사, 1979>

*a 형이상학자(形而上學者)

'밀크' 대신에 / 바람을 먹는 '아드발룬' / 터지면 형이상학자(形而上學者). <김종문, 완구점(玩具店), 한국전후문제시집, 신구문화사, 1963>

*a 형자(刑姿)하다

슬프게도 가멸(可滅)한 목숨을 내게 보내 / 스스로를 엄연히 형자(刑姿)하듯이 / 다만 흙과 바위로 된 산악이여, 너희가 있으므로 / 이 무량광대한 실재— / 시방 저 영취산(靈鷲山) 연봉(連峰) 위에 커다랗게 날개 펴뜨리고 / 걸터 있는 것 <유치환, 창천(蒼天)에 취(醉)하다, 제 9시집, 한국출판사, 1957>

*a 호개

바람소리도 호개도 인젠 무섭지 않다만 / 어두운 등불 밑 안개처럼 자욱한 시름을 달게 마시련다만 / 어디서 흉참한 기별이 뛰어들 것만 같애 / 두터운 벽도 이웃도 못 미더운 북간도 술막 <이용악, 전라도 가시내, 오랑캐꽃, 아문각, 1947>

어디서 호개 짖는 소리 / 서리 한 갈밭처럼 어수선타 / 깊어 가는 대륙의 밤— <이용악, 제비 같은 소녀야, 분수령, 삼문사, 1937>

*a 호루기

전복에 해삼에 도미 가재미의 생선이 좋고 / 파래에 아개미에 호루기의 젓갈이 좋고 <백석, 통영(統營) -1-, 조선일보, 1935. 1. 23>

*a 호마로(胡馬路)

시(詩)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나 / 서른 먹은 사내가 하나 잠을 못 잔다. / 먼— 기적 소리 처마를 스쳐가고 / 잠들은 아내와 어린것의 베개맡에 / 밤눈이 내려 쌓이나 보다. / 무수한 손에 뺨을 얻어맞으며 / 항시 곤두박질해 온 생활의 노래 / 지나는 돌팔매에도 이제는 피곤하다. / 먹고 산다는 것, / 너는 언제까지 나를 쫓아오느냐. / 등불을 켜고 일어나 앉는다. / 담배를 피워 문다. / 쓸쓸한 것이 오장을 씻어 내린다. / 노신(魯

迅)이여 / 이런 밤이면 그대가 생각난다. / 온—세계가 눈물에 젖어 있는 밤. / 상해(上海) 호마로(胡馬路) 어느 뒷골목에서 / 쓸쓸히 앉아 지키던 등불 / 등불이 나에게 속삭어린다. / 여기 하나의 상심(傷心)한 사람이 있다. / 여기 하나의 굳세게 살아온 인생이 있다. <김광균, 노신(魯迅), 황혼가, 산호장, 1959>

*a 호막(浩漠)하다

널처럼 / 서산(西山)에 적막을 지고 와 어스름이 앉아 있다. / 지고 온 적막을 허공과 들에 내려주고 있다. / 그 너머 / 뒷전에 커다란 검정 치마폭을 날리며 / 처져서 오고 있는 밤의 모습이 보인다. / 마른 쑥방맹이에 내려준 적막을 불붙여 들고 / 먼 들의 나무들이 집을 나선다. / 찾아드는 밤의 앞길을 비추러 나선다. / 누가 호막(浩漠)한 천지(天地)에 슬픔을 / 환히 불피웠는가. / 왕겨처럼 슬픔의 재티들이 날고 / 까맣게 허공의 몸이 끄슬려 / 시오리에 걸린다. / 서산(西山)에 죽음을 지고 넘어오는 밤이 보인다. <홍신선, 어스름이 와서, 서벽당집, 한얼문고, 1973>

*a 호박떼기

저녁술을 놓은 아이들은 외양간섶 밭마당에 달린 배나무 동산에서 쥐잡이를 하고 숨굴막질을 하고 꼬리잡이를 하고 가마 타고 시집가는 놀음 말 타고 장가가는 놀음을 하고 이렇게 밤이 어둡도록 북적하니 논다 / 밤이 깊어가는 집안엔 엄매는 엄매들끼리 아르간에서들 웃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웃간 한 방을 잡고 조아질하고 쌈방이 굴리고 바리깨돌림하고 호박떼기하고 제비손이구손이하고 이렇게 화디의 사기방등에 심지를 몇 번이나 돋구고 홍게닭이 몇 번이나 울어서 졸음이 오면 아릇목 싸움 자리 싸움을 하며 히드득거리다가 잠이 든다 그래서는 문창에 텅납새의 그림자가 치는 아침 시누이 동세들이 욱적하니 홍성거리는 부엌으론 샛문틈으로 장지문틈으로 무이징게국을 끓이는 맛있는 내음새가 올라오도록 잔다 <백석, 여우난골족(族), 사슴, (자가본), 1936>

*a 호야불

호야불마저 네가 그리워 / 쐐—하고 우짖는 이 밤 <김용호, 별리(別離), 향연(饗宴), (동경), 1941>

*a 호저(湖底)

바람도 숨고 벌레도 울지 않는 / 밤은 이제 호저(湖底)처럼 고요하다 <장만영, 별 2&2&, 양(羊), 자가본, 1937>

*a 호주룰하다

마을에서는 세 벌 김을 다 매고 들

에서 / 개장취념을 서너 번 하고 나면 / 백중 좋은 날이 슬그머니 오는데 / 백중날에는 새악시들이 / 생모시치마 천진푀치마의 물팩치기 껑추렁한 치마에 / 쇠주푀적삼 항라적삼의 자지고름이 기드렁한 적삼에 / 한끝나게 상나들이옷을 있는 대로 다 내 입고 / 머리는 다리를 서너 켜레씩 들어서 / 시뻘건 꼬둘채댕기를 삐뚜룩하니 해 꽂고 / 네날백이 따배기신을 맨발에 바꿔 신고 / 고개를 몇이라도 넘어서 약물터로 가는데 / 무썩무썩 더운 날에도 벌 길에는 / 건들건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 허리에 찬 남갑사 주머니에는 오랜만에 돈푼이 들어 즈벅이고 / 광지보에서 나온 은장도에 바늘집에 원앙에 바둑에 / 번들번들하는 노리개는 스르럭스르럭 소리가 나고 / 고개를 몇이라도 넘어서 약물터로 오면 / 약물터엔 사람들이 백재일 치듯 하였는데 / 붕가집에서 온 사람들도 만나 반가워하고 / 깨죽이며 문주며 섶가락 앞에 송구떡을 사서 권하거니 먹거니 하고 / 그러다는 백중 물을 내는 소내기를 함뿍 맞고 / 호주를하니 젖어서 달아나는데 / 이번에는 꿈에도 못 잊는 붕가집에 가는 것이다 / 붕가집을 가면서도 칠월(七月) 그믐 초가을을 할 때까지 / 평안하니 집살이를 할 것을 생각하고 / 애끼는 옷을 다 적시어도 비는 시원만 하다고 생각한다 <백석, 칠월(七月) 백중, 문장, 1948. 10>

*a 홍게닭

저녁술을 놓은 아이들은 외양간섶 밭마당에 달린 배나무 동산에서 쥐잡이를 하고 숨굴막질을 하고 꼬리잡이를 하고 가마 타고 시집가는 놀음 말 타고 장가가는 놀음을 하고 이렇게 밤이 어둡도록 북적하니 논다 / 밤이 깊어가는 집안엔 엄매는 엄매들끼리 아르간에서들 웃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웃간 한 방을 잡고 조아질하고 쌈방이 굴리고 바리깨돌림하고 호박떼기하고 제비손이구손이하고 이렇게 화디의 사기방등에 심지를 몇 번이나 돋구고 홍게닭이 몇 번이나 울어서 졸음이 오면 아릇목 싸움 자리 싸움을 하며 히드득거리다가 잠이 든다 그래서는 문창에 텅납새의 그림자가 치는 아침 시누이 동세들이 욱적하니 흥성거리는 부엌으론 샛문틈으로 장지문틈으로 무이징게국을 끓이는 맛있는 내음새가 올라오도록 잔다 <백석, 여우난골족(族), 사슴, (자가본), 1936>

*a 홍도화나무

또 다시 사월이 왔다 / 소식이 끊겨졌던 학생들도 돌아왔다 / 친구들도 웃으며 나타났다 / 집 앞 홍도화나무도 새순을 틔웠다 / 악몽으로 뒤척이던 우리의 봄밤 / 새벽별도 다시 빛났다 <김수복, 또 다른 사월, 또다른 사월, 둥지, 1989>

*a 홍등녀(紅燈女)

망명한 귀족에 어울려 풍성한 도박. 컴컴한 골목 뒤에선 눈자위가 시퍼런 청인(淸人)이 괴춤을 흠칫거리며 길 밖으로 달리어간다. 홍등녀(紅燈女)의 교소(嬌笑), 간들어지기야. 생명수! 생명수! 과연 너는 아편을 가졌다. 항시의 청년들은 연기를 한숨처럼 품으며 억세인 손을 들어 타락을 스스로히 술처럼 마신다. <오장환, 해항도(海港圖), 성벽(城壁), 풍림사, 1937>

*a 홍량(弘亮)하다

어느 초월한 악공이 있어 / 널 부러 홍량(弘亮)한 소리를 내어 / 창해에 담뿍 어린 구름을 / 깨끗이 쓸지는 못하는가. <신석초, 적(笛), 바라춤, 통문관, 1959>

*a 홍황(紅黃)

잎은 / 늦서리 나중에 맞고 또 맞으며 / 비로써 홍황(紅黃)으로 어슷비슷 물드니 / 가지 끝마다 / 지는 뒷모습 또한 고요한데 <김정웅, 천로역정(天路歷程), 혹은: 사랑, 그.., 천로역정, 혹은, 문학과지성사, 1988>

*a 화려굉대(華麗宏大)

혹자왈(或者曰) '마의초식(麻衣草食)한 이가 무슨 정(情)에 궁(宮)을 세웠겠느냐. 이는 전설(傳說)이요 사실(史實)은 아니라'고 한다. 답왈(答曰) 그는 잘못이다. 궁이 반드시 화려굉대(華麗宏大)를 뜻함이 아닐지니 일간두옥(一間斗屋)도 태자(太子)가 거(居)하시매 사람들이 말하되 궁(宮)이라 하였으리라. <이은상, 태자궁지(太子宮址), 노산시조집(鷺山時調集), 한성도서주식회사, 1932>

*a 화류(樺榴)나무

둑이 하나 무너지고 있다. / 날마다 무너지고 있다. / 무너져도 무너져도 다 무너지지 않는다. / 나일강변(江邊)이나 한강변(漢江邊)에서 / 여자(女子)들은 따로따로 떨어져서 울고 있다. / 어떤 눈물은 / 화류(樺榴)나무 아랫도리까지 적시고 / 어딘가 둑의 무너지는 부분으로 스민다. <김춘수, 낙일(落日), 남천(南天), 근역서재, 1977>

*a 화리서리

나는 이 마을에 태어나기가 잘못이다 / 마을은 맨천 구신이 돼서 / 나는 무서워 오력을 펼 수 없다 / 저 방안에는 성주님 / 나는 성주님이 무서워 토방으로 나오면 토방에는 디운 구신 / 나는 무서워 부엌으로 들어가면 부엌에는 부뚜막에 조앙님 / 나는 뛰쳐 나와 얼른 고방으로 숨어 버리면 고방에는 또 시렁에 제석님 / 나는 이번에는 굴통 모퉁이로 달아가는데 굴통에는 굴대장군 / 얼혼이 나서 뒤울안으로 가면 뒤울안에는 곱새녕 아래 털능구신 / 나는 이제는 할 수 없이 대문을 열고 나

가려는데 / 대문간에는 근력 세인 수문장 / 나는 겨우 대문을 빠져나 바깥으로 나와서 / 밭 마당귀 연자간 앞을 지나가는데 연자간에는 또 연자당구신 / 나는 고만 기겁을 하여 큰 행길로 나서서 / 마음 놓고 화리서리 걸어가다 보니 / 아아 말 마라 내 발뒤축에는 오나 가나 묻어 다니는 달걀구신 / 마을은 온데간데 구신이 돼서 나는 아무데도 갈 수 없다 <백석, 마을은 맨천 구신이 돼서, 신세대, 1948. 5>

*a 화목색(和睦色)

하긴 그 곳에 벌어지는 사물(事物)은 평범(平凡)하지만, / 나무, 꽃, 바위, 물, 등등(等等)이지만, / 그 조화미(調和美)의 화목색(和睦色)은 순진(純眞)하다네. <천상병, 약수(藥水)터, 주막에서, 민음사, 1979>

*a 화상(華想)

왼갖 화상(華想)이 너를 꼬여도 / 환한 미소(微笑)로서 물리쳐 버리고 / 길들인 소시민(小市民)이 파묻힌 터에 / 진리(眞理)로 무장(武裝)한 투사(鬪士)가 서야 한다 <유진오, 만가(輓歌)&5&, 창(窓), 정음사, 1948>

*a 화색(花色)

해와 달이 바뀌어 가는 / 일월(日月)의 창(窓)밖에 / 사철의 화색(花色)이 스며드니 / 달랠 길 없이 터 오르는 목줄기 / 머리채 검고 눈빛 젖은 / 나이 찬 계집애로 자라나서 / 막을 길 없이 달려가는요 <홍윤숙, 시(詩)의 슬픔, 풍차, 신흥출판사, 1964>

*a 화석(化石)하다

이마에 손을 얹으면 푸른 하늘에도 나타나는 고개가 있는 것이였습니다 / 여윈 무명지(無名指)를 들어 창백(蒼白)한 표석(標石)을 생각합시다. / 생각하여도 생각하여도 마음의 여자(女子)는 화석(化石)한 지 오래였습니다. <함형수, 화석(化石)의 고개, 미발표 / 연도 미상>

*a 화심(火心)

떠나가 버린 사람, 이미 먼 들길 / 가리마 같은 흰 길로 / 목화(木花)꽃 지듯 사라져 버렸는데 / 보람없이 궁구는 태양(太陽)의 안타까운 / 화심(火心)을 향해 / 발버둥치며 가슴의 화살을 쏘고 또 / 쏘는 것 <홍윤숙, 황혼(黃昏)&9&, 여사시집(麗史詩集), 동국문화사, 1962>

*a 화액(花液)

아득한 기억(記憶) 속에 마지막 아마릴리스인 양 / 너와의 약속(約束)이 피어나고 화액(花液)은— / 오히려 죄(罪)와 같이 향기로워 <이한직, 설구(雪衢), 이한직시집, 문리사, 1977>

*a 화염(火炎)

하늘의 왕자(王子), 밝음의 사자(使

者), / 휘황(輝煌)한 화염(火炎)을 내려 쏘든 태양(太陽)이 꺼구러졌다, 서산(西山)에 피를 토(吐)하고. <황순원, 떨어지는 이날의 태양(太陽)은, 방가(放歌), 동경학생예술좌 문예부, 1934>

*a 화영(華榮)

연푸른 전등(電燈)의, 연기 아래서 / 말없는 웃음을 웃고 있는 / 화영(華榮)에 넘치는 한 대(臺)의 화환(花環)! / 그는 사월(四月)의 미풍(微風)의 노래 속에서 / 곱게 자라난 장미(薔薇)의 혼(魂)이러라!! <노자영, 처녀(處女)의 화환(花環), 처녀의 화환, 장문서당, 1929>

*a 화음(和音)하다

저녁 노을에 화음(和音)하면서…… <양명문, 은행(銀杏)나무 산조(散調), 푸른 전설, 동신문화사, 1959>

*a 화정(花精)

초록빛 '조락(凋落)의 바다'를 넘어 / '진홍(眞紅)의 나라', 즐거운 야연(夜宴)에서 / 영원(永遠)이 붉은 입술의 여인(女人), 그는 화정(花精)이러라. <박영희, 조락(凋落)하는 꽃을 따라서, 회월시초, 조선문화사, 1937>

*a 화정장(花程粧)하다

잔디밭에는 / 엷은 햇빛이 화분(花粉)같이 퍼붓고 / 고웁게 화정장(花程粧)한 솔밭 속엔 / 흘러가는 물소리가 가득—하고 <김광균, 창백한 산보, 와사등, 남만서고, 1939>

*a 화주(火柱)

불길은 바람의 멱살을 잡고 / 암흑인 하늘의 가슴을 한껏 두드리고 있지 않은가? / 교목(喬木)들은 어깨를 비비며 불길을 일으키고, / 시들은 풀숲은 불길에 그 몸을 던지며, / 나뭇가지는 하늘 높이 오색의 불꽃을 내뿜지 않는가 / 그리고 삼림은! / 커다란 불길의 날개로 거인인 산악을 그 품에 덤썩 끼고, / 믿음직한 근육인 토양과 철의 골격인 암석을 시뻘겋게 달구면서 / 백척(百尺)의 장검인 화주(火柱)를 두르며, 고원(高遠)한 정신의 뇌명(雷鳴)과 함께 암흑의 세계와 격투하고 있다. / 진실로 영웅인 작열한 전산(全山)을 그 가운데 태우면서…… <임화, 암흑의 정신, 현해탄, 동광당서점, 1938>

*a 화초석(花草石)

내 소년(少年)이 자라고 또 청춘(青春)이 피어오르던 호텔 부근(附近). 넓은 광장(廣場)에 가을꽃들은 철 잊지 않고 피어났는데 그 화려하던 온천(溫泉)호텔은 왜 보이지 않느냐. 불타 재 되어버린 빈 터에 가꾸는 이 없이 잡초(雜草) 제멋대로 자라고 ……. 차마 서 있을 수 없어 발길 돌리려니 옛말하자는 듯 화초석(花草石) 나를 잡네. 나를 잡고 놓지 않네.

<장만영, 귀성(歸省)&2&, 밤의 서정, 정양사, 1956>

*a 화편(火鞭)

판수야 벙어리야 귀머거리야 / 문둥이 절름발이 온갖 병신(病身)아 / 우리게 의심(疑心)말고 나아오너라 / 즐겨서 어루만져 낫게 하리라 / 우리는 너의 위(爲)해 화편(火鞭) 가지고 / 신령(神靈)한 '빱티씀'을 베풀 양으로 / 발감개 짚신으로 일을 해 가는 / 하늘의 뽑은 나라 자유대한(自由大韓)의 / 뽑힌 바 소년(少年)임을 생각하여라. <최남선, 소년 대한(少年 大韓), 소년, 1908. 12>

*a 화화(火華)

분명 라이플선(線)을 튕겨서 올라 / 그냥 화화(火華)처럼 살아서 곱고 <이육사, 광인(狂人)의 태양, 조선일보, 1942>

*a 확착(攫捉)하다

사람아 / 인간(人間)아 / 너는 과시(果是) 지상(地上)의 꽃이다 별이다 / 우주(宇宙)의 광영(光榮)—그 자랑이요 / 생명(生命)의 결정(結晶)—그 초점(焦點)이겠다 / 그리고 너는 정녕 위대(偉大)하다 / 하늘에까지 닿을 / '바벨'의 탑(塔)을 꿈꾸며 실로 싸우며 있다 / 절대(絕對)의 완성(完成)과 원만(圓滿)과 행복(幸福)을 끊임없이 꿈꾸며 / 쉬임없이 동경(憧憬)하고 추구(追求)하는 / 인자(人子)들아 / 너희들은 / 자연(自然)을 정복(征服)하고 신(神)들을 암살(暗殺)하였다 한다 / 정녕 그러하다 / 오— 그러나 / 준엄(峻嚴)하고 이대(異大)한 파멸(破滅)의 '스핑스' / 너를 확착(攫捉)할 때 / 너의 / 검은 땅도 / 붉은 피도 / 일체(一切)의 역사(役事)도 / 끔찍한 자랑도 / 그 다 무엇인가…… <오상순, 허무혼(虛無魂)의 선언(宣言), 공초오상순시선(空超吳相淳詩選), 자유문화사, 1963>

*a 환기(換期)

계절(季節)의 환기(換期)— / 빗발이 창문을 두드리는 밤엔 / 눈 먼 여인(女人)처럼 지척거리는 / 마음의 고삐를 채찍질하며 <홍윤숙, 하나의 약속(約束)을, 여사시집(麗史詩集), 동국문화사, 1962>

*a 환상국(幻想國)

장성(長城)으로 정배(定配)되어 죽은 오도일(吳道一)은 환상국(幻想國)의 거지. 자(字)는 관지(貫之), 호(號)는 서파(西坡), 우계(牛溪) 성혼(成渾)의 후학 윤겸(允謙)의 손자(孫子). 현종 계축(癸丑)에 문과급제(文科及第), 숙종 때 대제학(大提學)을 지낸 이른바 동인(東人) 삼학사(三學士)의 한 사람. 그의 선조(先祖)인 숙보다 뛰어난 점은 단 하나 주량(酒量). 서인(西人)의 소론(小論)분자(分子). 서인(西人)의 소론분자(少論分子)라도 장성(長城)에 소주 있어 됐다는 그가 좋아 나는 매일 만난다. 환상국(幻想

國)의 주막에서. <오규원, 환상(幻想)을 갖는다는 것은 중요하다, 왕자가 아닌 한 아이에게, 문학과지성사, 1978>

*a 황금작물(黃金作物)

내 유년(幼年)의 어머니 무명(無明)의 옷고름 속 / 눈물 같은 청보리야. / 더러운 황토흙물이나 들이고 앉아 / 부러진 대창 같은 깔끄러운 수염만 / 키우고 있기냐. / 죄없이 죄를 지은 양 / 새하얀 쌀알에 밀려 / 시커먼 맨살을 드러내고 / 그렇게 땡볕에서 타고 말 것이냐? / 차디찬 서릿발 속에 너를 심고 / 주인(主人)은 가난해도 한 번쯤 풍요하라고 / 겨우내 보듬어 준 우직한 우리 애비, / 애비를 저버리고 / 고작 주인(主人)의 시커먼 몰골이나 닮아 / 똥값으로 튀기질만 당하기냐? / 마차에 실려실려 / 농협창고로 가는 골목에서 / 황소가 너의 가슴을 흔들어도 / 흠 파인 네 맥맥(脈脈)엔 인내의 힘살만 불거져 / 숨소리도 들리지 않는구나. / 작석(作石)더미를 바라보면 / 누렇게 뜬 우리 지번(地番)이 생각나고 / 등굽은 황소가 생각난다. / 서릿발 속에서 가꿔 온 네 푸르름이 / 한껏 푸르를 때 보리피리 불면 / 역겨움 다 가시고 바람이 질까 몰라. / 황금작물(黃金作物)에 밀려 / 기름진 땅은 다 뺏기고 / 토박한 땅 구석에서 허위대는 청보리야. / 주름진 주인의 얼굴빛이나 하고 / 죄많은 새끼들이나 키워 갈 작정이냐. / 그러나 알리라 알리라. / 황금(黃金)이 식량이 되지 않는 먼 훗날에 / 보리를 가꾼 우직한 우리 애비의 뜻을 / 하나의 보리가 썩어 열매가 되는 / 청보리의 푸르른 뜻을. <임홍재, 청보리의 노래 2, 청보리의 노래, 문학세계사, 1988>

*a 황매꽃

황매꽃 피는 사월 밤 / 가까이서 잎새 지는 소리 / 잔바람 나직이 스쳐 지나고 / 가까이서 누군가 / 숨죽여 내쉬는 한숨 소리 / 어두운 방에 누워 / 팔 뻗어 찾는 물주전자 / 손끝에 와 닿는 차가움 / 가까이서 가까이서 / 꽃봉올 하나 지는 소리 / 수첩 속에 적힌 / 깨알 같은 몇 줄 짧은 글귀들 / 불붙어 화안히 천정에서 스러지고 / 내일 다시는 해가 뜨지 않으리 / 무너져 내리는 마음 / 밑 모를 어둠으로 한없이 한없이 / 무너져 내리는 마음 / 가까이서 문득 멈춰 서는 / 발자욱 소리. <김지하, 그 소, 애린 16, 애린2, 실천문학사, 1987>

*a 황무(荒蕪)

가랑잎 지는 소리 소나기 하는 / 원숭이 우는 벌판의 황무(荒蕪)와 같은 / 늙은 홰나무에 늦가을 어스름의 하늬바람이 머리칼 풀어헤쳐 더펄거리며 목을 매달아 어설픈 목청으로 몸서리나는 아우성을 칠 때에 <김관식, 사계절(四季節), 김관식시선, 자유세계사, 1957>

*a 황미(黃迷)하다

무한한 생(生)에의 의념(意念)이 백일(白日)을 지나온 한나절엘지라도 / 이제 여기 광명이 황미(黃迷)한 자리에 앉았으면 / 슬픈 말들이 모여드노니 이것은 향료를 구하는 섬 / 밤은 밤마다 이렇게 저물어가나 봅니다. <김광섭, 황혼, 동경, 연구서림, 1938>

*a 황사바람

황사바람 뿌옇게 부는 토요일, 고온리 사람들 창자 울리는 폭격기 폭음 들리지 않는 날이다. 고온리를 쿠니로 들은 양키들, 이른바 쿠니 사격장이 쉬는 날이다. 며칠전 '사격장을 아메리카로'라고 외치며 철조망을 넘어가 과녁 위에 누웠던 주민들 몇은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있고 시위 재발 대비해 사격장 한 켠에 백골단 진치고 있는 날이다.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휴일에만 출입할 수 있는 드 넓은 갯벌에는 도요새 게구멍을 파고 남정네들 낙지를 잡고 아낙네들 조개를 캔다. 물 들면 물살에 몸을 적시다가 썰물 때면 갯벌 위로 떠오르는 섬. 온갖 바다새 물새 알 낳아 품던 무성한 숲은 신기루가 되고 이제 풀 한 포기 자라지 않는 벌거숭이 섬. 농섬에서 쇳덩이를 캐는 사람도 있다. 섬에 쏟아지는 하고많은 폭탄, 폭탄이 박아 놓은 쇳덩이다. 육이오 때부터 폭격이 그치지 않는 농섬. 필리핀이나 괌의 미군기까지 날아와 전쟁연습하는 농섬. 폭격으로 처참하게 무너지며 새삼 식민지가 무엇인지 묻는 농섬. 너를 귀머거리 벙어리라 여기며 등 돌리는 자 누구인가. 너의 간절한 외침 파도 소리에 실려 오는데 귀에 말뚝 박고 태극기를 높이 흔드는 자 누구인가. <최두석, 농섬, 성에꽃, 문학과지성사, 1990>

이 한낮 / 황사바람이 창문을 때리니, / 해말간 살결을 / 잔잔한 햇빛 속에 잠그면 / 거대한 강물이 소리 없이 흐른다. <최동호, 황사(黃砂)바람, 황사바람, 열화당, 1976>

*a 황장마차(幌帳馬車)

회한(悔恨)의 동리(洞里)를 떠나온 / 나의 황장마차(幌帳馬車)는 / 검은 마부(馬夫)의 채찍 소리도 조용히 <박화목, 사이프러스가 있는 길, 천사(天使)와의 씨름, 한국문화사, 1975>

*a 황천수

아버지는 한 세상 / 남의 송장이나 주무르기만 할 것인가. / 진눈깨비 흩날리는 황토(黃土) 마루에 / 정성 들여 광중이나 짓고 / 외로운 혼이나 잠재울 것인가. / 마지막 다문 입에 동전 하나 물리고 / 칠성판 바로 뉜 후 / 종내는 한줌 흙이 되고 말 시체 위에 / 흙을 뿌리고 눈물을 뿌리며 / 오오호 달구 오오호 달구 / 만가(輓歌)만 부를 것인가. / 피통

터져 농약 먹고 죽은 농부야 / 삼베올 구멍마다 맺힌 눈물을 / 기러기가 쓸고 가는데 / 이 땅에 진정 데불고 갈 만한 것이 있더냐. / 농부는 죽을 때 피를 토하고 / 색신(色身) 고운 씨앗을 뿌리고 간다는데 / 부황이 나도 토사가 나도 / 아버지는 신들린 사람처럼 산역(山役)만 할 것인가. / 밤마다 술에 취해 / 북망산 먼 줄 알았더니 / 방문 밖이 북망이라 / 황천수가 먼 줄 알았더니 / 앞 냇물이 황천술세 / 울음섞인 가락을 토해 내며 / 북망산(北邙山) 누우런 황토(黃土)를 수북히 털어 놓는데 / 품 팔러 간 어머니는 왜 오지 않는가. / 황토(黃土)마루에 진눈깨비 내리고 / 어지럽게 어지럽게 도깨비불만 오르는데 / 아 아버지의 만가(輓歌)는 언제 끝날 것인가. <임홍재, 산역(山役), 청보리의 노래, 문학세계사, 1988>

*a 황촉불

황촉불, 그저도 까맣게 / 스러져 가는 푸른 창을 기대고 / 소리조차 없는 흰 밤에, / 나는 혼자 거울에 얼굴을 묻고 / 뜻 없이 생각 없이 들여다보노라. / 나는 이르노니, '우리 사람들 / 첫날밤은 꿈 속으로 보내고 / 죽음은 조는 동안에 와서, / 별 좋은 일도 없이 스러지고 말아라.' <김소월, 황촉(黃燭)불, 진달래꽃, 매문사, 1924>

*a 황취(荒鷲)

난 본디 불이로라 / 오오, 황취(荒鷲)여 나는 모든 것을 / 태우려 하노라 / 모든 것을 불사르려 하노라. / 눈물과 영탄을 버리리 / 하잘것없는 이 관념 형태를 / 두들겨 부숴라 / 나는 자유로운 몸으로 지새는 / 나의 영토를 내리려 한다. <신석초, 여명(黎明), 바라춤, 통문관, 1959>

*a 황포(黃包)

세기말(歲已末) 맹동(孟冬)에 초췌한 행색(行色)으로 정양문(正陽門) 차참에 내리니 걸개의 떼 에워싸며 한 분(分)의 동패(銅牌)를 빌거늘 달리는 황포(黃包) 차상(車上)에서 수행(數行)을 읊다. <심훈, 북경(北京)의 걸인(乞人), 그날이 오면, 한성도서주식회사, 1949>

*a 홰냥닭

홰냥닭은 알을 낳고 소리치고 / 강아지는 겨를 먹고 오줌 싸고 <백석, 연자간, 조광, 1936. 3>

*a 회귀점(回歸點)

해안선은 오정의 회귀점(回歸點) / 패각(貝殼)이 하얀 미소를 짓는다. / 언젠가 만난 얼굴, / 마음속 깊이. / 허리를 굽혀 어루만질 때 / 모래알들이 떨어지며 / 손아귀에 / 모이는 세계의 물 / 만고의 비밀 위에 헴친다. / 들려오는 / 소리 없는 파도 소리에 / 지상의 문명은 붕괴되고 / 비쳐오는 / 빛깔없는 물빛깔에 / 육신

은 분해되며 / 잠기는 깊은 해저(海底). / '네레우스'궁(宮)의 폐허에 선 채 / 위로 / 바다의 장원(莊園)을 / 눈으로 들으며 / 귀로 바라다보며 / 고적한 나팔을 불 때 / 피어나는 백장미, / 해안선은 오정의 회귀점(回歸點). <김종문, 패각(貝殼), 한국전후문제시집, 신구문화사, 1963>

*a 회억(懷憶)

회억(懷憶)은 노을에 타고 / 세월(歲月)은 강(江)물에 멀다 <정완영, 들녘에 서서, 묵로도, 1972>

*a 회음부

저녁 몸 속에 / 새파란 별이 뜬다 / 회음부에 뜬다 / 가슴 복판에 배꼽에 / 뇌 속에서도 뜬다 <김지하, 줄탁, 중심의 괴로움, 솔, 1994>

*a 회임되다

1980년 12월 31일 오후 7시 / 모든 스윗치를 내리고, 석유 스토브를 끄고 / 사무실을 나왔다. 채 끝내지 못한 교정지와 / 빈 책상들만 어둠 속에 남아 있을 / 사무실과 내가 방금 내려온 어두운 계단들이 / 내 뒤에 남겨져 있는 모든 것이다. / 나를 열기 위하여, 활짝 열려진 문처럼 / 혹은 나를 닫기 위하여, 쾅쾅 못질하여 닫아 버린 문처럼 / 나는 일 년을 살았다. 아니 일 년을 죽였다. / 극장 앞에는 예수의 제자들이 표를 사기 위하여 / 긴 줄을 서고 있다. 커피잔에 담긴 무위(無爲)와 / 재떨이에 눌러 꺼진 담배꽁초들과 / 신문가판대 옆에 붙어있는 소년을 지나서 / 나를 묶고, 혹은 나를 풀어주는 이 모든 부자유(不自由) / 비본질(非本質)들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참회하며 걷는다. / 날은 쉽게 어두워졌다. 밤 9시 / 나는 이 홉 소주 한 병에 발갛게 취한다. / 자기에게 몰두해 있는 사람에 취하고 / 혈관의 피까지 결빙시키는 지독한 추위에 취하고 / 삶이 사소함과 우연에 얽매인 것임을 깨달으며 취하고 / 아니다, 아니야 라고 부정하며 취한다. / 시간은 흐르지 않고 모든 비본질의 노예인 / 우리가 온갖 우연과 사소함으로 출렁이며 흐른다. / 밤 11시, 친구여 밤은 얼마나 깊었느냐. / 서울 시민의 몇 퍼센트가 편안한 잠에 들었느냐. / 지우리라, 이루어지지 않는 꿈과 / 종로 바닥의 어두운 골목들로 숨어드는 어린 연인들의 / 뒷모습과 만원인 호텔과 여관방들의 교합들을. / 아아, 나는 왜 이렇게 낯선 이들의 어깨에 / 기대고 싶은 걸까. 아아, 나는 왜 이렇게 / 따뜻하게 무작정 허물어지고 싶은 걸까. / 눈발은 자정 근처에서 잠시 흩날리고 / 통행금지가 해제된 이 밤의 자유는 편안하다. / 느닷없는 종소리, 제야의 종소리? / 침묵에 이르는 병(病)과 근시안경을 버리고 / 나는 잠시 무엇인가를 소망하고 싶다. / 서울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싶다. / 깊은 밤거리의 한 모퉁이를 쌩쌩이 사라져 가는 / 저들에게 고통 주소서, 동파된 수도꼭

지를 바라보며 / 깨어있는 가난한 주부들과 / 아직 잠들지 않은 그들의 아이들과 / 새로 회임되는 미구의 태아들에게 / 고통주소서, 그들의 잠이 달콤한 마약이 되기 위하여. / 우동국물에서 오르는 따뜻한 김과 / 낯선 여자와 두 번 부딪치며 걷는다. / 나는 너무 취했다. 흐르는 세월, 술, 어둠에 / 내 혈관들은 너무 혹사당했다. / 이제까지 내 생명을 지켜주신 분이시여, / 나는 아무 물에나 힘없이 붕괴하는 모래탑입니까? / 이제 불켜진 집에 돌아가게 허락해 주십시요. / 고통이신, 그리고 사랑이신 / 적막한 황혼의 하나님이여. <장석주, 완전주의자(完全主義者)의 꿈, 완전주의자의 꿈, 청하, 1981>

*a 효조(梟鳥)

눈은 너의 눈은 / 효조(梟鳥)가 되어 / 어두운 지도(地圖)폭에 / 나래를 퍼득였다. / 터지는 해협(海峽) / 불뿜는 도서(島嶼) / 마지막 작열(炸裂)하는 대륙(大陸)의 지맥(地脈)인데 <장호, 지도(地圖)속의 눈, 파충류의 합창, 시작사, 1957>

*a 후고구려

바람 따신 그 옛날 / 후고구렷 『후고구려』 적 장수들이 / 의형제를 묻던 / 거기가 바로 / 그 바위라 하더군요. <신동엽, 진달래 산천(山川), 조선일보, 1959. 3. 24>

*a 후라후프

여름이면 / 후라후프 놀이로 골목이 좁다. / 핑크빛 미래를 허리에 두르고 / 밤이 돌아가는 희화(戱畵)다. / 허벅지 버쩍 말라 / 새벽 눈 못 뜨는 / 어른 흉내인가. / 핑크빛 후라후프에 / 여름밤이 돌아간다. <도광의, 희화(戱畵), 갑골길, 흐름사, 1982>

*a 후일담(後日譚)

장독대 옆에 / 씨 떨어져 자라난 맨드라미 봉숭아꽃도 피었네. / 돌각담 한모퉁이 대추나무에 / 참새 한 마리 포르르 날아들어 / 심심파적(破寂)으로 주인(主人)의 후일담(後日譚)을 말해 주는 양 / 저 혼자 재재거리다 말고 간다. / 찌는 말복(末伏)철 저녁 샛때 / 귀창 터지거라 / 쓰르라미만 쓰라리게 울고 있더라. <김관식, 폐가(廢家)에 부쳐, 김관식 시선, 자유세계사, 1957>

*a 후중(厚重)하다

흙아 / 말도 없이 묵묵(默默)히 누워있는 / 흙아 대지(大地)야 / 너는 순하고 따뜻하고 / 향기(香氣)롭고 고요하고 후중(厚重)하다 / 가지가지의 물상(物相)을 낳고 / 일체(一切)를 용납(容納)하고 / 일체(一切)를 먹어버린다 / 소리도 아니내고 말도 없이…… / 오—나의 혼(魂)은 얼마나 / 너를 우리'어머니'라 불렀던가 / 나의 혼(魂)은 살찌고 기름지고 / 따뜻한 너의 유방(乳房)에 / 매어 달리고자 / 애련(哀憐)케도 너의 품 속에

/ 안기려고 애를 썼던고 / 어린 애기 모양으로…… / 그러나 흙아 대지(大地)야 / 이 이단(異端)의 혼(魂)의 아들을 안아주기에 / 너는 너무도 갑갑하고 답답하고 / 감각(感覺)이 둔(鈍)하지 아니한가. <오상순, 허무혼(虛無魂)의 선언(宣言), 공초오상순시선(空超吳相淳詩選), 자유문화사, 1963>

*a 후피향(厚皮香)

햇빛과 바람의 남(南)쪽에서 / 동백(冬柏)은 터져 후피향(厚皮香)을 나르고 / 낯 익은 듯한 사내와 여자(女子)가 / 눈 밖으로 사라지고 있다. <홍해리, 아지랭이, 화사기, 시문학사, 1975>

*a 훈장(勳章)하다

계절(季節)의 무성(茂盛)을 옷 벗은 알몸이 삭풍(朔風)에 떨며 호읍(號泣)할 땐 피빛 연륜(年輪)을 훈장(勳章)하여 인욕(忍辱)을 달랜다. <설창수, 뿌리, 개폐교, 백양당, 1950>

*a 훤연(喧然)하다

훤 인파는 땅에 넘치고 훤연(喧然)하건만 / 공중에는 나는 새 그림자 하나 없어 / — 적요(寂寥)는 / 어안(魚眼)같이 백일(白日)과 함께 살도다 <유치환, 시일(市日), 청마시초, 문성사, 1939>

*a 휴매니티

돌아오지 않는 / 원주(圓周)처럼 / 물결 이는 나의 위치에서 / 수많은 에고이즘과 / 고갈된 휴매니티와의 교차를 바라보며 / 때로는 / 모랫벌 위의 나비처럼 / 전쟁을 잊어버리고도 싶었다 <김경린, 오후의 예절, 태양이 직각으로 떨어지는 서울, 청담문학사, 1985>

죽는다는 것— / 그것은 언제 어디서라도 / 기꺼운 웃음 머금고 행할 수 있는 / 가장 어리석은 '휴매니티'일 것이나 / 그것은 또한 얼마나 / 건강(健康)한 체격(體格)을 요(要)하는 사상(思想)일 것인가. <김규동, 위기(危機)를 담은 전차(電車), 현대의 신화, 위성문화사, 1958>

*a 휴학계(休學屆)

김소월(金素月) / 김수영(金洙暎) 휴학계(休學屆) <김종삼, 시인학교(詩人學校)&2&, 시인학교, 신현실사, 1977>

*a 흉조(兇鳥)

날개없는 흉조(兇鳥)가 / 불을 뿜는 소리와 함께 / 쓰러지는 / 여왕의 / 조상들. / 그래도 / 뼈다귀를 공화국(共和國)에 묻기 위하여, / 대가리를 / 물 속 깊이 / 박고 / 퍼덕거리며, / 피는 영토를 붉게 물들일 때 / 마다 / 모래알이 미끄러져 나리는 주석(柱石) 뒤에 / 총의(總意)의 의사(議事). / 두터운 주둥이마다 / 터져나오는 '바스'와 '알토'의 비애는, / '허라!

무저항주의(無抵抗主義)' <김종문, 오리 공화국(共和國), 한국전후문제시집, 신구문화사, 1963>

*a 흑방(黑房)

죽음의 흑방(黑房)에서 선지피를 끓이어 / 죄악의 부적을 일없이 그리는 / 마법사야! 오너라 네 어찌 하리요 / 내가 모르는 체 너털웃음을 웃으면은 <홍사용, 바람이 불어요!, 동명, 1922. 12>

*a 흑사모(黑紗帽)

홍포(紅袍) 금사(金絲)띠 / 흑사모(黑紗帽)로 / 피리 가야금 적대 비껴 들고 / 무고(舞鼓) 앞에 앉다 / 적적한 고궁 뜰에 / 강화 화문석이 차구나 / 조용히 울려 퍼지는 / 함녕지곡 / 옛가락은 구름인 양. <신석초, 함령지곡(咸寧之曲), 처용은 말한다, 조광출판사, 1974>

*a 흑암면(黑闇面)

사랑을 '사랑'이라고 하면, 벌써 사랑은 아닙니다. / 사랑을 이름 지을 만한 말이나 글이 어디 있습니까. / 미소에 눌려서 괴로운 듯한 장미빛 입술인들, 그것을 스칠 수가 있습니까. / 눈물의 뒤에 숨어서 슬픔의 흑암면(黑闇面)을 반사하는 가을 물결의 눈인들, 그것을 비출 수가 있습니까. / 그림자 없는 구름을 거쳐서, 메아리 없는 절벽을 거쳐서, 마음이 갈 수 없는 바다를 거쳐서, 존재? 존재입니다. / 그 나라는 국경이 없습니다. 수명(壽命)은 시간이 아닙니다. / 사랑의 존재는 님의 눈과 님의 마음도 알지 못합니다. / 사랑의 비밀은 다만 님의 수건에 수놓는 바늘과, 님의 심으신 꽃나무와, 님의 잠과, 시인의 상상과, 그들만이 압니다. <한용운, 사랑의 존재, 님의 침묵, 회동서관, 1926>

*a 흑장삼(黑長衫)

밤은 깊고 촛불 외로운 넓은 신당(神堂) 안에는 / 젊은 여승(女僧)이 흑장삼(黑長衫)을 몸에 두르고, / 엄숙(嚴肅)한 불상(佛像) 앞에, 죽은 듯이 숨소리 죽이며, / 가을바람에 시들어 가는 야화(野花)와 같이 / 머리를 숙이어, 굳은 신념(信念)으로 기도를 올리니, / 밤중, 산곡(山谷)에서 느끼어 우는 야앵(夜鶯)의 넋이런가! / 그의 염불(念佛) 소리는 구슬프게 성전(聖殿)을 울릴 때, / 하늘엔 별들이 소근거리는데 / 그의 젊은 사랑의 노래는, 가슴 속에 썩어 / 한(恨)많은 한숨은 미풍(微風)처럼 불상(佛像) 위으로 사라지니, / 깊어 가는 밤, 신당(神堂)으로 흐르는 바람은 / 찬마루 위에 앉은 여승(女僧)의 품속으로 기어들 때 / 그는, 엄숙(嚴肅)한 불상(佛像)도, 그의 애인(愛人)과 같이, / 그는 가슴에 휘잡아 안고, 엎더져 버리니, / 아픔도 모르고, 괴로움을 잊은 애인(愛人)과 같이 / 그는 낙원(樂園)의 화려(華麗)한 꿈 속에 빠져 / 약(弱)한 젊은 가

슴은 깊이 없이 취(醉)하였으나 / 찬 몸은 마루 위에, 죽은 듯이 누웠도다. <박영희, 승녀(僧女), 회월시초, 조선문화사, 1937>

*a 흑혈(黑血)

시커먼 머리채 풀어 헤치고 / 아우성하면서 가시는 따님. / 헐벗은 벌레들은 꿈틀릴 때, / 흑혈(黑血)의 바다. 고목 동굴. / 탁목조(啄木鳥)의 / 쪼아리는 소리, 쪼아리는 소리. <김소월, 열락(悅樂), 진달래꽃, 매문사, 1924>

*a 히스무레하다

아,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 이 히수무레하고 부드럽고 순수하고 슴슴한 것은 무엇인가 / 겨울밤 쩡하니 익은 동치미 국을 좋아하고 얼얼한 댕추가루를 좋아하고 싱싱한 산꿩의 고기를 좋아하고 / 그리고 담배 내음새 탄수 내음새 또 수육을 삶는 육수국 내음새 자욱한 더북한 삿방 쩔쩔 끓는 아르구ㅌ을 좋아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백석, 국수, 문장, 1941. 4>

*a 히야신스

그러나, 가슴 깊이 떨리는 두려움은— / 산기슭 히야신스 목동의 발에 맡겨 / 맑은 샘 던지는 돌 흙장을 일으킬가— / 오, 영원한 이 거울이 산산이 부서지면! <박용철, Be nobler!, 박용철전집, 시문학사, 1939>

조사 대상 시 목록

감태준 거리의 새
감태준 구름보다 높이
감태준 길
감태준 낙도(落島)
감태준 내게 묻는 말
감태준 내력(來歷)
감태준 너무 작은 이슬 1
감태준 단독무늬
감태준 떠돌이새 1
감태준 떠돌이새 3
감태준 마음의 집 한 채
감태준 몸 바뀐 사람들
감태준 바람부는 도시의 꿈
감태준 박수 소리 밖에서
감태준 빨래 1
감태준 사람 열도 더 죽이는 친구에 대면
감태준 사모곡(思母曲)
감태준 서울특별시 고향구(故鄕區)
감태준 슬프나 아름다운 꿈
감태준 썰물 다음
감태준 아까운 꿈
감태준 어디서 큰 짐승이 울고 있다
감태준 우울한 증거(證據) 1
감태준 인식의 한 때 1
감태준 철새
감태준 첫눈
감태준 첫번째 향수(鄕愁)
감태준 타관일기
감태준 허공
감태준 흔들릴 때마다 한잔
강경화 공주에 내리던 비
강경화 기도문 1
강경화 기도문 2
강경화 기도문 3
강경화 꽃
강경화 노래
강경화 눈오는 밤
강경화 도강일기 1
강경화 도강일기 2
강경화 도강일기 3
강경화 마을 1
강경화 무덤이 된 마을
강경화 샘물 푸기
강경화 세 개의 전쟁
강경화 이 시대의 가장 어두운 꿈 1
강경화 이 시대의 가장 어두운 꿈 2
강경화 이 시대의 가장 어두운 꿈 3
강경화 이별을 위하여
강경화 저녁 항구
강경화 제주도
강남주 가고 싶은 수렵시대
강남주 가야고분총 (伽倻古墳塚)
강남주 과목(果木)
강남주 남풍(南風)에게
강남주 딸기밭 소감(所感)
강남주 떠도는 자의 일기(日記)
강남주 떨이
강남주 목각 인형의 노래
강남주 무소외(無所畏)의 하루
강남주 묵적전(墨蹟展)에서
강남주 미명의 저쪽에서 반짝이는 등불
강남주 바람의 가설
강남주 새와 머리카락
강남주 설계(設計)
강남주 어느 개인 날
강남주 우산(雨傘)
강남주 일주문을 지나며
강남주 지리산 고사목
강남주 표정
강남주 해저(海底)의 숲
강영환 겨울도시에서 띄우는 편지 3
강영환 그리운 집
강영환 길 안의 사랑
강영환 나의 이름은
강영환 늑대
강영환 닭
강영환 독수리를 잡으러 아이들이
강영환 물거품
강영환 불령인
강영환 사북탄광
강영환 산복도로 1
강영환 산복도로 2
강영환 수련연못
강영환 야간수업 1
강영환 음주운전
강영환 이웃사랑
강영환 잠들지 못하는 것들 곁에서
강영환 칼잠
강영환 황씨의 카메라
강영환 황인종의 시내버스
강우식 겨울바다
강우식 고려(高麗)의 눈보라: 하나 — 강설(降雪)
강우식 국화

강우식 귤
강우식 귤
강우식 그대 그리운
강우식 그리운 사람
강우식 난(蘭)
강우식 내 가려운 맨살등을
강우식 눈발
강우식 눈벌
강우식 눈은 내리면서도
강우식 눈은 언제나
강우식 단풍
강우식 도라지꽃
강우식 둘이서
강우식 마음 문
강우식 무명초
강우식 물풀
강우식 미행
강우식 백합
강우식 사랑하는 사람아
강우식 살붙이는 다 태우고
강우식 생솔 잎새
강우식 서정조(抒情調) 1
강우식 서정조(抒情調) 19
강우식 서정조(抒情調) 2
강우식 속화고(俗畵考) 둘
강우식 속화고(俗畵考) 서시(序詩)
강우식 속화고(俗畵考) 하나
강우식 수양버들
강우식 안개꽃
강우식 어딜 가나 천 길 절벽
강우식 연꽃
강우식 적멸보궁
강우식 춘란
강우식 춘란(春蘭)
강우식 출토(出土)된 울음에 의한 습작(習作) 넷
강우식 출토(出土)된 울음에 의한 습작(習作) 둘
강우식 출토(出土)된 울음에 의한 습작(習作) 셋
강우식 출토(出土)된 울음에 의한 습작(習作) 하나
강우식 탈춤고(考) 넷
강우식 탈춤고(考) 다섯
강우식 탈춤고(考) 둘
강우식 탈춤고(考) 서시(序詩)
강우식 탈춤고(考) 셋
강우식 탈춤고(考) 여덟
강우식 탈춤고(考) 하나
강우식 토마토
강우식 파도조(調)
강우식 파도조(調)
강우식 파도조(調)
강우식 풀밭
강우식 한 송이 꽃
강우식 화랑고(花郞考)
강유정 11월의 새
강유정 내 손바닥에 흐르는 물소리
강유정 늦은 편지
강유정 떠나는 자들
강유정 마당가의 꽃 하나
강유정 물풀 하나
강유정 범어사 운(韻)
강유정 별똥별
강유정 보라빛 팔각형
강유정 비 젖은 개울
강유정 빈 터의 발톱 자국
강유정 산방일기
강유정 수리검
강유정 유리창 그림의 예수
강유정 이 강물 마시고
강유정 장터에서
강유정 청동제기
강유정 푸른 삼각형
강유정 풀잎소묘
강유정 풍경
강은교 가을의 서(書)
강은교 거리 시(詩)
강은교 겨자씨의 노래
강은교 구걸하는 한 여자를 위한 노래
강은교 그 여자 1
강은교 그날 아침 우리 둘이는
강은교 그대의 들
강은교 낙동강의 바람
강은교 눈발
강은교 단가 세 편
강은교 돌아
강은교 모래가 바위에게
강은교 무엇이라고 쓸까
강은교 물방울의 시(詩)
강은교 바리데기의 여행(旅行)노래
강은교 배추들에게
강은교 벽 속의 편지
강은교 별
강은교 붉은 강 1

강은교 새
강은교 생자매장(生者埋葬)
강은교 생자매장(生者埋葬)
강은교 생자매장(生者埋葬)
강은교 생자매장(生者埋葬)
강은교 섬
강은교 소리 1
강은교 소리 11
강은교 소리 4
강은교 소리 7
강은교 소리 9
강은교 순례자(巡禮者)의 잠
강은교 숲
강은교 스스로를 기억하는 노래
강은교 아침
강은교 어떤 흐린 날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강은교 일어서라 풀아
강은교 자전(自轉) 1
강은교 자전(自轉) 2
강은교 자전(自轉) 4
강은교 저녁이 슬슬……
강은교 진눈깨비
강은교 진달래
강은교 파도
강은교 풀잎
강은교 한 조각의 노래
강은교 허총가(虛塚歌) 1
강은교 헤매는 발들을 위한 노래
강은교 황혼곡조 2번
강은교 황혼곡조 3번
강인한 고려(高麗)의 새
강인한 국화(菊花)
강인한 그 해 가을의 일기
강인한 김유신(金庾信)에게
강인한 꿩이 털 빠지면 저만 춥지
강인한 눈먼 사내 J
강인한 대문에 태극기를 달고 싶은 날
강인한 데사파레시도스
강인한 바닷속의 언어(言語)
강인한 북풍(北風)
강인한 새장
강인한 양파
강인한 어머니의 자정
강인한 여름 안부(安否)
강인한 우리 나라 날씨
강인한 장인(匠人)의 꿈
강인한 저녁 비가(悲歌)
강인한 폐항
강인한 풀칠하기
강인한 해 지는 곳으로 가서
강창민 겨울 바다
강창민 누가 함부로 신음 소리를 내느냐?
강창민 눈사람
강창민 눈사람을 위하여
강창민 만가(輓歌) 1
강창민 무서운 꿈
강창민 무지개 1
강창민 무지개 2
강창민 비가 내리는 마을
강창민 새벽에 부르는 노래
강창민 송장 헤엄
강창민 수원수구 1
강창민 시인에게
강창민 쓰르라미
강창민 아름다운 노래
강창민 아암도
강창민 염불 1
강창민 욕망
강창민 우리는
강창민 이 시대의 그리움
강창민 편지 1
강현국 가롯 유다
강현국 각주
강현국 개구리를 소재로 한 산문
강현국 거미에게
강현국 고향 4
강현국 나는 지금 공복이므로
강현국 내 손이 닿지 않는 가려움 하나가
강현국 뚝심
강현국 마태복음 서설(序說)
강현국 물끄러미 보고 있다
강현국 부분과 전체
강현국 소화(昭和) 8년에서 지난해 여름까지
강현국 쓸데없이 강물은 흐르고
강현국 어허, 가을 3
강현국 어허, 가을 1
강현국 조랑말 타고
강현국 치과에서
강현국 탁본
강현국 할 말을 못 다해서
강현국 해뜨는 곳에서 해지는 곳까지

·1
강희근 가현
강희근 꽃물
강희근 모래
강희근 무우 받으러 간다
강희근 사랑제(祭) 1
강희근 사랑제(祭) 6
강희근 산(山)빛에 물빛에
강희근 산(山)에 가서
강희근 산청(山淸) 1
강희근 산청(山淸) 2
강희근 섬돌
강희근 왕산
강희근 웅변 1
강희근 자화상(自畵像)
강희근 전라도 기행 1
강희근 제주에서
강희근 지리산(智異山)
강희근 처서기(處暑記)
강희근 한겨울 풍경(風景)
강희근 화계리(花溪里)의 여름
고원 객지에서 소를 보면
고원 검은 눈물로 거듭나
고원 그 날
고원 기적(汽笛)
고원 김포의 표정
고원 달마당
고원 돌팔매
고원 물길
고원 물너울
고원 물방울
고원 바람꽃
고원 밤의 눈
고원 밤하늘
고원 사선상(斜線上)의 아리아
고원 산
고원 선인장
고원 시간의 문법
고원 씨앗
고원 안개
고원 오늘은 멀고
고원 오후의 미소
고원 자색(紫色)의 태양
고원 제백(第百)의 기(旗)
고원 지하철도
고원 항아리
고은 가랑잎
고은 가사메댁
고은 거름 내는 날
고은 걸레
고은 곡비(哭婢)
고은 교상기도(橋上祈禱)
고은 국도(國道)
고은 귀성(歸省)
고은 그 할머니
고은 길
고은 깽매기 소리
고은 꽃
고은 나무의 앞
고은 나의 추억
고은 낙조
고은 난초 앞에서
고은 내 아내의 농업(農業)
고은 눈물
고은 눈물
고은 다시 오늘
고은 대보름 뒤
고은 대보름날
고은 대장경(大藏經)
고은 동고티 무덤
고은 두만강(豆滿江)으로 부치는 편지
고은 들꽃
고은 딸그마니네
고은 땀
고은 만월
고은 모 심는 날
고은 목포행
고은 묘지송(墓地頌)
고은 문의(文義)마을에 가서
고은 벼를 털며
고은 부활(復活)
고은 북극을 위하여
고은 북악호랑이타령
고은 뼈 이야기
고은 사과 한 알
고은 사랑
고은 사랑방
고은 사치(奢侈)
고은 산길
고은 살생(殺生)
고은 삼만이 할머니
고은 삼사경(三四更)
고은 새벽 밀회(密會)
고은 새벽길
고은 새싹

고은	서문 밖 한약방	고정희	누가 홀로 술틀을 밟고 있는가?
고은	서시	고정희	대청봉 절정가
고은	섬진강에서	고정희	도요지(陶窯地) 1
고은	소와 함께	고정희	들국
고은	속(續) 눈길	고정희	디아스포라
고은	썰매	고정희	디아스포라
고은	아리랑 영감	고정희	망월리 비명(碑銘)
고은	애마(愛馬) {한쓰}와 함께	고정희	묵상
고은	어둠과 더불어	고정희	미궁(迷宮)의 봄 2
고은	어린 잠	고정희	바벨탑과 마을
고은	어머니	고정희	벌거숭이산을 위하여
고은	연장 무덤	고정희	봄비
고은	오늘의 썰물	고정희	사랑법 첫째
고은	우물	고정희	산지기를 노래함
고은	을파소(乙巴素)	고정희	상복
고은	이 만조(滿潮)에 노래하다	고정희	상한 영혼을 위하여
고은	인당수	고정희	서울 사랑
고은	자작나무숲으로 가서	고정희	서울 사랑
고은	재철이 어머니	고정희	서울 사랑
고은	저녁 논길	고정희	시인(詩人)
고은	저녁 숲길에서	고정희	실락원(失樂園) 기행(紀行) 1
고은	제암리	고정희	실락원(失樂園) 기행(紀行) 3
고은	제주(濟州)의 D단조(短調)	고정희	아우슈비츠 1
고은	진천장에서	고정희	옹기
고은	참	고정희	이 시대의 아벨
고은	천은사운(泉隱寺韻)	고정희	지리산의 봄 1
고은	초추(初秋)	고정희	천둥벌거숭이 노래 1
고은	추수 이후(秋收 以後)	고정희	청산별곡
고은	큰집 고모	고정희	팔레스티나의 영가
고은	투망(投網)	고정희	풀무질 노래
고은	편지	고정희	프라하의 봄 1
고은	폐결핵(肺結核)	고정희	프라하의 봄 11
고은	풀을 베며	고정희	프라하의 봄 12
고은	하계학교(夏季學校)	고정희	프라하의 봄 2
고은	할아버지	고정희	프라하의 봄 3
고은	해연풍(海軟風)	고정희	프라하의 봄 6
고은	햇볕	고정희	프라하의 봄 8
고은	햇빛사냥	고정희	현대사 연구 1
고은	허허벌판	고정희	호박
고은	호박꽃	고정희	히브리 전서(傳書)
고은	화양동 서원	곽재구	귤동리 일박
고은	황사(黃砂) 며칠	곽재구	그리운 남쪽
고은	황토(黃土)	곽재구	김밥
고정희	간척지 1	곽재구	누런 똥
고정희	객지	곽재구	대인동 2
고정희	관계	곽재구	대인동 3
고정희	김춘수(金春洙)	곽재구	대인동 4
고정희	남자현의 무명지		

곽재구　대인동 부르스
곽재구　도문 장터
곽재구　바닥에서도 아름답게
곽재구　부여
곽재구　사평역(沙平驛)에서
곽재구　얼음장 아래 고인 연분홍 눈물
곽재구　엄경희
곽재구　임진강 살구꽃
곽재구　전장포 아리랑
곽재구　조경님
곽재구　화개 장터
곽재구　화진포
곽재구　희망을 위하여
구상　강(江)
구상　구상무상(具常無常)
구상　그분이 홀로서 가듯
구상　근황(近況)
구상　기도
구상　까마귀
구상　나
구상　나자렛 예수
구상　노경(老境)
구상　달밤 2경(景)
구상　독락(獨樂)의 장(章)
구상　동토(凍土)
구상　드레퓌스의 벤취에서
구상　말씀의 실상(實相)
구상　무소부재(無所不在)
구상　봄맞이 춤
구상　수난(受難)의 장(章)
구상　수치(羞恥)
구상　아가는 지금
구상　에로스 소묘(素描)
구상　여명도(黎明圖)
구상　오늘
구상　오늘서부터 영원을
구상　오늘은 내 안에
구상　우음(偶吟) 2장(章)
구상　월남기행(越南紀行)
구상　은행(銀杏)
구상　임종예습(臨終豫習)
구상　잡초송(雜草頌)
구상　점경(點景)
구상　정(靜)과 동(動)
구상　조화(造化) 속에서
구상　진혼곡(鎭魂曲)
구상　초동(初冬)의 서정(抒情)
구상　초생달 꽃밭
구상　초토(焦土)의 시(詩) 1
구상　초토(焦土)의 시(詩) 10
구상　초토(焦土)의 시(詩) 11
구상　초토(焦土)의 시(詩) 2
구상　초토(焦土)의 시(詩) 8
구상　추풍령(秋風嶺)
구상　출애급기(出埃及記) 별장(別章)
구상　풀꽃과 더불어
구상　하일서경(夏日敍景)
구상　한가위
구상　해빙(解氷)
구상　허(虛)의 장(章)
구상　화전민(火田民)의 꿈
구석본　겨울
구석본　고분발굴(古墳發掘) 1
구석본　고분발굴(古墳發掘) 2
구석본　고분발굴(古墳發掘) 3
구석본　그리움
구석본　농아일기
구석본　눈 1
구석본　눈 2
구석본　대장균(大腸菌)
구석본　떠돌이 별
구석본　반딧불
구석본　불빛
구석본　사라짐을 위하여
구석본　소리・1
구석본　숲 1
구석본　쓰레기
구석본　쓰레기
구석본　열쇠
구석본　전설 1
구석본　전설 2
구석본　종이학
구자운　고기유취(古器類聚)
구자운　고도이품(古陶二品)
구자운　귀가(歸家)
구자운　균열(龜裂)
구자운　난초문병(蘭草紋甁)
구자운　다솔사(多率寺) Ⅲ
구자운　대교(大橋)에서
구자운　도가(禱歌)
구자운　도성(濤聲)
구자운　매(梅)
구자운　묘비명(墓碑銘)
구자운　봄

구자운 부두소곡(埠頭小曲)
구자운 분토(墳土)에서
구자운 불가사의(不可思議)한 공
구자운 소재(素材)에서
구자운 열리는 옥문(獄門)에 기대어서
구자운 우리들은 샘물에
구자운 움직여 돌아다니는 힘
구자운 이향이수(異香二首)
구자운 질의(質疑)
구자운 청자수병(青磁水瓶)
구자운 포도도(葡萄圖)
권달웅 감을 보며
권달웅 겨울 나무에게
권달웅 고수동굴
권달웅 귀뚜라미
권달웅 내 귀가
권달웅 노을
권달웅 둑길 I
권달웅 뜨거운 날 I
권달웅 머슴
권달웅 먼 산
권달웅 물 1
권달웅 별밤을 위해 1
권달웅 불 1
권달웅 사슴뿔
권달웅 수국(水菊)
권달웅 아득한 곳
권달웅 안개꽃
권달웅 애기똥풀
권달웅 우언(寓言) 1
권달웅 원적지(原籍地) 1
권달웅 자연법 1
권달웅 지상의 별
권달웅 탈
권달웅 해바라기 환상(幻想)
권혁진 가슴
권혁진 개나리
권혁진 그대 앞에서
권혁진 도살실습(屠殺實習)
권혁진 말 1
권혁진 바가지
권혁진 뱀
권혁진 빗속에서
권혁진 서산(西山)
권혁진 시 낭송
권혁진 쓰레기
권혁진 쓸개
권혁진 영등포
권혁진 원경(遠景)
권혁진 지렁이
권혁진 탈모
권혁진 프리지아꽃을 들고
권혁진 하느님 3
권혁진 하느님 4
권혁진 한증탕
권환 가등(街燈)
권환 고담책(古談冊)
권환 달
권환 대리석(大理石)
권환 뒷산(山)
권환 뻐국새
권환 석양(夕陽)
권환 설경(雪景)
권환 시계(時計)
권환 여군대작(與君對酌) 1
권환 여군대작(與君對酌) 2
권환 유언장
권환 윤리(倫理)
권환 자화상(自畵像)
권환 제석(除夕)
권환 청대콩
권환 추억(追憶)
권환 하몽(夏夢)
권환 행복(幸福)
권환 환희(歡喜)
권환 희망(希望)
기형도 가는 비 온다
기형도 가수는 입을 다무네
기형도 그 집 앞
기형도 그날
기형도 기억할 만한 지나침
기형도 길 위에서 중얼거리다
기형도 늙은 사람
기형도 대학시절
기형도 물 속의 사막
기형도 바람의 집
기형도 빈집
기형도 숲으로 된 성벽
기형도 식목제(植木祭)
기형도 안개
기형도 어느 푸른 저녁
기형도 엄마 걱정
기형도 여행자
기형도 오래된 서적(書籍)
기형도 위험한 가계(家系) 1969
기형도 입 속의 검은 잎

기형도 장미빛 인생
기형도 정거장에서의 충고
기형도 죽은 구름
기형도 진눈깨비
기형도 질투는 나의 힘
기형도 집시의 시집
기형도 추억에 대한 경멸
기형도 포도밭 묘지 1
기형도 포도밭 묘지 2
기형도 흔해빠진 독서
김강태 가위
김강태 갈대
김강태 고양이 눈
김강태 굴렁쇠 선수
김강태 기억의 방(房)
김강태 늘 푸른 공기
김강태 명기(鳴器)
김강태 바람의 결
김강태 비고란 3
김강태 비어 있는 것을 위하여 4
김강태 비어있는 것을 위하여
김강태 생각하는 나무
김강태 수리검
김강태 시(詩)
김강태 없다
김강태 유리의 폭력 1
김강태 적정 온도
김강태 준비과정
김강태 지우개
김강태 통
김강태 혼자 흔들리는 그네 2
김경린 국제열차(國際列車)는 타자기(打字機)처럼
김경린 그것은 예고도 없이
김경린 나는 불행(不幸)한 녹음기(錄音機)인가
김경린 너의 목소리는 목관악기(木管樂器)
김경린 무거운 지축을
김경린 바람 속으로
김경린 봄이 오는 소리를 그 누가
김경린 불안한 서적속에서
김경린 서울은 야생마처럼 거인처럼
김경린 선회(旋回)하는 가을
김경린 수많은 아침과 함께
김경린 어머니의 하늘
김경린 오후의 예절
김경린 의식 속의 나비들
김경린 의식(意識)의 강가에 내리는 가랑비
김경린 자성(自省)의 계곡에서
김경린 태양(太陽)이 직각(直角)으로 떨어지는 서울
김경린 파장(波長)처럼
김경린 표류하기에는
김경린 푸른 길 위에
김경린 화장한 연대(年代)를 위하여
김관식 가난 예찬(禮讚)
김관식 거산호(居山好) 1
김관식 거산호(居山好) 2
김관식 계곡(溪谷)에서
김관식 고매(古梅)
김관식 귀로(歸路)
김관식 녹야원(鹿野苑)에서
김관식 다시 광야(曠野)에
김관식 동양(東洋)의 산맥(山脈)
김관식 몽유도원도(夢遊桃源圖)
김관식 무(無)에 대(對)하여
김관식 무검(撫劍)의 서(書)
김관식 사계절(四季節)
김관식 삭풍(朔風)에 기대어 말이 울면
김관식 산중재상(山中宰相)
김관식 석상(石像)의 노래
김관식 승가사(僧伽寺)에서
김관식 신라(新羅) 소묘(素描)
김관식 양생명(養生銘)
김관식 양생수(養生修)
김관식 연(蓮)
김관식 융동(隆冬)의 서(書)
김관식 의고풍(擬古風)
김관식 임원생활지(林園生活志)
김관식 자하문(紫霞門) 밖
김관식 정(情)·단장(斷章)
김관식 창세기초(創世記艸)
김관식 폐가(廢家)에 부쳐
김관식 풍요조(諷謠調)
김관식 홍련(紅蓮)이에게
김관식 효자전(孝子傳)
김광규 1981년 겨울
김광규 4월의 가로수
김광규 가을 하늘
김광규 고향
김광규 나
김광규 나뭇잎 하나
김광규 나사에 관하여

김광규 나의 자식들에게
김광규 누군가
김광규 달팽이의 사랑
김광규 당신들의 용병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
김광규 도다리를 먹으며
김광규 때
김광규 매미가 없던 여름
김광규 목발이 김씨
김광규 묘비명(墓碑銘)
김광규 물오리
김광규 반달곰에게
김광규 밤눈
김광규 뺄셈
김광규 사랑니
김광규 생각의 사이
김광규 성산동 가랑잎
김광규 소액주주(少額株主)의 기도(祈禱)
김광규 시론(詩論)
김광규 심전도(心電圖)
김광규 아니다 그렇지 않다
김광규 안개의 나라
김광규 야바위
김광규 어떤 죽음의 회고
김광규 어린 게의 죽음
김광규 얼굴과 거울
김광규 영산(靈山)
김광규 오늘
김광규 오래된 물음
김광규 유령
김광규 유무(有無) 2
김광규 이사장에게 묻는 말
김광규 작은 사내들
김광규 저녁 길
김광규 젊은 손수운전자에게
김광규 좀팽이처럼
김광규 줄타기
김광규 책 노래
김광규 크낙산의 마음
김광규 홰나무
김광규 희망
김광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김광균 UN군 묘지에서
김광균 가로수
김광균 고향
김광균 공지(空地)
김광균 광장
김광균 구의리(九宜里)
김광균 기적(汽笛)
김광균 노신(魯迅)
김광균 녹동(綠洞)묘지에서
김광균 눈 오는 밤의 시(詩)
김광균 다시 목련
김광균 대낮
김광균 대화
김광균 뎃상
김광균 목련
김광균 목상(木像)
김광균 밤비
김광균 복사꽃과 제비
김광균 비(碑)
김광균 비풍가(悲風歌)
김광균 빙화(氷花)
김광균 사향도(思鄉圖)
김광균 산 1
김광균 석고의 기억
김광균 설야
김광균 성호 부근(星湖附近)
김광균 수철리(水鐵里)
김광균 승용마차
김광균 신촌(新村)서
김광균 야차(夜車)
김광균 영미교(永美橋)
김광균 오월화(五月花)
김광균 오후의 구도(構圖)
김광균 와사등
김광균 외인촌
김광균 은수저
김광균 장곡천정에 오는 눈
김광균 조화(弔花)
김광균 창백한 산보
김광균 추일서정(秋日抒情)
김광균 추일서정(秋日抒情)
김광균 취적(吹笛)벌
김광균 파도가 있는 해안에 서서
김광균 한등(寒燈)
김광균 한려수도
김광균 해바라기의 감상(感傷)
김광균 향수
김광균 향수의 의장(意匠)
김광균 황혼가(黃昏歌)
김광균 회귀(回歸)에의 헌시(獻詩)
김광균 흑설(黑雪)
김광림 가로수(街路樹)
김광림 가을

김광림 계절(季節)
김광림 교외선(郊外線)
김광림 구릉(丘陵) 1
김광림 구릉(丘陵) 3
김광림 꽃 · 베고니아
김광림 꽃과 잃어버린 신(神)
김광림 꽃의 문화사(文化史) 초(抄)
김광림 꽃의 반항(反抗)
김광림 꽃의 서시(序詩)
김광림 나는
김광림 노고산(老姑山) · 종점(終點)
김광림 노을
김광림 노을이 깔릴 때
김광림 다리목
김광림 돌을 찬다
김광림 되살아 온 동정(童貞)
김광림 등불
김광림 말뚝
김광림 매화(梅花) 한 송이
김광림 못은 박혔는데
김광림 바다의 역설(逆說)
김광림 법열(法悅)
김광림 별
김광림 부활(復活)의 장(章)
김광림 사막(沙漠)
김광림 사중주(四重奏)
김광림 산(山) Ⅳ
김광림 산(山) Ⅸ
김광림 산(山)의 IMAGE
김광림 상심(傷心)하는 접목(接木)
김광림 새
김광림 석쇠
김광림 소용돌이
김광림 아드바룬이 떠 있는 풍경(風景)
김광림 연가(戀歌) 2
김광림 유월(六月)이 있게 된 이유(理由)의 달 사월(四月)은
김광림 음악회(音樂會)
김광림 음역(音域)에서
김광림 의문(疑問)의 가지
김광림 자화(自畵)
김광림 전쟁과 꿀벌
김광림 주일(主日)
김광림 창(窓)
김광림 철교(鐵橋)
김광림 첫 소망
김광림 화신(化身)
김광림 황홀(恍惚)
김광섭 가는 길
김광섭 가을
김광섭 가을이 서럽지 않게
김광섭 거리(距離)
김광섭 겨울날
김광섭 고독
김광섭 고향
김광섭 고혼(孤魂)
김광섭 구름
김광섭 금붕어
김광섭 꽃 단상(斷想)
김광섭 나의 사랑하는 나라
김광섭 나의 초상
김광섭 남강유한(南江有恨)
김광섭 달밤
김광섭 담배
김광섭 대(大)서울
김광섭 독립의 길
김광섭 독백
김광섭 동경
김광섭 들국화
김광섭 마음
김광섭 민족의 제전(祭典)
김광섭 밤
김광섭 벌
김광섭 변두리
김광섭 병(病)
김광섭 보이지 않는 별
김광섭 봄
김광섭 비 개인 여름 아침
김광섭 비밀
김광섭 사과
김광섭 사랑
김광섭 사자(死者)로부터의 염서(艶書)
김광섭 산(山)
김광섭 산호 캐러 가다
김광섭 새벽
김광섭 생의 감각
김광섭 서울 크리스마스
김광섭 서울에 둔 무덤을 찾아
김광섭 서천월(西天月)
김광섭 석양 종로
김광섭 설경(雪景)
김광섭 성북동 비둘기
김광섭 손자를 안고
김광섭 송별

김광섭 수영
김광섭 시인
김광섭 심부름 가는……
김광섭 아기
김광섭 아기와 더불어
김광섭 아름다운 생각 하나
김광섭 옥수(獄愁)
김광섭 우수
김광섭 우주의 질서
김광섭 이 어두운 시간을
김광섭 이별의 노래
김광섭 인생
김광섭 자화상 37년
김광섭 저녁에
김광섭 전설
김광섭 젊은 시인의 죽음
김광섭 지나가는 꿈
김광섭 차를 타고
김광섭 추상(秋想)
김광섭 해바라기
김광섭 해방
김광섭 행인(行人)
김광섭 헌신
김광섭 황혼
김규동 3·1절(三·一節)에 부치는 노래
김규동 3월의 꿈
김규동 가족
김규동 검은 날개
김규동 고향(故鄕)
김규동 곡예사(曲藝師)
김규동 기러기
김규동 나비와 광장(廣場)
김규동 나체(裸體)속을 뚫고 가는 무수(無數)한 구토(嘔吐)
김규동 내 가슴속에 기계(機械)가
김규동 노래
김규동 눈 나리는 밤의 시(詩)
김규동 달아오를 아궁이를 위한 시
김규동 대위(對位)
김규동 두만강
김규동 두보(杜甫)
김규동 무등산
김규동 무서운 아이들
김규동 바다의 기록(記錄)
김규동 밤의 신화(神話)
김규동 보일러사건(事件)의 진상(眞狀)
김규동 북에서 온 어머님 편지
김규동 분단(分斷)
김규동 불안(不安)의 속도(速度)
김규동 송년(送年)
김규동 시인(詩人)의 검(劍)
김규동 아침의 예의
김규동 안부
김규동 어린 손자에게
김규동 어머님전(前) 상서(上書)
김규동 여름의 노래
김규동 열차(列車)를 기다려서
김규동 위기(危機)를 담은 전차(電車)
김규동 유리씨즈
김규동 유모차를 끌며
김규동 의식의 나무
김규동 이카로스 비가(悲歌)
김규동 재판
김규동 전쟁(戰爭)과 나비
김규동 진공회담(眞空會談)
김규동 침묵(沈默)의 소리
김규동 데레타이프의 가을
김규동 통일의 빛살
김규동 포대(砲台)가 있는 풍경(風景)
김규동 하늘과 태양(太陽)만이 남아있는 도시(都市)
김규동 한 시대
김규동 호남평야
김규동 환상가로(幻想街路)
김규동 희망을 위하여
김규화 구라파의 놀부
김규화 꽃상여
김규화 날라리
김규화 내 노래 백번을 기워
김규화 도깨비춤
김규화 등잔불
김규화 무심(無心)
김규화 무위(無爲)
김규화 벽수 6장(六章)
김규화 새 동동(動動) 노래
김규화 서낭당 서낭님
김규화 서동(薯童)이여
김규화 아크로폴리스 가는 길
김규화 애랑의 말
김규화 이상한 기도(祈禱)
김규화 정읍사(井邑詞)의 달
김규화 지게
김규화 환상 귀향
김규화 힘 3

김기림 가거라 새로운 생활로
김기림 가을의 과수원
김기림 가을의 태양(太陽)은 플라티나의 연미복(燕尾服)을 입고
김기림 감상풍경(感傷風景)
김기림 겨울의 노래
김기림 곡(哭) 백범 선생(白凡先生)
김기림 공동묘지
김기림 구절(句節)도 아닌 두서너 마디
김기림 금붕어
김기림 기차(汽車)
김기림 깃발
김기림 꿈꾸는 진주(眞珠)여 바다로 가자
김기림 데모크라시에 부치는 노래
김기림 동해(東海)
김기림 두견새
김기림 만세(萬歲)소리
김기림 모두들 돌아와 있고나
김기림 못
김기림 바다
김기림 바다와 나비
김기림 바다의 향수(鄕愁)
김기림 방(房)
김기림 병(病)든 풍경(風景)
김기림 봄은 전보도 안 치고
김기림 비
김기림 산양(山羊)
김기림 새 나라 송(頌)
김기림 새해의 노래
김기림 세계(世界)의 아침
김기림 쇠바퀴의 노래
김기림 순교자(殉敎者)
김기림 슈―르레알리스트
김기림 시(詩)와 문화(文化)에 부치는 노래
김기림 시론(詩論)
김기림 시민행렬(市民行列)
김기림 아롱진 기억(記憶)의 옛 바다를 건너
김기림 아프리카 광상곡(狂想曲)
김기림 어린 공화국(共和國)이여
김기림 연륜(年輪)
김기림 연애의 단면(斷面)
김기림 오늘은 악마의 것이나
김기림 오후(午後)의 꿈은 날 줄을 모른다
김기림 옥상 정원(屋上庭園)
김기림 올빼미의 주문(呪文)
김기림 요양원
김기림 우리들 모두의 꿈이 아니냐
김기림 우리들의 악수
김기림 우리들의 팔월(八月)로 돌아가자
김기림 유리창
김기림 인민공장(人民工場)에 부치는 노래
김기림 일요일(日曜日) 행진곡(行進曲)
김기림 자취
김기림 잠은 나의 배를 밀고
김기림 저녁별은 푸른 날개를 흔들며
김기림 제야(除夜)
김기림 쥬피타 추방(追放)
김기림 지혜에게 바치는 노래
김기림 첫사랑
김기림 초승달은 소제부(掃除夫)
김기림 추억(追憶)
김기림 태양의 풍속
김기림 태풍의 기침 시간(起寢時間)
김기림 파도 소리 헤치고
김기림 파도(波濤)
김기림 파선(破船)
김기림 폭풍경보(暴風警報)
김기림 해도(海圖)에 대하여
김기림 해상(海上)
김기림 향수(鄕愁)
김기림 화물자동차(貨物自動車)
김기진 가련아
김기진 가슴의 별
김기진 고대(苦待)하는 마음
김기진 관동시첩(關東詩帖)
김기진 권태
김기진 누구나 왔으면
김기진 대수풀 우거진 곳
김기진 동부전선(東部戰線)
김기진 망덕산
김기진 백수의 탄식
김기진 북경시첩(北京詩帖)
김기진 비 오는 날
김기진 신록(新綠)
김기진 애련모사(哀戀慕思)
김기진 연못에 서서
김기진 춘기행(春紀行)
김기진 한 갈래의 길

김기진 한 개의 불빛
김기진 화강석
김기진 회관(會館) 앞에서
김남조 가난한 이름에게
김남조 가을 햇볕에
김남조 가을의 기도
김남조 가을잠
김남조 겨울 그리스도
김남조 겨울 바다
김남조 겨울나무
김남조 고요
김남조 그 젊음에게
김남조 그녀의 이야기
김남조 나무들
김남조 나무들
김남조 나에게
김남조 나직한 노래부터
김남조 내가 흐르는 강물에
김남조 너를 위하여
김남조 너에게
김남조 달밤
김남조 바다
김남조 바람
김남조 밤에
김남조 밤편지
김남조 봄에게
김남조 부활의 구세주
김남조 비파 소리
김남조 산(山)에 와서
김남조 상사(想思)
김남조 생명
김남조 서녘
김남조 선물
김남조 설일(雪日)
김남조 송(頌)
김남조 송가(頌歌)
김남조 아가(雅歌)
김남조 아침 기도
김남조 아침 은총
김남조 애가(哀歌)
김남조 어머님의 성서(聖書)
김남조 오월(五月)에
김남조 요람소곡(小曲)
김남조 음악
김남조 이인칭
김남조 임
김남조 잠
김남조 정념의 기(旗)
김남조 정물(靜物)
김남조 제야(除夜)
김남조 축성(祝聖)의 첫 인(印)을
김남조 편지
김남조 하일(夏日)
김남조 행복(幸福)
김남조 허(虛)
김남조 화답
김남조 후조(候鳥)
김남주 감을 따면서
김남주 고목
김남주 꽃이여 피여 이름이여
김남주 나 자신을 노래한다
김남주 나의 꿈 나의 날개
김남주 달
김남주 동지여
김남주 모래알 하나로
김남주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답니다
김남주 벗에게
김남주 병사의 밤
김남주 불꽃
김남주 사랑은
김남주 사상에 대하여
김남주 손
김남주 솔직히 말해서 나는
김남주 시의 요람 시의 무덤
김남주 어머님께
김남주 옛 마을을 지나며
김남주 우익 쿠데타
김남주 원숭이와 설탕
김남주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는 어느 백성 이야기
김남주 장난
김남주 전향을 생각하며
김남주 조국은 하나다
김남주 조선의 딸
김남주 통일되면 꼭 와
김남주 편지 1
김남주 학살 1
김남주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김달진 가을비
김달진 고독한 동무
김달진 고사(古寺)
김달진 고소(古沼)
김달진 구룡목(木)꽃
김달진 귀로(歸路)
김달진 그리는 세계 있기에

김달진 금붕어
김달진 기다리는 사람
김달진 기다리는 사람들
김달진 낙타떼
김달진 눈
김달진 눈[眼]
김달진 달밤
김달진 담천(曇天)
김달진 들길
김달진 모월(某月) 모일(某日)
김달진 목련(木蓮)꽃
김달진 무덤
김달진 바람
김달진 바람 소리 물 소리
김달진 백일애상(白日哀傷)
김달진 벌레
김달진 불암산(佛岩山)
김달진 비명(碑銘)
김달진 빗발 속으로
김달진 사촌(寺村)
김달진 산(山)모랑길
김달진 상처한 친우의 심정을 생각하고
김달진 새꽃·달빛
김달진 샘물
김달진 샘물 속의 슬픔
김달진 속삭임
김달진 씬냉이꽃
김달진 아침
김달진 애인(愛人)
김달진 열무우꽃
김달진 오후(午後)의 사상(思想)
김달진 우후(雨後)
김달진 육바라밀(六波羅蜜)
김달진 입춘(立春)
김달진 천대(賤待)받는 마음이
김달진 천하(天下) 사람들아
김달진 첫겨울의 한낮
김달진 청시(靑柿)
김달진 추성(秋聲)
김달진 팔십(八十)에서
김달진 포만(飽滿)
김달진 한서(漢書)를 읽다가
김달진 할미꽃
김달진 햇볕
김달진 호면(湖面)
김동리 가을 바람
김동리 개구리 우는 밤
김동리 고개 마루에 서서
김동리 고향
김동리 광화문 지하도(光化門 地下道)
김동리 꽃
김동리 바위
김동리 밤 1
김동리 별리부(別離賦)
김동리 소녀행(少女行)
김동리 송추(松湫)에서
김동리 시인(詩人)
김동리 연(蓮)
김동리 이무기
김동리 자화상(自畵像)
김동리 장미
김동리 제야(除夜)
김동리 청주(淸州)를 지나면서
김동리 초파일 밤
김동리 황철쭉
김동명 가을
김동명 광인(狂人)
김동명 기차(汽車)
김동명 꿈에
김동명 나는 보고 섰노라
김동명 나의 뜰
김동명 나의 서재(書齋)
김동명 난초(蘭草)
김동명 내 마음은
김동명 노래
김동명 당신이 만약 내게 문(門)을 열어 주시면
김동명 딸년이 운다
김동명 때는 지나가다
김동명 명상(瞑想)
김동명 목격자(目擊者)
김동명 미소(微笑)
김동명 바다
김동명 반생(半生)
김동명 밤
김동명 백설부(白雪賦)
김동명 벗을 맞음
김동명 불놀이
김동명 산(山)
김동명 삼팔선(三八線)
김동명 새벽
김동명 새벽
김동명 생각
김동명 설중화송(雪中花頌)
김동명 세대(世代)의 탄식(嘆息)

김동명 손님
김동명 수선(水仙) 2
김동명 수선화(水仙花)
김동명 술노래
김동명 술회(述懷)
김동명 식탁(食卓)
김동명 아가의 날
김동명 애사(哀詞)
김동명 역사(歷史)는
김동명 옥중기(獄中記) 1
김동명 우울(憂鬱)
김동명 조고마한 풍경(風景)
김동명 진주만(眞珠灣)
김동명 파초(芭蕉)
김동명 피난민(避難民) 1
김동명 피릿소리
김동명 하늘
김동명 해양송가(海洋頌歌)
김동명 호수(湖水)
김동명 황혼(黃昏)
김동현 가을 저녁
김동현 강산집(江山集)
김동현 겨울 과수(果樹) 밭에서
김동현 구름을 보며
김동현 눈 오는 돌밭에서
김동현 달
김동현 달을 먹은 산(山)
김동현 바람이
김동현 바람이 꽃잎을 스칠 때
김동현 비가(悲歌)
김동현 사계(四季)
김동현 새
김동현 성탄제
김동현 시(詩)
김동현 신항리
김동현 여름 저녁 한 때 들판을 보며
김동현 유랑
김동현 조응(照應)
김동현 착한 이를 추억함
김동현 풀잎의 노래
김동환 강이 풀리면
김동환 거지의 꿈
김동환 고독
김동환 곡폐허(哭廢墟)
김동환 구십춘광(九十春光)
김동환 국경의 밤
김동환 귀도 없나, 입도 없나
김동환 꿈을 따라갔더니
김동환 눈이 내리느니
김동환 딸 삼형제
김동환 마음의 고향
김동환 면화밭
김동환 문
김동환 물결
김동환 바람은 남풍
김동환 방화범(放火犯)
김동환 뱃사공의 아내
김동환 버들피리
김동환 봄
김동환 봄 소낙비
김동환 봄놀이
김동환 봄비
김동환 봄이 오면
김동환 봉과 닭
김동환 부끄러움
김동환 북청 물장수
김동환 산너머 남촌에는
김동환 선구자
김동환 송화강 뱃노래
김동환 숙명
김동환 시작
김동환 아무도 모르라고
김동환 약산동대(東臺)
김동환 약숫물터
김동환 언제 오시나
김동환 오월의 하늘이 열리면
김동환 오월의 향기
김동환 우리 만나던 시절이
김동환 우리 오빠
김동환 웃은 죄
김동환 자장가
김동환 장승
김동환 재촉 편지
김동환 지열(地熱)
김동환 첫날밤
김동환 초인의 선언
김동환 파업
김동환 팔려가는 섬색시
김동환 표백(漂泊)
김동환 해녀의 노래
김동환 해당화
김명수 가죽장갑
김명수 검차원(檢車員)
김명수 고향에 가서
김명수 그 봄의 식수
김명수 꽃꽂이 시간

김명수 남북어로한계선
김명수 늑대와 개
김명수 단추
김명수 무개차(無蓋車)
김명수 방아깨비
김명수 봉답(奉畓)
김명수 북두칠성(北斗七星)
김명수 비빔밥 한 그릇
김명수 사막의 노래
김명수 상처
김명수 서빙고를 지나며
김명수 소낙비
김명수 심장(心臟)
김명수 앵무새의 혀
김명수 월식(月蝕)
김명수 유리칼
김명수 점경(點景)
김명수 주먹원숭이
김명수 집어등(集魚燈)
김명수 찔레 열매
김명수 피뢰침
김명수 하급반 교과서
김명수 헬리콥터
김명수 호랑나비
김명순 거룩한 노래
김명순 고구려성(高句麗城)을 찾아서
김명순 기도
김명순 남방(南邦)
김명순 만년청(萬年靑)
김명순 무제(無題)
김명순 분신(分身)
김명순 사랑하는 이의 이름
김명순 석공(石工)의 노래
김명순 소소(甦笑)
김명순 수도원(修道院)으로 가는 벗에게
김명순 싸움
김명순 언니 오시는 길에
김명순 옛날의 노래
김명순 위로(慰勞)
김명순 유리관 속에
김명순 유언(遺言)
김명순 저주(咀呪)
김명순 추억(追憶)
김명순 탄식
김명순 탄실의 초몽(初夢)
김명인 D개미
김명인 가을강(江)
김명인 가을에
김명인 갈매기 관찰
김명인 고래 I
김명인 고산행(高山行)
김명인 구름의 손
김명인 그대는 어디서 무슨 병(病) 깊이 들어
김명인 그리운 몽유(夢遊) 1
김명인 기차에 대하여
김명인 김정호(金正浩)의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김명인 김정호(金正浩)의 대동여지도·II
김명인 눈 속의 빈집
김명인 는개
김명인 다시 영동(嶺東)에서
김명인 동두천(東豆川) I
김명인 동두천(東豆川) II
김명인 동두천(東豆川) III
김명인 동두천(東豆川) IV
김명인 동두천(東豆川) V
김명인 머나먼 곳 스와니·I
김명인 머나먼 곳 스와니·II
김명인 물 속의 빈집 I
김명인 물 속의 빈집 II
김명인 백석(白石) 마을의 묘(墓)
김명인 법성포 부근
김명인 베트남 I
김명인 베트남 II
김명인 부석사(浮石寺)
김명인 비 속의 아버지
김명인 새
김명인 소금바다로 가다
김명인 소화(昭和) 14년(年)
김명인 안개
김명인 연해주 시편(詩篇) 1
김명인 연해주 시편(詩篇) 3
김명인 영동행각(嶺東行脚) II
김명인 영동행각(嶺東行脚) III
김명인 영동행각(嶺東行脚) I
김명인 운명의 형식
김명인 유적에 적다
김명인 유타시편(詩篇) I
김명인 유타시편(詩篇) II
김명인 유타시편(詩篇) III
김명인 천축(天竺)
김명인 칼새의 방
김명인 켄터키의 집 I

김명인 켄터키의 집 II
김명인 하늘 길
김명인 화엄(華嚴)에 오르다
김상옥 강(江) 있는 마을
김상옥 그 문전(門前)
김상옥 깃을 떨어뜨린 새
김상옥 낙엽(落葉)
김상옥 다보탑(多寶塔)
김상옥 대역(代役)의 풀
김상옥 더러는 마주친다
김상옥 뜨락
김상옥 묵(墨)을 갈다가
김상옥 방관자(傍觀者)의 노래
김상옥 백자부(白磁賦)
김상옥 변신(變身)의 꽃
김상옥 병상(病床)
김상옥 봄
김상옥 봉선화(鳳仙花)
김상옥 불모(不毛)의 풀
김상옥 비 듣는 분막(墳幕)
김상옥 비가(悲歌)
김상옥 수해(樹海)
김상옥 십일면관음(十一面觀音)
김상옥 어느 가을
김상옥 이순(耳順)의 봄
김상옥 인간(人間)나라 생불(生佛)나라의 수도(首都)
김상옥 입동(立冬)
김상옥 주변(周邊)에서
김상옥 참파노의 노래
김상옥 추천
김상옥 축제(祝祭)
김상옥 태(胎)
김상옥 화창(和暢)한 날
김상용 가을
김상용 괭이
김상용 굴뚝 노래
김상용 기도(祈禱)
김상용 나
김상용 남(南)으로 창(窓)을 내겠소
김상용 노래 잃은 뻐꾹새
김상용 눈오는 아침
김상용 마음의 조각 1
김상용 마음의 조각 2
김상용 마음의 조각 3
김상용 마음의 조각 4
김상용 마음의 조각 5
김상용 마음의 조각 6
김상용 마음의 조각 7
김상용 마음의 조각 8
김상용 물고기 하나
김상용 반딧불
김상용 새벽 별을 잊고
김상용 서글픈 꿈
김상용 어미소
김상용 추억(追憶)
김상용 태풍(颱風)
김상용 포구(浦口)
김상용 한잔 물
김상용 향수(鄕愁)
김상용 황혼(黃昏)의 한강(漢江)
김성춘 1984 · 여름 수첩
김성춘 가을 달
김성춘 갈매기는 풀잎이 아니다
김성춘 개운포 산조(散調)
김성춘 김종삼(金宗三) 생각 1
김성춘 노래 1
김성춘 바다 누드 1
김성춘 바하를 들으며
김성춘 방어진에서 1
김성춘 봄을 위한 발라드
김성춘 산(山) · 소쩍새 울음을 주제(主題)로 황홀해지는
김성춘 새에 관한 단상(斷想) 1
김성춘 섬 1
김성춘 섬 · 비망록 1
김성춘 섬 · 비망록 16
김성춘 섬 · 비망록 17
김성춘 소지(燒紙)
김성춘 시립공원묘지의 사진사
김성춘 오월(五月), 그 들판에 쓸리던 엉겅퀴꽃
김성춘 즉흥 환상곡 1
김소엽 각시풀
김소엽 그리움
김소엽 그분이 오시는 길
김소엽 기도
김소엽 당신
김소엽 별 1
김소엽 별 2
김소엽 별 3
김소엽 봄
김소엽 사단의 시험
김소엽 사랑 1
김소엽 섬
김소엽 아직도 나는 몰라요

김소엽 어느 날의 고백
김소엽 우물가에서
김소엽 풀잎 위에 매달린 이슬처럼
김소엽 하늬바람 될래요
김소엽 함께 흐릅시다
김소엽 헌시
김소엽 헌신
김소월 가는 길
김소월 가는 봄 삼월(三月)
김소월 가시나무
김소월 가을 아침에
김소월 가을 저녁에
김소월 강촌(江村)
김소월 개여울
김소월 거친 풀 흐트러진 모래동으로
김소월 고독(孤獨)
김소월 고적(孤寂)한 날
김소월 공원(公園)의 밤
김소월 금(金)잔디
김소월 기억(記憶)
김소월 기회(機會)
김소월 길
김소월 길손
김소월 꿈
김소월 꿈
김소월 꿈 꾼 그 옛날
김소월 꿈길
김소월 꿈으로 오는 한 사람
김소월 꿈자리
김소월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김소월 나의 집
김소월 낙천(樂天)
김소월 남의 나라 땅
김소월 낭인(浪人)의 봄
김소월 널
김소월 눈
김소월 눈 오는 저녁
김소월 눈물이 쉬루르 흘러납니다
김소월 님에게
김소월 님의 노래
김소월 담배
김소월 돈과 밥과 맘과 들
김소월 마음의 눈물
김소월 만리성(萬里城)
김소월 맘에 속의 사람
김소월 맘에 있는 말이라고 다 할까 보냐
김소월 먼 후일
김소월 못 잊어
김소월 무덤
김소월 무신(無信)
김소월 물마름
김소월 바닷가의 밤
김소월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더면
김소월 바리운 몸
김소월 밭고랑 위에서
김소월 봄비
김소월 부귀 공명
김소월 부모(父母)
김소월 비단 안개
김소월 사노라면 사람은 죽는 것을
김소월 삭주구성(朔州龜城)
김소월 산
김소월 산유화(山有花)
김소월 삼수갑산(三水甲山)
김소월 상쾌한 아침
김소월 새벽
김소월 생(生)과 사(死)
김소월 서울 밤
김소월 실제(失題)
김소월 야(夜)의 우적(雨滴)
김소월 어려 듣고 자라 배워 내가 안 것은
김소월 엄마야 누나야
김소월 여수(旅愁)
김소월 여자의 냄새
김소월 열락(悅樂)
김소월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김소월 옛 낯
김소월 옛이야기
김소월 옷과 밥과 자유
김소월 왕십리(往十里)
김소월 외로운 무덤
김소월 잊었던 맘
김소월 장별리(將別里)
김소월 저녁때
김소월 접동새
김소월 제비
김소월 진달래꽃
김소월 집 생각
김소월 찬 저녁
김소월 천리 만리(千里萬里)
김소월 초혼(招魂)
김소월 춘향(春香)과 이도령(李道令)
김소월 팔베개 노래

김소월 풀따기
김소월 하다못해 죽어 달래가 옳나
김소월 해 넘어가기 전(前) 한참은
김소월 황촉(黃燭)불
김소월 희망
김수복 겨울 묵시록(默示錄)
김수복 겨울숲에서
김수복 남양만의 물새
김수복 남해(南海)에서 1
김수복 남해(南海)에서 2
김수복 대천(大川)에 와서
김수복 또 다른 사월
김수복 마라도
김수복 반딧불
김수복 밤바다에서
김수복 별
김수복 보리피리
김수복 북한강(北韓江) 상류(上流)
김수복 비봉(飛鳳)에 가서
김수복 우리 시대의 서정시(抒情詩) 1
김수복 우리 시대의 서정시(抒情詩) 2
김수복 우리들의 나팔꽃
김수복 작은 아그배나무
김수복 저녁 숲을 나오며
김수복 지리산(智異山) 1
김수복 지리산(智異山) 타령
김수영 PLASTER
김수영 VOGUE야
김수영 가까이 할 수 없는 서적(書籍)
김수영 가옥찬가(家屋讚歌)
김수영 거대(巨大)한 뿌리
김수영 거리 1
김수영 거리 2
김수영 거미
김수영 거미잡이
김수영 공자(孔子)의 생활난(生活難)
김수영 구라중화(九羅重花)
김수영 구슬픈 육체(肉體)
김수영 국립도서관(國立圖書館)
김수영 그 방을 생각하며
김수영 기도(祈禱)
김수영 꽃 2
김수영 꽃잎 1
김수영 꽃잎 2
김수영 나는 아리조나 카보이야
김수영 나의 가족(家族)
김수영 누이야 장하고나!
김수영 눈
김수영 눈
김수영 눈
김수영 달나라의 장난
김수영 도취(陶醉)의 피안(彼岸)
김수영 등나무
김수영 만시지탄(晩時之嘆)은 있지만
김수영 말
김수영 말
김수영 모리배(謀利輩)
김수영 미인(美人)
김수영 바뀌어진 지평선(地平線)
김수영 방안에서 익어가는 설움
김수영 병풍(屛風)
김수영 봄밤
김수영 비
김수영 사랑의 변주곡(變奏曲)
김수영 사무실(事務室)
김수영 생활(生活)
김수영 서시(序詩)
김수영 서책
김수영 성(性)
김수영 수난로(水煖爐)
김수영 시(詩)
김수영 식모
김수영 아메리카 타임지(誌)
김수영 아버지의 사진(寫眞)
김수영 어느 날 고궁(古宮)을 나오면서
김수영 엔카운터지(誌)
김수영 여름 뜰
김수영 여름 아침
김수영 여편네의 방에 와서
김수영 영사판(映寫板)
김수영 예지(叡智)
김수영 우선 그놈의 사진을 떼어서 밑씻개로 하자
김수영 웃음
김수영 육법전서(六法全書)와 혁명(革命)
김수영 육오(六五)년의 새해
김수영 이 한국문학사(韓國文學史)
김수영 이사(移徙)
김수영 자[針尺]
김수영 잔인의 초
김수영 장시 1
김수영 장시(長詩) 2
김수영 적(敵) 1
김수영 적(敵)2

김수영 절망(絶望)
김수영 조고마한 세상의 지혜(智慧)
김수영 지구의(地球儀)
김수영 참음은
김수영 채소밭 가에서
김수영 초봄의 뜰안에
김수영 토끼
김수영 파밭 가에서
김수영 폭포(瀑布)
김수영 푸른 하늘을
김수영 풀
김수영 하…… 그림자가 없다
김수영 하루살이
김수영 헬리콥터
김수영 현대식(現代式) 교량(橋梁)
김수영 휴식(休息)
김승희 80년대의 이름으로 촛불에게 묻노니
김승희 객석에 앉은 여자
김승희 검은 오선지
김승희 공포영화
김승희 그림 속의 물
김승희 길이 없는 길 위에서
김승희 나는 밤마다 거울 속에 물을 준다
김승희 나의 마차(馬車)엔 고갱의 푸른 말[馬]을
김승희 낙화암 벼랑 위의 태양의 바라의 춤
김승희 난폭
김승희 넝마의 운율
김승희 누가 나의 슬픔을 놀아주랴
김승희 달걀 속의 生 3
김승희 달걀 속의 生 5
김승희 달걀 속의 생(生) 1
김승희 만파식적(萬波息笛)
김승희 무궁동(無窮動)
김승희 미완성을 위한 연가
김승희 배꼽을 위한 연가 1
김승희 사련(邪戀)
김승희 슬픈 적도(赤道)
김승희 슬픔과 놀며
김승희 시간(時間)
김승희 시계풀의 편지 1
김승희 시계풀의 편지 3
김승희 아프락사스 5
김승희 양수리에 가서
김승희 어두운 계단을 내려가며
김승희 없는 사람
김승희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김승희 여인 등신불
김승희 유서를 쓰며
김승희 이카루스의 잠
김승희 일회용 시대
김승희 자살자의 노래
김승희 장미와 가시
김승희 죽은 말의 꿈
김승희 진주 기르기 1
김승희 천왕성의 생각
김승희 첫눈
김승희 태양미사
김승희 태양성서
김승희 태양의 면죄부
김승희 평화일기 2
김승희 햇님을 좋아하는 얼음 나라 아이들의 노래 1
김승희 햇님의 사냥꾼
김승희 흑장미가 있는 연가
김승희 흰 여름의 포장마차
김시종 가화만발(假花滿發)
김시종 골목의 등대지기
김시종 근황(近況)
김시종 다리
김시종 마법(魔法)의 방(房)
김시종 보쌈가(歌)
김시종 사랑 1
김시종 사랑 2
김시종 삶의 의미
김시종 숙직(宿直)
김시종 얼굴 없는 여인(女人)
김시종 옛날 사람들은
김시종 유명세(有名稅)
김시종 이설논개(異說論介)
김시종 일기
김시종 자유
김시종 점호
김시종 할머니
김시종 행복론(幸福論)
김시종 현장검증
김억 가는 봄
김억 가을
김억 갈매기
김억 강(江)가에서
김억 고적(孤寂)
김억 곽산(郭山) 고을
김억 꿈의 노래

김억	나의 이상(理想)
김억	낙타(駱駝)
김억	내 설움
김억	내 세상(世上)은 물이런가, 구름이런가
김억	눈
김억	눈
김억	눈 올 때마다
김억	달과 함께
김억	돌던지기
김억	때
김억	먼 후일(後日)
김억	무심(無心)
김억	물레
김억	바다 저 편(便)
김억	바다를 건너
김억	배
김억	버들가지
김억	별낚기
김억	봄바람
김억	봄비
김억	봄은 간다
김억	사계(四季)의 노래
김억	사랑의 때
김억	삼수갑산(三水甲山)
김억	상실(喪失)
김억	신작로(新作路)
김억	실제(失題)
김억	십일월(十一月)의 저녁
김억	옛날
김억	오다가다
김억	우정(友情)
김억	원산(元山)서
김억	읽어지는 기억(記憶)
김억	입
김억	전원(田園)의 황씨(黃氏)
김억	조약돌
김억	참살구
김억	코스모스
김억	탄실이
김억	탈춤
김억	풀밭 위
김억	피리
김억	해마다 생각나는
김억	황해(黃海)의 첫봄
김여정	강설기(降雪期) 1
김여정	강설기(降雪期) 2
김여정	겨울 낙동강
김여정	겨울새
김여정	고향 1
김여정	그 빛
김여정	그대 꿈꾸는 동안
김여정	길
김여정	꿈결 속에서
김여정	다시 겨울바다에서
김여정	등산(登山) 1
김여정	레몬 1
김여정	레몬 10
김여정	레몬 2
김여정	묵화
김여정	물주기
김여정	방생 1
김여정	병상일기
김여정	병상일기 2
김여정	사랑 1
김여정	아득한 하늘
김여정	아침의 새
김여정	예언
김여정	장미밭에서
김여정	절망연습 1
김여정	콩새
김여정	탱자나무 가시
김여정	파도는 갈기를 날리며
김여정	편지
김여정	피리새 1
김여정	피리새 2
김여정	화음(和音)
김영랑	가늘한 내음
김영랑	가야금
김영랑	강물
김영랑	강선대(降仙臺)
김영랑	거문고
김영랑	그 밖에 더 아실 이
김영랑	그 색시 서럽다
김영랑	그대는 호령도 하실 만하다
김영랑	금호강
김영랑	꿈밭에 봄 마음
김영랑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김영랑	낮의 소란소리
김영랑	내 마음을 아실 이
김영랑	내 옛날 온 꿈이
김영랑	내 훗진 노래
김영랑	노래
김영랑	눈물 속 빛나는 보람
김영랑	뉘 눈결에 쏘이었소
김영랑	님 두시고

김영랑 다정히도 불어오는 바람
김영랑 달
김영랑 독(毒)을 차고
김영랑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김영랑 두견
김영랑 들꽃
김영랑 땅거미
김영랑 떠 날아가는 마음
김영랑 마당 앞 맑은 새암
김영랑 망각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랑 묘비명
김영랑 무너진 성터
김영랑 물 보면 흐르고
김영랑 물소리
김영랑 미움이란 말
김영랑 바다로 가자
김영랑 바람에 나부끼는 갈잎
김영랑 밤 사람 그립고야
김영랑 뵈지도 않는 입김
김영랑 북
김영랑 불지암(佛地庵)
김영랑 비는 마음
김영랑 빛깔 환히
김영랑 뻘은 가슴을 훤히 벗고
김영랑 사랑은 하늘
김영랑 산골을 놀이터로
김영랑 새벽 지친 별
김영랑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
김영랑 설운 소리
김영랑 수풀 아래 작은 샘
김영랑 숲 향기
김영랑 쓸쓸한 뫼 앞에
김영랑 아지랑이
김영랑 어느날 어느때고
김영랑 언 땅 한길
김영랑 언덕에 누워 바다를 보면
김영랑 언덕에 바로 누워
김영랑 연 1
김영랑 연 2
김영랑 오—매 단풍 들것네
김영랑 오월
김영랑 오월 아침
김영랑 오월한(五月恨)
김영랑 온몸을 감도는 붉은 핏줄
김영랑 우감(偶感)
김영랑 이 정거장 행여 잊을라
김영랑 저 곡조만 사라지면
김영랑 저녁때 저녁때
김영랑 제야(除夜)
김영랑 좁은 길가에
김영랑 지반(池畔) 추억
김영랑 집
김영랑 천리를 올라온다
김영랑 청명
김영랑 춘향
김영랑 푸른 향물 흘러버린 언덕 위
김영랑 풀 위에 맺혀지는
김영랑 한줌 흙
김영랑 함박눈
김영랑 황홀한 달빛
김영재 가을밤
김영재 다시 월산리(月山里)에서
김영재 물구나무 선 동태
김영재 밤길
김영재 벼는 죽어서도
김영재 병실에서 느끼는 가을
김영재 서울의 밤
김영재 섬 1
김영재 수몰된 고향에서
김영재 순이를 순이되게
김영재 술을 마시며
김영재 실직당한 창녀의 노래
김영재 아버지 말씀
김영재 아버지의 겨울 농사
김영재 안부(安否)
김영재 역학서설(力學序說) 1
김영재 참나무는 내게 숯이 되라네
김영재 청량리 1
김영재 청량리 5
김영재 한 개의 성냥개피가 피워낸 짧은 시(詩)
김영태 결혼(結婚)
김영태 결혼식(結婚式)과 장례식(葬禮式)
김영태 김수영(金洙暎)을 추모하는 저녁 미사곡
김영태 깡깽이
김영태 꿈
김영태 꿈속 같다
김영태 나는 뭐드라?
김영태 녹차(綠茶)
김영태 눈
김영태 느리고 무겁게 그리고 우울하게
김영태 능금

김영태　닫혀진 정원(庭園)
김영태　달
김영태　달빛
김영태　댁은 뉘시드라?
김영태　도망자
김영태　등신같이
김영태　모데라토 칸타빌레
김영태　목장우유(牧場牛乳)
김영태　무게 2
김영태　물의 희롱(戲弄)
김영태　북(北)호텔
김영태　북촌(北村)
김영태　비구상(非具象)
김영태　삼춘, 그러시다면
김영태　새똥
김영태　색동넘어
김영태　선(線)
김영태　설경(雪景)
김영태　섬
김영태　성탄절(聖誕節)
김영태　수화(樹話)에 대하여
김영태　시(詩) 1
김영태　시(詩) 2
김영태　시(詩) 3
김영태　시(詩) 5
김영태　자스민차(茶)
김영태　자주꽃 속에
김영태　저녁 풍경(風景)
김영태　적요(寂寥)
김영태　정야(靜夜)
김영태　종이꽃
김영태　첼로
김영태　편지
김영태　하늘
김영태　하늘수박
김영태　한 잔 혹은 두 잔
김영태　한여름밤의 꿈
김영태　호수근처(湖水近處)
김옥영　금지! 금지!
김옥영　길섶에는 질경이들이
김옥영　나의 평화주의(平和主義)
김옥영　말 1
김옥영　말 2
김옥영　맨흘을 믿지 않는 당신에게
김옥영　열 개의 휴지부(休止符)
김옥영　완전한 시간(時間)
김옥영　완전히 어두워지지 못하여
김옥영　우는 아이를 위하여
김옥영　자운영 꽃밭에서의 일기(日記)
김옥영　죽은 날벌레들을 위하여
김옥영　지상(地上)에서 가장 아름다운 불꽃
김옥영　한 천문학자(天文學者)를 위하여
김옥영　혼례(婚禮)
김옥영　흐르는 강(江)물을 노래함
김용범　네 대의 피아노와 한 명의 무용수를 위한 시 1
김용범　네 대의 피아노와 한 명의 무용수를 위한 시 2
김용범　목강즉절(木强則折)?
김용범　목선의 가을과 비교문학
김용범　반문(反問) 1
김용범　반문(反問) 2
김용범　볼프강 모짤트의 편지
김용범　아침 기도
김용범　암호(暗號)풀기
김용범　오후의 바람
김용범　이유(理由)
김용범　잃어버린 시의 묶음 1
김용범　자살론(自殺論)
김용범　잠
김용범　평화에 대한 연구 1
김용범　평화에 대한 연구 16
김용범　플룻 1
김용범　한정(閑情)
김용범　해변 1
김용범　흰 피톨의 꿈
김용제　그리움
김용제　뉘우칠 때
김용제　만세(萬歲)
김용제　백지(白紙)
김용제　북풍사(北風辭)
김용제　비둘기
김용제　산무정(山無情) 1
김용제　설날에
김용제　수무정(水無情) 1
김용제　술이나 하였더면
김용제　슬픈 과실(果實)
김용제　정열(情熱)의 처녀도(處女島)
김용제　혼수(婚需)
김용태　검은 성벽(城壁)
김용태　검은 성역(聖域)
김용태　검은 존재(存在)
김용태　검은 최촉(催促)
김용태　계절의 송가(送歌)

김용태 관음찬(觀音讚)삼(三)
김용태 관음찬(觀音讚)이(二)
김용태 관음찬(觀音讚)일(一)
김용태 기도(祈禱)
김용태 꿈얘기
김용태 방하착(放下着)
김용태 석굴암(石窟庵)에서
김용태 소년(少年)과 석녀(石女)의 오브제
김용태 어쩌다가 어쩌다가
김용태 왕복지대(往復地帶)
김용태 원(願) (1)
김용태 육교(陸橋)에서
김용태 전쟁과 항구와 소녀
김용태 한산자(寒山子)여
김용태 해운대(海雲臺) 새벽 바람
김용택 강
김용택 그리운 그 사람
김용택 그리운 꽃편지 1
김용택 그리운 꽃편지 3
김용택 그리운 꽃편지 5
김용택 길
김용택 꽃
김용택 꽃산 찾아가는 길
김용택 너무나 그리들 말더라고
김용택 너의 자리
김용택 노란 초가집
김용택 누이야 날이 저문다
김용택 눈 내리는 김제만경
김용택 뒤를 보며
김용택 또 집이 없었다
김용택 마당은 비뚤어졌어도 장구는 바로 치자
김용택 모판같이 환한 세상
김용택 문태환 약전
김용택 바람
김용택 보리
김용택 사랑과 밥과 시
김용택 사랑을 위하여
김용택 산울림
김용택 살가지 잡아먹세
김용택 새벽
김용택 섬진강 1
김용택 섬진강 15
김용택 섬진강 16
김용택 섬진강 21
김용택 섬진강 24
김용택 섬진강 27
김용택 섬진강 4
김용택 섬진강 9
김용택 쉬운 봄
김용택 슬픈 이마
김용택 시는 서울서 쓰고 사는 건 우리가 살고
김용택 쌀밥
김용택 우리 땅의 사랑노래
김용택 워매, 속탄 것
김용택 정든 땅 언덕 위에
김용택 진달래
김용택 청천 하늘엔 잔별도 많다
김용택 초가집
김용택 태환이 형 빗산 타고 가다
김용택 편지
김용택 해마다 소쩍새 처음 울던 날 밤엔 가슴 떨려 잠 이룰 수 없어라
김용택 햅쌀
김용택 흉년
김용택 흉년 양식
김용택 흔적
김용호 Y라는 부호
김용호 가을
김용호 고독(孤獨)
김용호 고향으로 간다
김용호 꽃
김용호 날개 1
김용호 눈 오는 밤에
김용호 다시 고개 우으로
김용호 담배
김용호 또 한 송이의 나의 모란
김용호 매화
김용호 바위처럼
김용호 밤 거리에서
김용호 버릇
김용호 별리(別離)
김용호 붓 한 자루 가지고 간다
김용호 산
김용호 상밥집
김용호 석류
김용호 시계
김용호 시구널
김용호 싹
김용호 앉은뱅이 저울의 노래
김용호 역설(逆說)
김용호 연가(戀歌)
김용호 잃어버린 시간

김용호　절정 위에서
김용호　조선
김용호　주막(酒幕)에서
김용호　초조(焦燥)
김용호　추억(追憶)
김용호　코스모스의 노래
김용호　푸른 별
김용호　항구(港口)
김용호　해마다 피는 꽃
김용호　향수(鄕愁)
김윤성　가야금 산조(散調)
김윤성　구름
김윤성　귀로(歸路)에
김윤성　나무에 앉은 새
김윤성　낙수초(落穗抄)
김윤성　눈을 가지고
김윤성　데드·마스크
김윤성　돌 II
김윤성　돌 III
김윤성　돌 IV
김윤성　돌 VII
김윤성　돌아가는 길
김윤성　목련(木蓮)이 있는 골목에서
김윤성　바다가 보이는 산길
김윤성　바닷가에 나오면
김윤성　봄이 오고 있다
김윤성　수묵화(水墨畵)
김윤성　수평선(水平線)
김윤성　숲
김윤성　시(詩)
김윤성　신록(新綠)
김윤성　아침
김윤성　용문산(龍門山) 은행나무
김윤성　응시단장(凝視斷章)
김윤성　응시단장(凝視斷章)
김윤성　응시단장(凝視斷章)
김윤성　응시단장(凝視斷章)
김윤성　잠자리
김윤성　창경원(昌慶苑)
김윤성　책력(冊曆)
김윤성　효조(曉鳥)
김은자　굴뚝새를 위하여
김은자　근심의 별에게
김은자　깊은 산
김은자　나뭇잎 나뭇잎 1
김은자　노루야 꼬리야
김은자　달아나자 어디로?
김은자　들판 끝으로
김은자　떠도는 숨결,
김은자　마침표를 지우며
김은자　보라색 꽃이 피어
김은자　사족 또는 족발
김은자　시간의 마을에서
김은자　안개꽃 부근(附近) 1
김은자　어둠에게 1
김은자　진달래 점등(點燈)
김은자　천년(千年)의 가슴 안에
김은자　초설(初雪)
김은자　하늘에서 비애가
김은자　하단(下端)에서 1
김은자　황혼에서
김정란　결핍으로서의 존재
김정란　나비의 꿈
김정란　나의 시(詩)
김정란　나의 시(詩)
김정란　내가 아무렇게나 죽인 여자
김정란　눈
김정란　당신의 어깨
김정란　매복
김정란　베로니카, 두 겹의 삶
김정란　봄
김정란　부재의 습격
김정란　불면
김정란　소설을 읽지 않는 이유, 또는 막가는 나의 시법(詩法)
김정란　시(詩), 1992년, 서울
김정란　장미 화환을 쓴 암흑
김정란　죽은 '엄마'에 의한 엄마의 교정
김정란　지하철에서
김정란　타인(他人)들과의 관계
김정란　파롤, 가난한 말
김정란　파비안
김정웅　길 위에서
김정웅　돌아온 편지
김정웅　배우일지(俳優日誌) 둘
김정웅　배우일지(俳優日誌) 하나
김정웅　상경(上京)길
김정웅　수평선(水平線)은 흔들리지 않는다
김정웅　신작로(新作路)에서
김정웅　쌍계사(雙溪寺)를 떠나며
김정웅　아내에게
김정웅　애벌레는 나비되어 청산(靑山)에 날아가고
김정웅　우리들의 사랑내기

김정웅 일상사(日常事)
김정웅 천로역정(天路歷程), 혹은: 문(門)
김정웅 천로역정(天路歷程), 혹은: 바람이 이는 까닭은
김정웅 천로역정(天路歷程), 혹은: 사랑, 그 늦은 한잎
김정웅 천로역정(天路歷程), 혹은: 사랑, 그 잦은 한잎
김정웅 천로역정(天路歷程), 혹은: 사설(辭說) 미아리
김정웅 천로역정(天路歷程), 혹은: 서시(序詩)
김정웅 천로역정(天路歷程), 혹은: 신약(神藥)
김정웅 천로역정(天路歷程), 혹은: 십자로(十字路)에서
김정웅 천로역정(天路歷程), 혹은: 이명(耳鳴)
김정웅 천로역정(天路歷程), 혹은: 하구(河口)에서
김정웅 천로역정(天路歷程), 혹은: 황동규(黃東奎)에게
김정환 4·19
김정환 검붉은 눈동자
김정환 겨울 복날
김정환 공해시 1
김정환 공해시 2
김정환 공해시 3
김정환 넋 걷는 노래
김정환 노동자의 벗
김정환 눈물노래 1
김정환 닭집에서
김정환 도둑고양이의 죽음 5
김정환 맞아죽을 노래
김정환 모가지의 노래
김정환 모내기
김정환 묘비명(墓碑銘) 1
김정환 묘비명(墓碑銘) 2
김정환 바퀴벌레
김정환 비 노래
김정환 사랑과 투쟁은 둘이 아니다
김정환 서시
김정환 성탄
김정환 세상은 지금보다 찬란하리라
김정환 심상치 않지?
김정환 어느 무명 코메디안에게
김정환 오월곡(五月哭)
김정환 우리 이 투쟁과 생산의 민족해방세상에 동지여, 그대를 깃발로 세운다
김정환 우리들의 나라, 노동자 세상
김정환 우리들의 어머니는 아직
김정환 이제 들판을 보리라
김정환 전선은 눈물을 향해
김정환 전태일
김정환 절망에 대해서
김정환 제설작업
김정환 지하철 정거장에서 1
김정환 철길 위에 쓴다
김정환 최고의 사랑은
김정환 취바리
김정환 타는 봄날에
김정환 탄생의 노래
김정환 한강 4
김정환 해방서시(序詩)
김정환 핵반대노래
김정환 호미씻이
김정환 홍은동에서
김종길 가랑잎
김종길 건시(乾柿)빛 귀를 가진 은발(銀髮)의 동포(同胞)여
김종길 고갯길
김종길 고고(孤高)
김종길 골방
김종길 공주(公州)에서
김종길 국화(菊花) 앞에서
김종길 기억(記憶)
김종길 노을
김종길 다시 맞는 새해 아침에
김종길 단풍(丹楓)
김종길 달
김종길 도봉(道峰)
김종길 먹을 갈고 있으면
김종길 문(門)
김종길 발화(發花)
김종길 백운대(白雲臺)
김종길 벗에게
김종길 사군자(四君子)의 어느 것처럼
김종길 산정부근(山頂附近)
김종길 상가(喪家)
김종길 상강(霜降) 다음 날엔 비가 내리고
김종길 새벽 뜰에서
김종길 새옷 갈아입고
김종길 생량(生凉)

김종길	설날 아침에
김종길	설합을 뒤지며
김종길	성탄제(聖誕祭)
김종길	성탄제(聖誕祭) 1955
김종길	소
김종길	수국(水菊)
김종길	수화기(受話機)를 놓고 나니
김종길	신록(新綠)
김종길	신처사가(新處士歌)
김종길	악수(握手)
김종길	여울
김종길	영국소묘(英國素描)
김종길	오디
김종길	원주근방(原州近方)
김종길	이앙가(移秧歌)
김종길	자전거(自轉車)
김종길	줄장미
김종길	중년(中年)
김종길	지중해소견(地中海所見)
김종길	채점(採點)
김종길	천지현황(天地玄黃)
김종길	청마선생(靑馬先生) 추도(追悼)
김종길	청학동소견(靑鶴洞所見)
김종길	춘니(春泥)
김종길	폼페이 시편(詩篇)
김종길	하회(河回)에서
김종길	황사현상(黃沙現象)
김종문	만가(輓歌)
김종문	만추(晩秋)
김종문	별
김종문	소곡(小曲)
김종문	소풍(梢風)
김종문	시(詩)를 쓰며
김종문	아데네 · 프랑세
김종문	오리 공화국(共和國)
김종문	완구점(玩具店)
김종문	원초(原初)에의 문(門)
김종문	유월(六月)의 항거(抗拒)
김종문	인간조형(人間造型) 1
김종문	인간조형(人間造型) 3
김종문	작품(作品) I
김종문	차창(車窓)의 '이메지'
김종문	창(窓)
김종문	창경원식물원(昌慶苑植物園)
김종문	태양(太陽)의 묘지(墓地)
김종문	파이프 3
김종문	파이프 4
김종문	패각(貝殼)
김종문	한 발자귀
김종삼	G · 마이나
김종삼	가을
김종삼	그리운 안니 · 로 · 리
김종삼	꿈 속의 나라
김종삼	내가 죽던 날
김종삼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김종삼	다리 밑
김종삼	대화(對話)
김종삼	돌각담
김종삼	동트는 지평선(地平線)
김종삼	둔주곡(遁走曲)
김종삼	드빗시 산장(山莊)
김종삼	또 한번 날자꾸나
김종삼	라산스카
김종삼	라산스카
김종삼	몇 해 전에
김종삼	묵화(墨畵)
김종삼	문장수업(文章修業)
김종삼	문짝
김종삼	물통(桶)
김종삼	미사에 참석(參席)한 이중섭씨(李仲燮氏)
김종삼	민간인(民間人)
김종삼	바다
김종삼	배음(背音)
김종삼	백발(白髮)의 에즈라 파운드
김종삼	북치는 소년
김종삼	비옷을 빌어 입고
김종삼	뾰죽집
김종삼	샹뼁
김종삼	샹펭
김종삼	서시(序詩)
김종삼	소리
김종삼	술래잡기
김종삼	스와니강(江)
김종삼	스와니강(江)이랑 요단강(江)이랑
김종삼	시인학교(詩人學校)
김종삼	실기(實記)
김종삼	십이음계(十二音階)의 층층대(層層臺)
김종삼	쑥내음 속의 동화(童話)
김종삼	아우슈뷔츠 라게르
김종삼	앙포르멜
김종삼	어둠 속에서 온 소리
김종삼	어부(漁夫)

김종삼 엄마
김종삼 여수(女囚)
김종삼 연인의 마을
김종삼 오늘
김종삼 오월(五月)의 토끼똥·꽃
김종삼 올페
김종삼 운동장
김종삼 원색(原色)
김종삼 원정(園丁)
김종삼 육칠년(六七年) 일월(一月)
김종삼 장편(掌篇) 1
김종삼 장편(掌篇) 2
김종삼 장편(掌篇) 4
김종삼 전봉래(全鳳來)
김종삼 전정(前程)
김종삼 전주곡(前奏曲)
김종삼 지대(地帶)
김종삼 투병기(鬪病記)
김종삼 평화롭게
김종삼 풍경
김종삼 피카소의 낙서(落書)
김종삼 한 마리의 새
김종삼 해가 머물러 있다
김종삼 행복
김종삼 헨쩰과 그레뗄
김종삼 형(刑)
김종철 고백성사
김종철 돋보기를 쓰며
김종철 등신불(等身佛) 1
김종철 등신불(等身佛) 2
김종철 등신불(等身佛) 3
김종철 등신불(等身佛) 4
김종철 등신불(等身佛) 5
김종철 등신불(等身佛) 6
김종철 등신불(等身佛) 7
김종철 등신불(等身佛) 8
김종철 딸에게 주는 가을
김종철 매형 요셉
김종철 몸 1
김종철 몸 2
김종철 몸 3
김종철 사는 법
김종철 소인국의 꿈
김종철 속(續) 딸에게 주는 가을
김종철 아내는 외출(外出)하고
김종철 오늘도 못질을 합니다
김종철 오이도(烏耳島) 1
김종철 오이도(烏耳島) 2
김종철 오이도(烏耳島) 3
김종철 오이도(烏耳島) 5
김종철 오이도(烏耳島) 7
김종철 옥수수
김종철 청개구리
김종철 해뜨는 곳에서 해지는 곳까지
김종철 해미마을
김종철 황혼을 보며
김종한 계도(系圖)
김종한 고원(故園)의 시(詩)
김종한 귀로(歸路)
김종한 그늘
김종한 길
김종한 낡은 우물이 있는 풍경(風景)
김종한 노방(路傍)
김종한 노자송가(老子頌歌)
김종한 망향곡(望鄕曲)
김종한 명천(明川) 방아타령
김종한 박꽃에 부치는 서정(敍情)
김종한 살구꽃처럼
김종한 신제작파전(新制作派展)
김종한 연봉제설(連峰霽雪)
김종한 하기휴가(夏期休暇)
김종한 할아버지
김종한 항공애가(航空哀歌)
김종한 해항(海港)
김종한 해협(海峽)의 달
김종해 5월의 사랑
김종해 가을 문안
김종해 가을 속삭임
김종해 기다림
김종해 녹차를 마시며
김종해 물, 우리의 사랑법
김종해 바람부는 날
김종해 새
김종해 섬
김종해 항해일지 1
김종해 항해일지 10
김종해 항해일지 12
김종해 항해일지 13
김종해 항해일지 14
김종해 항해일지 15
김종해 항해일지 16
김종해 항해일지 17
김종해 항해일지 2
김종해 항해일지 20
김종해 항해일지 21
김종해 항해일지 23

김종해 항해일지 25
김종해 항해일지 27
김종해 항해일지 28
김종해 항해일지 3
김종해 항해일지 30
김종해 항해일지 4
김종해 항해일지 6
김종해 항해일지 7
김종해 회항
김준태 12월의 연가
김준태 감꽃
김준태 강(江)
김준태 강강술래
김준태 고독한 젊은이는 강(强)하다
김준태 고향
김준태 광야의 보리
김준태 국밥과 희망
김준태 그대
김준태 그리움
김준태 그리움
김준태 금남로 사랑
김준태 기쁨과 슬픔
김준태 꿈꾸는 그대
김준태 노을
김준태 논개(論介)야
김준태 농사
김준태 달리는 차창(車窓)에 가슴을 대고
김준태 달밤에
김준태 들밥
김준태 땅의 생리
김준태 마음 넓은 곳에
김준태 먼 길
김준태 못질하기
김준태 물
김준태 물방울
김준태 반달
김준태 밤거리의 노래
김준태 밥
김준태 밭 여자(女子)
김준태 벽은 무너져야 벽이다
김준태 별
김준태 보리밥
김준태 부끄러움
김준태 북한여자(北韓女子)
김준태 불이냐 꽃이냐
김준태 빈 항아리 앞에서
김준태 사람사랑운동시(詩)
김준태 사랑가(歌)
김준태 산, 산, 산을 바라보면서
김준태 산중가(山中歌)
김준태 삼
김준태 새
김준태 새
김준태 쇄인봉 가는 길
김준태 숨이 막힌다
김준태 아내에게
김준태 아메리카 1
김준태 연가
김준태 열 손가락 중에 하나 간혹 피를 흘린다는 일은 얼마나 즐거움인가
김준태 쟁기질
김준태 진도 아리랑
김준태 짧지만 길고 긴 사랑 노래
김준태 찔레꽃
김준태 참깨를 털면서
김준태 처녀작(處女作)
김준태 칼과 흙
김준태 탄식
김준태 파도
김준태 파랑새
김준태 한복(韓服) 1
김준태 항아리
김준태 흐르는 소리는 살아 있음인가
김지하 겨울 거울 1
김지하 겨울 거울 6
김지하 겨울 거울 7
김지하 겨울에
김지하 결별
김지하 결핍
김지하 고사목
김지하 그 소, 애린 1
김지하 그 소, 애린 12
김지하 그 소, 애린 16
김지하 그 소, 애린 22
김지하 그 소, 애린 34
김지하 그 소, 애린 4
김지하 그 소, 애린 45
김지하 그 소, 애린 50
김지하 그 소, 애린 6
김지하 그 소, 애린 8
김지하 기마상(騎馬像)
김지하 남한강에서
김지하 노을 무렵
김지하 녹두꽃

김지하 녹슨 기관차 가득히 꽃을
김지하 달램
김지하 동짓날
김지하 둥글기 때문
김지하 뒷골목의 시궁창 까마귀 벌판
김지하 들녘
김지하 또 남한강에서
김지하 똥
김지하 만남
김지하 매장
김지하 목련
김지하 무화과
김지하 물구나무
김지하 민족의 비극이지 뭘
김지하 바다
김지하 바람에게
김지하 바램 1
김지하 밤나라
김지하 백방 1
김지하 백방 10
김지하 백방 2
김지하 베짜는 누이에게
김지하 벼랑
김지하 벽
김지하 불귀(不歸)
김지하 비녀산
김지하 비어(蜚語)
김지하 빈 산
김지하 빈집
김지하 산정리 일기(山亭里 日記)
김지하 산조(散調)
김지하 살림
김지하 삼라만상 1
김지하 새
김지하 새봄 · 1
김지하 새봄 · 2
김지하 생명
김지하 서울길
김지하 성자동 언덕의 눈
김지하 소를 논함
김지하 소를 보다
김지하 소를 찾아 나서다
김지하 속 1
김지하 안산
김지하 안팎
김지하 앵적가(櫻賊歌)
김지하 역려(逆旅)
김지하 오적(五賊)
김지하 우리가 하자
김지하 우물
김지하 저자에 들어가 손을 내리다
김지하 줄탁
김지하 중심의 괴로움
김지하 지리산
김지하 책들
김지하 쳐라
김지하 초파일 밤
김지하 타는 목마름으로
김지하 푸른 옷
김지하 풀에도 남북이 있는가
김지하 한숨
김지하 해남에서
김지하 화살내
김지하 황불
김지하 황톳길
김지하 회귀
김지향 겨울 산행
김지향 공중전화
김지향 꿈 심기
김지향 꿈과 합동이 되어
김지향 꿈의 일기장
김지향 내가 나에게
김지향 눈 속의 먼지
김지향 떠내려가는 얼굴
김지향 마음 비우기
김지향 모른 척하기 선수
김지향 바람의 도전
김지향 비 속에서
김지향 사랑 그 낡지 않은 이름에게
김지향 사랑 만들기 1
김지향 슬픈 희망 1
김지향 실어증 시대의 멀미
김지향 아직도 부재의 눈
김지향 이상한 마을
김지향 처음으로 가슴에게
김지향 희망사항
김진경 광화문(光化門)을 지나며
김진경 교사들을 위한 비나리
김진경 그것은 삶의 끝이 아니다
김진경 나는 너의 침묵을 노래한다
김진경 눈
김진경 백두산 사진을 보며
김진경 보충수업
김진경 비오는 거리에서
김진경 뿌리 내리지 못하는 나무
김진경 산

김진경 아무래도 나는
김진경 아이들에게
김진경 우금치의 노래
김진경 이 땅에 산다는 것은
김진경 지금 이 밤은
김진경 지금은 우리가 만나서 서로에게 고통뿐일지라도
김진경 질문
김진경 파랑새
김진경 편지
김진경 풍뎅이
김창완 갈대밭에 숨긴 나의 노래
김창완 강(江)
김창완 개화(開花)
김창완 고모
김창완 기러기
김창완 누이야
김창완 돌멩이
김창완 막금도(莫今島) 사공
김창완 부러진 낫
김창완 수유리의 침묵
김창완 신기료 할아버지
김창완 쑥
김창완 어느 시인(詩人)에게
김창완 우리 옆집 그 여자
김창완 우리 오늘 살았다 말하자
김창완 인동일기(忍冬日記) I
김창완 인동일기(忍冬日記) II
김창완 작은새
김창완 첫눈 오는 밤에
김창완 통일로 코스모스
김초혜 길은 없어도
김초혜 눈
김초혜 문둥북춤 1
김초혜 문둥북춤 2
김초혜 문둥북춤 5
김초혜 문둥탈춤 1
김초혜 문둥탈춤 2
김초혜 문둥탈춤 5
김초혜 백자(白瓷)
김초혜 사랑굿 1
김초혜 사랑굿 108
김초혜 사랑굿 109
김초혜 사랑굿 111
김초혜 사랑굿 112
김초혜 사랑굿 118
김초혜 사랑굿 126
김초혜 사랑굿 21
김초혜 사랑굿 25
김초혜 사랑굿 30
김초혜 사랑굿 31
김초혜 사랑굿 33
김초혜 사랑굿 38
김초혜 사랑굿 40
김초혜 사랑굿 41
김초혜 사랑굿 43
김초혜 사랑굿 53
김초혜 사랑굿 6
김초혜 사랑굿 96
김초혜 어머니 1
김초혜 어머니 16
김초혜 어머니 19
김초혜 어머니 28
김초혜 어머니 30
김초혜 어머니 32
김초혜 어머니 34
김초혜 어머니 36
김초혜 어머니 4
김초혜 어머니 47
김초혜 어머니 7
김초혜 일기(日記) 1
김초혜 일기(日記) 2
김초혜 일기(日記) 3
김초혜 일기(日記) 4
김초혜 일기(日記) 7
김초혜 하늘이여 하늘이여 1
김초혜 하늘이여 하늘이여 2
김초혜 하늘이여 하늘이여 3
김초혜 하늘이여 하늘이여 7
김초혜 환영(幻影)
김춘수 가면(假面)
김춘수 가을 저녁의 시(詩)
김춘수 갈대
김춘수 갈대 섰는 풍경(風景)
김춘수 거리에 비 내리듯
김춘수 겟세마네에서
김춘수 겨울 밤의 꿈
김춘수 겨울꽃
김춘수 경(璦)이에게
김춘수 구름과 장미(薔薇)
김춘수 귀촉도(歸蜀途) 노래
김춘수 기(旗)
김춘수 기(旗)
김춘수 꽃
김춘수 꽃 2
김춘수 꽃밭에 든 거북

김춘수 꽃을 위한 서시(序詩)
김춘수 꽃의 소묘(素描)
김춘수 나목(裸木)과 시(詩)
김춘수 나의 하나님
김춘수 나이지리아
김춘수 낙일(落日)
김춘수 내가 만난 이중섭(李仲燮)
김춘수 누란(樓蘭)
김춘수 눈물
김춘수 눈물
김춘수 능금
김춘수 늪
김춘수 늪
김춘수 대지진(大地震)
김춘수 돌
김춘수 두 개의 꽃잎
김춘수 둘째번 마리아
김춘수 땅 위에
김춘수 리듬 1
김춘수 릴케의 장(章)
김춘수 막달라 · 마리아
김춘수 못
김춘수 무구(無垢)한 그들의 죽음과 나의 고독(孤獨)
김춘수 바다 사냥
김춘수 바람
김춘수 바위
김춘수 밤의 시(詩)
김춘수 봄 B
김춘수 봄 C
김춘수 봄이 와서
김춘수 봄이 와서
김춘수 부다페스트에서의 소녀(小女)의 죽음
김춘수 부재(不在)
김춘수 분수(噴水)
김춘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김춘수 서쪽 포도밭 길을
김춘수 서천(西天)을
김춘수 서촌(西村) 마을의 서부인(徐夫人)
김춘수 서풍부(西風賦)
김춘수 소리 위에
김춘수 수련별곡(水蓮別曲)
김춘수 시(詩) 1
김춘수 아침에
김춘수 에리꼬로 가는 길
김춘수 오전(午前)의 산령(山嶺)
김춘수 왕소군(王昭君)의 달
김춘수 유년시(幼年時) 3
김춘수 이중섭(李仲燮) 1
김춘수 이중섭(李仲燮) 2
김춘수 이중섭(李仲燮) 3
김춘수 이중섭(李仲燮) 5
김춘수 인동(忍冬) 잎
김춘수 잠수교(潛水橋) 원경(遠景)
김춘수 죽음
김춘수 집 1
김춘수 처용(處容)
김춘수 처용단장(處容斷章) 제1부(第一部)
김춘수 처용삼장(處容三章)
김춘수 천리향(千里香)
김춘수 천사(天使)
김춘수 타령조(打令調) 1
김춘수 타령조(打令調) 10
김춘수 타령조(打令調) 11
김춘수 타령조(打令調) 12
김춘수 타령조(打令調) 2
김춘수 타령조(打令調) 3
김춘수 타령조(打令調) 5
김춘수 타령조(打令調) 7
김춘수 타령조(打令調) 8
김현승 가을
김현승 가을 치마
김현승 가을은 눈의 계절
김현승 가을의 기도
김현승 가을의 시
김현승 가을의 향기
김현승 가을이 오는 날
김현승 겨우살이
김현승 겨울 까마귀
김현승 겨울 나그네
김현승 겨울 실내악
김현승 고독
김현승 고독의 끝
김현승 고독의 순금
김현승 고독의 풍속
김현승 고백의 시
김현승 나무
김현승 나무와 먼 길
김현승 눈물
김현승 다형(茶兄)
김현승 독신자
김현승 동체시대(胴體時代)
김현승 떠남

김현승 마지막 지상에서
김현승 만추의 시
김현승 무기의 의미 1
김현승 무등차[茶]
김현승 보석
김현승 부재(不在)
김현승 불완전
김현승 빛
김현승 사랑하는 여인에게
김현승 사월
김현승 산까마귀 울음소리
김현승 삼월생(三月生)
김현승 새벽 교실
김현승 새벽은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김현승 새해 인사
김현승 샘물
김현승 선을 그으며
김현승 슬픔
김현승 신년기원
김현승 신설(新雪)
김현승 십이월(十二月)
김현승 쓸쓸한 겨울 저녁이 올 때 당신들은
김현승 아침
김현승 아침 식사
김현승 어린 새벽은 우리를 찾아온다 합니다
김현승 어린것들
김현승 영혼의 고요한 밤
김현승 옹호자의 노래
김현승 우수(憂愁)
김현승 이 어둠이 내게 와서
김현승 이별의 곡(曲)
김현승 인간은 고독하다
김현승 인내
김현승 일년의 문을 열며
김현승 일요일의 미학
김현승 자화상
김현승 재
김현승 전환
김현승 절대 고독
김현승 지상(地上)의 시
김현승 참나무가 탈 때
김현승 파도
김현승 평범한 하루
김현승 플라타너스
김현승 하운소묘(夏雲素描)
김현승 형광등
김현승 흙 한 줌 이슬 한 방울
김현승 희망
김현승 희망에 부쳐
김혜숙 고향의 바람
김혜숙 내 유년(幼年)의 하늘
김혜숙 내 유년(幼年)의 황토길
김혜숙 다른 봄
김혜숙 달 줍기
김혜숙 물
김혜숙 바람 따라 가리라
김혜숙 봄소식
김혜숙 부부 연습
김혜숙 산(山)이여 2
김혜숙 애들아
김혜숙 예감(豫感)의 새
김혜숙 우리들의 귀로(歸路)
김혜숙 은행나무 아래
김혜숙 이끼
김혜숙 잠이 오지 않는 밤 2
김혜숙 장마
김혜숙 직녀의 노래 2
김혜숙 춘설(春雪)
김혜숙 파도의 말씀
김혜숙 플라스틱 병
김혜숙 한 오백년 후에
김혜숙 한 자루의 초
김혜순 (비)
김혜순 D날개
김혜순 洪水(홍수)
김혜순 그곳 1
김혜순 그곳 2
김혜순 기다림에 관하여
김혜순 납작납작
김혜순 눈동자 속
김혜순 담배를 피우는 시체
김혜순 도솔가
김혜순 딸을 낳던 날의 기억
김혜순 묵시록(默示錄)의 사기사(四騎士)
김혜순 밤이 낮을 끌고 간다
김혜순 부산군 변산면 마포리 하섬
김혜순 블라인드 쳐진 방 1
김혜순 블라인드 쳐진 방 2
김혜순 블라인드 쳐진 방 3
김혜순 블라인드 쳐진 방 4
김혜순 빵의 대화
김혜순 사랑에 관하여 2

김혜순	사월 초파일
김혜순	서울의 밤
김혜순	신기루(蜃氣樓)
김혜순	엄마
김혜순	여자들
김혜순	일몰(日沒)
김혜순	죽을 줄도 모르고
김혜순	참 오래 된 호텔
김혜순	출구를 찾아라
김혜순	한사코 시(詩)가 되지 않는 꽃
김혜순	해산(解産)
김혜순	황학동 벼룩시장
나태주	가을 서한 1
나태주	겨울행(行)
나태주	굴뚝각시 1
나태주	귀양살이 1
나태주	그대 지키는 나의 등불 1
나태주	그대 지키는 나의 등불 3
나태주	그대 지키는 나의 등불 4
나태주	기도 1
나태주	대숲 아래서
나태주	드라이 플라워
나태주	등 너머로 훔쳐 듣는 대숲바람 소리
나태주	땅거미
나태주	변방의 풀잎
나태주	사십(四十)
나태주	삼월에 오는 눈
나태주	상수리 나뭇잎 떨어진 숲으로
나태주	앉은뱅이꽃
나태주	어머니 치고 계신 행주치마는
나태주	제비꽃
나태주	하일음(夏日吟)
남궁벽	대지(大地)와 생명(生命)
남궁벽	대지(大地)의 찬(讚)
남궁벽	마(馬)
남궁벽	별의 아픔
남궁벽	생명(生命)의 비의(秘義)
남궁벽	신뢰(信賴)
남궁벽	이러하게 살고 싶다
남궁벽	자아(自我)의 존귀(尊貴)
남궁벽	풀
노자영	갈매기
노자영	광야(曠野)
노자영	귀뚜라미
노자영	기원(祈願)
노자영	꽃피려는 처녀(處女)
노자영	꿈속에 자는 백양(白楊)나무!
노자영	나의 여왕(女王)
노자영	낙엽(落葉)
노자영	낙화(落花)의 동산
노자영	단풍(丹楓)
노자영	무명(無名)의 구근(球根)
노자영	미지(未知)의 나라에
노자영	밤의 벚꽃!
노자영	봄밤(春夜)
노자영	북두칠성(北斗七星)
노자영	설야(雪夜)
노자영	안압지(雁鴨池)
노자영	어떤 처녀(處女)에게
노자영	어머니의 무덤!
노자영	월하(月下)의 몽(夢)
노자영	전원(田園)의 밤
노자영	조선(朝鮮)의 노래
노자영	진달래
노자영	처녀(處女)의 화환(花環)
노자영	첫여름이 오더니만
노자영	코스모스
노자영	할미꽃
노자영	행진(行進)
노자영	황금(黃金)의 임금(林檎)
노천명	가을의 구도(構圖)
노천명	감사
노천명	개 짖는 소리
노천명	검정 나비
노천명	고독
노천명	고별
노천명	곡(哭) 촉석루
노천명	교정
노천명	구름같이
노천명	귀뚜라미
노천명	그대 말을 타고
노천명	길
노천명	꽃길을 걸어서
노천명	남사당
노천명	당신을 위해
노천명	돌아오는 길
노천명	동경
노천명	동기(同氣)
노천명	만가(輓歌)
노천명	망향
노천명	바다에의 향수
노천명	박쥐
노천명	별을 쳐다보며
노천명	봄의 서곡
노천명	비련송(悲戀頌)

노천명 사슴
노천명 사월의 노래
노천명 산염불(山念佛)
노천명 성묘
노천명 소녀
노천명 수수 깜부기
노천명 슬픈 그림
노천명 아—무도 모르게
노천명 아름다운 새벽을
노천명 아름다운 얘기를 하자
노천명 어떤 친구에게
노천명 여인부(女人賦)
노천명 오월의 노래
노천명 유월의 언덕
노천명 이름없는 여인 되어
노천명 자화상
노천명 장날
노천명 장미
노천명 저녁별
노천명 창변(窓邊)
노천명 추성(秋聲)
노천명 추풍(秋風)에 부치는 노래
노천명 춘분
노천명 춘향
노천명 출범
노천명 포구의 밤
노천명 푸른 오월
노천명 호외
노천명 희망
노향림 K 읍기행(邑紀行)
노향림 가을 구화학교(口話學校)
노향림 가을 노래
노향림 갈멜 수녀원(修女院)
노향림 개인병원(個人病院)
노향림 고별(告別)
노향림 교외(郊外)
노향림 꿈
노향림 날이 어둡고 우리는
노향림 눈
노향림 눈이 오지 않는 나라
노향림 말 1
노향림 몇 채의 마을
노향림 모년모일(某年某日)
노향림 바다
노향림 바다 1
노향림 빈 집
노향림 빈민촌(貧民村)
노향림 서쪽 하늘
노향림 신생아실(新生兒室)
노향림 어떤 개인 날
노향림 역촌동(驛村洞) 입구(入口)
노향림 연습기(練習機)를 띄우고
노향림 육교
노향림 자연(自然)
노향림 장마
노향림 점묘법(點描法) 1
노향림 지붕 위의 바이얼린
노향림 집
노향림 해녀
노향림 황혼(黃昏)
도광의 갑골(甲骨)길
도광의 강(江)물 I
도광의 강(江)물 II
도광의 경편기차(輕便汽車)
도광의 과수원(果樹園)길
도광의 귀가(歸家)
도광의 귀뚜라미
도광의 눈 오지 않는 겨울
도광의 동강동(東江洞)
도광의 못물 빛에 묻어 오는
도광의 물 오른 포플러
도광의 바람 한 점 구름으로 흐르던 날
도광의 봄 편지(便紙)
도광의 분교(分校)
도광의 저녁답이면
도광의 키가 크는 아이는
도광의 타관(他關) 풀잎
도광의 풍경의 경사(傾斜)
도광의 해변(海邊)에의 향수(鄕愁)
도광의 희화(戱畵)
도종환 고두미 마을에서
도종환 그대 잘 가라
도종환 김선생의 분재
도종환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도종환 달맞이꽃
도종환 당신은 누구십니까
도종환 돌아온 아이와 함께
도종환 봉숭아
도종환 섬
도종환 쇠비름
도종환 스승의 기도
도종환 오월 편지
도종환 오후반
도종환 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묻고
도종환 옥천에 와서

도종환 울타리꽃
도종환 인차리 4
도종환 저만큼
도종환 접시꽃 당신
도종환 진눈깨비
림영창 가을이 아침부터 슬프다는 이야기
림영창 고독(孤獨)한 자(者)의 기도(祈禱)
림영창 나의 48대원(大願)
림영창 시(詩)의 파편(破片)들
림영창 아마겟돈의 후일담(後日譚)
림영창 예루살렘의 불감증(不感症)
림영창 우일촌(又一村)
림영창 해저(海底)에 침잠(沈潛)된 나의 시간(時間)
림영창 황제(皇帝)의 영토(領土)는 호주머니에 있었다
마광수 가자, 장미여관으로!
마광수 권태
마광수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마광수 당세풍(當世風)의 결혼(結婚)
마광수 배꼽에
마광수 비밀
마광수 사랑
마광수 사랑이여
마광수 석가(釋迦)
마광수 신(神) 1
마광수 업(業)
마광수 왜 나는 순수(純粹)한 민주주의(民主主義)에 몰두하지 못할까
마광수 원반던지기의 인상(印象)
마광수 유혹
마광수 자살자(自殺者)를 위하여
마광수 자유(自由)에
마광수 자유를 잃어 차라리 늠름한 어느 노예에게
마광수 장자사(莊子死)
마광수 황제(皇帝)와 나
마광수 효도(孝道)에
마종기 가을 서경(敍景)
마종기 갈대의 피
마종기 강원도의 돌
마종기 강토의 바람
마종기 겨울 이야기
마종기 권총을 사 들고
마종기 그 나라 하늘빛
마종기 그림 그리기
마종기 그림 그리기 4
마종기 그림 그리기 5
마종기 꽃의 이유(理由)
마종기 늦가을 바다
마종기 떠다니는 노래
마종기 망자(亡者)의 섬
마종기 며루치는 국물만 내고 끝장인가
마종기 목욕탕에서
마종기 물빛 1
마종기 바다의 얼굴
마종기 바람의 말
마종기 밤 노래 1
마종기 밤 노래 4
마종기 변명
마종기 비 오는 날
마종기 비밀(秘密) 2
마종기 빙하시대(氷河時代)의 불
마종기 산 안에 또 산이
마종기 새로운 소리를 찾아서
마종기 성년(成年)의 비밀
마종기 스페인의 비
마종기 시인(詩人)의 용도(用途) 2
마종기 쓸쓸한 물
마종기 아내의 잠
마종기 아침 출근
마종기 아프리카의 갈대
마종기 안 보이는 사랑의 나라
마종기 앗시시의 감나무
마종기 여름 편지
마종기 연가(戀歌) 4
마종기 우리나라의 등대
마종기 우화(寓話)의 강(江) 1
마종기 음악회(音樂會)
마종기 일상(日常)의 외국(外國) 2
마종기 자유주의자(自由主義者)
마종기 정신과 병동(精神科 病棟)
마종기 중년(中年)의 질병(疾病)
마종기 중산층가정(中産層家庭)
마종기 증예(證例) 5
마종기 퇴원(退院)
마종기 폴란드의 바웬사 아저씨
마종기 한강(漢江)
마종기 해부학(解剖學) 교실(教室)
마종하 가시나무를 바라보며
마종하 꽃다발
마종하 끈기

마종하 나비의 검은 꿈
마종하 노예의 시(詩)
마종하 대학 노트
마종하 도깨비의 사랑 1
마종하 도깨비의 사랑 2
마종하 도깨비의 사랑 6
마종하 동행(同行)
마종하 마포강(痲浦江)
마종하 못 뽑는 소리
마종하 뱃노래
마종하 붕대를 풀며
마종하 빙폭(氷瀑)
마종하 뿔
마종하 새벽에
마종하 소풍
마종하 아득한 방에서
마종하 여름 운행(運行)
마종하 여름엔 우산들이
마종하 온천
마종하 우리 마을의 까치
마종하 이발소에서
마종하 저녁 빛
마종하 주전자의 꿈
마종하 죽음을 가볍게 만들기 위하여
마종하 집짓기
마종하 찬 서리
마종하 파냄새 속에서
마종하 포자(胞子)를 위하여
마종하 풀잎연가
모윤숙 C선생(先生)께
모윤숙 갈숲에서 오는 소리
모윤숙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모윤숙 국화(菊花)
모윤숙 꺼진 촛불
모윤숙 나의 별
모윤숙 낙동강 물
모윤숙 남빛 새
모윤숙 논두렁길
모윤숙 달밤
모윤숙 떠나는 카츄샤
모윤숙 무덤에 내리는 소낙비
모윤숙 묵도(默禱)
모윤숙 물 긷는 색시
모윤숙 밀밭에 선 여자
모윤숙 빛나는 지역(地域)
모윤숙 샘가에 앉아
모윤숙 소망
모윤숙 아내의 소원
모윤숙 애기의 창(窓)
모윤숙 야경(夜景)
모윤숙 어느 여인(女人)
모윤숙 어머니
모윤숙 어머니의 기도
모윤숙 오빠의 눈에
모윤숙 옥비녀
모윤숙 유월 아침
모윤숙 유월(六月)의 밤
모윤숙 이 생명(生命)을
모윤숙 즐겨 부르던 내 노래야
모윤숙 침묵(沈默)
모윤숙 화랑(花郞)
문덕수 결여(缺如)
문덕수 계단
문덕수 공간
문덕수 꽃과 언어
문덕수 나비의 수난
문덕수 만남
문덕수 무제
문덕수 벽(壁) 1
문덕수 새벽 바다
문덕수 새의 나라
문덕수 생각하는 나무
문덕수 선(線)에 관한 소묘(素描) 1
문덕수 선(線)에 관한 소묘(素描) 2
문덕수 선(線)에 관한 소묘(素描) 3
문덕수 선(線)에 관한 소묘(素描) 4
문덕수 실바람같이
문덕수 원(圓)에 관한 소묘(素描)
문덕수 원(圓)에 대하여
문덕수 인연설
문덕수 조금씩 줄이면서
문덕수 종이 한 장
문덕수 침묵 1
문덕수 풀잎 소곡
문덕수 한 뼘만큼의 공간
문덕수 행복
문병란 겨울 산촌(山村)
문병란 고무신
문병란 꽃씨
문병란 나그네
문병란 대위법 5
문병란 돌멩이
문병란 땅의 연가(戀歌)
문병란 법성포 여자
문병란 시(詩)
문병란 시인(詩人)의 간(肝)

문병란 아버지의 귀로(歸路)
문병란 유행가조(流行歌調) 1
문병란 인생
문병란 전라도 뻐꾸기
문병란 정당성 2
문병란 죽순(竹筍)밭에서
문병란 직녀(織女)에게
문병란 코카콜라
문병란 편지
문병란 하동포구(河東浦口)
문병란 호수(湖水)
문정희 감자
문정희 겨울나무
문정희 고향을 찾아서 2
문정희 곡비(哭婢)
문정희 기다리던 답장
문정희 꿈
문정희 대못
문정희 마흔살의 시
문정희 바다 앞에서
문정희 바위
문정희 불면(不眠)
문정희 사랑하는 사마천 당신에게
문정희 새떼
문정희 수목 사이로
문정희 시간 1
문정희 시간 2
문정희 어린 사랑에게
문정희 연
문정희 오동나무
문정희 오빠
문정희 유자(柚子)
문정희 이명(耳鳴)
문정희 정구
문정희 참회 시(詩) 1
문정희 촌장(村長)
문정희 콩
문정희 파꽃길
문정희 편지
문정희 폐허의 노래
문정희 하늘
문정희 황진이의 노래 1
문정희 흐름에 대하여
문충성 겨울 백록담(白鹿潭)
문충성 구슬빛기
문충성 그림자 I
문충성 기우제(祈雨祭)
문충성 길 III
문충성 김통정(金通精)
문충성 돌 I
문충성 돌하르방
문충성 동백(冬柏)꽃 1
문충성 들새들 비상(飛翔)을 보며
문충성 명왕성(明王星)에 가기 위하여
문충성 무상(無常)
문충성 번개
문충성 봄 노래 1
문충성 새
문충성 서귀포(西歸浦)
문충성 서시(序詩)
문충성 섬
문충성 섬에서 부른 마지막 노래 I
문충성 섬에서 부른 마지막 노래 II
문충성 손금
문충성 수평선(水平線)
문충성 수평선(水平線) 2
문충성 시(詩)
문충성 연가(戀歌) 1
문충성 유년송(幼年頌) VII
문충성 제주(濟州)바다 II
문충성 제주바다 I
문충성 처서(處暑)의 시(詩)
문충성 하직
민영 겨울 밤
민영 고향 생각
민영 고향(故鄕)
민영 공양화(供養花)
민영 국화(菊花)
민영 냉이를 캐며
민영 다시 붓을 들고
민영 단장(斷章)
민영 달밤
민영 답십리(踏十里)
민영 동정(冬庭)의 시(詩)
민영 동천(凍天)
민영 똥 바다
민영 바람 부는 날
민영 벗들에게
민영 벼랑 끝에서
민영 별빛
민영 병(病)
민영 북간도 가는 길
민영 비(碑)
민영 비가 내리네
민영 뼈
민영 사륙가(四六歌)

민영　산비(山碑)
민영　수유리 하나
민영　수유리(水踰里)
민영　엉겅퀴꽃
민영　옥잠화
민영　용인(龍仁) 지나는 길에
민영　해가(海歌)
민영　해비(海碑)
민영　휘파람 불며
민용태　경악
민용태　나들이
민용태　내 시들이 어딜 갔나
민용태　너는 하두 작아서
민용태　도로푸스
민용태　바다 풍경
민용태　사담 훗세인에게
민용태　새
민용태　새벽은 고무 장갑도 끼지 않고
민용태　시인
민용태　애인
민용태　요즘 나의 시가 맘에 들지 않는다
민용태　요즘 텔레비는 골 때린다
민용태　핏줄
민용태　하늘과 나의 키
민용태　핵 쓰레기 매립장 건, 1991년, 한국
민용태　화순(和順) 청풍(淸豊) 차리(車里)
민용태　화음
민용태　황금 비늘 가진 뱀
민용태　흙
박거영　감각파(感覺派)
박거영　겨레여
박거영　그 소리의 의미(意味)를
박거영　기원(祈願)의 서(書)
박거영　나목(裸木)에 걸쳐 있는 해
박거영　나의 사람들을 위하여
박거영　나의 위치(位置)로 가랴
박거영　너를 위하여
박거영　모란(牡丹)꽃 피었기에
박거영　모르못드의 죽음
박거영　바다로 가자
박거영　바다의 생리(生理)
박거영　봄을 너와 함께
박거영　비창(悲愴)에의 노래
박거영　송가(頌歌)
박거영　숙명(宿命)
박거영　애가(哀歌)
박거영　월야행(月夜行)
박거영　전야(前夜)에
박거영　초인송(招人頌)
박거영　초현실파(超現實派)
박거영　탁류(濁流) 속에서
박거영　하늘과 땅과 돌맹이 하나
박거영　허무의식(虛無意識)
박거영　헌가(獻歌)
박남수　갈매기 소묘(素描)
박남수　강(江)
박남수　강(江)물의 띠를 두르고
박남수　거리(距離)
박남수　거울
박남수　거울
박남수　겨자씨만한 육신(肉身)을
박남수　고독(孤獨)
박남수　귀
박남수　다리 밑
박남수　딸에게
박남수　마른 풀잎이
박남수　마을
박남수　무제(無題) 5
박남수　무제(無題) 6
박남수　미명(未明)
박남수　미열(微熱)
박남수　밀밭의 신비(神秘)
박남수　바람
박남수　밝은 정오(正午)
박남수　밤 1
박남수　밤 2
박남수　밤길
박남수　밤비
박남수　병동(病棟)의 긴 복도
박남수　봄비
박남수　부락(部落)
박남수　비가(悲歌)
박남수　비비추가 된 새
박남수　사모곡(思母曲)
박남수　사슴의 관(冠)
박남수　새
박남수　새 1
박남수　새 2
박남수　새 3
박남수　새의 암장(暗葬) 1
박남수　새의 암장(暗葬) 2
박남수　새의 암장(暗葬) 3

박남수 생성(生成)의 꽃
박남수 섬 1
박남수 소등(消燈)
박남수 소리
박남수 손
박남수 숨가쁜 언덕을 넘어
박남수 시계는 열한시 오십구분
박남수 신(神)의 쓰레기
박남수 심야(深夜)
박남수 아침 이미지 1
박남수 아침 이미지 2
박남수 아침 이미지 3
박남수 어딘지 모르는 숲의 기억
박남수 여름에는 보이지 않던
박남수 열매
박남수 열쇠
박남수 오랜 기도(祈禱)
박남수 유전(流轉)
박남수 임종(臨終)
박남수 잉태(孕胎)
박남수 잔등의 시(詩)
박남수 잘 익은 막걸리는
박남수 적경(寂境)
박남수 절규(絶叫)
박남수 종달새
박남수 주막(酒幕)
박남수 창(窓)
박남수 창(窓)
박남수 청계천(淸溪川)
박남수 초롱불
박남수 초봄의 꼭두 무렵
박남수 칼을 간다
박남수 투창(投槍)
박남수 한제 오화(閑題 五話)
박남수 할머니 꽃씨를 받으시다
박남수 합승지점(合乘地點)
박남수 해토(解土)
박남수 호루라기의 장난
박남철 CROW'S - EYE VIEW
박남철 감사기도
박남철 겨울강
박남철 공황
박남철 광인일지
박남철 그 자식들은 끊임없이 혼자서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하고
박남철 그리고 빈처(貧妻)
박남철 금도끼 Ⅲ
박남철 깨어진 거울 앞에서
박남철 꿈
박남철 나그네
박남철 다시 거울 앞에서
박남철 독자놈들 길들이기
박남철 또다시 거울 앞에서
박남철 멍게
박남철 모범생(1967년 - 1987년)
박남철 박수부대
박남철 방랑자!
박남철 별
박남철 새로운 돼지
박남철 시인연습(詩人演習)
박남철 식인종류(食人種類)
박남철 실업 Ⅱ
박남철 심판
박남철 아버지
박남철 어머니
박남철 연날리기
박남철 용의 모습으로
박남철 우리 죽고 나야 이 세상에 평화가
박남철 우리들의 변태성욕
박남철 이혼
박남철 자유(自由)……로운 잡념(雜念)
박남철 잠실통신
박남철 장래 희망
박남철 젊은 북녘 시인에게
박남철 졸업(卒業) 또는 담배
박남철 주기도문
박남철 주기도문, 빌어먹을
박남철 지상(地上)의 인간(人間)
박남철 지성인(知性人) 또는 선량한 시민(市民)이 되어
박남철 지품중학교
박남철 집에 대하여
박남철 첫사랑
박남철 추석
박남철 탐처(貪妻)
박남철 해미르 Ⅲ 2
박노해 가리봉 시장
박노해 그리움
박노해 노동의 새벽
박노해 멈출 수 없지
박노해 바겐세일
박노해 바람이 돌더러
박노해 밥을 찾아
박노해 사랑

박노해 손 무덤
박노해 시다의 꿈
박노해 어머니
박노해 얼마짜리지
박노해 이불을 꿰매면서
박노해 장벽
박노해 지문을 부른다
박노해 통박
박노해 포장마차
박노해 하늘
박노해 한강
박노해 허깨비
박덕규 공주
박덕규 그리운 풍경
박덕규 기러기 남매
박덕규 깊은 산 아버지
박덕규 대각선을 완성하기 위하여
박덕규 몽롱한 청춘
박덕규 미궁
박덕규 바캉스
박덕규 비 오는 날
박덕규 비둘기와 손
박덕규 사이
박덕규 새들아 수색 가자
박덕규 수색에 지다 전편
박덕규 수학여행
박덕규 아름다운 사냥
박덕규 애인을 배낭 속에 넣고
박덕규 이웃 황태자 부처가 우리 마을에
박덕규 탄력성
박덕규 틈에 대하여
박덕규 하현달
박두진 가시 면류관
박두진 갈대
박두진 갈보리의 노래 2
박두진 강 2
박두진 강강수월래
박두진 검법(劍法)
박두진 결투(決鬪)
박두진 결투(決鬪)의 거북
박두진 고독(孤獨)의 강(江)
박두진 고산식물(高山植物)
박두진 광장(廣場)
박두진 금강전도(金剛全圖)
박두진 기(旗)
박두진 꽃과 항구(港口)
박두진 꽃들의 행렬
박두진 너의 융기(隆起)
박두진 달과 이리
박두진 도봉(道峯)
박두진 돌베개, 야곱
박두진 마법(魔法)의 새
박두진 묘지송(墓地頌)
박두진 묵시록(默示錄)
박두진 별밭에 누워
박두진 봄에의 격(檄)
박두진 비(碑)
박두진 사도행전(使徒行專) 2
박두진 산맥(山脈)을 간다
박두진 삼(三)월 일(一)일의 하늘
박두진 성(聖) 고독(孤獨)
박두진 성숙(成熟)
박두진 성처녀(聖處女)
박두진 속의 해
박두진 수석(水石) 회의록(會議錄)
박두진 시집(詩集)
박두진 식민지(植民地), 20년대(年代) 춘궁(春窮)
박두진 신약(新約)
박두진 야생대(野生代)
박두진 어떤 노을
박두진 어서 너는 오너라
박두진 오도(午禱)
박두진 완벽(完璧)한 산장(山莊)
박두진 우리의 깃발을 내린 것이 아니다
박두진 웅(熊)
박두진 유방(乳房)
박두진 은하계(銀河系), 태양계(太陽系), 대우주천체(大宇宙天體) 무한도(無限圖)
박두진 이상한 나라의 꿈
박두진 자화상(自畵像)
박두진 잔내비
박두진 전설(傳說)
박두진 절벽가(絶壁歌)
박두진 젊은 죽음들에게
박두진 젊음의 바다
박두진 천도설(天桃說)
박두진 천부주전(天父主前) 상백시(上白是)
박두진 천태산(天台山) 상대(上臺)
박두진 청산도(靑山道)
박두진 칠월(七月)의 편지
박두진 토르소

박두진 팔월(八月)의 강(江)
박두진 평원석(平原石) 이변(異變)
박두진 푸른 하늘 아래
박두진 피닉스
박두진 하나씩의 별
박두진 하지절(夏至節)
박두진 항아리
박두진 해
박두진 향현(香峴)
박두진 화비명(花碑銘)
박두진 흙과 바람
박목월 가정
박목월 감람나무
박목월 갑사댕기
박목월 개안(開眼)
박목월 겨울 선자(扇子)
박목월 구름밭에서
박목월 구황룡(九黃龍)
박목월 귀 밑 사마귀
박목월 그저
박목월 기계(杞溪) 장날
박목월 길처럼
박목월 나그네
박목월 나무
박목월 난(蘭)
박목월 난초 잎새
박목월 노대(露臺)에서
박목월 노래
박목월 논두렁길
박목월 눈물의 췌어리
박목월 눈썹 A
박목월 눈썹 B
박목월 달
박목월 당인리(唐人里) 근처
박목월 도포 한 자락
박목월 동물시초(動物詩抄)
박목월 동정(冬庭)
박목월 동행(同行)
박목월 만술(萬述) 아비의 축문(祝文)
박목월 메몰
박목월 모과수(木瓜樹) 유감
박목월 모성(母性)
박목월 목단여정(牧丹餘情)
박목월 무제(無題)
박목월 박꽃
박목월 밥상 앞에서
박목월 방문(訪問)
박목월 볼 일 없이
박목월 불국사(佛國寺)
박목월 비유(比喩)의 물
박목월 뻐꾹새
박목월 사력질(砂礫質)
박목월 사투리
박목월 산(山)·소묘 1
박목월 산(山)·소묘 2
박목월 산(山)·소묘 3
박목월 산(山)·소묘 4
박목월 산그늘
박목월 산도화(山桃花) 1
박목월 산도화(山桃花) 2
박목월 산도화(山桃花) 3
박목월 산색(山色)
박목월 산이 날 에워싸고
박목월 삼월
박목월 생토(生土)
박목월 서가(書架)
박목월 소묘 A
박목월 소묘 B
박목월 소찬(素饌)
박목월 순지(純紙)
박목월 시(詩)
박목월 아가(雅歌)
박목월 야반음(夜半吟)
박목월 여운(餘韻)
박목월 영탄조(詠嘆調)
박목월 오른편
박목월 왕십리
박목월 용인행(龍人行)
박목월 우슬초
박목월 운복령(雲伏嶺)
박목월 윤사월(閏四月)
박목월 은행동(銀杏洞)
박목월 이별가
박목월 일박(一泊)
박목월 임
박목월 임에게
박목월 자수정(紫水晶) 환상
박목월 적막한 식욕
박목월 중심부에서
박목월 청(靑)노루
박목월 춘분(春分)
박목월 층층계
박목월 침상(枕上)
박목월 크고 부드러운 손
박목월 폐원(廢園)
박목월 푸성귀

박목월 피지(皮紙)
박목월 하관(下棺)
박목월 회귀심(回歸心)
박목월 회전
박목월 효자동(孝子洞)
박몽구 고향은 우리들을 떠나 보낸다
박몽구 닫힌 거리로 창을 열고
박몽구 동숭동 퇴근길에서
박몽구 만주 할아버지
박몽구 뿌리 내리기
박몽구 사당동 철거지에서
박몽구 사람을 기다리며
박몽구 살바도르 살바도르
박몽구 삽화
박몽구 새벽 노래
박몽구 서시
박몽구 신채호의 무덤 1
박몽구 십자가의 꿈 1
박몽구 십자가의 꿈 2
박몽구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박몽구 영산강
박몽구 영종도 추씨
박몽구 옥천에서
박몽구 우리들의 가족
박몽구 우리들의 사라짐 위에
박봉우 가로(街路)의 체온
박봉우 겨울에도 피는 꽃나무
박봉우 고구려인
박봉우 고궁풍경에서
박봉우 광화문에서
박봉우 그늘에서
박봉우 나비와 철조망
박봉우 내 딸의 손을 잡고 1
박봉우 눈보라 속에서
박봉우 능금나무
박봉우 니가 나의 동족(同族)인가
박봉우 대법원 앞에서
박봉우 대지(大地)의 대특호활자(大特號活字)
박봉우 도(禱)
박봉우 또 파고다 공원론(公園論)
박봉우 무의미한 곁에서
박봉우 밖으로 나가고 싶다
박봉우 반 조각의 달
박봉우 백두산
박봉우 분단(分斷)아!
박봉우 사랑의 말
박봉우 사미인곡
박봉우 사수파(死守派)
박봉우 서울 하야식(下野式)
박봉우 석상(石像)의 노래
박봉우 소묘 1
박봉우 소묘 26
박봉우 소묘 6
박봉우 수난민(受難民)
박봉우 신세대
박봉우 악의 봄
박봉우 언제나 우리 땅
박봉우 우리는 가슴이 아프다
박봉우 중립지대
박봉우 지성을 앓고 있는 공동묘지
박봉우 지평에 던져진 꽃
박봉우 창문을 열면
박봉우 창백한 병원
박봉우 창이 없는 집
박봉우 표정
박봉우 해방 20년 1
박봉우 해방 20년 2
박봉우 황지(荒地)에 꽃핀
박봉우 황지(荒地)의 풀잎
박봉우 회색지(灰色地)
박봉우 휴전선
박상배 H 송(頌)
박상배 넝기
박상배 못된 시(詩)
박상배 물신(物神)
박상배 바깡스
박상배 부활(復活)
박상배 안팎 1
박상배 안팎 5
박상배 안팎 6
박상배 안팎 8
박상배 어떠리
박상배 울웃음/웃울음
박상배 자음송(頌)
박상배 잠언집 11
박상배 잠언집 14
박상배 잠언집 17
박상배 잠언집 18
박상배 잠언집 5
박상배 잠언집 8
박상배 잠언집1
박상배 풀잎송(頌) 1
박상배 하늘님
박상배 희망의 별
박상천 1986 · 우리들의 머리 속

박상천 D겨울일기 2
박상천 D유서(遺書) 2
박상천 곰은 어떻게 소가 되었나
박상천 공평한 햇살
박상천 관계
박상천 관심 밖
박상천 단 한번만이라도
박상천 독약(毒藥)처럼
박상천 물방울
박상천 빈손
박상천 빛 1
박상천 빛 2
박상천 삼투압
박상천 소는 어떻게 다시 곰이 되었나
박상천 수(數)와 수(數) 사이
박상천 어려운 수학문제
박상천 열대어의 유전인자
박상천 외로움에 관하여 1
박상천 외로움에 관하여 5
박상천 외로움에 관하여 6
박상천 유서(遺書) 1
박상천 줄다리기
박석수 개보초
박석수 기도
박석수 나의 방화(放火)
박석수 노을
박석수 면도(面刀) 1
박석수 발길질
박석수 밤 파도
박석수 불침번
박석수 비가(悲歌) I
박석수 사랑
박석수 색맹(色盲)을 위하여
박석수 서울에 와서 1
박석수 소박
박석수 손톱
박석수 수정(修正)칼
박석수 심청을 위하여
박석수 연무동 사신(私信)
박석수 조각칼
박석수 파도
박석수 현장
박성룡 FALL
박성룡 가을에
박성룡 가을에 잃어버린 것들
박성룡 가족전(家族展)
박성룡 겨울 백자(白瓷)
박성룡 겨울 산행(山行)
박성룡 곤충학자(昆蟲學者)
박성룡 과목(果木)
박성룡 교외
박성룡 꽃상여(喪輿)
박성룡 낙서(落書)
박성룡 능금
박성룡 등화관제(燈火管制)
박성룡 무우(霧雨)
박성룡 바다
박성룡 바람 부는 날
박성룡 벽(壁)
박성룡 별리(別離)
박성룡 손
박성룡 이슬
박성룡 정원
박성룡 차창풍경(車窓風景)
박성룡 풀잎
박성룡 해당화(海棠花)
박성룡 화병풍경(花甁風景)
박세영 각서
박세영 그이가 섰는 딸기나무로
박세영 다시 또 가는가
박세영 무궁화
박세영 바다의 여인
박세영 봄피리
박세영 봉기(蜂起)
박세영 비가(悲歌)
박세영 산제비
박세영 산천에 묻노라
박세영 산촌의 어머니
박세영 서울의 부감도(俯瞰圖)
박세영 소곡이제(小曲二題)
박세영 순아
박세영 시대병(時代病) 환자
박세영 신년송(新年頌)
박세영 아—여기들 모였구나
박세영 양자강
박세영 월야(月夜)의 계명사(鷄鳴寺)
박세영 은폭동(隱瀑洞)
박세영 잃어진 봄
박세영 전원의 가을
박세영 처녀동(處女洞)
박세영 침향강(沈香江)
박세영 탄식하는 여인
박세영 포구(浦口) 소묘
박세영 하랄의 용사
박세영 향수

박세영　화가
박세영　후원(後園)
박아지　가을 밤
박아지　고향
박아지　그날의 데모
박아지　나의 하루
박아지　노들강
박아지　누리에 향하여
박아지　독보추야(獨步秋夜)
박아지　돌아선 그대를 조상함
박아지　들으시나이까
박아지　봄
박아지　봄을 그리는 마음
박아지　불휴(不休)
박아지　심화(心火)
박아지　오직 이 믿음만이
박아지　용약(勇躍)의 계절(季節)
박아지　이방(異邦)의 시조(始祖)
박아지　인생행로(人生行路)
박아지　잊어버린 노래를 찾기 위하여
박아지　창궁(蒼穹)
박아지　춘궁(春窮) 이제(二題)
박아지　칩복(蟄伏)
박아지　피
박아지　해방의 첫해를 보내며
박양균　간밤에
박양균　겨울의 복사꽃
박양균　계절
박양균　과수원에서
박양균　꽃
박양균　낙과(落果) 1
박양균　낙과(落果) 2
박양균　다리 위에서 1
박양균　다리 위에서 2
박양균　다리 위에서 3
박양균　딸의 그림
박양균　미소(微笑)
박양균　바람
박양균　벽(壁)
박양균　빙하(氷河)
박양균　입상(立像)
박양균　전시장에서
박양균　조춘(早春)
박양균　창(窓)
박양균　파도(波濤)
박양균　해동(解冬)에는
박양균　화병(花甁) 1
박양균　화병(花甁) 2
박영희　감상(感傷)의 폐허(廢墟)
박영희　그림자를 나는 쫓이다
박영희　기원(祈願)
박영희　꿈의 나라로
박영희　내 혼(魂)아, 네 소원이 무엇이냐?
박영희　무제(無題)
박영희　미소(微笑)의 허화시(虛華市)
박영희　밤 하늘은 내 마음
박영희　붉은 장미(薔薇)는 눈물을 지다
박영희　승녀(僧女)
박영희　앵속화(櫻粟花)
박영희　어둠 너머로
박영희　우울(憂鬱)
박영희　웃음의 여울
박영희　월광(月光)으로 짠 병실(病室)
박영희　유령(幽靈)의 나라
박영희　조락(凋落)하는 꽃을 따라서
박영희　초몽(初夢)
박영희　추경(秋景)
박영희　환영(幻影)의 황금탑(黃金塔)
박용래　가을의 노래
박용래　감새
박용래　강아지풀
박용래　건들 장마
박용래　겨울밤
박용래　겨울산(山)
박용래　고추잠자리
박용래　곰팡이
박용래　구절초(九節草)
박용래　귀울림
박용래　그 봄비
박용래　그늘이 흐르듯
박용래　낙차(落差)
박용래　둘레
박용래　들판
박용래　땅
박용래　먹감
박용래　먼 바다
박용래　모일(某日)
박용래　물기 머금 풍경 2
박용래　미닫이에 얼비쳐
박용래　버드나무 길
박용래　별리(別離)
박용래　불도둑
박용래　불티
박용래　산견(散見)

박용래	삼동(三冬)
박용래	상치꽃 아욱꽃
박용래	샘터
박용래	서산(西山)
박용래	소감(小感)
박용래	소나기
박용래	쇠죽가마
박용래	시락죽
박용래	앵두, 살구꽃 피면
박용래	엉겅퀴
박용래	연시(軟柿)
박용래	연지빛 반달형(型)
박용래	열사흘
박용래	엽서(葉書)
박용래	오류동(五柳洞)의 동전(銅錢)
박용래	요령
박용래	울안
박용래	울타리 밖
박용래	월훈(月暈)
박용래	유우(流寓) 1
박용래	유우(流寓) 2
박용래	은버들 몇 잎
박용래	음화(陰畵)
박용래	자화상(自畵像) 3
박용래	잔
박용래	장대비
박용래	저녁눈
박용래	저물녘
박용래	점 하나
박용래	접분(接分)
박용래	제비꽃
박용래	제비꽃 2
박용래	종(鍾)소리
박용래	참매미
박용래	천(千)의 산(山)
박용래	첫눈
박용래	추일(秋日)
박용래	취락(聚落)
박용래	탁배기(濁盃器)
박용래	하관(下棺)
박용래	학(鶴)의 낙루(落淚)
박용래	한식(寒食)
박용래	할매
박용래	해바라기 단장(斷章)
박용래	황토(黃土)길
박용철	Be nobler!
박용철	Invocation
박용철	고운 날개
박용철	고향
박용철	기원(祈願)
박용철	나는 그를 불사르노라
박용철	너의 그림자
박용철	눈
박용철	눈은 나리네
박용철	다시
박용철	동지(冬至)
박용철	두 마리의 새
박용철	떠나가는 배
박용철	만폭동(萬瀑洞)
박용철	밤기차에 그대를 보내고
박용철	부엉이 운다
박용철	비
박용철	비 나리는 날
박용철	빛나는 자취
박용철	사랑하던 말
박용철	새로워진 행복(幸福)
박용철	시집가는 시악시의 말
박용철	실제(失題)
박용철	실제(失題)
박용철	싸늘한 이마
박용철	어디로
박용철	이대로 가랴마는
박용철	절망(絶望)에서
박용철	한 조각 하늘
박용철	희망(希望)과 절망(絶望)은
박의상	가을
박의상	개감자
박의상	그네타기
박의상	금주에 온 비
박의상	꿈
박의상	너의 길
박의상	동경
박의상	들길에서
박의상	봄을 위하여
박의상	살아있는 날
박의상	새벽에
박의상	성년(成年)
박의상	오늘은 미래(未來)
박의상	오늘의 새
박의상	유리
박의상	적막
박의상	전후(戰後) 3
박의상	전후(戰後) 5
박의상	전후(戰後) 8
박의상	찔레나무가지
박의상	포도(葡萄)를 밟지 않으려고

박의상 표적(標的)
박의상 풍뎅이
박이도 강설(降雪)
박이도 거울 1
박이도 거울 2
박이도 거인(巨人)
박이도 겨울 바람
박이도 겨울 소묘(素描) 1
박이도 경악(驚愕), 혹은 자유(自由)
박이도 군중(群衆)
박이도 나의 형상(形象)
박이도 낙엽제(落葉祭)
박이도 눈물의 의무(義務)
박이도 눈사람
박이도 눌언(訥言)
박이도 독립문(獨立門)
박이도 두부장수
박이도 메아리
박이도 미완성(未完成)
박이도 반추(反芻)
박이도 밤
박이도 북향(北鄕)
박이도 비
박이도 빛의 갱부(坑夫)
박이도 빛의 하루
박이도 새벽꿈
박이도 솔거(率居)
박이도 숲이 어느날
박이도 시련(試鍊)
박이도 실어(失語)
박이도 쓰여지지 않는 일기(日記)
박이도 안개꽃
박이도 역(逆)으로 떨어져간 잎
박이도 엽서
박이도 외출(外出)
박이도 입
박이도 자연만세(自然萬歲)
박이도 자연송(自然頌) 오편(五篇)
박이도 자유(自由)의 형상(形象)을
박이도 전언(傳言)
박이도 죽은 새야
박이도 징후(徵候)
박이도 칠월(七月)에 날아간 새
박이도 침묵
박이도 포효(咆哮)
박이도 폭설(暴雪)
박이도 푸른 하늘
박이도 피리
박이도 해빙기(解氷期)
박이도 환원(還元)
박이도 회상(回想)의 숲 1
박이도 회상(回想)의 숲 2
박인환 1953년의 여자에게
박인환 가을의 유혹
박인환 거리
박인환 검은 강
박인환 검은 신이여
박인환 고향에 가서
박인환 기적(奇蹟)인 현대
박인환 나의 생애에 흐르는 시간들
박인환 남풍
박인환 다리 위의 사람
박인환 목마(木馬)와 숙녀(淑女)
박인환 무도회
박인환 미래의 창부(娼婦)
박인환 밤의 노래
박인환 불행한 상송
박인환 불행한 신
박인환 살아 있는 것이 있다면
박인환 새벽 한 시의 시(詩)
박인환 세 사람의 가족
박인환 세월이 가면
박인환 센티멘털 쟈니
박인환 신호탄
박인환 어느 날
박인환 어린 딸에게
박인환 열차
박인환 의혹의 기(旗)
박인환 인천항
박인환 일곱 개의 층계
박인환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
박인환 죽은 아포롱
박인환 지하실
박인환 한줄기 눈물도 없이
박인환 행복
박재륜 강촌(江村)
박재륜 경기구허보(輕氣球虛報)
박재륜 과원(果園)에서
박재륜 과원춘추(果園春秋) · I
박재륜 나의 시론(詩論)
박재륜 남한강(南漢江)
박재륜 농가시서(農家時序) · I
박재륜 농성소역(農城小驛)
박재륜 대등령상(大登嶺上)
박재륜 마천령(摩天嶺)
박재륜 메마른 언어(言語)

박재륜 박재륜(朴載崙)
박재륜 보월(步月)
박재륜 북대천(北大川)
박재륜 북상화신(北上花信)
박재륜 사하라
박재륜 상흔지(傷痕地)에서
박재륜 씨앗 이야기
박재륜 어디만큼 왔는가
박재륜 연심(戀心)
박재륜 천상(川上)에 서서
박재륜 청계천(淸溪川)
박재륜 하구(河口)의 장(章)
박재삼 가난의 골목에서는
박재삼 가을 바다
박재삼 가을에
박재삼 강물에서
박재삼 겨울나무를 보며
박재삼 과일가게 앞에서
박재삼 광명(光明)
박재삼 귀뚜라미
박재삼 그 기러기 마음을 나는 안다
박재삼 나룻배를 보면서
박재삼 나무
박재삼 남강(南江) 가에서
박재삼 남해유수시(南海流水詩)
박재삼 내 고향 바다 치수(數)
박재삼 내 사랑은
박재삼 노래에는 질 수밖엔요
박재삼 노래의 임자
박재삼 노산(魯山)에 와서
박재삼 녹음(綠陰)의 밤에
박재삼 눈 속에 맞는 봄
박재삼 눈물 속의 눈물
박재삼 달밤이 어느새
박재삼 대관령(大關嶺) 근처(近處)
박재삼 두 개의 못물
박재삼 매미 울음 끝에
박재삼 매미 울음에
박재삼 모란 송가(頌歌)
박재삼 모월모일(某月某日)
박재삼 목섬 이야기
박재삼 무봉천지(無縫天地)
박재삼 무제(無題)
박재삼 무제(無題)
박재삼 물먹은 돌밭 경치(景致)
박재삼 밀물결 치마
박재삼 바다에서 배운 것
박재삼 바람 그림자를
박재삼 바람 앞에서
박재삼 밤 바다에서
박재삼 병후(病後)에
박재삼 봄바다에서
박재삼 봄이 오는 길
박재삼 부부(夫婦)바위
박재삼 비 듣는 가을나무
박재삼 사람이 사는 길 밑에
박재삼 산에 가면
박재삼 소곡(小曲)
박재삼 소곡(小曲)
박재삼 수양산조(垂楊散調)
박재삼 수정가(水晶歌)
박재삼 슬픈 노래에 머물고
박재삼 신(新) 아리랑
박재삼 신록(新綠)을 보며
박재삼 아기 발바닥에 이마 대고
박재삼 아득하면 되리라
박재삼 아름다운 천
박재삼 어지러운 혼(魂)
박재삼 여름 가고 가을 오듯
박재삼 여름반(半) 가을반(半)
박재삼 연4 (鳶)은 소년 따라
박재삼 열 몇살 때
박재삼 옹기전에는
박재삼 울음이 타는 가을강(江)
박재삼 원5 한(怨恨)
박재삼 은행잎 감상(感傷)
박재삼 일월(日月) 속에서
박재삼 자연(自然)
박재삼 죽세공(竹細工) 노래
박재삼 찬란한 미지수(未知數)
박재삼 찬란한 반짝임만
박재삼 천년(千年)의 바람
박재삼 추억(追憶)에서
박재삼 추억에서 12
박재삼 추억에서 19
박재삼 추억에서 25
박재삼 추억에서 27
박재삼 추억에서 30
박재삼 추억에서 8
박재삼 친구여 너는 가고
박재삼 포도(葡萄)
박재삼 피리 구멍
박재삼 한 경치(景致)
박재삼 한 물음
박재삼 한 작정
박재삼 한(恨)

박재삼 한낮의 소나무에
박재삼 허무(虛無)의 큰 괄호 안에서
박재삼 허무를 향해
박재삼 화상보(華想譜)
박재삼 흥부 부부상(夫婦像)
박정만 가파른 언덕
박정만 겨울 속의 봄 이야기
박정만 겨울 저녁의 시(詩)
박정만 그대를 향하여
박정만 그리운 물새
박정만 그리운 시간
박정만 글러먹은 시절
박정만 기우는 행인(行人)
박정만 기필코 한 주먹만
박정만 내 몫의 가을
박정만 달라진 햇볕
박정만 더러운 피
박정만 덧없는 목숨
박정만 떨어진 꽃잎
박정만 마지막 한 판
박정만 머나먼 그 세월
박정만 멀면 멀수록
박정만 목련(木蓮)에 부침
박정만 밭가는 사람
박정만 별처럼 꽃처럼
박정만 부러진 약속(約束)
박정만 비극적(悲劇的)
박정만 사랑의 애물단지
박정만 사월과 오월 사이
박정만 스무 살 이전(以前)
박정만 심심한 날
박정만 쓰라린 봄날
박정만 아름다운 죄(罪)
박정만 앵초꽃 사랑
박정만 어떤 봄맞이
박정만 옆집 그 누이
박정만 요즈음의 날씨
박정만 우리들의 시대(時代)
박정만 웃자란 어둠
박정만 월광별곡(月光別曲)
박정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박정만 이야기
박정만 잠자는 돌
박정만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몽상
박정만 지겨운 시절
박정만 참깨꽃 필 때
박정만 첫눈이 내린 날 아침
박정만 초록의 잠
박정만 투화(投花) 1
박정만 틀어진 문설주
박정만 풍리(風里)의 바람
박정만 해 지는 쪽으로
박정만 행복한 잠덫
박정만 헤매는 벌판
박제천 건화송(乾花頌)
박제천 고백(告白)
박제천 고율(古律)
박제천 과녁 그 둘
박제천 과녁 그 하나
박제천 나의 별
박제천 내게 묻는가
박제천 너
박제천 너의 이름은 어둠이다
박제천 두번째 정(井)
박제천 만선(滿船) 그 둘
박제천 만선(滿船) 그 셋
박제천 만선(滿船) 그 하나
박제천 목탄화(木炭畵)
박제천 무당벌레 한 마리가
박제천 무인도(無人島) 하나
박제천 묵(墨)
박제천 방생(放生)
박제천 부생(浮生)
박제천 불(佛)
박제천 사기 등잔과 함께
박제천 사랑 엽서(葉書) 2
박제천 새타니 (그 여덟)
박제천 세번째 위(危)
박제천 세번째 유(柳)
박제천 세번째 익(翼)
박제천 솔방울
박제천 싸움
박제천 어느 마애상(磨崖像) 앞에서
박제천 여울목에 이르러
박제천 연(鳶)을 띄우며
박제천 오구대왕(大王)의 산문(散文) 열 하나
박제천 울도(聿島)
박제천 이름짓기
박제천 자산(玆山)
박제천 자음(子音)
박제천 자족(自足)
박제천 작품(作品) 이삼이(二三二)
박제천 장생(長生)
박제천 장자시(莊子詩) 그 둘

박제천 장자시(莊子詩) 그 하나
박제천 정암(靜菴)
박제천 정화수
박제천 천시(天時)
박제천 첫번째 필(畢)
박제천 춘뢰(春雷)
박제천 풍어제(豊漁祭) 그 넷
박제천 풍어제(豊漁祭) 그 하나
박제천 하늘그물
박제천 허수아비가(歌) 그 둘
박제천 허수아비가(歌) 그 하나
박제천 홀로 춤추며
박제천 후생(後生)
박종해 가을에
박종해 꽃과 소녀
박종해 뉴스 데스크
박종해 다리 위에서
박종해 밤이 지나면
박종해 산정에서
박종해 상황 1
박종해 상황 2
박종해 어두운 시대의 시인들에게
박종해 영원의 기도 1
박종해 영원의 기도 2
박종해 이 강산 녹음 방초
박종해 이천일백 년의 국사시간에
박종해 잠의 늪
박종해 진눈깨비 내리는 날
박종해 창밖을 보며
박종해 탱자
박종해 풍경
박종해 학
박종해 화실(畵室)에서
박종화 그리운 그 님
박종화 내 추(醜)한 넋은
박종화 밀실(密室)로 돌아가다
박종화 백사지(白砂地) 우으로
박종화 백자부(白磁賦)
박종화 비로봉(毘盧峯)
박종화 비추(悲秋)
박종화 사(死)의 예찬(禮讚)
박종화 상부탄(孀婦歎)
박종화 석굴암대불(石窟庵大佛)
박종화 소곡(小曲) (二篇)
박종화 수선(水仙)이 웃고 왔네
박종화 애도아창(愛道雅唱)
박종화 예술(藝術)의 노래
박종화 오! 흰옷이여
박종화 월야자명(月夜煮茗)
박종화 자화상(自畵像)
박종화 제야설(除夜雪)
박종화 쫓긴 이의 노래
박종화 청자부(靑磁賦)
박종화 흑방비곡(黑房秘曲)
박주관 고향 가는 밝은 길이 1
박주관 그 사람
박주관 그들은 모른다
박주관 그리운 노래 1
박주관 꽃 그늘
박주관 꽃은 어디에
박주관 남광주(南光州)
박주관 내가 살던 광주 1
박주관 만날 수 없는 얼굴
박주관 바다의 속
박주관 벗은 사람을 위하여
박주관 보리밭 가에서
박주관 사랑을 찾기 위하여
박주관 산도 밀고 바다도 밀며
박주관 새로운 탄생을 위하여
박주관 서시(序詩)
박주관 서울의 사랑 1
박주관 숯
박주관 어머니 목소리
박주관 엎드려 잠자기
박주일 개개비의 울음
박주일 겨울 감나무
박주일 굴러가는 이파리
박주일 끼리끼리 젖으며
박주일 동물토우(動物土偶)
박주일 문둥아 1
박주일 문둥아 2
박주일 미간(眉間)
박주일 바퀴 2
박주일 백발(白髮)의 어둠 4
박주일 보리
박주일 사리합(舍利盒)
박주일 서시(序詩)
박주일 식솔(食率)
박주일 잡초기(雜草記)
박주일 저무는 바다
박주일 제비풀들이
박주일 징 소리
박주일 초행(初行)길
박주일 한란(寒蘭)
박태일 가락기(駕洛記) 3
박태일 가을 악견산

박태일 간월산 돌아
박태일 거창노래
박태일 경주 길
박태일 구만리
박태일 그리운 주막(酒幕) 1
박태일 남들은 가령 영감이라 했다만
박태일 내 마음 먼저 가방에 얹고
박태일 땅내 맡은 나락처럼
박태일 명지 물끝 1
박태일 명지 물끝 2
박태일 명지 물끝 5
박태일 명지 물끝 6
박태일 문학거리 노래
박태일 미성년(未成年)의 강
박태일 백석리(白石里)
박태일 봄빛
박태일 연산동의 달 1
박태일 월동집(越冬集)
박태일 유월
박태일 의령댁
박태일 장터거리 노래
박태일 저승꽃
박태일 치산거리 노래
박태일 투망(投網)
박태일 피라미가 잡히는지
박태일 합천노래
박팔양 가로등하풍경(街路燈下風景)
박팔양 거리로 나와 해를 겨누라
박팔양 그대
박팔양 나는 불행(不幸)한 사람이로다
박팔양 나를 부르는 소리 있어 가로되
박팔양 남대문(南大門)
박팔양 님을 그리움
박팔양 바다의 팔월(八月)
박팔양 병상(病床)
박팔양 봄
박팔양 선구자(先驅者)
박팔양 승리(勝利)의 봄
박팔양 시냇물
박팔양 아침
박팔양 여름저녁 거리 위로
박팔양 여명이전(黎明以前)
박팔양 점경(點景)
박팔양 조선의 여인이여
박팔양 청춘송(靑春頌)
박팔양 태양(太陽)을 등진 거리 위에서
박해수 걸어서 하늘까지
박해수 경주(慶州)의 달
박해수 굴렁쇠
박해수 나무의 몸에서
박해수 낮아지게 하소서
박해수 등나무 잎새로
박해수 무명초 껍질을 벗기며
박해수 물계자(勿稽子)
박해수 바다
박해수 바다에 누워
박해수 사월의 바다여
박해수 서 있는 바다 1
박해수 석남(石楠)꽃
박해수 석남사 가며
박해수 수장(水葬) 1
박해수 주문진(注文津)에서
박해수 칼새
박해수 토끈 하나로 떠돌며
박해수 하늘 새
박해수 하늘 수박
박현령 1987년형
박현령 구원송(救援頌)
박현령 귀향(歸鄕)의 바다에서
박현령 금춘교 시장(市場)
박현령 미명(未明)의 장(章) 1
박현령 미학을 위하여 2
박현령 비정의 편지 한 장
박현령 석양(夕陽)에는 1
박현령 석양(夕陽)에는 2
박현령 선녀의 춤
박현령 아가(雅歌) 3
박현령 여의도 12
박현령 여의도 13
박현령 오선지(五線紙) 1
박현령 오선지(五線紙) 2
박현령 오선지(五線紙) 3
박현령 이사(移徙)를 하고 1
박현령 지신(地神)님 지신(地神)님 1
박현령 지신(地神)님 지신(地神)님 2
박현령 지신(地神)님, 지신(地神)님
박현령 지하여장군(地下女將軍) 1
박현령 합장(合掌)
박화목 9월 그리고 11월……
박화목 가을 빗소리 1
박화목 그대 내 마음의 창(窓)가에 서서
박화목 기도(祈禱) 1
박화목 기도(祈禱) 2

박화목 낙엽(落葉)
박화목 다시 만나는 날
박화목 당신이 문(門) 밖에
박화목 무한궤도(無限軌道)
박화목 반 고호의 침상(寢牀)
박화목 사이프러스가 있는 길
박화목 시인(詩人)과 산양(山羊)
박화목 어두운 벽(壁)
박화목 이별(離別)
박화목 제야(除夜)의 종(鍾)
박화목 천사(天使)와의 씨름
박화목 포도원(葡萄園)
박화목 해바라기
박화목 호접(胡蝶)
박화목 흰 눈 내리는 크리스마스
박희진 거울 앞에서
박희진 겨울 북한산(北韓山)
박희진 고뇌와 황홀
박희진 골(骨)과 향수(香水)
박희진 공초(空超)의 무덤에서
박희진 관세음상(觀世音像)에게
박희진 그대 마법(魔法)의 십지(十指) 안엔
박희진 기마인물도상(騎馬人物陶像)
박희진 낙산사(洛山寺) 뜰
박희진 노인(老人)과 기타아
박희진 노인(老人)이 있는 곳엔
박희진 늘 끊임없는
박희진 당신은 이제
박희진 동해(東海)의 시첩(詩帖)
박희진 동해(東海)의 해돋이
박희진 두 개의 손이
박희진 등잔불은
박희진 디오게네스의 노래
박희진 라일락속의연인(戀人)들
박희진 모죽지랑가(慕竹旨郎歌)
박희진 묘지(墓地)
박희진 무(舞)
박희진 무등산장(無等山莊)에서
박희진 무제(無題)
박희진 미래의 시인에게
박희진 미아리묘지(彌阿里墓地)
박희진 바다만세(萬歲)바다
박희진 바닷가에서
박희진 방(方) 안드레아 신부(神父)
박희진 백치(白痴)의 노래
박희진 북한산(北漢山) 진달래
박희진 빈집에 홀로……
박희진 빛과 어둠의 사이
박희진 산수인물운(山水人物韻)
박희진 새봄의 기도
박희진 서곡(序曲)
박희진 석련지환상(石蓮池幻想)
박희진 송광사(松廣寺) 밤 뜰
박희진 십장생신명가(十長生神明歌)
박희진 애가(哀歌)
박희진 오늘
박희진 우음(偶吟)
박희진 이중섭(李仲燮) 이(二)
박희진 이중섭(李仲燮) 일(一)
박희진 지상(地上)의 소나무는
박희진 진달래 정토(淨土)길
박희진 천계(天啓)
박희진 청자상감송하탄금문매병(靑瓷象嵌松下彈琴文梅甁)
박희진 추일영가(秋日靈歌)
박희진 타골 송(頌)
박희진 한국어를 기리는 노래
박희진 허(虛)
박희진 헌화가(獻花歌)
박희진 회복기(恢復期)
백기만 가엾은 청춘(靑春)
백기만 거화(炬火)
백기만 고별(告別)
백기만 기쁨
백기만 꿈의 예찬(禮讚)
백기만 내 살림
백기만 만인(蠻人)의 도전(挑戰)
백기만 아기의 얼굴
백기만 아름다운 달
백기만 영사막(映寫幕)
백기만 예술(藝術)
백기만 은행(銀杏)나무 그늘
백기만 청(靑)개구리
백기만 허공(虛空)
백석 가무래기의 약(藥)
백석 가즈랑집
백석 개
백석 고방
백석 고성가도(固城街道)
백석 고야(古夜)
백석 고향
백석 광원(曠原)
백석 구장로(球場路)
백석 국수
백석 귀농(歸農)

백석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백석	나와 지렁이
백석	남신의주(南新義州) 유동(柳洞) 박시봉방(朴時逢方)
백석	내가 생각하는 것은
백석	내가 이렇게 외면하고
백석	넘언집 범 같은 노큰마니
백석	동뇨부(童尿賦)
백석	두보(杜甫)나 이백(李白)같이
백석	마을은 맨천 구신이 돼서
백석	멧새 소리
백석	모닥불
백석	목구(木具)
백석	미명계(未明界)
백석	바다
백석	박각시 오는 저녁
백석	북방(北方)에서
백석	북신(北新)
백석	산(山)
백석	산중음(山中吟)
백석	산지(山地)
백석	삼천포(三千浦)
백석	석양
백석	수라(修羅)
백석	수박씨, 호박씨
백석	시기(柿崎)의 바다
백석	쓸쓸한 길
백석	안동(安東)
백석	여승
백석	여우난골
백석	여우난골족(族)
백석	연자간
백석	오금덩이라는 곳
백석	오리
백석	오리 망아지 토끼
백석	월림(月林)장
백석	이두국주가도(伊豆國湊街道)
백석	적경(寂境)
백석	적막강산
백석	절간의 소 이야기
백석	절망
백석	정문촌(旌門村)
백석	정주성(定州城)
백석	조당(♣塘)에서
백석	주막(酒幕)
백석	창원도(昌原道)
백석	청시(靑柿)
백석	촌에서 온 아이
백석	추야일경(秋夜一景)
백석	칠월(七月) 백중
백석	탕약(湯藥)
백석	통영(統營)
백석	통영(統營)
백석	팔원(八院)
백석	함남(咸南) 도안(道安)
백석	함주시초(咸州詩抄)
백석	허준(許俊)
백석	황일(黃日)
백석	흰 바람벽이 있어
백석	흰 밤
변영로	가을하늘 밑에 서서
변영로	그 때가 언제나 옵니까
변영로	기분전환(氣分轉換)
변영로	날이 새입니다
변영로	낮에 오시기 꺼리시면
변영로	논개(論介)
변영로	눈[眼]
변영로	님아
변영로	님이시여
변영로	못 놓이는 마음
변영로	방랑(放浪)의 노래
변영로	버러지도 싫다하올
변영로	벗들이여
변영로	봄비
변영로	사랑은
변영로	생시에 못 뵈올 님을
변영로	설상소요(雪上逍遙)
변영로	오, 나의 영혼의 기(旗)여
변영로	오, 솟는 해
변영로	이월(二月) 햇발
변영로	추억(追憶)만이
변영로	친애하는 벗이여
변영로	하늘만 보아라
서경온	9월(九月)의 말
서경온	겨울 해바라기
서경온	꽃게
서경온	마른 잎새 또 하나가
서경온	모일(某日)
서경온	바람개비
서경온	별빛 등불 하나
서경온	불화(不和)
서경온	새
서경온	설야(雪夜) 1
서경온	송년 음악회
서경온	슬픈 임금님을 위하여
서경온	시법(詩法)

서경온 실내악(室內樂)
서경온 여름의 물
서경온 여름이 오는 곳은
서경온 연기(煙氣)
서경온 오월의 문(門)
서경온 입추(立秋)
서경온 찬비
서원동 KOREA
서원동 겨울 강(江)가에서 1
서원동 겨울 강(江)가에서 16
서원동 겨울 공원에서
서원동 그대는 이 밤 어디에서
서원동 꿈과 노래
서원동 낙엽
서원동 낮에 나온 반달
서원동 노래에 대하여
서원동 달맞이꽃
서원동 비
서원동 비구름떼
서원동 서른 한 살의 시(詩)
서원동 시(詩)
서원동 시인(詩人)들
서원동 얼굴
서원동 예방 주사
서원동 우리들은
서원동 우리들의 왕
서원동 초겨울 오후
서정주 {거시기}의 노래
서정주 {꼬끼오!} 우는 스위스 희중시계
서정주 간통사건과 우물
서정주 결궁배미
서정주 겁(劫)의 때
서정주 고려(高麗) 호일(好日)
서정주 고요
서정주 고향 난초
서정주 국화 옆에서
서정주 귀촉도(歸蜀途)
서정주 그애가 물동이의 물을 한 방울도 안 엎지르고 걸어왔을 때
서정주 기다림
서정주 기억
서정주 꽃
서정주 꽃밭의 독백(獨白)
서정주 나그네의 꽃다발
서정주 나의 시
서정주 내 아내
서정주 내 영원은
서정주 내가 돌이 되면
서정주 눈 오시는 날
서정주 님은 주무시고
서정주 대낮
서정주 동천(冬天)
서정주 두 향나무 사이
서정주 멕시코에 와서
서정주 몽블랑의 신화
서정주 무등(無等)을 보며
서정주 무제
서정주 무제
서정주 문둥이
서정주 밀어(密語)
서정주 박용래
서정주 백일홍 필 무렵
서정주 보릿고개
서정주 부활
서정주 비엔나
서정주 사경(四更)
서정주 상가수(上歌手)의 소리
서정주 상파울루의 히피 시장(市場) 유감(有感)
서정주 서반아(西班牙)의 가가대소(呵呵大笑)
서정주 서풍부(西風賦)
서정주 석녀(石女) 한물댁의 한숨
서정주 석류꽃
서정주 선덕여왕의 말씀
서정주 선운사(禪雲寺) 동구(洞口)
서정주 소년왕 단종의 마지막 모습
서정주 소자(小者) 이(李)생원네 마누라님의 오줌 기운
서정주 술통촌 마을의 경사
서정주 시론(詩論)
서정주 신라유가(儒家)의 제일문사(第一文士) 강수선생(强首先生) 소전(小傳)
서정주 신록
서정주 신발
서정주 신부(新婦)
서정주 싸락눈 내리어 눈썹 때리니
서정주 아라비아 사막도(圖)
서정주 아일랜드의 두 사랑
서정주 암스테르담에서 스피노자를 생각하며
서정주 애기의 꿈
서정주 애기의 웃음

서정주 애를 밸 때, 낳을 때
서정주 어머니
서정주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서정주 영산홍(映山紅)
서정주 왕(王) 금와(金蛙)의 사주팔자
서정주 외할머니의 뒤안 툇마루
서정주 우리 님의 손톱의 분홍 속에는
서정주 우리 데이트는
서정주 이오니아 바닷가에서
서정주 인도의 여인
서정주 인연설화조(因緣說話調)
서정주 자화상(自畵像)
서정주 저무는 황혼
서정주 조국
서정주 진주 가서
서정주 찬술
서정주 추석
서정주 추일미음(秋日微吟)
서정주 추천사
서정주 춘궁(春窮)
서정주 춘향유문(春香遺文)
서정주 침향(沈香)
서정주 킬리만자로의 해돋이 때
서정주 태국 코끼리
서정주 푸르른 날
서정주 풀리는 한강가에서
서정주 피는 꽃
서정주 학
서정주 한 발 고여 해오리
서정주 한양호일(漢陽好日)
서정주 할머니의 인상
서정주 행진곡
서정주 화사(花蛇)
서정주 황룡사 큰 부처님상이 되기까지
서정주 황진이
설정식 거리에서 들려주는 노래
설정식 고향(故鄕)
설정식 달
설정식 동해수난(童孩受難)
설정식 또 하나 다른 태양
설정식 묘지
설정식 무(舞)
설정식 물 긷는 저녁
설정식 붉은 아가웨 열매를
설정식 샘물
설정식 송가(頌歌)
설정식 시
설정식 실소(失笑)도 허락지 않는 절대의 역(域)
설정식 여름이 가나보다
설정식 영혼
설정식 임우(霖雨)
설정식 잡초(雜草)
설정식 조사(弔辭)
설정식 종(鐘)
설정식 지도자(指導者)들이여
설정식 태양(太陽) 없는 땅
설정식 포도
설정식 피수레
설정식 해바라기 1
설정식 해바라기 2
설정식 해바라기 쓴 술을 빚어 놓고
설정식 헌사(獻詞)
설창수 개폐교(開閉橋)
설창수 관음(觀音)의 창(窓)
설창수 금성(金星)의 노래
설창수 대지(大地)의 노래
설창수 무지개
설창수 배
설창수 봇[洑]물
설창수 뿌리
설창수 산(山)비둘기 한 쌍
설창수 설악(雪岳)
설창수 시계(時計)
설창수 식목일(植木日)에
설창수 애(愛)
설창수 역우(役牛)
설창수 잉어에게
설창수 적막(寂寞)
설창수 지하(地下)의 강(江)
설창수 천주산(天柱山)에
설창수 춘치(春雉)
설창수 토굴(土窟)의 여승(女僧)들
설창수 한란사(寒蘭詞)
성찬경 가려움과 음악(音樂)
성찬경 갈릴래아의 호수
성찬경 개똥벌레의 노래
성찬경 교차
성찬경 궁(宮)
성찬경 권태(倦怠)
성찬경 내 가슴은 피리
성찬경 내 나의 시간의 봉우리에서
성찬경 로마네스끄
성찬경 물방울 소묘(素描)

성찬경 미열(微熱)
성찬경 밀핵
성찬경 반투명(半透明)
성찬경 벌레 소리 송(頌)
성찬경 벌레소리
성찬경 보석밭
성찬경 봉황부(鳳凰賦)
성찬경 사랑사리
성찬경 사리(舍利)
성찬경 상징(象徵)과 기림
성찬경 새싹 앞에서
성찬경 석양(夕陽)에 긴
성찬경 성북동의 한국순교복자수도원
성찬경 세모탁족(歲暮濯足)
성찬경 소나무를 기림
성찬경 시간음(時間吟)
성찬경 실오레기의 노래
성찬경 영혼(靈魂)의 눈 육체(肉體)의 눈
성찬경 예수님은 시인
성찬경 우중장미음(雨中薔薇吟)
성찬경 원근법(遠近法)
성찬경 은유를 사랑한다
성찬경 잠의 호수(湖水)
성찬경 줄타기 곡예사(曲藝師)
성찬경 철쭉과 벌
성찬경 추사(秋史)의 글씨에게
성찬경 클레에 송(頌)
성찬경 프리즘
성찬경 한 줄의 시구(詩句)
성찬경 한라산(漢拏山)에서
성찬경 핵(核)
성찬경 화상소감(火傷小感)
성찬경 화형둔주곡(火刑遁走曲)
성찬경 환상록(幻想錄)
성춘복 굳은 손으로
성춘복 나를 버리는 일
성춘복 남은 하루
성춘복 낮잠
성춘복 너를 보내며
성춘복 너를 생각하면
성춘복 밤의 낚시터
성춘복 밤이면 자리에 들어
성춘복 복사꽃제(祭)
성춘복 뻐국새 운다
성춘복 새벽에 일어나
성춘복 술래야
성춘복 아내의 치마
성춘복 오늘 이 하루도
성춘복 오지에서
성춘복 옥잠화를 안고 와서
성춘복 지중해 통신
성춘복 찻물을 올려놓고
성춘복 폭풍의 노래
손종호 가사(袈裟)를 기우며
손종호 공기의 꿈 1
손종호 공기의 꿈 2
손종호 그대의 벽지(僻地)
손종호 딜런 토마스에게
손종호 박용래(朴龍來) 1
손종호 별사(別詞)
손종호 복서
손종호 선운사
손종호 수족관 속의 지평
손종호 심령학자 K씨의 집
손종호 심법(心法)
손종호 안개
손종호 역
손종호 열매의 지평
손종호 우리들의 악몽
손종호 짐승들의 계단 1
손종호 하단(下端)에서
손종호 호질(虎叱)
손종호 황혼가
송기원 거진 밤바다
송기원 겨울편지
송기원 그림자에 대해서
송기원 기도
송기원 달
송기원 동백꽃 필 때
송기원 보리밭에서
송기원 사랑
송기원 살붙이
송기원 소년수 만동이
송기원 수선화
송기원 시(詩)
송기원 양파를 먹으며
송기원 월남에의 기억 1
송기원 인상(印象) 1
송기원 임계장터
송기원 추운 밤에
송기원 탕자일기(蕩子日記) 1
송기원 편지
송기원 한잔 술에
송기원 허방
송기원 회복기(恢復期)의 노래

송수권 감꽃
송수권 꿈꾸는 섬
송수권 대숲 바람소리
송수권 도라지꽃
송수권 등꽃 아래서
송수권 매향비(埋香碑)
송수권 면민회(面民會)의 날
송수권 산문(山門)에 기대어
송수권 석남꽃 꺾어
송수권 아그라 마을에 가서
송수권 아도(啞陶)
송수권 여승(女僧)
송수권 우리 나라 풀이름 외기
송수권 우리들의 사랑 노래
송수권 우리들의 즐거운 집짓기 놀이
송수권 위인의 집
송수권 임진강 오리떼
송수권 자수(刺繡)
송수권 저승꽃
송수권 전설(傳說)
송수권 정든 땅 정든 언덕 위에
송수권 제(祭)ㅅ날
송수권 지리산 뻐꾹새
송수권 징검다리
송수권 춘향이 생각
송수권 평사리행(平沙里行)
송수권 풍장(風葬)
송수권 한국의 강(江)
송수권 해빙기(解氷期)
송수권 향전매(梅)
송욱 거리에서
송욱 관음상(觀音像) 앞에서
송욱 기름한 귀밑머리
송욱 꽃
송욱 나는 어느 어스름
송욱 나무는 즐겁다
송욱 남대문(南大門)
송욱 비 오는 창(窓)
송욱 비단 무늬
송욱 사랑으로……
송욱 산(山)이 있는 곳에서
송욱 생생회전(生生回轉)
송욱 서방님께
송욱 숲
송욱 신방비곡(新房悲曲)
송욱 아악(雅樂)
송욱 안개
송욱 어느 십자가(十字架)
송욱 왕소군(王昭君)
송욱 의(義)로운 영혼(靈魂) 앞에서
송욱 장미(薔薇)
송욱 찬가(讚歌)
송욱 창(窓)
송욱 하여지향(何如之鄕) 1)
송욱 하여지향(何如之鄕) 2
송욱 하여지향(何如之鄕) 3
송욱 하여지향(何如之鄕) 8
송욱 해인연가(海印戀歌) 1
송욱 해인연가(海印戀歌) 2
송욱 해인연가(海印戀歌) 4
송재학 감은사에 가다
송재학 그 개의 정신은 앙상함에 있다
송재학 노래는 왜 금방 꽃핀 홀아비꽃대를 찾아가는가
송재학 다시 철아젱
송재학 먼길
송재학 별을 찾아 몸을 별로 바꾸는 이야기가 있다
송재학 봄날
송재학 살레시오네 집
송재학 섬 3
송재학 섬세함을 옹호하다
송재학 수련(睡蓮)의 날짜 1
송재학 아화리 지나며
송재학 어느 날
송재학 어두운 날짜를 스쳐서
송재학 어머니는 무엇이든 잠재우신다
송재학 얼굴을 붉히다
송재학 얼음시 3
송재학 오래 전부터 저녁은
송재학 와시표 일축 조선소리반
송재학 유등연지
송재학 이 앙다문 어둠
송재학 작은 고모
송재학 저 젖이 큰 여자
송재학 저물녘…시간을 버리다
송재학 푸른 빛과 싸우다 1
송재학 푸른 빛과 싸우다 2
송재학 풍금(風琴)
송재학 햇빛 속
송하선 가야금
송하선 갈대
송하선 겨울의 말
송하선 겨울의 엽서(葉書)

송하선 겨울풀
송하선 그날의 함성을
송하선 금강산 별곡
송하선 낮은 목소리로
송하선 다시 장강(長江)처럼
송하선 돌을 보며
송하선 바람
송하선 밤 주막(酒幕) 상송
송하선 불꽃 상송
송하선 사랑을 위한 서시(序詩)
송하선 상전(桑田)에서
송하선 석류(石榴)
송하선 안개 속에서
송하선 야영(野營)
송하선 연꽃 I
송하선 요정(妖精)
신경림 3월(月) 1일(日)
신경림 4월 19일, 시골에 와서
신경림 가객
신경림 가난한 북한 어린이
신경림 가난한 사랑노래
신경림 갈 길
신경림 갈구렁달
신경림 갈대
신경림 강(江)
신경림 강물 1
신경림 개치 나루에서
신경림 겨울밤
신경림 고향(故鄕)에 와서
신경림 고향길
신경림 고향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신경림 곯았네
신경림 군자(君子)에서
신경림 귀로(歸路)
신경림 그날
신경림 그림
신경림 길
신경림 길음시장
신경림 꿈의 나라 코리아
신경림 끊어진 철길
신경림 나는 부끄러웠다 어린 누이야
신경림 나무 1
신경림 날개
신경림 농무(農舞)
신경림 눈길
신경림 늙은 소나무
신경림 다시 남한강(南漢江) 상류에 와서
신경림 달 넘세
신경림 달, 달
신경림 두물머리
신경림 먼 길
신경림 명매기 집
신경림 목계장터
신경림 묘비(墓碑)
신경림 무인도(無人島)
신경림 밤길
신경림 북으로 간 친구
신경림 북한강행 3
신경림 비 오는 날
신경림 빛
신경림 산(山) 1번지(番地)
신경림 산동네
신경림 산에 대하여
신경림 산읍기행(山邑紀行)
신경림 산읍일지(山邑日誌)
신경림 새벽
신경림 새벽 눈
신경림 세월
신경림 소리
신경림 시골 큰집
신경림 시외버스 정거장
신경림 시인의 집
신경림 씻김굿
신경림 아우라지 뱃사공
신경림 어둠으로 인하여
신경림 어머니 나는 고향땅에 돌아가지 못합니다
신경림 어허 달구
신경림 언덕길을 오르며
신경림 여름날
신경림 열림굿 노래
신경림 엿장수 가위소리에 넋마저 빼앗겨
신경림 오월은 내게
신경림 오지일기(奧地日記)
신경림 옥대문(玉大門)
신경림 우리가 지나온 길에
신경림 원격지(遠隔地)
신경림 유아(幼兒)
신경림 잔칫날
신경림 장자(莊子)를 빌려
신경림 전야(前夜)
신경림 제삿날 밤
신경림 진드기
신경림 찔레꽃

신경림 철길
신경림 파도
신경림 파장(罷場)
신경림 폐광(廢鑛)
신경림 폐촌행
신경림 함성(喊聲)
신경림 허재비굿을 위하여
신경림 홍천강
신경림 화톳불, 눈발, 해장국
신달자 겨울 노래
신달자 겨울 산길
신달자 겨울 침상(枕上)
신달자 겨울의 노래
신달자 곡선(曲線)
신달자 귀가(歸家)
신달자 다만 하나의 빛깔로
신달자 문 2
신달자 문(門) 1
신달자 미로(迷路)
신달자 발 1
신달자 발 5
신달자 빨래
신달자 아버지
신달자 어두운 집
신달자 여름 한낮
신달자 우박
신달자 일박(一泊)
신달자 조춘(早春)
신달자 폭풍
신달자 표정(表情)
신달자 해당화
신대철 4월은 엘뤼아르에게
신대철 5월은 엘뤼아르에게
신대철 가을의 소리
신대철 강물이 될 때까지
신대철 교외에서
신대철 눈
신대철 다시 무인도(無人島)를 위하여
신대철 또 묘비(墓碑)를 세우며 2
신대철 망초꽃 1
신대철 망초꽃 2
신대철 무인도(無人島)
신대철 무인도(無人島)를 위하여
신대철 바다 2시(時)
신대철 박꽃
신대철 봄눈
신대철 사람이 그리운 날 1
신대철 사람이 그리운 날 2
신대철 사람이 그리운 날 3
신대철 사막은 어디 붙어 있어?
신대철 아무도 살지 않는 땅 1
신대철 아무도 살지 않는 땅 2
신대철 이 마을을 깨끗하게
신대철 잎, 잎
신대철 자연수(自然水)
신대철 처형(處刑) 1
신대철 처형(處刑)의 끝
신대철 추운 산(山)
신대철 칠갑산(七甲山) 1
신대철 칠갑산(七甲山) 2
신대철 혼을 빼앗기면
신대철 흰나비를 잡으러 간 소년은 흰나비로 날아와 앉고
신동엽 강(江)
신동엽 고향
신동엽 그 가을
신동엽 그 사람에게
신동엽 금강(錦江)
신동엽 기계(機械)야
신동엽 껍데기는 가라
신동엽 나의 나
신동엽 내 고향은 아니었었네
신동엽 너는 모르리라
신동엽 너에게
신동엽 노래하고 있었다
신동엽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신동엽 눈 날리는 날
신동엽 단풍(丹楓)아 산천(山川)
신동엽 달이 뜨거든
신동엽 둥구나무
신동엽 마려운 사람들
신동엽 미쳤던
신동엽 밤은 길지라도 우리 내일(來日)은 이길 것이다
신동엽 별밭에
신동엽 보리밭
신동엽 봄은
신동엽 봄의 소식(消息)
신동엽 불바다
신동엽 빛나는 눈동자
신동엽 산(山)에 언덕에
신동엽 산(山)에도 분수(噴水)를
신동엽 산문시(散文詩) '1'
신동엽 살덩이
신동엽 삼월(三月)
신동엽 새해 새 아침은

신동엽 수운(水雲)이 말하기를
신동엽 술을 많이 마시고 잔 어젯밤은
신동엽 싱싱한 동자(瞳子)를 위(爲)하여
신동엽 아니오 1
신동엽 아사녀(阿斯女)
신동엽 아사녀(阿斯女)의 울리는 축고(祝鼓)
신동엽 여름 고개
신동엽 여름 이야기
신동엽 완충지대(緩衝地帶)
신동엽 원추리
신동엽 이곳은
신동엽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大地)
신동엽 정본(定本) 문화사대계(文化史大系)
신동엽 조국(祖國)
신동엽 종로오가(鍾路五街)
신동엽 좋은 언어(言語)
신동엽 진달래 산천(山川)
신동엽 진이(眞伊)의 체온(體溫)
신동엽 창(窓)가에서
신동엽 초가을
신동엽 향(香)아
신동엽 힘이 있거든 그리로 가세요
신동집 가을 햇살
신동집 가지치기
신동집 거절(拒絶)
신동집 귀한 이 한때
신동집 금조비가(金鳥悲歌)
신동집 끝나는 계절
신동집 나의 손
신동집 날이 지기 위해선
신동집 너무나 쉬이
신동집 눈
신동집 동행(同行)
신동집 들머리에 아직도
신동집 뜬구름 하나 1
신동집 램프
신동집 마음 이 한때
신동집 모과나무
신동집 목련개화(木蓮開花)
신동집 목숨
신동집 물을 마신 사람
신동집 바다
신동집 별빛이 나의 붓을 따순다
신동집 봄비
신동집 비가(悲歌)
신동집 비새
신동집 사공(沙工)
신동집 시구(詩句)
신동집 시인
신동집 싸리나무
신동집 악수
신동집 암호
신동집 여로 1
신동집 오, 하나씩의 이름들
신동집 이사
신동집 잠들기 전
신동집 좋았던 날
신동집 집을 짓다
신동집 추일유정(秋日有情)
신동집 편지
신동집 평온한 잠
신동집 표정
신동집 하일명상(夏日瞑想)
신동집 한 사람의 슬픔
신동집 한 알의 씨앗
신동집 한로(寒露)
신동집 항아리
신동집 행인 1
신석정 가을이 지금은 먼 길을 떠나려 하나니
신석정 고운 심장(心臟)
신석정 고원(故園)에 보내는 시
신석정 그 꿈을 깨우면 어떻게 할까요?
신석정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신석정 꽃덤풀
신석정 꿈의 일부(一部)
신석정 나랑 함께
신석정 나무 등걸에 앉아서
신석정 나의 꿈을 엿보시겠습니까
신석정 나의 노래는
신석정 난초(蘭草)
신석정 날개가 돋쳤다면
신석정 내 가슴 속에는 제삼장(第三章)
신석정 눈맞춤
신석정 단장소곡(斷腸小曲)
신석정 대바람소리
신석정 대숲에 서서
신석정 대춘부(待春賦)
신석정 대화(對話)

신석정 들길에 서서
신석정 망향(望鄕)의 노래
신석정 바다에게 주는 시(詩)
신석정 발음(發音)
신석정 밤의 노래
신석정 밤이여 그것은 단조(單調)한 비극(悲劇)이 아니다
신석정 비가(悲歌)
신석정 비의 서정시(抒情詩)
신석정 빙하(氷河)
신석정 산(山)은 알고 있다
신석정 산방일기(山房日記)
신석정 산산산(山山山)
신석정 산수도(山水圖)
신석정 산협인상(山峽印象)
신석정 새벽을 기다리는 마음
신석정 생존(生存)
신석정 서가(書架)
신석정 서정가(抒情歌)
신석정 서정소곡(抒情小曲)
신석정 서정소곡(抒情小曲)
신석정 선물
신석정 소곡(小曲)
신석정 수선화(水仙花)
신석정 슬픈 구도(構圖)
신석정 슬픈 전설(傳說)을 지니고
신석정 아직 촛불을 켤 때가 아닙니다
신석정 애가(哀歌)
신석정 어느 지류(支流)에 서서
신석정 역사(歷史)
신석정 오는 팔월(八月)에도
신석정 은방울꽃
신석정 이 밤이 너무나 길지 않습니까?
신석정 이속(離俗)의 장(章)
신석정 이야기
신석정 임께서 부르시면
신석정 입춘(立春)
신석정 작은 짐승
신석정 지구(地球)가 회전(廻轉)하는 대로
신석정 차라리 한 그루 푸른 대로
신석정 촐촐한 밤
신석정 추과삼제(秋果三題)
신석정 추야장(秋夜長) 고조(古調)
신석정 축제(祝祭)
신석정 파도(波濤)
신석정 파초(芭蕉)잎을 밟고 가는
신석정 파초와 이웃하고
신석정 푸른 하늘 바라보는 행복이 있다
신석정 하도 햇볕이 다냥해서
신석정 한대식물(寒帶植物)
신석정 항구(港口)에서
신석정 호조일성(好鳥一聲)
신석정 황(篁)
신석정 흑석(黑石)고개로 보내는 시(詩)
신석초 검무낭(劒舞娘)
신석초 고풍(古風)
신석초 광릉(光陵)에서
신석초 궁시(弓矢)
신석초 규녀(閨女)
신석초 금사자(金獅子)
신석초 낙엽(落葉)의 장(章)
신석초 낙와(落瓦)의 부(賦)
신석초 돌팔매
신석초 매혹(魅惑) 1
신석초 매혹(魅惑) 2
신석초 멸(滅)하지 않는 것
신석초 무녀(巫女)의 춤
신석초 밀도(蜜桃)를 준다
신석초 바라춤
신석초 바람 부는 숲
신석초 백운대(白雲臺)
신석초 뱀
신석초 불국사탑(佛國寺塔) 1
신석초 불춤
신석초 비취단장(翡翠斷章)
신석초 삼각산(三角山) 밑에서
신석초 상아의 홀(笏)
신석초 서사(序詞)
신석초 선녀(仙女) 비천(飛天)
신석초 시름하는 꽃가지
신석초 신라고도부(新羅古都賦)
신석초 심추(深秋)
신석초 어느 날의 꿈
신석초 여명(黎明)
신석초 연(蓮)꽃
신석초 유파리노스 송가(頌歌)
신석초 이상곡(履霜曲)
신석초 적(笛)
신석초 종(鍾)
신석초 주렴(珠簾)
신석초 처용(處容) 무가(巫歌)

신석초 처용(處容)은 말한다
신석초 천마도(天馬圖)
신석초 천지(天池)
신석초 추호(秋湖)
신석초 춤추는 여신(女神)
신석초 파초(芭蕉)
신석초 폭풍(暴風)의 노래
신석초 풍우(風雨)
신석초 함령지곡(咸寧之曲)
신석초 호접(蝴蝶)
신석초 화장(化粧)
신석초 흐려진 달
신중신 가까운 듯 저리 멀구나
신중신 귀로(歸路)
신중신 그 순간의 시선이
신중신 꿈꾸는 노동
신중신 내 이렇게 살다가
신중신 님에게
신중신 무너지는 소리
신중신 산다는 것은 노래이며 춤
신중신 새를 향하여
신중신 새벽의 언어
신중신 슬픔에게
신중신 우리의 목수(木手)
신중신 은유(隱喩)
신중신 일몰(日沒) 전에
신중신 작은 사랑의 소네트
신중신 저 밤의 투명성(透明性)
신중신 투창(投槍)
신중신 한 덩이의 무게
신중신 한 신비주의자의 몽상
신중신 흑인(黑人) 죠의 눈물
신진 갈매기
신진 강・헤어지는 사랑
신진 겨울 송충이
신진 멀리뛰기
신진 바람 기행(紀行)
신진 밤기차
신진 복어알
신진 볼펜
신진 봉암사(鳳岩寺) 가며
신진 불
신진 빈대떡
신진 실연(失戀) 2
신진 아버지, 바람이 되어
신진 엿장수
신진 장난감 마을의 공터에서
신진 점화(點火)
신진 종달새는 왜 솟는가
신진 통금시간의 애인
신진 호숫가에서
신진 흔적만 남기는 그대
신효정 가을 꽃
신효정 그림 속의 밤
신효정 나비의 꿈
신효정 말과……
신효정 말이 있는 풍경
신효정 미완성의 슬픔 Ⅰ
신효정 밤, 길고 긴 밤 Ⅰ
신효정 밤, 길고 긴 밤 Ⅱ
신효정 비
신효정 사랑은…
신효정 새벽
신효정 슬픈 영화
신효정 어둠 아래 누워
신효정 울음은 아니 터지고
신효정 음악(音樂) Ⅰ
신효정 천호동 Ⅰ
신효정 천호동 Ⅱ
신효정 천호동(千戶洞)의 별
신효정 태양의 노래
신효정 해바라기
심훈 R씨(氏)의 초상(肖像)
심훈 가배절(嘉俳節)
심훈 거리의 봄
심훈 겨울밤에 내리는 비
심훈 고독(孤獨)
심훈 고루(鼓樓)의 삼경(三更)
심훈 고향(故鄕)은 그리워도
심훈 곡(哭) 서해(曙海)
심훈 광란(狂亂)의 꿈
심훈 그날이 오면
심훈 나의 강산(江山)이여
심훈 너에게 무엇을 주랴
심훈 눈밤
심훈 돌아가지이다
심훈 동우(冬雨)
심훈 마음의 낙인(烙印)
심훈 만가(輓歌)
심훈 명사십리(明沙十里)
심훈 무장야(武藏野)에서
심훈 박군(朴君)의 얼굴
심훈 밤
심훈 봄비
심훈 봄의 서곡(序曲)
심훈 북경(北京)의 걸인(乞人)

심훈	뻐꾹새가 운다
심훈	상해(上海)의 밤
심훈	생명(生命)의 한 토막
심훈	선생님 생각
심훈	소야악(小夜樂)
심훈	송도원(松濤園)
심훈	심야과황하(深夜過黃河)
심훈	어린것에게
심훈	어린이 날
심훈	영춘(詠春) 삼수(三首)
심훈	잘 있거라 나의 서울이여
심훈	전당강(錢塘江) 상(上)에서
심훈	조선(朝鮮)의 자매(姉妹)여
심훈	조선은 술을 먹인다
심훈	짝 잃은 기러기
심훈	첫눈
심훈	총석정(叢石亭)
심훈	추야장(秋夜長)
심훈	태양(太陽)의 임종(臨終)
심훈	토막 생각
심훈	통곡(痛哭) 속에서
심훈	패성(浿城)의 가인(佳人)
심훈	풀밭에 누워서
심훈	피리
심훈	필경(筆耕)
심훈	한강(漢江)의 달밤
심훈	해당화(海棠花)
심훈	현해탄(玄海灘)
안수환	겨울 바다
안수환	겨울산
안수환	계룡산
안수환	그날 밤
안수환	까치
안수환	놋쇠
안수환	명동 근처
안수환	밤까치 소리
안수환	신(神)들의 옷
안수환	쌍계사 삼지닥나무
안수환	은지리 산골
안수환	이월(二月) 눈
안수환	장작
안수환	전의면
안수환	접촉 1
안수환	지하생활(地下生活)
안수환	채소
안수환	초승달
안수환	통화
안수환	한담(閑談)
양명문	SONATA
양명문	과수원(果樹園)
양명문	구봉씨(九峯氏)
양명문	나의 역정(歷程)을 위한 담시(譚詩)
양명문	느티나무
양명문	단오(端午)
양명문	명태(明太)
양명문	문(門)
양명문	밝은 아침에
양명문	밤나무
양명문	석불(石佛)
양명문	설악단장(雪嶽斷章)
양명문	세종로(世宗路)에서
양명문	송가(頌歌)
양명문	시신출몰(詩神出沒)
양명문	어머니
양명문	역사(歷史)
양명문	원시(原始)에의 대화(對話)
양명문	은행(銀杏)나무 산조(散調)
양명문	추석(秋夕)
양명문	푸른 전설(傳說)
양명문	학(鶴)
양명문	화성인(火星人)
양성우	겨울 공화국
양성우	그대여, 마지막 밤의 슬픈 노래여
양성우	그대의 하늘길
양성우	그믐날 밤 개울가에서
양성우	기다림의 시
양성우	꽃 꺾어 그대 앞에
양성우	꽃상여 타고
양성우	눈오는 날 광주에서
양성우	눈오는 밤에
양성우	돌아와 눕는 날 밤이면
양성우	백두산
양성우	북한강
양성우	삼수갑산(三水甲山) 갈지라도
양성우	앉은뱅이 연가 1
양성우	오월제(五月祭)
양성우	우리 살았다 하지 말자
양성우	젊은 견훤
양성우	지금은 결코 꽃이 아니라도 좋아라
양성우	찬가
양성우	청산(青山)이 소리쳐 부르거든
양왕용	가을 소묘(素描)·사제(四題)
양왕용	갈라지는 바다

양왕용	겨울 여행가(旅行歌)·사편(四篇)
양왕용	과목(果木)과 노인(老人)
양왕용	나의 시(詩) 1
양왕용	나의 시(詩) 3
양왕용	날개
양왕용	남해도(南海島) 1
양왕용	남해도(南海島) 2
양왕용	남해도(南海島) 3
양왕용	도회(都會)의 아이들 1
양왕용	도회(都會)의 아이들 10
양왕용	도회(都會)의 아이들 3
양왕용	모일(某日)
양왕용	어떤 정박(碇泊)
양왕용	운월(雲月)
양왕용	폭설(暴雪)
양왕용	하단(下端)사람들 1
양왕용	하단(下端)사람들 11
양왕용	항도(港都)
양주동	가을
양주동	기몽(記夢)
양주동	나는 그대에게 온몸을 바치려노라
양주동	나는 이 나라 사람의 자손이외다
양주동	내 다시금 햇발을 보다
양주동	묘반(墓畔) 이수(二首)
양주동	바벨의 탑(塔)
양주동	불면야(不眠夜) 이수(二首)
양주동	사론
양주동	산 넘고 물 건너
양주동	삶의 든든함을 느끼는 때
양주동	삶의 하염없음을 느끼는 때
양주동	어머님 은혜
양주동	영원(永遠)한 비밀(秘密)
양주동	이리와 같이
양주동	인간송가(人間頌歌)
양주동	잡조(雜調) 오장(五章)
양주동	조선의 맥박(脈搏)
양주동	탄식
양주동	탄식
엄국현	2월
엄국현	4월에 죽은 시인(詩人)을 위한 기도
엄국현	개구리 마을
엄국현	공간(空間)의 시(詩) 1
엄국현	공간(空間)의 시(詩) 6
엄국현	구산동(龜山洞) 고분(古墳)
엄국현	그대 사는 마을까지
엄국현	꽃들에게 축복
엄국현	나의 노동
엄국현	돌(乭)이
엄국현	돌감나무
엄국현	분산 가는 길
엄국현	불의 기쁨 밥의 평화
엄국현	비
엄국현	빗물소리
엄국현	빛에 관한 명상
엄국현	소싸움
엄국현	여름 새벽
엄국현	집
엄국현	하늘 아래 겨울산
오규원	<꽃>의 페로디
오규원	D겨울 나그네
오규원	가끔은 주목받는 생(生)이고 싶다
오규원	간판이 많은 길은 수상하다
오규원	개봉동(洞)의 비
오규원	개봉동과 장미(薔薇)
오규원	겨울 숲을 바라보며
오규원	경복궁(景福宮)
오규원	골목에서
오규원	구둣발로 차고 가는구나
오규원	구멍
오규원	그 여자
오규원	그것은 나의 삶
오규원	그렇게 몇 포기
오규원	기댈 곳이 없어 죽음은
오규원	길 밖의 풀
오규원	남대문 시장에서
오규원	남들이 시를 쓸 때
오규원	네 개의 편지(便紙)
오규원	말
오규원	명동(明洞) 1
오규원	목캔디
오규원	무법(無法)
오규원	문(門)
오규원	문득 잘못 살고 있다는 느낌이
오규원	바다에 닿지는 못하지만
오규원	버스 정거장에서
오규원	별장(別章) 3편(篇)
오규원	봄
오규원	분명한 사건
오규원	분식집에서
오규원	불균형, 그 엉뚱한 아름다움

오규원 비가 와도 젖은 자는
오규원 빙그레 우유 200ml 패키지
오규원 사랑의 감옥
오규원 사랑의 기교(技巧) 1
오규원 사랑의 기교(技巧) 2
오규원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오규원 서울. 1984. 봄
오규원 손
오규원 시인(詩人) 구보씨(丘甫氏)의 일일(一日) 1
오규원 시인(詩人) 구보씨(久甫氏)의 일일(一日) 2
오규원 시인(詩人) 구보씨(久甫氏)의 일일(一日) 3
오규원 시인(詩人) 구보씨(久甫氏)의 일일(一日) 5
오규원 시인(詩人)들
오규원 아침부터 소화가 안 되는 얼굴을 한 꽃에게
오규원 아카시아
오규원 어둠은 자세히 봐도 역시 어둡다
오규원 용산(龍山)에서
오규원 우리 시대의 순수시(純粹詩)
오규원 우리는 어디서나
오규원 원피스
오규원 이 시대의 순수시(純粹詩)
오규원 이 시대의 죽음 또는 우화
오규원 이토록 밝은 나날
오규원 자바자바 셔츠
오규원 적막한 지상에
오규원 죽고 난 뒤의 팬티
오규원 진실로 우리는
오규원 코스모스를 노래함
오규원 테크노피아
오규원 한 나라 또는 한 여자(女子)의 길
오규원 한잎의 여자(女子) 1
오규원 현황(現況) B
오규원 환상 또는 비전
오규원 환상(幻想)을 갖는다는 것은 중요하다
오규원 황국(黃菊)
오상순 구름
오상순 나와 시(詩)와 담배
오상순 나의 고통(苦痛)
오상순 나의 스케치
오상순 단합(團合)의 결실(結實)
오상순 대추나무
오상순 몽환시(夢幻詩)
오상순 미로(迷路)
오상순 바다물은달다
오상순 방랑(放浪)의 마음 1
오상순 방랑(放浪)의 마음 2
오상순 백일몽(白日夢)
오상순 불나비
오상순 새 하늘이 열리는 소리
오상순 생(生)의 철학(哲學)
오상순 아시아의 마지막 밤 풍경(風景)
오상순 아시아의 여명(黎明)
오상순 어느 친구에게
오상순 어둠을 치는 자(者)
오상순 의문(疑問)
오상순 일진(一塵)
오상순 타는 가슴
오상순 폐허(廢墟)의 제단(祭壇)
오상순 표류(表流)와 저류(底流)의 교차점(交叉點)
오상순 한 마리 벌레
오상순 한잔 술
오상순 항아리
오상순 해바라기
오상순 허무혼(虛無魂)의 선언(宣言)
오상순 환상(幻像)
오세영 가을 2
오세영 간염(肝炎) 백신
오세영 강의실(講義室)
오세영 겨울 일기(日記)
오세영 과일
오세영 그릇 1
오세영 그릇 2
오세영 그릇 3
오세영 그릇 5
오세영 그릇 6
오세영 그릇 7
오세영 꽃
오세영 꽃 피리
오세영 난(蘭)을 기르며
오세영 날개
오세영 너, 없음으로
오세영 등산(登山)
오세영 모래
오세영 모순(矛盾)의 흙
오세영 무명연시(無明戀詩) 1
오세영 무명연시(無明戀詩) 24

오세영 무명연시(無明戀詩) 3
오세영 무명연시(無明戀詩) 36
오세영 무명연시(無明戀詩) 44
오세영 무명연시(無明戀詩) 52
오세영 무명연시(無明戀詩) 60
오세영 무명연시(無明戀詩) 64
오세영 무명연시(無明戀詩) 65
오세영 무명연시(無明戀詩)43
오세영 무명연시(無明戀詩)46
오세영 보석(寶石)
오세영 불 1
오세영 불 3
오세영 불 5
오세영 불면(不眠)
오세영 사랑
오세영 새벽
오세영 아침
오세영 여윈 손
오세영 잃어버린 시간(時間)을 찾아서
오세영 질그릇
오세영 편지
오세영 한 알의 밀알
오세영 한 줄의 시
오세영 후회(後悔)
오일도 가을 하늘
오일도 꽃에 물 주는 뜻은
오일도 내 연인(戀人)이여! 가까이 오렴!
오일도 내 창이 바다에 향했기에
오일도 노변애가(爐邊哀歌)
오일도 누른 포도(葡萄)잎
오일도 눈이여! 어서 나려 다오
오일도 도요새
오일도 물의 유혹(誘惑)
오일도 벽서(壁書)
오일도 별
오일도 새해 아침
오일도 송원(松園)의 밤
오일도 오월화단(五月花壇)
오일도 저녁놀
오일도 지하실(地下室)의 달
오일도 창(窓)을 남쪽으로
오일도 한가람 백사장(白沙場)에서
오일도 해방(解放)의 거리
오장환 FINALE
오장환 The Last Train
오장환 가거라 벗이여
오장환 경(鯨)
오장환 고전(古典)
오장환 고향 앞에서
오장환 공청(共靑)으로 가는 길
오장환 구름과 눈물의 노래
오장환 귀촉도(歸蜀途)
오장환 귀향의 노래
오장환 길손의 노래
오장환 깽
오장환 나 사는 곳
오장환 나의 길
오장환 나의 노래
오장환 나폴리의 부랑자(浮浪者)
오장환 내 나라 오 사랑하는 내 나라
오장환 너는 보았느냐
오장환 다시 미당리(美堂里)
오장환 다시금 여가(餘暇)를……
오장환 독초(毒草)
오장환 매음부(賣淫婦)
오장환 목욕간
오장환 무인도(無人島)
오장환 밤의 노래
오장환 병든 서울
오장환 북방(北方)의 길
오장환 불길(不吉)한 노래
오장환 붉은 산(山)
오장환 비둘기 내 어깨에 앉으라
오장환 산협(山峽)의 노래
오장환 상렬(喪列)
오장환 석양
오장환 성묘하러 가는 길
오장환 성벽
오장환 성씨보(姓氏譜)
오장환 성탄제(聖誕祭)
오장환 심동(深冬)
오장환 싸늘한 화단(花壇)
오장환 양(羊)
오장환 어린 동생에게
오장환 어머니 서울에 오시다
오장환 어육(魚肉)
오장환 어포(漁浦)
오장환 여수(旅愁)
오장환 연안(延安)서 오는 동무 심(沈)에게
오장환 영원한 귀향
오장환 영회(♣懷)
오장환 온천지(溫泉地)
오장환 월향구천곡(月香九天曲)
오장환 이 세월도 헛되이

오장환 장마철
오장환 전설
오장환 절정(絶頂)의 노래
오장환 정문(旌門)
오장환 종(鍾)소리
오장환 종가
오장환 찬가
오장환 체온표(體溫表)
오장환 초봄의 노래
오장환 팔월(八月) 십오일(十五日)의 노래
오장환 할렐루야
오장환 해수(海獸)
오장환 해항도(海港圖)
오장환 향수
오장환 헌사(獻詞) Artemis
오장환 호수
오장환 화원(花園)
오장환 황무지
오장환 황혼
오탁번 강설(降雪)
오탁번 개똥참외
오탁번 거울
오탁번 겨울 경포에서
오탁번 겨울강
오탁번 겨울비
오탁번 겨울연가(戀歌)
오탁번 굴뚝 소제부(消除夫)
오탁번 김수영론
오탁번 나의 아기
오탁번 동해
오탁번 마흔아홉의 까마귀
오탁번 배추흰나비
오탁번 빙어에게
오탁번 사랑의 깊이
오탁번 설날 아침
오탁번 솔잎
오탁번 순은(純銀)이 빛나는 이 아침에
오탁번 슬픔의 잠
오탁번 아이들의 화실
오탁번 아침의 예언(豫言)
오탁번 아침행진(行進)
오탁번 오죽헌지(烏竹軒池)에서
오탁번 우리 시대의 시인론
오탁번 우리말
오탁번 장모님
오탁번 저녁나절의 꿈
오탁번 저녁연기
오탁번 쪽빛 사랑
오탁번 천둥산 박달재
오탁번 첩란
오탁번 큰스님
오탁번 편지
오탁번 하관(下棺)
원구식 가시나무새
원구식 군무(群舞)
원구식 그 짧은 순간에
원구식 꿈을 씻어내는 작업(作業)
원구식 나는 명(名)기타리스트 1
원구식 낙타
원구식 도깨비불
원구식 먼지와의 싸움은 끝이 없다
원구식 별
원구식 별
원구식 비행기
원구식 사랑하게 때문에 연인(戀人)은 울 자격(資格)이 있다
원구식 섬 혹은 내 마음의 황폐화
원구식 시인과 짜장면
원구식 야전병원
원구식 자화상(自畵像)
원구식 지구 돌아가는 소리
원구식 탑(塔)
원구식 풀
원구식 풀잎
유안진 겨울 목소리
유안진 경복궁(景福宮) 경회루(慶會樓)
유안진 고란초
유안진 과일가게에서
유안진 낙엽(落葉)을 보며
유안진 눈 내린 아침길
유안진 눈물
유안진 들국화
유안진 만가(挽歌)
유안진 맨발
유안진 밤
유안진 별
유안진 병상(病床)
유안진 봄
유안진 사리(舍利)
유안진 서리꽃
유안진 손금
유안진 악수
유안진 자화상

유안진 잘못
유안진 혼자서 걸어가면
유안진 흙먼지
유진오 긁어온 가랑잎
유진오 나는야 거기 이름없는 풀잎이 되어
유진오 눈이 멀도록
유진오 달
유진오 들국화(菊花)
유진오 만가(輓歌)
유진오 무엇을 가르쳐야 옳으냐
유진오 밤
유진오 버섯
유진오 봄
유진오 불길
유진오 비 오는 날
유진오 설화(雪花)
유진오 소
유진오 순(順)이
유진오 어머니
유진오 이대루 가자
유진오 재생(再生)
유진오 창(窓)
유진오 초상(肖像)
유진오 한없는 노래
유치환 가마귀의 노래
유치환 감옥묘지(監獄墓地)
유치환 거목(巨木)에게
유치환 거제도(巨濟島) 둔덕(屯德)골
유치환 격투(格鬪)
유치환 경이(驚異)는 이렇게 나의 신변에 있었도다
유치환 고목
유치환 곽이라사후기행(郭爾羅斯後紀行)
유치환 광야에 와서
유치환 구름
유치환 귀고(歸故)
유치환 그리우면
유치환 그리움
유치환 그리움
유치환 그의 일단(一團)
유치환 기(旗) 없는 깃대
유치환 기(旗)의 의미(意味)
유치환 깃발
유치환 깨우침
유치환 나무여 너에게 할 말이 많다!
유치환 낙엽
유치환 낙화(落花)
유치환 너에게
유치환 노송(老松)
유치환 뉘가 이 기(旗)를 들어 높이 퍼득이게 할 것이냐
유치환 뉘가 이것을 만들었는가
유치환 단애(斷崖)
유치환 대인(待人)
유치환 돌아오지 않는 비행기(飛行機)
유치환 동해(東海)여
유치환 동해안에서
유치환 뜨거운 노래는 땅에 묻는다
유치환 마지막 항구
유치환 매화나무
유치환 문을 바르며
유치환 바위
유치환 박쥐
유치환 밤 진해만두(鎭海灣頭)에 서서
유치환 별
유치환 병처(病妻)
유치환 복사꽃 피는 날
유치환 봄바다
유치환 북방(北方) 10월(月)
유치환 북방추색(北方秋色)
유치환 비력(非力)의 시(詩)
유치환 비새
유치환 사만둔(沙曼屯) 부근(附近)
유치환 사향(思鄕)
유치환 산(山) 1
유치환 산(山) 4
유치환 산화(山火)
유치환 산화(山火)
유치환 생명의 서 일장(一章)
유치환 석굴암 대불(石窟庵大佛)
유치환 선(善)한 나무
유치환 세월
유치환 소리개
유치환 송가(頌歌)
유치환 송림에 와서
유치환 수(首)
유치환 수선화
유치환 슬픔은 불행이 아니다
유치환 시일(市日)
유치환 아지랑이
유치환 악대(樂隊)
유치환 어느 갈매기
유치환 어리석어
유치환 오월우(五月雨)

유치환 울릉도
유치환 원수(怨讐)
유치환 일모(日暮)에
유치환 일월(日月)
유치환 입추(立秋)
유치환 절명지(絶命地)
유치환 정적(靜寂)
유치환 조춘(早春)
유치환 주사(蛛絲)
유치환 지연(紙鳶)
유치환 창천(蒼天)에 취(醉)하다
유치환 초려(焦慮)
유치환 추양(秋陽)
유치환 춘신(春信)
유치환 출생기(出生記)
유치환 치자(梔子)꽃
유치환 칼을 갈라!
유치환 풍일(風日)
유치환 학(鶴)
유치환 한구(寒鳩)
유치환 할렐루야
유치환 행복(幸福)
유치환 향수(鄕愁)
유치환 호천(好天)
유치환 황혼(黃昏)에서
윤곤강 가는 가을
윤곤강 가을
윤곤강 갈망(渴望)
윤곤강 기다리는 봄
윤곤강 대야초(待夜抄)
윤곤강 대지(大地)
윤곤강 만가(輓歌) 2
윤곤강 면경(面鏡)
윤곤강 바다
윤곤강 별과 새에게
윤곤강 봄
윤곤강 분수(噴水)
윤곤강 붉은 뱀
윤곤강 비애(悲哀)
윤곤강 빙점(氷點)
윤곤강 빙하(氷河)
윤곤강 살어리
윤곤강 석문(石門)
윤곤강 슬픈 하늘
윤곤강 야경(夜景)
윤곤강 언덕
윤곤강 옛 생각
윤곤강 옛집
윤곤강 올빼미
윤곤강 외가집
윤곤강 자류
윤곤강 자화상(自畵像)
윤곤강 지렁이의 노래
윤곤강 찬 달밤에
윤곤강 폐원(廢園)
윤곤강 해바라기 1
윤곤강 향수(鄕愁) 1
윤곤강 황혼(黃昏)
윤동주 가슴 1
윤동주 가슴 2
윤동주 가을밤
윤동주 간(肝)
윤동주 간판(看板)없는 거리
윤동주 거리에서
윤동주 거짓부리
윤동주 굴뚝
윤동주 그 여자(女子)
윤동주 길
윤동주 꿈은 깨어지고
윤동주 눈
윤동주 눈 감고 간다
윤동주 눈오는 지도(地圖)
윤동주 달밤
윤동주 닭
윤동주 돌아와 보는 밤
윤동주 둘 다
윤동주 또 다른 고향(故鄕)
윤동주 또 태초(太初)의 아침
윤동주 무서운 시간(時間)
윤동주 바람이 불어
윤동주 반딧불
윤동주 버선본
윤동주 별 헤는 밤
윤동주 병아리
윤동주 병원(病院)
윤동주 봄
윤동주 비둘기
윤동주 비로봉(毘盧峰)
윤동주 비애(悲哀)
윤동주 사랑스런 추억(追憶)
윤동주 사랑의 전당(殿堂)
윤동주 산골물
윤동주 산림(山林)
윤동주 산울림
윤동주 삶과 죽음
윤동주 새로운 길

윤동주 새벽이 올 때까지
윤동주 서시
윤동주 소년(少年)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詩)
윤동주 슬픈 족속(族屬)
윤동주 십자가(十字架)
윤동주 아우의 인상화(印象畵)
윤동주 애기의 새벽
윤동주 양지(陽地)쪽
윤동주 위로(慰勞)
윤동주 유언(遺言)
윤동주 이적(異蹟)
윤동주 자화상(自畵像)
윤동주 장
윤동주 장미(薔薇) 병들어
윤동주 조개껍질
윤동주 조개껍질
윤동주 참새
윤동주 참회록(懺悔錄)
윤동주 창(窓)
윤동주 창공(蒼空)
윤동주 초 한 대
윤동주 코스모스
윤동주 태초(太初)의 아침
윤동주 트루게네프의 언덕
윤동주 팔복(八福)
윤동주 편지
윤동주 한난계(寒暖計)
윤동주 해바라기 얼굴
윤동주 햇비
윤동주 황혼(黃昏)
윤동주 황혼(黃昏)이 바다가 되어
윤동주 흐르는 거리
윤동주 흰 그림자
윤석산 가을 1
윤석산 겨울 연가(戀歌)
윤석산 고독한 풍경(風景)
윤석산 고장난 시계가 걸린 카페에서 산수국(山水菊)에 대한 추억(追憶)을 이야기하며
윤석산 그녀를 기다리며
윤석산 꿈 속의 칼
윤석산 너도밤나무 꽃이 필 때면
윤석산 논리(論理)의 출발
윤석산 도두리 노래
윤석산 드라이 훌라워
윤석산 마지막 기도(祈禱)
윤석산 말[言]의 오두막집에서
윤석산 멀구슬 타령
윤석산 묵시(默示)의 나라 백성이 되어
윤석산 물새
윤석산 물소리
윤석산 바다 속의 램프
윤석산 바람의 벽(壁): 벽 속의 산책(散策) 1
윤석산 밤바다
윤석산 밤파도
윤석산 백록담의 달
윤석산 비가(悲歌) 1
윤석산 비가(悲歌) 2
윤석산 시(詩) 또는 시가 아닌 사랑에 대한 단장 (斷章)
윤석산 아버지
윤석산 어떤 풍경(風景)
윤석산 온달전(溫達傳)
윤석산 온달전(溫達傳)
윤석산 온달전(溫達傳)
윤석산 용문(龍門)에 가서
윤석산 용왕굿
윤석산 처용가(處容歌)
윤석산 친구에게
윤석산 칸나꽃 뒤로 보이는 풍경(風景)을 위하여
윤석산 평일(平日)
윤석산 풀꽃
윤석산 풍경
윤석산 해피
윤재걸 갈망의 숲을 지나 우수의 마을을 지나
윤재걸 금지곡(禁止曲)을 위하여
윤재걸 낙골에 가서
윤재걸 무명(無名)의 혼(魂)들과 함께
윤재걸 묵(墨) 가는 일 2
윤재걸 묵(墨)가는 일
윤재걸 물것들과 한 세상
윤재걸 미완(未完)의 시(詩) 1
윤재걸 미완(未完)의 시(詩) 3
윤재걸 밤길
윤재걸 빌딩마다 꽃이름을 지어줘요
윤재걸 사랑은 가장 아름다운 내란입니다
윤재걸 선경식(宣炅植) 군에게
윤재걸 썩음의 상징처럼 여지없이 썩어버린……
윤재걸 오월 1

윤재걸 유월(六月)을 껴안으며
윤재걸 이 어둠을 위하여
윤재걸 파종이후(播種以後)
윤재걸 한국(韓國)땅에서 아직 서툴게 힘쓰는 말과 더불어
윤재걸 후여 후여 목청 갈아
윤후명 가객(歌客)
윤후명 고산가(高山歌) 1
윤후명 고산가(高山歌) 5
윤후명 곰취의 사랑
윤후명 금지편(金枝篇) 2
윤후명 눈보라
윤후명 마음 하나 등불 하나
윤후명 먼 길
윤후명 명궁(名弓)
윤후명 벼랑에서
윤후명 수자해좇꽃 피는 마을 1
윤후명 수자해좇꽃 피는 마을 3
윤후명 순간과 영원
윤후명 신산수(新山水)
윤후명 외지(外誌)
윤후명 울음소리
윤후명 절망
윤후명 짧은 넋
윤후명 투병기
윤후명 폴무
윤후명 홀로 등불을 상처 위에 켜다
윤후명 황음장(荒淫章) 상(上)
이가림 2만5천 볼트의 사랑
이가림 가물치
이가림 게들
이가림 겨울 논
이가림 겨울의 불꽃
이가림 고부에 머무르며
이가림 눈
이가림 닫힌 방에서 나는 움직인다
이가림 도깨비불
이가림 돌
이가림 돌의 언어(言語)
이가림 뒷개에서
이가림 땅뺏기
이가림 또 하나의 돌
이가림 마라도(馬羅島)를 향하여
이가림 모닥불
이가림 목마름
이가림 물수제비 뜨기
이가림 바지락 줍는 사람들
이가림 반도(半島)의 눈물
이가림 뱀에게
이가림 봄눈
이가림 비용의 노래
이가림 빙하기(氷河期)
이가림 새우잠
이가림 석류
이가림 솔바람 소리 속에는
이가림 순간의 거울 1
이가림 순간의 거울 2
이가림 야경군 1
이가림 야경군 3
이가림 어떤 안부(安否)
이가림 오랑캐꽃 1
이가림 오랑캐꽃 10
이가림 오랑캐꽃 2
이가림 오랑캐꽃 3
이가림 오랑캐꽃 4
이가림 오랑캐꽃 5
이가림 오랑캐꽃 6
이가림 오랑캐꽃 7
이가림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이가림 이끼 낀 고향에 돌아오다
이가림 이슬의 꿈
이가림 정읍기행(井邑紀行)
이가림 찌르레기의 노래 3
이가림 풀
이가림 프루스트의 편지
이가림 피리타령
이가림 하나가 되기 위한 빗방울들의 운동
이가림 하늘을 걷는 사람
이가림 황토(黃土)에 내리는 비
이가림 황토길 가면
이건청 개펄 1
이건청 곰팡이
이건청 당신들이 잠든 후
이건청 도둑고양이가 사는 마을
이건청 도둑에게
이건청 말
이건청 망상(望祥)에 와서
이건청 망초꽃 하나
이건청 모피(毛皮)에 대하여
이건청 목마른 자는 잠들고
이건청 목선(木船)들의 뱃머리가
이건청 무너지는 사내
이건청 보우트 피플
이건청 부엉이를 잡은 적이 있었다
이건청 손금

이건청 심(沈)봉사전(傳) 1
이건청 심(沈)봉사전(傳) 2
이건청 심(沈)봉사전(傳) 7
이건청 심(沈)봉사전(傳) 8
이건청 우리들의 역사시간
이건청 우리들의 저쪽
이건청 인텔리겐차 5
이건청 인텔리겐차 7
이건청 일각수(一角獸)가 있는 풍경(風景)
이건청 장수하늘소를 찾아서
이건청 저녁 무렵에
이건청 저무는 날이 다가와
이건청 정형외과병동(整形外科病棟)에서
이건청 좁은 꿈
이건청 좁은 꿈
이건청 축견(畜犬)
이건청 코뿔소를 위하여 1
이건청 코뿔소를 위하여 2
이건청 폐항(廢港)의 밤
이건청 피라미드 무너뜨리기
이건청 하이에나
이건청 하이에나
이건청 하이에나
이건청 하이에나
이건청 하이에나
이건청 황야의 이리 1
이건청 황야의 이리 2
이건청 황야의 이리 5
이건청 황야의 이리 8
이건청 황인종(黃人種)의 개 1
이건청 황인종(黃人種)의 개 13
이건청 황인종(黃人種)의 개 7
이건청 황인종의 개 9
이광수 강남(江南)의 봄
이광수 경원선(京元線) 차중(車中)에서
이광수 고운 님
이광수 궁예(弓裔) 왕릉(王陵)
이광수 나는
이광수 날 찾으시는 이에게
이광수 남운(南雲)께
이광수 내 죄
이광수 노래
이광수 단장을 버리나이다
이광수 들물에
이광수 만물초(萬物草)
이광수 만폭동(萬瀑洞)에서
이광수 멧새
이광수 명경대(明鏡臺)
이광수 모르는 이의 편지
이광수 무소구(無所求)
이광수 무제(無題)
이광수 반딧블
이광수 발자욱
이광수 밤차
이광수 버들강아지
이광수 벗님
이광수 병든 몸
이광수 보광암(普光庵)
이광수 뵈오러 갔던 일
이광수 불쌍한 아이
이광수 붓 한 자루
이광수 비들기
이광수 빛
이광수 사비수
이광수 생(生)과 무상(無常)
이광수 석비(石碑)
이광수 송춘(頌春) 1
이광수 아내여
이광수 아버지 돌아가신 날
이광수 애인(愛人)
이광수 약
이광수 어머니
이광수 은거(隱居)
이광수 임 여기 계시다네
이광수 입산(入山)하는 벗을 보내고서
이광수 잊은 뜻
이광수 장자를 읽고
이광수 처음 뵈온 임
이광수 초라한 나
이광수 폭풍우(暴風雨), 대뢰전(大雷電)
이광수 한 그믐 2
이광수 할미꽃
이광수 해운대(海雲臺)에서
이근배 갈매기의 울음 곁으로
이근배 개화기
이근배 겨울의 들은 비어 있다
이근배 겨울의 시력(視力)
이근배 겨울풀
이근배 겨울행(行)
이근배 꽃의 수작(酬酌)
이근배 꽃집 행(行)
이근배 노래여 노래여

이근배 들
이근배 문(門)
이근배 문양집(文様集)
이근배 바다의 새
이근배 서가(序歌)
이근배 서해안(西海岸)
이근배 수사(修辭)
이근배 우기(雨期)
이근배 음악
이근배 풀밭에서
이근배 해서(楷書)
이근배 환(幻)
이기철 거기
이기철 나무의 옷
이기철 내 사랑은 해 지는 영토에
이기철 다시 그 날이 오면
이기철 마흔 살의 동화
이기철 멱라의 길 1
이기철 산에서 배우다
이기철 생가(生家) 1
이기철 서(西)쪽을 가며
이기철 서정시를 쓰는 남자
이기철 서풍(西風)에 기대어 1
이기철 서풍(西風)에 기대어 2
이기철 소백산 기슭에서
이기철 슬픔에 대하여
이기철 시인
이기철 옛날의 금잔디
이기철 오랑캐꽃
이기철 오월(五月)에 들른 고향(故鄕)
이기철 월동엽서
이기철 이른봄
이기철 이향(離鄕)
이기철 저녁놀의 성찬
이기철 정신의 열대
이기철 좋은 날이 오면
이기철 지상(地上)에서 부르고 싶은 노래 1
이기철 지상(地上)에서 부르고 싶은 노래 2
이기철 청산행(靑山行)
이기철 초록(草綠)을 보며
이기철 하산(下山)
이기철 핵겨울
이기철 햇살이 왜 슬퍼지는가를
이기철 화전(火田)
이동순 개밥풀
이동순 귀촌(歸村)
이동순 금강봄맞이 꽃
이동순 낫
이동순 닭집을 지나며
이동순 대춘부(待春賦)
이동순 두엄더미
이동순 따비
이동순 또아리
이동순 마왕(魔王)의 잠 1
이동순 마왕(魔王)의 잠 14
이동순 마왕(魔王)의 잠 2
이동순 마왕(魔王)의 잠 3
이동순 마왕(魔王)의 잠 4
이동순 마왕(魔王)의 잠 5
이동순 마왕(魔王)의 잠 6
이동순 무명초(無名草)
이동순 물의 노래
이동순 백마(白馬)의 혈통(血統)
이동순 새롭지 않은 새해의 시 1
이동순 서시(序詩)
이동순 수심가(愁心歌)
이동순 아주까리
이동순 어항 1
이동순 연탄갈기
이동순 올챙이
이동순 잔설(殘雪) 1
이동순 종다래끼
이동순 주검 옆에서
이동순 청이네 집
이동순 칠석날 밤
이동주 강강술래
이동주 기우제(祈雨祭)
이동주 꽃
이동주 대부(代父)의 가훈(家訓)
이동주 대흥사(大興寺)
이동주 산조(散調) 1
이동주 산조(散調) 2
이동주 산조(散調) 4
이동주 산조여록(散調餘錄) Ⅰ
이동주 산조여록(散調餘錄) Ⅲ
이동주 산조여록(散調餘錄) Ⅲ
이동주 산조여록(散調餘錄) Ⅲ
이동주 산조여록(散調餘錄) Ⅵ
이동주 산조여록(散調餘錄) Ⅵ
이동주 산조여록(散調餘錄) Ⅵ
이동주 새댁
이동주 서귀포(西歸浦)
이동주 오월(五月)의 시(詩)
이동주 우주엽신(宇宙葉信)

이동주 한(恨)
이동주 해녀(海女)
이동주 혼야(婚夜)
이명자 겨울 회상(回想)
이명자 겨울나무의 노래
이명자 골수가 빠진 나의 잠
이명자 구경꾼의 추위
이명자 꽃
이명자 두 개의 방(房)을 위한 기도
이명자 두문불출(杜門不出)
이명자 목공(木工)
이명자 별신(別身)
이명자 봄을 넘기는 여섯 개의 개성(個性) 1
이명자 불망제(不忘祭): 별제(別祭) 3
이명자 빈 풀밭과 방(房)의 관련
이명자 살풀이
이명자 신반야경(新般若經)
이명자 아이들의 덧니
이명자 오늘밤의 비
이명자 원광(圓光)
이명자 찔레와 손
이명자 창(窓)과 가을과 피아노 스케치
이명자 표범 이빨
이병기
이병기 갈보리
이병기 고곰[♣疾]
이병기 고서(古書)
이병기 고향(故鄕)으로 돌아가자
이병기 공손수(公孫樹)
이병기 광릉(光陵)
이병기 괴석(怪石)
이병기 구름
이병기 그리운 그날 1
이병기 금강(錦江)
이병기 꽃
이병기 낙엽(落葉)
이병기 난초 1
이병기 난초 2
이병기 난초 3
이병기 난초 4
이병기 냉이꽃
이병기 농촌화첩(農村畵帖) 1
이병기 농촌화첩(農村畵帖) 2
이병기 눈 2
이병기 도중점경(途中點景)
이병기 매화
이병기 바람
이병기 박연폭포
이병기 백묵(白墨)
이병기 별
이병기 별
이병기 보리
이병기 봄 2
이병기 비
이병기 비 1
이병기 비 2
이병기 비 3
이병기 서향(瑞香)
이병기 수선화(山仙花)
이병기 시마(詩魔)
이병기 애도(哀悼)
이병기 야시(夜市)
이병기 오동꽃
이병기 외로운 이 마음
이병기 우뢰
이병기 우리 님
이병기 저무는 가을
이병기 정원(庭園)의 가을
이병기 젖
이병기 창(窓)
이병기 청매(靑梅) 3
이병기 파랑새
이병기 파초(芭蕉)
이병기 풀벌레
이병기 함박꽃
이병기 향(香)의 가을
이상 가구(街衢)의추위
이상 가외가전(街外街傳)
이상 가정(家庭)
이상 객혈(喀血)의 아침
이상 거울
이상 골편(骨片)에관(關)한무제(無題)
이상 공복(空腹)
이상 광녀(狂女)의 고백(告白)
이상 금제(禁制)
이상 꽃나무
이상 내과(內科)
이상 내부(內部)
이상 매춘(買春)
이상 명경(明鏡)
이상 무제(無題)
이상 무제(無題)
이상 문벌(門閥)

이상 백주(白晝)
이상 보통기념(普通記念)
이상 생애(生涯)
이상 선(線)에 관(關)한 각서(覺書) 1
이상 선(線)에 관(關)한 각서(覺書) 4
이상 선(線)에 관(關)한 각서(覺書) 5
이상 소영위제(素榮爲題)
이상 수염
이상 습작(習作)쇼오윈도우수점(數點)
이상 시제구호(詩第九號) 총구(銃口)
이상 시제삼호(詩第三號)
이상 시제십사호(詩第十四號)
이상 시제십삼호(詩第十三號)
이상 시제십오호(詩第十五號)
이상 시제십이호(詩第十二號)
이상 시제십일호(詩第十一號)
이상 시제십호(詩第十號) 나비
이상 시제육호(詩第六號)
이상 시제이호(詩第二號)
이상 시제일호(詩第一號)
이상 시제칠호(詩第七號)
이상 시제팔호(詩第八號) 해부(解剖)
이상 신경질적(神經質的)으로비만(肥滿)한삼각형(三角形)
이상 아침
이상 아침
이상 얼굴
이상 역단(易斷)
이상 운동(運動)
이상 위치(位置)
이상 육친(肉親)
이상 육친(肉親)의 장(章)
이상 이런 시(詩)
이상 이상(異常)한 가역반응(可逆反應)
이상 이인(二人)……1……
이상 이인(二人)……2……
이상 일구삼삼(一九三三), 육(六), 일(一)
이상 자상(自像)
이상 작품(作品) 제3번
이상 절벽(絶壁)
이상 정식(正式)
이상 지비(紙碑)
이상 청령(♣♣)
이상 최후(最後)
이상 추구(追求)
이상 침몰(沈歿)
이상 파첩(破帖)
이상 파편(破片)의 경치(景致)——
이상 한개(個)의 밤
이상 행로(行路)
이상 화로(火爐)
이상 회한(悔恨)의 장(章)
이상화 To——
이상화 가을의 풍경
이상화 가장 비통한 기욕(祈慾)
이상화 거러지
이상화 겨울 마음
이상화 곡자사(哭子詞)
이상화 구루마꾼
이상화 그날이 그립다
이상화 극단
이상화 금강송가(金剛頌歌)
이상화 기미년
이상화 나는 해를 먹다
이상화 나의 침실로
이상화 농촌의 집
이상화 단조(單調)
이상화 달밤—도회(都會)
이상화 달아
이상화 대구 행진곡
이상화 독백
이상화 동경에서
이상화 마음의 꽃
이상화 말세의 희탄
이상화 몽환병
이상화 무제
이상화 바다의 노래
이상화 반딧불
이상화 방문 거절
이상화 병적 계절
이상화 본능의 노래
이상화 비 갠 아침
이상화 비를 다고
이상화 비음(緋音)
이상화 빈촌의 밤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서러운 해조(諧調)
이상화 선구자의 노래

이상화 시인에게
이상화 쓰러져가는 미술관
이상화 어머니의 웃음
이상화 역천(逆天)
이상화 엿장수
이상화 예지(叡智)
이상화 오늘의 노래
이상화 원시적 읍울(♣鬱)
이상화 이 해를 보내는 노래
이상화 이별을 하느니
이상화 이중의 사망
이상화 저무는 놀 안에서
이상화 조선병(朝鮮病)
이상화 조소
이상화 지구 흑점의 노래
이상화 지반(池畔) 정경
이상화 청년
이상화 청량 세계
이상화 초혼
이상화 통곡
이상화 파란 비
이상화 폭풍우를 기다리는 마음
이상화 허무교도의 찬송가
이생진 1 바다를 본다
이생진 10 자살
이생진 11 절망
이생진 12 술에 취한 바다
이생진 13 바다의 성욕
이생진 14 증거
이생진 15 색맹
이생진 16 여유
이생진 2 설교하는 바다
이생진 3 끊을 수 없다
이생진 4 모두 버려라
이생진 5 바다의 시녀
이생진 6 산
이생진 7 바다의 노예
이생진 8 만년필
이생진 9 생사
이생진 기다림
이생진 동행자
이생진 부동자세
이생진 욕심
이성교 가을 운동회
이성교 가을의 지혜
이성교 겨울바다 2
이성교 고향 사람들
이성교 노을
이성교 눈온 날 저녁
이성교 대관령(大關嶺)을 넘으며
이성교 동짓달
이성교 동해선(東海線)
이성교 망부석(望夫石)
이성교 바다
이성교 박월리(博月里)
이성교 산문(山門)
이성교 산화(山火)
이성교 어머니 얼굴 1
이성교 어촌(漁村) 1
이성교 어촌(漁村) 2
이성교 여름집
이성교 우수절(雨水節)
이성교 윤회(輪廻)
이성교 체념(諦念)
이성교 춘궁기(春窮期) 1
이성교 춘궁기(春窮期) 2
이성교 푸르름 속에
이성교 하회(河回)
이성교 해바라기 피는 마을
이성교 해안선(海岸線) 1
이성교 해안선(海岸線) 2
이성복 1959년
이성복 가족 풍경(家族風景)
이성복 강
이성복 강 1
이성복 강가에서 1
이성복 강변 바닥에 돋는 풀
이성복 구화(口話)
이성복 그 여름의 끝
이성복 그대 가까이 1
이성복 금촌 가는 길
이성복 길 1
이성복 꽃 피는 시절 1
이성복 꽃 피는 아버지
이성복 나무 1
이성복 남해 금산
이성복 너는 네가 무엇을 흔드는지 모르고
이성복 높은 나무 흰 꽃들은 등(燈)을 세우고 1
이성복 높은 나무 흰 꽃들은 등(燈)을 세우고 12
이성복 높은 나무 흰 꽃들은 등(燈)을 세우고 2
이성복 높은 나무 흰 꽃들은 등(燈)을 세우고 24

이성복 높은 나무 흰 꽃들은 등(燈)을 세우고 32
이성복 높이 치솟은 소나무 숲이
이성복 느낌
이성복 다시, 정든 유곽에서
이성복 ·당신은 짐승, 별,
이성복 또 비가 오면
이성복 라라를 위하여
이성복 만남
이성복 모래내 · 1978년
이성복 문신
이성복 밥에 대하여
이성복 벽제
이성복 봄 밤
이성복 분지 일기
이성복 비 1
이성복 비단길 1
이성복 비단길 2
이성복 사랑일기(日記)
이성복 산길 1
이성복 산길 2
이성복 새벽 세시의 나무
이성복 서시(序詩)
이성복 세월에 대하여
이성복 세월의 집 앞에서
이성복 숨길 수 없는 노래 1
이성복 숨길 수 없는 노래 2
이성복 숲 1
이성복 아들에게
이성복 아주 흐린 날의 기억
이성복 애가 1
이성복 어떤 싸움의 기록(記錄)
이성복 어머니 1
이성복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성복 여름산
이성복 역전(易傳) 1
이성복 요단을 건너는 저 가을빛
이성복 이동(移動)
이성복 이별 1
이성복 이제는 다만 때 아닌, 때 늦은 사랑에 관하여
이성복 정든 유곽에서
이성복 정물
이성복 제대병
이성복 죽음
이성복 천국의 입구
이성복 천사의 눈
이성복 초록 가지들은 인광(燐光)의 불을 켜 들고
이성복 출애급(出埃及)
이성복 치욕에 대하여
이성복 치욕의 끝
이성복 편지
이성복 편지 1
이성복 호랑가시나무의 기억
이성부 공동산(共同山)
이성부 굿을 보면서 1
이성부 그리운 것들은 모두 먼데서
이성부 깨끗한 나라
이성부 난지도(蘭芝島)
이성부 내 살결에
이성부 노래조(調)
이성부 누가 그대를 이토록 만들었는가
이성부 누가 살고 있는지
이성부 누룩
이성부 눈 뜬 밤
이성부 다 자란 어둠을 보며
이성부 말씀을 찾아서
이성부 매월당(梅月堂)
이성부 무등산(無等山)
이성부 무서움에 떠는 가슴이
이성부 믿을 수 없는 바다
이성부 바다
이성부 밤
이성부 백제(百濟) 1
이성부 백제(百濟) 2
이성부 백제(百濟) 3
이성부 백제행(百濟行)
이성부 벼
이성부 봄
이성부 북상(北上)길
이성부 새벽길
이성부 승리(勝利) 1
이성부 시(詩)의 어리석음
이성부 신생(新生)
이성부 아스팔트
이성부 어머니
이성부 오두막
이성부 오한(惡寒)
이성부 우기(雨期)
이성부 우리들의 양식(糧食)
이성부 유배시집(流配詩集) 1
이성부 유배시집(流配詩集) 2
이성부 유배시집(流配詩集) 3
이성부 유배시집(流配詩集) 4

이성부 유배시집(流配詩集) 5
이성부 이농(離農)
이성부 익는 술
이성부 저 바위도 입을 열어
이성부 전라도 1
이성부 전라도 2
이성부 조(曺)서방
이성부 철거민의 꿈
이성부 토우(土偶)
이성부 평야(平野)
이성부 풍경
이성부 허수아비
이성선 구도(求道)
이성선 깨끗한 영혼
이성선 나무
이성선 나무 안의 절
이성선 나의 집 1
이성선 나의 집 2
이성선 논두렁에 서서
이성선 논물에 비친 얼굴
이성선 달무리
이성선 달을 먹은 소
이성선 두려움
이성선 떨어진 꽃잎
이성선 무명(無明)
이성선 발자국
이성선 별 아래 자는 시인
이성선 별을 보며
이성선 붓꽃
이성선 빈 산이 젖고 있다.
이성선 뿌리 없는 램프 하나
이성선 산다(山茶)
이성선 산적(山賊) 1
이성선 신의 발소리
이성선 외로운 사랑
이성선 우물
이성선 이변(異變)
이성선 입동 이후
이성선 전율
이성선 절망
이성선 절정에서
이성선 절정의 노래 1
이성선 해당화(海棠花)
이세룡 ET
이세룡 나의 고향은 푸르러라
이세룡 나의 라임오렌지나무 1
이세룡 나의 청춘 마리안느
이세룡 냄비우동
이세룡 빵
이세룡 산체스네 아이들
이세룡 성냥
이세룡 세계의 포탄(砲彈)이 모두 별이 된다면
이세룡 시민 케인
이세룡 언체인드 멜로디
이세룡 영등포 1
이세룡 오리온 좌를 보며
이세룡 전쟁과 평화
이세룡 지구인
이세룡 채플린 I
이세룡 채플린 II
이세룡 침묵
이세룡 해방 후사(後史)
이세룡 행복
이수익 가을산(山) 1
이수익 가을산(山) 2
이수익 갈대
이수익 강변(江邊)에서
이수익 거미
이수익 겨울 판화(版畵)
이수익 결빙(結氷)의 아버지
이수익 고목(古木)
이수익 고별(告別)
이수익 관계(關係)
이수익 관능
이수익 구겨진 종이는 슬프다
이수익 그리고 너를 위하여
이수익 달빛 체질
이수익 라디오
이수익 말
이수익 목소리 4
이수익 목소리 7
이수익 바다
이수익 바다에 내리는 눈
이수익 방울소리
이수익 벌
이수익 봄날에 1
이수익 봄날에 2
이수익 봄에 앓는 병(病)
이수익 비천(飛天)
이수익 사막 1
이수익 새
이수익 순결(純潔)
이수익 슬픔에 대하여
이수익 안개꽃
이수익 야간열차(夜間列車)

이수익 우기(雨期) 1
이수익 우뢰
이수익 우물긷기
이수익 우울한 상송
이수익 유등제(流燈祭)
이수익 이제는
이수익 인디안 마을
이수익 일기(日記)쓰기 1
이수익 장작패기
이수익 주점(酒店)에서
이수익 지뢰(地雷)밭
이수익 차라리 눈부신 슬픔
이수익 천지창조(天地創造)
이수익 철새 풍경(風景)
이수익 칠석(七夕)
이수익 편지(便紙)
이수익 호수(湖水)는 조용히 있고 싶어한다
이수익 활
이수익 회고(懷古)
이승훈 A와 나
이승훈 H에서 I까지
이승훈 가을
이승훈 겨울 저녁
이승훈 결국 시는 너이다
이승훈 고함
이승훈 공포
이승훈 그의 초상
이승훈 그의 초상
이승훈 나 없는 나의 생
이승훈 나는 뼈
이승훈 나의 늙은 여름
이승훈 낮
이승훈 내가 낳는 밤
이승훈 너
이승훈 너를 본 순간
이승훈 너의 이마
이승훈 다시 3년
이승훈 다시 흙으로
이승훈 닭
이승훈 당신
이승훈 당신을 위해
이승훈 당신의 방
이승훈 도주의 풍경
이승훈 또 가을이다
이승훈 망할 놈의 시
이승훈 무수한 너
이승훈 비명
이승훈 빨래
이승훈 사는 기쁨
이승훈 사물(事物)A
이승훈 새로운 눈물
이승훈 세계라는 망상
이승훈 술 깨면 고통
이승훈 아무도 없는 땅
이승훈 악몽
이승훈 어휘
이승훈 엉터리 시
이승훈 여행
이승훈 왕십리
이승훈 우리들의 밤
이승훈 이 방이
이승훈 이곳에서의 삶
이승훈 자본주의의 밤
이승훈 절망이 기교를 낳는다
이승훈 절망이 장난을 낳는다
이승훈 피에타 1
이승훈 피에타 2
이승훈 흐린 밤 볼펜으로
이승훈 흔들리는 커튼을
이승훈 희망
이시영 가을이 와도
이시영 고개
이시영 그리움
이시영 기러기떼
이시영 꽃
이시영 나무에게
이시영 나의 노래
이시영 내가 언제
이시영 내관(內觀)
이시영 내소사(來蘇寺)
이시영 노래
이시영 눈
이시영 눈[眼]
이시영 눈이 내린다
이시영 늙은 이모전(傳)
이시영 두 사람
이시영 마음에게
이시영 마음의 고향
이시영 마음의 고향 2
이시영 만월(滿月)
이시영 모닥불
이시영 무덤에 관하여
이시영 물길
이시영 반짝이는 것은 무엇인가
이시영 벌판으로

이시영　봄 송신(送信)
이시영　불빛을 찾아
이시영　사시(斜視)에 대하여
이시영　새
이시영　새
이시영　새벽까지
이시영　서시(序詩)
이시영　수평선
이시영　숲에 가면
이시영　시(詩)
이시영　시인 나귀
이시영　신록
이시영　신새벽
이시영　여름 속에서
이시영　예감
이시영　인동(忍冬)
이시영　저물녘
이시영　정님이
이시영　조금 후
이시영　지평선에서
이시영　창(窓)
이시영　태양빛
이시영　편지
이시영　한로(寒露)
이시영　형제들을 위하여
이시영　호명(呼名)
이시영　후꾸도
이영도　고가(古家)
이영도　고란사(皐蘭寺)
이영도　낙화(落花)
이영도　낙화암(落花巖)
이영도　노을
이영도　눈길에서
이영도　단풍(丹楓) 앞에서
이영도　달무리
이영도　머언 생각
이영도　모란
이영도　무제(無題)
이영도　봄 I
이영도　새벽 달
이영도　순행(巡行)
이영도　신록(新綠)
이영도　유성(流星)
이영도　인경
이영도　제야(除夜)
이영도　추야(秋夜)
이영도　춘소(春宵)
이영도　피난(避難) 길에서
이영도　향수(鄕愁)
이영도　화관(花冠)
이영도　환일(患日)
이영춘　가지 치기
이영춘　고리
이영춘　길
이영춘　나사
이영춘　네 살던 날의 흔적 1
이영춘　네 살던 날의 흔적 2
이영춘　대지의 노래 1
이영춘　대지의 노래 2
이영춘　마지막 편지
이영춘　말의 춤
이영춘　바람과 들풀
이영춘　본질
이영춘　사랑과 접시
이영춘　세월
이영춘　연꽃을 보며
이영춘　이슬을 먹을 수 있다면
이영춘　작은 별 하나
이영춘　존재(存在) 1
이영춘　존재(存在)에 관한 프롤로그
이영춘　차이
이영춘　혼자 쓰는 편지 1
이용악　강가
이용악　검은 구름이 모여든다
이용악　고독
이용악　구슬
이용악　국경
이용악　그래도 남으로만 달린다
이용악　금붕어
이용악　길
이용악　길손의 봄
이용악　꽃가루 속에
이용악　나를 만나거든
이용악　낡은 집
이용악　너는 피를 토하는 슬픈 동무였다
이용악　노래 끝나면
이용악　노한 눈들
이용악　눈 내리는 거리에서
이용악　다리 위에서
이용악　달 있는 제사
이용악　도망하는 밤
이용악　동면(冬眠)하는 곤충의 노래
이용악　두더지
이용악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
이용악　두메산골 1

이용악 두메산골 2
이용악 두메산골 3
이용악 뒷길로 가자
이용악 등불이 보고 싶다
이용악 등을 동그리고
이용악 등잔 밑
이용악 막차 갈 때마다
이용악 만추(晩秋)
이용악 무자리와 꽃
이용악 밤
이용악 밤이면 밤마다
이용악 버드나무
이용악 벌판을 가는 것
이용악 벨로우니카에게
이용악 벽을 향하면
이용악 병(病)
이용악 북쪽
이용악 비늘 하나
이용악 새벽 동해안
이용악 슬픈 사람들끼리
이용악 시골 사람의 노래
이용악 쌍두마차
이용악 아이야 돌다리 위로 가자
이용악 앵무새
이용악 어둠에 젖어
이용악 연못
이용악 열두 개의 층층계
이용악 영(嶺)
이용악 오늘도 이 길을
이용악 오랑캐꽃
이용악 오월에의 노래
이용악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이용악 월계는 피어
이용악 임금원(林檎園)의 오후
이용악 장마 개인 날
이용악 전라도 가시내
이용악 제비 같은 소녀야
이용악 죽음
이용악 집
이용악 천치(天痴)의 강(江)아
이용악 포도원
이용악 폭풍
이용악 푸른 한나절
이용악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이용악 하나씩의 별
이용악 항구
이용악 해가 솟으면
이용악 흙
이운용 갈자리여, 나의 횟배여
이운용 건초 밟는 소리
이운용 고들빼기
이운용 그의 아픔이 내 시일 때
이운용 깨뜨려지지 않는 아픔
이운용 노동
이운용 무우
이운용 뿌리
이운용 삼봉이 외삼촌
이운용 성묘길에서
이운용 쇠전의 애가(哀歌)
이운용 영산강 뱀장어
이운용 이 가슴 북이 되어
이운용 이 곳에 터를 닦고
이운용 이런 배짱
이운용 잠든 됫박
이운용 죽어가는 도시
이운용 청맹과니
이운용 추석을 앞두고
이운용 흉가에 와서
이원섭 귀뚜라미
이원섭 귀뚜라미
이원섭 그 날 1
이원섭 그 날 2
이원섭 기산부(箕山賦)
이원섭 나팔 소리 하늘에 있을 때
이원섭 내 고향
이원섭 내가 가는 길
이원섭 목욕(沐浴)
이원섭 무화과(無花果) 그늘
이원섭 불
이원섭 비명(碑銘)
이원섭 비밀(秘密)
이원섭 에밀레
이원섭 외롬
이원섭 족보(族譜)
이원섭 종달이
이원섭 죽림도(竹林圖)
이원섭 진실로 진실로
이원섭 진주(眞珠)
이원섭 청포도(靑葡萄)
이원섭 향미사(響尾蛇)
이원섭 흰 구름을 주리라
이유경 12월
이유경 강물과 바닷물
이유경 겨울 산행(山行)
이유경 겨울 숲 이야기
이유경 겨울 숲에 선 나무의 전언(傳

言)
이유경 겨울 풀밭
이유경 과실(果實)
이유경 구파발 시(詩) 1
이유경 구파발 시(詩) 13
이유경 구파발 시(詩) 2
이유경 구파발 시(詩) 3
이유경 구파발 시(詩) 4
이유경 기억(記憶)
이유경 늦가을에
이유경 더욱 멀리 가라
이유경 동진포(東津浦)에서
이유경 무덤 속에서
이유경 밀알들의 영가(靈歌)
이유경 불탄 자리
이유경 비를 맞으며
이유경 사도(使徒)들
이유경 소식(消息)
이유경 수산(守山) 누나
이유경 씨앗 속에
이유경 아버지의 흙 2
이유경 안면도(安眠島)에 가서도
이유경 우리의 탄식(歎息)
이유경 지푸라기 노래
이유경 초락도(草落島) 1
이유경 초락도(草落島) 2
이유경 초락도(草落島) 4
이유경 초락도(草落島) 5
이유경 초락도(草落島) 7
이육사 강(江) 건너간 노래
이육사 광야
이육사 광인(狂人)의 태양
이육사 교목(喬木)
이육사 근하석정선생육순(謹賀石庭先生六旬)
이육사 꽃
이육사 나의 뮤―즈
이육사 남한산성
이육사 노정기(路程記)
이육사 독백
이육사 만등동산(晩登東山)
이육사 말
이육사 바다의 마음
이육사 반묘(斑猫)
이육사 서울
이육사 서풍(西風)
이육사 소공원(小公園)
이육사 소년에게
이육사 실제(失題)
이육사 아미(蛾眉)
이육사 아편(鴉片)
이육사 연보(年譜)
이육사 일식(日食)
이육사 자야곡(子夜曲)
이육사 절정(絶頂)
이육사 주난홍여(酒暖興餘)
이육사 청포도
이육사 초가
이육사 춘수 삼제(春愁 三題)
이육사 파초
이육사 편복(♣♣)
이육사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
이육사 해조사(海潮詞)
이육사 해후
이육사 호수
이육사 황혼
이윤택 강철흑인
이윤택 개꿈
이윤택 깽판
이윤택 나는 차라리 황야이고 싶다
이윤택 막연한 기대와 몽상에 대한 반역 1
이윤택 막연한 기대와 몽상에 대한 반역 2
이윤택 막연한 기대와 몽상에 대한 반역 3
이윤택 맑은 음(音)에 대한 기억
이윤택 밥의 사랑
이윤택 봄소풍 1
이윤택 살아 있다, 난
이윤택 상황극
이윤택 수자의 편지
이윤택 시간(時間)
이윤택 시민(市民)
이윤택 우리들의 학사(學舍) 위에 세울 새로운 도시
이윤택 인사동 부루스
이윤택 제 3세계 시민을 위한 독서법 안내
이윤택 천체수업(天體修業)
이윤택 춤꾼 이야기
이윤택 친구의 시신(屍身) 옆에서 불 밝히고
이은상 <백결선생전(百結先生傳)>을 읽고
이은상 가고파

이은상 가윗날에
이은상 개나리
이은상 거울 앞에서
이은상 계월송(溪月頌)
이은상 고향 생각
이은상 곡성첩(哭城堞)
이은상 구정(球庭)
이은상 귀해심(歸孩心)
이은상 그대 대답하시오
이은상 그리움
이은상 금강(金剛)에 살으리랏다
이은상 금강(金剛)을 바라보며
이은상 금강귀로(金剛歸路)
이은상 기봉(起峰) 위에 서서
이은상 꿈 깬 뒤
이은상 노돌[鷺梁津]
이은상 눈보라 치는 밤에
이은상 답우(答友)
이은상 맹서(盟誓)
이은상 박연(朴淵)
이은상 밤비소리
이은상 봄처녀
이은상 비로봉(毘盧峰) 기일(其一)
이은상 사랑
이은상 산(山) 위에 올라
이은상 산전(山田)을 지나며
이은상 삼개에서
이은상 삼태동(三台洞)을 지나며
이은상 선죽교(善竹橋)
이은상 설야음(雪夜吟)
이은상 성불사(成佛寺)의 밤
이은상 소경 되어지이다
이은상 어포(漁浦) 달 밝은 밤에
이은상 옛 강(江)물 찾아와
이은상 옛 동산에 올라
이은상 오수(午睡) 아닌 오수(午睡)
이은상 옥류동(玉流洞)
이은상 이 마음
이은상 인생(人生)
이은상 임진강(臨津江)을 지나며
이은상 자하동(紫霞洞)
이은상 장안사(長安寺)
이은상 절름발이
이은상 진달래 1
이은상 태자궁지(太子宮址)
이은상 포은구거(圃隱舊居)
이은상 할미꽃
이은상 화원(花園)
이인해 나무찍기
이인해 남몰래 흐르는 눈물
이인해 내 비록 작은 몸일지라도
이인해 도봉(道峰)을 바라보며
이인해 돌멩이 I
이인해 등(藤)나무
이인해 물의 정신(精神)
이인해 병(病) I
이인해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修業時代)
이인해 사랑법(法) I
이인해 사랑법(法) II
이인해 소리의 빛
이인해 순례(巡禮)의 서(書)
이인해 전주(全州)
이인해 죽음을 위하여
이인해 층계(層階)에서
이인해 풀잎 하나를 보고
이인해 해부교실(解剖敎室) I
이인해 해부교실(解剖敎室) II
이인해 향일성(向日性)에 대하여
이장희 가을밤
이장희 겨울밤
이장희 겨울의 모경(暮景)
이장희 고양이의 꿈
이장희 귀뚜라미
이장희 눈
이장희 눈 나리는 날
이장희 눈은 내리네
이장희 달밤 모래 위에서
이장희 동경(憧憬)
이장희 들에서
이장희 무대(舞臺)
이장희 방랑(放浪)의 혼(魂)
이장희 벌레 우는 소리
이장희 봄은 고양이로다
이장희 봄철의 바다
이장희 봄하늘에 눈물이 돌다
이장희 봉선화
이장희 불놀이
이장희 비오는 날
이장희 비인 집
이장희 사상(沙上)
이장희 새 한 마리
이장희 석양구(夕陽丘)
이장희 실바람 지나간 뒤
이장희 쓸쓸한 시절
이장희 어느 밤

이장희 여름밤
이장희 여름밤 공원(公園)에서
이장희 연
이장희 연
이장희 저녁
이장희 저녁
이장희 적은 노래
이장희 청천(靑天)의 유방(乳房)
이장희 하일소경(夏日小景)
이제하 노방(路傍)에서
이제하 눈 내리는 강(江)가에서
이제하 다시 바다
이제하 단풍(丹楓)
이제하 데쌩
이제하 바다
이제하 밤의 추억초(追憶抄)
이제하 방(房) 2
이제하 방(房) 3
이제하 비
이제하 사랑에 대하여
이제하 새
이제하 샤갈 앞에서
이제하 설경(雪景)
이제하 설야(雪夜)
이제하 역풍경(驛風景)
이제하 연기(煙氣) 1
이제하 정경(情景)
이제하 청(靑)솔 그늘에 앉아
이제하 풍경(風景) A
이종욱 개미
이종욱 광화문 네거리의 빨간 풍선
이종욱 구린내
이종욱 굶주리던 사람은
이종욱 꽃샘추위,
이종욱 나와 함께 사는 기생충
이종욱 나의 계집
이종욱 눈물
이종욱 단식
이종욱 돌
이종욱 동해
이종욱 들풀
이종욱 만년필
이종욱 모기
이종욱 모기
이종욱 오늘 어찌 하늘 푸르르고
이종욱 오직 맨주먹
이종욱 우리 집
이종욱 운동시간
이종욱 하루해가 질 무렵
이준관 가을 기러기
이준관 가을 떡갈나무숲
이준관 가을산(山)운(韻)
이준관 겨울 눈보라 1
이준관 귀뚜라미 몇 마리 깨어 울다
이준관 나는 별에게 고백을……
이준관 나들이
이준관 눈 내린 오리나무숲
이준관 다람쥐가 사는 숲
이준관 동박새
이준관 밀밭
이준관 바람이 분다
이준관 봄 하늘 아래
이준관 부흥이 우는 밤
이준관 산(山) 다섯 굽이
이준관 수세미꽃
이준관 수수밭에서
이준관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가을
이준관 안개 속에서
이준관 어머니의 맨발
이준관 얼었던 바퀴 자국을 밀고 일어서는
이준관 여름밤
이준관 인가(人家)의 불빛
이준관 제비가 집을 짓는다
이준관 폭설(暴雪)이 한 닷새쯤 쏟아지면
이준관 하늘의 뜻대로 열매가 열렸다
이준관 한로(寒露)
이준관 햇빛 맑은 가을날
이준관 호박죽
이준관 황야
이진호 길
이진호 녹나무 숲
이진호 달이 지는 곳으로
이진호 따오기
이진호 물방울 1
이진호 사이렌 1
이진호 수선화 1
이진호 십자가 1
이진호 십자가 10
이진호 십자가 12
이진호 십자가 2
이진호 십자가 6
이진호 아뜨리에
이진호 애비의 말
이진호 요즈음 1

이진호 천사 1
이진호 툇마루
이진호 평화 1
이진호 한 발
이진호 화가(畵家)와 아이
이찬 Tearoom · Elise
이찬 그까짓 것
이찬 나도 웃고 싶단다 웃고 싶단다
이찬 노변(爐邊)의 휴일(休日)
이찬 눈밤의 기억(記憶)
이찬 돌팔매
이찬 묘비(墓碑)
이찬 밤차(車)
이찬 북만주(北滿洲)로 가는 월(月)이
이찬 분향(焚香)
이찬 삶에의 경고(警告)
이찬 세월(歲月)과 나와
이찬 어화(漁火)
이찬 여자는 굳센 것: 희시(戱詩)
이찬 조춘(早春)
이찬 종련(終戀)
이찬 진정(眞情)
이찬 창(窓)
이찬 출범(出帆)
이찬 희망(希望)
이탄 가을 나무 하나
이탄 거미줄
이탄 과수원에서
이탄 꽃 심는 법(法)
이탄 대장간 앞을 지나며
이탄 목소리
이탄 못박기
이탄 바다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탄 바람불다
이탄 방(房) 안에서
이탄 부끄러움
이탄 빈 새장
이탄 빛의 기둥
이탄 소등
이탄 소등
이탄 소등(消燈)
이탄 소등(消燈)
이탄 소등(消燈)
이탄 소등(消燈)
이탄 소등(消燈)
이탄 알려지지 않는 허전
이탄 옮겨 앉지 않는 새
이탄 이슬 속에서 만나는 연습
이탄 작은 방울
이탄 잠들기 전에
이탄 저녁걸음 1
이탄 젖은 나이
이탄 줄풀기
이탄 틈
이탄 하늘 속 그림자
이탄 하늘빛
이탄 화분을 보며
이탄 흔들리며
이태극 갈대
이태극 관동 삼(三)음
이태극 꿈이드란
이태극 노들 언덕에서
이태극 다시 핀 산나리꽃
이태극 도공의 노래
이태극 동일삼제(冬日三題)
이태극 무영탑
이태극 물과 여인
이태극 미로
이태극 빛
이태극 산(山)
이태극 삼월(三月)은
이태극 삼월(三月)의 노래
이태극 서호(西湖)
이태극 소리 1
이태극 소리 10
이태극 소리 4
이태극 소리 7
이태극 소리 8
이태극 오대산정(五臺山頂)에서
이태극 우음(偶吟)
이태극 인간가도(人間街道)
이태극 자하문
이태극 제비
이태극 주막(酒幕)
이태극 춘일산음(春日散吟)
이태극 풍란(風蘭)
이태극 해동기(解凍記)
이태극 해바라기
이태수 그날 저녁 나는
이태수 그는 다시 나에게
이태수 그를 기다리며
이태수 길 4
이태수 길, 머나먼 길
이태수 나는 그와 만난다

이태수 내 마음의 새
이태수 내 사랑은 울고 있다.
이태수 동성로(東城路)에서 2
이태수 두 개의 변주(變奏)
이태수 마음의 길 하나 트면서
이태수 망아지의 풋풋한 아침이 되고 싶다
이태수 못물을 보며
이태수 물을 마시다가
이태수 봄밤에는
이태수 섬, 기댈 데 없는
이태수 시시하구나, 나의 시여
이태수 쑥국새
이태수 아, 아, 그리워라
이태수 어떤 사랑 나라
이태수 오늘을 가며
이태수 울어 울어 새여
이태수 쥐뿔찾기
이태수 하지만 손을 내밀면
이태수 허수아비, 허수아비, 허수아비
이하석 3분간
이하석 MADE IN U.S.A
이하석 가랑비야, 한국시를 찬양하라
이하석 가야산
이하석 강변 유원지 1
이하석 고추잠자리
이하석 교통사고
이하석 기지촌
이하석 김씨의 옆 얼굴
이하석 깡통 1
이하석 나른한 현장
이하석 날아 오르는 명태
이하석 냇물 속에 뭔가가 있다
이하석 눈과 코와 입이 보이지 않고
이하석 단추 1
이하석 대가천 1
이하석 동물도감
이하석 모래알 소리
이하석 못 1
이하석 못 2
이하석 밀양강 1
이하석 밖
이하석 버려진 병
이하석 병 2
이하석 부서진 활주로
이하석 부재
이하석 비무장지대
이하석 비밀
이하석 서시
이하석 세 사내
이하석 순례 1
이하석 순례 2
이하석 신천
이하석 안 1
이하석 애인들은 쪽, 쪽, 소리를 낸다
이하석 야외소풍 1
이하석 야외소풍 2
이하석 용정 가는 길
이하석 원통리 1
이하석 유리 속의 폭풍
이하석 은종이
이하석 종이놀이
이하석 초록의 길
이하석 측백나무 울타리
이하석 컵 1
이하석 타이프라이터 1
이하석 투명한 속
이하석 폐차장
이하석 폐차장 1
이하석 핀 1
이하윤 근심 2
이하윤 다듬이소리
이하윤 물레방아
이하윤 밤
이하윤 방황곡(彷徨曲)
이하윤 비운(悲運)
이하윤 서울의 삼경(三更)
이하윤 안해에게
이하윤 애상곡(哀傷曲)
이하윤 에트란제
이하윤 이애기시절
이하윤 잃어진 무덤
이하윤 장터
이하윤 제야(除夜)
이하윤 촉루의 교향악(交響樂)
이하윤 촌으로 가서
이하윤 추억(追憶) 1
이하윤 혜영(惠英)에게
이하윤 흐린 야시(夜市)로
이하윤 희미해 가는 기둥
이한직 가정(家庭)
이한직 기려초(羈旅抄)
이한직 깨끗한 손을 가진 분이 계시거던
이한직 낙타(駱駝)
이한직 높새가 불면

이한직 독(毒)
이한직 동양(東洋)의 산(山)
이한직 또다시 허구(虛構)의 봄이
이한직 미래(未來)의 산상(山上)으로
이한직 북극권(北極圈)
이한직 설구(雪衢)
이한직 시인(詩人)은
이한직 여백(餘白)에
이한직 온실(溫室)
이한직 용립(聳立)
이한직 잠 이루지 못하는 밤이면
이한직 풍장(風葬)
이한직 화하(花河)
이한직 황해(黃海)
이향아 가을 강물 소리는
이향아 가출(家出)
이향아 감기
이향아 강을 건널 때, 나는
이향아 개망초꽃 칠월
이향아 꿈자리
이향아 내게도 잠 못드는 밤은 있어라
이향아 눈을 뜨는 연습(練習)
이향아 반쯤 빈 잔(盞)
이향아 불면(不眠)
이향아 사친가(思親歌)
이향아 삼월(三月) 한 달
이향아 소돔의 여자
이향아 신곡조 향가(新曲調 鄕歌)
이향아 어디서 누가 실로폰을 두드리는가
이향아 측백나무와 별이 있는 길
이향아 하나님, 나를 좀더
이향아 헛간을 지으며
이향아 환상일기
이향아 환상일기
이형기 가슴 1
이형기 가을 변주곡
이형기 감기
이형기 강가에서
이형기 겨울의 비
이형기 구식여수(舊式旅愁)
이형기 그대
이형기 그해 겨울의 눈
이형기 기적
이형기 길
이형기 낙화
이형기 낮달
이형기 독감
이형기 독시법(讀詩法)
이형기 들길
이형기 등
이형기 루시의 죽음
이형기 만개(滿開)
이형기 먹통전화
이형기 무명의 사자(死者)에게
이형기 물거품 노트
이형기 바다
이형기 바다
이형기 바다무제
이형기 밤바다
이형기 백치풍경(白痴風景)
이형기 뱀
이형기 보물섬의 지도
이형기 봄비
이형기 분수
이형기 비
이형기 빈 들에 홀로
이형기 산
이형기 산비
이형기 석류
이형기 소묘
이형기 슬로비디오
이형기 시를 쓰지 못하는 시인 1
이형기 암세포
이형기 엑스레이 사진
이형기 외톨 바다
이형기 위약(違約)
이형기 이명증
이형기 일기예보
이형기 정적의 개
이형기 징껭맨이의 편지
이형기 초상정사(草上靜思)
이형기 칼을 간다
이형기 코스모스
이형기 편자
이형기 풍경에서
이형기 풍선 심장
이형기 하운(夏雲)
이형기 항복에 대하여
이형기 해바라기
이형기 해일 경보
이형기 호수
이형기 황혼
이호우 가을
이호우 개화(開花)

이호우 겨울
이호우 낙목(落木)
이호우 낙엽(落葉) 1
이호우 낙후(落後)
이호우 단풍(丹楓)
이호우 또다시 새해는 오는가
이호우 만사(輓詞)
이호우 매우(賣牛)
이호우 매화(梅花)
이호우 목숨
이호우 묘비명(墓碑銘)
이호우 무화과(無花果)
이호우 바람 벌
이호우 발자욱
이호우 병실(病室)
이호우 비
이호우 비원(悲願)
이호우 산 샘
이호우 살구꽃 핀 마을
이호우 술
이호우 오월(五月)
이호우 청추(聽秋)
이호우 춘한(春恨) 2
이호우 태양(太陽)을 여윈 해바라기
이호우 학(鶴)
이호우 허일(虛日)
이호우 휴화산(休火山)
이희승 가신 아버님
이희승 가을 생각
이희승 겨울
이희승 그네[추천]
이희승 꽃
이희승 나는 한 개의 돌이로라
이희승 낙화(落花)
이희승 박꽃
이희승 벽공(碧空)
이희승 상문(桑門)
이희승 생명(生命)
이희승 송년부(送年賦)
이희승 아스팔트 위로 기어 오는 봄은
이희승 오월(五月)의 태양(太陽)
이희승 우물길
이희승 은행(銀杏)
이희승 정야(靜夜)
이희승 조춘부(早春賦)
이희승 찢어진 피리
이희승 철로(鐵路)
이희승 춘원곡(春怨曲)
이희승 희망(希望)
임강빈 가을 숲
임강빈 가을에
임강빈 갈대
임강빈 강물을 굽어보며
임강빈 나들이 단장(短章)
임강빈 들깨꽃
임강빈 등을 민다
임강빈 무지개
임강빈 부재(不在)
임강빈 비탈길
임강빈 서정 시인
임강빈 섣달 바람
임강빈 소국(小菊)
임강빈 시인
임강빈 시집을 받고
임강빈 은행나무
임강빈 차를 마시며
임강빈 퇴근
임강빈 햇살에 기대어
임강빈 혼자 마시기
임보 강설(降雪)
임보 거미
임보 낮잠
임보 내원정사기행시초(內圓精舍紀行詩抄)
임보 단가삼제(短歌三題)
임보 대금
임보 때가 오면
임보 목마일기(木馬日記) 2
임보 바람과 꽃과 새
임보 복중(伏中)
임보 북악(北岳)의 한 소나무
임보 비장후기(裨將後記)
임보 산방동동(山房動動)
임보 솔밭
임보 술잔 속에 빛나는 별
임보 시인학교
임보 율(律) 1
임보 율(律) 2
임보 율(律) 3
임보 이른 봄
임보 정읍별사(井邑別詞)
임보 촌수
임보 탁족(濯足)
임영조 12월
임영조 2월

임영조 50을 바라보며
임영조 갈대는 배후가 없다
임영조 거울
임영조 겨울나무
임영조 꽃을 위하여
임영조 나도풍란
임영조 난(蘭)값이 파값보다
임영조 동행가(同行歌)
임영조 등나무 아래서
임영조 땡감에게
임영조 리모콘
임영조 목련
임영조 목수(木手)의 노래
임영조 백자송(白磁頌)
임영조 분수(噴水)를 보며
임영조 산나리꽃
임영조 섬
임영조 성냥
임영조 손금
임영조 시계
임영조 원추리꽃
임영조 좌골신경통
임영조 출타중
임영조 파도
임영조 현상실기(現像實技)
임영조 호두
임학수 갈매기의 노래
임학수 고요한 밤
임학수 광야(曠野)에 서서
임학수 낙화암(落花巖)
임학수 들에 자는 누이
임학수 만월대(滿月台)
임학수 백합(百合)
임학수 별리(別離)
임학수 산보(散步)
임학수 석류(石榴)
임학수 싸움
임학수 언제나 오느냐
임학수 예언(豫言)
임학수 자화상(自畵像)
임학수 재
임학수 적은 기도(祈禱)
임학수 조선의 소녀
임학수 즐거운 설날
임홍재 광부(鑛夫)의 죽음
임홍재 남사당(男寺黨)
임홍재 등(藤)나무 아래서
임홍재 맨몸으로 때우기
임홍재 무우청을 엮으며
임홍재 바느질
임홍재 바람아 바람아
임홍재 벌초(伐草)를 하며
임홍재 부주전상서(父主前上書)
임홍재 산역(山役)
임홍재 안성(安城)장날
임홍재 인분을 푸며
임홍재 중동(中東)바람
임홍재 지렁이 울음 소리
임홍재 청보리의 노래 1
임홍재 청보리의 노래 2
임홍재 탕자(蕩子)의 시(詩)
임홍재 투망(投網)
임화 가을 바람
임화 강(江)가로 가자
임화 고향(故鄕)을 지나며
임화 구월이십일(九月二十日)
임화 길
임화 깃발을 내리자
임화 나는 못 믿겠노라
임화 나의 눈은 핏발이 서서 감을 수가 없다
임화 낮
임화 내 청춘에 바치노라
임화 너 하나 때문에
임화 네거리의 순이
임화 높은 산 봉우리마다
임화 눈물의 해협
임화 다시 네거리에서
임화 다시 인젠 천공(天空)에 성좌(星座)가 있을 필요(必要)가 없다
임화 담(曇)——1927
임화 들
임화 바다의 찬가
임화 발자욱
임화 밤 갑판 위
임화 벌레
임화 삼월일일(三月一日)이 온다
임화 새 옷을 갈아 입으며
임화 세월
임화 안개 속
임화 암흑의 정신
임화 야행차(夜行車) 속
임화 양말 속의 편지
임화 어린 태양(太陽)이 말하되
임화 옛 책

임화　오늘밤 아버지는 퍼렁 이불을 덮고
임화　우리 오빠와 화로
임화　우리들의 전구(戰區)
임화　우산 받은 요꼬하마의 부두
임화　일년(一年)
임화　적(敵)
임화　주유(侏儒)의 노래
임화　지구와 박테리아
임화　지도(地圖)
임화　지상의 시(詩)
임화　초혼(招魂)
임화　최후(最後)의 염원(念願)
임화　통곡(慟哭)
임화　하늘
임화　학병(學兵) 돌아오다
임화　한 잔 포도주를
임화　해상(海上)에서
임화　해협의 로맨티시즘
임화　향수
임화　헌시(獻詩)
임화　현해탄
임화　홍수 뒤
임화　화가의 시(詩)
임화　황무지(荒蕪地)
장만영　가마귀
장만영　가버린 날에
장만영　가을
장만영　가을 아침 풍경(風景)
장만영　관수동(觀水洞)
장만영　귀거래(歸去來)
장만영　귀성(歸省)
장만영　누나
장만영　눈이 내리는 밤에
장만영　달·포도·잎사귀
장만영　달밤
장만영　돌아오지 않는 두견이
장만영　동야(冬夜)
장만영　마중
장만영　만추(晩秋)
장만영　매소부(賣笑婦)
장만영　무지개
장만영　바다
장만영　바다로 가는 여인(女人)
장만영　바람과 구름
장만영　별 1
장만영　별 2
장만영　병(病)든 아가씨와 앵무(鸚鵡)
장만영　병실(病室)
장만영　복녀(福女) 1
장만영　봄 들기 전(前)
장만영　봄을 그리는 마음
장만영　비
장만영　비의 이미지(image)
장만영　사랑
장만영　산(山)으로 가고 싶지?
장만영　새로 3시(時)
장만영　새벽
장만영　생가(生家)
장만영　성묘(省墓)
장만영　소년(少年)
장만영　순아에게 주는 시(詩)
장만영　슬픈 조각달
장만영　아가
장만영　아침
장만영　아침 창(窓)에서
장만영　양(羊)
장만영　여인(女人)
장만영　욕천(浴泉)
장만영　유년(幼年)
장만영　이향사(離鄕詞)
장만영　조개
장만영　축원(祝願)
장만영　항구(港口)
장만영　향수(鄕愁)
장만영　호수(湖水) 1
장만영　호수(湖水)로 가는 길
장만영　홍역(紅疫)
장서언　가을날
장서언　고화병(古花瓶)
장서언　골목
장서언　나무 1
장서언　박
장서언　봄
장서언　비
장서언　빈 의자(椅子)
장서언　실내(室內)
장서언　어느 날
장서언　여인(女人)의 방(房)
장서언　우는 나무
장서언　우리 다시 한잔
장서언　우물
장서언　유리창(琉璃窓)
장서언　음악당(音樂堂)
장서언　이발사(理髮師)의 봄
장서언　창문을 열라

장서언 푸른 하늘
장서언 풍경(風景)
장서언 화원(花園)
장석주 강
장석주 그리운 나라
장석주 나무들 속의 하루종일
장석주 날아라 시간(時間)의 포충망(捕蟲網)에 붙잡힌 우울한 몽상(夢想)이여
장석주 낮은 사랑을 위하여
장석주 내 상상력의 복판에 감자가 떠 올랐다
장석주 담배 한 대
장석주 등(燈)에 부침
장석주 별
장석주 삶과 꿈
장석주 새들은 황혼 속에 집을 짓는다
장석주 여행에 부침 3
장석주 울혜여 꿈꾸는 영혼이여
장석주 완전주의자(完全主義者)의 꿈
장석주 조용한 개선
장석주 진혼미사
장석주 추억을 완성하기 위하여
장석주 햇빛사냥
장석주 행복
장석주 후생(後生)
장석주 희망은 카프카의 K처럼
장영수 그 어떤 정신의 목욕 속에서
장영수 그대 시간은 이미 더 높은 곳에서 빛난다
장영수 그의 깃발에 주는 시
장영수 나비 같은, 아니아니, 빛 같은
장영수 동해(東海) Ⅰ
장영수 레바논을 생각하며
장영수 메이비
장영수 미합중국(美合衆國)에게
장영수 민족의 이름 앞에
장영수 방랑자의 노래
장영수 부활
장영수 부활의 꿈
장영수 빈 통 같은 인생
장영수 뿌리를 내리소서
장영수 상처(傷處) Ⅵ
장영수 생선회칼의 세상
장영수 세상에는 하늘이 있었다
장영수 신화(神話)
장영수 아름답게 살려는 만큼
장영수 잠들지 못하는 마음의 길을 따라서
장영수 전방에 대하여
장영수 치악산 Ⅰ
장영수 코리아라고 불리우는
장영수 크리스마스 카드에게
장영수 태백산 Ⅲ
장영수 태양이 얼굴에 정면으로 쏟아진 순간
장영수 학습 일기 Ⅶ
장영수 한강
장정심 간다
장정심 국화
장정심 금선
장정심 꽃씨
장정심 꿈정
장정심 내 탓
장정심 백지편지
장정심 송경
장정심 연못
장정심 오늘
장정심 유적
장정심 임의 정
장정심 전화
장정심 죽음
장정심 충신의 무덤
장정심 흰새
장정일 <중앙>과 나
장정일 강정 간다
장정일 길안에서의 택시잡기
장정일 나, 실크 커튼
장정일 도망중
장정일 라디오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장정일 물 속의 집
장정일 백화점 왕국
장정일 벽돌이 올라가다
장정일 삼중당 문고
장정일 새로운 자궁
장정일 성난 눈
장정일 아파트 묘지
장정일 안동에서 울다
장정일 약속 없는 세대
장정일 요리사와 단식가
장정일 요리책
장정일 지하도로 숨다
장정일 지하인간
장정일 햄버거에 대한 명상

장호 공범자(共犯者)
장호 눈나리는 밤에
장호 눈뜨는 겨울
장호 동경(東京) 까마귀
장호 동경(東京) 까마귀
장호 동경(東京) 까마귀
장호 동경(東京) 까마귀
장호 동경(東京) 까마귀
장호 동면(冬眠)
장호 밤 산자락에서
장호 백령도(白翎島)
장호 속(續) 하수도(下水道)의 생리(生理)
장호 시인(詩人)의 장례식
장호 유년행(幼年行)
장호 지도(地圖)속의 눈
장호 칠월(七月)의 화방(畵房)에서
장호 파충류(爬蟲類)의 사상(思想)
장호 파충류(爬蟲類)의 합창(合唱)
장호 포복(匍匐)
장호 하수도(下水道)의 생리(生理)
전봉건 가을에
전봉건 강(江)물이 흐르는 너의 곁에서
전봉건 강물이 흐르는 너의 곁에서
전봉건 개미를 소재로 한 하나의 시가 씌어지는 이유
전봉건 꽃과 하강(下降)
전봉건 꽃빛
전봉건 꿈속의 뼈
전봉건 너화
전봉건 녹색(綠色)의 두 가지 연애시(戀愛詩)
전봉건 다시 마술
전봉건 다시 마카로니 웨스턴
전봉건 다시 없는 이야기
전봉건 대낮
전봉건 돌 1
전봉건 돌 11
전봉건 돌 2
전봉건 돌 21
전봉건 돌 23
전봉건 돌 3
전봉건 돌 31
전봉건 돌 4
전봉건 돌 41
전봉건 돌 50
전봉건 돌 51
전봉건 돌 9
전봉건 마술
전봉건 마지막 마카로니 웨스턴
전봉건 마카로니 웨스턴
전봉건 말 4
전봉건 말 5
전봉건 바람 때문에
전봉건 봄 편지
전봉건 서정(抒情)
전봉건 속의 바다 1
전봉건 속의 바다 10
전봉건 속의 바다 11
전봉건 속의 바다 12
전봉건 속의 바다 13
전봉건 속의 바다 14
전봉건 속의 바다 19
전봉건 속의 바다 2
전봉건 속의 바다 20
전봉건 속의 바다 3
전봉건 속의 바다 5
전봉건 속의 바다 9
전봉건 손
전봉건 시월(十月)의 소녀(少女)
전봉건 여섯 개의 바다
전봉건 요즈음의 시(詩)
전봉건 원앙이 사촌
전봉건 은하를 주제로 한 봐리아시옹
전봉건 이 밤에
전봉건 이월(二月)의 노래
전봉건 장미의 의미
전봉건 제비
전봉건 지금 아름다운 꽃들의 의미
전봉건 지금 아름다운 꽃들의 의미(意味)
전봉건 진혼가(鎭魂歌)
전봉건 코스모스
전봉건 피리
전봉건 피아노
전봉건 한 해가 저무는 저녁 무렵에
전봉건 황새
전봉건 희망(希望)
전영경 간음(姦淫)
전영경 고향(故鄕)
전영경 나는 성 쌓고 남은 돌이다
전영경 돼지
전영경 둥글다 못해 모가 났어요
전영경 발 끝에 채이는 것이 있다
전영경 봄 소동(騷動)

전영경　사막환상(沙漠幻想)
전영경　사본(私本) 김산월여사(金山月女史)
전영경　사십년간(四十年間)
전영경　소녀는 배가 불룩했습니다
전영경　속(續) 낙화유수(落花流水)
전영경　어두운 다릿목에서
전영경　우미관(優美館) 근처(近處)
전영경　이목당(李木堂)에게 보내는 각서(覺書)
전영경　인생이란 무엇인가 묻는 주책없는 청년(靑年)
전영경　투우(鬪牛)
전영경　화전민(火田民)
전영경　희화소묘(戱畵素描)
정공채　가을 감사(感謝)
정공채　군화(群花)
정공채　귀거래(歸去來)
정공채　단장(斷章)
정공채　땅에 글을 쓰다
정공채　미 8군의 차(車)
정공채　봄 계집
정공채　봄이 오는 사월에
정공채　빛
정공채　사람소리 1
정공채　사람소리 2
정공채　산(山) 그늘
정공채　산도(山桃)의 길
정공채　산병(山病)
정공채　산협(山峽)에서
정공채　시월(十月)의 비 1
정공채　영등포 기질 3
정공채　오전의 당구
정공채　우중(雨中)의 마음
정공채　일상(日常)의 기도(祈禱)
정공채　태화강
정대구　겨울 기도
정대구　겨울 바다
정대구　겨울나무의 진실
정대구　구내 식당에서
정대구　김포평야
정대구　꿈연습 1
정대구　나의 친구 우철동씨
정대구　눈싸움
정대구　돌밭
정대구　바다에 내리는 눈은
정대구　벼룩의 시
정대구　봄바람 유희 1
정대구　선풍기
정대구　시계 수리공
정대구　약수터에서
정대구　우기(雨期)의 시(詩)
정대구　유무시(有無詩)
정대구　이런 날 나는
정대구　접골사(接骨士)
정대구　추적(追跡)
정동주　구월의 빛
정동주　난(蘭)
정동주　노래 5
정동주　노래 6
정동주　도열병 5
정동주　땅심 돋우기
정동주　무(無)
정동주　보리를 널면서
정동주　삼짓날
정동주　생존일기 37
정동주　섬
정동주　이삭줍기
정동주　첫날. 성전(聖殿)에서
정동주　청수리
정동주　초복
정동주　초파일
정동주　햇빛 속에서
정성수　1980 가을 병동
정성수　그대가 올 때
정성수　눈
정성수　다산성 창녀
정성수　달 노래
정성수　당신의 옷
정성수　대못
정성수　물방울
정성수　비
정성수　비망록을 위하여
정성수　사랑
정성수　사랑 나라
정성수　새에 대하여
정성수　앞산의 뿌리
정성수　우리들의 기억력
정성수　우이동 친구에게
정성수　이어도
정성수　줄장미
정성수　철쭉꽃이 만발하면
정성수　하관 1984
정양　강
정양　개나리꽃
정양　겨울비

정양	까마귀떼
정양	까치
정양	남도행(南道行)
정양	내 살던 뒤 안에
정양	눈 오는 날
정양	눈발자국
정양	들길에서
정양	들불
정양	땡볕
정양	또 봄이 오기 전에
정양	백수광부가(白首狂夫歌)
정양	비바람
정양	사미인곡(思美人曲)
정양	수수깡을 씹으며
정양	쑥대머리로 1
정양	쑥대머리로 2
정양	얼굴
정양	엽서 1
정양	엽서 2
정양	전야(前夜)
정완영	가을 꽃을 심습니다.
정완영	가을은 강물처럼
정완영	겨울나무 1
정완영	관악산(冠岳山) 시(詩)
정완영	귀향 서정(歸鄕 抒情)
정완영	누가 나를
정완영	다시 고향에 와서
정완영	대춘부(待春賦)
정완영	들녘에 서서
정완영	무량심초(無量心抄) 11
정완영	무량심초(無量心抄) 6
정완영	무량심초(無量心抄) 8
정완영	묵로도(墨鷺圖)
정완영	법주사(法住寺)
정완영	봄바람에
정완영	삼동(三冬)의 시(詩)
정완영	수석 삼제(水石三題)
정완영	잔양기(殘陽記)
정완영	춘흥삼제(春興三題)
정완영	황국(黃菊)
정의홍	가을이미지
정의홍	강가에서
정의홍	강물
정의홍	그날밤의 일기
정의홍	그녀의 생각
정의홍	꼭두각시 놀이 1
정의홍	나의 농부(農夫)
정의홍	내가 못한 말을
정의홍	물은 흘러서
정의홍	방황(彷徨) 2
정의홍	북에서 온 편지
정의홍	산 속 개울물에
정의홍	산중신곡(山中新曲)
정의홍	영원한 기도
정의홍	운명
정의홍	장날
정의홍	주점야화(酒店夜話)
정의홍	죽음에 이르는 길 1
정의홍	춘망(春望)
정의홍	통곡제
정의홍	폭포수(瀑布水)
정의홍	하루만 허락받은 시인 1
정의홍	휴전선
정인보	고곡애(古曲哀)
정인보	구룡연(九龍淵)
정인보	국화사삼첩(菊花詞三疊)
정인보	근화사삼첩(槿花詞三疊)
정인보	마의태자릉(麻衣太子陵)
정인보	마하연암(摩訶衍菴)
정인보	만폭동(萬瀑洞)
정인보	매월당석각(梅月堂石刻)
정인보	매화사삼첩(梅花詞三疊)
정인보	매화칠장(梅花七章)
정인보	문호암애사(文湖巖哀詞)
정인보	박연행(朴淵行)
정인보	백마강(白馬江) 뱃 속에서
정인보	비로봉(毘盧峯)
정인보	비봉폭(飛鳳瀑)
정인보	소광암(昭曠巖)
정인보	숙초(宿草) 밑에 누운 고우(故友) 송고하(宋古下)를 우노라
정인보	십이애(十二哀)
정인보	여수(麗水)서 목포(木浦)까지
정인보	여수옥천사(麗水玉泉祠)
정인보	옥류동(玉流洞)
정인보	유모강씨(乳母姜氏)의 상행(喪行)을 보내면서
정인보	이화사삼첩(梨花詞三疊)
정인보	자모사(慈母思)
정인보	정양사(正陽寺)
정인보	조춘(早春)
정인보	첫 정
정인보	칠보암(七寶菴)
정인보	표훈사(表訓寺)
정지용	갑판(甲板) 위
정지용	겨울

정지용 고향(故鄕)
정지용 구성동(九城洞)
정지용 귀로(歸路)
정지용 그대들 돌아오시니
정지용 기차(汽車)
정지용 꽃과 벗
정지용 나무
정지용 나비
정지용 난초(蘭草)
정지용 내 맘에 맞는 이
정지용 다시 해협(海峽)
정지용 다알리아
정지용 달
정지용 딸레
정지용 또 하나 다른 태양(太陽)
정지용 말 1
정지용 말 2
정지용 말 3
정지용 무서운 시계(時計)
정지용 바다 1
정지용 바다 2
정지용 바다 3
정지용 바다 4
정지용 바다 5
정지용 바다 6
정지용 바다 7
정지용 바다 8
정지용 바다 9
정지용 바람
정지용 바람 2
정지용 발열(發熱)
정지용 백록담(白鹿潭)
정지용 병
정지용 불사조(不死鳥)
정지용 비
정지용 비극(悲劇)
정지용 비로봉(毘盧峯) 1
정지용 비로봉(毘盧峯) 2
정지용 산너머 저쪽
정지용 산소
정지용 산에서 온 새
정지용 산엣 색시 들녘 사내
정지용 삼월(三月) 삼짇날
정지용 삽사리
정지용 새빨간 기관차(機關車)
정지용 석류(石榴)
정지용 선취(船醉) 1
정지용 소곡(小曲)
정지용 슬픈 기차(汽車)
정지용 슬픈 인상화(印象畵)
정지용 승리자(勝利者) 김(金)안드레아
정지용 시계(時計)를 죽임
정지용 아침
정지용 압천(鴨川)
정지용 애국(愛國)의 노래
정지용 옛 이야기 구절
정지용 오월(五月) 소식(消息)
정지용 옥류동(玉流洞)
정지용 온정(溫井)
정지용 유리창(琉璃窓) 1
정지용 유리창(琉璃窓) 2
정지용 유선애상(流線哀傷)
정지용 은혜(恩惠)
정지용 인동차(忍冬茶)
정지용 임종(臨終)
정지용 장수산(長壽山) 1
정지용 장수산(長壽山) 2
정지용 절정(絶頂)
정지용 조약돌
정지용 조찬(朝餐)
정지용 종달새
정지용 지도(地圖)
정지용 진달래
정지용 천주당(天主堂)
정지용 촛불과 손
정지용 춘설(春雪)
정지용 카페 프란스
정지용 파라솔
정지용 파충류 동물
정지용 폭포(瀑布)
정지용 풍랑몽(風浪夢) 1
정지용 할아버지
정지용 해바라기 씨
정지용 해협(海峽)
정지용 향수(鄕愁)
정지용 호랑나비
정지용 호수(湖水) 1
정지용 호수(湖水) 2
정지용 홍시
정지용 홍역(紅疫)
정지용 홍춘(紅椿)
정지용 황마차(幌馬車)
정진규 가을집
정진규 가장 맑디맑게 물꼬를 터주던 것은

정진규 가죽가방
정진규 강설(降雪)
정진규 겨울 양평(楊平)
정진규 곳곳에 가을이 당도하였으매
정진규 그림지우기
정진규 깨끗한 물고기
정진규 남쪽 마을에 가서
정진규 다시 별
정진규 들판의 비인 집이로다
정진규 따뜻한 달걀
정진규 따뜻한 상징
정진규 말씀의 춤을 위하여
정진규 매듭
정진규 몸시(詩)·36
정진규 몸시(詩)·60
정진규 몸시(詩)·86
정진규 문단속
정진규 물소리 1
정진규 물소리 2
정진규 물희
정진규 밥시(詩) 1
정진규 밥시(詩) 2
정진규 밥시(詩) 7
정진규 밥시(詩) 8
정진규 법고(法鼓)
정진규 별
정진규 별낳기
정진규 복사꽃 만개(滿開)
정진규 봄비
정진규 봄이 올 무렵
정진규 뼈에 대하여
정진규 새 1
정진규 서서 자는 말
정진규 세 번째 별
정진규 속살
정진규 슬픈 허방 하나
정진규 안방에 머물며
정진규 연서(戀書)
정진규 연장에 대하여
정진규 연필로 쓰기
정진규 오세요, 오세요
정진규 옹이에 대하여
정진규 우리집 쓰레기통은 네 개
정진규 원석(原石)
정진규 이 여름의 내 알몸
정진규 지금 키 큰 미루나무 하나는
정진규 직전의 힘을 믿겠다 나는
정진규 집
정진규 평화롭고 따뜻하였던 한 사날
정진규 푸들거리는 상징
정진규 흑백(黑白)
정한모 가을에
정한모 감꽃
정한모 개나리 초(抄)
정한모 고개 머리에서
정한모 귀향(歸鄕)
정한모 그것은 바로 내 것이다
정한모 그저 몇 간(間)쯤
정한모 꽃 체험(體驗) 1
정한모 꽃 체험(體驗) 2
정한모 꽃의 탄생(誕生)
정한모 나비의 여행(旅行)
정한모 너는 서 있는가
정한모 돌의 노래
정한모 목련(木蓮)
정한모 밀어(密語)
정한모 밤의 수로(水路)
정한모 별리(別離)
정한모 삼월(三月)의 편지
정한모 새
정한모 새벽 1
정한모 새벽 2
정한모 새벽 3
정한모 새벽 6
정한모 서울서장(序章)
정한모 아가의 방 서장(序章)
정한모 아가의 방(房) 별사(別詞) 4
정한모 아가의 방(房) 별사(別詞) 5
정한모 아가의 방(房) 별사(別詞) 7
정한모 아름다운 부끄러움은
정한모 어둠이 쌓이는 밤의 깊이에서
정한모 어머니 1
정한모 어머니 3
정한모 어머니 6
정한모 언제나 착한 아기인 우리에게
정한모 여장(餘章)
정한모 연주(演奏)
정한모 영화(永花)
정한모 오늘
정한모 원점(原點)에 서서 1
정한모 원점(原點)에 서서 14
정한모 원점(原點)에 서서 2
정한모 원점(原點)에 서서 28
정한모 원점(原點)에 서서 33
정한모 원점(原點)에 서서 46
정한모 원점(原點)에 서서 48

정한모 원점(原點)에 서서 52
정한모 원점(原點)에 서서 7
정한모 음영(陰影)
정한모 작은 새
정한모 전송(餞送)
정현종 ◯
정현종 가객(歌客)
정현종 가을에
정현종 감격하세요
정현종 거울
정현종 거지와 광인(狂人)
정현종 겨울산
정현종 고통의 축제(祝祭) 2
정현종 공중에 떠 있는 것들 1
정현종 공중에 떠 있는 것들 2
정현종 공중에 떠 있는 것들 4
정현종 교감(交感)
정현종 그대는 별인가
정현종 꽃 피는 상처
정현종 꽃을 잠그면?
정현종 꽃피는 애인들을 위한 노래
정현종 꿈 노래
정현종 꿈 속의 아모라
정현종 꿈으로 우는 거리
정현종 나는 별아저씨
정현종 나의 자연으로
정현종 낮술
정현종 냉정하신 하느님께
정현종 너는 누구일까
정현종 노래에게
정현종 노시인(老詩人)들, 그리고 뮤즈인 어머니의 말씀
정현종 눈짓 하나가 탄생을 돕는다
정현종 늙고 병든 이 세상에게
정현종 달도 돌리고 해도 돌리시는 사랑이
정현종 대취(大醉)
정현종 도덕의 원천이신 달이어
정현종 독무(獨舞)
정현종 들판이 적막하다
정현종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정현종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정현종 말의 형량(刑量)
정현종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정현종 몸을 꿰뚫는 쓰라림과도 같은
정현종 무지개나라의 물방울
정현종 바람 병(病)
정현종 바보 만복이
정현종 밝은 잠
정현종 벌레들의 눈동자와도 같은
정현종 보살 이유미
정현종 사람이 풍경으로 피어나
정현종 사랑사설(辭說) 하나
정현종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
정현종 사물(事物)의 꿈 1
정현종 사물(事物)의 꿈 2
정현종 사물(事物)의 정다움
정현종 상처(傷處)
정현종 새벽의 피
정현종 생명 만다라
정현종 석탄이 되겠습니다
정현종 섬
정현종 시(詩), 부질없는 시(詩)
정현종 시간도 비빔밥도 없는 거지
정현종 시를 기다리며
정현종 시인(詩人)
정현종 시창작(詩創作) 교실
정현종 애인들
정현종 어디 우산 놓고 오듯
정현종 어떤 평화
정현종 얼음 조각들이
정현종 외출(外出)
정현종 이 나라의 처녀들아
정현종 잎 하나로
정현종 자기자신의 노래
정현종 자장가
정현종 잔악한 숨결
정현종 잠꼬대
정현종 잡념
정현종 절망할 수 없는 것조차 절망하지 말고
정현종 정들면 지옥이지
정현종 좋은 풍경
정현종 지식인의 환생(幻生)
정현종 집
정현종 창(窓)
정현종 창천(蒼天) 속으로
정현종 철면피한 물질
정현종 초록 기쁨
정현종 태양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정현종 통사초(通史抄)
정현종 하늘의 허파를 향해
정현종 한 고통의 꽃의 초상(肖像)
정현종 한 꽃송이
정현종 한 숟가락 흙 속에
정현종 화음(和音)

정현종　흐르는 방(房)
정현종　흙냄새
정호승　가을 편지
정호승　강변역에서
정호승　개망초꽃
정호승　겨울 강에서
정호승　겨울소년
정호승　구두 닦는 소년
정호승　꼽추
정호승　너의 무덤 앞에서
정호승　눈물꽃
정호승　눈사람
정호승　다시 철원역에서
정호승　두만강에서
정호승　마지막 편지
정호승　맹인 부부 가수
정호승　무악재
정호승　백두산을 오르며
정호승　백범 묘소 앞에서
정호승　벼꽃
정호승　별들은 따뜻하다
정호승　부치지 않은 편지
정호승　산성비를 맞으며
정호승　새벽편지
정호승　서대문 하늘
정호승　서울복음(福音) 1
정호승　서울의 예수
정호승　소월로(素月路)에서
정호승　슬픔으로 가는 길
정호승　슬픔은 누구인가
정호승　슬픔을 위하여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정호승　시인 예수
정호승　아리랑 고개
정호승　아버지의 눈물
정호승　어머니
정호승　염천교 다리 아래 비는 내리고
정호승　우리들 서울의 빵과 사랑
정호승　유관순(柳寬順) 1
정호승　유관순(柳寬順) 5
정호승　윤동주 무덤 앞에서
정호승　이별노래
정호승　전태일(全泰壹)
정호승　종이배
정호승　짜장면을 먹으며
정호승　천지(天池)에서
정호승　철원역에서
정호승　첨성대
정호승　파도타기
정호승　혼혈아에게
정호승　휴전선에서
정호승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정희성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정희성　고척동에서
정희성　그대 무덤 곁에서
정희성　길
정희성　너를 부르마
정희성　넋두리
정희성　눈 덮인 산길에서
정희성　눈을 퍼내며
정희성　답청(踏靑)
정희성　물구나무서기
정희성　백씨(白氏)의 뼈 1
정희성　버스를 기다리며
정희성　불망기(不忘記)
정희성　사월(四月)에
정희성　쇠를 치면서
정희성　얼은 강을 건너며
정희성　업보
정희성　열쇠
정희성　옹기전에서
정희성　우리들의 그리움은
정희성　유신헌법
정희성　이것은 시가 아니다
정희성　저문 강에 삽을 씻고
정희성　질네야
정희성　친구에게
정희성　친구여 네가 시를 쓸 때
정희성　평화
정희성　하늘을 보다 잠든 날은
정희성　학교 가는 길
정희성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조명희　감격(感激)의 회상(回想)
조명희　경이(驚異)
조명희　고독(孤獨)의 가을
조명희　고독자(孤獨者)
조명희　나그네의 길
조명희　나의 고향(故鄕)이
조명희　누구를 찾아
조명희　눈[雪]
조명희　떨어지는 가을
조명희　무제(無題)
조명희　별 밑으로
조명희　봄
조명희　봄잔디밭 위에

조명희 불비를 주소서
조명희 불사의(不思議)의 생명(生命)의 미소(微笑)
조명희 성숙(成熟)의 축복(祝福)
조명희 스핑스의 비애(悲哀)
조명희 아침
조명희 인연(因緣)
조명희 정(情)
조병무 국화
조병무 까치 부부
조병무 난초(蘭草)
조병무 동백꽃
조병무 맨드라미
조병무 백목련(白木蓮)
조병무 부재(不在)
조병무 비산골
조병무 사랑의 의미
조병무 선(禪)
조병무 송광사(松廣寺)에서
조병무 수국
조병무 용정차[龍井茶]
조병무 월정사(月精寺) 보살상
조병무 이법(理法)
조병무 자금성(紫禁城)
조병무 장미 1
조병무 전등사 얼굴
조병무 초록이 밀려오면
조병무 클로버 꽃
조병무 편지(片紙)
조병무 해바라기 2
조병화 가을
조병화 거리(距離)를 두고
조병화 구름 기둥, 불 기둥
조병화 굿바이
조병화 귀가 커서 내가 슬픈가 보다
조병화 나일 강
조병화 낙엽
조병화 낙엽끼리 모여 산다
조병화 남남
조병화 낮은 목소리로
조병화 너와 나는
조병화 노아
조병화 눈에 보이옵는 이 세상에서
조병화 다도해
조병화 도화사(道化師)
조병화 미세스와 토오스트
조병화 밤의 이야기
조병화 밤의 이야기
조병화 밤의 이야기 20
조병화 봄은 솔개의 눈알 속에서
조병화 비
조병화 비는 내리는데
조병화 사이공
조병화 샘터
조병화 서산나귀
조병화 시간은 마냥 그 자리
조병화 안녕하신지요
조병화 어느 여행자(旅行者)의 독백(獨白)
조병화 어느 존재(存在)
조병화 언양 미나리
조병화 역
조병화 옛 엽서
조병화 오산 인터체인지
조병화 오후 일곱 시
조병화 은혜(恩惠)
조병화 의자(椅子)
조병화 이렇게 될 줄을 알면서도
조병화 잃은 시간 속에서
조병화 입해 교실
조병화 장미와 도적
조병화 종로 네거리
조병화 주점
조병화 죽음처럼 허탈이
조병화 차창
조병화 천상(天上)과 지상(地上)
조병화 초상
조병화 추억
조병화 하루만의 위안
조병화 학(鶴)
조병화 혜화동(惠化洞) 로오타리
조영암 망명(亡命)의 길
조영암 무명전사(無名戰士)의 무덤
조영암 북벌사(北伐辭)
조영암 북한(北韓)에
조영암 북한소묘(北韓素描)
조영암 비상(飛翔)
조영암 비원(悲願)
조영암 소년적시(少年敵屍)
조영암 시산(屍山)을 넘고 혈해(血海)를 건너
조영암 열도(熱禱)
조영암 유언(遺言)
조영암 조국전선(祖國戰線)
조영암 조충혼(弔忠魂)
조영암 진격(進擊)의 노래 1

조영암 진격(進擊)의 노래 2
조영암 출정사(出征詞)
조영암 폐허(廢墟) 우에서
조영암 학살시(虐殺屍)
조영암 해병대찬가(海兵隊讚歌)
조우성 그대
조우성 꽃
조우성 마음
조우성 말[馬]
조우성 무제(無題)
조우성 별
조우성 사자
조우성 소
조우성 소리를 테마로 한 세 편의 시(詩)
조우성 약도(略圖)
조우성 우리들
조우성 이 가을의 꽃
조우성 이런 시(詩)
조우성 인천(仁川)
조우성 절망초(絶望抄)
조우성 집
조우성 철쭉
조우성 풍경(風景) Ⅰ
조우성 풍경(風景) Ⅲ
조우성 행방(行方)
조재훈 가을비 2
조재훈 갈꽃을 보며
조재훈 강안(江岸)에서
조재훈 게
조재훈 겨울 낮달
조재훈 겨울산
조재훈 금강에게
조재훈 대통령 자전거 꽁무니에 매달린 술통
조재훈 만추(晩秋)
조재훈 무등(無等)에 와서
조재훈 물의 말씀
조재훈 바다
조재훈 부여행(扶餘行) 1
조재훈 서울 쓰레기
조재훈 섬안의 새
조재훈 아름다운 슬픔
조재훈 자장가
조재훈 중년(中年)
조재훈 진달래
조재훈 해거름
조정권 78년 5월
조정권 79년 가을
조정권 겨울 저녁이 다시
조정권 구름의 편지
조정권 균열
조정권 근성(根性)
조정권 김달진옹(金達鎭翁) 1
조정권 노래 2
조정권 노래 3
조정권 노래 4
조정권 독(毒)
조정권 독락당(獨樂堂)
조정권 라이프찌히에서
조정권 명(銘)
조정권 목숨
조정권 백지(白紙) 1
조정권 백지(白紙) 2
조정권 베드로 1
조정권 베드로 2
조정권 베를린 통신(通信)
조정권 벼랑끝
조정권 봉합된 가을
조정권 불
조정권 비를 바라보는 일곱 가지 마음의 형태(形態)
조정권 산정묘지(山頂墓地) 1
조정권 산정묘지(山頂墓地) 10
조정권 산정묘지(山頂墓地) 13
조정권 산정묘지(山頂墓地) 14
조정권 산정묘지(山頂墓地) 17
조정권 산정묘지(山頂墓地) 2
조정권 산정묘지(山頂墓地) 20
조정권 산정묘지(山頂墓地) 26
조정권 산정묘지(山頂墓地) 29
조정권 산정묘지(山頂墓地) 30
조정권 산정묘지(山頂墓地) 4
조정권 산정묘지(山頂墓地) 5
조정권 산정묘지(山頂墓地) 7
조정권 산정묘지(山頂墓地) 8
조정권 산정묘지(山頂墓地) 9
조정권 송곳눈
조정권 수유리(水踰里) 시편(詩篇)
조정권 수유리(水踰里)에 사는 옹(翁)을
조정권 숯덩이
조정권 심골(心骨)
조정권 악마
조정권 어둠의 뿌리
조정권 열매

조정권 오색(五色) 약수
조정권 육체로 작품 만들기
조정권 일명(逸名)
조정권 잠 오는 사탕
조정권 축자지송(筑紫之松)송(頌)
조정권 튀빙겐 가는 길
조정권 파르지팔
조정권 품
조정권 하늘이불
조정권 허공(虛空) 만들기
조정권 현상(現象)에서 흔적으로
조정권 화상(畵像)을 보며
조정권 화해(和解)
조정권 흑단(黑檀)
조정권 흑판(黑板)
조지훈 가야금
조지훈 계림애창(鷄林哀唱)
조지훈 고목(枯木)
조지훈 고사(古寺) 1
조지훈 고사(古寺) 2
조지훈 고조(古調)
조지훈 고풍의상(古風衣裳)
조지훈 그대 형관(荊冠)을 쓰라
조지훈 그들은 왔다
조지훈 그리움
조지훈 기다림
조지훈 길
조지훈 꽃 그늘에서
조지훈 꿈 이야기
조지훈 낙화(落花)
조지훈 낙화(落花) 2
조지훈 눈 오는 날에
조지훈 늬들 마음을 우리가 안다
조지훈 다부원(多富院)에서
조지훈 대금(大♣)
조지훈 도리원(桃李院)에서
조지훈 동물원의 오후
조지훈 마을
조지훈 매화송(梅花頌)
조지훈 맹세
조지훈 묘망(渺茫)
조지훈 무고(舞鼓)
조지훈 민들레꽃
조지훈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서면
조지훈 밤
조지훈 범종(梵鐘)
조지훈 별리(別離)
조지훈 병(病)에게
조지훈 봉황수(鳳凰愁)
조지훈 비가 내린다
조지훈 사랑하는 아들딸들아
조지훈 사모(思慕)
조지훈 산방(山房)
조지훈 산상(山上)의 노래
조지훈 산중문답(山中問答)
조지훈 석문(石門)
조지훈 설조(雪朝)
조지훈 송행(送行) 1
조지훈 승무(僧舞)
조지훈 십자가(十字架)의 노래
조지훈 아침 2
조지훈 앵음설법(鶯吟說法)
조지훈 여운
조지훈 여인
조지훈 역사(歷史) 앞에서
조지훈 염원(念願)
조지훈 영(嶺)
조지훈 영상(影像)
조지훈 완화삼(玩花衫)
조지훈 월광곡(月光曲)
조지훈 율객(律客)
조지훈 잠언(箴言)
조지훈 절정(絶頂)
조지훈 종소리
조지훈 지옥기(地獄記)
조지훈 창(窓)
조지훈 첫 기도
조지훈 청마우거유감(靑馬寓居有感)
조지훈 추일단장(秋日斷章)
조지훈 파초우(芭蕉雨)
조지훈 풀밭에서
조지훈 풀잎 단장(斷章)
조지훈 피리를 불면
조지훈 향문(香紋)
조지훈 호수(湖水)
조지훈 화체개현(花體開顯)
조지훈 흙을 만지며
조창환 귀향(歸鄕)
조창환 두보(杜甫)에게
조창환 라자로 마을의 새벽 1
조창환 라자로 마을의 새벽 2
조창환 라자로 마을의 새벽 28
조창환 라자로 마을의 새벽 29
조창환 라자로 마을의 새벽 3
조창환 라자로 마을의 새벽 32
조창환 라자로 마을의 새벽 33

조창환 말
조창환 바하를 들으며
조창환 보생자과욕(保生者寡慾) 1
조창환 볼레로
조창환 빈 집을 지키며
조창환 연가(戀歌) 1
조창환 연가(戀歌) 2
조창환 연가풍으로
조창환 임방울
조창환 크로이첼
조창환 파랑 눈섭
조태일 가거도(可居島)
조태일 가시내 환영(幻影)
조태일 가을엔
조태일 간추린 풍경(風景)
조태일 겨울 새
조태일 겨울 소식
조태일 겨울에 쓴 자유서설(自由序說)
조태일 국토서시(國土序詩)
조태일 굼벵이
조태일 길
조태일 깨알들
조태일 난들 어쩌란 말이냐
조태일 난로회(煖爐會) 1
조태일 난로회(煖爐會) 2
조태일 내가 뿌리는 씨앗은
조태일 너만 하나냐 우리도 하나다
조태일 농주(農酒)
조태일 눈깔사탕 1
조태일 눈깔사탕 2
조태일 눈깔사탕 3
조태일 다시 산하(山河)에게
조태일 된장
조태일 모래 · 별 · 바람
조태일 목소리
조태일 발바닥 밑에
조태일 방문기(訪問記)
조태일 빈 집에 황소가
조태일 빗속을 거닐며
조태일 산(山)에서
조태일 석탄
조태일 소나기의 혼(魂)
조태일 소리들 분노한다
조태일 숲과 환(幻)
조태일 시인(詩人)의 방랑
조태일 식칼론(論) 1
조태일 식칼론(論) 2
조태일 식칼론(論) 4
조태일 식칼론(論) 5
조태일 식칼론(論)3
조태일 쌀
조태일 아침 선박(船舶)
조태일 아침 연가(戀歌)
조태일 연습(演習) 1
조태일 옹기점 풍경(甕器店 風景)
조태일 우울한 방(房)
조태일 이웃의 잠을 위하여
조태일 죽음
조태일 칠행시초(七行詩抄)
조태일 탁과 억 사이에서
조태일 파도처럼
조태일 풀씨에서 백두산까지
조향 SANATORIUM
조향 '쥬노'의 독백
조향 가을과 소녀(少女)의 노래
조향 검은 SERIES
조향 검은 신화(神話)
조향 검은 전설
조향 그날의 신기루(蜃氣樓)
조향 나는야 뱃사공
조향 날아라 구천에
조향 녹색(綠色) 의자(椅子)가 앉아 있는 베란다에서
조향 녹색(綠色)의 지층(地層)
조향 대연리(大淵里) 서정(抒情)
조향 디멘쉬어 프리콕스의 푸르른 산수(算數)
조향 문명(文明)의 황무지(荒蕪地)
조향 밀 누름 때
조향 바다의 층계
조향 본 보이지(BON VOYAGE)!
조향 붉은 달이 걸려 있는 풍경화(風景畵)
조향 성(聖)바오로 병원(病院)의…...
조향 장미와 수녀(修女)의 오브제
조향 조개
조향 초야(初夜)
조향 크세나키스 셈본
조향 태백산맥(太白山脈)
조향 파아란 항해(航海)
주요한 가신 누님
주요한 가을 멧견
주요한 가을은 아름답다
주요한 그 봄을 바라
주요한 금속의 노래

주요한 꽃
주요한 꽃밭
주요한 남국의 눈
주요한 노래하고 싶다
주요한 농부
주요한 누이야
주요한 눈
주요한 눈 오는 날
주요한 눈결
주요한 늙은 농부의 한탄
주요한 드을로 가사이다
주요한 등대
주요한 마음의 꽃
주요한 목탁소리
주요한 물꽃
주요한 반딧불
주요한 복사꽃이 피면
주요한 봄비
주요한 부끄러움
주요한 불놀이
주요한 사랑
주요한 삶
주요한 삶·죽음
주요한 새벽꿈
주요한 샘물이 혼자서
주요한 생(生)의 찬미(讚美)
주요한 아기의 꿈
주요한 아침 처녀
주요한 영혼
주요한 옛날의 거리
주요한 외로움
주요한 우리집
주요한 이야기
주요한 자장가(운을 따라서)
주요한 전원송(田園頌)
주요한 조선
주요한 지금에도 못 잊는 것은
주요한 채석장
주요한 페놀탈렌
주요한 푸른 하늘 아래
주요한 풀밭
주요한 하늘
주요한 해의 시절
주요한 황혼의 노래
차한수 강(江)가에서
차한수 개살구
차한수 거만한 신(神) 1
차한수 달은 밝은데
차한수 더덕꽃
차한수 떠돌이 별
차한수 버리세요 1
차한수 버리세요 2
차한수 벗어 버리기
차한수 사시(斜視)
차한수 산(山)을 보면
차한수 지평선(地平線)
차한수 진혼제(鎭魂祭) 1
차한수 천둥소리
차한수 천둥소리
차한수 투시도(透視圖) 1
차한수 투시도(透視圖) 2
차한수 폭우(暴雨)
차한수 풍경 1
차한수 함박눈
채성병 검은 소에 관한 기억 1
채성병 검은 소에 관한 기억 2
채성병 그 사내
채성병 꽃밭에서
채성병 녹슨 단추가
채성병 누군가 1
채성병 돈
채성병 무서운 봄
채성병 바닷가 이 왕국
채성병 방 1
채성병 별을 찾아서 1
채성병 빈터
채성병 빙하기에 생긴 일
채성병 뻐꾸기 등지 위로 날아간 새: 1
채성병 앓니 하나가
채성병 왕자와 거지
채성병 잠
채성병 햇빛 사냥
채성병 흔적
채성병 희망 1
천상병 갈대
천상병 갈매기
천상병 강물
천상병 계곡(溪谷)
천상병 계곡물
천상병 광화문에서
천상병 귀천(歸天)
천상병 그날은
천상병 기쁨
천상병 길
천상병 길

천상병 나무
천상병 나의 가난은
천상병 낚시꾼
천상병 눈
천상병 다음
천상병 달
천상병 덕수궁(德壽宮)의 오후(午後)
천상병 동그라미
천상병 동창(同窓)
천상병 들국화
천상병 등불
천상병 무명(無名)
천상병 무제(無題)
천상병 미소(微笑)
천상병 바다
천상병 밤 하늘
천상병 밤비
천상병 변두리
천상병 봄 소식(消息)
천상병 불혹(不惑)의 추석(秋夕)
천상병 비
천상병 비 10
천상병 비 11
천상병 비 7
천상병 비 8
천상병 비 9
천상병 삼청공원(三淸公園)에서
천상병 새
천상병 새
천상병 새
천상병 서대문(西大門)에서
천상병 서울, 평양(平壤) 직통전화(直通電話) 8
천상병 선경(仙境)
천상병 선경(仙境)
천상병 선경(仙境) 1
천상병 소능조(小陵調)
천상병 수락산변(水落山邊)
천상병 수락산하변(水落山下邊)
천상병 수락산하변(水落山下邊) 5
천상병 시냇물가 2
천상병 시냇물가 3
천상병 시냇물가 5
천상병 심신록(心信錄) 1
천상병 약속(約束)
천상병 약수(藥水)터
천상병 어두운 밤에
천상병 역(易)
천상병 인생서가(人生序歌) 2
천상병 인생서가(人生序歌) 3
천상병 조류(潮流) 3
천상병 주막(酒幕)에서
천상병 촌길
천상병 편지
천상병 푸른 것만이 아니다
천상병 한 가지 소원(所願)
천상병 한 낮의 별빛
천상병 회상 1
천상병 회상 2
천상병 희망(希望)
천상병 흰 구름
천양희 겨울단장(斷章) 1
천양희 그리운 인력(引力)
천양희 그림자에게 부치는 엽서(葉書)
천양희 길을 찾아서
천양희 끝
천양희 나의 어리석음이
천양희 못질을 하며
천양희 묵상(默想) 1
천양희 묵상(默想) 5
천양희 사랑
천양희 산을 오르며
천양희 삶에게
천양희 서로보기
천양희 술래
천양희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천양희 여름날
천양희 위하여
천양희 이 하루
천양희 인천에 가서
천양희 정든 땅 언덕위에
최남선 가는 배
최남선 가을 뜻
최남선 구작(舊作) 삼편(三篇)
최남선 국화(菊花)
최남선 국화(菊花)
최남선 궁거워
최남선 금강(錦江)에 떠서
최남선 꽃 두고
최남선 나라를 떠나는 슬픔
최남선 단군굴(檀君窟)에서
최남선 대동강(大同江)에서
최남선 대한소년행(大韓少年行)
최남선 동산(東山)에서
최남선 떠나서
최남선 뜨거운 피

최남선 막은 물
최남선 모르네 나는
최남선 밥벌레
최남선 백마강(白馬江)에서
최남선 벌[蜂]
최남선 봄길
최남선 봄맞이
최남선 봄의 앞잡이
최남선 붕(鵬)
최남선 삼면환해국(三面環海國)
최남선 새봄
최남선 석굴암(石窟庵)에서
최남선 소년 대한(少年 大韓)
최남선 시(詩) 삼편(三篇)
최남선 신대한소년(新大韓少年)
최남선 안겨서
최남선 어느 마음
최남선 우리 님
최남선 우이동사시(牛耳洞四時)
최남선 웅진(熊津)에서
최남선 일람각(一覽閣)에서
최남선 천만(千萬) 길 깊은 바다
최남선 추색(秋色)
최남선 태백(太白)범[虎]
최남선 태백(太白)의 님을 이별(離別)함
최남선 태백산(太白山)과 우리
최남선 태백산(太白山)의 사시(四時)
최남선 태백산부(太白山賦)
최남선 피난(避亂) 육월이십육일(六月二十六日)
최남선 한강(漢江)의 밤배
최남선 해(海)에게서 소년(少年)에게
최남선 혼자 앉아서
최남선 혼자 자다가
최남선 화신(花神)을 찬송(贊頌)하노라고
최동호 가을 빗소리
최동호 갈색의 눈
최동호 강가로 걸어나가
최동호 겨울 한산시(寒山詩)
최동호 누추한 육신을 누가 잠들게 하나
최동호 눈 뜨는 봄날
최동호 둥근 바위에 누워
최동호 뒤돌아 볼 수 없는 스크린 앞에서
최동호 딱다구리는 어디에 숨어 있는가
최동호 말이 없는 사람
최동호 봄바람
최동호 북한강에서
최동호 붉은 흙
최동호 비어 있는 계곡
최동호 새벽 마당
최동호 새벽 빛
최동호 세속의 길
최동호 아침 책상
최동호 어린 솔나무에게
최동호 어린아이와 산을 오르다
최동호 어스름 달빛
최동호 이른 봄 국망봉(國望峰)에서
최동호 천둥소리
최동호 취한 손
최동호 캄캄한 대낮 등불을 들고
최동호 푸른산에서 고서를 읽다
최동호 풀이 마르는 소리
최동호 해질 무렵
최동호 황사(黃砂)바람
최동호 흐르는 사람
최두석 교과서와 휴전선
최두석 김통정
최두석 까마귀
최두석 노래와 이야기
최두석 놀부전
최두석 농섬
최두석 누님
최두석 달래강
최두석 달팽이
최두석 담양장
최두석 동두천 민들레
최두석 망초꽃밭
최두석 샘터에서
최두석 성에꽃
최두석 우렁 색시
최두석 인천 자유공원에서
최두석 장화홍련
최두석 전길수씨
최두석 전태일
최두석 정여립
최명길 매봉산 그 사람
최명길 물새
최명길 물의 노래
최명길 반만 울리는 피리
최명길 산지기
최명길 서시(序詩) 1: 새

최명길 서시(序詩) 2: 밀애
최명길 아기 산
최명길 온 하늘을 불사른 후에야
최명길 온몸 새벽으로 깨어
최명길 이 몸은 나의 모든 것이기에
최명길 저녁 강물을 마시다가
최명길 풀잎을 보다가
최명길 할 말을 다 못다 하고
최석하 그는
최석하 독사 2
최석하 떠돌이
최석하 물구나무서기
최석하 바람이 바람을 불러 바람 불게 하고
최석하 봄의 몸살 1
최석하 비렁뱅이
최석하 빈 농약병
최석하 빛이 있어 어둠이 있고
최석하 소물동(少勿洞)의 개죽음
최석하 시간(屍姦)
최석하 알거지
최석하 의자와 나
최석하 자갈[沙礫]
최석하 잔치
최석하 잠깐
최석하 전쟁
최석하 죽(竹)
최석하 지렁이
최석하 탈놀음
최승자 20년 후에, 지(芝)에게
최승자 S를 위하여
최승자 Y를 위하여
최승자 가을의 끝
최승자 개 같은 가을이
최승자 기억의 집
최승자 끊임없이 나를 찾는 전화 벨이 울리고
최승자 내가 너를 너라고 부를 수 없는 곳에서
최승자 내게 새를 가르쳐 주시겠어요?
최승자 너는 즐거웠었니
최승자 네게로
최승자 당대(當代)의 당대(當代)의
최승자 돌아와 나는 시(詩)를 쓰고
최승자 무제(無題) 1
최승자 문명
최승자 물망초
최승자 미망(未忘) 혹은 비망(備忘) 1
최승자 미망(未忘) 혹은 비망(備忘) 16
최승자 미망(未忘) 혹은 비망(備忘) 2
최승자 미망(未忘) 혹은 비망(備忘) 3
최승자 방(放)
최승자 봄의 약사(略史)
최승자 비오는 날의 재회
최승자 사랑 혹은 살의랄까 자폭
최승자 삼십 삼년 동안 두번째로
최승자 삼십대의 자서전
최승자 삼십세
최승자 솔리테어
최승자 수신인은 이미
최승자 술독에 빠진 그리움
최승자 슬로우 비디오
최승자 어느 여인의 종말
최승자 여의도 광시곡
최승자 우우, 널 버리고 싶어
최승자 이 시대의 사랑
최승자 이제 가야만 한다
최승자 이천년대가 시작되기 전에
최승자 일찌기 나는
최승자 자칭 시(詩)
최승자 주변인의 초상
최승자 주인 없는 잠이 오고
최승자 죽음은 이미 달콤하지 않다
최승자 즐거운 일기
최승자 첫사랑의 여자
최승자 청계천 엘레지
최승자 청파동을 기억하는가
최승자 폰 가갸씨의 초상(肖像)
최승자 해남 대흥사에서
최승자 허공의 여자
최승자 호모 사피엔스의 밤
최승호 가건물 속의 희멀건 희망
최승호 공장지대
최승호 공터
최승호 그늘
최승호 그로테스크한 죽음 앞에서
최승호 꽝한 인간 혹은 변기의 생
최승호 나는 숨을 쉰다
최승호 나비떼
최승호 대설주의보(大雪注意報)
최승호 돌들의 서랍
최승호 두번째 자루
최승호 때밀이수건
최승호 렌트카의 길

최승호 마을
최승호 몸
최승호 무인칭 대 무인칭
최승호 무인칭의 죽음
최승호 물 위에 물 아래
최승호 바퀴벌레 일가(一家)
최승호 밤의 힘
최승호 밥순갈을 닮았다
최승호 변기
최승호 부르도자 부르조아
최승호 부패의 힘
최승호 북어(北魚)
최승호 뻘 돋친 벽
최승호 뻘쥐
최승호 사람이 하늘보다
최승호 설경(雪景) 속
최승호 세 개의 변기
최승호 세속도시의 즐거움 1
최승호 세속도시의 즐거움 2
최승호 숫소
최승호 시궁쥐
최승호 썩는 여자
최승호 아이쿠 사막
최승호 어느 정신병자의 고독
최승호 엘리베이터 속의 파리
최승호 오징어 3
최승호 의자의 수령
최승호 자동판매기
최승호 주전자
최승호 죽은 해마(海馬)
최승호 쥐치
최승호 지하철 정거장의 노란 의자들
최승호 첫번째 자루
최승호 통(桶)조림
최승호 흠통
최승호 휘둥그래진 눈
최승호 희귀한 성자(聖者)
최원규 겨울 이야기
최원규 꿩을 바라보며
최원규 나무
최원규 눈
최원규 다섯 개의 모과
최원규 달
최원규 들판에서
최원규 등나무 소묘(素描)
최원규 못
최원규 바다와 새
최원규 벌레여, 벌레여
최원규 별들의 노래
최원규 봄이 되어
최원규 사계송(四季頌)
최원규 새
최원규 새가 되어
최원규 숲
최원규 언덕은 사랑의……
최원규 열병(熱病) 1
최원규 칡넝쿨처럼
최원규 희열(喜悅)
최재형 거리에서
최재형 군가(軍歌)
최재형 나의 조건(條件)
최재형 당신에게
최재형 동면(冬眠)
최재형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최재형 묵상(默像)
최재형 밤
최재형 밤길
최재형 방(房)
최재형 북소리
최재형 양지
최재형 여름산
최재형 여망(餘望)
최재형 역려(逆旅)
최재형 열매
최재형 지도(地圖)
최재형 한(翰)
최하림 가을의 말 5
최하림 겨울 정치(精緻)
최하림 겨울 초상화(肖像畵)
최하림 겨울의 말
최하림 겨울의 빛 1
최하림 겨울의 빛 2
최하림 겨울의 사랑
최하림 기차는 북으로도, 남으로도 가고
최하림 나는 선(禪)맛 느낀다
최하림 날마다 산길 1
최하림 날마다 산길 2
최하림 날마다 산길 3
최하림 날마다 산길 4
최하림 내 시(詩)는 시의 그림자뿐이네
최하림 달밤의 어릿광대
최하림 담쟁이덩굴
최하림 떠난 자를 위하여
최하림 마음의 그림자

최하림 말하기 전에, 나는
최하림 모카 커피를 마시며
최하림 방문
최하림 밭고랑 옥수수
최하림 백설부(白雪賦) 1
최하림 베드로 2
최하림 베드로 3
최하림 병후(病後)에
최하림 부랑자(浮浪者)의 노래 1
최하림 불빛을 그리워한다
최하림 비가(悲歌)
최하림 빈약(貧弱)한 올페의 회상(回想)
최하림 산
최하림 새
최하림 서 있는 사람
최하림 설야(雪夜)
최하림 소리꾼
최하림 시(詩)
최하림 심연으로
최하림 어느 뫼를 걸어도 좋으리
최하림 어둠의 노래
최하림 어머니 강물
최하림 어머니 곁에 누우면
최하림 영동(嶺東)
최하림 우리가 만났던 시간들
최하림 우리나라 1975년(年)
최하림 우리는 손잡고, 기다리고 있었네
최하림 우리들은 무엇인가
최하림 우리들은 오늘도
최하림 우리들이 걸었던 길의 고통의 시간 속에서
최하림 유랑자(流浪者)들의 노래
최하림 이제 나는 잠을 자야겠습니다
최하림 저녁 그림자
최하림 저녁 바다와 아침 바다
최하림 정방폭포
최하림 즐거운 딸들
최하림 천은사(泉隱寺) 길
피천득 1930년 상해(上海)
피천득 구슬
피천득 국민학교 문앞을 지날 때면
피천득 기다림 1
피천득 기다림 2
피천득 꿈 1
피천득 나의 가방
피천득 너
피천득 단풍이 떨어지오
피천득 달무리 지면
피천득 무제(無題)
피천득 바다
피천득 생각
피천득 생명
피천득 시내
피천득 아가의 기쁨
피천득 아가의 꿈
피천득 아가의 슬픔
피천득 아가의 오는 길
피천득 아침
피천득 어떤 아가의 근심
피천득 어린 벗에게
피천득 어린 시절
피천득 이슬
피천득 작은 기억
피천득 팔월십오일(八月十五日)
피천득 편지
하재봉 <추방>
하재봉 강마을
하재봉 나뭇잎은 나의 시
하재봉 동굴 전
하재봉 몽상의 숲
하재봉 반달곰
하재봉 비디오/TV는 나의 눈
하재봉 비디오/없다
하재봉 비디오/천국
하재봉 비디오/태양의 물
하재봉 비디오/플로피 디스크
하재봉 숲과 동굴
하재봉 안개와 불
하재봉 저녁 강
하재봉 점성술사의 꿈
하재봉 쥐불놀이
하재봉 첫사랑
하재봉 태양족
하재봉 해초의 눈
하재봉 호랑이
하종오 나무들은 서로 다르게 흔들리지만
하종오 노동시장
하종오 들
하종오 들소리
하종오 만남
하종오 바람 부는 저녁
하종오 벼는 벼끼리 피는 피끼리
하종오 사월생(四月生)을 위하여

하종오 사월에서 오월로
하종오 산에 들에 초록 잎새
하종오 야행(夜行)
하종오 오월에 1
하종오 우듬지를 보며 한 철
하종오 유복자
하종오 참나무가 대나무에게
하종오 추석 빈 집 대추나무
하종오 파지(破紙)
하종오 풍매화
하종오 풍장(風葬)
하종오 호남평야와 김해평야의 덕담(德談)
한광구 0.4
한광구 공시색(空是色)
한광구 꿈꾸는 물 2
한광구 노래를 불러다오
한광구 단풍(丹楓)
한광구 메밀꽃이 피었다.
한광구 물나라 기행 하나
한광구 비둘기 울음소리
한광구 빗물 4
한광구 사랑균(菌) 7
한광구 상처(傷處)를 위하여 2
한광구 상처(傷處)를 위하여 7
한광구 색시공(色是空)
한광구 서울 별
한광구 우리들의 김씨
한광구 유다서(書)
한광구 이 땅에 비오는 날은
한광구 청계천(淸溪川) 1
한광구 춤이나 추시게
한광구 혹
한기찬 간척지에서 1
한기찬 나는 여름을 돌리는 바퀴 속에서
한기찬 나무 오르기
한기찬 들개
한기찬 맹금(猛禽)
한기찬 무화과 1
한기찬 사람들: 노래
한기찬 순(筍) 1
한기찬 여름: 수치 1
한기찬 여름: 수치 3
한기찬 장미
한기찬 종일
한기찬 지리산 1
한기찬 지상(地上)에서
한기찬 천둥치는 날
한기찬 칠월
한기찬 토우(土偶)
한기찬 하늘소
한기찬 하일(夏日)
한기찬 화관(花冠) 1
한기팔 가을 수채화(水彩畵)
한기팔 갈증(渴症)
한기팔 귀뚜리
한기팔 귀로(歸路)
한기팔 귤(橘)꽃은 지고
한기팔 꽃씨
한기팔 눈오는 소리
한기팔 먼 산 바라보기 1
한기팔 바다
한기팔 밤비
한기팔 불을 지피며 1
한기팔 산울림
한기팔 서귀포(西歸浦) 2
한기팔 숲에서 1
한기팔 안경알을 닦으며
한기팔 옹포(甕浦)바다
한기팔 저녁 햇살
한기팔 풀꽃 하나
한기팔 햇볕 잘 드는 날의 시(詩)
한기팔 휘파람새 1
한성기 교외(郊外)에서
한성기 낙(樂)
한성기 눈
한성기 눈
한성기 달여울
한성기 둑길 I
한성기 둑길 III
한성기 먼 재
한성기 밤
한성기 밤
한성기 병후(病後)
한성기 사월(四月)
한성기 삼월(三月)
한성기 새
한성기 새와 나무
한성기 시야(視野)
한성기 싸락눈
한성기 역(驛)
한성기 열매
한성기 이맘쯤에서
한성기 잃어버린 시골
한성기 자기를 구워내 듯

한성기 정류소
한성기 추일(秋日)
한용운 {?}
한용운 {사랑}을 사랑하여요
한용운 가지 마셔요
한용운 거문고 탈 때
한용운 거짓 이별
한용운 계월향(桂月香)에게
한용운 고대(苦待)
한용운 고적한 밤
한용운 군말
한용운 그를 보내며
한용운 금강산
한용운 길이 막혀
한용운 꽃싸움
한용운 꽃이 먼저 알아
한용운 꿈 깨고서
한용운 꿈과 근심
한용운 꿈이라면
한용운 나는 잊고저
한용운 나룻배와 행인
한용운 나의 길
한용운 나의 꿈
한용운 나의 노래
한용운 낙원은 가시덤불에서
한용운 논개(論介)의 애인이 되어서 그의 묘(廟)에
한용운 눈물
한용운 님의 손길
한용운 님의 얼굴
한용운 님의 침묵
한용운 달을 보며
한용운 당신 가신 때
한용운 당신은
한용운 당신을 보았습니다
한용운 당신의 마음
한용운 당신의 편지
한용운 당신이 아니더면
한용운 독자에게
한용운 두견새
한용운 떠날 때의 님의 얼굴
한용운 만족
한용운 명상
한용운 반비례
한용운 밤은 고요하고
한용운 버리지 아니하면
한용운 복종
한용운 비
한용운 비밀
한용운 비방
한용운 사랑의 끝판
한용운 사랑의 불
한용운 사랑의 존재
한용운 사랑의 측량
한용운 사랑하는 까닭
한용운 생명
한용운 생의 예술
한용운 선사(禪師)의 설법(說法)
한용운 수(繡)의 비밀
한용운 슬픔의 삼매(三昧)
한용운 심은 버들
한용운 알 수 없어요
한용운 어느 것이 참이냐
한용운 어디라도
한용운 여름밤이 길어요
한용운 예술가
한용운 오셔요
한용운 요술
한용운 우는 때
한용운 의심하지 마셔요
한용운 이별
한용운 이별은 미의 창조
한용운 인과율(因果律)
한용운 자유 정조(自由貞操)
한용운 잠 없는 꿈
한용운 잠꼬대
한용운 정천한해(情天恨海)
한용운 진주
한용운 차라리
한용운 착인(錯認)
한용운 찬송(讚頌)
한용운 참말인가요
한용운 참아 주셔요
한용운 첫 키쓰
한용운 최초의 님
한용운 칠석(七夕)
한용운 쾌락
한용운 타골의 시(詩)(GARDENISTO)를 읽고
한용운 포도주
한용운 하나가 되어 주셔요
한용운 해당화
한용운 행복
한용운 후회
한하운 고향(故鄕)
한하운 귀향(歸鄕)

한하운 나
한하운 나는 문둥이가 아니올시다
한하운 답화귀(踏花歸)
한하운 데모
한하운 막다른 길
한하운 목숨
한하운 벌(罰)
한하운 보리피리
한하운 봄
한하운 부엉이
한하운 비 오는 길
한하운 삶
한하운 삼방(三防)에서
한하운 생명(生命)의 노래
한하운 손가락 한 마디
한하운 어머니
한하운 업계(業界)
한하운 인골적(人骨笛)
한하운 자벌레의 밤
한하운 자화상(自畵像)
한하운 창경원(昌慶苑)
한하운 추석(秋夕)달
한하운 추야원한(秋夜怨恨)
한하운 추억(追憶) 2
한하운 추우일기(秋雨日記)
한하운 춘곤(春困)
한하운 파랑새
한하운 하운(何雲)
함윤수 그의 마음
함윤수 꿈
함윤수 달(1)
함윤수 밤
함윤수 밤
함윤수 별
함윤수 병상(病床)에서
함윤수 복수(復讐)의 여신(女神)
함윤수 불사(不死)의 우상(偶像)
함윤수 성찬(聖餐)
함윤수 수선화(水仙花)
함윤수 수선화(水仙花)
함윤수 시간(時間)
함윤수 암영(暗影)
함윤수 앵무새
함윤수 역사(歷史)
함윤수 우상(偶像)
함윤수 장미(薔薇)
함윤수 장송곡(葬送曲)
함윤수 축연(祝宴)
함윤수 튜립
함형수 9월의 시(詩)
함형수 가족(家族)
함형수 개아미와 같이
함형수 고려자기송(高麗磁器頌)
함형수 교상(橋上)의 소녀(少女)
함형수 귀국(歸國)
함형수 그 애
함형수 나는 하나의 손바닥 우에
함형수 나의 신(神)은
함형수 담뇨
함형수 마음
함형수 마음의 단편(斷片)
함형수 마음의 촛불
함형수 무서운 밤
함형수 백의사(白衣詞)
함형수 비애(悲哀)
함형수 소상(塑像)
함형수 손가락
함형수 신기루(蜃氣樓)
함형수 유폐행(幽閉行)
함형수 자전거상(自轉車上)의 소년(少年)
함형수 정오(正午)의 모랄
함형수 조개비
함형수 차중쾌주(車中快走)의 스케치
함형수 촌철집(寸鐵集)
함형수 해골(骸骨)의 추억(追憶)
함형수 해바래기의 비명(碑銘)
함형수 형화(螢火)
함형수 호접몽(蝴蝶夢)
함형수 화석(化石)의 고개
함형수 황혼(黃昏)의 아리나리 곡(曲)
함형수 회상(回想)의 방(房)
함혜련 Ⅰ 한강 혼례(婚禮)
함혜련 Ⅰ 봄의 신화
함혜련 Ⅱ 천형반도(天刑半島)
함혜련 Ⅳ 산 자(者)의 땅
함혜련 거미의 집 내 집은
함혜련 구멍이 난 돌멩이
함혜련 그 부인의 눈
함혜련 꿈의 바퀴
함혜련 미친 바다
함혜련 바다를 낳는 여자
함혜련 새로 피는 잎 저 너머
함혜련 숨구멍
함혜련 아기우주
함혜련 아침 18

함혜련　아침 I
함혜련　여우
함혜련　외로운 섬들
함혜련　우정(友情)
함혜련　월동준비
함혜련　유다의 딸들
함혜련　푸른 빛 합창(合唱)
함혜련　하늘 뿌리
함혜련　하얀 거짓말
허소라　겨울 나무 1
허소라　경마장에서
허소라　구월사(九月辭)
허소라　그 연대(年代)의 잠
허소라　금반지
허소라　뜨거운 숲
허소라　목수(木手)
허소라　물방울이나 되어
허소라　발견(發見)의 늪
허소라　봄날 전라도
허소라　부활의 아침
허소라　빛의 목록(目錄)
허소라　산북기행(山北紀行) 1
허소라　산북기행(山北紀行) 2
허소라　세상은 하나로 좁혀지고
허소라　소등(消燈)
허소라　아류(亞流)
허소라　아침시작(試作)
허소라　유희(遊戲)
허소라　임진강가에서
허소라　짐짓기 1
허소라　춘망(春望)
허소라　침몰(沈沒)
허소라　풍경(風景) I
허소라　풍금(風琴)
허영자　가을 4
허영자　가을 6
허영자　가을 달빛
허영자　가을 비
허영자　가을날 1
허영자　가을날 2
허영자　가을날 3
허영자　가을날 4
허영자　감
허영자　겨울 햇볕
허영자　구름
허영자　국화
허영자　그 무엇으로도
허영자　긴 봄날
허영자　낙엽
허영자　녹음(綠陰)
허영자　다듬이
허영자　대좌(對坐)
허영자　떡살
허영자　무제(無題) 1
허영자　무지개를 사랑한 걸
허영자　백자(白瓷)
허영자　복숭아
허영자　봄
허영자　부재(不在)
허영자　비 오는 날
허영자　빗
허영자　뻐꾸기
허영자　사모곡(思母曲)
허영자　삶
허영자　설경(雪景) 2
허영자　씨앗
허영자　씨앗을 받으며
허영자　연(蓮)
허영자　자수(刺繡)
허영자　잡초(雜草)
허영자　장미
허영자　진달래
허영자　피리
허영자　하늘
허영자　한 줌 흙
허영자　휘발유
허영자　흰 수건
허형만　개로 인하여
허형만　꽃씨를 묻으며
허형만　도미의 노래
허형만　만남
허형만　무덤은 하나
허형만　밤비
허형만　사람이 하늘이게
허형만　사랑이여 너에게
허형만　산(山) 하나
허형만　신호등 앞에서
허형만　아버지
허형만　아픔을 위하여
허형만　오월이 오면
허형만　이 시대의 꿈을 위하여
허형만　정오(正午)
허형만　폭풍
허형만　풀독(毒)
허형만　풀잎이 하나님에게
허형만　형님

허형만 훈민정음을 다시 읽으며
홍사용 각시풀
홍사용 감출 수 없는 것은
홍사용 고초당초 맵다한들
홍사용 그것은 모두 꿈이었지마는
홍사용 그러면 마음대로
홍사용 그이의 화상(畵像)을 그릴 제
홍사용 꿈이면은?
홍사용 나는 왕(王)이로소이다
홍사용 노래는 회색(灰色), 나는 또 울다
홍사용 바람이 불어요!
홍사용 백조(白潮)는 흐르는데 별 하나 나 하나
홍사용 별, 달, 또 나, 나는 노래만 합니다
홍사용 봄은 가더이다
홍사용 붉은 시름
홍사용 비 오는 밤
홍사용 시악시 마음은
홍사용 시악시 마음이란
홍사용 시악시의 무덤
홍사용 어머니에게
홍사용 어부(漁父)의 적(跡)
홍사용 월병(月餠)
홍사용 이한(離恨)
홍사용 커다란 무덤을 껴안고
홍사용 키스 뒤에
홍사용 통발
홍사용 푸른 강(江)물에 물놀이 치는 것은
홍사용 푸른 언덕 가으로
홍사용 한선(寒蟬)
홍사용 해저문 나라에
홍사용 호젓한 걸음
홍사용 흐르는 물을 붙들고서
홍사용 희게 하얗게
홍신선 고향
홍신선 나무
홍신선 나무쟁이 최씨(崔氏)
홍신선 남북(南北)녘
홍신선 노자(老子)
홍신선 논 1
홍신선 논 2
홍신선 능안 동리(洞里)
홍신선 달빛
홍신선 들오리 떼
홍신선 마음
홍신선 물
홍신선 밤
홍신선 분수(噴水)
홍신선 뿌리 박기
홍신선 뿌리 박기
홍신선 사람이 사람에게
홍신선 삶 거듭 살아도
홍신선 새벽
홍신선 서른 나이에
홍신선 아침
홍신선 아침 노을
홍신선 어느 시인의 죽음
홍신선 어떤 가야산(伽倻山)
홍신선 어스름이 와서
홍신선 여름 통도사(通度寺)
홍신선 우리 이모
홍신선 우리 홍씨(洪氏) 1
홍신선 우리 홍씨(洪氏) 2
홍신선 이제는 다
홍신선 있는 것 사르고
홍신선 작별(作別)
홍신선 정토사지(淨土寺趾)
홍신선 추석(秋夕)날
홍영철 구름 위의 하루
홍영철 그의 꿈
홍영철 너는 왜 열리지 않느냐
홍영철 너의 벌판을 달리는 기차
홍영철 바다 일부(一部)
홍영철 바람은 어디에서 와서
홍영철 봄밤
홍영철 사과 한 알
홍영철 새를 위한 서시(序詩)
홍영철 세상 속에서 추억 속으로
홍영철 신암동(新岩洞) 버스 정류소에 내리는 비
홍영철 어두워질 때까지
홍영철 어둠이 내리고
홍영철 우울증
홍영철 작아지는 너에게
홍영철 저녁 눈
홍영철 지금은 아무도 없으니
홍영철 툰드라를 위하여
홍영철 파란 사과
홍영철 할 수만 있다면
홍윤숙 12월의 시(詩)
홍윤숙 가고 싶다 폐허(廢墟)로 변한 거리일지라도
홍윤숙 가을 집짓기

홍윤숙 가을의 기도(祈禱)
홍윤숙 겨울 나무
홍윤숙 겨울 포플러
홍윤숙 겨울, 사랑의 일기(日記)
홍윤숙 그림자
홍윤숙 꽃들의 생애(生涯)
홍윤숙 낙엽(落葉)의 노래
홍윤숙 낙조(落照)
홍윤숙 내가 오는 가을산 눈부심을
홍윤숙 누군가 이 겨울
홍윤숙 눈물
홍윤숙 늙은 비애(悲哀)
홍윤숙 다시 삼월에 1
홍윤숙 무용(無用)한 햇살
홍윤숙 사는 법(法) 1
홍윤숙 사는 법(法) 2
홍윤숙 사는 법(法) 6
홍윤숙 사는 법(法) 7
홍윤숙 생명(生命)의 향연(饗宴)
홍윤숙 소리
홍윤숙 시(詩)의 슬픔
홍윤숙 여름 나그네
홍윤숙 여인좌상(女人坐像)
홍윤숙 우리들 시대(時代)의 아들아
홍윤숙 우리들 시대(時代)의 아들아 2
홍윤숙 원색(原色)의 회랑(廻廊)
홍윤숙 일몰(日沒)
홍윤숙 입동(立冬)
홍윤숙 저무는 10월(月) 뜰에
홍윤숙 지난 여름 야영(野營)은 1
홍윤숙 지난 여름 야영(野營)은 2
홍윤숙 지명(知命)의 겨울 1
홍윤숙 지명(知命)의 겨울 4
홍윤숙 지명(知命)의 겨울 5
홍윤숙 지치고 아픈 날에
홍윤숙 타관(他關)의 햇살
홍윤숙 파계(破戒)
홍윤숙 포도주(葡萄酒) 익어
홍윤숙 풍경
홍윤숙 풍차(風車)
홍윤숙 하나의 약속(約束)을
홍윤숙 하얀 민들레 씨
홍윤숙 하일(夏日)
홍윤숙 하지제(夏至祭)
홍윤숙 환별(歡別)
홍윤숙 황혼(黃昏)
홍윤숙 회귀(回歸)
홍해리 너를 보내고
홍해리 노을
홍해리 다시 가을에 서서
홍해리 달내강(江)에 가서
홍해리 무교동(武橋洞) 1
홍해리 무교동(武橋洞) 2
홍해리 무교동(武橋洞) 3
홍해리 바람 센 날의 기억을 위하여
홍해리 빛나는 계절
홍해리 선덕여왕(善德女王)
홍해리 선화공주(善花公主)
홍해리 아지랭이
홍해리 안개꽃
홍해리 우리들의 말
홍해리 우이동(牛耳洞)에서
홍해리 저승의 꽃밭
홍해리 지난 늦가을
홍해리 투망도(投網圖)
홍해리 헌화가(獻花歌)
홍해리 화사기(花史記)
홍희표 거꾸로 서서
홍희표 그림자꽃
홍희표 금빛 은빛
홍희표 남쪽으로 북쪽으로
홍희표 녹두새
홍희표 마음은 구겨지고
홍희표 사촌 형님
홍희표 살풀이
홍희표 세계지도
홍희표 소금바다
홍희표 신선도
홍희표 언문풍월(諺文風月)
홍희표 얼음산
홍희표 역학(易學)풀이
홍희표 이여라아 차아
홍희표 춘치자명(春雉自鳴)
홍희표 통행금지
홍희표 품바 · 두 마디
홍희표 품바 · 세 마디
홍희표 품바 · 한 마디
홍희표 한배검나라
홍희표 한울님
황근식 4월의 밤에
황근식 개구리밥
황근식 갯메꽃
황근식 겨울 기행 75
황근식 겨울 기행 79
황근식 나팔꽃
황근식 논 게

황근식 메뚜기
황근식 사모곡(思慕曲) I
황근식 쇠비름
황근식 수숫대의 꿈
황근식 어머니
황근식 엉겅퀴꽃
황근식 을숙도
황근식 저문 들녘에서
황근식 칼질
황근식 투서
황근식 표정
황근식 풍선
황근식 하루살이
황금찬 5월의 나무
황금찬 가을의 시
황금찬 거룩한 밤에
황금찬 겨울 유리창
황금찬 고려 청자기 1
황금찬 고향으로 돌아가리
황금찬 깊은 강
황금찬 꿈에는 날개가 있다
황금찬 나는 무슨 악기일까
황금찬 나비의 위령제
황금찬 내게 날개가 있다면
황금찬 누가 울고 있다
황금찬 단오
황금찬 대인부(待人賦)
황금찬 로우터리의 나비
황금찬 매화에 붙이는 편지
황금찬 묘지
황금찬 무등산
황금찬 물 마시는 사람
황금찬 미묘한 음파
황금찬 바느질하는 손
황금찬 바다의 순종
황금찬 밤비 소리
황금찬 백운대를 보며
황금찬 분수(噴水)
황금찬 빛의 사람들
황금찬 사랑의 날개
황금찬 산새
황금찬 삼십오년
황금찬 새벽에
황금찬 설화(雪花)
황금찬 수목을 보며
황금찬 아직도 먼 길
황금찬 아침
황금찬 아침 기도
황금찬 어느 나무의 사연
황금찬 어느 초상화
황금찬 연초밭 머리에 서면
황금찬 오늘에 앉아서
황금찬 이십원짜리 세계
황금찬 출렁거리고 있다
황금찬 탈출자 4
황금찬 퇴근 길에서
황금찬 피리를 불면
황금찬 한 알의 밀
황금찬 허공
황금찬 현장
황금찬 흙
황동규 겨울 바다
황동규 겨울 항구(港口)에서
황동규 겨울에서 봄으로
황동규 겨울의 빛
황동규 견딜 수 없이 가벼운 존재들
황동규 계엄령 속의 눈
황동규 기도(祈禱)
황동규 기항지(寄港地) 1
황동규 기항지(寄港地) 2
황동규 꽃이 질 때
황동규 꿈꽃
황동규 나는 바퀴를 보면 굴리고 싶어진다
황동규 낙법(落法)
황동규 네 개의 황혼(黃昏)
황동규 논 1
황동규 눈 감고 섬진강을 건너다
황동규 눈 내리는 포구
황동규 뉴욕 일기 1
황동규 다산초당(茶山草堂)
황동규 도주기(逃走記)
황동규 돌을 주제(主題)로 한 다섯 번의 흔들림
황동규 들기러기
황동규 따로따로 그러나 모여 서서
황동규 런던 박물관에서
황동규 몰운대행(沒雲臺行)
황동규 밤에 내리는 비
황동규 봄날에
황동규 봄밤
황동규 북해(北海)
황동규 비가(悲歌)
황동규 비가(悲歌)
황동규 비가(悲歌)
황동규 비가(悲歌)

황동규 비가(悲歌)
황동규 비가(悲歌)
황동규 비린 사랑노래 1
황동규 사랑의 뿌리
황동규 삼남(三南)에 내리는 눈
황동규 새
황동규 새벽 빛
황동규 세 줌의 흙
황동규 소곡(小曲) 1
황동규 소곡(小曲) 2
황동규 소곡(小曲) 3
황동규 수화(手話)
황동규 시월(十月)
황동규 시인은 어렵게 살아야 1
황동규 신초사(新楚辭)
황동규 아이오와 일기(日記) 1
황동규 악어를 조심하라고?
황동규 어느 조그만 가을날
황동규 어떤 개인 날
황동규 얼음의 비밀(秘密)
황동규 연등(燃燈)
황동규 열하일기(熱河日記) 1
황동규 열하일기(熱河日記) 2
황동규 열하일기(熱河日記) 9
황동규 오어사(吾魚寺)에 가서 원효를 만나다
황동규 외지(外地)에서 1
황동규 외지(外地)에서 3
황동규 외지(外地)에서 4
황동규 우리는 수상한 아이들
황동규 이른 눈
황동규 이백(李白) 주제에 의한 일곱 개의 변주곡
황동규 입술들
황동규 장마 때 참새 되기
황동규 전봉준(全琫準)
황동규 정감록 주제(主題)에 의한 다섯 개의 변주
황동규 조그만 사랑노래
황동규 즐거운 편지
황동규 지붕에 오르기
황동규 철새
황동규 청령포
황동규 초가(楚歌)
황동규 태평가(太平歌)
황동규 풍장(風葬) 1
황동규 풍장(風葬) 15
황동규 풍장(風葬) 16
황동규 풍장(風葬) 17
황동규 풍장(風葬) 2
황동규 풍장(風葬) 20
황동규 풍장(風葬) 21
황동규 풍장(風葬) 3
황동규 풍장(風葬) 36
황동규 풍장(風葬) 4
황동규 풍장(風葬) 40
황동규 풍장(風葬) 44
황동규 풍장(風葬) 7
황동규 허균(許筠) 1
황동규 혼(魂)없는 자(者)의 혼 노래 1
황명 각서(覺書)
황명 고목송(古木頌)
황명 귀의(歸依)
황명 내 어느 날엔
황명 눈오는 날에
황명 밤·구도(構圖)
황명 백두파(白頭波)
황명 분수(噴水)
황명 분수(噴水) 1
황명 분수(噴水) 4
황명 분수(噴水) 5
황명 분수(噴水) 6
황명 상황(狀況) I
황명 세상은 뜻밖에
황명 소리가 일어서는 아침에
황명 시장(市場)에 서면
황명 아침을 향할 때
황명 악수
황명 안경을 닦으며
황명 연륜(年輪)
황명 탑(塔)
황명 푸른 아침에
황명 풍경초(風景抄)
황명 해바라기 단상(斷想)
황석우 가지와 잎파리들
황석우 꽃 향기(香氣)
황석우 낙엽(落葉)
황석우 달뚜껑
황석우 별들아 일어나거라
황석우 봄날의 미풍(微風)
황석우 불의 우주(宇宙)
황석우 비
황석우 사계(四季)의 바람
황석우 사계탄금(四季彈琴)
황석우 사랑의 성모(聖母)

황석우 싹
황석우 아침 노을
황석우 아침 이슬에 젖은 꽃들
황석우 잎[葉] 우의 아침이슬
황석우 태양(太陽)이 가지고 있는 공장(工場)
황석우 태양계(太陽系)
황석우 태양계(太陽系), 지구(地球)
황석우 하늘 가운데의 말
황석우 허공(虛空)을 메꾸는 계획(計劃)
황순원 가두(街頭)로 울며 헤매는 자(者)여
황순원 강(强)한 여성(女性)
황순원 고향(故鄕)의 품에 안겨서
황순원 꺼진 등대(燈臺)에 불을 켜자
황순원 나의 꿈
황순원 나의 노래
황순원 넋 잃은 그의 앞 가슴을 향하여 힘있게 활줄을 당겨라
황순원 늙은 아버지를 보내며
황순원 동무여 더 한층 의지(意志)가 굳세라
황순원 떨어지는 이날의 태양(太陽)은
황순원 미래(未來)에 사는 사나이
황순원 사막(砂漠)을 횡단(橫斷)하는 사나이
황순원 석별(惜別)
황순원 압록강(鴨綠江)의 밤이어
황순원 우리 안에 든 독수리
황순원 우리의 가슴은 위대하나니
황순원 우주(宇宙)를 향하여 호령 하나니
황순원 이역(異域)에서 부른 노래
황순원 일구삼삼년(一九三三年)의 차륜(車輪)
황순원 임아! 옛사랑으로 돌아오라
황순원 잡초(雜草)
황순원 젊은이여
황순원 젊은이의 노래
황순원 팔월(八月)의 노래
황순원 패강(浿江)의 우수(憂愁)에 눈물을 짓지 마라
황순원 황해(荒海)를 건너는 사공아
황순원 황혼(黃昏)의 노래
황지우 12월
황지우 12월의 숲
황지우 1983년/말뚝이/발설
황지우 95 청량리—서울대
황지우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
황지우 구반포 상가를 걸어가는 낙타
황지우 구사일생(九死一生)
황지우 근황(近況)
황지우 꽃말
황지우 꽃피는, 삼천리 금수강산
황지우 나의 누드
황지우 내 마음의 개마고원
황지우 너를 기다리는 동안
황지우 눈보라
황지우 동사(動詞)
황지우 동일방직을 지나며
황지우 똥개의 아름다운 갈색 눈동자
황지우 레이다를 빠져나간 새
황지우 마음의 지도(地圖) 속 별자리
황지우 마침내, 그 40대 남자도
황지우 메아리를 위한 각서(覺書)
황지우 목마와 딸
황지우 바퀴벌레는 바퀴가 없다
황지우 박쥐
황지우 버라이어티 쇼, 1984
황지우 벽·3
황지우 부재(不在)
황지우 비오는 날, 유년(幼年)의 느티나무
황지우 산경(山經)을 덮으면서
황지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황지우 샌드 페이퍼
황지우 샛별
황지우 서벌(徐伐), 셔블, 셔?, 서울, SEOUL
황지우 솔섬
황지우 수기(手旗)를 흔들며
황지우 수평선(水平線)
황지우 숙자는 남편이 야속해
황지우 쉬어 가는 곳
황지우 심인
황지우 아내의 편지
황지우 어디로 가면 개마고원이 나오는 거유?
황지우 어머니
황지우 여정(旅程)
황지우 연혁(沿革)
황지우 오늘 오후 5시 30분 일제히 쥐(붉은 글씨)를 잡읍시다.
황지우 오늘날, 잠언(箴言)의 바다 위

를 나는
황지우 윤상원로(尹常源路)
황지우 잠든 식구들을 보며
황지우 전령의 외로운 길
황지우 제1한강교에 날아든 갈매기
황지우 종로, 어느 분식점에서 아우와
점심을 하며
황지우 죽기 아니면 사랑하기뿐
황지우 지복한 틈
황지우 초로(草露)와 같이
황지우 파란만장
황지우 표적
황지우 호남의수족관(湖南義手足館)
황지우 활엽수림에서
황지우 흔적 Ⅲ · 1980(5.18×5.27cm)
이영호작(李暎浩作)

○ 담당 연구원 : 이준석 (어문규범연구부)

신어의 조사 연구

1996년 12월 26일 인쇄
1996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송 민
발행처 국립국어연구원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5-1 번지
전 화 779-4814 / 전송 779-4819

인 쇄 유 창 인 쇄 사
전화 274-6845